# 꾸란

영어 합성역의 한국어 번역

Zia H. Shah, MD

# 머리말

이 번역은 영광스러운 꾸란을 읽으며 보낸 한평생의 열매이며, 감히 이 일을 시도할 용기도 그 오랜 벗함에서 나왔습니다.

아이작 뉴턴처럼 저도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여든 종이 넘는 현존 영어 꾸란 번역의 장점들을 길어 왔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옮기면서, 널리 알려지고 널리 읽히는 다른 번역자들, 세 사람만 들자면 M. A. S. 압델 할림, 무함마드 아사드, 무함마드 마머듀크 픽솔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리지 않았다고 양심에 비추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절들을 묶어 단락을 만드는 방식에서는, 극히 적은 예외를 빼고 거의 전적으로 M. A. S. 압델 할림을 따랐습니다.

이 번역의 한 가지 강점은 현대 미국 영어로 쓰였다는 점입니다. 옛 번역들의 "thee"와 "thou"는 아무리 유서 깊다 해도 이제는 독자와 본문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신, 독자들이, 특히 젊은 독자들이 실제로 쓰는 쉽고 살아 있는 말로 꾸란이 말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온전히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한 가지 고백도 해야겠습니다. 우르두어는 저의 모국어이며, 저는 평생에 걸쳐 상당한 아랍어 어휘를 익혔습니다. 그러나 아랍어 문법에 대한 저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한계가 수많은 영어 번역과 우르두어 번역을 참조함으로써 넉넉히 메워졌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제가 평생에 걸친 과학 공부를 꾸란 이해에 들여온다는 점입니다. 참되고 진정한 과학적 통찰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비밀이었던 것은 하나도 없으며, 그분의 말씀 그대로가 여러 방식으로 그 사실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번역 자체에 과학을 억지로 밀어 넣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각주의 주석으로 짧은 통찰들을 계속 덧붙여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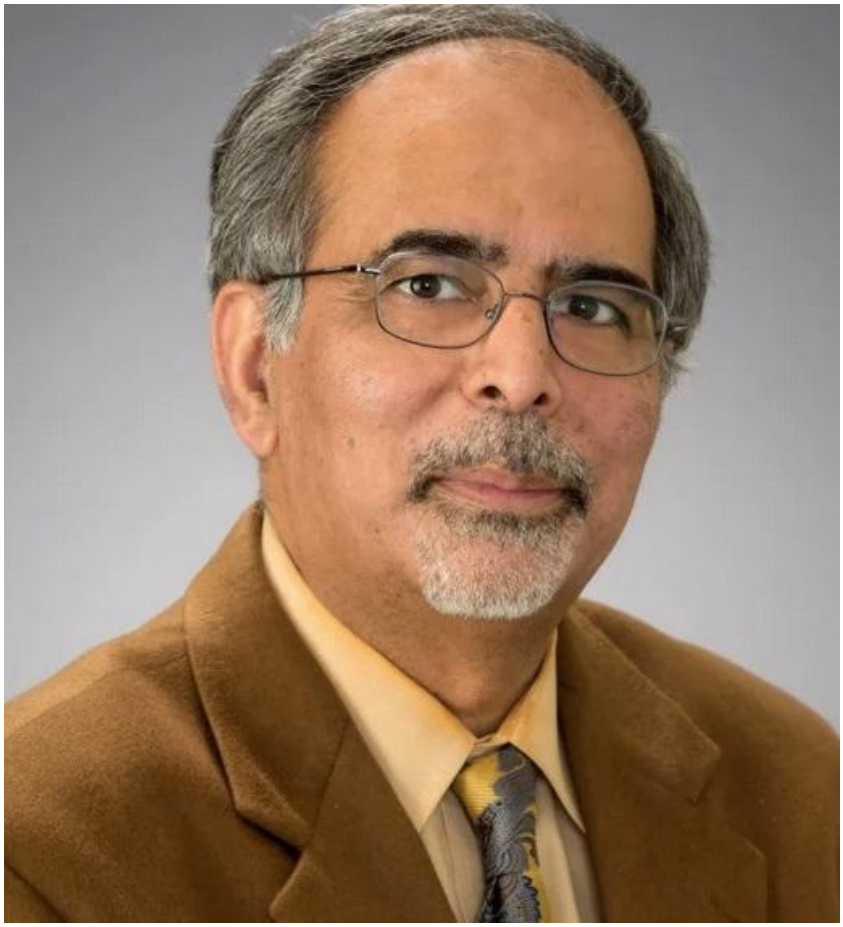
이 번역이 여러분께 덜 익명의 것이 되도록 제 사진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널리 알려진 수많은 다른 번역들과 나란히 이 번역도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번역은 곧 널리 쓰이는 다른 32 개 언어로 번역될 것입니다.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우크라이나어, 체코어, 그리스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핀란드어, 루마니아어, 헝가리어, 튀르키예어, 히브리어, 페르시아어(파르시), 우르두어, 힌디어, 벵골어, 펀자브어, 중국어(간체와 번체), 일본어,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베트남어, 태국어, 그리고 필리핀어(타갈로그어)입니다.

영어 번역은 제가 한 것이며, 다른 모든 번역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저의 영어 번역을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 의문이 들 때에는 언제든지 아랍어 원문이나 저의 영어 번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번역은 거의 날마다, 다른 번역들은 달마다 고치고 다듬어 나갈 것입니다. 인샤알라.

그리고 여러분은 워드 파일을 사용하여 이 번역을 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 나가기 위해 여러분 자신의 주석을 덧붙이실 수 있습니다.



Zia H Shah MD: 뉴욕주 북부에서 진료하는 호흡기내과 및 수면장애 전문의

# 차례

## 차례

머리말 ..... 2

차례 ..... 5

1. 여는 장 (Al-Fātiḥa) ..... 10

2. 암소 (Al-Baqara) ..... 11

3. 이므란 집안 (Āl ʿImrān) ..... 37

4. 여인들 (Al-Nisāʾ) ..... 52

5. 식탁 (Al-Māʾida) ..... 67

6. 가축 (Al-Anʿām) ..... 79

7. 높은 곳 (Al-Aʿrāf) ..... 92

8. 전리품 (Al-Anfāl) ..... 107

9. 뉘우침 (Al-Tawba) ..... 113

10. 유누스 (Yūnus) ..... 124

11. 후드 (Hūd) ..... 132

12. 유수프 (Yūsuf) ..... 140

13. 천둥 (Al-Raʿd) ..... 148

14. 이브라힘 (Ibrāhīm) ..... 152

15. 히즈르 (Al-Ḥijr) ..... 156

16. 꿀벌 (Al-Naḥl) ..... 159

17. 밤의 여행 (Al-Isrāʾ) ..... 167

18. 동굴 (Al-Kahf) ..... 174

19. 마르얌 (Maryam) ..... 181

20. 따 하 (Ṭā Hā) ..... 186

21. 예언자들 (Al-Anbiyāʾ) ..... 192

22. 순례 (Al-Ḥajj) ..... 198
23. 믿는 자들 (Al-Muʾminūn) ..... 204
24. 빛 (Al-Nūr) ..... 209
25. 분별의 기준 (Al-Furqān) ..... 215
26. 시인들 (Al-Shuʿarāʾ) ..... 220
27. 개미 (Al-Naml) ..... 226
28. 이야기 (Al-Qaṣaṣ) ..... 231
29. 거미 (Al-ʿAnkabūt) ..... 237
30. 로마인들 (Al-Rūm) ..... 242
31. 루끄만 (Luqmān) ..... 246
32. 엎드려 절함 (Al-Sajda) ..... 249
33. 연합군 (Al-Aḥzāb) ..... 251
34. 사바 (Sabaʾ) ..... 257
35. 처음 지으시는 분 (Fāṭir) ..... 261
36. 야 신 (Yā Sīn) ..... 265
37. 줄지어 늘어선 이들 (Al-Ṣāffāt) ..... 269
38. 사드 (Ṣād) ..... 273
39. 무리들 (Al-Zumar) ..... 277
40. 용서하시는 분 (Ghāfir) ..... 283
41. 자세히 밝혀짐 (Fuṣṣilat) ..... 289
42. 협의 (Al-Shūrā) ..... 293
43. 금 장식 (Al-Zukhruf) ..... 297
44. 연기 (Al-Dukhān) ..... 301
45. 무릎 꿇음 (Al-Jāthiya) ..... 303
46. 모래 언덕 (Al-Aḥqāf) ..... 306
47. 무함마드 (Muḥammad) ..... 309
48. 승리 (Al-Fatḥ) ..... 312
49. 방들 (Al-Ḥujurāt) ..... 315
50. 까프 (Qāf) ..... 317
51. 흩뿌리는 바람 (Al-Dhāriyāt) ..... 319
52. 산 (Al-Ṭūr) ..... 321

53. 별 (Al-Najm) ..... 323
54. 달 (Al-Qamar) ..... 325
55. 자비로우신 분 (Al-Raḥmān) ..... 327
56. 피할 수 없는 일 (Al-Wāqiʿa) ..... 329
57. 쇠 (Al-Ḥadīd) ..... 331
58. 하소연하는 여인 (Al-Mujādila) ..... 334
59. 모음 (Al-Ḥashr) ..... 337
60. 시험받는 여인 (Al-Mumtaḥana) ..... 339
61. 줄지어 섬 (Al-Ṣaff) ..... 341
62. 모임의 날 (Al-Jumuʿa) ..... 342
63. 위선자들 (Al-Munāfiqūn) ..... 343
64. 서로 잃고 얻음 (Al-Taghābun) ..... 344
65. 이혼 (Al-Ṭalāq) ..... 346
66. 금함 (Al-Taḥrīm) ..... 348
67. 통치권 (Al-Mulk) ..... 350
68. 붓 (Al-Qalam) ..... 352
69. 피할 수 없는 시각 (Al-Ḥāqqa) ..... 354
70. 오르는 길들 (Al-Maʿārij) ..... 356
71. 누흐 (Nūḥ) ..... 357
72. 진 (Al-Jinn) ..... 359
73. 옷으로 몸을 감싼 이 (Al-Muzzammil) ..... 361
74. 겉옷으로 몸을 감싼 이 (Al-Muddaththir) ..... 362
75. 부활 (Al-Qiyāma) ..... 364
76. 인간 (Al-Insān) ..... 365
77. 보내지는 것들 (Al-Mursalāt) ..... 367
78. 큰 소식 (Al-Nabaʾ) ..... 368
79. 뽑아내는 이들 (Al-Nāziʿāt) ..... 369
80. 얼굴을 찌푸렸다 (ʿAbasa) ..... 370
81. 감겨 어두워짐 (Al-Takwīr) ..... 371
82. 쪼개짐 (Al-Infiṭār) ..... 372
83. 되를 속이는 자들 (Al-Muṭaffifīn) ..... 373

84. 갈라짐 (Al-Inshiqāq) ..... 374
85. 별자리들 (Al-Burūj) ..... 375
86. 밤에 찾아오는 것 (Al-Ṭāriq) ..... 376
87. 가장 높으신 분 (Al-Aʿlā) ..... 377
88. 뒤덮는 일 (Al-Ghāshiya) ..... 378
89. 새벽 (Al-Fajr) ..... 379
90. 도시 (Al-Balad) ..... 380
91. 해 (Al-Shams) ..... 381
92. 밤 (Al-Layl) ..... 382
93. 아침 햇살 (Al-Ḍuḥā) ..... 383
94. 가슴을 열어 줌 (Al-Sharḥ) ..... 384
95. 무화과 (Al-Tīn) ..... 385
96. 매달린 것 (Al-ʿAlaq) ..... 386
97. 영광의 밤 (Al-Qadr) ..... 387
98. 분명한 증거 (Al-Bayyina) ..... 388
99. 진동 (Al-Zalzala) ..... 389
100. 내달리는 말들 (Al-ʿĀdiyāt) ..... 390
101. 내리치는 재앙 (Al-Qāriʿa) ..... 391
102. 더 많이 가지려는 다툼 (Al-Takāthur) ..... 392
103. 기우는 시간 (Al-ʿAṣr) ..... 393
104. 헐뜯는 자 (Al-Humaza) ..... 394
105. 코끼리 (Al-Fīl) ..... 395
106. 꾸라이시 (Quraysh) ..... 396
107. 작은 도움 (Al-Māʿūn) ..... 397
108. 넘치는 은혜 (Al-Kawthar) ..... 398
109.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 (Al-Kāfirūn) ..... 399
110. 도우심 (Al-Naṣr) ..... 400
111. 대추야자 섬유 (Al-Masad) ..... 401
112. 순수한 믿음 (Al-Ikhlāṣ) ..... 402
113. 밝아 오는 새벽 (Al-Falaq) ..... 403
114. 사람들 (Al-Nās) ..... 404

# 1. 여는 장 (Al-Fātiḥa)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찬미는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분, 심판의 날의 주재자이시다. 우리는 오직 당신만을 섬기고, 오직 당신께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를 곧은 길로 인도하소서. 당신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들의 길로, 노여움을 산 자들의 길도 아니고 길을 잃은 자들의 길도 아닌 그 길로. (1–7)

# 2. 암소 (Al-Baqara)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리프 람 밈. (1)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성서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한 인도이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예배를 지키며, 우리가 그들에게 베푼 것 가운데서 베푸는 자들이다. 또 (예언자여) 너에게 내려진 것과 너 이전에 내려진 것을 믿고, 내세를 굳게 확신하는 자들이다. 이들이야말로 자기 주님에게서 온 인도 위에 서 있는 자들이며, 이들이야말로 번영할 자들이다.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네가 경고하든 경고하지 않든 마찬가지여서, 그들은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귀를 봉하셨고, 그들의 눈에는 가리개가 덮여 있다. 엄청난 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2–7)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는다." 하고 말하지만 실은 조금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믿는 자들을 속이려 하지만, 속이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의 마음에는 병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병이 깊어지게 두셨다. 그들이 거짓말을 일삼아 온 까닭에 고통스러운 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땅에 부패를 퍼뜨리지 말라." 하는 말을 들으면 그들은 "우리는 바로잡고 있을 뿐이다." 하고 말한다. 참으로 그들이야말로 부패를 퍼뜨리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믿은 것처럼 믿으라." 하는 말을 들으면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믿는 것처럼 우리도 믿으란 말인가?" 하고 말한다. 참으로 그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믿는 자들을 만나면 "우리는 믿는다." 하고 말하지만, 악한 동료들과 따로 있게 되면 "우리는 너희 편이다. 우리는 다만 조롱했을 뿐이다." 하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롱을 그들 자신에게 되돌리시고, 그들이 거역 속에서 눈먼 채 헤매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들은 인도를 주고 미혹을 산 자들이다. 그들의 거래는 아무 이익도 가져다주지 못했고, 그들은 길을 찾지 못했다. 그들의 비유는 불을 피운 사람과 같다. 불이 그 주위를 온통 밝히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을 거두어 가시고 그들을 겹겹의 어둠 속에 버려두시니, 그들은 보지 못한다. 귀먹고 말 못 하고 눈멀어, 그들은 돌아오지 못한다. 또는 어둠과 천둥과 번개를 가득 품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먹구름과 같다.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 벼락 소리에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는 자들을 사방에서 에워싸고 계신다. 번개는 그들의 시력을 거의 앗아 갈 듯하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그들은 그 빛 속에서 걸어가고, 어둠이 덮이면 멈추어 선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들의 청각과 시각을 거두어 가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8–20)

사람들아, 너희와 너희 이전의 사람들을 창조하신 너희 주님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그분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위해 땅을 쉴 자리로, 하늘을 덮개로 만드시고, 하늘에서 물을 내리시어 그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너희의 양식으로 삼으신 분이다. 그러니 너희가 잘 알면서 하나님께 맞서는 것을 세우지 말라. 우리가 우리의 종에게 내린 것에 대해 너희가 의심한다면, 그와 같은 장 하나라도 가져와 보라. 그리고 하나님 말고 너희의 증인들을 불러 보라. 너희가 진실하다면.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결코 하지 못할 것이니, 사람과 돌을 땔감으로 하는 불지옥을 조심하라. 그것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21–24)

믿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들에게는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낙원이 있다. 그곳에서 양식으로 열매를 받을 때마다 그들은 "이것은 우리가 전에 받았던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와 닮은 것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정결한 배우자들을 얻고, 그곳에서 영원히 머문다.[1] (25)

하나님께서는 모기나 그보다 더한 것으로 비유를 드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믿는 자들은 그것이 자기 주님에게서 온 진리임을 안다. 그러나 부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이런 비유로 무엇을 뜻하시는가?" 하고 묻는다. 그분은 그것으로 많은 이를 미혹에 버려두시고, 그것으로 많은 이를 인도하신다. 그러나 그것으로 미혹에 버려두시는 것은 고집스레 거역하는 자들뿐이다. 그들은 굳게 맺은 뒤에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이으라고 명하신 것을 끊으며, 땅에 부패를 퍼뜨리는 자들이다. 그들이야말로 잃는 자들이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가? 너희는 생명이 없었는데 그분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너희를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며, 그런 다음 너희는 그분께로 돌아가게 된다. 그분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 창조하신 분이다. 그런 다음 하늘로 뜻을 향하시어 그것을 일곱 하늘로 정돈하셨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26–29)

(예언자여) 너의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나는 땅에 대리자를 두려 한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말했다. "당신께서는 그곳에서 부패를 퍼뜨리고 피를 흘릴 자를 두려 하십니까? 저희는 당신을 찬미하며 찬양하고 당신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분은 아담에게 이름들을, 그 모두를 가르치셨다. 그런 다음 그것들을 천사들 앞에 내놓으시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진실하다면 이것들의 이름을 나에게 말해 보라." 그들이 말했다.

[1] 이 구절은 낙원이 어떤 의미에서는 물질적인 것이며, 우리의 지금 세상과 비슷하고, 단지 영적인 것만은 아님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당신께 영광이 있기를! 저희는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것 말고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당신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아담아, 그들에게 그 이름들을 알려 주어라." 그가 그 이름들을 알려 주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과 땅의 숨겨진 것을 알고, 너희가 드러내는 것과 감추어 온 것을 안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30–33)

우리가 천사들에게 "아담 앞에 엎드리라." 하고 말했을 때, 그들은 엎드렸다. 그러나 이블리스만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거부하고 교만해져서 부정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말했다. "아담아, 너와 네 아내는 이 동산에 살면서, 어디든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이 나무에는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면 너희 둘은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자 사탄이 그들을 그곳에서 미끄러지게 하여, 그들이 있던 상태에서 끌어내었다. 우리가 말했다. "내려가라. 너희는 서로에게 적이다. 땅에는 한동안 너희가 머물 곳과 양식이 있을 것이다." 그 뒤 아담은 자기 주님에게서 말씀을 받았고, 그분은 자비로 그에게 돌아오셨다. 그분은 뉘우침을 잘 받아 주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우리가 말했다. "너희 모두 여기서 내려가라. 나에게서 인도가 너희에게 이를 때, 나의 인도를 따르는 자는 두려움도 없고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하고 우리의 징표를 거짓이라 하는 자들, 그들은 불지옥의 주민이며 그곳에 머물 것이다." (34–39)

이스라엘 자손아,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 나와 맺은 계약을 지키라. 그러면 나도 너희와 맺은 계약을 지킬 것이다. 오직 나만을 두려워하라. 너희에게 이미 있는 것을 확증하며 내가 내린 것을 믿고, 그것을 가장 먼저 부정하는 자가 되지 말라. 나의 징표를 하찮은 값에 팔지 말고, 오직 나만을 경외하라. 진리에 거짓의 옷을 입히지 말고, 알면서 진리를 감추지 말라. 예배를 지키고, 정해진 희사를 바치며, 허리 숙이는 자들과 함께 허리를 숙이라. 너희는 성서를 낭송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로움을 권하고 너희 자신은 잊는가? 너희는 이성을 쓰지 않는가? 인내와 예배로 도움을 구하라. 참으로 그것은 무거운 일이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자기 주님을 만나리라는 것과 그분께로 돌아가리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다. (40–46)

이스라엘 자손아,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와, 내가 너희를 다른 모든 민족보다 낫게 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어떤 영혼도 다른 영혼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중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몸값도 받지 않고,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날을 조심하라. 또 우리가 너희를 파라오의 백성에게서 구해 낸 때를 기억하라. 그들은 너희 아들들을 죽이고 여자들은 살려 두면서 너희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었다. 거기에는 너희 주님에게서 온 큰 시련이 있었다. 또 우리가 너희를 위해 바다를 가르고 너희를

구하였으며, 너희가 지켜보는 가운데 파라오의 백성을 물에 빠뜨린 때를 기억하라. 또 우리가 무사와 사십 밤을 약속한 때를 기억하라. 그런데 그가 없는 사이에 너희는 송아지를 섬겨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도 그 뒤에 우리는 너희를 용서하였으니, 너희가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47–52)

또 우리가 무사에게 성서와 분별의 기준을 준 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인도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무사가 자기 백성에게 말한 때를 기억하라. "나의 백성이여, 너희는 송아지를 섬김으로써 너희 자신에게 불의를 행하였다. 그러니 너희를 지으신 분께 뉘우치며 돌아가고, 너희 자신을 죽이라. 그것이 너희를 지으신 분 앞에서 너희에게 더 좋다." 그러자 그분은 자비로 너희에게 돌아오셨다. 그분은 뉘우침을 잘 받아 주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또 너희가 "무사여,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분명히 보기 전에는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너희가 지켜보는 가운데 벼락이 너희를 덮쳤다. 그런 다음 우리는 너희가 죽은 뒤에 너희를 다시 일으켰으니, 너희가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우리는 구름으로 너희에게 그늘을 드리우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에게 내려 주었다. "우리가 너희에게 베푼 좋은 것들을 먹으라." 그들은 우리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게 불의를 행하였다. (53–57)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한 때를 기억하라. "이 고을에 들어가 어디든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먹으라. 겸손히 몸을 숙이고 성문으로 들어가며 '저희의 짐을 덜어 주소서.' 하고 말하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더 많이 줄 것이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말을 다른 말로 바꾸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고집스레 거역한 까닭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재앙을 내렸다. (58–59)

또 무사가 자기 백성을 위해 물을 청했을 때, 우리가 말했다. "네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그러자 거기에서 열두 샘이 솟아 나왔고, 지파마다 자기가 마실 곳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고 마시되, 부패를 퍼뜨리며 땅을 돌아다니지 말라." 또 너희가 이렇게 말한 때를 기억하라. "무사여, 우리는 한 가지 음식만으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당신의 주님께 청하여, 땅에서 나는 것들, 곧 채소와 오이와 마늘과 편두와 양파를 내어 주시게 해 주십시오." 그가 말했다. "너희는 더 좋은 것을 더 못한 것과 바꾸려 하는가? 어느 고을로든 내려가라. 거기에 너희가 청한 것이 있을 것이다." 굴욕과 비참함이 그들에게 찍혔고, 그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자초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징표를 줄곧 부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예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이 거역하고 줄곧 한계를 넘었기 때문이다. (60–61)

참으로 믿는 자들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사비아인이든, 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고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주님 곁에 보상이 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없고, 그들은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2] (62)

또 우리가 너희의 계약을 받고 너희 위로 산을 들어 올린 때를 기억하라. "우리가 너희에게 준 것을 굳게 붙들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너희는 등을 돌렸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없었더라면, 너희는 틀림없이 잃는 자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안식일의 일로 한계를 넘은 자들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멸시받는 원숭이가 되라."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것을 그 시대와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한 본보기의 징벌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한 훈계로 삼았다. (63–66)

또 무사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암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신다." 하고 말했을 때, 그들이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놀리는 것입니까?" 그가 말했다. "나는 그런 무지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보호를 구한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주님께 청하여, 그것이 어떤 소인지 우리에게 밝혀 주시게 해 주십시오." 그가 말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늙지도 않고 어리지도 않은, 그 둘 사이 나이의 암소라고 하신다. 그러니 명령받은 대로 하라." 그들이 말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주님께 청하여, 그 빛깔이 어떤지 우리에게 밝혀 주시게 해 주십시오." 그가 말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빛깔이 선명한 누런 암소로서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한다고 하신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주님께 청하여, 그것이 어떤 소인지 우리에게 밝혀 주시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소들이 다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땅을 갈거나 밭에 물을 대는 일에 길들지 않은 암소로서, 온전하고 아무 흠이 없다고 하신다." 그들이 말했다. "이제야 당신이 진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것을 제물로 바쳤으나, 거의 그렇게 하지 않을 뻔하였다. 또 너희가 한 사람을 죽이고 그 일로 서로 다투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숨기고 있던 것을 드러내려 하셨다. 우리가 말했다. "그 암소의 한 부분으로 그를 치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너희에게 당신의 징표를 보이시니, 너희가 이성을 쓰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 뒤에 너희의 마음은 굳어져 바위처럼, 아니 그보다 더 단단해졌다. 바위 가운데에는 강물이 솟아 나오는 것도 있고, 갈라져서 물이 나오는

[2] 이 중요한 구절은 이슬람의 다원주의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것도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굴러떨어지는 것도 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일을 모르고 계시지 않는다. (67–74)

(믿는 자들이여) 너희는 그들이 너희를 믿으리라고 기대하는가? 그들 가운데 한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한 뒤에도 알면서 그것을 왜곡하곤 했는데 말이다. 그들은 믿는 자들을 만나면 "우리는 믿는다." 하고 말하지만, 자기들끼리만 있게 되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밝혀 주신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어, 그들이 너희 주님 앞에서 그것으로 너희와 논쟁하게 하려는가? 너희는 분별이 없는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감추는 것과 드러내는 것을 아신다는 것을 모르는가? 그들 가운데에는 글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서, 헛된 바람 말고는 성서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그들은 다만 짐작할 뿐이다. 그러니 자기 손으로 성서를 써 놓고는 하찮은 값에 팔려고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하고 말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손이 쓴 것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있고, 그들이 벌어들이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불지옥은 손꼽을 만한 며칠 말고는 우리에게 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말하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약속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 아니면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악을 벌어들이고 자기 죄에 에워싸인 자, 이들은 불지옥의 주민이며 그곳에 머물 것이다. 그러나 믿고 선을 행하는 자들, 이들은 낙원의 주민이며 그곳에 머물 것이다. (75–82)

또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의 계약을 받은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 부모와 친족에게, 고아와 궁핍한 이들에게 잘하라.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라. 예배를 지키고 정해진 희사를 바치라." 그런데 너희는 몇 사람만 빼고 등을 돌렸고, 지금도 외면하고 있다. 또 우리가 너희의 계약을 받은 때를 기억하라. "서로 피를 흘리지 말고, 서로를 집에서 쫓아내지 말라." 너희는 그것을 확인하였고, 너희 자신이 그 증인이다. 그런데 여기 너희는 서로를 죽이고, 너희 가운데 한 무리를 그들의 집에서 쫓아내며, 죄와 적의로 그들을 거슬러 서로 돕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포로가 되어 너희에게 오면 몸값을 치르고 그들을 되찾는다. 그들을 쫓아내는 것부터가 너희에게 금지되어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성서의 일부는 믿고 나머지는 부정하는가? 너희 가운데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돌아갈 보응은 현세의 삶에서의 치욕 말고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부활의 날에 그들은 가장 혹독한 징벌로 넘겨질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일을 모르고 계시지 않는다. 이들은 내세를 주고 현세의 삶을 산 자들이다. 그들의 징벌은 가벼워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다. (83–86)

우리는 무사에게 성서를 주었고, 그의 뒤를 이어 사도들을 잇달아 보냈다. 우리는 마르얌의 아들 이사에게 분명한 증거들을 주고, 거룩한 영으로 그를 굳세게 하였다. 그런데 사도가 너희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올 때마다 너희는 교만해져서, 어떤 이들은 거짓말쟁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죽이지 않았는가? 그들은 "우리의 마음은 싸여 있다." 하고 말한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정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셨으니, 그들은 참으로 조금밖에 믿지 않는다. 그들에게 있는 것을 확증하는 성서가 하나님에게서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전에는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이기게 해 달라고 기도해 왔으면서도, 자기들이 알아본 그것이 오자 그것을 부정하였다. 그러니 하나님의 저주가 부정하는 자들 위에 있다. 그들이 자기 영혼을 팔아 얻은 것은 참으로 나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 가운데 원하시는 이에게 은총을 내리시는 것을 시기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을 부정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노여움 위에 노여움을 자초하였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굴욕의 징벌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을 믿으라." 하는 말을 들으면 그들은 "우리는 우리에게 내려진 것을 믿는다." 하고 말하며, 그 뒤에 온 것은 부정한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확증하는 진리인데도 말이다. 말하라, "너희가 믿는 자들이었다면, 어찌하여 전에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였는가?" 무사가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너희에게 왔는데도, 그가 없는 사이에 너희는 송아지를 섬겨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었다. (87–92)

또 우리가 너희의 계약을 받고 너희 위로 산을 들어 올린 때를 기억하라. "우리가 너희에게 준 것을 굳게 붙들고, 들으라."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듣고, 거역한다." 그들의 부정 때문에 송아지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말하라, "너희가 믿는 자들이라면, 너희의 믿음이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참으로 나쁘다." 말하라, "하나님 곁의 마지막 거처가 다른 사람들은 빼고 오직 너희만의 것이라면, 죽음을 바라 보라. 너희가 진실하다면." 그러나 그들은 자기 손이 앞서 보낸 것 때문에 결코 그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잘 아신다. 너는 그들이 모든 사람 가운데 삶에 가장 탐욕스러운 자들임을,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는 자들보다도 더 그러함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들 각자는 천 년의 수명이 주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오래 산다고 해서 그가 징벌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신다. (93–96)

말하라, "누구든 지브릴의 적이 되는 자는 알라. 그것을 하나님의 허락으로 네 마음에 내려 준 이가 바로 그이며, 그것은 그 이전에 온 것을 확증하고 믿는 자들에게 인도와 기쁜 소식이 된다. 누구든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그분의 사도들, 그리고 지브릴과 미칼의 적이 되는 자는 알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적이시다." 우리는 너에게

분명한 징표들을 내렸으니, 고집스레 거역하는 자들 말고는 아무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계약을 맺을 때마다 그들 가운데 한 무리가 그것을 내던지지 않는가? 아니, 그들 대부분은 믿지 않는다. (97–100)

그들에게 있는 것을 확증하는 사도가 하나님에게서 그들에게 왔을 때, 성서를 받은 자들 가운데 한 무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하나님의 성서를 등 뒤로 내던졌다. 그리고 그들은 술라이만의 치세에 사탄들이 낭송하던 것을 따랐다. 술라이만은 진리를 부정하지 않았다. 진리를 부정한 것은 사탄들이었으니, 그들은 사람들에게 마술과, 바빌론의 두 천사 하루트와 마루트에게 내려진 것을 가르쳤다. 그러나 이 두 천사는 먼저 "우리는 다만 시험일 뿐이니, 진리를 부정하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않고서는 아무에게도 가르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는 방법을 배웠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것으로 아무도 해칠 수 없었다. 그들은 자기에게 해가 되고 아무 이익도 주지 않는 것을 배웠으며, 그것을 사는 자는 내세에서 아무 몫도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자기 영혼을 팔아 얻은 것은 참으로 나쁘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이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보상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101–103)

믿는 자들이여, 예언자에게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하고 말하지 말고 "우리를 보아 주십시오." 하고 말하며 잘 들으라.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징벌이 기다리고 있다. 성서의 백성 가운데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도, 다신교도들도, 너희 주님에게서 어떤 좋은 것이 너희에게 내려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이를 가려 당신의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한없는 은총을 지니신 분이다. 우리가 어떤 징표를 폐하거나 잊히게 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좋거나 그와 비슷한 것을 가져온다. 너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전능하심을 알지 못하는가? 너는 하늘과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 말고는 너희에게 보호자도 돕는 이도 없음을 알지 못하는가? 아니면 너희는 전에 무사가 질문받았던 것처럼 너희의 사도에게 따져 묻고 싶은가? 믿음을 부정과 바꾸는 자는 참으로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이다. 성서의 백성 가운데 많은 이들은 진리가 그들에게 분명해진 뒤에도 마음속의 시기 때문에, 너희가 믿은 뒤에 너희를 다시 부정하는 자로 되돌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가져오실 때까지 용서하고 눈감아 주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예배를 지키고 정해진 희사를 바치라. 너희가 자기 영혼을 위해 앞서 보내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 곁에서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신다. (104–110)

그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아무도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말한다. 그것은 그들의 헛된 바람이다. 말하라, "너희가 진실하다면 너희의 증거를 내놓으라." 그렇지 않다. 선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맡기는 자는 자기 주님 곁에 보상이 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없고, 그들은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근거 위에도 서 있지 않다." 하고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아무 근거 위에도 서 있지 않다." 하고 말한다. 둘 다 성서를 낭송하면서도 그러하다. 아는 것이 없는 자들도 그들과 똑같은 말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날에 그들이 서로 달리하던 것에 대해 그들 사이를 판결하실 것이다. (111–113)

하나님의 예배 장소에서 그분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막고, 그곳을 허물려고 애쓰는 자보다 더 불의한 자가 누구인가? 그런 자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고서는 그곳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는 현세에서 치욕이 있고, 내세에서 엄청난 징벌이 있다. 동쪽도 서쪽도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어디로 향하든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으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114–115)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두셨다." 하고 말한다.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아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며, 모두가 그분께 순종한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처음 지으신 분이다. 그분께서 어떤 일을 정하시면 그것에 "있으라." 하고 말씀하실 뿐이며, 그러면 그것은 있게 된다. 아는 것이 없는 자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어찌하여 징표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가?" 하고 말한다. 그들 이전의 사람들도 그들과 꼭 같은 말을 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서로 닮았다. 우리는 굳게 믿는 사람들을 위해 징표들을 분명히 하였다. (예언자여) 우리는 너를 진리와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요 경고하는 이로 보냈다. 너는 타오르는 불의 주민들에 대해 질문받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들의 종교를 따르기 전에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너에게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라, "하나님의 인도야말로 참된 인도이다." 너에게 온 지식이 있은 뒤에 네가 그들의 욕망을 따른다면, 너에게는 하나님에게서 지켜 줄 보호자도 돕는 이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성서를 준 이들 가운데 그것을 마땅히 낭송해야 할 대로 낭송하는 이들, 그들은 그것을 믿는다.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잃는 자들이다. (116–121)

이스라엘 자손아,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와, 내가 너희를 다른 모든 민족보다 낫게 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어떤 영혼도 다른 영혼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몸값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중재도 소용이 없고,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날을 조심하라. 이브라힘이 그의 주님에게서 몇 가지 말씀으로 시험을 받고 그것을 다 이루었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사람들의 지도자로 삼는다." 이브라힘이 여쭈었다. "저의 후손 가운데서도 그러합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계약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122–124)

우리가 이 집을 사람들이 돌아오는 곳이요 안전한 성소로 삼은 때를 기억하라. "이브라힘이 섰던 자리를 예배의 장소로 삼으라." 그리고 우리는 이브라힘과 이스마일에게 명하였다. "그 둘레를 도는 이들과, 그곳에 머물며 기도에 전념하는 이들과, 허리 숙이고 엎드리는 이들을 위해 나의 집을 정결하게 하라." 또 이브라힘이 이렇게 말한 때를 기억하라. "주님이시여, 이곳을 안전한 고을로 만드시고, 그 주민들 가운데 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는 이들에게 열매를 양식으로 주소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도 내가 잠시 즐기게 하겠으나, 그런 다음 불지옥의 징벌로 그를 몰아넣을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나쁜 종착지이다." (125–126)

이브라힘과 이스마일이 이 집의 기초를 쌓아 올리던 때를 기억하라.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에게서 이것을 받아 주소서. 참으로 당신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를 당신께 귀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후손 가운데서 당신께 귀의하는 공동체를 일으켜 주소서. 저희에게 예배의 의식을 보여 주시고, 자비로 저희에게 돌아와 주소서. 참으로 당신은 뉘우침을 잘 받아 주시고 자애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그들 가운데서 그들 자신 가운데 한 사람을 사도로 일으켜 주시어, 그가 그들에게 당신의 징표를 낭송하고, 그들에게 성서와 지혜를 가르치며, 그들을 정결하게 하도록 하소서. 참으로 당신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127–129)

스스로를 어리석게 만드는 자가 아니고서야 누가 이브라힘의 종교에서 돌아서겠는가? 우리는 현세에서 그를 선택하였고, 내세에서 그는 틀림없이 의로운 이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의 주님께서 그에게 "귀의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저는 만유의 주님께 귀의하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브라힘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것을 당부하였고, 야꿉도 그러하였다. "내 아들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이 종교를 선택하셨다. 그러니 그분께 귀의한 자로서가 아니면 죽지 말라." (130–132)

아니면 야꿉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 너희가 그 자리에 증인으로 있었는가? 그가 아들들에게 "내가 떠난 뒤에 너희는 무엇을 섬기겠느냐?" 하고 말했을 때,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버지의 조상 이브라힘과 이스마일과 이스하끄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귀의합니다." 그들은 이미 지나간

공동체이다. 그들이 벌어들인 것은 그들의 것이고, 너희가 벌어들인 것은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하던 일에 대해 질문받지 않을 것이다. (133–134)

그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러면 인도받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말하라, "아니다.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브라힘의 종교를 따른다. 그는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는 자가 아니었다."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내려진 것과, 이브라힘과 이스마일과 이스하끄와 야꿉과 지파들에게 내려진 것과, 무사와 이사에게 주어진 것과, 예언자들이 그들의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믿는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며, 그분께 귀의한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가 믿는 것처럼 믿는다면, 그들은 참으로 인도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등을 돌린다면, 그들은 다만 분열 속에 있을 뿐이다. 그들을 상대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충분하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물들이심을 받는다.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게 물들이는 이가 누구인가?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섬긴다. (135–138)

말하라,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와 논쟁하려는가?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너희의 주님이신데도 말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행위가 있고, 너희에게는 너희의 행위가 있다. 우리는 그분께 진실하게 헌신한다. 아니면 너희는 이브라힘과 이스마일과 이스하끄와 야꿉과 지파들이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하는가?" 말하라, "너희가 더 잘 아는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증언을 감추는 자보다 더 불의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일을 모르고 계시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지나간 공동체이다. 그들이 벌어들인 것은 그들의 것이고, 너희가 벌어들인 것은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하던 일에 대해 질문받지 않을 것이다. (139–141)

사람들 가운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무엇이 그들을, 그들이 향하던 예배 방향에서 돌아서게 하였는가?" 말하라, "동쪽도 서쪽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은 원하시는 이를 곧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처럼 우리는 너희를 중도의 공동체로 삼았으니, 너희가 사람들에 대한 증인이 되고, 사도가 너희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네가 향하던 방향을 정한 것은, 다만 사도를 따르는 자와 발길을 돌려 돌아서는 자를 가려내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의 믿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다. (예언자여) 우리는 네가 하늘을 향해 얼굴을 이리저리 돌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너를 네가 기뻐할 예배 방향으로 향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네 얼굴을 성스러운 모스크 쪽으로 돌리라.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어디에 있든 너희의 얼굴을 그쪽으로 돌리라. 성서를 받은 이들은

이것이 자기 주님에게서 온 진리임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계시지 않는다. 네가 성서를 받은 이들에게 온갖 징표를 다 가져간다 해도, 그들은 너의 예배 방향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너도 그들의 방향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들도 서로의 방향을 따르지 않는다. 너에게 온 지식이 있은 뒤에 네가 그들의 욕망을 따른다면, 너는 틀림없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가 성서를 준 이들은 자기 아들을 알아보듯이 그것을 알아본다.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한 무리는 알면서 진리를 감춘다. 진리는 너의 주님에게서 온 것이니, 결코 의심하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 저마다 향하는 방향이 있다. 그러니 선한 일에서 서로 앞을 다투라. 너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두 한데 모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142–148)

네가 어디에서 길을 떠나든, 네 얼굴을 성스러운 모스크 쪽으로 돌리라. 그것은 참으로 너의 주님에게서 온 진리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일을 모르고 계시지 않는다. 네가 어디에서 길을 떠나든, 네 얼굴을 성스러운 모스크 쪽으로 돌리라. 그리고 너희가 어디에 있든 너희의 얼굴을 그쪽으로 돌리라. 그것은 사람들이 너희를 거스를 구실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만 그들 가운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예외이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라. 또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나의 은혜를 온전히 베풀고, 너희가 인도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 자신 가운데 한 사람을 사도로 보내어, 그가 너희에게 우리의 징표를 낭송하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에게 성서와 지혜를 가르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것을 가르치게 한 것과 같다. 그러니 나를 기억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에게 감사하고,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149–152)

믿는 자들이여, 인내와 예배로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길에서 죽임을 당한 이들을 두고 "그들은 죽었다." 하고 말하지 말라. 아니다. 그들은 살아 있으나,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우리는 반드시 얼마간의 두려움과 굶주림으로, 그리고 재산과 목숨과 소출의 손실로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그러나 인내하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들은 불행이 닥치면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말하는 이들이다. 그들 위에는 그들의 주님에게서 오는 축복과 자비가 있다. 그들이야말로 인도받은 이들이다. (153–157)

사파와 마르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식의 표지 가운데 있다. 그러니 이 집으로 순례를 하거나 소순례를 하는 이가 그 둘 사이를 오가며 도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누구든 스스로 원하여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잘 보답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우리가 내린 분명한 증거와 인도를, 우리가 성서에서 사람들을 위해 분명히 밝힌 뒤에도 감추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저주하는 모든 이들도 그들을 저주한다. 다만

뉘우치고 바로잡으며 진리를 분명히 밝히는 이들은 예외이다. 나는 자비로 그들에게 돌아간다. 나는 뉘우침을 잘 받아 주고 자애로운 이이다. 진리를 부정하고 부정하는 채로 죽는 자들, 그들 위에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모든 사람의 저주가 있다. 그들은 그 안에 영원히 머물 것이다. 그들의 징벌은 가벼워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에게는 유예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158–162)

너희의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그분 말고는 신이 없으며,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참으로 하늘과 땅의 창조에, 밤과 낮의 바뀜에, 사람들에게 이로운 것을 싣고 바다를 다니는 배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어 죽은 땅을 다시 살리시고 온갖 움직이는 생물을 그 위에 퍼뜨리신 물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에,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부림을 받는 구름에, 이성을 쓰는 사람들을 위한 징표들이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 가운데에는 다른 것들을 하나님과 대등한 것으로 삼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듯이 그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징벌을 보게 될 때에 보게 될 것처럼,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징벌에 엄하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추종받던 자들이 자기를 따르던 자들과 관계를 끊고, 그들이 징벌을 보며, 그들 사이의 모든 유대가 끊어질 때, 따르던 자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그들이 우리와 관계를 끊은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관계를 끊을 텐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그들에게 쓰라린 후회로 보여 주실 것이다. 그들은 결코 불지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163–167)

사람들아, 땅에 있는 것 가운데 허락되고 좋은 것을 먹고, 사탄의 발자국을 따르지 말라. 그는 너희의 분명한 적이다. 그는 다만 악과 추한 짓을 하라고,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 말하라고 너희에게 명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을 따르라." 하는 말을 들으면 그들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하던 대로 따른다." 하고 말한다. 뭐라고? 그들의 조상들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인도받지도 못했는데도 그러한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비유는, 부르는 소리와 외치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에게 소리치는 사람과 같다. 귀먹고 말 못 하고 눈멀어,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믿는 자들이여, 우리가 너희에게 베푼 좋은 것들을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가 섬기는 분이 그분이라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금하신 것은 다만 죽은 짐승의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이름으로 바쳐진 것뿐이다. 그러나 누구든 그것을 탐해서도 아니고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도 아니면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죄가 없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168–173)

하나님께서 내리신 성서의 내용을 감추고 그것을 하찮은 값에 파는 자들, 그들은 자기 배 속에 불 말고는 아무것도 삼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날에 그들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고통스러운 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인도를 주고 미혹을 사고, 용서를 주고 징벌을 산 자들이다. 그들은 불지옥을 얼마나 잘도 견디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와 함께 성서를 내리셨기 때문이다. 성서를 두고 서로 달리하는 자들은 참으로 깊은 분열 속에 있다. (174–176)

의로움은 너희의 얼굴을 동쪽이나 서쪽으로 돌리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마지막 날과 천사들과 성서와 예언자들을 믿는 사람이다. 또 그분을 사랑하여 자기 재산을 친족과 고아와 궁핍한 이와 나그네와 구걸하는 이에게 주고, 노예를 해방하는 데에 쓰는 사람이다. 또 예배를 지키고 정해진 희사를 바치는 사람이며, 약속을 하면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고, 가난과 역경 속에서, 그리고 위험한 때에 인내하는 사람이다. 이들이야말로 진실한 이들이며,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다. (177)

믿는 자들이여, 살인의 경우에 동등한 보복이 너희에게 정해졌다. 자유인에는 자유인으로, 노예에는 노예로, 여자에는 여자로 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그의 형제에게서 어떤 식으로든 용서를 받는다면, 요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배상은 좋은 태도로 그에게 치러져야 한다. 이것은 너희 주님에게서 온 경감이며 자비이다. 이 뒤에 한계를 넘는 자에게는 고통스러운 징벌이 있다. 분별 있는 이들이여, 동등한 보복에는 너희를 위한 생명이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든 죽음이 다가오고 그가 재산을 남기게 되면, 부모와 가까운 친족을 위해 공정하게 유언을 남기는 것이 너희에게 정해졌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의무이다. 누구든 그것을 듣고 난 뒤에 바꾼다면, 그 죄는 바꾼 자들에게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나 누구든 유언하는 이가 잘못하거나 불의를 저질렀을까 염려하여 당사자들 사이를 바로잡는다면, 그에게는 죄가 없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178–182)

믿는 자들이여, 너희 이전의 공동체들에게 정해졌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단식이 정해졌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정해진 수의 날 동안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병들었거나 여행 중인 사람은 다른 날에 같은 수만큼 단식해야 한다. 힘겹게만 단식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대속이 있으니, 궁핍한 사람 하나를 먹이는 것이다. 누구든 스스로 원하여 더 많은 선을 행하면 그것은 그에게 더 좋다. 그러나 단식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 너희가 알기만 한다면. 라마단 달은 꾸란이 사람들을

위한 인도로, 그리고 인도와 분별의 기준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 내려진 달이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 그 달을 맞는 사람은 그 달 동안 단식해야 한다. 병들었거나 여행 중인 사람은 다른 날에 같은 수만큼 단식해야 한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쉬움을 원하시지 어려움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희가 그 수를 채우고, 너희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리며,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나의 종들이 너에게 나에 대해 묻거든, 나는 참으로 가까이 있다. 나는 부르는 이가 나를 부를 때 그 부름에 응답한다. 그러니 그들도 나에게 응답하고 나를 믿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바르게 인도받을 것이다. (183–186)

단식하는 날 밤에 너희가 아내에게 가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그들은 너희의 옷이고, 너희는 그들의 옷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음을 아시고, 자비로 너희에게 돌아오시어 너희를 용서하셨다. 그러니 이제 그들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정하신 것을 구하라. 새벽의 흰 실이 검은 실과 뚜렷이 구별될 때까지 먹고 마시라. 그런 다음 밤이 될 때까지 단식을 다 채우라. 너희가 모스크에 머물며 기도에 전념하는 동안에는 그들과 가까이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이니, 그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징표를 분명히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끼리 서로의 재산을 부당하게 삼키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 일부를 알면서 죄스럽게 삼키려고 그것을 재판관들에게 뇌물로 바치지도 말라. (187–188)

(예언자여) 그들은 너에게 초승달에 대해 묻는다. 말하라, "그것은 사람들이 때를 헤아리고 순례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의로움은 집에 뒤쪽으로 들어가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집에는 문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너희가 번영할 것이다. 너희와 싸우는 자들과 하나님의 길에서 싸우되, 한계를 넘지 말라. 하나님은 한계를 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들을 만나는 곳 어디에서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너희를 쫓아낸 곳에서 그들을 쫓아내라. 박해는 살인보다 더 나쁘다. 그러나 그들이 성스러운 모스크에서 너희와 싸우지 않는 한, 그곳에서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와 싸운다면 그들을 죽이라.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보응은 이러하다. 그러나 그들이 그친다면,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박해가 더 이상 없고 종교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그러나 그들이 그친다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 말고는 적대해서는 안 된다. 성스러운 달에는 성스러운 달로 갚고, 모든 성스러운 것에는 동등한 보복이 있다. 그러니 누구든 너희를 공격하면, 그가 너희를 공격한 만큼 그를 공격하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계심을 알라.

하나님의 길에서 베풀고, 너희 손으로 자신을 파멸에 던지지 말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189–195)

하나님을 위해 순례와 소순례를 완수하라. 너희가 가로막힌다면, 형편이 닿는 대로 제물을 보내고, 그 제물이 제자리에 이를 때까지 머리를 깎지 말라. 너희 가운데 누가 병들었거나 머리에 탈이 있다면, 단식이나 자선이나 희생 제물로 대속하면 된다. 너희가 다시 안전해졌을 때, 순례에 앞서 소순례를 하는 이는 형편이 닿는 대로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것을 구하지 못하는 이는 순례 중에 사흘, 돌아와서 이레, 모두 열흘을 단식해야 한다. 이것은 가족이 성스러운 모스크 가까이에 살지 않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징벌에 엄하심을 알라. (196)

순례는 잘 알려진 달들에 한다. 그 달들에 순례를 하기로 한 사람은 순례 동안 부부 관계와 못된 짓과 다툼을 삼가야 한다. 너희가 어떤 선을 행하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 양식을 마련해 가라. 그러나 가장 좋은 양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그러니 분별 있는 이들이여, 나를 경외하라. 너희가 장사를 하여 너희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너희가 아라파트에서 쏟아져 내려올 때, 성스러운 표지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듯이 그분을 기억하라. 너희는 이전에는 길을 잃은 자들 가운데 있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곳에서 너희도 내려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너희가 의식을 마쳤으면, 너희 조상들을 기억하듯이, 아니 그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 주님이시여, 현세에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소서." 하고 말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내세에서 아무 몫도 없다. 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 주님이시여, 현세에서도 저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내세에서도 좋은 것을 주시며, 불지옥의 징벌에서 저희를 지켜 주소서." 이들은 자기가 벌어들인 것의 몫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셈에 빠르시다. (197–202)

정해진 날들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틀 만에 서둘러 떠나는 이에게도 죄가 없고, 더 머무는 이에게도 죄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그러하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가 그분께로 모이게 됨을 알라. 사람들 가운데에는 현세의 삶에 대한 그의 말이 너를 기쁘게 하는 자가 있다. 그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지만, 실은 가장 다투기 좋아하는 적수이다. 그는 돌아서면 땅에 부패를 퍼뜨리고 농작물과 가축을 망치려고 애쓴다. 하나님은 부패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을 들으면 교만이 그를 죄로 몰아간다. 그에게는 지옥이면 충분하다. 그것은 참으로 나쁜 쉴 곳이다. 또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여 자기

자신마저 내놓는 이가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인자하시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께 대한 순종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고, 사탄의 발자국을 따르지 말라. 그는 너희의 분명한 적이다. 분명한 증거들이 너희에게 온 뒤에도 너희가 미끄러진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심을 알라. (203–209)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름의 그늘 속에서 천사들과 함께 그들에게 오시고, 일이 결판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어보라. 우리가 그들에게 분명한 징표를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온 뒤에 그것을 바꾸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징벌에 엄하시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현세의 삶이 매혹적으로 보이고, 그들은 믿는 자들을 조롱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부활의 날에 그들 위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이에게 헤아림 없이 베푸신다.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였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요 경고하는 이로 보내시고, 그들과 함께 진리로 성서를 내리셨으니, 사람들이 서로 달리하던 것에 대해 그들 사이를 판결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달리한 것은 바로 그것을 받은 자들뿐이었으니, 분명한 증거들이 그들에게 온 뒤에 서로에 대한 시기 때문에 그리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허락으로, 믿는 자들을 그들이 서로 달리하던 그 진리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이를 곧은 길로 인도하신다. (210–213)

아니면 너희는, 너희 이전에 지나간 이들에게 닥쳤던 것과 같은 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고서도 낙원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가난과 역경에 시달리고 크게 흔들려서, 마침내 사도와 그와 함께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 오는가?" 하고 외칠 정도였다.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은 가까이 있다. (예언자여) 그들은 무엇을 베풀어야 하는지 너에게 묻는다. 말하라, "너희가 베푸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 부모와 친족, 고아와 궁핍한 이와 나그네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너희가 어떤 선을 행하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신다." (214–215)

싸움이 너희에게 정해졌다. 그것이 너희에게 싫은 일인데도 그러하다. 그러나 너희에게 좋은 것을 너희가 싫어할 수도 있고, 너희에게 나쁜 것을 너희가 좋아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아시고,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들은 성스러운 달에 싸우는 일에 대해 너에게 묻는다. 말하라, "그 달에 싸우는 것은 중대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막고, 그분을 부정하며, 성스러운 모스크에서 막고, 그 주민들을 거기서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중대한 일이다. 박해는 살인보다 더 중대하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너희를 너희의 종교에서 되돌릴 때까지 너희와 싸우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자기 종교에서 돌아서서 진리를 부정하는 채로 죽는 자들, 그들의 행위는 현세와 내세에서 헛것이 된다. 그들은 불지옥의 주민이며 그곳에 머물 것이다. 참으로 믿는 이들과, 이주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분투한 이들,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바랄 수 있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216–218)

그들은 술과 도박에 대해 너에게 묻는다. 말하라, "그 둘에는 큰 죄가 있고, 사람들에게 얼마간의 이로움도 있다. 그러나 그 죄가 그 이로움보다 더 크다." 또 그들은 무엇을 베풀어야 하는지 너에게 묻는다. 말하라, "너희가 쓰고 남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당신의 징표를 분명히 하시니, 너희가 현세와 내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그들은 고아들에 대해 너에게 묻는다. 말하라, "그들의 일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가장 좋다. 너희가 너희의 일을 그들의 일과 섞는다면, 그들은 너희의 형제이다." 하나님은 부패를 퍼뜨리는 자와 바로잡는 자를 가려 아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너희를 곤란하게 하실 수도 있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219–220)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는 여자들이 믿기 전에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믿는 여종이 그런 여자보다 낫다. 그 여자가 너희 마음에 든다 해도 그러하다. 또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는 남자들이 믿기 전에는 너희의 여자들을 그들과 혼인시키지 말라. 믿는 종이 그런 남자보다 낫다. 그 남자가 너희 마음에 든다 해도 그러하다. 그들은 불지옥으로 초대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허락으로 낙원과 용서로 초대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징표를 분명히 하시니, 그들이 마음에 새기게 하려는 것이다. (221)

그들은 월경에 대해 너에게 묻는다. 말하라, "그것은 괴로운 것이다. 그러니 월경 중에는 여자들을 멀리하고, 그들이 깨끗해질 때까지 가까이하지 말라. 그들이 몸을 깨끗이 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정하신 대로 그들에게 가라." 참으로 하나님은 뉘우치며 당신께 돌아오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깨끗이 지키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너희의 아내들은 너희의 경작지이다. 그러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의 경작지에 가고, 너희 자신을 위해 좋은 것을 앞서 보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가 그분을 만나게 됨을 알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222–223)

너희의 맹세로 하나님을 구실 삼아, 선을 행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람들 사이를 화해시키는 일을 막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맹세 가운데 무심코 한 것으로는 너희를 문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너희 마음이 벌어들인 것으로는 너희를 문책하신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관대하신 분이다. 아내를 멀리하겠다고 맹세하는 자들에게는 넉 달의

기다림이 있다. 그들이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혼하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이혼당한 여자들은 세 번의 월경 기간 동안 스스로 기다려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 안에 창조하신 것을 감추는 것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그들의 남편들은 화해를 원한다면, 이 기간에 그들을 다시 맞아들일 권리가 더 있다. 여자들에게는 공정하게, 그들이 지는 의무와 같은 권리가 있다. 다만 남자들이 그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224–228)

이혼은 두 번까지 선언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는 아내를 도리에 맞게 붙들어 두든지, 친절하게 놓아주어야 한다. 너희가 그들에게 준 것 가운데 어떤 것도 도로 가져가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다만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지킬 수 없을까 두려워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지킬 수 없을까 너희가 두려워한다면, 여자가 자유를 얻는 대가로 무엇인가를 내주어도 두 사람 누구에게도 죄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이니, 그것을 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그가 세 번째로 그 여자와 이혼한다면, 그 여자가 다른 남편과 혼인하기 전에는 그 뒤로 그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그런 다음 그 다른 남편이 그 여자와 이혼한다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서로에게 돌아가도 두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이며, 그분은 아는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분명히 하신다. (229–230)

너희가 여자들과 이혼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기간의 끝에 이르렀으면, 그들을 도리에 맞게 붙들어 두든지 도리에 맞게 놓아주라. 그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붙들어 두어 그들에게 도를 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자는 자기 영혼에 불의를 행한 것이다. 하나님의 징표를 조롱거리로 삼지 말라.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께서 너희를 훈계하시려고 너희에게 내리신 성서와 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심을 알라. 너희가 여자들과 이혼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기간의 끝에 이르렀으면, 그들이 서로 공정하게 합의한 경우, 그들이 이전 남편과 혼인하는 것을 막지 말라. 이것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는 이들을 위한 훈계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하다. 하나님은 아시고, 너희는 알지 못한다. (231–232)

어머니들은 젖먹이기를 다 채우려는 이를 위해, 자기 아이에게 꼬박 두 해 동안 젖을 먹여야 한다. 아버지는 공정하게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야 한다. 어떤 영혼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짐을 지지 않는다. 어머니가 자기 아이 때문에 해를 입어서도 안 되고, 아버지가 자기 아이 때문에 해를 입어서도 안 된다. 상속자에게도 같은 의무가

있다. 두 사람이 서로 동의하고 상의하여 젖을 떼기로 한다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다. 너희가 유모에게 너희 아이의 젖을 먹이려 한다면, 주기로 한 것을 공정하게 건네는 한 너희에게 죄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심을 알라. (233)

너희 가운데 아내를 남기고 죽는 이들의 경우, 그 아내들은 넉 달 열흘 동안 스스로 기다려야 한다. 그들이 기다리는 기간의 끝에 이르렀으면, 그들이 자신에 대해 도리에 맞게 하는 일에는 너희에게 죄가 없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일을 잘 아신다. 너희가 그런 여자들에게 청혼의 뜻을 넌지시 비치거나 마음속에 품고 있어도 너희에게 죄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들을 생각하리라는 것을 아신다. 그러나 도리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과 은밀히 약속하지 말라. 그리고 정해진 기간이 다 차기 전에는 혼인의 매듭을 맺기로 결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심을 알고, 그분을 조심하라. 또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관대하신 분임을 알라. (234–235)

너희가 여자들에게 손을 대기 전이나 그들에게 혼인 예물을 정해 주기 전에 그들과 이혼한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라. 넉넉한 이는 자기 형편대로, 가난한 이도 자기 형편대로, 공정하게 마련해 주라. 이것은 선을 행하는 이들의 의무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손을 대기 전에, 그러나 혼인 예물을 정해 준 뒤에 그들과 이혼한다면, 정해 준 것의 절반을 주라. 다만 그들이 그것을 포기하거나, 혼인의 매듭을 손에 쥔 이가 포기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더 가깝다. 서로에게 너그럽게 대하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신다. 예배들을, 특히 가운데 예배를 잘 지키고, 경건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서라. 너희가 두려운 처지에 있다면, 걸으면서나 탈것을 탄 채로 예배하라. 그리고 다시 안전해지면, 그분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것을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236–239)

너희 가운데 아내를 남기고 죽는 이들은 아내를 위해 유언을 남겨야 한다. 그들이 집에서 내보내지지 않고 한 해 동안 부양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떠난다면, 그들이 자신에 대해 도리에 맞게 하는 일에는 너희에게 죄가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이혼당한 여자들에게도 공정하게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의무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당신의 징표를 분명히 하시니, 너희가 이성을 쓰게 하려는 것이다. (240–242)

너는 죽음이 두려워 수천 명씩 자기 집을 떠난 자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으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런 다음 그들을 다시 살리셨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길에서 싸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심을 알라. 하나님께 좋은 빚을 빌려드릴 이가 누구인가?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몇 곱절로 불려 주실 것이다. 거두시는 분도 넉넉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너희는 그분께로 돌아가게 된다. (243–245)

너는 무사 이후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그들이 자기들의 한 예언자에게 "우리를 위해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그가 말했다. "싸움이 너희에게 정해지면 너희가 싸우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우리 집과 자녀들에게서 쫓겨났는데, 어찌 하나님의 길에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싸움이 그들에게 정해지자, 그들은 몇 사람만 빼고 등을 돌렸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잘 아신다. 그들의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딸루트를 너희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들이 말했다. "어떻게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보다 왕권을 가질 자격이 더 있고, 그는 넉넉한 재산도 받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그를 선택하시고, 지식과 체격에서 그를 넉넉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이에게 당신의 왕권을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으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그들의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의 왕권의 징표는 궤가 너희에게 오는 것이다. 그 안에는 너희 주님에게서 온 평온과, 무사의 집안과 하룬의 집안이 남긴 유물이 있으며, 천사들이 그것을 메고 온다. 너희가 믿는 자들이라면, 참으로 거기에 너희를 위한 징표가 있다." (246–248)

딸루트가 군대를 이끌고 나섰을 때, 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강으로 너희를 시험하실 것이다.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나의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맛보지 않는 자는 나의 사람이다. 다만 손으로 한 움큼 떠 마시는 자는 예외이다." 그러나 그들은 몇 사람만 빼고 그 물을 마셨다. 그와 그와 함께 믿는 이들이 강을 건넜을 때, 그들이 말했다. "오늘 우리에게는 잘루트와 그의 군대를 대적할 힘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확신하는 이들은 말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작은 무리가 큰 무리를 이긴 적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이 잘루트와 그의 군대를 향해 나아갔을 때, 그들이 말했다.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에게 인내를 부어 주시고, 저희의 발을 굳건히 하시며, 진리를 부정하는 백성을 이기도록 저희를 도우소서."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그들을 무찔렀고, 다우드가 잘루트를 죽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권과 지혜를 주시고, 원하시는 것을 그에게 가르치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로 막지 않으셨다면, 땅은 틀림없이 부패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유에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다. (249–251)

(예언자여) 이것은 우리가 진리로 너에게 낭송해 주는 하나님의 징표이다. 너는 참으로 사도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 사도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이들을 다른 이들보다 낫게 하였다.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건네신 이가 있고, 그분께서 지위를 높여 주신 이들도 있다. 우리는 마르얌의 아들 이사에게 분명한 증거들을 주고, 거룩한 영으로 그를 굳세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들 뒤에 온 자들은 분명한 증거들이 그들에게 온 뒤에 서로 싸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달리하여, 어떤 이들은 믿고 어떤 이들은 부정하였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들은 서로 싸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252–253)

믿는 자들이여, 거래도 우정도 중재도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너희에게 베푼 것 가운데서 베풀라.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야말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254)

하나님, 그분 말고는 신이 없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 계시고, 스스로 계시며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졸음도 잠도 그분을 사로잡지 못한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다. 그분의 허락 없이 누가 그분 앞에서 중재할 수 있겠는가? 그분은 그들 앞에 있는 것과 그들 뒤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들은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 말고는 그분의 지식 가운데 아무것도 헤아리지 못한다. 그분의 옥좌는 하늘과 땅에 두루 미치며, 그 둘을 지키는 일이 그분을 지치게 하지 않는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다.[3] (255)

종교에는 강요가 없다. 바른 인도는 미혹과 뚜렷이 구별되었다. 그러니 거짓 신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가장 튼튼한 손잡이를 붙잡은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보호자이시다. 그분은 그들을 깊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내신다. 그러나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보호자는 거짓 신들이니, 그것들은 그들을 빛에서 깊은 어둠으로 끌어낸다. 그들은 불지옥의 주민이며 그곳에 머물 것이다. (256–257)

너는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셨다고 하여 이브라힘과 그의 주님에 대해 논쟁한 자를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이브라힘이 "나의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죽음을 주시는 분이다." 하고 말하자, 그가 "나도 생명을 주고 죽음을 준다." 하고 말했다. 이브라힘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동쪽에서 떠오르게 하신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서쪽에서 떠오르게

[3] 이 구절은 성 꾸란의 으뜸 구절로 여겨집니다. 기회원인론 – 영광스러운 꾸란과 과학

해 보라." 그러자 진리를 부정한 그 자는 말문이 막혔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258)

또는 지붕째 무너져 내린 한 고을을 지나가던 사람을 생각해 보라. 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고을을 죽은 뒤에 되살리실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백 년 동안 죽어 있게 하셨다가 다시 일으키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얼마나 머물렀느냐?" 그가 말했다. "하루나 하루의 일부를 머물렀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백 년을 머물렀다. 네 음식과 마실 것을 보라. 그것들은 상하지 않았다. 그리고 네 나귀를 보라.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너를 사람들을 위한 징표로 삼으려는 것이다. 또 뼈들을 보라.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런 다음 살을 입히는지를." 그것이 그에게 분명해지자 그가 말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전능하심을 압니다." (259)

또 이브라힘이 이렇게 말한 때를 기억하라.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저에게 보여 주소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는 믿지 않느냐?" 그가 말했다. "믿습니다. 다만 제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새 네 마리를 가져다가 너에게 길들이라. 그런 다음 그것들을 나누어 산마다 한 부분씩 놓고, 그것들을 부르라. 그것들이 너에게 날아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심을 알라." (260)

하나님의 길에서 자기 재산을 베푸는 이들의 비유는, 일곱 이삭을 내고 이삭마다 백 알이 달리는 한 알의 낟알과 같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이에게 몇 곱절로 불려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으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의 길에서 자기 재산을 베풀고, 베푼 뒤에 생색을 내거나 상처 주는 말을 덧붙이지 않는 이들, 그들은 자기 주님 곁에 보상이 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없고, 그들은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좋은 말과 용서가, 상처가 뒤따르는 자선보다 낫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관대하신 분이다. 믿는 자들이여, 생색과 상처 주는 말로 너희의 자선을 헛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재산을 쓰는 자처럼 되지 말라. 그의 비유는 흙이 덮인 매끄러운 바위와 같다. 큰비가 그 위에 쏟아지면 바위는 맨바닥이 된다. 그들은 자기가 벌어들인 것 가운데 어떤 것에도 아무 힘이 없다. 하나님은 진리를 부정하는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자기 영혼을 굳건히 하려고 자기 재산을 베푸는 이들의 비유는 높은 땅에 있는 동산과 같다. 큰비가 내리면 그 동산은 열매를 두 배로 맺고, 큰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가랑비면 넉넉하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신다. 너희 가운데 누가, 대추야자와 포도의 동산이 있어 그 아래로 강이

흐르고 그 안에 온갖 열매가 있는데, 자기는 늙고 자식들은 연약한 때에 불을 품은 회오리바람이 그 동산을 덮쳐 다 태워 버리기를 바라겠는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당신의 징표를 분명히 하시니, 너희가 깊이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다. (261–266)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벌어들인 좋은 것들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땅에서 내어 준 것 가운데서 베풀라. 너희 자신도 눈을 감지 않고는 받지 않을 나쁜 것을 골라 베풀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충만하시고 모든 찬미를 받으실 분임을 알라. 사탄은 너희를 가난으로 위협하고 추한 짓을 하라고 명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오는 용서와 은총을 너희에게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으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그분은 원하시는 이에게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받은 이는 참으로 풍성한 좋은 것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분별 있는 이들 말고는 아무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 너희가 무엇을 베풀든, 어떤 서원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돕는 이가 없다. 너희가 자선을 드러내어 베풀어도 좋다. 그러나 그것을 감추고 가난한 이들에게 준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더 좋으며, 너희의 나쁜 행위 가운데 얼마를 속죄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일을 잘 아신다. (예언자여)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너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를 인도하신다. 너희가 베푸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베푸는 한 그러하다. 너희가 베푸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 너희에게 온전히 갚아질 것이며, 너희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길에 매여 있어 땅을 돌아다닐 수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라. 그들이 삼가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그들을 넉넉한 이들로 여긴다. 너는 그들의 표지로 그들을 알아볼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끈질기게 구걸하지 않는다. 너희가 베푸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 (267–273)

밤에나 낮에나, 남몰래나 드러내어 자기 재산을 베푸는 이들은 자기 주님 곁에 보상이 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없고, 그들은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고리를 삼키는 자들은, 사탄이 건드려 미치게 한 자가 일어서는 것처럼밖에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장사도 고리와 똑같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사를 허락하시고 고리를 금하셨다. 자기 주님에게서 훈계를 받고 그만두는 이는 이미 지나간 것을 가져도 되며, 그의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돌아가는 자들, 이들은 불지옥의 주민이며 그곳에 머물 것이다. 하나님은 고리를 없애시고 자선을 불려 주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죄인을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신다. 참으로 믿고 선을 행하며, 예배를 지키고 정해진 희사를 바치는 이들은 자기 주님 곁에 보상이 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없고, 그들은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가 믿는 자들이라면 고리 가운데 남은 것을 포기하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서 오는 전쟁의 경고를 받으라. 그러나 너희가 뉘우친다면 너희의 원금은 가져도 된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불의를 당하지도 않는다. 빚진 이가 곤란한 처지에 있다면,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미루어 주라. 너희가 그 빚을 자선으로 탕감해 준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 너희가 알기만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날을 조심하라. 그때 모든 영혼은 자기가 벌어들인 것을 온전히 받을 것이며, 아무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다. (274–281)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정해진 기한으로 빚을 주고받을 때에는 그것을 적어 두라. 서기가 너희 사이에서 공정하게 그것을 적게 하라. 서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적기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그가 적게 하고, 빚을 지는 이가 불러 주게 하라. 그는 자기 주님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줄여서는 안 된다. 빚을 지는 이가 지각이 모자라거나 연약하거나 스스로 불러 줄 수 없다면, 그의 후견인이 공정하게 불러 주게 하라. 너희의 남자들 가운데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라. 남자 둘이 없다면, 너희가 증인으로 인정하는 이들 가운데서 남자 하나와 여자 둘을 세우라. 그 두 여자 가운데 하나가 잘못 기억하면 다른 하나가 일깨워 주게 하려는 것이다. 증인들은 부름을 받으면 거절해서는 안 된다. 작든 크든, 그것을 기한과 함께 적어 두기를 귀찮아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공평하고, 증언을 위해 더 바르며, 너희 사이에 의심이 생기지 않게 하기에 더 알맞다. 다만 너희가 그 자리에서 서로 주고받는 현물 거래라면, 그것을 적지 않아도 너희에게 죄가 없다. 너희가 서로 거래할 때에는 증인을 세우라. 서기에게도 증인에게도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너희의 죄스러운 짓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를 가르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너희가 여행 중이어서 서기를 찾지 못한다면, 담보물을 손에 받아 둘 수 있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다른 이를 믿고 맡긴다면, 맡은 이는 그 맡은 것을 돌려주고, 자기 주님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증언을 감추지 말라. 그것을 감추는 자는 그 마음이 죄스럽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아신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든 감추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너희를 셈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 그분은 원하시는 이를 용서하시고, 원하시는 이를 벌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282–284)

사도는 자기 주님에게서 자기에게 내려진 것을 믿으며, 믿는 자들도 그러하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그분의 성서들과 그분의 사도들을 믿는다. “우리는 그분의 사도들 가운데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말한다. “저희는 듣고 순종합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당신의 용서를 베풀어 주소서. 여정의 끝은 당신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혼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짐을 지우지 않으신다.

영혼이 벌어들인 좋은 것은 그 자신에게 득이 되고, 스스로 불러들인 나쁜 것은 그 자신에게 해가 된다.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가 잊거나 잘못을 저질러도 저희를 문책하지 마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 이전의 사람들에게 지우셨던 것과 같은 짐을 저희에게 지우지 마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가 감당할 힘이 없는 것을 저희에게 지우지 마소서. 저희를 너그러이 봐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시며,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은 저희의 보호자이시니, 진리를 부정하는 백성을 이기도록 저희를 도우소서." (285–286)

# 3. 이므란 집안 (Āl ʿImrān)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리프 람 밈. 하나님, 그분 말고는 신이 없다. 그분은 살아 계시고, 스스로 계시며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예언자여) 그분은 진리와 함께 너에게 성서를 내리시어, 그 이전에 온 것을 확증하게 하셨다. 그분은 이보다 앞서 사람들을 위한 인도로 토라와 복음서를 내리셨고, 또 분별의 기준을 내리셨다. 하나님의 징표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혹독한 징벌이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응징하시는 주님이다. 땅에 있는 것도 하늘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숨겨져 있지 않다. 그분은 원하시는 대로 태 안에서 너희의 모습을 빚으시는 분이다. 그분 말고는 신이 없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1–6)

그분은 너에게 성서를 내리신 분이다. 그 안에는 뜻이 분명하고 확실한 구절과 징표들이 있으니, 그것들이 이 성서의 근간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다른 것들도 있다. 마음에 비뚤어짐이 있는 자들은 불화를 일으키고 제멋대로 해석하려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을 좇는다. 그러나 그 참된 해석은 하나님과, 지식에 굳게 뿌리내린 이들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그 모두가 우리 주님에게서 온 것이다." 하고 말한다. 분별 있는 이들 말고는 아무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4] (7)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를 인도하신 뒤에 저희의 마음이 비뚤어지지 않게 하시고, 당신에게서 오는 자비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참으로 당신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날에 반드시 사람들을 한데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8–9)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재산도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들은 불지옥의 땔감이다. 그것은 파라오의 백성과 그 이전의 사람들의 경우와 같다. 그들은 우리의 징표를 거짓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붙잡으셨다. 하나님은 징벌에 엄하시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패하여 지옥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나쁜 쉴 곳이다." 바드르에서 맞붙은 두 무리에는 너희를 위한 징표가 있었다. 한 무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싸웠고, 다른 무리는

[4] 이것은 꾸란의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 사람마다 자기의 관점에 따라 꾸란에서 무엇을 얻는지를 드러내 줍니다. 이 구절은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괴테의 말 가운데 하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꾸란에 다가갈 때마다 그것은 언제나 새삼 거부감을 준다. 그러나 차츰 마음을 끌고, 놀라게 하며, 마침내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저들이 자기들의 두 배나 되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이를 당신의 도움으로 굳세게 하신다. 참으로 거기에는 볼 눈이 있는 이들을 위한 교훈이 있다. (10–13)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탐하는 것들에 대한 사랑이 매혹적으로 보인다. 여자와 아들들, 쌓아 둔 금과 은의 더미, 표시해 둔 좋은 말들, 가축과 경작지가 그것이다. 이것들은 현세의 삶의 즐길 거리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 귀착지는 하나님 곁에 있다. 말하라, "이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주님 곁에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낙원이 있어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며, 정결한 배우자들과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들은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는 믿었으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지옥의 징벌에서 저희를 지켜 주소서." 하고 말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인내하는 이들, 진실한 이들, 경건히 순종하는 이들, 하나님을 위해 베푸는 이들, 그리고 새벽녘에 용서를 구하는 이들이다. (14–17)

하나님께서는 당신 말고는 신이 없음을 증언하시며, 천사들과 지식을 지닌 이들도 그러하다. 그분은 정의를 굳게 세우신다. 그분 말고는 신이 없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종교는 그분께 귀의하는 것이다. 성서를 받은 자들이 서로 달리한 것은, 지식이 그들에게 온 뒤에 서로에 대한 시기 때문이었을 뿐이다. 누구든 하나님의 징표를 부정한다면, 하나님은 셈에 빠르시다. 그러니 그들이 너와 논쟁하거든 말하라,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맡겼으며, 나를 따르는 이들도 그러하다." 그리고 성서를 받은 자들과 글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귀의하였는가?" 그들이 귀의한다면 그들은 인도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등을 돌린다면, 너의 임무는 전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18–20)

하나님의 징표를 부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예언자들을 죽이며, 사람들 가운데 정의를 권하는 이들을 죽이는 자들,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징벌의 소식을 전하라. 그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그 행위가 헛것이 되는 자들이며, 그들에게는 돕는 이가 없다. 너는 성서의 한 몫을 받은 자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그들은 자기들 사이를 판결하도록 하나님의 성서로 부름을 받지만, 그들 가운데 한 무리는 등을 돌리고 물러선다. 그것은 그들이 "불지옥은 손꼽을 만한 며칠 말고는 우리에게 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어낸 것이 그들의 종교에서 그들을 속였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날에 우리가 그들을 모을 때, 그리고 모든 영혼이 자기가 벌어들인 것을 온전히 받고 아무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21–25)

말하라, “하나님이시여, 모든 왕권의 주인이시여, 당신께서는 원하시는 이에게 왕권을 주시고, 원하시는 이에게서 왕권을 거두십니다. 당신께서는 원하시는 이를 높이시고, 원하시는 이를 낮추십니다. 모든 좋은 것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참으로 당신은 모든 일에 전능하십니다. 당신께서는 밤을 낮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낮을 밤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당신께서는 죽은 것에서 산 것을 내시고, 산 것에서 죽은 것을 내십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이에게 헤아림 없이 베푸십니다.” (26–27)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제쳐 두고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동맹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너희가 그들에게서 자신을 지키려고 조심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조심하라고 너희에게 경고하신다. 마지막 귀착지는 하나님께 있다. 말하라, “너희가 가슴속에 있는 것을 숨기든 드러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 그분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모든 영혼이 자기가 행한 선과 자기가 행한 악이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날, 영혼은 자기와 그 악 사이에 먼 거리가 있기를 바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조심하라고 너희에게 경고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인자하시다. 말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말하라, “하나님과 사도에게 순종하라.” 그러나 그들이 등을 돌린다면, 하나님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28–32)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누흐, 이브라힘의 집안과 이므란의 집안을 모든 사람 위에 선택하셨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나온 후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이므란의 아내가 이렇게 말한 때를 기억하라. “주님이시여, 제 태 안에 있는 것을 당신을 섬기도록 구별하여 당신께 바칩니다. 그러니 저에게서 받아 주소서. 참으로 당신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그는 말했다. “주님이시여,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무엇을 낳았는지 잘 알고 계셨다. 사내아이는 여자아이와 같지 않다. “저는 아이의 이름을 마르얌이라 지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와 그 후손을 쫓겨난 사탄에게서 지켜 주시도록 당신께 맡깁니다.” 그의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곱게 자라게 하셨으며, 자카리야에게 그 아이를 돌보게 하셨다. 자카리야가 성소에 있는 그에게 들어갈 때마다, 그의 곁에 양식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말했다. “마르얌아, 이것이 어디에서 너에게 왔느냐?” 그가 말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이에게 헤아림 없이 베푸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자카리야는 자기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당신에게서 오는 좋은 후손을 저에게 주소서. 참으로 당신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성소에 서서 예배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그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야흐야의 기쁜 소식을 전하신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한 말씀을 확증할 것이며, 고귀하고 정결하며, 의로운 이들 가운데 예언자가 될 것이다." 그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제가 이미 늙었고 제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에게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하신다." 그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저에게 징표를 주소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징표는 네가 사흘 동안 몸짓으로밖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너의 주님을 많이 기억하고, 저녁과 새벽에 그분을 찬양하라." (33–41)

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한 때를 기억하라. "마르얌아,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시고 너를 정결하게 하셨으며, 온 세상의 여자들 위에 너를 선택하셨다. 마르얌아, 너의 주님께 경건히 순종하고, 엎드리며, 허리 숙이는 이들과 함께 허리를 숙이라." (예언자여) 이것은 우리가 너에게 계시하는 보이지 않는 소식의 일부이다. 그들 가운데 누가 마르얌을 맡을지 정하려고 갈대 붓으로 제비를 뽑을 때 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그들이 다툴 때에도 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42–44)

천사들이 이렇게 말한 때를 기억하라. "마르얌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오는 한 말씀의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신다. 그의 이름은 메시아, 마르얌의 아들 이사이며, 그는 현세와 내세에서 영예를 누리고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그는 요람에서도, 장성해서도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며, 의로운 이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그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어떤 남자도 저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에게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하신다. 그분께서 어떤 일을 정하시면 그것에 '있으라.' 하고 말씀하실 뿐이며, 그러면 그것은 있게 된다." 그분은 그에게 성서와 지혜와 토라와 복음서를 가르치시고, 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도로 보내실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 주님에게서 온 징표를 가지고 너희에게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해 진흙으로 새의 모양을 빚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면, 하나님의 허락으로 그것이 새가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눈먼 이와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이를 살릴 것이다. 또 너희가 무엇을 먹고 너희 집에 무엇을 쌓아 두는지 너희에게 알려 줄 것이다. 너희가 믿는 자들이라면, 참으로 거기에 너희를 위한 징표가 있다. 나는 나보다 앞서 있던 토라를 확증하고, 너희에게 금지되었던 것 가운데 일부를 허락하려고 왔다. 나는 너희 주님에게서 온 징표를 가지고 너희에게 왔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너희의 주님이시니, 그분을 섬기라. 이것이 곧은 길이다." (45–51)

이사가 그들의 부정을 느꼈을 때 그가 말했다. “하나님을 위해 나를 도울 이들이 누구인가?” 제자들이 말했다. “저희가 하나님을 돕는 이들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분께 귀의하였음을 증언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는 당신께서 내리신 것을 믿고 사도를 따릅니다. 그러니 저희를 증언하는 이들 가운데 적어 주소서.” 그들은 계략을 꾸몄고, 하나님께서도 계획을 세우셨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는 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52–54)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때를 기억하라. “이사야, 나는 너를 거두어 나에게로 들어 올리고,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서 너를 깨끗이 하며, 너를 따르는 이들을 부활의 날까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 위에 둘 것이다. 그런 다음 너희는 모두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며, 나는 너희가 서로 달리하던 일들에 대해 너희 사이를 판결할 것이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내가 현세와 내세에서 혹독하게 벌할 것이며, 그들에게는 돕는 이가 없을 것이다.”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그분께서 그들의 보상을 온전히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55–57)

(예언자여) 이것은 우리가 징표와 지혜로운 훈계 가운데서 너에게 낭송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사의 비유는 아담의 비유와 같다. 그분은 그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런 다음 그에게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가 있게 되었다. 이것은 너의 주님에게서 온 진리이니, 의심하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 너에게 지식이 온 뒤에 누가 이 일로 너와 논쟁하거든 말하라, “오라. 우리의 아들들과 너희의 아들들, 우리의 여자들과 너희의 여자들, 우리 자신과 너희 자신을 부르자. 그런 다음 간절히 기도하여, 거짓말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저주를 청하자.” 참으로 이것이 진실한 이야기이다.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으며,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들이 등을 돌린다면, 하나님은 부패를 퍼뜨리는 자들을 잘 아신다. 말하라, “성서의 백성이여, 우리와 너희 사이에 공통된 말로 오라. 곧 우리는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그분께 아무것도 동반자로 두지 않으며,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말고 다른 이들을 주님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이 등을 돌린다면 말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귀의하는 이들임을 증언하라.” (58–64)

성서의 백성이여, 토라와 복음서는 이브라힘 이후에야 내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에 대해 논쟁하는가? 너희는 이성을 쓰지 않는가? 여기 너희는 얼마간 아는 것에 대해 논쟁해 왔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 대해 논쟁하는가? 하나님은 아시고,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브라힘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께 귀의한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그분께 동반자를 두는 자가 아니었다.

이브라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그를 따랐던 이들과, 이 예언자와, 믿는 이들이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보호자이시다. (65–68)

성서의 백성 가운데 한 무리는 너희를 미혹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들이 미혹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성서의 백성이여, 너희 자신이 증인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징표를 부정하는가? 성서의 백성이여, 어찌하여 너희는 알면서도 진리에 거짓의 옷을 입히고 진리를 감추는가? 성서의 백성 가운데 한 무리는 이렇게 말한다. "믿는 자들에게 내려진 것을 낮의 처음에는 믿고, 그 끝에는 부정하라. 그러면 그들이 되돌아설지도 모른다. 그리고 너희의 종교를 따르는 이 말고는 아무도 믿지 말라." (예언자여) 말하라, "참된 인도는 하나님의 인도이다." 그들은 너희가 받은 것과 같은 것을 다른 누가 받게 되거나, 그들이 너희 주님 앞에서 너희와 논쟁하게 될까 두려워한다. 말하라, "모든 은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분은 원하시는 이에게 그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으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그분은 원하시는 이를 가려 당신의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크나큰 은총의 주님이시다." (69–74)

성서의 백성 가운데에는, 네가 금 한 더미를 맡겨도 너에게 돌려줄 이가 있다. 또 그들 가운데에는, 네가 동전 한 닢을 맡겨도 네가 그 곁에 서서 줄곧 요구하지 않으면 너에게 돌려주지 않을 자도 있다. 그것은 그들이 "글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알면서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말한다. 그렇지 않다. 자기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과의 계약과 자기들의 맹세를 하찮은 값에 파는 자들은 내세에서 아무 몫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날에 그들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보지도 않으시며, 그들을 정결하게 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고통스러운 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 가운데에는 성서를 낭송하면서 혀를 비트는 무리가 있어서, 그것이 성서에 있는 것이 아닌데도 너희가 성서에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한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데도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들은 알면서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말한다. (75–78)

하나님께서 성서와 지혜와 예언자의 직분을 주신 어떤 사람도, 그런 뒤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고 나의 종이 되라." 하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가 성서를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고 있으니, 주님께 헌신하는 종이 되라." 또 그는 천사들과 예언자들을 주님으로 삼으라고 너희에게 명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귀의한 뒤에 그가 너희에게 진리를 부정하라고 명하겠는가? (79–80)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의 계약을 받으신 때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성서와 지혜를 주고, 그런 다음 너희에게 있는 것을 확증하는 사도가 너희에게 오거든, 너희는 반드시 그를 믿고 그를 도와야 한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 일에서 나의 언약을 받아들이느냐?” 그들이 말했다. “저희는 인정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증언하라. 나도 너희와 함께 증인들 가운데 있다.” 이 뒤에 등을 돌리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거역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교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가 좋든 싫든 그분께 귀의하였고, 그들은 그분께로 돌아가게 되는데도 말이다. (81–83)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내려진 것과, 이브라힘과 이스마일과 이스하끄와 야꿉과 지파들에게 내려진 것과, 무사와 이사와 예언자들이 그들의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믿는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며, 그분께 귀의한다.” 누구든 하나님께 귀의하는 것 말고 다른 종교를 구한다면, 그것은 결코 그에게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내세에서 잃는 자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믿은 뒤에, 사도가 참되다고 증언한 뒤에, 그리고 분명한 증거들이 그들에게 온 뒤에 진리를 부정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찌 인도하시겠는가?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그들에 대한 보응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모든 사람의 저주가 그들 위에 있는 것이며, 그들은 그 아래에 영원히 머물 것이다. 그들의 징벌은 가벼워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에게는 유예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뒤에 뉘우치고 바로잡는 이들은 예외이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믿은 뒤에 진리를 부정하고, 그런 다음 부정을 더해 가는 자들, 그들의 뉘우침은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길을 잃은 자들이다. 진리를 부정하고 부정하는 채로 죽는 자들, 그들 가운데 누가 온 땅을 채울 만한 금을 몸값으로 내놓는다 해도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고통스러운 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돕는 이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 베풀기 전에는 너희가 결코 참된 의로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베풀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신다. (84–92)

토라가 내려지기 전에 이스라엘이 스스로에게 금한 것 말고는, 모든 음식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허락되어 있었다. 말하라, “너희가 진실하다면 토라를 가져와 읽어 보라.” 이 뒤에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지어내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말하라, “하나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셨다. 그러니 순수한 믿음의 사람 이브라힘의 종교를 따르라. 그는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는 자가 아니었다.”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첫 번째 집은 박카에 있는 것으로, 축복받은 곳이며 만유를 위한 인도이다. 그 안에는 분명한 징표들이 있으니, 이브라힘이 섰던 자리가 그것이다. 그곳에 들어가는 이는 누구나

안전하다. 이 집으로 순례하는 것은, 그곳으로 갈 길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지는 의무이다. 부정하는 자가 있다 해도, 하나님은 만유의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말하라, "성서의 백성이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의 증인이신데,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징표를 부정하는가?" 말하라, "성서의 백성이여, 너희 자신이 그 참됨의 증인이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길을 굽게 만들려고 믿는 이들을 그 길에서 막는가?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일을 모르고 계시지 않는다." (93–99)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성서를 받은 자들 가운데 한 무리에게 순종한다면, 그들은 너희가 믿은 뒤에 너희를 다시 부정하는 자로 되돌릴 것이다. 하나님의 징표가 너희에게 낭송되고 그분의 사도가 너희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어찌 진리를 부정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이는 곧은 길로 인도받은 것이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할 대로 경외하고, 그분께 귀의한 자로서가 아니면 죽지 말라. 모두 함께 하나님의 밧줄을 굳게 붙들고, 갈라지지 말라.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가 서로 적이었을 때 그분께서 너희의 마음을 하나로 이으시어, 그분의 은혜로 너희가 형제가 되었다. 또 너희가 불구덩이의 가장자리에 있었을 때 그분께서 너희를 거기에서 구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당신의 징표를 분명히 하시니, 너희가 인도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초대하고, 옳은 일을 권하며, 그른 일을 금하는 공동체가 있게 하라. 그들이야말로 번영할 자들이다. 분명한 증거들이 그들에게 온 뒤에 갈라지고 서로 달리한 자들처럼 되지 말라. 그들에게는 엄청난 징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날 어떤 얼굴들은 희어지고 어떤 얼굴들은 검어질 것이다. 얼굴이 검어진 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주어진다. "너희는 믿은 뒤에 진리를 부정하였는가? 그러니 너희가 부정한 것 때문에 징벌을 맛보라." 얼굴이 희어진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으며, 그 안에서 영원히 머문다. 이것은 우리가 진리로 너에게 낭송해 주는 하나님의 징표이다. 하나님은 만유의 누구에게도 불의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100–109)

너희는 사람들을 위해 일으켜진 가장 좋은 공동체이다. 너희는 옳은 일을 권하고, 그른 일을 금하며, 하나님을 믿는다. 성서의 백성이 믿었더라면 그것이 그들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믿는 이들도 있으나, 그들 대부분은 거역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약간의 괴로움 말고는 너희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와 싸운다면 너희에게 등을 돌려 달아날 것이며, 그런 다음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어디에서 발견되든 굴욕이 그들에게 찍혀 있다. 다만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과 사람들에게서 오는 줄을 붙들고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자초하였고, 비참함이 그들에게 찍혀 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징표를 부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예언자들을 죽이곤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이 거역하고 줄곧 한계를 넘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성서의 백성 가운데에는 올곧은 공동체가 있어서, 밤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징표를 낭송하며 엎드린다. 그들은 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고, 옳은 일을 권하며 그른 일을 금하고, 선한 일에 서두른다. 그들은 의로운 이들 가운데 있다. 그들이 어떤 선을 행하든, 그 보상이 그들에게 거부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잘 아신다. (110–115)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재산도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들은 불지옥의 주민이며 그곳에 머물 것이다. 그들이 현세의 삶에서 쓰는 것의 비유는, 살을 에는 서리를 실은 바람과 같다. 그 바람은 자기 자신에게 불의를 행한 백성의 밭을 덮쳐 그것을 망쳐 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의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불의를 행하였다. (116–117)

믿는 자들이여, 너희 무리 밖의 사람들을 속을 터놓는 벗으로 삼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망치려고 온갖 애를 다 쓰며, 너희가 고통받기를 바란다. 미움이 이미 그들의 입에서 드러났고, 그들의 가슴이 감추고 있는 것은 더 심하다. 너희가 이성을 쓴다면, 우리는 너희에게 징표들을 분명히 하였다. 여기 너희는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는 성서 전체를 믿는데도 그러하다. 그들은 너희를 만나면 "우리는 믿는다." 하고 말하지만, 따로 있게 되면 너희에 대한 분노로 손가락 끝을 깨문다. 말하라, "너희의 분노 속에서 죽으라." 하나님은 가슴속에 있는 것을 잘 아신다. 너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그들을 슬프게 하고, 너희에게 나쁜 일이 닥치면 그들은 그것을 기뻐한다. 그러나 너희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들의 계략은 너희를 조금도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에워싸고 계신다. (118–120)

(예언자여) 네가 이른 아침에 네 가족을 떠나, 믿는 자들을 싸움을 위한 자리에 배치하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그때 너희 가운데 두 무리가 용기를 잃으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이셨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보잘것없는 소수였을 때 이미 바드르에서 너희를 도우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너희가 감사하게 될 것이다. 네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 주님께서 내려보내신 삼천 천사로 너희를 도우시는 것이 너희에게 충분하지 않은가?" 그렇다. 너희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리고 적이 갑자기 너희를 덮친다면, 너희 주님께서 표지를 지닌 오천 천사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신 것은 다만 너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그것으로 너희의 마음이 놓이게 하려는 것이었다. 도움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또 그것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한쪽을 잘라 내거나, 그들을 꺾어 좌절한 채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일에서 너에게 달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께서 자비로 그들에게 돌아오시든 그들을 벌하시든, 그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은 원하시는 이를 용서하시고, 원하시는 이를 벌하신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121–129)

믿는 자들이여, 곱절에 곱절로 불어나는 고리를 삼키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너희가 번영할 것이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위해 마련된 불지옥을 조심하고, 하나님과 사도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너희 주님에게서 오는 용서와, 하늘과 땅만큼 넓은 낙원을 향해 서두르라.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그들은 넉넉할 때나 어려울 때나 그분을 위해 베풀고, 분노를 억누르며, 사람들을 용서하는 이들이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또 그들은 추한 짓을 저지르거나 자기 자신에게 불의를 행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들이다.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하겠는가?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한 짓을 알면서 고집하지 않는다. 이들의 보상은 그들의 주님에게서 오는 용서와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낙원이며,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머문다. 힘써 일하는 이들의 보상은 얼마나 좋은가! (130–136)

너희 이전에도 여러 삶의 길이 지나갔다. 그러니 땅을 여행하며, 진리를 부정한 자들의 끝이 어떠하였는지 보라. 이것은 사람들을 위한 분명한 선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위한 인도와 훈계이다. 용기를 잃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너희가 믿는 자들이라면 너희가 우위에 설 것이다. 너희가 상처를 입었다면, 저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상처를 입었다. 우리는 그런 날들을 사람들 사이에서 번갈아 돌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알아 두시고, 너희 가운데서 증인들을 삼으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깨끗이 가려내시고,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없애시려는 것이다. 아니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힘써 분투하는 이들을 아시고 인내하는 이들을 아시기도 전에 낙원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였는가? 너희는 죽음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을 바라곤 하였다. 이제 너희는 그것을 제 눈으로 보았다. (137–143)

무함마드는 한 사도일 뿐이며, 그 이전에도 사도들이 지나갔다. 그가 죽거나 죽임을 당한다면, 너희는 발길을 돌려 돌아서겠는가? 발길을 돌려 돌아서는 자는 하나님을 조금도 해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이들에게 보상하실 것이다.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을 수 없으니, 그것은 기록된 기한에 따른다. 현세의 보상을 원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그것에서 주고, 내세의 보상을 원하는 이에게는 우리가 그것에서 준다. 우리는 감사하는 이들에게 보상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예언자가, 곁에 있는 많은 헌신적인 이들과 함께 싸웠던가!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자기들에게 닥친 일로 용기를 잃지도 않았고, 약해지지도 않았으며, 굴복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그들이 한 말은 다만 이것이었다.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의 죄와 저희가 일에서 도를 넘은 것을 용서하시고, 저희의 발을 굳건히 하시며, 진리를 부정하는 백성을 이기도록 저희를 도우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현세의 보상과 내세의 뛰어난 보상을 주셨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144–148)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순종한다면, 그들은 너희의 발길을 돌려 돌아서게 할 것이며, 너희는 잃는 자가 될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보호자이시며, 그분은 돕는 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우리는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던져 넣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무 권위도 내리지 않으신 것을 하나님께 동반자로 두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거처는 불지옥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거처는 참으로 나쁘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으니, 그때 너희는 그분의 허락으로 그들을 무찌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너희는 용기를 잃고 명령을 두고 다투었으며, 그분께서 너희가 바라던 것을 너희에게 보여 주신 뒤에 거역하였다. 너희 가운데에는 현세를 원하는 자도 있었고, 내세를 원하는 이도 있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너희를 그들에게서 돌려세우셨다. 그분은 이제 너희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은총이 가득하시다. 너희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산비탈을 오르고 있을 때, 사도가 뒤에서 너희를 부르고 있던 때를 기억하라. 그래서 그분은 너희에게 슬픔 위에 슬픔으로 갚으셨으니, 너희가 놓친 것 때문에도, 너희에게 닥친 일 때문에도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일을 잘 아신다. 그런 다음 그분은 슬픔 뒤에 너희에게 안도감을 내리셨으니, 곧 너희 가운데 한 무리를 덮은 졸음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 무리는 자기 자신만을 걱정하며, 하나님에 대해 그릇되게, 곧 무지 시대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일에 우리가 할 말이 무엇이라도 있는가?" 말하라, "이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다." 그들은 너에게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감추고 있다. 그들은 말한다. "이 일에 우리가 할 말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하라, "너희가 집에 있었다 해도, 죽음이 정해진 이들은 자기가 쓰러질 곳으로 나갔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가슴속에 있는 것을 시험하시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깨끗이 가려내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가슴속에 있는 것을 잘 아신다. 두 군대가 맞붙던 날

너희 가운데 등을 돌린 자들은, 그들이 저지른 어떤 일 때문에 사탄이 그들을 미끄러지게 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용서하셨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관대하신 분이다. (149–155)

믿는 자들이여,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처럼 되지 말라. 그들은 자기 형제들이 땅을 여행하거나 싸우러 나갔을 때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더라면 죽지도 않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 한이 되게 하신다. 생명을 주시고 죽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길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죽는다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용서와 자비가 그들이 쌓아 모으는 모든 것보다 분명히 더 좋다. 너희가 죽든 죽임을 당하든,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모이게 된다. (156–158)

(예언자여) 네가 그들에게 부드러웠던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자비 덕분이었다. 네가 거칠고 마음이 모질었다면, 그들은 네 주위에서 흩어졌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며, 일을 두고 그들과 상의하라. 그런 다음 네가 결심하였으면 하나님께 의탁하라. 하나님은 당신께 의탁하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시면 아무도 너희를 이길 수 없다. 그러나 그분께서 너희를 버리신다면, 그분 뒤에 누가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는가? 그러니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 (159–160)

어떤 예언자도 전리품을 두고 부정하게 행할 수는 없다. 부정하게 행하는 자는 부활의 날에 자기가 가져간 것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때 모든 영혼은 자기가 벌어들인 것을 온전히 받을 것이며, 아무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을 좇는 이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자초하여 지옥을 거처로 삼은 자와 같겠는가? 그것은 참으로 나쁜 종착지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지위가 다르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신다. (161–163)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참으로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들 가운데서 그들 자신 가운데 한 사람을 사도로 일으키셨다. 그는 그들에게 그분의 징표를 낭송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성서와 지혜를 가르친다. 그들은 그 이전에는 명백한 미혹 속에 있었다. 너희가 적에게 그 두 배의 타격을 입혔는데도, 재난이 너희에게 닥치자 너희는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하고 말하니 어찌 된 일인가? 말하라,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두 군대가 맞붙던 날 너희에게 닥친 일은 하나님의 허락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분께서 믿는 자들을 알아 두시고, 또 위선자들을 알아 두시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오라. 하나님의 길에서 싸우든지, 적어도

너희 자신을 지키라." 하는 말을 듣자 이렇게 말했다. "싸움이 있을 줄 우리가 알았더라면 틀림없이 너희를 따랐을 것이다." 그날 그들은 믿음보다 부정에 더 가까웠으며, 마음에 없는 것을 입으로 말하였다. 하나님은 그들이 감추는 것을 가장 잘 아신다. (164–167)

그들은 자기들은 집에 눌러앉아 있으면서 자기 형제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 자들이다. "그들이 우리 말을 들었더라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하라, "그러면 너희가 진실하다면, 너희 자신에게서 죽음을 물리쳐 보라." 하나님의 길에서 죽임을 당한 이들을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니다. 그들은 살아 있으며, 그들의 주님 곁에서 양식을 받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며, 아직 그들에게 합류하지 못하고 뒤에 남아 있는 이들을 두고, 그들에게 두려움도 없고 그들이 슬퍼하지도 않으리라는 것을 기뻐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보상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뻐한다. 상처를 입은 뒤에도 하나님과 사도의 부름에 응답한 이들, 그들 가운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이들에게는 큰 보상이 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저 사람들이 너희를 치려고 모였으니 그들을 두려워하라." 하고 말했으나,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더할 뿐이었고, 그들은 말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그분은 얼마나 훌륭한 수호자이신가!"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고 돌아왔다. 어떤 해도 그들에게 닿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좇았다. 하나님은 크나큰 은총의 주님이시다. 너희로 하여금 자기 편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다만 사탄일 뿐이다. 그러니 너희가 믿는 자들이라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라. (168–175)

부정으로 내달리는 자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해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세에서 아무 몫도 주지 않으려 하신다. 엄청난 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믿음을 주고 부정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해치지 못한다. 고통스러운 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유예가 자기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그들에게 유예를 주는 것은 다만 그들이 죄를 더해 가게 하려는 것이다. 굴욕의 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을 좋은 것에서 가려내실 때까지, 믿는 자들을 너희가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알려 주지도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도들 가운데 원하시는 이를 선택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들을 믿으라. 너희가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너희에게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으로 주신 것에 인색한 자들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나쁜 것이다. 그들이

인색하게 움켜쥔 것이 부활의 날에 그들의 목에 감길 것이다. 하늘과 땅의 상속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일을 잘 아신다. (176–180)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가난하고 우리는 부유하다." 하고 말한 자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셨다. 우리는 그들이 한 말과, 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기록해 두고 말할 것이다. "타오르는 불의 징벌을 맛보라. 이것은 너희 자신의 손이 앞서 보낸 것 때문이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종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불이 삼키는 제물을 우리에게 가져오지 않는 한 어떤 사도도 믿지 말라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다." 말하라, "나 이전에도 사도들이 분명한 증거들과 너희가 말하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왔다. 너희가 진실하다면,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을 죽였는가?" (예언자여) 그들이 너를 거짓이라 한다면, 너 이전의 사도들도 거짓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분명한 증거들과 성서들과 빛을 비추는 성서를 가지고 왔다. 모든 영혼은 죽음을 맛본다. 너희는 부활의 날에야 너희의 보상을 온전히 받을 것이다. 불지옥에서 멀어져 낙원에 들어가게 된 이는 참으로 승리한 것이다. 현세의 삶은 속이는 즐길 거리일 뿐이다. 너희는 반드시 너희의 재산과 너희 자신으로 시험받을 것이며, 너희 이전에 성서를 받은 자들과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는 자들에게서 마음 아픈 말을 많이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굳은 결심이 필요한 일이다. (181–186)

하나님께서 성서를 받은 자들에게서 계약을 받으신 때를 기억하라. "너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감추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등 뒤로 내던지고 하찮은 값에 팔았다. 그들이 산 것은 참으로 나쁘다. 자기가 한 일을 뽐내고, 하지도 않은 일로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징벌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고통스러운 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187–188)

하늘과 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하늘과 땅의 창조와 밤과 낮의 바뀜에는 분별 있는 이들을 위한 징표들이 있다. 그들은 서서나 앉아서나 옆으로 누워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늘과 땅의 창조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이들이다. "우리 주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이것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께 영광이 있기를! 그러니 불지옥의 징벌에서 저희를 지켜 주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불지옥에 넣으시는 자는 참으로 당신께서 치욕을 주신 자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돕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는 '너희 주님을 믿으라.' 하고 믿음으로 부르는 이의 소리를 듣고 믿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의 나쁜 행위를 지워 주시며, 저희가 의로운 이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당신의 사도들을 통해 저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저희에게 주시고, 부활의 날에 저희에게 치욕을 주지 마소서. 당신께서는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나는 남자든 여자든, 너희 가운데 일하는 어떤 이의 일도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다. 너희는 서로에게서 나온 이들이다. 이주하고 자기 집에서 쫓겨난 이들, 나의 길에서 해를 입은 이들, 싸우고 죽임을 당한 이들, 내가 반드시 그들의 나쁜 행위를 지워 주고,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낙원에 그들을 들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보상이며, 가장 좋은 보상은 하나님 곁에 있다." (189–195)

(예언자여)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이 땅을 활보하고 다니는 것에 속지 말라. 그것은 잠깐의 즐거움이며, 그런 다음 그들의 거처는 지옥이다. 그것은 참으로 나쁜 쉴 곳이다. 그러나 자기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낙원이 있어,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머문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환대이다.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의로운 이들에게 가장 좋다. (196–198)

성서의 백성 가운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너희에게 내려진 것과 그들에게 내려진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표를 하찮은 값에 팔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주님 곁에 보상이 있다. 하나님은 셈에 빠르시다. 믿는 자들이여, 인내하고, 인내로 서로 앞서며, 굳게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너희가 번영할 것이다. (199–200)

# 4. 여인들 (Al-Nisā')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아, 너희 주님을 경외하라. 그분은 너희를 한 영혼에서 창조하시고, 그 영혼에서 그 짝을 창조하셨으며, 그 둘에게서 수많은 남자와 여자를 퍼뜨리셨다. 너희가 그 이름으로 서로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혈연의 유대도 소중히 여기라. 참으로 하나님은 늘 너희를 지켜보고 계신다.[5] (1)

고아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주라. 나쁜 것을 좋은 것과 바꾸지 말고, 그들의 재산을 너희 재산과 함께 삼키지 말라. 그것은 참으로 큰 죄이다. 너희가 고아 소녀들을 공정하게 대하지 못할까 두렵다면, 너희에게 좋아 보이는 다른 여자들과 둘이나 셋이나 넷까지 혼인하라. 그러나 그들 사이에 공정하게 대하지 못할까 두렵다면, 하나만 두거나 여종으로 하라. 그것이 너희가 불의를 저지르지 않기에 더 알맞다. 여자들에게 혼인 예물을 기꺼운 선물로 주라.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원하여 그 가운데 얼마를 너희에게 양보한다면, 마음 편히 그것을 누리라. (2–4)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삶의 버팀목으로 삼아 주신 재산을 지각이 모자란 이들에게 넘겨주지 말라.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을 부양하고 입히며,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하라. 고아들이 혼인할 나이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시험해 보라. 그런 다음 그들에게 바른 판단력이 있음을 알게 되면, 그들의 재산을 그들에게 넘겨주라. 그들이 다 자라기 전에 낭비하며 서둘러 그것을 삼키지 말라. 후견인이 넉넉하다면 그것에 손대기를 삼가야 하고, 가난하다면 공정한 만큼만 써도 된다. 너희가 그들의 재산을 그들에게 넘겨줄 때에는 그들 앞에 증인을 세우라. 그러나 셈하시는 분으로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5–6)

부모와 가까운 친족이 남긴 것에는 남자들의 몫이 있고, 부모와 가까운 친족이 남긴 것에는 여자들의 몫도 있다. 그것이 적든 많든, 정해진 몫이다. 나눌 때에 다른 친족과 고아와 궁핍한 이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거기에서 그들에게 얼마를 주고 좋은 말을 하라. 자기가 연약한 자식들을 뒤에 남기게 된다면 그들을 걱정할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그만큼 걱정해야 한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말을 하게 하라.

[5] 이것은 니카, 곧 무슬림의 혼인 예식 때 언제나 낭송되는 꾸란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는 인도된 진화를 향한, 미묘하지만 매우 극적인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왔다는 성경의 주장과 달리, 꾸란은 첫 배우자가 여성에게서 나왔다고 말하며, 진화의 초기에 유성 생식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암시합니다.

고아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삼키는 자들은 자기 배 속에 불을 삼킬 뿐이다. 그들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타게 될 것이다. (7–10)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자녀에 대해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신다. 남자의 몫은 여자 둘의 몫과 같다. 딸만 둘 이상 있다면, 그들의 몫은 고인이 남긴 것의 삼분의 이이다. 딸이 하나뿐이라면, 그의 몫은 절반이다. 고인의 부모에게는, 고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두 사람 각자에게 그가 남긴 것의 육분의 일이 있다. 그에게 자녀가 없고 부모가 상속자라면, 어머니에게 삼분의 일이 있다. 그에게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어머니에게 육분의 일이 있다. 이것은 그가 남긴 유증이나 빚을 치른 뒤의 일이다. 너희의 부모와 자녀 가운데 누가 너희에게 이로움에서 더 가까운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너희 아내들에게 자녀가 없다면, 그들이 남긴 것의 절반이 너희에게 있다. 그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남긴 것의 사분의 일이 너희에게 있다. 이것은 그들이 남긴 유증이나 빚을 치른 뒤의 일이다. 너희에게 자녀가 없다면, 너희가 남긴 것의 사분의 일이 아내들에게 있다. 너희에게 자녀가 있다면, 너희가 남긴 것의 팔분의 일이 그들에게 있다. 이것은 너희가 남긴 유증이나 빚을 치른 뒤의 일이다. 어떤 남자나 여자가 직계 상속자 없이 형제나 자매 하나를 두고 죽는다면, 그 둘 각자에게 육분의 일이 있다. 그들이 그보다 많다면, 그들은 삼분의 일을 나누어 갖는다. 이것은 남겨진 유증이나 빚을 치른 뒤의 일이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명령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관대하신 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순종하는 이를, 그분은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낙원에 들이시어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게 하신다. 그것이야말로 큰 승리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거역하고 그분의 한계를 넘는 자를, 그분은 불지옥에 넣으시어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게 하신다. 굴욕의 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11–14)

너희의 여자들 가운데 추한 짓을 저지르는 이가 있다면, 그들에 대해 너희 가운데서 네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 그들이 증언한다면, 죽음이 그들을 데려가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길을 마련하실 때까지 그들을 집에 머물게 하라.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그것을 저지른다면, 그 둘을 벌하라. 그러나 그들이 뉘우치고 행실을 바로잡는다면, 그들을 내버려 두라. 하나님은 뉘우침을 잘 받아 주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뉘우침을 받아 주시는 것은 다만, 모르고 악을 행하였다가 곧 뉘우치는 이들의 경우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이들에게 돌아오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러나 악한 짓을 계속하다가 죽음이 자기에게 닥쳐서야 "이제 저는 뉘우칩니다."

하고 말하는 자들의 뉘우침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진리를 부정하는 채로 죽는 자들의 뉘우침도 그러하다. 그들을 위해 우리는 고통스러운 징벌을 마련해 두었다. (15–18)

믿는 자들이여, 여자들을 그들의 뜻을 거슬러 상속하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또 너희가 그들에게 준 것의 일부를 도로 가져가려고 그들을 압박하지도 말라. 다만 그들이 명백한 추한 짓을 저지르는 경우는 예외이다. 그들과 좋은 사이로 살라. 너희가 그들을 싫어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것을 두신 어떤 것을 너희가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다. 너희가 한 아내를 다른 아내로 바꾸려 하고, 그 가운데 하나에게 큰 재물을 주었다 해도, 거기에서 아무것도 도로 가져가지 말라. 너희는 중상과 명백한 죄로 그것을 가져가려 하는가? 너희가 서로 깊이 가까이하였고, 그들이 너희에게서 엄숙한 계약을 받았는데, 어찌 그것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19–21)

너희 아버지들이 혼인하였던 여자들과 혼인하지 말라. 다만 이미 지나간 일은 예외이다. 그것은 추한 짓이요 가증스러운 일이며 나쁜 길이었다. 너희에게 혼인이 금지된 이들은 이러하다. 너희의 어머니, 딸, 자매, 고모, 이모, 형제의 딸, 자매의 딸, 너희에게 젖을 먹인 유모, 젖을 함께 먹은 자매, 너희 아내의 어머니, 그리고 너희가 이미 동침한 아내에게서 난 딸로서 너희의 보호 아래 있는 의붓딸이다. 다만 너희가 그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다. 또 너희 자신의 허리에서 난 아들들의 아내도 금지되며, 두 자매를 함께 아내로 두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이미 지나간 일은 예외이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또 혼인한 여자들도 금지된다. 다만 너희의 여종들은 예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규정이다. 그 밖의 여자들은 모두 너희에게 허락되어 있으니, 너희의 재산으로 음행이 아닌 바른 혼인을 구하는 한 그러하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누린 것에 대해서는 그들의 몫을 의무로 주라. 그 의무를 정한 뒤에 너희가 서로 합의하는 것에는 너희에게 죄가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22–24)

너희 가운데 믿는 자유인 여자와 혼인할 형편이 못 되는 이는, 믿는 여종들 가운데서 혼인하게 하라. 하나님은 너희의 믿음을 가장 잘 아신다. 너희는 서로에게서 나온 이들이다. 그러니 그들의 주인의 허락을 받아 그들과 혼인하고, 공정하게 그들의 혼인 예물을 주라. 그들은 음행을 하거나 숨은 정부를 두는 여자가 아니라 정숙한 여자여야 한다. 혼인한 뒤에 그들이 추한 짓을 저지른다면, 자유인 여자에게 정해진 벌의 절반을 받는다. 이것은 너희 가운데 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인내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분명히 밝혀 주시고, 너희 이전 사람들의 길로 너희를 인도하시며,

자비로 너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로 너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자기 욕망을 따르는 자들은 너희가 멀리 빗나가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해 주기를 원하신다. 사람은 연약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25–28)

믿는 자들이여, 너희끼리 서로의 재산을 부당하게 삼키지 말라. 서로 동의하여 거래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서로를 죽이지 말라. 참으로 하나님은 너희에게 자애로우시다. 누구든 공격과 불의로 그렇게 하는 자를, 우리는 불지옥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쉬운 일이다. 너희에게 금지된 큰 죄들을 너희가 피한다면, 우리는 너희의 작은 잘못들을 지워 주고, 너희를 영예로운 문으로 들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다른 이들보다 낫게 하신 것을 탐내지 말라. 남자들에게는 그들이 벌어들인 것의 몫이 있고, 여자들에게도 그들이 벌어들인 것의 몫이 있다. 하나님께 그분의 은총을 청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부모와 가까운 친족이 남긴 것에 대해, 우리는 모든 이에게 상속자들을 정해 두었다. 너희가 맹세로 약속한 이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주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증인이시다. (29–33)

남자들은 여자들을 돌보는 이들이다. 하나님께서 한쪽에게 다른 쪽보다 더 주신 것이 있고, 그들이 자기 재산에서 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로운 여자들은 경건히 순종하며, 남편이 없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것을 지킨다. 너희가 거역을 염려하는 여자들에게는 훈계하고, 그다음에는 잠자리에서 멀리하며, 그다음에는 그들과 떨어져 지내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한다면, 그들을 거스를 길을 찾지 말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크신 분이다. 두 사람 사이가 갈라질까 너희가 염려한다면, 남편의 집안에서 중재자 한 사람과 아내의 집안에서 중재자 한 사람을 세우라. 그 둘이 화해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밝으신 분이다. (34–35)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아무것도 동반자로 두지 말라. 부모에게, 친족에게, 고아들에게, 궁핍한 이들에게, 가까운 이웃과 먼 이웃에게, 곁에 있는 동료에게, 나그네에게, 그리고 종들에게 잘하라. 하나님은 교만하고 뽐내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인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색하라고 시키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으로 주신 것을 감추는 자들이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는 굴욕의 징벌을 마련해 두었다. 또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재산을 쓰며, 하나님도 마지막 날도 믿지 않는 자들이다. 사탄을 동료로 둔 자가 있다면, 그는 얼마나 나쁜 동료인가! 그들이 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가운데서 베풀었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해가 되었겠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잘 아신다. 하나님은 티끌 한 점의 무게만큼도 누구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선한 행위가 있다면 그분은 그것을 몇 곱절로 불리시고, 당신에게서 오는 큰 보상을 주신다. 우리가 공동체마다 증인 한 사람을 데려오고, (예언자여) 너를 이들에 대한 증인으로 데려올 때, 어떻게 되겠는가? 그날 진리를 부정하고 사도에게 거역한 자들은 땅이 자기들 위로 평평하게 덮이기를 바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단 한 가지도 숨기지 못할 것이다. (36–42)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취해 있을 때에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될 때까지 예배에 가까이 가지 말라. 또 큰 부정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다만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면, 온몸을 씻을 때까지 그리하지 말라. 너희가 병들었거나 여행 중이거나, 너희 가운데 누가 용변을 보고 왔거나, 너희가 여자들과 접촉하였는데 물을 찾지 못한다면, 깨끗한 흙을 찾아 그것으로 너희의 얼굴과 손을 문지르라. 하나님은 너그러이 봐주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분이다. (43)

너는 성서의 한 몫을 받은 자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그들은 미혹을 사며, 너희도 길을 잃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너희의 적들을 가장 잘 아신다. 보호자로는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돕는 이로도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말을 제자리에서 옮겨 놓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혀를 비틀고 종교를 헐뜯으면서, "우리는 듣고 거역한다." "들으라, 네가 듣지 못하기를." 그리고 "라이나." 하고 말한다. 그들이 "우리는 듣고 순종합니다."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보아 주십시오." 하고 말했더라면, 그것이 그들에게 더 좋고 더 바른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정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셨으니, 그들은 조금밖에 믿지 않는다. (44–46)

성서를 받은 자들이여, 너희에게 이미 있는 것을 확증하며 우리가 내린 것을 믿으라. 우리가 얼굴들을 지워 뒤쪽으로 돌려 놓거나, 안식일의 사람들을 저주한 것처럼 그들을 저주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무엇인가를 동반자로 두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보다 못한 것은 원하시는 이에게 용서하신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동반자로 두는 자는 엄청난 죄를 지어낸 것이다. 너는 자기가 정결하다고 내세우는 자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를 정결하게 하신다. 그들은 대추야자 씨의 실오라기만큼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다. 보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지어내는지를. 그것만으로도 명백한 죄로 충분하다. 너는 성서의 한 몫을 받은 자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그들은 우상과 거짓 신들을 믿으며,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두고 "이들이 믿는 자들보다 더 바른 길로 인도받았다." 하고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자를 위해서는 네가 돕는 이를 찾지 못할 것이다. 아니면 그들에게 왕권의 몫이라도 있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대추야자 씨의 작은 점만큼도 사람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으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을 시기하는가? 우리는 이브라힘의 집안에 성서와 지혜를 주었고, 그들에게 큰 왕국을 주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믿었고, 어떤 이들은 그것에서 돌아섰다. 타오르는 불로는 지옥으로 충분하다. 우리의 징표를 부정하는 자들을, 우리는 불지옥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들의 살갗이 다 타 버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살갗으로 바꾸어 그들이 징벌을 맛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러나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은, 우리가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낙원에 들일 것이며,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머문다. 그곳에서 그들은 정결한 배우자들을 얻고, 우리는 그들을 짙은 그늘 속으로 들일 것이다. (47–57)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맡은 것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사람들 사이를 판결할 때에는 정의롭게 판결하라고 명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훈계는 얼마나 훌륭한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도와 너희 가운데 권위를 가진 이들에게 순종하라. 너희가 어떤 일로 서로 달리한다면, 너희가 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는다면 그 일을 하나님과 사도에게 돌리라. 그것이 가장 좋고, 결과도 가장 아름답다. 너는 자기들이 너에게 내려진 것과 너 이전에 내려진 것을 믿는다고 내세우는 자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그들은 거짓 신들에게 판결을 구하려 한다. 그것들을 거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그러하다. 사탄은 그들을 멀리 미혹하려 한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과 사도에게로 오라." 하는 말을 들으면, 너는 위선자들이 너를 싫어하며 돌아서는 것을 본다. 그들 자신의 손이 앞서 보낸 것 때문에 재난이 그들에게 닥칠 때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때 그들은 너에게 와서 하나님께 맹세하며 말할 것이다. "우리는 선의와 화해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돌아서고, 그들에게 훈계하며, 그들 자신에 대해 마음 깊이 파고드는 말을 해 주라. (58–63)

우리가 사도를 보낸 것은 오직 하나님의 허락으로 그가 순종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언자여)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불의를 행했을 때 너에게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도도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뉘우침을 잘 받아 주시고 자애로우신 분임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너의 주님께 맹세코, 그들은 자기들 사이의 다툼에서 너를 재판관으로 삼고, 그런 다음 네가 내린 결정에 마음속으로 아무 거리낌도 느끼지 않으며 온전히 따르기 전에는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너희의 목숨을 내놓으라." 하거나 "너희의 집을 떠나라." 하고 정했더라도, 그들 가운데

몇 사람 말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훈계받은 대로 했더라면, 그것이 그들에게 더 좋고 믿음을 더 굳게 해 주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우리는 우리에게서 오는 큰 보상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을 곧은 길로 인도했을 것이다. 하나님과 사도에게 순종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들, 곧 예언자들과 진실한 이들과 순교자들과 의로운 이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얼마나 훌륭한 동반자들인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총이다. 아시는 분으로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64–70)

믿는 자들이여, 경계를 갖추라. 그런 다음 무리를 지어 나아가든지, 모두 함께 나아가라. 너희 가운데에는 뒤에 처지는 자가 있다. 그러다가 너희에게 재난이 닥치면 그는 말한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은총이 너희에게 오면, 그는 마치 너희와 자기 사이에 아무 정도 없었던 것처럼 말한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큰 성공을 거두었을 텐데!" 현세의 삶을 내세와 바꾸어 파는 이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싸우게 하라. 하나님의 길에서 싸우는 이는, 죽임을 당하든 승리하든, 우리가 그에게 큰 보상을 줄 것이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길에서, 그리고 억압받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위해 싸우지 않겠는가? 그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 주님이시여, 주민들이 압제자인 이 고을에서 저희를 이끌어 내 주소서. 당신에게서 오는 보호자를 저희에게 세워 주시고, 당신에게서 오는 돕는 이를 저희에게 세워 주소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싸우고,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거짓 신들의 길에서 싸운다. 그러니 사탄의 편에 선 자들과 싸우라. 사탄의 계략은 참으로 약하다. (71–76)

너는 "너희의 손을 거두고, 예배를 지키며, 정해진 희사를 바치라." 하는 말을 들었던 자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그런데 싸움이 그들에게 정해지자, 그들 가운데 한 무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아니 그보다 더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말했다. "우리 주님이시여, 어찌하여 저희에게 싸움을 정하셨습니까? 저희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셨더라면!" 말하라, "현세의 즐거움은 짧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내세가 더 좋다. 너희는 대추야자 씨의 실오라기만큼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 죽음은 너희를 따라잡을 것이다. 너희가 높은 망대 안에 있다 해도 그러하다. 그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나쁜 일이 닥치면 "이것은 너에게서 온 것이다." 하고 말한다. 말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 사람들은 어찌 된 일이기에 말 한마디도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가? 너에게 생기는 좋은 일은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너에게 닥치는 나쁜 일은 무엇이든 너 자신에게서 온 것이다. 우리는 너를 사람들에게 사도로 보냈다. 증인으로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사도에게 순종하는 이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다. 등을 돌리는

자가 있다 해도, 우리는 너를 그들의 감시자로 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고 말하지만, 너를 떠나면 그들 가운데 한 무리는 밤중에 네가 말하는 것과 다른 일을 꾸민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밤중에 꾸미는 것을 기록하신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돌아서고 하나님께 의탁하라. 수호자로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77–81)

그들은 꾸란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가? 그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이에게서 온 것이었다면, 그들은 그 안에서 많은 모순을 발견했을 것이다.[6] (82)

안전이나 두려움에 관한 소식이 그들에게 올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퍼뜨린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사도와 그들 가운데 권위를 가진 이들에게 돌렸더라면, 그들 가운데 그 뜻을 헤아려 낼 수 있는 이들이 그것을 알았을 것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없었더라면, 너희는 몇 사람만 빼고 사탄을 따랐을 것이다. (83)

(예언자여) 그러니 하나님의 길에서 싸우라. 너는 오직 너 자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북돋우라. 하나님께서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힘을 막아 주실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힘에서 더 강하시고, 징벌에서도 더 강하시다. (84)

좋은 일을 위해 중재하는 이는 그것에서 한 몫을 얻고, 나쁜 일을 위해 중재하는 자는 그것에서 짐을 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너희가 인사를 받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인사로 답하거나 같은 인사로 돌려주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셈하신다.[7] (85–86)

하나님, 그분 말고는 신이 없다. 그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부활의 날에 반드시 너희를 한데 모으실 것이다.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참되겠는가? (87)

하나님께서 위선자들이 벌어들인 것 때문에 그들을 부정으로 되돌려 놓으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들을 두고 두 편으로 갈라지는가? 너희는 하나님께서 미혹에 버려두신 자들을 인도하려 하는가? 하나님께서 미혹에 버려두시는 자를 위해서는 네가 결코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부정한 것처럼 너희도 진리를 부정하여, 너희가 모두 똑같아지기를 바란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이주하기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동맹을 삼지 말라. 그들이 돌아선다면, 너희가 그들을 발견하는 곳

[6] **중요한 구절: 과학적·철학적·역사적·신학적 모순이 없는 영광스러운 꾸란**
**꾸란 3:7 과 4:82 – 과학, 철학, 신학에 비추어 본 종합적 주석**
**꾸란 4:82 에 대한 성찰 – 하나님 말씀의 일관성에 관한 심리학, 철학, 신학**

[7] 이 중요한 구절들은 믿는 이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길러 줍니다. 그들은 자기의 가장 작은 선행조차 헛되지 않음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기록되고 있으며,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죄를 피해야 합니다.

어디에서든 그들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 가운데 누구도 동맹이나 돕는 이로 삼지 말라. 다만 너희와 조약을 맺은 백성에게 합류하는 자들이나, 너희와 싸우는 것도 자기 백성과 싸우는 것도 꺼리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오는 자들은 예외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들에게 너희를 누를 힘을 주시어, 그들이 너희와 싸웠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서 물러나 너희와 싸우지 않고 너희에게 화평을 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그들을 거스를 길을 주지 않으신다. 너희는 너희에게서도 안전하고 자기 백성에게서도 안전하기를 바라는 다른 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시험으로 되돌려질 때마다 그 속으로 곤두박질친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서 물러나지도 않고, 너희에게 화평을 청하지도 않으며, 자기 손을 거두지도 않는다면, 너희가 그들을 만나는 곳 어디에서든 그들을 붙잡아 죽이라.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희에게 분명한 권한을 주었다. (88–91)

믿는 이가 믿는 이를 죽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실수로 그런 경우는 예외이다. 실수로 믿는 이를 죽인 사람은 믿는 종 한 사람을 해방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의 값을 치러야 한다. 다만 그들이 그것을 자선으로 면해 주는 경우는 예외이다. 피해자가 너희와 전쟁 중인 백성에 속한 믿는 이였다면, 믿는 종 한 사람을 해방해야 한다. 그가 너희와 조약을 맺은 백성에 속하였다면, 그의 가족에게 피의 값을 치르고 믿는 종 한 사람을 해방해야 한다. 그럴 형편이 못 되는 이는 두 달을 이어서 단식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는 속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믿는 이를 일부러 죽이는 자에 대한 보응은 지옥이며, 그는 그곳에서 영원히 머문다. 하나님의 노여움과 저주가 그 위에 있고, 그분께서는 그를 위해 엄청난 징벌을 마련해 두셨다.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하나님의 길에서 나아갈 때에는 잘 분별하고, 너희에게 화평의 인사를 건네는 이에게 현세의 덧없는 이익을 구하여 "너는 믿는 자가 아니다."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 곁에는 풍성한 전리품이 있다. 너희 자신도 전에는 그러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 잘 분별하라.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일을 잘 아신다. (92–94)

믿는 자들 가운데, 몸에 탈이 있는 이들 말고 집에 앉아 있는 자들은, 자기 재산과 목숨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분투하는 이들과 같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재산과 목숨으로 분투하는 이들을 앉아 있는 자들보다 한 단계 높이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가장 좋은 보상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투하는 이들을 앉아 있는 자들보다 큰 보상으로 낫게 하셨다. 그것은 그분에게서 오는 여러 단계의 영예와 용서와 자비이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95–96)

천사들이 자기 자신에게 불의를 행한 자들의 영혼을 거둘 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 그들이 대답할 것이다. "우리는 그 땅에서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땅은 너희가 이주할 만큼 넓지 않았는가?" 그들의 거처는 지옥이다. 그것은 참으로 나쁜 종착지이다. 다만 참으로 힘없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로서, 아무 방도가 없고 길을 찾을 수 없는 이들은 예외이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봐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봐주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길에서 이주하는 이는 땅에서 많은 피난처와 넉넉함을 발견할 것이다. 누구든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로 이주하려고 자기 집을 떠났다가 죽음을 맞는다면, 그의 보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97–100)

너희가 땅을 여행할 때,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너희를 공격할까 두렵다면, 예배를 줄여도 너희에게 죄가 없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너희의 분명한 적이다. (예언자여) 네가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의 예배를 인도할 때에는, 그들 가운데 한 무리가 무기를 든 채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들이 엎드려 예배를 마쳤으면 뒤로 물러나게 하고, 아직 예배하지 않은 다른 무리가 나와서 경계를 갖추고 무기를 든 채 너와 함께 예배하게 하라.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너희가 무기와 짐에 소홀해져서, 자기들이 단번에 너희를 덮칠 수 있기를 바란다. 비 때문에 불편하거나 병이 들어 너희가 무기를 내려놓는다 해도 너희에게 죄가 없다. 그러나 경계는 갖추라.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위해 굴욕의 징벌을 마련해 두셨다. 너희가 예배를 마쳤으면, 서서나 앉아서나 옆으로 누워서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다음 안전해지면 예배를 온전히 지키라. 예배는 믿는 자들에게 정해진 시간에 지키도록 정해져 있다. 적을 쫓는 일에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 너희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들도 너희처럼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이 바라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란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101–104)

(예언자여) 우리는 진리와 함께 너에게 성서를 내렸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 주신 것으로 사람들 사이를 판결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배신하는 자들을 위해 변호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자들을 위해 변론하지 말라. 하나님은 배신하고 죄짓는 자를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사람들에게서는 숨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숨지 못한다. 그들이 밤중에 그분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을 꾸밀 때, 그분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에워싸고 계신다. 여기 너희는 현세의 삶에서 그들을 위해 변론하였다. 그러나 부활의 날에는 누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변론하겠는가? 아니면 누가 그들의 수호자가 되겠는가? 악을 행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불의를 행한 뒤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죄를 짓는 자는 다만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도록 그것을 짓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잘못이나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것을 죄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자는, 중상과 명백한 죄를 스스로 짊어진 것이다. (105–112)

(예언자여)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없었더라면, 그들 가운데 한 무리가 너를 미혹하려고 마음먹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미혹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며, 그들은 너를 조금도 해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성서와 지혜를 내리시고, 네가 알지 못하던 것을 너에게 가르치셨다.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은 참으로 크다. 그들이 몰래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많은 것에는 좋은 것이 없다. 다만 자선이나 옳은 일이나 사람들 사이의 화해를 권하는 이의 경우는 예외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여 이렇게 하는 이에게, 우리는 큰 보상을 줄 것이다. 인도가 자기에게 분명해진 뒤에 사도에게 맞서고, 믿는 자들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따르는 자를, 우리는 그가 돌아선 쪽으로 내버려 두고 지옥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나쁜 종착지이다. (113–115)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무엇인가를 동반자로 두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보다 못한 것은 원하시는 이에게 용서하신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동반자로 두는 자는 참으로 멀리 미혹된 것이다. 그들은 그분 대신에 여신들만을 부르며, 거역하는 사탄만을 부른다.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셨다. 그가 말했다. "나는 반드시 당신의 종들 가운데서 정해진 몫을 차지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헛된 바람으로 채울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하면 그들은 가축의 귀를 찢을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명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사탄을 보호자로 삼는 자는 분명한 손실을 입은 것이다. 사탄은 그들에게 약속하고, 그들을 헛된 바람으로 채운다. 그러나 사탄이 그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속임수일 뿐이다. 그들의 거처는 지옥이며, 그들은 거기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은, 우리가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낙원에 들일 것이며,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머문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약속이다.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참되겠는가? 그것은 너희의 헛된 바람에 달린 것도 아니고, 성서의 백성의 헛된 바람에 달린 것도 아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말고는 보호자도 돕는 이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남자든 여자든, 믿는 자로서 선을 행하는 이들은 낙원에 들어갈 것이며, 대추야자 씨의 작은 점만큼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다. 선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맡기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 이브라힘의 종교를 따르는 이보다, 종교에서 더

나은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브라힘을 벗으로 삼으셨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에워싸고 계신다. (116–126)

(예언자여) 그들은 여자들에 관한 판정을 너에게 청한다. 말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너희에게 판정을 내려 주신다. 또 성서에서 너희에게 낭송되는 것도 그러하니, 그것은 너희가 혼인하기를 원하면서도 그들에게 정해진 것을 주지 않는 고아 소녀들에 관한 것이고, 힘없는 아이들에 관한 것이며, 너희가 고아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희가 어떤 선을 행하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신다." (127)

어떤 여자가 남편에게서 학대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면, 두 사람이 서로 화해를 이루어도 그들에게 죄가 없다. 화해가 가장 좋다. 영혼은 탐욕에 기울기 쉽다. 그러나 너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일을 잘 아신다. 너희가 아무리 바란다 해도, 아내들 사이에 똑같이 공정하게 대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다른 쪽을 공중에 매달린 것처럼 내버려 두지는 말라. 너희가 바로잡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두 사람이 헤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넉넉함으로 각자를 채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너희 이전에 성서를 받은 자들에게도 명하였고 너희에게도 명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가 진리를 부정한다 해도,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모든 찬미를 받으실 분이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수호자로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아, 그분께서 원하신다면 너희를 모두 없애시고 다른 이들을 데려오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실 권능이 있다. 현세의 보상을 원하는 자가 있다면, 현세와 내세의 보상이 모두 하나님 곁에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 (128–134)

믿는 자들이여, 정의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을 위한 증인이 되라. 그것이 너희 자신이나 부모나 가까운 친족에게 불리하다 해도 그리하라. 그 사람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께서 그 둘에게 더 가까우시다. 그러니 정의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욕망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증언을 비틀거나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일을 잘 아신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믿고, 그분께서 당신의 사도에게 내리신 성서와 그 이전에 내리신 성서를 믿으라.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그분의 성서들과 그분의 사도들과 마지막 날을 부정하는 자는 참으로 멀리 미혹된 것이다. 믿었다가 진리를 부정하고, 다시 믿었다가 다시 부정하고, 그런 다음 부정을 더해 가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어떤 길로도 인도하지 않으실 것이다. 위선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라. (135–138)

그들은 믿는 자들을 제쳐 두고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동맹으로 삼는 자들이다. 그들은 그들 곁에서 영예를 구하는가? 참으로 모든 영예는 하나님께 있다. 그분께서는 이미 성서에서 너희에게 이렇게 내리셨다. 하나님의 징표가 부정되고 조롱받는 것을 너희가 듣거든, 그들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 때까지 그들과 함께 앉아 있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그들과 같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선자들과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모두 함께 지옥에 모으실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지켜보며 기다리는 자들이다. 하나님에게서 너희에게 승리가 오면 그들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았는가?"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몫이 돌아가면 그들은 "우리가 너희보다 우위에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믿는 자들에게서 지켜 주지 않았는가?" 하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날에 너희 사이를 판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을 이길 길을 주지 않으실 것이다. (139–141)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만, 그들을 속이시는 분은 그분이시다. 그들은 예배하러 일어설 때 마지못해 일어서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며, 하나님을 조금밖에 기억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쪽과 저쪽 사이에서 흔들리며, 이들에게도 저들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미혹에 버려두시는 자를 위해서는 네가 결코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믿는 자들이여, 믿는 자들을 제쳐 두고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동맹으로 삼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거스를 분명한 증거를 드리려 하는가? 위선자들은 불지옥의 가장 낮은 바닥에 있을 것이며, 너는 그들을 위해 돕는 이를 찾지 못할 것이다. 다만 뉘우치고, 바로잡으며,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자기 종교를 진실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이들은 예외이다. 그들은 믿는 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큰 보상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감사하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를 벌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잘 보답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쁜 말을 드러내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다만 부당한 일을 당한 이의 경우는 예외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너희가 선을 드러내든 감추든, 또는 악을 너그러이 봐주든, 참으로 하나님은 너그러이 봐주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142–149)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들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들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며, "우리는 어떤 이들은 믿고 어떤 이들은 부정한다." 하고 말하면서 그 사이에서 길을 택하려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부정하는 자들이다. 부정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는 굴욕의 징벌을 마련해 두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들을 믿고 그들 가운데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이들, 그분께서는 이들에게 그들의 보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150–152)

성서의 백성은 너에게 하늘에서 책 한 권을 자기들에게 내려 달라고 요구한다. 그들은 무사에게 그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여 "하나님을 눈으로 분명히 보여 주십시오." 하고 말했고, 그들의 불의 때문에 벼락이 그들을 덮쳤다. 그런 다음 그들은 분명한 증거들이 그들에게 온 뒤에 송아지를 섬겼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용서하였고, 무사에게 뚜렷한 권위를 주었다. 우리는 그들의 계약을 받으면서 그들 위로 산을 높이 들어 올리고, 그들에게 "겸손히 성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말했으며, "안식일에 한계를 넘지 말라." 하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엄숙한 계약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계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징표를 부정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은 싸여 있다." 하고 말한 것 때문에 그들을 벌하였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정 때문에 그 마음을 봉하셨으니, 그들은 조금밖에 믿지 않는다. 또 그들의 부정과, 그들이 마르얌에 대해 엄청난 중상을 입에 올린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 마르얌의 아들 메시아 이사를 죽였다." 하고 말한 것 때문이다. 그들은 그를 죽이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다. 다만 그들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 일을 두고 서로 달리하는 자들은 그에 대해 의심 속에 있다. 그들에게는 그에 대한 지식이 없고, 다만 짐작을 따를 뿐이다. 그들은 분명히 그를 죽이지 않았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께로 들어 올리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성서의 백성 가운데 그가 죽기 전에 그를 믿지 않을 이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의 날에 그는 그들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유대인들의 불의 때문에,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던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금하였다. 또 그들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길에서 막고, 금지되었는데도 고리를 받으며, 사람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삼켰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는 고통스러운 징벌을 마련해 두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지식에 굳게 뿌리내린 이들과 믿는 이들은 (예언자여) 너에게 내려진 것과 너 이전에 내려진 것을 믿는다. 또 예배를 지키고 정해진 희사를 바치며 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는 이들, 이들에게 우리는 큰 보상을 줄 것이다. (153–162)

(예언자여) 우리는 누흐와 그 이후의 예언자들에게 계시한 것처럼 너에게 계시하였다. 또 우리는 이브라힘과 이스마일과 이스하끄와 야꿉과 지파들에게, 그리고 이사와 아이윱과 유누스와 하룬과 술라이만에게 계시하였으며, 다우드에게는 시편을 주었다. 우리가 전에 너에게 이야기해 준 사도들도 있고, 너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은 사도들도 있다. 그리고 무사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고 경고하는 사도들이었으니, 사도들이 온 뒤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세울 구실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너에게 내리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지식으로 그것을 내리셨다. 천사들도 증언한다. 증인으로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진리를 부정하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막는 자들은 참으로 멀리 미혹된 것이다. 진리를 부정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며, 지옥의 길 말고는 어떤 길로도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머문다. 그것은 하나님께 쉬운 일이다. (163–169)

사람들아, 사도가 너희 주님에게서 온 진리를 가지고 너희에게 왔다. 그러니 믿으라. 그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 그러나 너희가 부정한다 해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성서의 백성이여, 너희의 종교에서 도를 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 진리 말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마르얌의 아들 메시아 이사는 다만 하나님의 사도이며, 그분께서 마르얌에게 내려 주신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에게서 온 영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들을 믿고, "셋"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만두라. 그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그분께 아들이 있다니 당치도 않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다. 수호자로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결코 업신여기지 않으며, 그분 가까이에 있는 천사들도 그러하다. 그분을 섬기기를 업신여기고 교만한 자들, 그분께서는 그들을 모두 당신께로 모으실 것이다.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그분께서 그들의 보상을 온전히 주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더 보태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업신여기고 교만한 자들은 그분께서 고통스러운 징벌로 벌하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 말고는 자기들을 위한 보호자도 돕는 이도 찾지 못할 것이다. (170–173)

사람들아, 너희 주님에게서 증거가 너희에게 왔고, 우리는 너희에게 분명한 빛을 내렸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굳게 붙드는 이들을, 그분은 당신에게서 오는 자비와 은총 안으로 들이시고, 곧은 길로 당신께 인도하실 것이다. (174–175)

(예언자여) 그들은 너에게 판정을 청한다.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도 자녀도 남기지 않은 사람에 대해 너희에게 판정을 내려 주신다. 어떤 남자가 자녀 없이 죽고 누이 하나가 있다면, 그가 남긴 것의 절반이 그 누이에게 있다. 누이에게 자녀가 없다면, 그가 누이를 상속한다. 누이가 둘이라면, 그가 남긴 것의 삼분의 이가 그들에게 있다. 형제와 자매가 함께 있다면, 남자의 몫은 여자 둘의 몫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너희에게 분명히 밝혀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176)

# 5. 식탁 (Al-Mā’ida)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이여, 너희의 계약을 이행하라. 이제 너희에게 낭송될 것 말고는 가축이 너희에게 허락되어 있다. 그러나 너희가 순례의 성스러운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사냥이 허락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정하신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의식의 표지를 범하지 말고, 성스러운 달도, 제물도, 그것을 표시하는 목걸이도, 자기 주님의 은총과 기쁨을 구하여 성스러운 집으로 향하는 이들도 범하지 말라. 너희가 순례의 성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났으면 사냥해도 된다. 전에 너희를 성스러운 모스크에서 막았던 백성에 대한 미움 때문에 너희가 한계를 넘는 일이 없게 하라. 의로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서로 돕고, 죄와 적의에서는 서로 돕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징벌에 엄하시다. (1–2)

너희에게 금지된 것은 이러하다. 죽은 짐승의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게 바쳐진 것, 목 졸려 죽은 짐승, 맞아 죽은 짐승, 떨어져 죽은 짐승, 뿔에 받혀 죽은 짐승, 맹수가 뜯어 먹은 짐승이다. 다만 아직 살아 있을 때 너희가 잡은 것은 예외이다. 또 돌 제단에서 제물로 바쳐진 것도 금지되며, 화살 점으로 고기를 나누는 것도 금지된다. 그것은 거역하는 짓이다. 오늘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너희의 종교를 뒤엎을 희망을 잃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라. 오늘 나는 너희를 위해 너희의 종교를 완성하였고, 너희에게 나의 은혜를 온전히 베풀었으며, 하나님께 귀의하는 것을 너희의 종교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누구든 죄로 기울 뜻이 없이 굶주림에 몰려 어쩔 수 없게 된다면,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3)

그들은 무엇이 자기들에게 허락되어 있는지 너에게 묻는다. 말하라, “모든 좋은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어 있다. 또 너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가운데서 가르쳐 길들인 사냥 짐승이 너희를 위해 잡은 것도 그러하다. 그러니 그것들이 너희를 위해 잡은 것을 먹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셈에 빠르시다.” 오늘 모든 좋은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성서를 받은 이들의 음식은 너희에게 허락되고, 너희의 음식도 그들에게 허락된다. 또 믿는 이들 가운데 정숙한 여자들과, 너희 이전에 성서를 받은 이들 가운데 정숙한 여자들도 너희에게 허락된다. 너희가 그들에게 혼인 예물을 주고, 음행으로도 아니고 숨은 정부로도 아닌 바른 혼인으로 그들을 맞이하는 경우이다. 믿음을 거부하는 자는 그 행위가 헛것이 되고, 내세에서 잃는 자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4–5)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예배하러 일어설 때에는 얼굴과 팔꿈치까지의 손을 씻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발목까지의 발을 씻으라. 너희가 큰 부정의 상태에 있다면 온몸을 깨끗이 하라. 그러나 너희가 병들었거나 여행 중이거나, 너희 가운데 누가 용변을 보고 왔거나, 너희가 여자들과 접촉하였는데 물을 찾지 못한다면, 깨끗한 흙을 찾아 그것으로 너희의 얼굴과 손을 문지르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어려움을 지우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너희에게 당신의 은혜를 온전히 베풀기를 원하시니, 너희가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너희가 "저희는 듣고 순종합니다." 하고 말했을 때 그분께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가슴속에 있는 것을 잘 아신다. (6–7)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서 정의의 증인이 되라. 어떤 백성에 대한 미움 때문에 너희가 정의롭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라. 정의롭게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더 가깝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잘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셨으니, 그들에게는 용서와 큰 보상이 있다. 그러나 진리를 부정하고 우리의 징표를 거짓이라 하는 자들, 그들은 타오르는 불의 주민이다. (8–10)

믿는 자들이여, 어떤 백성이 너희에게 손을 뻗치려 했을 때 그분께서 그들의 손을 너희에게서 막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 (1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계약을 받으셨고,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열두 지도자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예배를 지키고 정해진 희사를 바치며, 나의 사도들을 믿고 그들을 도우며, 하나님께 좋은 빚을 빌려드린다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나쁜 행위를 지워 주고,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낙원에 너희를 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 뒤에 너희 가운데 진리를 부정하는 자는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였다. 그들은 말을 제자리에서 옮겨 비틀고, 자기들이 일깨움 받은 것 가운데 일부를 잊어버렸다. 너는 그들 가운데 몇 사람 말고는, 그들에게서 배신을 끊임없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고 눈감아 주라.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말하는 자들에게서도 우리는 계약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도 자기들이 일깨움 받은 것 가운데 일부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날까지 그들 사이에 적의와 미움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던 일을 그들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12–14)

성서의 백성이여, 우리의 사도가 너희에게 왔다. 그는 너희가 성서에서 숨겨 오던 것 가운데 많은 것을 너희에게 밝혀 주고, 또 많은 것은 그냥 넘어간다. 하나님에게서 빛과 분명한 성서가 너희에게 왔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당신의 기쁨을 구하는 이를 평화의 길들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허락으로 그들을 깊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내시며, 그들을 곧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마르얌의 아들 메시아이다." 하고 말하는 자들은 참으로 진리를 부정한 것이다. 말하라, "하나님께서 마르얌의 아들 메시아와 그의 어머니와 땅에 있는 모든 이를 멸하려 하신다면, 누가 하나님께 맞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의 왕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분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이다." 하고 말한다. 말하라,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분께서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를 벌하시는가? 아니다. 너희는 그분께서 창조하신 이들 가운데 있는 사람일 뿐이다. 그분은 원하시는 이를 용서하시고, 원하시는 이를 벌하신다."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의 왕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여정의 끝은 그분께 있다. 성서의 백성이여, 사도들이 끊긴 한동안이 지난 뒤에 우리의 사도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에게 밝혀 주고 있으니, 너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도 경고하는 이도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요 경고하는 이가 너희에게 왔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15–19)

무사가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 때를 기억하라. "나의 백성이여,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분은 너희 가운데 예언자들을 세우시고, 너희를 왕으로 삼으셨으며,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주지 않으신 것을 너희에게 주셨다. 나의 백성이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정해 주신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고, 뒤로 돌아서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잃는 자가 되어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무사여, 그곳에는 힘이 대단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나가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나간다면 그때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두 사람이 말했다. "성문으로 그들에게 쳐들어가라. 너희가 그리로 들어가기만 하면 너희가 이길 것이다. 너희가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의탁하라." 그들이 말했다. "무사여, 그들이 그곳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당신과 당신의 주님이 가서 싸우십시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앉아 있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저는 저 자신과 제 형제 말고는 아무에게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와 이 거역하는 백성 사이를 갈라 주소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 땅은 사십 년 동안 그들에게

금지될 것이며, 그들은 땅에서 헤맬 것이다. 그러니 거역하는 백성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20–26)

그들에게 아담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진실 그대로 낭송해 주라. 그 둘이 각기 제물을 바쳤는데, 한 사람의 것은 받아들여지고 다른 사람의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뒤의 사람이 말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앞의 사람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서만 받으신다. 네가 나를 죽이려고 나에게 손을 뻗친다 해도, 나는 너를 죽이려고 너에게 손을 뻗치지 않겠다. 나는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나는 네가 네 죄와 함께 나의 죄도 짊어지고 불지옥의 주민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보응이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그를 부추겨 자기 형제를 죽이게 하였고, 그는 그를 죽여 잃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까마귀 한 마리를 보내시어 땅을 파게 하시고, 그에게 자기 형제의 주검을 어떻게 감출지 보여 주셨다. 그가 말했다. "아, 내 신세여! 나는 이 까마귀처럼 되어 내 형제의 주검을 감출 줄도 모른단 말인가?" 그리하여 그는 후회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정해 주었다. 살인에 대한 벌이나 땅에 부패를 퍼뜨린 것에 대한 벌이 아닌데도 한 사람을 죽이는 자는, 온 인류를 죽인 것과 같다.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는,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린 것과 같다. 우리의 사도들이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왔다. 그런데도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땅에서 도를 넘는 짓을 계속하고 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전쟁을 걸고 땅에 부패를 퍼뜨리려고 애쓰는 자들에 대한 보응은 다만, 죽임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손과 발이 엇갈려 잘리거나, 그 땅에서 추방되는 것이다. 그것은 현세에서 그들이 받는 치욕이며, 내세에서는 엄청난 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너희가 그들을 제압하기 전에 뉘우치는 자들은 예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임을 알라. (27–34)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가까이 갈 방편을 구하며, 그분의 길에서 분투하라. 그러면 너희가 번영할 것이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그만큼을 더 가지고 있어서 부활의 날의 징벌에서 벗어나려고 그것을 몸값으로 내놓는다 해도, 그것이 그들에게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고통스러운 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불지옥에서 나오기를 바라겠지만,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끝없이 이어지는 징벌이 있다. (35–37)

도둑질한 남자와 도둑질한 여자는, 그들이 벌어들인 것에 대한 보응으로 그 손을 자르라.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본보기의 징벌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러나 자기가 저지른 불의 뒤에 뉘우치고 바로잡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비로 돌아오신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너는 하늘과 땅의 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하는가? 그분은 원하시는 이를 벌하시고, 원하시는 이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38–40)

사도여, 부정으로 서로 앞다투어 내달리는 자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그들은 입으로는 "우리는 믿는다." 하고 말하지만 마음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있고,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있다. 그들은 거짓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너에게 오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다. 그들은 말을 제자리에서 옮겨 비틀며 이렇게 말한다. "너희에게 이것이 주어지면 받아들이고, 이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시험에 빠뜨리려 하시는 자를 위해서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현세에서 치욕이 있고, 내세에서 엄청난 징벌이 있다. 그들은 거짓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금지된 것을 탐욕스럽게 삼킨다. 그들이 너에게 오거든, 그들 사이를 판결하든지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네가 그들에게서 돌아선다 해도, 그들은 너를 조금도 해칠 수 없다. 그러나 네가 판결한다면, 그들 사이를 정의롭게 판결하라. 하나님은 정의로운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판결이 담긴 토라가 있는데, 어찌하여 그들은 너에게 판결을 구하러 오고, 그런 다음 그 뒤에 등을 돌리는가? 그런 자들은 결코 믿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토라를 내렸으니, 그 안에는 인도와 빛이 있다. 하나님께 귀의한 예언자들이 그것으로 유대인들을 위해 판결하였고, 랍비들과 학자들도 그리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서를 지키도록 맡겨졌고, 그들이 그 증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징표를 하찮은 값에 팔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으로 판결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정해 주었다. 목숨에는 목숨, 눈에는 눈, 코에는 코, 귀에는 귀, 이에는 이, 그리고 상처에는 같은 만큼의 보복이다. 그러나 누구든 자선으로 그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그를 위한 속죄가 된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으로 판결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41–45)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마르얌의 아들 이사를 보내어, 그보다 앞서 온 토라를 확증하게 하였다. 우리는 그에게 복음서를 주었으니, 그 안에는 인도와 빛이 있으며, 그것은 그보다 앞서 온 토라를 확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위한 인도와 훈계가 된다. 복음서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리신 것으로 판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으로 판결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거역하는 자들이다. (46–47)

(예언자여) 우리는 진리와 함께 너에게 성서를 내렸으니, 그것은 그보다 앞서 온 성서를 확증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으로 그들 사이를 판결하고, 너에게 온 진리를 떠나 그들의 욕망을 따르지 말라. 우리는 너희 각자에게 법과 길을 정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너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너희에게 주신 것으로 너희를 시험하려 하신다. 그러니 선한 일에서 서로 앞을 다투라. 너희는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며, 그분은 너희가 서로 달리하던 것에 대해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으로 그들 사이를 판결하고, 그들의 욕망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것의 일부에서 너를 꾀어내지 못하도록 그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등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가운데 얼마 때문에 그들을 치려 하신다는 것을 알라. 참으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거역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무지 시대의 판결인가?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 판결에서 하나님보다 더 나은 이가 누구인가? (48–50)

믿는 자들이여,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동맹으로 삼지 말라. 그들은 서로의 동맹이다. 너희 가운데 그들을 동맹으로 삼는 자는 그들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너는 마음에 병이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로 내달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다. "우리는 운명의 뒤바뀜이 우리에게 닥칠까 두렵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나 당신에게서 오는 어떤 결정을 가져오실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이 마음속에 숨겨 온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는 이들은 말할 것이다. "이들이, 자기들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나님께 가장 굳은 맹세로 맹세하던 자들인가?" 그들의 행위는 헛것이 되었고, 그들은 잃는 자가 되었다. (51–53)

믿는 자들이여, 너희 가운데 자기 종교에서 돌아서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그들도 그분을 사랑하는 한 백성을 데려오실 것이다. 그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겸손하고,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굳세며, 하나님의 길에서 분투하고, 누구의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며, 그분은 원하시는 이에게 그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으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너희의 동맹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와 믿는 이들이다. 그들은 예배를 지키고 정해진 희사를 바치며 허리 숙여 예배하는 이들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와 믿는 이들을 동맹으로 삼는 이는 알라.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이다. (54–56)

믿는 자들이여, 너희 이전에 성서를 받은 자들 가운데서든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 가운데서든, 너희의 종교를 조롱과 놀이로 삼는 자들을 동맹으로 삼지 말라. 너희가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가 예배로 부르면, 그들은 그것을 조롱과 놀이로

삼는다. 그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말하라, "성서의 백성이여, 너희가 우리를 못마땅해하는 것은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에게 내려진 것과, 이전에 내려진 것을 믿기 때문이며, 너희 대부분이 거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말하라, "하나님 곁에서 받을 보응으로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노여워하시는 자들,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일부를 원숭이와 돼지로 만드신 자들, 그리고 거짓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들은 처지가 더 나쁘고, 바른 길에서 더 멀리 벗어나 있다." (57–60)

그들은 너희에게 오면 "우리는 믿는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부정을 품고 들어와서 부정을 품은 채 나간다. 하나님은 그들이 감추는 것을 가장 잘 아신다. 너는 그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죄와 적의로, 그리고 금지된 것을 삼키는 일로 앞다투어 내달리는 것을 본다. 그들이 하는 짓은 참으로 나쁘다. 어찌하여 그들의 랍비들과 학자들은 그들이 죄스러운 말을 하고 금지된 것을 삼키는 것을 금하지 않는가? 그들이 꾸미는 짓은 참으로 나쁘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손은 묶여 있다." 하고 말한다. 묶인 것은 그들 자신의 손이며, 그들은 그런 말을 한 것 때문에 저주받았다. 아니다. 그분의 두 손은 활짝 펼쳐져 있으며, 그분은 원하시는 대로 베푸신다. 너의 주님에게서 너에게 내려진 것은 그들 가운데 많은 자들의 거역과 부정을 틀림없이 더할 것이다. 우리는 부활의 날까지 그들 사이에 적의와 미움을 던져 넣었다. 그들이 전쟁의 불을 지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끄신다. 그들은 땅에 부패를 퍼뜨리려고 애쓴다. 하나님은 부패를 퍼뜨리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성서의 백성이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나쁜 행위를 지워 주고 그들을 지복의 낙원에 들였을 것이다. 그들이 토라와 복음서와, 그들의 주님에게서 그들에게 내려진 것을 받들어 지켰더라면, 그들은 위에서도 발아래에서도 먹을 것을 얻었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중도를 지키는 공동체가 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하는 짓은 나쁘다. (61–66)

사도여, 너의 주님에게서 너에게 내려진 것을 전하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는 그분의 전갈을 전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너를 지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진리를 부정하는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말하라, "성서의 백성이여, 너희가 토라와 복음서와, 너희 주님에게서 너희에게 내려진 것을 받들어 지키기 전에는, 너희는 아무 근거 위에도 서 있지 않다." (예언자여) 너의 주님에게서 너에게 내려진 것은 그들 가운데 많은 자들의 거역과 부정을 틀림없이 더할 것이다. 그러니 진리를 부정하는 백성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믿는 이들이든, 유대인이든, 사비아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고 선을 행하는 이는 누구나 두려움도 없고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67–69)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계약을 받고, 그들에게 사도들을 보냈다. 사도가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올 때마다, 그들은 어떤 이들은 거짓말쟁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죽였다. 그들은 아무 시련도 없으리라고 생각하여 눈멀고 귀먹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자비로 그들에게 돌아오셨다.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다시 눈멀고 귀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마르얌의 아들 메시아이다." 하고 말하는 자들은 참으로 진리를 부정한 것이다. 메시아 자신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아, 나의 주님이시며 너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섬기라." 누구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동반자로 두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낙원을 금하셨고, 그의 거처는 불지옥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돕는 이가 없다. (70–72)

"하나님은 셋 가운데 셋째이다." 하고 말하는 자들은 참으로 진리를 부정한 것이다. 한 분의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다.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들 가운데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고통스러운 징벌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뉘우치며 돌아와 그분의 용서를 구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마르얌의 아들 메시아는 한 사도일 뿐이며, 그 이전에도 사도들이 지나갔다. 그의 어머니는 진실한 여자였다. 두 사람은 모두 음식을 먹었다. 보라,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징표들을 분명히 하는지를. 그런 다음 보라, 그들이 어떻게 외면하게 되는지를. 말하라, "너희는 하나님 말고, 너희에게 해도 이로움도 줄 힘이 없는 것을 섬기는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말이다." 말하라, "성서의 백성이여, 너희의 종교에서 진리의 한계를 넘지 말라. 그리고 전에 길을 잃고, 많은 이들을 미혹하며, 바른 길에서 벗어난 자들의 욕망을 따르지 말라." (73–77)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진리를 부정한 자들은 다우드와 마르얌의 아들 이사의 혀로 저주를 받았다. 그것은 그들이 거역하고 줄곧 한계를 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르는 그릇된 일을 서로 말리지 않았다. 그들이 하던 짓은 참으로 나빴다. 너는 그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과 동맹을 맺는 것을 본다. 그들의 영혼이 자기들을 위해 앞서 보낸 것은 참으로 나쁘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여워하시며, 그들은 징벌 속에 영원히 머물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과 예언자와 그에게 내려진 것을 믿었더라면, 그들을 동맹으로 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거역하는 자들이다. (78–81)

너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가장 적대적인 이들이 유대인들과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는 자들임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정이 가장 가까운 이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말하는 이들임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

가운데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있고, 그들이 교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도에게 내려진 것을 들으면, 자기들이 알아본 진리 때문에 그들의 눈에 눈물이 넘쳐흐르는 것을 너는 본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증언하는 이들 가운데 적어 주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의로운 사람들 가운데 들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어찌 저희가 하나님과 저희에게 온 진리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 말 때문에,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낙원으로 그들에게 보상하셨으니,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머문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이들의 보상이다. 그러나 진리를 부정하고 우리의 징표를 거짓이라 하는 자들, 그들은 타오르는 불의 주민이다. (82–86)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금하지 말고, 한계를 넘지도 말라. 하나님은 한계를 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허락되고 좋은 것을 먹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무심코 한 맹세로는 너희를 문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너희가 굳게 맺은 맹세로는 너희를 문책하신다. 그것을 깨뜨린 것에 대한 속죄는, 너희가 자기 가족에게 먹이는 보통의 음식으로 궁핍한 사람 열 명을 먹이거나, 그들에게 옷을 입히거나, 종 한 사람을 해방하는 것이다. 그럴 형편이 못 되는 이는 사흘을 단식해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맹세하였을 때 그 맹세에 대한 속죄이다. 그러나 너희의 맹세를 지키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당신의 징표를 분명히 하시니, 너희가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87–89)

믿는 자들이여, 취하게 하는 것과 도박과 우상과 점치는 화살은 사탄이 하는 짓의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 그것들을 피하라. 그러면 너희가 번영할 것이다. 사탄은 다만 취하게 하는 것과 도박으로 너희 사이에 적의와 미움을 일으키고, 너희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과 예배에서 돌려세우려 할 뿐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만두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도에게 순종하며, 조심하라. 너희가 등을 돌린다면, 우리의 사도의 임무는 분명히 전하는 것뿐임을 알라.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전에 먹은 것에 대해 죄가 없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며 선을 행하고, 그런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며, 그런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는 한 그러하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90–93)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손과 창이 닿을 수 있는 사냥감 가운데 얼마로 반드시 너희를 시험하실 것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누가 그분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 뒤에 한계를 넘는 자에게는 고통스러운 징벌이 있다.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순례의 성스러운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사냥감을 죽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 일부러 그것을 죽이는 자에게는, 그가 죽인 것에 맞먹는 가축 한 마리가 벌로 정해진다. 그것은 너희 가운데 공정한 두 사람이 판정하며, 카바로 가져가는 제물로 삼아야 한다. 또는 속죄로 궁핍한 사람들을 먹이거나, 그에 맞먹는 단식을 해야 한다. 그가 자기 행위의 결과를 맛보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은 용서하셨다. 그러나 다시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징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응징하시는 주님이다. 바다의 사냥감과 그 음식은, 너희와 나그네들을 위한 양식으로 너희에게 허락되어 있다. 그러나 너희가 순례의 성스러운 상태에 있는 한, 뭍의 사냥감은 너희에게 금지되어 있다. 너희가 그분께로 모이게 될 하나님을 경외하라. (94–96)

하나님께서는 성스러운 집 카바를 사람들을 위한 버팀목으로 삼으셨고, 성스러운 달과 제물과 목걸이도 그렇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징벌에 엄하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임을 알라. 사도의 임무는 전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드러내는 것과 감추는 것을 아신다. (97–99)

말하라, "나쁜 것과 좋은 것은 같지 않다. 나쁜 것이 많다는 것이 너에게 대단해 보인다 해도 그러하다. 그러니 분별 있는 이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너희가 번영할 것이다." 믿는 자들이여, 너희에게 밝혀지면 너희를 괴롭게 할 일들에 대해 묻지 말라. 그러나 꾸란이 내려지고 있는 동안에 너희가 그것들에 대해 묻는다면, 그것들은 너희에게 밝혀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물음은 용서하셨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관대하신 분이다. 너희 이전의 한 백성도 그런 것들에 대해 물었다가, 그런 다음 그것들을 부정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바히라도, 사이바도, 와실라도, 함도 정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지어내며, 그들 대부분은 이성을 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과 사도에게로 오라." 하는 말을 들으면 그들은 "우리 조상들이 하던 대로 본 것이 우리에게 충분하다." 하고 말한다. 뭐라고? 그들의 조상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인도받지도 못했는데도 그러한가? 믿는 자들이여, 너희는 너희 자신에 대해 책임이 있다. 너희가 인도받았다면, 길을 잃은 자는 너희를 해칠 수 없다. 너희는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며, 그분은 너희가 하던 일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100–105)

믿는 자들이여,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죽음이 다가와 그가 유언을 남길 때에는, 너희 사이에 증인을 세우라. 너희 가운데 공정한 두 사람이나, 너희가 땅을 여행하다가 죽음의 재난이 너희에게 닥친 경우에는 너희 밖의 다른 두 사람을 세우라. 예배가 끝난 뒤에 그

둘을 붙들어 두고, 너희가 그들을 의심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맹세하게 하라. "우리는 그것이 가까운 친족을 위한 것이라 해도, 어떤 값에도 우리의 맹세를 팔지 않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증언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죄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둘이 죄를 지었음이 드러난다면, 처음 두 사람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한 이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그들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맹세하게 하라. "우리의 증언이 저들의 증언보다 더 참됩니다. 우리는 한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있는 그대로 증언하게 하거나, 자기들의 맹세 뒤에 다른 맹세가 뒤따를까 두려워하게 하기에 더 알맞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들으라. 하나님은 거역하는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106–108)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모으시고 "너희는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하고 물으시는 날, 그들은 말할 것이다. "저희에게는 지식이 없습니다. 참으로 당신만이 숨겨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마르얌의 아들 이사야, 너와 네 어머니에게 베푼 나의 은혜를 기억하라. 내가 거룩한 영으로 너를 굳세게 하여, 네가 요람에서도 장성해서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성서와 지혜와 토라와 복음서를 가르쳤다. 네가 나의 허락으로 진흙으로 새의 모양을 빚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자, 나의 허락으로 그것이 새가 되었다. 네가 나의 허락으로 눈먼 이와 나병 환자를 고쳤다. 네가 나의 허락으로 죽은 이를 일으켜 내었다. 그리고 네가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갔을 때, 내가 그들을 너에게서 막아 주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이것은 분명한 마술일 뿐이라고 말하였다." 또 내가 제자들에게 "나와 나의 사도를 믿으라." 하고 영감을 주었을 때, 그들이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귀의하였음을 증언해 주소서." 하고 말하던 때를 기억하라. (109–111)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때를 기억하라. "마르얌의 아들 이사여, 당신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음식이 차려진 상을 저희에게 내려 주실 수 있습니까?" 그가 말했다. "너희가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들이 말했다. "저희는 그것을 먹어 저희 마음이 평안해지고, 당신께서 저희에게 진실을 말씀하셨음을 알며, 저희가 그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르얌의 아들 이사가 말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이시여, 하늘에서 차려진 상을 저희에게 내려 주시어, 그것이 저희 가운데 처음 사람과 마지막 사람 모두에게 축제가 되고, 당신에게서 오는 징표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양식을 주소서. 당신은 양식을 주시는 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내려 줄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너희 가운데 진리를

부정하는 자는, 내가 온 세상의 다른 누구에게도 내리지 않을 징벌로 벌할 것이다.” (112–115)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를 기억하라. “마르얌의 아들 이사야, 네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고 나와 내 어머니를 두 신으로 삼으라.’ 하고 말하였느냐?” 그는 말할 것이다. “당신께 영광이 있기를! 저에게 말할 권리가 없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다면 당신께서 그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제 안에 있는 것을 아시지만, 저는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참으로 당신만이 숨겨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당신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 곧 ‘나의 주님이시며 너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말 말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 가운데 머무는 동안 그들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저를 거두어 가신 뒤에는 당신께서 그들을 지켜보시는 분이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의 증인이십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벌하신다면, 그들은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면, 참으로 당신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오늘은 진실한 이들에게 그들의 진실함이 이로움이 되는 날이다. 그들에게는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낙원이 있어,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머문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도 그분을 기뻐한다. 그것이야말로 크나큰 승리이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왕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116–120)

# 6. 가축 (Al-Anʿām)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찬미는 하나님께 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어둠과 빛을 만드셨다. 그런데도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자기 주님과 대등한 것을 세운다. 그분은 너희를 진흙으로 창조하시고, 그런 다음 한 기한을 정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 곁에는 정해진 또 하나의 기한이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의심한다. 그분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너희가 숨기는 것과 드러내는 것을 아시고, 너희가 벌어들이는 것을 아신다. 그들의 주님의 징표 가운데 어느 하나가 그들에게 올 때마다, 그들은 반드시 그것에서 등을 돌린다. 그들은 진리가 그들에게 왔을 때 그것을 거짓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조롱하던 것의 소식이 머지않아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 (1–5)

그들은 우리가 그들 이전에 얼마나 많은 세대를 멸하였는지 보지 않는가? 우리는 너희에게는 주지 않은 터전을 그 땅에서 그들에게 주었고, 하늘에서 그들 위에 비를 넉넉히 내렸으며, 그들 아래로 강이 흐르게 하였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멸하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들을 일으켰다. (예언자여) 우리가 양피지에 쓴 글을 너에게 내려 주어 그들이 제 손으로 그것을 만져 보았다 해도,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이것은 분명한 마술일 뿐이다." 하고 말했을 것이다. 그들은 "어찌하여 그에게 천사가 내려오지 않는가?" 하고 말한다. 우리가 천사를 내려보냈다면 일은 결판났을 것이며, 그들에게는 유예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 우리가 그를 천사로 삼았다 해도, 우리는 그를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었을 것이며, 그들이 지금 헷갈려 하는 바로 그것을 그들에게 헷갈리게 했을 것이다. (6–9)

너 이전의 사도들도 조롱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을 비웃던 자들은 자기들이 조롱하던 바로 그것에 에워싸였다. 말하라, "땅을 여행하며, 부정한 자들의 끝이 어떠하였는지 보라." 말하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인가?" 말하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은 자비를 스스로에게 정해 두셨다. 그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부활의 날에 반드시 너희를 모으실 것이다. 자기 영혼을 잃은 자들은 믿지 않는다. 밤과 낮에 깃들어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다.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말하라, "내가 하늘과 땅을 처음 지으신 하나님 말고 다른 이를 보호자로 삼겠는가? 그분은 먹이시되 먹임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말하라, "나는 하나님께 귀의하는 이들 가운데 첫째가 되고, 결코 그분께 동반자를 두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말하라, "내가 나의 주님께 거역한다면, 나는 엄청난 날의 징벌을 두려워한다." 그날 그

징벌을 면하게 되는 이는, 참으로 그분께서 자비를 베푸신 이이다. 그것이야말로 분명한 승리이다. (10–16)

하나님께서 너에게 괴로움을 닿게 하시면, 그분 말고는 아무도 그것을 거두어 줄 수 없다. 그분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닿게 하신다면, 그분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그분은 당신의 종들 위에 계시는 지고하신 분이며,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에 밝으신 분이다. 말하라, "가장 큰 증언은 무엇인가?" 말하라,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 사이의 증인이시다. 이 꾸란이 나에게 계시되었으니, 그것으로 내가 너희와, 그것이 가닿는 모든 이에게 경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참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있다고 증언하는가?" 말하라, "나는 그렇게 증언하지 않는다." 말하라, "그분은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너희가 그분께 동반자로 두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성서를 준 이들은 자기 아들을 알아보듯이 그것을 알아본다. 그러나 자기 영혼을 잃은 자들은 믿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지어내거나 그분의 징표를 부정하는 자보다 더 불의한 자가 누구인가? 참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번영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들을 모두 한데 모으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었던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가 내세우던 너희의 동반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 그들에게는 다만 이렇게 말하는 것 말고는 아무 변명도 남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께 맹세코, 저희는 결코 그분께 아무것도 동반자로 두지 않았습니다." 보라, 그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거슬러 거짓말을 하는지를. 그리고 그들이 지어내던 것이 어떻게 그들을 저버렸는지를. (17–24)

그들 가운데에는 너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마음에 덮개를 씌워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였고, 그들의 귀에 귀먹음을 두었다. 그들은 온갖 징표를 다 본다 해도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너와 논쟁하려고 너에게 올 때,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이것은 옛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하고 말한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그것에서 막고, 자기들도 그것을 멀리한다. 그러나 그들이 파멸시키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이 불지옥 앞에 세워져 이렇게 말하는 때를 네가 볼 수 있다면! "아, 우리가 되돌려 보내진다면! 그러면 우리 주님의 징표를 부정하지 않고, 믿는 자들 가운데 있을 텐데." 아니다. 그들이 전에 감추던 것이 그들에게 드러났을 뿐이다. 그들이 되돌려 보내진다 해도, 그들은 금지되었던 것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들은 참으로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은 "우리의 현세의 삶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는 다시 일으켜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들이 자기 주님 앞에 세워지는 때를 네가 볼 수 있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 아니냐?" 그들이 말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 맹세코,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부정한 것 때문에 징벌을 맛보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부정하는 자들은 참으로 잃은 자들이다. 마침내 그 시각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그들은 말한다. “아,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였으니 얼마나 한스러운가!” 그들은 자기 짐을 등에 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지는 것은 참으로 나쁘다. 현세의 삶은 놀이와 오락일 뿐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내세의 집이 더 좋다. 그런데도 너희는 이성을 쓰지 않는가? (25–32)

(예언자여)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이 너를 슬프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이 거짓말쟁이라 하는 것은 네가 아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표이다. 너 이전의 사도들도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그들에게 올 때까지, 부정당하고 해를 입는 것을 참고 견뎠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다. 사도들에 관한 소식이 이미 너에게 왔다. 그들이 외면하는 것이 너에게 견디기 어렵다면, 네가 할 수 있거든 땅속으로 굴을 찾거나 하늘로 오를 사다리를 찾아 그들에게 징표를 가져다주어 보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들을 모두 인도로 모으셨을 것이다. 그러니 무지한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지 말라. 오직 듣는 이들만이 응답한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며, 그런 다음 그들은 그분께로 돌아가게 된다. (33–36)

그들은 “어찌하여 그의 주님에게서 그에게 징표가 내려오지 않는가?” 하고 말한다. 말하라, “하나님께는 징표를 내리실 권능이 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알지 못한다. 땅 위를 다니는 어떤 짐승도, 두 날개로 나는 어떤 새도, 너희와 같은 공동체가 아닌 것이 없다. 우리는 성서에서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자기 주님께로 모이게 된다. 우리의 징표를 거짓이라 하는 자들은 겹겹의 어둠 속에서 귀먹고 말 못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미혹에 버려두시고, 원하시는 이를 곧은 길 위에 두신다. 말하라, “너희가 진실하다면 말해 보라. 하나님의 징벌이 너희에게 닥치거나 그 시각이 너희에게 닥친다면, 너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부르겠는가?” 아니다. 너희는 오직 그분만을 부를 것이다. 그러면 그분은 원하실 경우, 너희가 그분을 부르게 한 그것을 거두어 주실 것이며, 너희는 너희가 그분께 동반자로 두던 것을 잊을 것이다. (37–41)

우리는 너 이전의 공동체들에게도 사도들을 보냈고, 그들이 스스로를 낮추도록 가난과 역경으로 그들을 붙잡았다. 우리의 시련이 그들에게 닥쳤을 때 그들이 스스로를 낮추었더라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굳어졌고, 사탄은 그들이 하던 짓을 그들에게 좋아 보이게 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이 일깨움 받은 것을 잊어버리자,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것의 문을 열어 주었다. 마침내 그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을 뽐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갑자기 붙잡았고, 그러자 그들은 절망에 빠졌다. 그리하여 불의를 행한 백성은 뿌리째 끊어졌다. 모든 찬미는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있다. (42–45)

말하라, "말해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청각과 시각을 거두어 가시고 너희의 마음을 봉하신다면, 하나님 말고 어떤 신이 그것을 너희에게 되돌려 주겠는가?" 보라, 우리가 어떻게 징표들을 여러 가지로 보여 주는지를.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외면한다. 말하라, "말해 보라. 하나님의 징벌이 갑자기 또는 드러나게 너희에게 닥친다면, 불의를 행하는 백성 말고 누가 멸망하겠는가?" 우리는 사도들을 오직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요 경고하는 이로 보낸다. 믿고 바로잡는 이들에게는 두려움도 없고, 그들은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징표를 거짓이라 하는 자들은, 그들이 거역한 것 때문에 징벌이 그들에게 닿을 것이다. 말하라, "나는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보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것을 알지도 못한다. 또 나는 너희에게 내가 천사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나는 다만 나에게 계시되는 것을 따를 뿐이다." 말하라, "눈먼 이와 보는 이가 같은가? 그런데도 너희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가?" (46–50)

자기 주님께로 모이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이것으로 경고하라. 그들에게는 그분 말고 보호자도 중재자도 없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침저녁으로 자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을 부르는 이들을 쫓아내지 말라. 그들의 셈은 조금도 너에게 달려 있지 않고, 너의 셈도 조금도 그들에게 달려 있지 않다. 그러니 그들을 쫓아낸다면 너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을 다른 이들로 시험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들이 이들인가?" 하고 말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이들을 가장 잘 아시지 않는가? (51–53)

우리의 징표를 믿는 이들이 너에게 오거든 말하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 주님께서는 자비를 스스로에게 정해 두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 모르고 악을 행하였다가 그 뒤에 뉘우치고 바로잡는다면, 그분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이처럼 우리는 징표들을 자세히 밝히니, 죄인들의 길이 뚜렷이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말하라, "나는 너희가 하나님 말고 부르는 것들을 섬기는 것을 금지당하였다." 말하라, "나는 너희의 욕망을 따르지 않겠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길을 잃은 것이며, 인도받은 이들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말하라, "나는 나의 주님에게서 온 분명한 증거 위에 서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거짓이라 한다. 너희가 서둘러 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다. 판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분은 진리를 밝히시며, 판가름하는 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말하라, "너희가 서둘러 달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었다면, 나와 너희 사이의 일은 이미 결판났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가장 잘 아신다." (54–58)

보이지 않는 것의 열쇠들은 그분께 있으며, 그분 말고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분은 뭍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 나뭇잎 하나가 떨어져도 그분께서 그것을 아신다. 땅의 어둠 속에 있는 낟알 하나도, 싱싱한 것이든 마른 것이든, 분명한 책에 있지 않은 것이 없다.[8] (59)

그분은 밤에 너희의 영혼을 거두시고, 너희가 낮에 벌어들인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런 다음 그분은 낮에 너희를 다시 일으키시니, 정해진 기한이 채워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다음 너희의 귀착지는 그분께 있고, 그런 다음 그분은 너희가 하던 일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종들 위에 계시는 지고하신 분이다. (60)

그분은 너희 위에 지키는 이들을 보내신다. 마침내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죽음이 오면, 우리의 사자들이 그의 영혼을 거두며, 그들은 조금도 소홀함이 없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자기들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려보내진다. 참으로 판결은 그분께 있으며, 그분은 셈하는 이들 가운데 가장 빠르신 분이다. (61–62)

말하라, "뭍과 바다의 어둠에서 너희를 구해 주는 이가 누구인가? 그때 너희는 겸손하게, 그리고 남몰래 그분을 부르며 '그분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감사하는 이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한다." 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기에서, 그리고 모든 괴로움에서 구해 주신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분께 동반자를 둔다." 말하라, "그분께는 너희 위에서나 너희 발아래에서 너희에게 징벌을 보내시거나, 너희를 여러 파로 갈라 뒤섞어 서로의 폭력을 맛보게 하실 권능이 있다." 보라, 우리가 어떻게 징표들을 여러 가지로 보여 주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너의 백성은 그것이 진리인데도 그것을 거짓이라 하였다. 말하라, "나는 너희의 수호자가 아니다. 모든 소식에는 정해진 때가 있으며, 너희는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다." (63–67)

우리의 징표를 두고 조롱하는 이야기에 빠져 있는 자들을 네가 보거든, 그들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 때까지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사탄이 너를 잊게 한다면, 기억이 난 뒤에는 불의를 행하는 백성과 함께 앉아 있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들의 셈에 대해 조금도 책임이 없다. 다만 일깨워 줄 뿐이니,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기들의 종교를 놀이와 오락으로 삼고, 현세의 삶에 속은 자들을 내버려 두라. 그러나 이것으로 일깨워 주라. 어떤 영혼이 자기가 벌어들인 것 때문에 파멸에 넘겨지는

[8] 기회원인론 – 영광스러운 꾸란과 과학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 말고 보호자도 중재자도 없으며, 온갖 몸값을 다 내놓는다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들은 자기가 벌어들인 것 때문에 파멸에 넘겨진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진리를 부정한 것 때문에, 펄펄 끓는 물의 음료와 고통스러운 징벌이 있다. (68–70)

말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이로움도 해도 줄 수 없는 것을 부르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뒤에 발길을 돌려 돌아서겠는가? 마치 사탄들에게 홀려 땅에서 어리둥절하게 헤매는 자처럼 말이다. 그에게는 '우리에게로 오라.' 하며 그를 인도로 부르는 동료들이 있는데도 그러하다." 말하라, "하나님의 인도야말로 참된 인도이다. 우리는 만유의 주님께 귀의하고, 예배를 지키며, 그분을 경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너희는 그분께로 모이게 된다." 그분은 진리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께서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날, 그것은 있게 된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다. 나팔이 불리는 날, 왕권은 그분께 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아시는 분이며,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에 밝으신 분이다. (71–73)

이브라힘이 자기 아버지 아자르에게 이렇게 말한 때를 기억하라. "아버지는 우상들을 신으로 삼으십니까? 제가 보기에 아버지와 아버지의 백성은 명백한 미혹 속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브라힘에게 하늘과 땅의 왕국을 보여 주었으니, 그가 확신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밤이 그를 덮었을 때 그는 별 하나를 보았다. 그가 말했다. "이것이 나의 주님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자 그가 말했다. "나는 지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다음 떠오르는 달을 보고 그가 말했다. "이것이 나의 주님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자 그가 말했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틀림없이 길을 잃은 백성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 다음 떠오르는 해를 보고 그가 말했다. "이것이 나의 주님이다. 이것이 더 크다." 그러나 그것이 지자 그가 말했다. "나의 백성이여, 나는 너희가 하나님께 동반자로 두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늘과 땅을 처음 지으신 분께로 내 얼굴을 돌렸다. 나는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는 자가 아니다." (74–79)

그의 백성이 그와 논쟁하였다. 그가 말했다.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 나와 논쟁하는가? 나는 너희가 그분께 동반자로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나의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원하시는 경우는 예외이다. 나의 주님은 지식으로 모든 것을 품고 계신다. 그런데도 너희는 마음에 새기지 않는가? 그분께서 너희에게 아무 권위도 내리지 않으신 것을 너희가 하나님께 동반자로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너희가 동반자로 두는 것을 두려워하겠는가? 너희가 안다면, 두 무리

가운데 어느 쪽이 안전을 누릴 자격이 더 있는가?" 믿고 자기 믿음을 불의와 섞지 않는 이들, 그들에게는 안전이 있으며, 그들이야말로 바르게 인도받은 이들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브라힘에게 주어 그의 백성을 상대하게 한 우리의 논거였다. 우리는 원하는 이를 여러 단계로 높인다. 참으로 너의 주님은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80–83)

우리는 그에게 이스하끄와 야꿉을 주고, 그 둘을 다 인도하였다. 그리고 그 이전에 누흐를 인도하였고, 그의 후손 가운데 다우드와 술라이만과 아이윱과 유수프와 무사와 하룬을 인도하였다. 이처럼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보상한다. 또 자카리야와 야흐야와 이사와 일리야스를 인도하였으니, 그들 모두가 의로운 이들 가운데 있었다. 또 이스마일과 알야사와 유누스와 루뜨를 인도하였으니, 우리는 그들 모두를 만유보다 낫게 하였다. 또 그들의 조상과 후손과 형제들 가운데 얼마도 그리하였다. 우리는 그들을 선택하고 곧은 길로 인도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이며, 그분은 그것으로 당신의 종들 가운데 원하시는 이를 인도하신다. 그들이 그분께 동반자를 두었다면, 그들이 하던 모든 일이 헛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성서와 판단력과 예언자의 직분을 준 이들이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을 한 백성에게 그것을 맡겨 두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들이니, 그들의 인도를 따르라. 말하라, "나는 이것에 대해 너희에게 아무 보수도 청하지 않는다. 이것은 만유를 위한 훈계일 뿐이다." (84–90)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내리지 않으셨다." 하고 말할 때, 하나님을 마땅히 헤아려야 할 대로 헤아리지 않은 것이다. 말하라, "그러면 무사가 사람들을 위한 빛과 인도로 가져온 성서는 누가 내렸는가? 너희는 그것을 낱장으로 만들어 일부는 보여 주고 많은 것은 숨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도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것을 가르침 받았다." 말하라, "하나님께서 내리셨다." 그런 다음 그들이 헛된 이야기에 빠져 놀도록 내버려 두라. 이것은 우리가 내린 축복받은 성서로서, 그 이전에 온 것을 확증하며, 네가 고을들의 어머니와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경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세를 믿는 이들은 이것을 믿으며, 자기들의 예배를 굳게 지킨다.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지어내거나, 자기에게 아무것도 계시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계시가 내렸다." 하고 말하거나, "나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과 같은 것을 내리겠다." 하고 말하는 자보다 더 불의한 자가 누구인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죽음의 고통 속에 있고, 천사들이 손을 뻗치며 이렇게 말하는 때를 네가 볼 수 있다면! "너희의 영혼을 내놓으라. 오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고 교만하게 그분의 징표를 거부하던 것 때문에 굴욕의 징벌로 보응을 받는다. 이제 너희는 우리가 처음 너희를 창조했던 때처럼

홀로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것을 등 뒤에 남겨 두었다. 너희의 일에서 하나님의 동반자라고 너희가 내세우던 너희의 중재자들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너희 사이의 유대는 끊어졌고, 너희가 내세우던 것은 너희를 저버렸다." (91–94)

낟알과 대추야자 씨를 쪼개어 싹트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죽은 것에서 산 것을 내시고, 산 것에서 죽은 것을 내시는 분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 외면하게 되는가? 그분은 새벽을 쪼개어 여시는 분이다. 그분은 밤을 쉼을 위한 것으로, 해와 달을 셈을 위한 것으로 만드셨다. 그것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의 정하심이다. 그분은 너희를 위해 별들을 만드신 분이니, 너희가 뭍과 바다의 어둠 속에서 그것들로 길을 찾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아는 사람들을 위해 징표들을 자세히 밝혔다. 그분은 너희를 한 영혼에서 생겨나게 하시고, 머무는 곳과 맡겨지는 곳을 주신 분이다. 우리는 깨닫는 사람들을 위해 징표들을 자세히 밝혔다. 그분은 하늘에서 물을 내리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것으로 온갖 것의 싹을 틔우고, 거기에서 푸른 새순을 내며, 거기에서 촘촘히 달린 낟알을 낸다. 또 대추야자나무에서는 그 꽃턱잎에서 낮게 드리운 송이들이 나온다. 또 포도 동산과, 서로 닮았으면서도 다른 올리브와 석류를 낸다. 열매를 맺을 때의 그 열매와 그것이 익어 가는 것을 보라. 참으로 거기에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징표들이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진을 하나님의 동반자로 삼는다.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는데도 그러하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지식도 없이 그분께 아들들과 딸들이 있다고 꾸며 댄다.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그분은 그들이 말하는 것 위에 높이 계신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처음 지으신 분이다. 그분께 배우자가 없는데 어찌 아들이 있겠는가?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분이 너희 주님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분 말고는 신이 없으며, 그분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다. 그러니 그분을 섬기라. 그분은 모든 것의 수호자이시다. 어떤 눈길도 그분을 붙잡지 못하지만, 그분은 모든 눈길을 붙잡으신다. 그분은 헤아릴 수 없이 섬세하시고 모든 것에 밝으신 분이다. (95–103)

"이제 너희 주님에게서 분명한 통찰이 너희에게 왔다. 보는 이는 자기 영혼을 위해 보는 것이고, 눈이 먼 자는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눈이 먼 것이다. 나는 너희의 감시자가 아니다." 이처럼 우리는 징표들을 여러 가지로 보여 주니, 그들이 "너는 배워서 아는 것이다." 하고 말하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너의 주님에게서 너에게 계시된 것을 따르라. 그분 말고는 신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들은 동반자를 두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너를 그들의 감시자로 삼지 않았으며, 너는 그들의 수호자도 아니다. (104–107)

그들이 하나님 말고 부르는 것들을 욕하지 말라. 그러면 그들이 적의를 품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공동체마다 그들의 행위를 그들에게 좋아 보이게 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의 귀착지는 그들의 주님께 있고, 그분은 그들이 하던 일을 그들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그들은 징표가 자기들에게 오면 반드시 그것을 믿겠다고 하나님께 가장 굳은 맹세로 맹세한다. 말하라, "징표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것이 온다 해도 그들이 믿지 않으리라는 것을, 무엇이 너희에게 깨닫게 해 주겠는가? 그들이 처음에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의 마음과 눈을 돌려놓고, 그들이 거역 속에서 눈먼 채 헤매도록 내버려 둔다. 우리가 그들에게 천사들을 내려보내고, 죽은 자들이 그들에게 말을 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그들 앞에 마주 보게 모아 놓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한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무지하다. 이처럼 우리는 예언자마다 적을 두었으니, 곧 사람과 진 가운데 있는 사탄들이다. 그들은 속이려고 꾸민 번지르르한 말을 서로에게 불어넣는다. 너의 주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과 그들이 지어내는 것을 내버려 두라. 그것은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그것에 기울고, 그것을 기뻐하며, 자기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것을 벌어들이게 하려는 것이다. (108–113)

말하라,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재판관을 구하겠는가? 그분은 너희에게 자세히 밝혀진 성서를 내리신 분인데도 말이다." 우리가 성서를 준 이들은 그것이 너의 주님에게서 진리와 함께 내려진 것임을 안다. 그러니 의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지 말라. 너의 주님의 말씀은 진실과 정의로 다 이루어졌다. 아무도 그분의 말씀을 바꿀 수 없다.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네가 땅에 있는 자들 대부분에게 순종한다면, 그들은 너를 하나님의 길에서 미혹할 것이다. 그들은 다만 짐작을 따르며, 그저 추측할 뿐이다.[9] 너의 주님은 누가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는지 가장 잘 아시고, 인도받은 이들도 가장 잘 아신다. (114–117)

그러니 너희가 그분의 징표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불린 것을 먹으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금하신 것을, 너희가 어쩔 수 없게 된 경우 말고는, 이미 너희에게 자세히 밝혀 주셨는데,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이 불린 것을 먹지 않겠는가? 많은 자들이 아무 지식도 없이 자기 욕망으로 다른 이들을 미혹한다. 너의 주님은 한계를 넘는 자들을 가장 잘 아신다. 드러난 죄도 숨은 죄도 버리라. 죄를 벌어들이는 자들은 자기가 저지르던 것으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 그것은 참으로 거역하는 짓이다. 사탄들은 자기 벗들에게 너희와 논쟁하라고 불어넣는다. 너희가

[9] 무신론은 추측(잔) 위에 세워져 있다: 과학적·철학적·신학적 주석

그들에게 순종한다면, 너희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는 자가 될 것이다. 죽어 있었는데 우리가 생명을 주고, 사람들 사이에서 걸어 다닐 빛을 마련해 준 이가, 겹겹의 어둠 속에 있어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자와 같겠는가? 이처럼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자기들이 하던 짓이 좋아 보이게 된다. 또 이처럼 우리는 고을마다 그 우두머리 죄인들을 두어 그 안에서 계략을 꾸미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을 거슬러 계략을 꾸밀 뿐이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징표가 그들에게 오면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받은 것과 같은 것을 받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갈을 어디에 둘지 가장 잘 아신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꾸민 계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굴욕과 혹독한 징벌이 닥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려 하시는 이는, 그분께서 그의 가슴을 열어 당신께 귀의하게 하신다. 그분께서 미혹에 버려두려 하시는 자는, 그의 가슴을 좁고 답답하게 하시어 마치 하늘로 기어오르는 것처럼 되게 하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 위에 더러움을 두신다. (118–125)

이것이 너의 주님의 곧은 길이다. 우리는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을 위해 징표들을 자세히 밝혔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주님 곁에 평화의 집이 있다. 그분은 그들이 하던 일 때문에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 (126–127)

그분께서 그들을 모두 한데 모으시는 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진의 무리야, 너희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을 꾀어냈다."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벗이었던 자들이 말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는 서로에게서 득을 보았고, 이제 당신께서 저희에게 정하신 기한에 이르렀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불지옥이 너희의 거처이며, 너희는 그 안에 머물 것이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우는 예외이다." 참으로 너의 주님은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이처럼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벌어들이던 것 때문에, 그들이 서로를 지배하게 한다. "진과 사람의 무리야, 너희 자신 가운데서 사도들이 너희에게 와서 나의 징표를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의 이날의 만남을 너희에게 경고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말할 것이다. "저희는 저희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합니다." 현세의 삶이 그들을 속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진리를 부정하는 자였음을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할 것이다. 그것은 너의 주님께서, 그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동안에 부당하게 고을들을 멸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모두에게는 자기가 한 일에 따른 등급이 있다. 너의 주님은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계시지 않는다. 너의 주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자비를 지니신 분이다. 그분께서 원하신다면 너희를 없애시고, 다른 백성의 후손에게서 너희를 생겨나게 하셨듯이, 원하시는 이들을 너희 뒤에 대신 두실 수 있다. 너희에게 약속된 것은 반드시 온다. 너희는 그것을 피할 수 없다.

말하라, “나의 백성이여, 너희의 자리에서 행하라. 나도 행하고 있다. 너희는 마지막 집이 누구의 것이 될지 알게 될 것이다. 참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번영하지 못한다.” (128–135)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농작물과 가축 가운데서 그분께 한 몫을 떼어 놓고, 자기들의 주장대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동반자들을 위한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그들의 동반자들을 위한 것은 하나님께 이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것은 그들의 동반자들에게 이른다. 그들의 판단은 참으로 나쁘다. 또 이처럼 그들의 동반자들은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자기 자녀를 죽이는 일을 좋아 보이게 하였다. 그들을 파멸시키고 그들의 종교를 그들에게 뒤섞어 놓으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과 그들이 지어내는 것을 내버려 두라.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대로 말한다. “이 가축과 농작물은 금지된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이들 말고는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또 등이 금지된 가축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가축도 있다. 그들은 그분에 대해 거짓을 지어내고 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지어내던 것으로 그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이 가축의 배 속에 있는 것은 우리 남자들만의 것이고, 우리 아내들에게는 금지된다. 그러나 그것이 죽어서 나오면 그들 모두가 그것을 함께 나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 그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아무 지식도 없이 어리석게 자기 자녀를 죽이고,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지어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것을 금한 자들은 참으로 잃은 자들이다. 그들은 길을 잃었고, 인도받지 못하였다. (136–140)

그분은 시렁을 올린 동산과 올리지 않은 동산을 생겨나게 하시고, 대추야자나무와 갖가지 소출을 내는 농작물과, 서로 닮았으면서도 다른 올리브와 석류를 생겨나게 하신 분이다. 그것들이 열매를 맺거든 그 열매를 먹고, 거두어들이는 날에 그 마땅한 몫을 내어 주라. 그러나 낭비하지 말라. 그분은 낭비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또 가축 가운데에는 짐을 싣는 것도 있고, 잡아먹는 것도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것을 먹고, 사탄의 발자국을 따르지 말라. 그는 너희의 분명한 적이다. 여덟 마리가 짝을 이룬다. 양이 둘이고 염소가 둘이다. 말하라, “그분께서 금하신 것은 두 수컷인가, 두 암컷인가, 아니면 두 암컷의 배 속에 든 것인가? 너희가 진실하다면, 지식을 가지고 나에게 알려 보라.” 또 낙타가 둘이고 소가 둘이다. 말하라, “그분께서 금하신 것은 두 수컷인가, 두 암컷인가, 아니면 두 암컷의 배 속에 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실 때 너희가 그 자리에 증인으로 있었는가?” 아무 지식도 없이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지어내는 자보다 더 불의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141–144)

말하라, "나에게 계시된 것 가운데서, 나는 먹으려는 이에게 금지된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다만 죽은 짐승의 고기나, 흘러나온 피나, 돼지고기는 예외이니, 그것은 더러운 것이다.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게 바쳐진 죄스러운 제물도 예외이다. 그러나 누구든 그것을 탐해서도 아니고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도 아니면서 어쩔 수 없게 된다면, 너의 주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발톱이 있는 모든 짐승을 금하였다. 또 소와 양에서는 그 기름을 그들에게 금하였다. 다만 등이나 창자에 붙은 것, 또는 뼈에 섞인 것은 예외이다. 이것은 그들이 거역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보응한 것이다. 우리는 참으로 진실하다. 그들이 너를 거짓말쟁이라 하거든 말하라, "너희 주님은 모든 것을 품는 자비를 지니신 분이다. 그러나 그분의 징벌은 죄짓는 백성에게서 물리쳐지지 않는다."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는 자들은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우리도 우리 조상들도 동반자를 두지 않았을 것이며, 우리가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 이전의 사람들도 이와 같이 거짓이라 하다가, 마침내 우리의 징벌을 맛보았다. 말하라, "너희에게 우리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무슨 지식이 있는가? 너희는 다만 짐작을 따르며, 그저 추측할 뿐이다." 말하라, "결정적인 논거는 하나님께 있다. 그분께서 원하셨다면 너희를 모두 인도하셨을 것이다." 말하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셨다고 증언할 너희의 증인들을 데려오라." 그들이 증언한다 해도, 너는 그들과 함께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의 징표를 거짓이라 하는 자들,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 자기 주님과 대등한 것을 세우는 자들의 욕망을 따르지 말라. (145–150)

말하라, "오라. 너희 주님께서 너희에게 금하신 것을 내가 낭송해 주겠다. 그분께 아무것도 동반자로 두지 말라. 부모에게 잘하라. 가난 때문에 너희 자녀를 죽이지 말라. 우리가 너희와 그들에게 양식을 준다. 드러난 것이든 숨은 것이든 추한 짓에 가까이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하신 생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빼앗지 말라.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당부하신 것이니, 너희가 이성을 쓰게 하려는 것이다. 고아의 재산에는, 그가 다 자랄 때까지 가장 좋은 방법으로가 아니면 가까이 가지 말라. 되와 저울을 공정하게 가득 채우라. 우리는 어떤 영혼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짐을 지우지 않는다.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이 친족에 관한 것이라 해도 공정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라.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당부하신 것이니, 너희가 마음에 새기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곧은 길이니, 그것을 따르라. 다른 길들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너희를 그분의 길에서 흩어지게 할 것이다.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당부하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151–153)

그런 다음 우리는 무사에게 성서를 주었으니, 선을 행한 이에게 우리의 은혜를 온전히 베풀고, 모든 것을 자세히 밝히며, 인도와 자비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자기 주님과의 만남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내린 축복받은 성서이다. 그러니 그것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너희가 자비를 입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성서는 우리 이전의 두 무리에게만 내려졌고, 우리는 그들이 배우던 것을 알지 못하였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는 너희가 "성서가 우리에게 내려졌더라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바르게 인도받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너희 주님에게서 분명한 증거와 인도와 자비가 너희에게 왔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표를 거짓이라 하고 그것에서 등을 돌리는 자보다 더 불의한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의 징표에서 등을 돌리는 자들에게, 그들이 등을 돌린 것 때문에 혹독한 징벌로 보응할 것이다. 그들은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오거나, 너의 주님께서 오시거나, 너의 주님의 징표 가운데 얼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너의 주님의 징표 가운데 얼마가 오는 날에는, 전에 믿지 않았거나 믿음 속에서 좋은 것을 벌어들이지 않은 영혼에게 그 믿음이 아무 이로움도 되지 못한다. 말하라, "기다리라.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 (154–158)

자기들의 종교를 갈라놓고 여러 파가 된 자들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들의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그분은 그들이 하던 일을 그들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선한 행위를 가지고 오는 이에게는 그 열 배가 있다. 그러나 나쁜 행위를 가지고 오는 자는 그와 같은 만큼만 보응을 받으며, 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다. 말하라, "나의 주님께서 나를 곧은 길로, 올바른 종교로, 순수한 믿음의 사람 이브라힘의 종교로 인도하셨다. 그는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는 자가 아니었다." 말하라, "나의 예배와 나의 헌신,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은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분께는 동반자가 없다. 나는 이것을 명령받았으며, 나는 하나님께 귀의하는 이들 가운데 첫째이다." 말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주님을 구하겠는가? 영혼마다 벌어들이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며, 짐을 지는 어떤 이도 다른 이의 짐을 지지 않는다. 그런 다음 너희의 귀착지는 너희 주님께 있고, 그분은 너희가 서로 달리하던 것에 대해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땅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다른 이들보다 여러 단계 높이신 분이니, 너희에게 주신 것으로 너희를 시험하려는 것이다. 참으로 너의 주님은 징벌에 빠르시며, 참으로 그분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159–165)

# 7. 높은 곳 (Al-Aʿrāf)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리프 람 밈 사드. (1)

(예언자여) 이것은 너에게 내려진 성서이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네 가슴에 답답함이 없게 하라. 그것은 네가 그것으로 경고하게 하려는 것이며, 믿는 자들을 위한 훈계이다. 너희 주님에게서 너희에게 내려진 것을 따르고, 그분 말고 다른 보호자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는 참으로 조금밖에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 (2–3)

우리가 멸한 고을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징벌은 밤중에, 또는 그들이 한낮에 쉬고 있을 때 그들에게 닥쳤다. 우리의 징벌이 그들에게 닥쳤을 때, 그들의 외침은 다만 "우리는 참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였다." 하는 것뿐이었다. 우리는 사도들을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물을 것이며, 사도들에게도 반드시 물을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지식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다. 우리는 결코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다. 그날의 저울질은 참되다. 저울이 무거운 이들, 그들이야말로 번영할 자들이다. 저울이 가벼운 자들, 그들은 우리의 징표에 불의하게 대하던 것 때문에 자기 영혼을 잃은 자들이다. (4–9)

우리는 너희에게 땅에서 터전을 주고, 그 안에 너희를 위한 살림의 방편을 마련해 주었다. 너희는 참으로 조금밖에 감사하지 않는다. 우리는 너희를 창조하고, 그런 다음 너희의 모습을 빚었으며, 그런 다음 천사들에게 "아담 앞에 엎드리라." 하고 말했다. 그들은 엎드렸으나, 이블리스만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엎드린 이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명하였는데, 무엇이 너를 엎드리지 못하게 막았느냐?" 그가 말했다. "저는 그보다 낫습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불로 창조하시고, 그는 진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내려가라. 여기에서 네가 교만하게 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나가라. 너는 참으로 비천한 자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가 말했다. "그들이 일으켜지는 날까지 저에게 유예를 주십시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유예를 받은 자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가 말했다. "당신께서 저를 미혹에 버려두셨으니, 저는 반드시 당신의 곧은 길에서 그들을 숨어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의 앞에서, 뒤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그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감사하는 자가 아님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멸시받고 쫓겨난 자로 여기에서 나가라. 그들 가운데 너를 따르는 자가 있다면, 내가 반드시 너희 모두로 지옥을 채울 것이다. 그리고 아담아, 너와 네 아내는 이

동산에 살면서 어디든 원하는 곳에서 먹어라. 그러나 이 나무에는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면 너희 둘은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10–19)

그러자 사탄이 그들에게 속삭여, 그들에게 가려져 있던 그들의 부끄러운 곳을 드러내려 하였다. 그가 말했다. "너희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나무를 금하신 것은, 다만 너희가 천사가 되거나 영원히 사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나는 참으로 너희에게 진심으로 조언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그는 속임수로 그들을 떨어뜨렸다. 그들이 그 나무를 맛보자 그들의 부끄러운 곳이 그들에게 드러났고, 그들은 동산의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그 나무를 금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탄은 너희의 분명한 적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말했다.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는 저희 자신에게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틀림없이 잃는 자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려가라. 너희는 서로에게 적이다. 땅에는 한동안 너희가 머물 곳과 양식이 있을 것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죽으며, 그곳에서 끌려 나오게 될 것이다." (20–25)

아담의 자손아, 우리는 너희의 부끄러운 곳을 가릴 옷과 꾸밀 옷을 너희에게 내려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옷, 그것이 가장 좋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표 가운데 하나이니, 그들이 마음에 새기게 하려는 것이다. 아담의 자손아, 사탄이 너희를 꾀어내지 못하게 하라. 그는 너희의 어버이를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그들의 부끄러운 곳을 그들에게 보이려고 그들의 옷을 벗겼다. 그와 그의 무리는 너희가 그들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너희를 본다. 우리는 사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의 벗으로 삼았다. (26–27)

그들은 추한 짓을 저지르고는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다." 하고 말한다.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추한 짓을 명하지 않으신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가?" 말하라, "나의 주님께서는 정의를 명하셨다. 예배하는 곳마다 너희의 얼굴을 그분께로 향하고, 종교를 진실하게 그분께 바치며 그분을 부르라. 그분께서 너희를 처음 생겨나게 하신 것처럼 너희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분은 어떤 이들은 인도하셨고, 어떤 자들은 미혹이 마땅한 것이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사탄들을 벗으로 삼았으면서, 자기들이 인도받았다고 생각한다. 아담의 자손아, 예배하는 곳마다 너희의 좋은 옷을 입으라. 먹고 마시되 낭비하지 말라. 그분은 낭비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말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위해 내어 주신 하나님의 꾸밈과 좋은 양식을 누가 금하였는가?" 말하라,

"그것들은 현세의 삶에서 믿는 이들을 위한 것이며, 부활의 날에는 오로지 그들만의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아는 사람들을 위해 징표들을 자세히 밝힌다. (28–32)

말하라, "나의 주님께서 금하신 것은 다만 드러난 것이든 숨은 것이든 추한 짓과, 죄와, 부당한 억압과, 그분께서 아무 권위도 내리지 않으신 것을 너희가 하나님께 동반자로 두는 것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공동체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다. 그들의 기한이 오면, 그들은 그것을 한 시각도 늦출 수 없고 앞당길 수도 없다. (33–34)

아담의 자손아, 너희 자신 가운데서 사도들이 너희에게 와서 나의 징표를 너희에게 들려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잡는 이들에게는 두려움도 없고, 그들은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징표를 거짓이라 하고 그것에 대해 교만한 자들, 그들은 불지옥의 주민이며 그곳에 머물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지어내거나 그분의 징표를 거짓이라 하는 자보다 더 불의한 자가 누구인가? 그런 자들은 책에 정해진 자기 몫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우리의 사자들이 그들의 영혼을 거두려고 그들에게 올 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말고 부르던 것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말할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진리를 부정하는 자였음을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할 것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 이전에 지나간 진과 사람의 공동체들과 함께 불지옥으로 들어가라." 한 공동체가 들어갈 때마다 그 공동체는 자기 자매 공동체를 저주한다. 마침내 그들이 모두 잇달아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 가운데 나중 사람들이 먼저 사람들을 두고 말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시여, 이들이 저희를 미혹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불지옥의 징벌을 두 배로 주소서."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각자에게 두 배가 있다. 그러나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먼저 사람들이 나중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가 우리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그러니 너희가 벌어들이던 것 때문에 징벌을 맛보라." (35–39)

우리의 징표를 거짓이라 하고 그것에 대해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문들이 열리지 않을 것이며,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기 전에는 그들이 낙원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죄인들에게 보응한다. 그들에게는 지옥이 잠자리가 되고, 그들 위에는 불의 덮개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보응한다. 그러나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 우리는 어떤 영혼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짐을 지우지 않는다. 그들은 낙원의 주민이며 그곳에 머물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가슴속에 있는 어떤 원한도 걷어 낼 것이다. 그들 아래로는 강이 흐를 것이며, 그들은 말할 것이다. "모든 찬미는 저희를 여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결코 인도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사도들은 진리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하던 일 때문에 너희가 상속받게 된 낙원이다." 낙원의 주민들이 불지옥의 주민들에게 외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참됨을 알았다. 너희도 너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참됨을 알았는가?" 그들이 말할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외치는 이가 그들 사이에서 외칠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불의를 행하는 자들 위에 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막고, 그 길을 굽게 만들려 하며, 내세를 부정하는 자들이다." (40–45)

그 둘 사이에는 가림막이 있고, 높은 곳 위에는 양쪽 사람들을 그 표지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낙원의 주민들에게 외칠 것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들은 아직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들의 눈길이 불지옥의 주민들 쪽으로 돌려지면, 그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를 불의를 행하는 백성과 함께 두지 마소서." 높은 곳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표지로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외칠 것이다. "너희가 쌓아 모은 것도, 너희가 교만하게 굴던 것도 너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라고 너희가 맹세하던 이들이 이들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말이 주어질 것이다. "낙원으로 들어가라. 너희에게는 두려움도 없고, 너희는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46–49)

불지옥의 주민들이 낙원의 주민들에게 외칠 것이다. "우리에게 물을 좀 부어 주거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것을 좀 나누어 달라." 그들이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금하셨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오락과 놀이로 삼았고, 현세의 삶에 속은 자들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들을 잊는다. 그들이 자기들의 이날의 만남을 잊었고, 우리의 징표를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50–51)

우리는 그들에게 성서를 가져다주었으니, 믿는 사람들을 위한 인도와 자비로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자세히 밝혔다. 그들은 다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전에 그것을 잊었던 자들은 말할 것이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사도들은 진리를 가지고 왔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중재해 줄 중재자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되돌려 보내져서, 우리가 하던 것과 다르게 행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자기 영혼을 잃었고, 그들이 지어내던 것은 그들을 저버렸다. (52–53)

너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여섯 시대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런 다음 권좌 위에 좌정하셨다. 그분은 밤으로 낮을 덮으시니, 밤은 낮을 바삐 뒤쫓는다. 해와 달과 별들은 그분의 명령에 따라 부림을 받는다. 참으로 창조도 명령도 그분의 것이다.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복되시다. 겸손하게, 그리고 남몰래 너희 주님을 부르라. 그분은 한계를 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땅이 바로잡힌 뒤에 그 땅에 부패를 퍼뜨리지 말고, 두려움과 바람을 품고 그분을 부르라.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는 선을 행하는 이들 가까이에 있다. 그분은 당신의 자비에 앞서 기쁜 소식으로 바람을 보내시는 분이다. 마침내 바람이 무거운 구름을 실어 올리면, 우리는 그것을 죽은 땅으로 몰아가 그것으로 물을 내리고, 그것으로 온갖 열매를 낸다. 이처럼 우리는 죽은 자들을 끌어낼 것이니, 너희가 마음에 새기게 하려는 것이다. 좋은 땅은 그 주님의 허락으로 초목을 잘 내지만, 나쁜 땅에서는 변변찮은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징표들을 여러 가지로 보여 준다. (54–58)

우리는 누흐를 그의 백성에게 보냈다. 그가 말했다. “나의 백성이여,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에게는 그분 말고 다른 신이 없다. 나는 너희에게 엄청난 날의 징벌이 닥칠까 두렵다.” 그의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말했다.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명백한 미혹 속에 있다.” 그가 말했다. “나의 백성이여, 나에게는 미혹이 없다. 나는 만유의 주님에게서 온 사도이다. 나는 나의 주님의 전갈을 너희에게 전하고 너희에게 진심으로 조언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알고 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 너희 주님에게서 훈계가 너희에게 온 것이 너희에게 이상한가? 그것은 그가 너희에게 경고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자비를 입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거짓말쟁이라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이들을 구하고, 우리의 징표를 거짓이라 한 자들을 물에 빠뜨렸다. 그들은 참으로 눈먼 백성이었다. (59–64)

또 아드에게는 그들의 형제 후드를 보냈다. 그가 말했다. “나의 백성이여,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에게는 그분 말고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분을 경외하지 않겠는가?” 그의 백성 가운데 진리를 부정하는 우두머리들이 말했다.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 우리는 당신이 거짓말쟁이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가 말했다. “나의 백성이여, 나에게는 어리석음이 없다. 나는 만유의 주님에게서 온 사도이다. 나는 나의 주님의 전갈을 너희에게 전하며, 나는 너희에게 믿을 만한 조언자이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 너희 주님에게서 훈계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에게 경고하는 것이 너희에게 이상한가? 그분께서 누흐의 백성 뒤에 너희를 후계자로 삼으시고, 너희의 체격을 크게 늘려 주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가 번영할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것을 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왔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진실하다면, 당신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보라.” 그가 말했다. “너희 주님에게서 오는 징벌과 노여움이 이미 너희에게 내렸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아무

권위도 내리지 않으신,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지어낸 이름들을 두고 나와 논쟁하는가? 그렇다면 기다리라. 나도 너희와 함께 기다리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자비로 그와 그와 함께 있던 이들을 구하고, 우리의 징표를 거짓이라 하고 믿지 않던 자들을 뿌리째 끊어 버렸다. (65–72)

또 사무드에게는 그들의 형제 살리흐를 보냈다. 그가 말했다. "나의 백성이여,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에게는 그분 말고 다른 신이 없다. 너희 주님에게서 분명한 증거가 너희에게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암낙타로서, 너희를 위한 징표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땅에서 풀을 뜯게 내버려 두고, 그것에 해를 끼치지 말라. 그러면 고통스러운 징벌이 너희를 붙잡을 것이다. 그분께서 아드 뒤에 너희를 후계자로 삼으시고, 너희를 이 땅에 자리 잡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그 평지에 궁전을 짓고, 산을 깎아 집을 만든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부패를 퍼뜨리며 땅을 돌아다니지 말라." 그의 백성 가운데 교만한 우두머리들이, 약하게 여겨지던 이들 가운데 믿는 이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살리흐가 그의 주님에게서 보냄받았다는 것을 아는가?"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그가 가지고 보냄받은 것을 믿는다." 교만한 자들이 말했다. "우리는 너희가 믿는 그것을 부정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암낙타의 다리 힘줄을 끊고, 자기 주님의 명령을 거슬렀다. 그리고 말했다. "살리흐여, 당신이 사도들 가운데 하나라면, 당신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보라." 그러자 지진이 그들을 붙잡았고, 아침에 그들은 자기 집에서 엎어져 쓰러져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며 말했다. "나의 백성이여, 나는 나의 주님의 전갈을 너희에게 전하고 너희에게 진심으로 조언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진심으로 조언하는 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73–79)

또 루뜨를 보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너희 이전에 온 세상의 누구도 저지른 적이 없는 추한 짓을 저지르는가? 너희는 여자들 대신 남자들에게 욕정을 품고 다가간다. 너희는 참으로 모든 한계를 넘는 백성이다." 그의 백성의 대답은 다만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었다. "그들을 너희 고을에서 쫓아내라. 그들은 자신을 깨끗이 지키려는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와 그의 가족을 구하였다. 다만 그의 아내는 예외였으니, 그는 뒤에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는 그들 위에 돌의 비를 퍼부었다. 보라, 죄인들의 끝이 어떠하였는지를. (80–84)

또 마드얀에게는 그들의 형제 슈아이브를 보냈다. 그가 말했다. "나의 백성이여,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에게는 그분 말고 다른 신이 없다. 너희 주님에게서 분명한 증거가 너희에게 왔다. 그러니 되와 저울을 가득 채우고,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것을 깎아 내지 말며, 땅이 바로잡힌 뒤에 그 땅에 부패를 퍼뜨리지 말라. 너희가 믿는 자들이라면 그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 길목마다 숨어 앉아 위협하면서, 그분을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막고 그 길을 굽게 만들려 하지 말라. 너희가 적었을 때 그분께서 너희를 많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부패를 퍼뜨린 자들의 끝이 어떠하였는지 보라. 너희 가운데 한 무리는 내가 가지고 보냄받은 것을 믿고 한 무리는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결하실 때까지 인내하라. 그분은 판결하는 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85–87)

그의 백성 가운데 교만한 우두머리들이 말했다. "슈아이브여, 당신과 당신과 함께 믿는 자들이 우리의 길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당신들을 우리 고을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가 말했다.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는데도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구해 주신 뒤에 우리가 너희의 길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지어내는 것이 된다.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한, 우리가 거기로 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주님은 지식으로 모든 것을 품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한다.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와 저희 백성 사이를 진리로 판가름해 주소서. 당신은 판가름하는 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의 백성 가운데 진리를 부정하는 우두머리들이 말했다. "너희가 슈아이브를 따른다면, 너희는 틀림없이 잃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자 지진이 그들을 붙잡았고, 아침에 그들은 자기 집에서 엎어져 쓰러져 있었다. 슈아이브를 거짓말쟁이라 한 자들은 마치 그곳에 산 적이 없었던 것처럼 되었다. 슈아이브를 거짓말쟁이라 한 자들, 그들이야말로 잃는 자들이었다. 그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며 말했다. "나의 백성이여, 나는 나의 주님의 전갈을 너희에게 전하고 너희에게 진심으로 조언하였다. 그러니 진리를 부정하는 백성을 두고 내가 어찌 슬퍼하겠는가?" (88–93)

우리는 어떤 고을에 예언자를 보낼 때마다, 그 주민들이 스스로를 낮추도록 반드시 가난과 역경으로 그들을 붙잡았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들의 어려움을 넉넉함으로 바꾸어 주었고, 마침내 그들은 불어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조상들에게도 역경과 번영이 닥쳤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그들을 붙잡았다. 그 고을들의 주민이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면, 우리는 하늘과 땅에서 오는 축복을 그들에게 열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이라 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벌어들이던 것 때문에 그들을 붙잡았다. (94–96)

그 고을들의 주민은, 그들이 자고 있는 밤중에 우리의 징벌이 그들에게 닥치지 않으리라고 안심하는가? 아니면 그 고을들의 주민은, 그들이 놀고 있는 한낮에 우리의 징벌이 그들에게 닥치지 않으리라고 안심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안심하는가? 잃는 백성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안심하지 않는다. 이전

주민들 뒤에 땅을 물려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원한다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치고 그들의 마음을 봉하여 그들이 듣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았는가? 그것들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주는 고을들이다. 그들의 사도들이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왔으나, 그들은 전에 거짓이라 하던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마음을 봉하신다. 우리는 그들 대부분이 계약에 충실하지 않음을 보았고, 그들 대부분이 거역하는 자임을 보았다. (97–102)

그런 다음 우리는 그들 뒤에 무사를 우리의 징표와 함께 파라오와 그의 우두머리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징표에 불의하게 대하였다. 보라, 부패를 퍼뜨린 자들의 끝이 어떠하였는지를. 무사가 말했다. "파라오여, 나는 만유의 주님에게서 온 사도이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진리 말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나는 너희 주님에게서 온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너희에게 왔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을 나와 함께 보내라." 그가 말했다. "네가 징표를 가지고 왔다면, 네가 진실하다면 그것을 내놓아 보라." 그러자 그가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은 곧 누가 보아도 분명한 뱀이 되었다. 또 그가 손을 꺼내니, 그것은 곧 보는 이들에게 하얗게 빛났다. 파라오의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말했다. "이 자는 참으로 솜씨 좋은 마술사이다. 그는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쫓아내려 한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권하겠는가?" 그들이 말했다. "그와 그의 형제를 잠시 미루어 두고, 여러 성읍에 사람을 보내 모으게 하여, 솜씨 좋은 마술사를 모두 당신께 데려오게 하십시오." (103–112)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이기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보수가 있겠지요?" 그가 말했다. "그렇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가까운 자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무사여, 당신이 먼저 던지겠는가, 아니면 우리가 던지겠는가?" 그가 말했다. "너희가 던지라." 그들이 던지자,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홀리고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하였으며, 엄청난 마술을 내보였다. 그러자 우리는 무사에게 "네 지팡이를 던지라." 하고 계시하였다. 그러자 그것은 곧 그들이 꾸며 낸 것을 삼켜 버렸다. 이렇게 진리가 굳게 섰고, 그들이 하던 일은 헛것이 되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패하여 굴욕을 당한 채 물러났다. 그리고 마술사들은 엎드려 절하였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만유의 주님, 곧 무사와 하룬의 주님을 믿습니다." 파라오가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기도 전에 너희가 그를 믿었는가? 이것은 틀림없이 너희가 이 성읍에서 꾸민 음모로서, 그 주민들을 여기에서 쫓아내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너희의 손과 발을 엇갈려 자르고, 그런 다음 너희를 모두 십자가에 매달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앙갚음하는 것은 다만, 우리 주님의 징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에게 인내를 부어 주시고, 저희가 당신께 귀의한 자로 죽게 하소서." (113–126)

파라오의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말했다. "당신은 무사와 그의 백성이 이 땅에 부패를 퍼뜨리고, 당신과 당신의 신들을 버리도록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가 말했다. "우리는 그들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들의 여자들은 살려 둘 것이다. 우리는 그들 위에서 그들을 완전히 누르고 있다." 무사가 자기 백성에게 말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인내하라.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은 당신의 종들 가운데 원하시는 이에게 그것을 물려주신다.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도 해를 입었고, 당신이 우리에게 온 뒤에도 그러합니다." 그가 말했다. "너희 주님께서 너희의 적을 멸하시고 너희를 이 땅의 후계자로 삼으실지도 모른다. 그런 다음 그분은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보실 것이다." (127–129)

우리는 파라오의 백성을 여러 해의 가뭄과 열매의 부족으로 쳤으니, 그들이 마음에 새기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좋은 일이 그들에게 오면 그들은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을 것이다." 하고 말하였고, 나쁜 일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것을 무사와 그와 함께 있는 이들의 불길한 징조 탓으로 돌렸다. 참으로 그들의 징조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알지 못한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이 우리를 홀리려고 어떤 징표를 우리에게 가져오든, 우리는 당신을 믿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홍수와 메뚜기와 이와 개구리와 피를 뚜렷한 징표들로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게 굴었고, 죄짓는 백성이었다. 재앙이 그들에게 내릴 때마다 그들은 말했다. "무사여, 당신의 주님께서 당신과 맺으신 계약에 따라 우리를 위해 그분께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준다면, 우리는 반드시 당신을 믿고 이스라엘 자손을 당신과 함께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르게 될 기한까지 우리가 그들에게서 재앙을 거두어 주자, 그들은 곧 약속을 깨뜨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응징하여 그들을 바다에 빠뜨렸다. 그들이 우리의 징표를 거짓이라 하고 그것에 무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약하게 여겨지던 백성에게, 우리가 축복한 그 땅의 동쪽과 서쪽을 물려주었다. 이렇게 너의 주님의 좋은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루어졌으니, 그들이 인내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파라오와 그의 백성이 만들던 것과 그들이 세워 올리던 것을 허물어 버렸다. (130–137)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을 바다 건너로 데려갔다.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에 매달려 있는 한 백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말했다. "무사여, 저들에게 신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가 말했다. "너희는 참으로 무지한 백성이다. 이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것은 멸망할 것이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헛된 것이다." 그가 말했다.

“그분께서 너희를 만유보다 낫게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구하겠는가?” 우리가 너희를 파라오의 백성에게서 구해 낸 때를 기억하라. 그들은 너희 아들들을 죽이고 여자들은 살려 두면서 너희에게 가장 나쁜 고통을 주었다. 거기에는 너희 주님에게서 온 엄청난 시련이 있었다. (138–141)

우리는 무사와 서른 밤을 약속하고, 열 밤을 더하여 그것을 채웠다. 그리하여 그의 주님께서 정하신 때는 사십 밤이 되었다. 무사가 자기 형제 하룬에게 말했다. “내 백성 가운데서 나를 대신하고, 바르게 행하며, 부패를 퍼뜨리는 자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 무사가 우리가 정한 때에 와서 그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자, 그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당신을 저에게 보여 주시어 제가 당신을 뵙게 하소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저 산을 보라. 그것이 제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너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의 주님께서 그 산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자, 그분은 그것을 가루로 만드셨고, 무사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정신이 들자 그가 말했다. “당신께 영광이 있기를! 저는 뉘우치며 당신께 돌아갑니다. 저는 믿는 이들 가운데 첫째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무사야, 나는 나의 전갈과 나의 말로 너를 사람들 위에 선택하였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받고, 감사하는 이들 가운데 있으라.” (142–144)

우리는 그를 위해 판들에 모든 것에 관한 훈계와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적어 주었다. “그것을 굳게 붙들고, 네 백성에게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붙들라고 명하라. 내가 너희에게 거역하는 자들의 집을 보여 줄 것이다.” 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땅에서 교만하게 구는 자들을 나의 징표에서 돌려세울 것이다. 그들은 온갖 징표를 다 본다 해도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바른 길을 보아도 그것을 자기 길로 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혹의 길을 보면 그것을 자기 길로 삼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의 징표를 거짓이라 하고 그것에 무심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의 징표와 내세의 만남을 거짓이라 하는 자들, 그들의 행위는 헛것이 되었다. 그들이 자기가 하던 일 말고 다른 것으로 보응을 받겠는가? (145–147)

무사가 없는 사이에 그의 백성은 자기들의 장신구로 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다. 그것은 울음소리를 내는 몸뚱이일 뿐이었다.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말을 하지도 못하고, 자기들을 어떤 길로도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 그들은 그것을 섬겼고, 불의를 행하는 자였다. 그들이 후회에 사로잡히고 자기들이 길을 잃었음을 보았을 때 그들이 말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잃는 자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무사가 노엽고 슬픈 마음으로 자기 백성에게 돌아왔을 때 그가 말했다. “내가 떠난 뒤에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

한 짓은 참으로 나쁘다. 너희는 너희 주님의 명령을 앞질러 서두르려 하였는가?" 그는 판들을 내던지고, 자기 형제의 머리를 붙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하룬이 말했다. "내 어머니의 아들이여, 이 백성이 나를 약하게 여겨 나를 거의 죽일 뻔하였다. 그러니 내 적들이 나를 보고 고소해하게 하지 말고, 나를 불의를 행하는 백성과 함께 두지 말라." 그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저와 제 형제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당신의 자비 안으로 들이소서. 당신은 자비로운 이들 가운데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송아지를 섬긴 자들에게는 그들의 주님에게서 오는 노여움과 현세의 삶에서의 굴욕이 닥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거짓을 지어내는 자들에게 보응한다. 그러나 나쁜 행위를 하고 그 뒤에 뉘우치고 믿는 이들에게는, 참으로 그 뒤에 너의 주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148–153)

무사의 노여움이 가라앉자, 그는 판들을 집어 들었다. 거기에 적힌 것에는 자기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한 인도와 자비가 있었다. 무사는 우리가 정한 때를 위해 자기 백성 가운데서 일흔 사람을 골랐다. 격렬한 떨림이 그들을 붙잡자 그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원하셨다면 이전에 그들과 저를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운데 어리석은 자들이 한 짓 때문에 저희를 멸하시렵니까? 이것은 다만 당신의 시험일 뿐이니, 당신께서는 그것으로 원하시는 자를 미혹에 버려두시고 원하시는 이를 인도하십니다. 당신은 저희의 보호자이시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은 용서하는 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저희에게 좋은 것을 정해 주소서. 저희는 당신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징벌은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린다. 그러나 나의 자비는 모든 것을 품는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해진 희사를 바치는 이들과 우리의 징표를 믿는 이들을 위해 그것을 정해 줄 것이다. 그들은 사도, 곧 글을 모르는 예언자를 따르는 이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토라와 복음서에서 그에 대해 적힌 것을 발견한다. 그는 그들에게 옳은 일을 명하고 그른 일을 금하며,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하고 더러운 것들을 그들에게 금하며, 그들 위에 있던 짐과 족쇄를 그들에게서 벗겨 준다. 그러므로 그를 믿고, 그를 공경하며, 그를 돕고, 그와 함께 내려진 빛을 따르는 이들, 그들이야말로 번영할 자들이다." 말하라, "사람들아, 나는 너희 모두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사도이다. 하늘과 땅의 왕권이 그분께 있다. 그분 말고는 신이 없으며, 그분은 생명을 주시고 죽음을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 곧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글을 모르는 예언자를 믿고, 그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인도받을 것이다." (154–158)

무사의 백성 가운데에는 진리로 인도하고 그것으로 정의롭게 행하는 공동체가 있다. 우리는 그들을 열두 지파로, 여러 공동체로 나누었다. 그의 백성이 그에게 물을 청했을 때,

우리는 무사에게 "네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하고 계시하였다. 그러자 거기에서 열두 샘이 솟아 나왔고, 무리마다 자기가 마실 곳을 알았다. 우리는 구름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드리우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 주었다. "우리가 너희에게 베푼 좋은 것들을 먹으라." 그들은 우리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게 불의를 행하였다. 또 그들에게 이런 말이 주어진 때를 기억하라. "이 고을에 살면서 어디든 원하는 곳에서 먹고, '저희의 짐을 덜어 주소서.' 하고 말하며, 겸손히 몸을 숙이고 성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더 많이 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말을 다른 말로 바꾸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불의를 행한 것 때문에, 그들에게 하늘에서 재앙을 내렸다. (159–162)

바닷가에 있던 고을에 대해 그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안식일에 한계를 넘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날에는 물고기들이 물 위로 드러나게 그들에게 왔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날에는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 이처럼 우리는 그들이 거역한 것 때문에 그들을 시험하였다. 그들 가운데 한 무리가 "하나님께서 멸하시거나 혹독하게 벌하실 백성을, 너희는 어찌하여 훈계하는가?" 하고 말했을 때, 그들이 말했다. "너희 주님 앞에서 책임을 벗으려는 것이며, 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이 일깨움 받은 것을 잊어버리자, 우리는 악을 금하던 이들을 구하고, 불의를 행한 자들을 그들이 거역한 것 때문에 혹독한 징벌로 붙잡았다. 그들이 금지된 것을 거슬러 고집을 부리자, 우리는 그들에게 "멸시받는 원숭이가 되라." 하고 말했다. 또 너의 주님께서, 부활의 날까지 그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줄 자들을 반드시 그들에게 보내시겠다고 선포하신 때를 기억하라. 참으로 너의 주님은 징벌에 빠르시며, 참으로 그분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163–167)

우리는 그들을 여러 공동체로 땅에 흩어 놓았다. 그들 가운데에는 의로운 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다. 우리는 좋은 일과 나쁜 일로 그들을 시험하였으니, 그들이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그들 뒤를 이어 성서를 물려받은 후대가 왔다. 그들은 이 낮은 세상의 덧없는 이익을 취하면서 "우리는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익이 다시 그들에게 오면 그들은 그것을 또 취한다. 그들에게서 성서의 계약, 곧 하나님에 대해 진리 말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받지 않았던가? 그들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배우기도 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내세의 집이 더 좋다. 그런데도 너희는 이성을 쓰지 않는가? 성서를 굳게 붙들고 예배를 지키는 이들, 우리는 바로잡는 이들의 보상을 헛되게 하지 않는다. 또 우리가 그들 위로 산을 덮개처럼 들어 올리고, 그들이 그것이 자기들 위에 떨어지리라고 생각하던 때를

기억하라. “우리가 너희에게 준 것을 굳게 붙들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168–171)

너의 주님께서 아담의 자손에게서, 그들의 허리에서 그 후손을 꺼내시고, 그들 자신에 대해 증언하게 하신 때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의 주님이 아니냐?” 그들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증언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부활의 날에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이전에 하나님께 동반자를 둔 것은 우리 조상들이었고, 우리는 그들 뒤에 온 후손이었을 뿐입니다. 거짓을 따르던 자들이 한 짓 때문에 저희를 멸하시렵니까?” 이처럼 우리는 징표들을 자세히 밝히니, 그들이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172–174)

우리가 우리의 징표를 주었으나 그것을 벗어 버린 자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낭송해 주라. 그러자 사탄이 그를 뒤쫓았고, 그는 길을 잃은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원했다면 그것으로 그를 높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땅에 매달려 자기 욕망을 따랐다. 그의 비유는 개와 같다. 네가 쫓아도 혀를 내밀고 헐떡이고, 내버려 두어도 혀를 내밀고 헐떡인다. 우리의 징표를 거짓이라 하는 백성의 비유가 이러하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려주라. 그들이 깊이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징표를 거짓이라 하는 백성의 비유는 참으로 나쁘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불의를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는 바르게 인도받은 이이다. 그분께서 미혹에 버려두시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잃는 자들이다. 우리는 진과 사람 가운데 많은 자들을 지옥을 위해 창조하였다. 그들에게는 마음이 있으나 그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그것으로 보지 못하며, 귀가 있으나 그것으로 듣지 못한다. 그들은 가축과 같다. 아니, 그보다 더 길을 잃었다. 그들이야말로 무심한 자들이다. (175–179)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그 이름들로 그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들을 더럽히는 자들을 내버려 두라. 그들은 자기가 하던 일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창조한 이들 가운데에는 진리로 인도하고 그것으로 정의롭게 행하는 공동체가 있다. 우리의 징표를 거짓이라 하는 자들은, 우리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끌어갈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유예를 준다. 참으로 나의 계획은 굳건하다. 그들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그들의 동료에게는 아무 광기도 없다. 그는 분명한 경고자일 뿐이다. 그들은 하늘과 땅의 왕국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들 자신의 기한이 가까이 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 뒤에 그들은 어떤 말을 믿겠는가? 하나님께서 미혹에 버려두시는 자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그분은 그들이 거역 속에서 눈먼 채 헤매도록 내버려 두신다. (180–186)

(예언자여) 그들은 그 시각에 대해 너에게 묻는다. “그것은 언제 닥치는가?” 말하라, “그것에 대한 지식은 오직 나의 주님께 있다. 그분 말고는 아무도 그 때에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것은 하늘과 땅에 무겁게 드리워 있다. 그것은 갑자기가 아니고는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네가 그것을 잘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너에게 묻는다. 말하라, “그것에 대한 지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말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말고는, 나 자신에게 이로움도 해도 줄 힘이 없다.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았다면, 나는 좋은 것을 많이 얻었을 것이고, 어떤 해도 나에게 닿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다만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일 뿐이다.” (187–188)

그분은 너희를 한 영혼에서 창조하시고, 그 영혼에서 그 짝을 만드시어 그가 그 짝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신 분이다. 그가 그 짝을 덮자, 그 짝은 가벼운 짐을 지고 그것을 지닌 채 다녔다. 그런 다음 그것이 무거워지자, 두 사람은 자기들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당신께서 저희에게 온전한 아이를 주신다면, 저희는 반드시 감사하는 이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들에게 온전한 아이를 주시자, 그들은 그분께서 주신 것을 두고 그분께 동반자를 두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동반자로 두는 것 위에 높이 계신다. 그들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창조된 것을 동반자로 두는가? 그것들은 그들을 도울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돕지도 못한다. (189–192)

너희가 그들을 인도로 불러도, 그들은 너희를 따르지 않는다. 너희가 그들을 부르든 잠자코 있든, 너희에게는 마찬가지이다. 너희가 하나님 말고 부르는 것들은 너희와 같은 종일 뿐이다. 그러니 너희가 진실하다면 그것들을 불러, 그것들이 너희에게 응답하게 해 보라. 그것들에게 걸어 다닐 발이 있는가? 아니면 붙잡을 손이 있는가? 아니면 볼 눈이 있는가? 아니면 들을 귀가 있는가? 말하라, “너희의 동반자들을 부르라. 그런 다음 나를 거슬러 계략을 꾸미고, 나에게 틈을 주지 말라. 참으로 나의 보호자는 성서를 내리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의로운 이들을 보호하신다. 너희가 그분 말고 부르는 것들은 너희를 도울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돕지도 못한다.” 너희가 그들을 인도로 불러도, 그들은 듣지 못한다. 너는 그들이 너를 바라보는 것을 보지만, 그들은 보지 못한다. 너그러움을 지니고, 옳은 일을 명하며, 무지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사탄의 부추김이 너를 부추기거든,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라.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사탄에게서 오는 유혹이 그들에게 닿으면 그분을 기억하고, 그러면 곧 분명히 보게 된다. 그러나 사탄들은 자기 형제들을 미혹 속으로 더 깊이 끌어들이며, 결코 그치지 않는다. (193–202)

네가 그들에게 징표를 가져가지 않으면, 그들은 “어찌하여 네가 그것을 골라 오지 않았는가?” 하고 말한다. 말하라, “나는 다만 나의 주님에게서 나에게 계시되는 것을 따를 뿐이다. 이것은 너희 주님에게서 온 분명한 통찰이며, 믿는 사람들을 위한 인도와 자비이다.” 꾸란이 낭송되거든,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잠잠하라. 그러면 너희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아침저녁으로, 네 마음속으로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소리를 높이지 않고 너의 주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무심한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지 말라. 너의 주님 곁에 있는 이들은 교만하여 그분을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엎드린다. (203–206)

# 8. 전리품 (Al-Anfāl)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자여) 그들은 싸움에서 얻은 것에 대해 너에게 묻는다. 말하라, "싸움에서 얻은 것은 하나님과 사도의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 사이를 바로잡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순종하라."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이 언급되면 마음이 떨리고, 그분의 징표가 그들에게 낭송되면 믿음이 더해지며, 자기 주님께 의탁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예배를 지키고, 우리가 그들에게 베푼 것 가운데서 베푸는 이들이다. 그들이야말로 참된 믿는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주님 곁에 여러 단계의 영예와 용서와 넉넉한 양식이 있다. (1–4)

그것은 너의 주님께서 진리를 위해 너를 네 집에서 나오게 하신 것과 같다. 그때 믿는 자들 가운데 한 무리는 그것을 싫어하였다. 그들은 진리가 분명해진 뒤에도 그것을 두고 너와 논쟁하였으니, 마치 눈을 뜬 채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두 무리 가운데 하나가 너희의 것이 되리라고 너희에게 약속하신 때를 기억하라. 너희는 무장하지 않은 쪽이 너희의 것이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진리를 굳게 세우시고,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뿌리째 끊으려 하셨다. 죄지은 자들이 싫어한다 해도, 진리를 진리로 세우시고 거짓을 헛것으로 만드시려는 것이었다. 너희가 너희 주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그분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셨다. "내가 줄지어 잇달아 오는 천 천사로 너희를 돕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신 것은 다만 기쁜 소식이 되고, 그것으로 너희의 마음이 놓이게 하려는 것이었다.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분께서 당신에게서 오는 안도로 너희를 졸음으로 덮으시고, 하늘에서 너희에게 물을 내리신 때를 기억하라. 그것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너희에게서 사탄의 더러움을 없애시며, 너희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너희의 발을 굳건히 하시려는 것이었다. 너의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계시하신 때를 기억하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믿는 이들을 굳세게 하라. 나는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목 위를 치고, 그들의 손가락 끝마다 치라."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맞섰기 때문이다. 누구든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맞서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징벌에 엄하시다. "이것이 너희의 몫이니 맛보라."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불지옥의 징벌이 있다.[10] (5–14)

[10] 기회원인론 – 영광스러운 꾸란과 과학

믿는 자들이여,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떼 지어 진군해 오는 것을 만나거든, 그들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그런 날에 그들에게 등을 돌리는 자는, 다시 싸우려고 방향을 바꾸거나 다른 부대에 합류하려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자초한 것이며, 그의 거처는 지옥이다. 그것은 참으로 나쁜 종착지이다. (15-16)

그들을 죽인 것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예언자여) 네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모래를 던졌을 때, 던진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그것은 그분께서 당신에게서 오는 좋은 시험으로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11] (17)

그러하다. 하나님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계략을 약하게 하신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판가름을 구하였다면, 이제 판가름이 너희에게 왔다. 너희가 그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 그러나 너희가 되돌아온다면 우리도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의 무리는 아무리 많아도 너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 (18–19)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순종하고, 너희가 듣고 있으면서 그에게서 등을 돌리지 말라. 듣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들었다." 하고 말하는 자들처럼 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나쁜 짐승은 이성을 쓰지 않는 귀먹고 말 못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좋은 것이 있음을 아셨다면, 그들이 듣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이 듣게 하셨다 해도, 그들은 싫어하며 등을 돌렸을 것이다. 믿는 자들이여, 사도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너희를 부를 때, 하나님과 사도에게 응답하라. (20–23)

하나님께서 사람과 그의 마음 사이에 끼어드시며, 너희가 그분께로 모이게 됨을 알라.[12] (24)

너희 가운데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만 닥치지는 않을 시련을 조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벌에 엄하심을 알라. (25)

너희가 수가 적고 이 땅에서 약하게 여겨지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는 사람들이 너희를 낚아채 갈까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너희에게 피난처를 주시고, 당신의 도움으로 너희를 굳세게 하시며, 너희에게 좋은 것들을 베푸셨으니, 너희가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사도를 배신하지 말고, 너희에게 맡겨진 것을

[11] 기회원인론 – 영광스러운 꾸란과 과학
[12] 기회원인론 – 영광스러운 꾸란과 과학

알면서 배신하지도 말라. 너희의 재산과 자녀는 다만 시험일 뿐이며, 하나님 곁에 엄청난 보상이 있음을 알라.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준을 주시고, 너희의 나쁜 행위를 지워 주시며,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크나큰 은총의 주님이시다. (26–29)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너를 가두거나 죽이거나 쫓아내려고 너를 거슬러 계략을 꾸미던 때를 기억하라. 그들은 계략을 꾸몄고, 하나님께서도 계획을 세우셨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는 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우리의 징표가 그들에게 낭송되면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이미 들었다. 우리가 원한다면 이와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옛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또 그들이 이렇게 말한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참으로 당신에게서 온 진리라면, 하늘에서 저희 위에 돌을 비처럼 내리시거나, 저희에게 고통스러운 징벌을 가져오소서." 그러나 네가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용서를 구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들이 성스러운 모스크에서 사람들을 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으실 무슨 까닭이 그들에게 있는가? 그들은 그곳의 수호자도 아니다. 그곳의 수호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뿐이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알지 못한다. 그 집에서 드리는 그들의 예배는 휘파람과 손뼉 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너희가 진리를 부정한 것 때문에 징벌을 맛보라."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막으려고 자기 재산을 쓴다. 그들은 그것을 계속 쓰겠지만, 그런 다음 그것이 그들에게 한이 될 것이고, 그런 다음 그들은 패할 것이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좋은 것에서 가려내시고, 나쁜 것을 서로 포개어 모두 한데 쌓아 지옥에 던져 넣으시려는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잃는 자들이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그친다면 지나간 일은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되돌아간다면, 옛사람들의 선례가 이미 지나갔다. 박해가 더 이상 없고 종교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그들이 그친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신다. 그러나 그들이 등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보호자이심을 알라. 얼마나 훌륭한 보호자이시며, 얼마나 훌륭한 돕는 이이신가! (30–40)

너희가 싸움에서 얻는 것은 무엇이든, 그 오분의 일이 하나님과 사도와 가까운 친족과 고아들과 궁핍한 이들과 나그네의 것임을 알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분별의 날, 곧 두 군대가 맞붙던 날에 우리가 우리의 종에게 내린 것을 믿는다면 그리하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너희가 골짜기의 가까운 쪽에 있고, 그들은 먼 쪽에 있으며, 대상은 너희보다 아래쪽에 있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다 해도, 너희는 그

약속을 어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진 일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곧 멸망할 자는 분명한 증거를 보고 멸망하고, 살 이는 분명한 증거를 보고 살게 하려는 것이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41–42)

하나님께서 네 꿈속에서 그들을 적게 보여 주신 때를 기억하라. 그분께서 그들을 많게 보여 주셨다면, 너희는 용기를 잃고 그 일을 두고 다투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다. 그분은 가슴속에 있는 것을 잘 아신다. 또 너희가 서로 맞닥뜨렸을 때, 그분께서 너희 눈에 그들을 적어 보이게 하시고, 그들 눈에 너희를 적어 보이게 하신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진 일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43–44)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어떤 무리와 마주치거든 굳게 서고, 하나님을 많이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가 번영할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순종하고, 서로 다투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용기를 잃고 너희의 힘이 사라질 것이다. 인내하라.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 거드름을 피우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집에서 나와,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막는 자들처럼 되지 말라.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에워싸고 계신다. 사탄이 그들의 행위를 그들에게 좋아 보이게 하고 이렇게 말한 때를 기억하라. “오늘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너희를 이길 수 없다. 내가 너희 곁에 있다.” 그러나 두 군대가 서로 보이게 되자, 그는 발길을 돌려 돌아서며 말했다. “나는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은 징벌에 엄하시다.” (45–48)

위선자들과 마음에 병이 있는 자들이 말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에 속았다.” 그러나 누구든 하나님께 의탁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천사들이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얼굴과 등을 치며 그들의 영혼을 거두는 때를 네가 볼 수 있다면! “타는 불의 징벌을 맛보라. 이것은 너희 자신의 손이 앞서 보낸 것 때문이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종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그들의 길은 파라오의 백성과 그 이전 사람들의 길과 같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표를 부정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붙잡으셨다. 참으로 하나님은 강하시고 징벌에 엄하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이 자기들 안에 있는 것을 바꾸기 전에는,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그들의 길은 파라오의 백성과 그 이전 사람들의 길과 같다. 그들은 자기 주님의 징표를 거짓이라 하였고, 우리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멸하고 파라오의 백성을 물에 빠뜨렸다. 그들은 모두 불의를 행하는 자였다. (49–54)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나쁜 짐승은 진리를 부정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네가 계약을 맺었으나, 그때마다 자기들의 계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니 네가 전쟁에서 그들을 만나거든,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 그들 뒤에 있는 자들을 흩어 버리라. 그들이 마음에 새기게 하려는 것이다. 네가 어떤 백성에게서 배신을 염려한다면, 대등하게 그들의 계약을 그들에게 되던지라. 하나님은 배신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우리를 앞질렀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좌절시키지 못한다.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매어 둔 말들을 그들에 맞서 준비하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적이며 너희의 적인 자들과, 그들 말고 너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다른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길에서 무엇을 쓰든, 그것은 너희에게 온전히 갚아질 것이며, 너희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화평 쪽으로 기울거든, 너도 그쪽으로 기울고 하나님께 의탁하라.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들이 너를 속이려 한다 해도, 너에게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그분은 당신의 도움과 믿는 자들로 너를 굳세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으신 분이다. 네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썼다 해도, 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잇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으셨다. 참으로 그분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예언자여, 너와 너를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예언자여, 믿는 자들을 싸움으로 북돋우라. 너희 가운데 인내하는 스무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이백 명을 이길 것이고, 너희 가운데 백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 천 명을 이길 것이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셨으니, 너희에게 약함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 인내하는 백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이백 명을 이길 것이고, 너희 가운데 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천 명을 이길 것이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 (55–66)

어떤 예언자도 그 땅을 완전히 제압하기 전에 포로를 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현세의 덧없는 재물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내세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에게서 앞서 내려진 정함이 없었더라면, 너희가 취한 것 때문에 엄청난 징벌이 너희에게 닿았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싸움에서 얻은 것을 허락되고 좋은 것으로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67–69)

예언자여, 너희 손에 있는 포로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무슨 좋은 것이 있음을 아신다면, 너희에게서 거두어 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고,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그러나 그들이

너를 배신하려 한다면, 그들은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을 제압할 힘을 너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70–71)

믿고 이주하여 자기 재산과 목숨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분투한 이들과, 피난처를 주고 도운 이들, 그들은 서로의 보호자이다. 믿었으나 이주하지 않은 이들은, 그들이 이주할 때까지 너희가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종교의 일로 너희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돕는 것이 너희의 의무이다. 다만 너희와 조약을 맺은 백성을 거스르는 경우는 예외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신다. (72)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서로의 보호자이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박해와 큰 부패가 있을 것이다. 믿고 이주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분투한 이들과, 피난처를 주고 도운 이들, 그들이야말로 참된 믿는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용서와 넉넉한 양식이 있다. 그 뒤에 믿고 이주하여 너희와 함께 분투한 이들, 그들도 너희에게 속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서에서는 혈연으로 맺어진 이들이 서로에게 더 가깝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73–75)

# 9. 뉘우침 (Al-Tawba)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가, 너희가 조약을 맺었던 다신교도들에게 내리는 관계 해제의 선언이다. "넉 달 동안 이 땅을 자유로이 다니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치욕을 주시리라는 것을 알라." 또 이것은 대순례의 날에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가 사람들에게 알리는 선포이다. 하나님은 다신교도들과 아무 상관이 없으시며, 그분의 사도도 그러하다. 너희가 뉘우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 그러나 너희가 등을 돌린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음을 알라.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징벌의 소식을 전하라. 다만 다신교도들 가운데 너희가 조약을 맺었고, 그 뒤에 너희에게 아무것도 어기지 않았으며, 너희를 거슬러 누구도 돕지 않은 자들은 예외이다. 그들과의 조약은 그 기한이 찰 때까지 지키라.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1–4)

그런 다음 성스러운 달들이 지나가거든, 다신교도들을 발견하는 곳 어디에서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붙잡고 에워싸며, 모든 매복지에서 그들을 숨어 기다리라. 그러나 그들이 뉘우치고 예배를 지키며 정해진 희사를 바친다면, 그들이 자기 길을 가게 놓아주라.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다신교도들 가운데 누가 너에게 보호를 청하거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해 주라. 그런 다음 그를 그가 안전한 곳에 데려다주라. 그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다신교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 곁에 조약이 있을 수 있겠는가? 다만 너희가 성스러운 모스크 곁에서 조약을 맺은 자들은 예외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바르게 대하는 한, 너희도 그들에게 올바르게 대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그들은 너희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너희에 대해 혈연도 계약도 지키지 않을 자들이다. 그들은 입으로는 너희를 기쁘게 하지만 마음으로는 거부하며, 그들 대부분은 거역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표를 하찮은 값에 팔고, 다른 이들을 그분의 길에서 막았다. 그들이 해 온 짓은 참으로 나쁘다. 그들은 믿는 이에 대해 혈연도 계약도 지키지 않는다. 그들이야말로 한계를 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뉘우치고 예배를 지키며 정해진 희사를 바친다면, 그들은 종교 안에서 너희의 형제이다. 우리는 아는 사람들을 위해 징표들을 자세히 밝힌다. 그러나 그들이 조약을 맺은 뒤에 자기들의 맹세를 깨뜨리고 너희의 종교를 헐뜯는다면, 부정의 우두머리들과 싸우라. 그들에게는 맹세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이 그치게 하려는 것이다. 자기들의 맹세를 깨뜨리고, 사도를 쫓아내려고 꾀하였으며, 너희에게 먼저 싸움을 걸어 온 백성과 너희는 싸우지 않겠는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는가? 너희가 믿는 자들이라면, 너희가 두려워해야 마땅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들과 싸우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으로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에게 치욕을 주시며, 그들을 이기도록 너희를 도우시고, 믿는 백성의 가슴을 낫게 하시며, 그들 마음의 분노를 없애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이에게 자비로 돌아오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아니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분투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와 믿는 자들 말고는 속을 터놓는 벗을 두지 않는 이들을 아직 가려내지 않으셨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어지리라고 생각하였는가?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일을 잘 아신다. (5–16)

다신교도들은, 자기들이 진리를 부정한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모스크를 돌볼 자격이 없다. 그들의 행위는 헛것이 되었고, 그들은 불지옥에 영원히 머물 것이다. 하나님의 모스크를 돌보는 이는 오직, 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고, 예배를 지키며, 정해진 희사를 바치고,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다. 이들이 바르게 인도받은 이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순례자들에게 물을 주고 성스러운 모스크를 돌보는 일을, 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고 하나님의 길에서 분투하는 이의 일과 같다고 여기는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같지 않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믿고 이주하여 자기 재산과 목숨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분투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위가 훨씬 더 높다. 그들이야말로 승리하는 이들이다. 그들의 주님께서는 당신에게서 오는 자비와 기쁨과, 그들을 위한 변치 않는 지복이 있는 낙원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신다.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머문다. 참으로 하나님 곁에는 엄청난 보상이 있다. (17–22)

믿는 자들이여, 너희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믿음보다 부정을 더 좋아한다면, 그들을 동맹으로 삼지 말라. 너희 가운데 그들을 동맹으로 삼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말하라, “너희의 아버지와 아들과 형제와 아내와 친족, 너희가 모은 재산, 너희가 부진할까 두려워하는 장사, 그리고 너희가 좋아하는 집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와 그분의 길에서 분투하는 것보다 너희에게 더 사랑스럽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가져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은 거역하는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싸움터에서 너희를 도우셨고, 후나인의 날에도 그리하셨다. 그때 너희의 수가 많은 것이 너희를 우쭐하게 하였으나, 그것은 너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땅은 그렇게 넓은데도 너희에게 비좁아졌고, 너희는 등을 돌려 달아났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도와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평온을 내리시고, 너희가 보지 못한 군대를 내려보내시어,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벌하셨다.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보응은 그러하다. 그런 다음 그 뒤에, 하나님은 원하시는 이에게 자비로 돌아오신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23–27)

믿는 자들이여, 다신교도들은 참으로 부정하다. 그러니 그들이 올해가 지난 뒤에는 성스러운 모스크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가난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실 경우 당신의 은총으로 너희를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성서를 받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도 마지막 날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가 금한 것을 금하지 않으며, 진리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 자들과 싸우라. 그들이 복종하며 제 손으로 공납을 바칠 때까지 그리하라. 유대인들은 "우자이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한다. 그것은 그들이 입으로 하는 말이며, 그들 이전에 진리를 부정한 자들의 말을 흉내 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를! 그들은 어찌 그리 외면하게 되는가! 그들은 하나님 말고 자기들의 랍비들과 수도자들을 주님으로 삼았고, 마르얌의 아들 메시아도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분 말고는 신이 없다.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그분은 그들이 동반자로 두는 것 위에 계신다.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의 빛을 끄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싫어한다 해도, 당신의 빛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인도와 진리의 종교와 함께 당신의 사도를 보내신 분이니, 다신교도들이 싫어한다 해도 그것을 모든 종교 위에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믿는 자들이여, 랍비들과 수도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사람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삼키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막는다. 금과 은을 쌓아 두고 그것을 하나님의 길에서 쓰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징벌의 소식을 전하라. 그날 그것은 지옥의 불 속에서 달구어지고, 그것으로 그들의 이마와 옆구리와 등에 낙인이 찍힐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자기 자신을 위해 쌓아 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쌓아 두던 것을 맛보라." (28–35)

하나님 곁에서 달의 수는 열둘이며,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책에 정해져 있다. 그 가운데 넷은 성스러운 달이다. 그것이 올바른 종교이다. 그러니 그 달들에 너희 자신에게 불의를 행하지 말라. 다신교도들이 모두 함께 너희와 싸우듯이, 너희도 모두 함께 그들과 싸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과 함께 계심을 알라. 성스러운 달을 뒤로 미루는 것은 부정을 더하는 일일 뿐이며,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그것으로 미혹된다. 그들은 어느 해에는 그것을 허락하고 어느 해에는 그것을 금하여, 하나님께서 성스럽게 하신 달의 수를 맞추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허락한다. 그들의 행위의 나쁨이 그들에게 좋아 보이게 되었다. 하나님은 진리를 부정하는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36–37)

믿는 자들이여, 너희는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의 길에서 나아가라." 하는 말을 들으면 너희는 땅에 무겁게 주저앉는다. 너희는 내세 대신 현세의 삶에 만족하는가? 현세의 삶의

즐거움은 내세에 견주면 아주 적은 것일 뿐이다. 너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고통스러운 징벌로 너희를 벌하시고, 너희 대신 다른 백성을 두실 것이다. 너희는 그분을 조금도 해치지 못한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너희가 그를 돕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도우셨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그를 쫓아냈을 때, 그는 둘 가운데 하나였다. 그 둘이 동굴 안에 있을 때, 그가 자기 동료에게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평온을 내리시고, 너희가 보지 못한 군대로 그를 도우셨으며,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말을 가장 낮은 것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높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가볍든 무겁든 나아가고, 너희의 재산과 목숨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분투하라. 너희가 알기만 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 그것이 가까이 있는 이익이고 쉬운 여정이었다면, 그들은 너를 따랐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이 그들에게는 멀게 보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맹세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너희와 함께 나갔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고 있다. 하나님은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아신다. (38–42)

(예언자여)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기를! 진실한 자들이 누구인지 너에게 분명해지고 네가 거짓말쟁이들을 알게 되기 전에, 어찌하여 너는 그들에게 남아 있어도 좋다고 허락하였는가? 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는 이들은, 자기 재산과 목숨으로 분투하는 일에서 빠지게 해 달라고 너에게 청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잘 아신다. 너에게 허락을 청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지 않고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 찬 자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심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들이 나아갈 뜻이 있었다면, 그것을 위해 무엇인가 준비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서는 것을 싫어하시어 그들을 붙들어 두셨고, 그들에게는 이런 말이 주어졌다. "주저앉아 있는 자들과 함께 주저앉아 있으라." 그들이 너희 가운데 섞여 나갔다 해도, 그들은 너희에게 혼란만 더했을 것이며, 너희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려고 너희 가운데를 바삐 돌아다녔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자들도 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잘 아신다. 그들은 전에도 불화를 일으키려 하였고, 너를 거슬러 일들을 뒤집어 놓았다. 마침내 진리가 오고 하나님의 명령이 드러났으니, 그들은 그것을 싫어하였다. 그들 가운데에는 "나에게 허락해 주고, 나를 시험에 빠뜨리지 말라." 하고 말하는 자가 있다. 참으로 그들은 이미 시험에 빠졌다. 지옥은 참으로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에워싸고 있다.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그들을 슬프게 한다. 그러나 너에게 불행이 닥치면 그들은 "우리는 미리 조심해 두었다." 하고 말하며, 기뻐하면서 돌아선다. 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 두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 말하라, "너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 말고 다른 것이 닥치기를 기다리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오는 징벌로나 우리의 손으로 너희를 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기다리라. 우리도 너희와 함께 기다리고 있다." 말하라, "기꺼이 쓰든 마지못해 쓰든, 그것은 너희에게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거역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는 것이 그들에게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막는 것은 다만,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부정하고, 마지못해서만 예배에 오며, 싫어하면서만 쓴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재산도 자녀도 너를 감탄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다만 현세의 삶에서 그것들로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이 진리를 부정하는 채로 그들의 영혼이 떠나게 하려 하실 뿐이다. (43–55)

그들은 자기들이 너희에게 속한다고 하나님께 맹세한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에게 속하지 않는다. 그들은 겁을 내는 백성이다. 그들이 피난처나 동굴이나 기어들 구멍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은 그리로 돌아서서 쏜살같이 달려갈 것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희사의 일로 너를 헐뜯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거기에서 몫을 받으면 만족하지만, 몫을 받지 못하면 곧 화를 낸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가 그들에게 준 것에 만족하고 이렇게 말했더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그분의 사도도 그리할 것이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한다." 정해진 희사는 오직 가난한 이들과 궁핍한 이들,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이들, 마음을 얻어야 할 이들, 노예를 해방하는 일, 빚에 눌린 이들, 하나님의 길, 그리고 나그네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56–60)

그들 가운데에는 예언자를 괴롭히며 "그는 무엇이든 듣는 귀이다." 하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말하라, "그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듣는 귀이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믿는 자들을 신뢰하며, 너희 가운데 믿는 이들에게 자비이다." 하나님의 사도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징벌이 있다. 그들은 너희를 기쁘게 하려고 너희에게 하나님께 맹세한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기쁘게 해 드려야 할 권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더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맞서는 자에게는 지옥의 불이 있어 그 안에 영원히 머문다는 것을 모르는가? 그것이야말로 큰 치욕이다. (61–63)

위선자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주는 장이 자기들을 두고 내려질까 두려워한다. 말하라, "계속 조롱하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다." 네가 그들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말할 것이다. "우리는 다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며 놀고 있었을 뿐이다." 말하라, "너희가 조롱하던 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징표와 그분의 사도였는가?" 변명하지 말라. 너희는 믿은 뒤에 진리를 부정하였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한 무리를 용서한다 해도, 다른 한 무리는 벌할 것이다. 그들이 죄를 지은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위선자 남자들과 위선자 여자들은 서로 한통속이다. 그들은 그른 일을 권하고 옳은 일을 금하며, 손을 꼭 움켜쥔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으니, 그분께서도 그들을 잊으셨다. 참으로 위선자들이야말로 거역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위선자 남자들과 위선자 여자들, 그리고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지옥의 불을 약속하셨으니, 그들은 그 안에 영원히 머문다. 그것으로 그들에게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고, 그들에게는 끝없이 이어지는 징벌이 있다. 너희는 너희 이전의 사람들과 같다. 그들은 너희보다 힘이 더 강하였고, 재산과 자녀도 더 많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몫을 누렸고, 너희 이전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몫을 누렸듯이 너희도 너희의 몫을 누렸다. 그리고 그들이 쓸데없는 이야기에 빠졌듯이 너희도 빠졌다. 그들의 행위는 현세와 내세에서 헛것이 되었고, 그들이야말로 잃는 자들이다. 그들 이전의 사람들, 곧 누흐의 백성과 아드와 사무드, 이브라힘의 백성, 마드얀의 사람들, 그리고 뒤집힌 고을들의 소식이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는가? 그들의 사도들이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왔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의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불의를 행하였다. (64–70)

믿는 남자들과 믿는 여자들은 서로의 보호자이다. 그들은 옳은 일을 권하고 그른 일을 금하며, 예배를 지키고, 정해진 희사를 바치며,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순종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남자들과 믿는 여자들에게,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낙원을 약속하셨으니,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머문다. 또 영원한 지복의 낙원에 있는 좋은 거처도 약속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그보다 더 크다. 그것이야말로 크나큰 승리이다. (71–72)

예언자여,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과 위선자들에 맞서 분투하고, 그들에게 단호하게 대하라. 그들의 거처는 지옥이다. 그것은 참으로 나쁜 종착지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맹세한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부정의 말을 하였고, 하나님께 귀의한 뒤에 진리를 부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루지 못할 일을 꾀하였다. 그들이 못마땅해한 것은 다만,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가 그분의 은총으로 그들을 넉넉하게 해 주었다는 것뿐이다. 그들이 뉘우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더 좋다. 그러나 그들이 등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현세와 내세에서 고통스러운 징벌로 그들을 벌하실 것이며, 이 땅에서 그들에게는 보호자도 돕는 이도 없을 것이다. (73–74)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계약을 맺은 자들이 있다. "그분께서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선을 베풀고 의로운 이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당신의 은총으로 그들에게 주시자, 그들은 그것에 인색하게 굴고 싫어하며 등을 돌렸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이 그분을 만나는 날까지 그들의 마음에 위선이 뒤따르게 하셨다. 그들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어겼고,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밀과 은밀한 이야기를 아시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모르는가? 믿는 자들 가운데 기꺼이 자선을 베푸는 이들을 헐뜯고, 자기 수고 말고는 내놓을 것이 없는 이들을 헐뜯으며 그들을 비웃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징벌이 있다.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마찬가지이다. 네가 그들을 위해 일흔 번 용서를 구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거역하는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75–80)

뒤에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사도 뒤에서 집에 앉아 있게 된 것을 기뻐하였고, 자기 재산과 목숨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분투하기를 싫어하였다. 그들은 "더위 속에 나가지 말라." 하고 말하였다. 말하라, "지옥의 불이 더 뜨겁다."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그러니 그들이 조금 웃게 하라. 그들은 자기가 벌어들이던 것에 대한 보응으로 많이 울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들 가운데 한 무리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나가게 해 달라고 너에게 허락을 청하거든 말하라, "너희는 결코 나와 함께 나가지 못할 것이며, 나와 함께 적과 싸우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처음에 앉아 있는 것에 만족하였으니, 이제 뒤에 남는 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라." (81–83)

그들 가운데 죽은 자 누구를 위해서도 결코 예배하지 말고, 그의 무덤 곁에 서지도 말라.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부정하였고, 거역하는 자로 죽었다. 그들의 재산도 자녀도 너를 감탄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다만 현세에서 그것들로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이 진리를 부정하는 채로 그들의 영혼이 떠나게 하려 하실 뿐이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도와 함께 분투하라." 하는 장이 내려지면, 그들 가운데 넉넉한 자들이 너에게 허락을 청하며 말한다. "우리를 내버려 두어, 앉아 있는 자들과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뒤에 남는 여자들과 함께 있는 것에 만족한다. 그들의 마음이 봉해졌으니,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사도와 그와 함께 믿는 이들은 자기 재산과 목숨으로 분투한다. 그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있으며, 그들이야말로 번영할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낙원을 마련해 두셨으니,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머문다. 그것이야말로 크나큰 승리이다. (84–89)

사막의 아랍인들 가운데 변명하는 자들이 허락을 받으려고 왔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거짓말한 자들은 앉아 있었다. 그들 가운데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징벌이 닥칠 것이다. 약한 이들에게도, 병든 이들에게도, 쓸 것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진실한 한 아무 죄가 없다. 선을 행하는 이들을 탓할 길은 없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또 탈것을 마련해 달라고 너에게 왔다가, 네가 "너희를 태울 것을 내가 찾지 못한다." 하고 말하자, 쓸 것을 찾지 못한 슬픔으로 눈에 눈물을 흘리며 돌아간 이들에게도 죄가 없다. 탓할 길은 오직, 넉넉하면서도 너에게 허락을 청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들은 뒤에 남는 여자들과 함께 있는 것에 만족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봉하셨으니, 그들은 알지 못한다. (90–93)

너희가 그들에게 돌아가면 그들은 너희에게 변명할 것이다. 말하라, "변명하지 말라. 우리는 너희를 믿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를 보실 것이며, 그분의 사도도 볼 것이다. 그런 다음 너희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아시는 분께로 돌아가게 되며, 그분은 너희가 하던 일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돌아가면, 그들은 너희가 자기들을 내버려 두게 하려고 너희에게 하나님께 맹세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내버려 두라. 그들은 참으로 더러운 자들이며, 그들의 거처는 지옥이다. 그것은 그들이 벌어들이던 것에 대한 보응이다. 그들은 너희가 자기들에게 만족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맹세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들에게 만족한다 해도, 하나님은 거역하는 백성에게 만족하지 않으신다. (94–96)

사막의 아랍인들은 부정과 위선이 더 심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도에게 내리신 것의 한계를 알지 못하기가 더 쉽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사막의 아랍인들 가운데에는 자기가 쓰는 것을 벌금으로 여기고, 너희에게 운명이 뒤바뀌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 나쁜 운명의 뒤바뀜은 그들 위에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또 사막의 아랍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고, 자기가 쓰는 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편이요 사도의 기도를 얻는 방편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 참으로 그것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는 방편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자비 안으로 들이실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97–99)

이주자들과 조력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앞장선 이들과, 선을 행하며 그들을 따른 이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도 그분을 기뻐한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위해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낙원을 마련해 두셨으니,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머문다. 그것이야말로 크나큰 승리이다. (100)

너희 주위의 사막의 아랍인들 가운데에는 위선자들이 있고, 메디나 사람들 가운데에도 있다. 그들은 위선에 굳어져 있다. 너는 그들을 알지 못하나 우리는 그들을 안다. 우리는 그들을 두 번 벌할 것이며, 그런 다음 그들은 엄청난 징벌로 돌려보내질 것이다. 또 자기 죄를 인정한 다른 이들이 있다. 그들은 선한 행위에 나쁜 다른 행위를 섞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 그들에게 돌아오실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그들의 재산에서 희사를 받아, 그것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너의 기도는 그들에게 위안이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서 뉘우침을 받아 주시고 희사를 받으시는 분이며, 하나님께서 뉘우침을 잘 받아 주시고 자애로우신 분임을 모르는가? 말하라,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를 보실 것이며, 그분의 사도와 믿는 자들도 볼 것이다. 그런 다음 너희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아시는 분께로 돌아가게 되며, 그분은 너희가 하던 일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미루어진 다른 이들이 있다. 그분께서 그들을 벌하실지 자비로 그들에게 돌아오실지는 그분께 달려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101–106)

또 해를 끼치고 진리를 부정하려고, 믿는 자들을 갈라놓으려고, 그리고 전에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전쟁을 걸었던 자를 위한 거점으로 삼으려고 모스크를 세운 자들이 있다. 그들은 틀림없이 "우리는 좋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하고 맹세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증언하신다. 결코 그 안에 서서 예배하지 말라. 첫날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위에 세워진 모스크가, 네가 그 안에 서기에 더 마땅하다. 그 안에는 깨끗해지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자신을 깨끗이 하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분의 기쁨 위에 자기 건물을 세운 이가 더 나은가, 아니면 무너져 내리는 벼랑 끝에 자기 건물을 세워, 그것이 자기와 함께 지옥의 불 속으로 무너져 내린 자가 더 나은가?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그들이 세운 건물은, 그들의 마음이 조각조각 끊어질 때까지 그들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씨앗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107–110)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서 그들의 목숨과 재산을 사시고, 그 대가로 그들에게 낙원을 주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싸워, 죽이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이것은 토라와 복음서와 꾸란에서 그분께서 지키시기로 하신 참된 약속이다. 하나님보다 자기 계약에 더 충실한 이가 누구인가? 그러니 너희가 그분과 맺은 거래를 기뻐하라. 그것이야말로 크나큰 승리이다. 그들은 뉘우치는 이들, 섬기는 이들, 찬미하는 이들,

그분을 위해 길을 떠나는 이들, 허리 숙이는 이들, 엎드리는 이들, 옳은 일을 권하고 그른 일을 금하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지키는 이들이다. 믿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111–112)

예언자와 믿는 이들은, 다신교도들이 타오르는 불의 주민임이 자기들에게 분명해진 뒤에는, 그들이 가까운 친족이라 해도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된다. 이브라힘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 용서를 구한 것은 다만 그가 아버지에게 한 약속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님의 적임이 그에게 분명해지자, 그는 아버지와 관계를 끊었다. 참으로 이브라힘은 마음이 여리고 관대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백성을 인도하신 뒤에, 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밝혀 주시기 전에는 그들을 미혹에 버려두지 않으신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늘과 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고 죽음을 주신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말고 보호자도 돕는 이도 없다. (113–116)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에게, 그리고 어려운 때에 그를 따랐던 이주자들과 조력자들에게 자비로 돌아오셨다. 그들 가운데 한 무리의 마음이 거의 빗나갈 뻔한 뒤의 일이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자비로 그들에게 돌아오셨다. 참으로 그분은 그들에게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또 뒤에 남겨졌던 세 사람에게도 그리하셨다. 땅은 그렇게 넓은데도 그들에게 비좁아졌고, 그들 자신의 영혼도 그들에게 비좁아졌으며,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피할 곳이 그분께 말고는 없음을 깨달았다. 그런 다음 그분은 자비로 그들에게 돌아오시어 그들이 뉘우치게 하셨다. 참으로 하나님은 뉘우침을 잘 받아 주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117–118)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이들과 함께 있으라. 메디나 사람들과 그 주위의 사막의 아랍인들이 하나님의 사도 뒤에 남아 있는 것도, 그의 목숨보다 자기 목숨을 더 아끼는 것도 마땅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목마름이나 고단함이나 굶주림을 겪을 때마다, 또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분노하게 하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또 적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 낼 때마다, 그것으로 그들에게 의로운 행위가 반드시 기록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이들의 보상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 또 그들이 적든 많든 무엇인가를 쓸 때마다, 또 어떤 골짜기를 건널 때마다, 그것이 반드시 그들을 위해 기록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던 가장 좋은 일에 따라 그들에게 보상하시려는 것이다. (119–121)

믿는 자들이 모두 한꺼번에 나아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들의 각 집단에서 한 무리가 나가 종교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을 때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이

조심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믿는 자들이여,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 가운데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과 싸우고, 그들이 너희에게서 굳셈을 보게 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과 함께 계심을 알라. (122–123)

장이 내려질 때마다, 그들 가운데에는 "이것이 너희 가운데 누구의 믿음을 더해 주었는가?" 하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믿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믿음을 더해 주었고, 그들은 기뻐한다. 그러나 마음에 병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더러움에 더러움을 더하였고, 그들은 진리를 부정하는 채로 죽는다. 그들은 해마다 한 번이나 두 번 시험받는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가? 그런데도 그들은 뉘우치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는다. 장이 내려질 때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누가 너희를 보고 있는가?" 하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슬그머니 떠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으셨으니,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124–127)

이제 너희 자신 가운데서 한 사도가 너희에게 왔다. 너희가 겪는 고통이 그에게는 무겁고, 그는 너희를 몹시 염려하며, 믿는 자들에게 인자하고 자비롭다. 그러나 그들이 등을 돌리거든 말하라, "나에게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그분 말고는 신이 없다. 나는 그분께 의탁하며, 그분은 위대한 권좌의 주님이시다." (128–129)

# 10. 유누스 (Yūnus)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리프 람 라. 이것은 지혜가 가득한 성서의 구절이며 징표이다.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믿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주님 곁에 참된 발판이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라." 하고 계시한 것이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인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이 자는 분명히 마술사이다." 하고 말한다. (1–2)

너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여섯 시대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런 다음 권좌 위에 좌정하시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그분의 허락이 있은 뒤가 아니고는 어떤 중재자도 없다. 이분이 너희 주님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분을 섬기라. 그런데도 너희는 마음에 새기지 않는가? 너희 모두의 귀착지는 그분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다. 그분은 창조를 시작하시고 그런 다음 그것을 되풀이하시니,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공정하게 보상하시려는 것이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부정한 것 때문에 펄펄 끓는 물의 음료와 고통스러운 징벌이 있다. (3–4)

그분은 해를 빛나는 것으로, 달을 빛으로 만드시고, 달에게 머무는 자리들을 정해 주신 분이니, 너희가 햇수와 셈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진리로만 창조하셨다. 그분은 아는 사람들을 위해 징표들을 자세히 밝히신다. 밤과 낮의 바뀜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한 징표들이 있다. 우리와의 만남을 기대하지 않고, 현세의 삶에 만족하여 그 안에서 편안해하며, 우리의 징표에 무심한 자들, 그들의 거처는 그들이 벌어들이던 것 때문에 불지옥이다.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 그들의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지복의 낙원에서 그들 아래로 강이 흐를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의 외침은 "하나님이시여, 당신께 영광이 있기를!"이고, 그곳에서 그들의 인사는 "평화!"이며, 그들의 외침의 끝은 "모든 찬미는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있다."이다. (5–10)

사람들이 좋은 것을 서두르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쁜 것을 서둘러 주신다면, 그들의 기한은 이미 그들에게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의 만남을 기대하지 않는 자들이 거역 속에서 눈먼 채 헤매도록 내버려 둔다. 사람에게 괴로움이 닿으면, 그는 옆으로 누워서나 앉아서나 서서 우리를 부른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서 괴로움을 거두어 주면, 그는 자기에게 닿았던 괴로움 때문에 우리를 부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 버린다. 이처럼 한계를 넘는 자들에게는 자기들이 하던 짓이 좋아 보이게 된다.

우리는 너희 이전의 세대들이 불의를 행하였을 때 그들을 멸하였다. 그들의 사도들이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왔으나,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처럼 우리는 죄짓는 백성에게 보응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들 뒤에 너희를 이 땅의 후계자로 삼았으니,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보려는 것이다. (11–14)

우리의 분명한 징표가 그들에게 낭송되면, 우리와의 만남을 기대하지 않는 자들은 말한다. "이것 말고 다른 꾸란을 가져오든지, 이것을 바꾸라." 말하라, "내가 내 마음대로 그것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다만 나에게 계시되는 것을 따를 뿐이다. 내가 나의 주님께 거역한다면, 나는 엄청난 날의 징벌을 두려워한다." 말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낭송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나는 이보다 앞서 너희 가운데서 한평생을 살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이성을 쓰지 않는가?" (15–16)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지어내거나 그분의 징표를 거짓이라 하는 자보다 더 불의한 자가 누구인가? 참으로 죄짓는 자들은 번영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 말고, 자기들에게 해도 이로움도 주지 못하는 것을 섬기면서 말한다. "이들은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한 중재자들이다." 말하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알지 못하시는 것을 그분께 알려 드리려는가?"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그분은 그들이 동반자로 두는 모든 것 위에 높이 계신다. 인류는 다만 하나의 공동체였으나, 그런 다음 서로 달리하게 되었다. 너의 주님에게서 앞서 내려진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서로 달리하는 것에 대해 그들 사이에 이미 판결이 내려졌을 것이다. 그들은 "어찌하여 그의 주님에게서 그에게 징표가 내려오지 않는가?" 하고 말한다. 말하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 그러니 기다리라. 나도 너희와 함께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에게 닿았던 어려움 뒤에 우리가 그들에게 자비를 맛보게 하면, 그들은 곧 우리의 징표를 거슬러 계략을 꾸민다. 말하라, "하나님께서 계획에 더 빠르시다." 우리의 사자들은 너희가 꾸미는 것을 다 적고 있다. (17–21)

그분은 너희가 뭍과 바다를 다닐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마침내 너희가 배에 타고, 배가 순풍을 받아 그들을 싣고 달리며 그들이 그것을 기뻐할 때, 사나운 바람이 그 배에 닥치고 사방에서 파도가 그들에게 밀려오면, 그들은 자기들이 에워싸였다고 생각한다. 그때 그들은 종교를 진실하게 그분께 바치며 하나님을 부른다. "당신께서 여기에서 저희를 구해 주신다면, 저희는 반드시 감사하는 이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면, 그들은 곧 정당한 이유 없이 땅에서 횡포를 부린다. 사람들아, 너희의 횡포는 다만 너희 자신에게 해가 될 뿐이다. 그것은 현세의 삶의 잠깐의 즐거움이다. 그런

다음 너희의 귀착지는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너희가 하던 일을 너희에게 알려 줄 것이다. (22–23)

현세의 삶의 비유는 이러하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물과 같다. 그 물로 사람과 가축이 먹는 땅의 초목이 서로 뒤섞여 자란다. 마침내 땅이 그 꾸밈을 갖추고 아름다워져서, 그 주민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밤이나 낮에 우리의 명령이 그 땅에 닥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제 무성하지 않았던 것처럼 베어 낸 밭으로 만든다. 이처럼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징표들을 자세히 밝힌다. (24)

하나님은 평화의 집으로 부르시며, 원하시는 이를 곧은 길로 인도하신다.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보상이 있고, 그보다 더한 것도 있다. 어둠도 굴욕도 그들의 얼굴을 덮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낙원의 주민이며 그곳에서 영원히 머문다. 나쁜 행위를 벌어들인 자들에게는, 나쁜 행위에 대한 보응이 그와 같은 만큼 있고, 굴욕이 그들을 덮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게서 지켜 줄 이가 아무도 없다. 그들의 얼굴은 마치 캄캄한 밤의 조각들로 덮인 것 같을 것이다. 그들은 불지옥의 주민이며 그곳에서 영원히 머문다. (25–27)

우리가 그들을 모두 한데 모으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었던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와 너희의 동반자들은 제자리에 있으라." 그런 다음 우리는 그들 사이를 갈라놓을 것이며, 그들의 동반자들은 말할 것이다. "너희가 섬기던 것은 우리가 아니었다.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인으로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너희가 섬기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서 모든 영혼은 자기가 앞서 보낸 것을 겪어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참된 보호자이신 하나님께로 돌려보내지고, 그들이 지어내던 것은 그들을 저버릴 것이다. (28–30)

말하라, "하늘과 땅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주는 이가 누구인가? 청각과 시각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인가? 죽은 것에서 산 것을 내고 산 것에서 죽은 것을 내는 이가 누구인가? 그리고 모든 일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말하라, "그런데도 너희는 그분을 경외하지 않겠는가?" 이분이 너희의 참된 주님이신 하나님이시다. 진리 뒤에 미혹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데 너희는 어찌 외면하게 되는가? 이처럼 너의 주님의 말씀이 거역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들은 믿지 않는다. 말하라, "너희의 동반자들 가운데 창조를 시작하고 그런 다음 그것을 되풀이하는 이가 있는가?" 말하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고 그런 다음 그것을 되풀이하신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 미혹되는가?" 말하라, "너희의 동반자들 가운데

진리로 인도하는 이가 있는가?" 말하라,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따름을 받기에 더 마땅한가, 아니면 인도받지 않고는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자가 더 마땅한가? 너희는 어찌 된 일인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들 대부분은 다만 짐작을 따를 뿐이다. 참으로 짐작은 진리를 조금도 대신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일을 잘 아신다.[13] (31–36)

이 꾸란은 하나님 말고 다른 이가 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온 것을 확증하고, 성서를 자세히 풀어 밝히는 것이며, 그 안에 의심할 여지가 없고, 만유의 주님에게서 온 것이다. 아니면 그들은 "그가 그것을 지어냈다." 하고 말하는가? 말하라, "그러면 그와 같은 장 하나를 가져오고, 너희가 진실하다면 하나님 말고 너희가 부를 수 있는 자를 누구든 불러 보라." 아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으로 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 풀이가 아직 자기들에게 오지 않은 것을 거짓이라 하였다. 그들 이전의 사람들도 이와 같이 거짓이라 하였다. 그러니 보라, 불의를 행한 자들의 끝이 어떠하였는지를. (37–39)

그들 가운데에는 그것을 믿는 이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다. 너의 주님은 부패를 퍼뜨리는 자들을 가장 잘 아신다. 그들이 너를 거짓말쟁이라 하거든 말하라, "나에게는 나의 행위가 있고, 너희에게는 너희의 행위가 있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일에 책임이 없고, 나도 너희가 하는 일에 책임이 없다." 그들 가운데에는 너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귀먹은 자들이 깨닫지도 못하는데, 네가 그들을 듣게 할 수 있겠는가? 또 그들 가운데에는 너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눈먼 자들이 보지도 못하는데, 네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조금도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40–44)

그분께서 그들을 모으시는 날, 그들은 마치 낮의 한 시각밖에 머물지 않았던 것 같을 것이며, 서로를 알아볼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거짓이라 하고 인도받지 못한 자들은 참으로 잃은 자들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 가운데 얼마를 너에게 보여 주든, 아니면 그 전에 너를 우리에게로 거두든, 그들의 귀착지는 우리에게 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의 증인이시다. 공동체마다 사도가 있다. 그들의 사도가 오면 그들 사이에 공정하게 판결이 내려지며, 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그들은 "너희가 진실하다면,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고 말한다. 말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말고는, 나 자신에게조차 해도 이로움도 줄 힘이 없다. 공동체마다 기한이 있다. 그들의 기한이 오면, 그들은 그것을 한 시각도 늦출 수 없고

[13] 무신론은 추측(잔) 위에 세워져 있다: 과학적·철학적·신학적 주석

앞당길 수도 없다." 말하라, "너희는 생각해 보았는가? 그분의 징벌이 밤이나 낮에 너희에게 닥친다면, 죄지은 자들이 그 가운데 무엇을 서둘러 달라고 하겠는가?" 그것이 일어난 뒤에야 너희는 그것을 믿겠는가? "이제서야 믿는가? 너희는 전에 그것을 서둘러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다음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이런 말이 주어질 것이다. "영원한 징벌을 맛보라. 너희가 벌어들이던 것 말고 다른 것으로 보응을 받느냐?" (45–52)

그들은 너에게 "그것이 참인가?" 하고 묻는다. 말하라, "그렇다. 나의 주님께 맹세코, 그것은 참으로 참이다. 너희는 그것을 피할 수 없다." 불의를 행한 모든 영혼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몸값으로 내놓으려 할 것이다. 그들은 징벌을 보면 후회를 속으로 감출 것이다. 그들 사이에 공정하게 판결이 내려지며, 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알지 못한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고 죽음을 주시며, 너희는 그분께로 돌아가게 된다. (53–56)

사람들아, 너희 주님에게서 훈계가 너희에게 왔고, 가슴속에 있는 것을 위한 치유와, 믿는 자들을 위한 인도와 자비가 왔다. 말하라,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자비, 그것으로 그들이 기뻐하게 하라. 그것은 그들이 쌓아 모으는 모든 것보다 낫다." 말하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내려 주신 양식을 생각해 보았는가? 너희는 그 가운데 일부는 금지된 것으로, 일부는 허락된 것으로 만들었다." 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셨는가,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지어내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지어내는 자들은 부활의 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지만, 그들 대부분은 감사하지 않는다. (57–60)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꾸란 가운데 어느 부분을 낭송하든, 너희가 어떤 행위를 하든, 너희가 그 일에 몰두해 있을 때 우리가 너희를 지켜보는 증인이 아닌 적이 없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티끌 한 점의 무게만 한 것도 너의 주님에게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보다 더 작은 것도 더 큰 것도, 분명한 책에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참으로 하나님의 벗들에게는 두려움도 없고, 그들은 슬퍼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다. 그들에게는 현세의 삶에서도 내세에서도 기쁜 소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뀜이 없다. 그것이야말로 크나큰 승리이다. 그들이 하는 말이 너를 슬프게 하지 못하게 하라. 참으로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참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이와 땅에 있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말고 동반자들을 부르는 자들은 아무것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만 짐작을

따르며, 그저 추측할 뿐이다. 그분은 너희가 그 안에서 쉬도록 밤을 만드시고, 낮을 밝히 볼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참으로 거기에는 듣는 사람들을 위한 징표들이 있다. (61–67)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두셨다." 하고 말한다.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그분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다. 너희에게는 이것에 대한 아무 권위도 없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가? 말하라,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지어내는 자들은 번영하지 못한다." 현세에서의 잠깐의 즐거움이 있을 뿐이다. 그런 다음 그들의 귀착지는 우리에게 있고, 그런 다음 우리는 그들이 진리를 부정하던 것 때문에 그들에게 혹독한 징벌을 맛보게 할 것이다. (68–70)

그들에게 누흐의 이야기를 낭송해 주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말했다. "나의 백성이여,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무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징표로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너희에게 견디기 어렵다면, 나는 하나님께 의탁한다. 그러니 너희와 너희의 동반자들은 너희의 일을 정하라. 그런 다음 너희의 일이 너희에게 모호하지 않게 하라. 그런 다음 나에게 그것을 행하고, 나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등을 돌린다 해도, 나는 너희에게 아무 보수도 청하지 않았다. 나의 보수는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나는 하나님께 귀의하는 이들 가운데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거짓말쟁이라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이들을 구하여 그들을 후계자로 삼고, 우리의 징표를 거짓이라 한 자들을 물에 빠뜨렸다. 그러니 보라, 경고를 받았던 자들의 끝이 어떠하였는지를. (71–73)

그런 다음 그의 뒤에 우리는 사도들을 그들의 백성에게 보냈고, 그들은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왔다. 그러나 그들은 전에 거짓이라 하던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처럼 우리는 한계를 넘는 자들의 마음을 봉한다. 그런 다음 그들 뒤에 우리는 무사와 하룬을 우리의 징표와 함께 파라오와 그의 우두머리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게 굴었고, 죄짓는 백성이었다. 우리에게서 진리가 그들에게 오자, 그들은 "이것은 분명히 마술이다." 하고 말하였다. 무사가 말했다. "진리가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는 그것을 두고 그렇게 말하는가? 이것이 마술인가? 마술사들은 번영하지 못한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은 우리 조상들이 따르던 것에서 우리를 돌려세우고, 당신들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우리에게 왔는가? 우리는 당신들 두 사람을 믿지 않겠다." 파라오가 말했다. "솜씨 좋은 마술사를 모두 나에게 데려오라." 마술사들이 오자 무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던질 것을 던지라." 그들이 던지자 무사가 말했다. "너희가 가져온 것은 마술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헛것으로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은 부패를 퍼뜨리는 자들의 일을 바로 세워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죄지은 자들이

싫어한다 해도, 당신의 말씀으로 진리를 굳게 세우신다." 그러나 파라오와 그들의 우두머리들이 자기들을 박해할까 두려워하여, 무사의 백성 가운데 젊은이들 얼마 말고는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참으로 파라오는 그 땅에서 위세를 부렸고, 모든 한계를 넘는 자들 가운데 하나였다. (74–83)

무사가 말했다. "나의 백성이여,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너희가 그분께 귀의하였다면, 그분께 의탁하라."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를 불의를 행하는 백성의 시험거리로 삼지 마시고, 당신의 자비로 저희를 진리를 부정하는 백성에게서 구해 주소서." 우리는 무사와 그의 형제에게 계시하였다. "이집트에 너희 백성을 위한 집들을 마련하고, 너희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삼으며, 예배를 지키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무사가 말했다. "우리 주님이시여, 당신께서는 파라오와 그의 우두머리들에게 현세의 삶에서 화려함과 재산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을 당신의 길에서 미혹합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그들의 재산을 없애시고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시어, 그들이 고통스러운 징벌을 볼 때까지 믿지 못하게 하소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두 사람의 기도가 받아들여졌다. 그러니 굳게 서고, 알지 못하는 자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 (84–89)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을 바다 건너로 데려갔고,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횡포와 적의를 품고 그들을 뒤쫓았다. 마침내 물에 빠져 죽게 되자 그가 말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믿는 분 말고는 신이 없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께 귀의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서야 그러느냐? 너는 전에 거역하였고, 부패를 퍼뜨리는 자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네 몸을 건져 내어, 네가 네 뒤에 오는 이들에게 징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징표에 무심하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을 좋은 거처에 자리 잡게 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었다. 그들은 지식이 그들에게 올 때까지는 서로 달리하지 않았다. 너의 주님께서는 부활의 날에, 그들이 서로 달리하던 것에 대해 그들 사이를 판결하실 것이다. (90–93)

그러니 우리가 너에게 내린 것에 대해 네가 의심한다면, 너 이전에 성서를 읽어 온 이들에게 물어보라. 참으로 너의 주님에게서 진리가 너에게 왔다. 그러니 의심하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 또 하나님의 징표를 거짓이라 하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 그러면 너는 잃는 자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너의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자들은 믿지 않는다. 온갖 징표가 그들에게 온다 해도, 그들이 고통스러운 징벌을 볼 때까지는 그러하다. 믿어서 그 믿음이 이로움이 된 고을이 하나라도 있었더라면! 다만 유누스의 백성은 예외였다. 그들이 믿자, 우리는 현세의 삶에서 치욕의 징벌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주고, 그들이 한동안 삶을 누리게 하였다. 너의 주님께서 원하셨다면, 땅에 있는 모든 이가 다 함께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사람들을 억지로 믿는 자가 되게 하려는가?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믿을 수 없다. 그분은 이성을 쓰지 않는 자들 위에 더러움을 두신다. 말하라, "하늘과 땅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 그러나 징표도 경고도 믿지 않으려는 백성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그들 이전에 지나간 자들의 날들과 같은 것 말고 무엇이겠는가? 말하라, "그러면 기다리라. 나도 너희와 함께 기다리고 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의 사도들과 믿는 이들을 구한다. 이처럼 믿는 자들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지는 의무이다. (94–103)

말하라, "사람들아, 너희가 나의 종교에 대해 의심한다면, 나는 너희가 하나님 말고 섬기는 것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라. 나는 너희의 영혼을 거두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나는 믿는 자들 가운데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또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네 얼굴을 이 종교로 향하고, 결코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 하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 말고, 너에게 이로움도 해도 주지 못하는 것을 부르지 말라. 네가 그렇게 한다면, 너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를 닿게 하시면, 그분 말고는 아무도 그것을 거두어 줄 수 없다. 그분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원하시면, 아무도 그분의 은총을 물리칠 수 없다. 그분은 당신의 종들 가운데 원하시는 이에게 그것을 베푸신다. 그분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말하라, "사람들아, 너희 주님에게서 진리가 너희에게 왔다. 인도받는 이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인도받는 것이고, 길을 잃는 자는 오직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길을 잃는 것이다. 나는 너희의 수호자가 아니다." 너에게 계시되는 것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때까지 인내하라. 그분은 판결하는 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104–109)

# 11. 후드 (Hūd)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리프 람 라. 이것은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에 밝으신 분에게서 온 성서로서, 그 구절과 징표들이 굳게 세워지고 그런 다음 자세히 밝혀졌다. 너희는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는 것이다. 말하라, "나는 그분에게서 너희에게 온 경고하는 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이다. 또 너희는 너희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런 다음 뉘우치며 그분께 돌아가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분께서 정해진 기한까지 너희가 좋은 삶을 누리게 하시고, 은총을 받을 만한 모든 이에게 당신의 은총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등을 돌린다면, 나는 너희에게 큰 날의 징벌이 닥칠까 두렵다. 너희의 귀착지는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1–4)

보라, 그들은 그분에게서 숨으려고 자기 가슴을 접는다. 그러나 그들이 옷으로 몸을 감쌀 때에도, 그분은 그들이 감추는 것과 드러내는 것을 아신다. 참으로 그분은 가슴속에 있는 것을 잘 아신다. 땅 위를 다니는 어떤 생물도, 그 양식이 하나님께 달려 있지 않은 것이 없다. 그분은 그것이 머무는 곳과 맡겨지는 곳을 아신다. 모든 것이 분명한 책에 있다. 그분은 여섯 시대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때 그분의 권좌는 물 위에 있었다. 너희 가운데 누가 행위에서 가장 훌륭한지 시험하시려는 것이다. 그런데 네가 "너희는 죽은 뒤에 다시 일으켜질 것이다." 하고 말하면,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틀림없이 "이것은 분명한 마술일 뿐이다." 하고 말한다. 우리가 헤아려진 때까지 그들에게서 징벌을 늦추면, 그들은 틀림없이 "무엇이 그것을 붙들고 있는가?"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오는 날, 그것은 그들에게서 물리쳐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조롱하던 것이 그들을 에워쌀 것이다.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에게서 오는 자비를 맛보게 하였다가 그것을 그에게서 거두어 가면, 그는 몹시 절망하고 은혜를 저버린다. 그러나 그에게 닥았던 어려움 뒤에 우리가 그에게 은혜를 맛보게 하면, 그는 틀림없이 "나쁜 일들이 나에게서 떠나갔다." 하고 말하며, 우쭐하고 뽐낸다. 다만 인내하고 선을 행하는 이들은 예외이다. 그들에게는 용서와 큰 보상이 있다. (5–11)

(예언자여) 그들이 "어찌하여 그에게 보물이 내려오지 않는가? 어찌하여 천사가 그와 함께 오지 않는가?" 하고 말한다고 해서, 너는 너에게 계시되는 것의 일부를 빼놓으려 하고, 네 가슴이 그것 때문에 답답해질지도 모른다. 너는 다만 경고하는 이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수호자이시다. 아니면 그들은 "그가 그것을 지어냈다." 하고 말하는가? 말하라, "그러면 그와 같이 지어낸 장 열 개를 가져오고, 너희가 진실하다면 하나님 말고 너희가 부를 수 있는 자를 누구든 불러 보라." 그들이 너희에게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려진 것이며, 그분 말고는 신이 없음을 알라. 그러니 너희는 그분께 귀의하겠는가? 현세의 삶과 그 꾸밈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값을 온전히 치러 주며, 그들은 그 안에서 조금도 깎이지 않는다. 그들은 내세에서 불지옥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그곳에서 지은 것은 헛것이 되고, 그들이 하던 일은 쓸모없게 된다. 그런 자가, 자기 주님에게서 온 분명한 증거 위에 서 있고, 그분에게서 온 증인이 그것을 낭송하며, 그보다 앞서 무사의 성서가 인도와 자비로 있는 이와 같겠는가? 이들은 그것을 믿는다. 그러나 여러 무리 가운데 그것을 부정하는 자에게는 불지옥이 그의 약속된 곳이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 의심하지 말라. 그것은 참으로 너의 주님에게서 온 진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12–17)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지어내는 자보다 더 불의한 자가 누구인가? 그들은 자기 주님 앞에 세워질 것이며, 증인들이 말할 것이다. "이들이 자기 주님에 대해 거짓을 말한 자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불의를 행하는 자들 위에 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막고, 그 길을 굽게 만들려 하며, 내세를 부정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땅에서 결코 하나님을 좌절시키지 못하며,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고 아무 보호자도 없다. 그들의 징벌은 두 배가 될 것이다. 그들은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그들은 자기 영혼을 잃은 자들이며, 그들이 지어내던 것은 그들을 저버렸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내세에서 가장 크게 잃는 자들이다. 참으로 믿고 선을 행하며 자기 주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이들, 그들은 낙원의 주민이며 그곳에서 영원히 머문다. 두 무리의 비유는 눈멀고 귀먹은 자와, 보고 듣는 이와 같다. 그 둘이 비유에서 같겠는가? 그런데도 너희는 마음에 새기지 않는가? (18–24)

우리는 누흐를 그의 백성에게 보냈다. 그가 말했다. "나는 너희에게 분명한 경고자이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고통스러운 날의 징벌이 닥칠까 두렵다." 그의 백성 가운데 진리를 부정하는 우두머리들이 말했다.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이다. 또 우리가 보기에, 우리 가운데 가장 비천한 자들이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당신을 따를 뿐이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당신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말했다. "나의 백성이여, 생각해 보라. 내가 나의 주님에게서 온 분명한 증거 위에 서 있고, 그분께서 당신에게서 오는 자비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너희 눈에 가려져 있다면, 너희가 그것을 싫어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너희에게 억지로 지우겠는가? 나의 백성이여, 나는 이것에 대해 너희에게 아무 재물도 청하지 않는다. 나의 보수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나는 믿는 이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자기 주님을 만날

이들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너희는 무지하게 구는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여, 내가 그들을 쫓아낸다면, 누가 하나님에게서 나를 도와주겠는가? 그런데도 너희는 마음에 새기지 않는가? 나는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보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것을 안다고도 하지 않고, 내가 천사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또 나는 너희 눈이 업신여기는 이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코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장 잘 아신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누흐여, 당신은 우리와 논쟁하였고, 우리와의 논쟁을 길게 끌었다. 그러니 당신이 진실하다면, 당신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보라." 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오직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가져오실 것이며, 너희는 그분을 좌절시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미혹에 버려두려 하신다면, 내가 너희에게 조언하려 해도 나의 조언은 너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너희의 주님이시며, 너희는 그분께로 돌아가게 된다." (25–34)

아니면 그들은 "그가 그것을 지어냈다." 하고 말하는가? 말하라, "내가 그것을 지어냈다면, 나의 죄는 나에게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짓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 (35)

그리고 누흐에게 이렇게 계시되었다. "너의 백성 가운데 이미 믿은 이들 말고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해 온 짓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계시에 따라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불의를 행한 자들을 위해 나에게 간청하지 말라. 그들은 물에 빠질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의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그의 곁을 지나갈 때마다 그를 비웃었다. 그가 말했다. "너희가 우리를 비웃는다면, 너희가 비웃듯이 우리도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너희는 머지않아, 치욕을 주는 징벌이 누구에게 닥치고, 끝없이 이어지는 징벌이 누구에게 내릴지 알게 될 것이다." 마침내 우리의 명령이 오고 화덕에서 물이 솟구치자, 우리가 말했다. "온갖 것을 한 쌍씩 둘씩 그 안에 싣고, 이미 말씀이 내려진 자들 말고 네 가족을 싣고, 믿는 이들도 실으라." 그러나 그와 함께 믿은 이들은 조금밖에 없었다. 그가 말했다. "그 안에 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나아가고 머물 것이다. 참으로 나의 주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방주는 산과 같은 파도 속에서 그들을 싣고 나아갔다. 누흐는 따로 떨어져 있던 자기 아들을 불렀다. "내 아들아, 우리와 함께 타고,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과 함께 있지 말라." 그가 말했다. "나는 물에서 나를 지켜 줄 산으로 피하겠습니다." 누흐가 말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지켜 줄 이가 없다. 다만 그분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이만은 예외이다." 그러자 파도가 그 둘 사이에 끼어들었고, 그는 물에 빠진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었다. "땅아, 네 물을 삼키라. 하늘아, 그치라."

그러자 물이 빠지고, 일이 이루어졌으며, 방주는 주디 산 위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었다. "불의를 행하는 백성은 멀리 사라지라." 누흐가 자기 주님을 부르며 말했다. "주님이시여, 제 아들은 제 가족입니다. 참으로 당신의 약속은 참되며, 당신은 판결하는 이들 가운데 가장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누흐야, 그는 네 가족이 아니다. 그의 행위는 의롭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니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지 말라. 네가 무지한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훈계한다." 그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당신께 청하지 않도록 당신께 보호를 구합니다. 당신께서 저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저는 잃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다. "누흐야, 우리에게서 오는 평화와 함께, 그리고 너와, 너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서 나올 공동체들 위에 내리는 축복과 함께 내려가라. 또 우리가 한동안 누리게 하였다가, 그런 다음 우리에게서 오는 고통스러운 징벌이 닿게 될 공동체들도 있을 것이다." (예언자여) 이것은 우리가 너에게 계시하는 보이지 않는 소식의 일부이다. 이전에는 너도 너의 백성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 인내하라.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것이다. (36–49)

또 아드에게는 그들의 형제 후드를 보냈다. 그가 말했다. "나의 백성이여,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에게는 그분 말고 다른 신이 없다. 너희는 거짓을 지어내는 자들일 뿐이다. 나의 백성이여, 나는 이것에 대해 너희에게 아무 보수도 청하지 않는다. 나의 보수는 오직 나를 처음 지으신 분께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이성을 쓰지 않는가? 나의 백성이여, 너희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런 다음 뉘우치며 그분께 돌아가라. 그분께서 너희 위에 하늘에서 비를 넉넉히 내리시고, 너희의 힘에 힘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죄짓는 자가 되어 등을 돌리지 말라." 그들이 말했다. "후드여, 당신은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가져오지 않았다.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우리의 신들을 버리지 않겠으며, 당신을 믿지도 않겠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 당신에게 해를 입혔다고 말할 뿐이다." 그가 말했다.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다. 너희도 증언하라. 나는 너희가 그분 말고 동반자로 두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 너희 모두 나를 거슬러 계략을 꾸미고, 나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나는 나의 주님이시며 너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의탁한다. 움직이는 어떤 생물도, 그분께서 그 앞머리를 붙잡고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 참으로 나의 주님은 곧은 길 위에 계신다. 너희가 등을 돌린다 해도, 나는 내가 가지고 너희에게 보냄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나의 주님께서는 너희 아닌 다른 백성을 너희 뒤에 대신 두실 것이며, 너희는 그분을 조금도 해치지 못한다. 참으로 나의 주님은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의 명령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서 오는 자비로 후드와 그와 함께 믿은 이들을 구하고, 그들을 혹독한 징벌에서 구하였다. 그것이

아드였다. 그들은 자기 주님의 징표를 부정하고, 그분의 사도들에게 거역하였으며, 고집스러운 모든 폭군의 명령을 따랐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도, 부활의 날에도 저주가 뒤따랐다. 보라, 아드는 자기 주님을 부정하였다. 후드의 백성 아드는 멀리 사라지라. (50–60)

또 사무드에게는 그들의 형제 살리흐를 보냈다. 그가 말했다. "나의 백성이여,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에게는 그분 말고 다른 신이 없다. 그분은 너희를 땅에서 생겨나게 하시고 너희를 그 위에 자리 잡게 하신 분이다. 그러니 그분께 용서를 구하고, 그런 다음 뉘우치며 그분께 돌아가라. 참으로 나의 주님은 가까이 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들이 말했다. "살리흐여, 이전에 당신은 우리가 기대를 걸던 사람이었다. 당신은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것을 우리가 섬기지 못하게 하려는가?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부르는 그것에 대해 심한 의심 속에 있다." 그가 말했다. "나의 백성이여, 생각해 보라. 내가 나의 주님에게서 온 분명한 증거 위에 서 있고, 그분께서 당신에게서 오는 자비를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분께 거역한다면, 누가 하나님에게서 나를 도와주겠는가? 너희는 나에게 손실만 더해 줄 뿐이다. 나의 백성이여, 이것은 하나님의 암낙타로서 너희를 위한 징표이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땅에서 풀을 뜯게 내버려 두고, 그것에 해를 끼치지 말라. 그러면 가까이 있는 징벌이 너희를 붙잡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다리 힘줄을 끊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너희 집에서 사흘 동안 즐기라. 그것은 거짓이 되지 않을 약속이다." 우리의 명령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서 오는 자비로 살리흐와 그와 함께 믿은 이들을 구하고, 그날의 치욕에서 구하였다. 참으로 너의 주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굉음이 불의를 행한 자들을 붙잡았고, 아침에 그들은 자기 집에서 엎어져 쓰러져 있었다. 마치 그들이 그곳에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보라, 사무드는 자기 주님을 부정하였다. 사무드는 멀리 사라지라. (61–68)

우리의 사자들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브라힘에게 왔다. 그들이 "평화!" 하고 말하자, 그도 "평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구운 송아지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들의 손이 그것에 닿지 않는 것을 보자, 그는 그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이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루뜨의 백성에게 보냄받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곁에 서 있다가 웃었다. 그러자 우리는 그에게 이스하끄의 기쁜 소식을, 그리고 이스하끄 뒤에 야꿉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가 말했다. "아, 이럴 수가! 나는 늙은 여자이고 여기 내 남편도 늙은이인데, 내가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이 집안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축복이 당신들 위에 있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모든 찬미를 받으실 분이며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런 다음

이브라힘에게서 두려움이 떠나고 기쁜 소식이 그에게 오자, 그는 루뜨의 백성을 위해 우리에게 간청하기 시작하였다. 참으로 이브라힘은 관대하고, 마음이 여리며, 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었다. "이브라힘아, 이 일을 그만두라. 너의 주님의 명령이 이미 내려졌고, 물리칠 수 없는 징벌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69–76)

우리의 사자들이 루뜨에게 왔을 때, 그는 그들 때문에 근심하였고 그들을 지켜 줄 힘이 없음을 느꼈다. 그가 말했다. "오늘은 재앙의 날이다." 그의 백성이 그에게로 서둘러 몰려왔다. 그들은 이전부터 가증스러운 짓을 해 오던 자들이었다. 그가 말했다. "나의 백성이여, 여기 내 딸들이 있다. 그들이 너희에게 더 깨끗하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손님들 앞에서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분별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그들이 말했다. "당신은 우리가 당신의 딸들에게 아무 권리도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틀림없이 알고 있다." 그가 말했다. "내게 너희를 막을 힘이 있거나, 든든한 버팀목에 몸을 맡길 수만 있다면!" 그들이 말했다. "루뜨여, 우리는 당신 주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에게 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밤의 한때에 당신의 가족과 함께 떠나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아무도 뒤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당신의 아내는 예외입니다. 그들에게 닥치는 것이 그 여자에게도 닥칠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해진 때는 아침입니다. 아침이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의 명령이 왔을 때, 우리는 그 고을을 위아래로 뒤집고, 그 위에 구운 진흙 돌을 켜켜이 비처럼 쏟아부었다. 그것은 너의 주님에게서 표시된 돌들이었다. 그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서 결코 멀지 않다. (77–83)

또 마드얀에게는 그들의 형제 슈아이브를 보냈다. 그가 말했다. "나의 백성이여,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에게는 그분 말고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되와 저울을 모자라게 하지 말라. 내가 보기에 너희는 넉넉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에워싸는 날의 징벌이 닥칠까 두렵다. 나의 백성이여, 되와 저울을 공정하게 가득 채우고, 사람들의 것을 깎지 말며, 땅을 돌아다니며 부패를 퍼뜨리지 말라. 너희가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곁에 남아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지키는 이가 아니다." 그들이 말했다. "슈아이브여,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것을 버리라고, 또 우리의 재산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당신의 예배가 당신에게 명하는가? 당신이야말로 참으로 관대하고 분별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가 말했다. "나의 백성이여, 생각해 보라. 내가 나의 주님에게서 온 분명한 증거 위에 서 있고, 그분께서 당신에게서 오는 좋은 양식을 나에게 주셨다면 어떠하겠는가? 나는 너희에게 금하는 바로 그 일을 너희 몰래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바로잡기를 바랄 뿐이며, 나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 나는 그분께 의탁하였고, 그분께로 돌아간다. 나의 백성이여, 나에

대한 너희의 적대감 때문에, 누흐의 백성이나 후드의 백성이나 살리흐의 백성에게 닥친 것과 같은 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라. 루뜨의 백성도 너희에게서 멀지 않다. 너희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런 다음 뉘우치며 그분께 돌아가라. 참으로 나의 주님은 자애로우시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84–90)

그들이 말했다. "슈아이브여, 우리는 당신이 하는 말을 많이 알아듣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약한 자이다. 당신의 씨족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당신을 돌로 쳤을 것이다. 당신은 우리에게 아무 힘도 없다." 그가 말했다. "나의 백성이여, 나의 씨족이 너희에게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가? 그래서 너희는 그분을 등 뒤로 내던졌는가? 참으로 나의 주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에워싸고 계신다. 나의 백성이여, 너희는 너희 자리에서 행하라. 나도 행하고 있다. 치욕을 주는 징벌이 누구에게 닥치는지,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너희는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켜보라. 나도 너희와 함께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명령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서 오는 자비로 슈아이브와 그와 함께 믿은 이들을 구하였다. 그리고 굉음이 불의를 행한 자들을 붙잡았고, 그들은 자기 집에서 엎어져 쓰러져 있었다. 마치 그들이 그곳에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사무드가 사라졌듯이, 마드얀도 멀리 사라지라. (91–95)

우리는 무사를 우리의 징표와 분명한 권위와 함께 파라오와 그의 우두머리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파라오의 명령을 따랐고, 파라오의 명령은 바르게 인도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부활의 날에 자기 백성의 앞에 서서 그들을 불지옥으로 이끌어 내려갈 것이다. 이끌려 가는 그 물가는 얼마나 나쁜가! 그들은 이 세상에서도, 부활의 날에도 저주가 뒤따랐다. 주어지는 그 선물은 얼마나 나쁜가! (96–99)

(예언자여) 이것은 우리가 너에게 들려주는 고을들의 소식 가운데 일부이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아직 서 있고, 어떤 것은 베어져 버렸다. 우리가 그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에게 불의를 행하였다. 너의 주님의 명령이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 말고 부르던 신들은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그들에게 파멸만 더해 주었다. 너의 주님께서 불의를 저지르는 고을들을 붙잡으실 때, 그분의 붙잡으심은 이러하다. 참으로 그분의 붙잡으심은 고통스럽고 혹독하다. 내세의 징벌을 두려워하는 이에게는 참으로 그 안에 징표가 있다. 그날은 인류가 함께 모이는 날이며, 그날은 모두가 지켜보는 날이다. 우리는 다만 헤아려진 기한까지 그것을 늦출 뿐이다. 그날이 오면, 어떤 영혼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말하지 못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불행하고, 어떤 이는 복되다. 불행한 자들은 불지옥에 있을 것이며, 그곳에서 그들에게는 신음과 흐느낌이 있을 것이다. 너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우가 아니면, 그들은 하늘과 땅이 지속되는 한 그곳에

머문다. 참으로 너의 주님은 뜻하시는 것을 무엇이든 행하신다. 복된 이들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우가 아니면, 그들은 하늘과 땅이 지속되는 한 그곳에 머문다. 그것은 끊어지지 않는 선물이다. (100–108)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섬기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이전에 섬기던 대로 섬길 뿐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의 몫을 조금도 깎지 않고 온전히 치러 줄 것이다. 우리는 무사에게 성서를 주었으나, 그것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너의 주님에게서 이미 나온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 사이의 일은 판가름 났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에 대해 심한 의심 속에 있다. 너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 각자에게 그 행위의 값을 온전히 치러 주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밝으시다. 그러니 너는 명령받은 대로, 너와 함께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과 더불어 굳게 서고, 한계를 넘지 말라. 그분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보신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기울지 말라. 그러면 불지옥이 너희에게 닿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말고 아무 보호자도 없으며, 그때 너희는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109–113)

낮의 두 끝과 밤의 이른 시간에 예배를 지키라. 참으로 선한 행위는 악한 행위를 몰아낸다. 이것은 기억하는 이들을 위한 일깨움이다. 그리고 인내하라.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이들의 보상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 너희 이전의 세대들 가운데, 땅에서 부패를 금하는 분별의 남은 자들이 있었더라면! 그러나 우리가 구해 준 조금밖에 없었다. 불의를 행한 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치를 좇았고, 죄짓는 자들이었다. 너의 주님은 고을 사람들이 바로잡고 있는데도 부당하게 그 고을들을 멸하시는 분이 아니다. 너의 주님께서 원하셨다면,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달리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의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이들은 예외이며, 그분은 이것을 위해 그들을 창조하셨다. “나는 반드시 진과 인간으로 함께 지옥을 채울 것이다.” 하신 너의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다. (114–119)

우리가 사도들의 소식 가운데 너에게 들려주는 모든 것은, 그것으로 네 마음을 굳게 하려는 것이다. 이 안에서 진리가 너에게 왔고, 믿는 자들을 위한 훈계와 일깨움도 왔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너희 자리에서 행하라. 우리도 행하고 있다. 그리고 기다리라.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 하늘과 땅의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며, 모든 일이 그분께로 돌아간다. 그러니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의탁하라. 너의 주님은 너희가 하는 일에 무심하지 않으시다. (120–123)

# 12. 유수프 (Yūsuf)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리프 람 라. 이것은 모든 것을 분명히 밝히는 성서의 구절이며 징표이다. 우리는 너희가 깨닫도록 이것을 아랍어 꾸란으로 내렸다. (1–2)

(예언자여) 우리는 이 꾸란을 너에게 계시함으로써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준다. 이전에는 너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있었다. 유수프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열한 개의 별과 해와 달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이 저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내 아들아, 네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거슬러 계략을 꾸밀 것이다. 참으로 사탄은 인간에게 분명한 적이다. 이처럼 너의 주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너에게 일들의 풀이를 가르치시며, 이전에 너의 두 조상 이브라힘과 이스하끄에게 당신의 은혜를 온전히 베푸셨듯이, 너와 야꿉의 집안에도 그것을 온전히 베푸실 것이다. 참으로 너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3–6)

참으로 유수프와 그의 형제들에게는, 묻는 이들을 위한 징표들이 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여럿이 한 무리인데도, 유수프와 그의 아우가 아버지에게 우리보다 더 사랑받는다.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 유수프를 죽이든지, 아니면 어느 땅에 내다 버리자. 그러면 아버지의 얼굴이 너희에게만 향할 것이고, 그 뒤에 너희는 의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유수프를 죽이지는 말라. 너희가 꼭 무언가를 해야겠다면, 그를 우물 밑바닥에 던져 넣으라. 그러면 어떤 대상이 그를 주워 갈 것이다." (7–10)

그들이 말했다. "아버지, 어찌하여 유수프를 저희에게 믿고 맡기지 않으십니까? 저희는 참으로 그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그를 저희와 함께 보내 주셔서 마음껏 다니며 놀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반드시 그를 잘 돌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너희가 그를 데려가는 것이 나를 슬프게 한다. 그리고 너희가 그에게 마음을 쓰지 않는 사이에 늑대가 그를 잡아먹을까 두렵다." 그들이 말했다. "저희가 이렇게 여럿인데도 늑대가 그를 잡아먹는다면, 그때 저희는 참으로 잃는 자들일 것입니다!" (11–14)

그들이 그를 데려가서 우물 밑바닥에 넣기로 뜻을 모았을 때, 우리는 그에게 계시하였다. "너는 반드시, 그들이 네가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할 때에 그들의 이 일을 그들에게 일러 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해 질 녘에 울면서 아버지에게 왔다. 그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서로 달리기 내기를 하러 가면서 유수프를 저희 짐 곁에 두었는데, 늑대가 그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진실을 말해도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믿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피가 묻은 그의 옷을 가져왔다. 그가 말했다. "아니다. 너희의 영혼이 너희를 꾀어 어떤 일을 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 아름다운 인내가 가장 마땅하다. 너희가 말하는 것에 맞서 도움을 구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15–18)

한 대상이 왔고, 그들은 물 긷는 사람을 보냈다. 그가 두레박을 내렸다. 그가 말했다. "기쁜 소식이오! 여기 소년이 있소!" 그들은 그를 상품으로 삼아 숨겼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일을 잘 알고 계셨다. 그들은 그를 헐값에, 은전 몇 닢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다. (19–20)

그를 산 이집트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말했다. "그가 귀하게 머물게 하시오. 그가 우리에게 쓸모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를 아들로 삼을 수도 있소." 이처럼 우리는 유수프를 그 땅에 자리 잡게 하였고, 그에게 일들의 풀이를 가르치려 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바를 언제나 이루신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21)

그가 장성하였을 때, 우리는 그에게 판단력과 지식을 주었다. 이처럼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보상한다. 그가 살고 있던 집의 여인이 그를 유혹하려 하였다. 그 여자는 문들을 걸어 잠그고 말했다. "이리 오라!" 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머무는 곳을 좋게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번영하지 못합니다." 그 여자는 그를 원하였다. 그도 자기 주님의 증거를 보지 않았더라면 그 여자를 원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악과 추한 짓을 그에게서 돌려놓으려고 그리하였다. 그는 우리가 택한 종들 가운데 하나였다. 두 사람은 문으로 달려갔고, 그 여자는 뒤에서 그의 옷을 찢었다. 그리고 문 앞에서 그들은 그 여자의 주인과 마주쳤다. 그 여자가 말했다. "당신의 아내에게 나쁜 짓을 하려 한 자에게, 감옥이나 고통스러운 징벌 말고 무슨 응보가 있겠습니까?" 그가 말했다. "나를 유혹하려 한 것은 이 여인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집안 사람 가운데 한 증인이 증언하였다. "그의 옷이 앞에서 찢어졌다면, 여인이 진실을 말한 것이고 그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그의 옷이 뒤에서 찢어졌다면, 여인이 거짓을 말한 것이고 그가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의 옷이 뒤에서 찢어진 것을 보자 그가 말했다. "이것은 너희 여자들의 꾀이다. 참으로 너희의 꾀는 대단하다. 유수프여, 이 일은 지나쳐 버리라. 그리고 아내여, 그대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라. 그대는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다." (22–29)

그 도시의 여인들이 말했다. "대신의 아내가 자기 종인 젊은이를 유혹하려 한다! 그가 사랑으로 그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리가 보기에 그 여자는 분명히 잘못에 빠져 있다." 그 여자는 그들의 험담을 듣고, 그들을 불러 그들을 위해 잔치를 마련하고, 그들

각자에게 칼을 하나씩 주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그들 앞으로 나오라!" 그들이 그를 보자 그에게 넋을 잃고 자기 손을 베며 말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이는 사람이 아니다. 이는 고귀한 천사일 뿐이다!" 그 여자가 말했다. "이 사람이 바로 너희가 나를 탓하던 그 사람이다. 내가 그를 유혹하려 하였으나, 그는 굳게 버텼다. 그가 내가 명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감옥에 갇히고 굴욕을 당하는 자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그들이 저를 부르는 그것보다 감옥이 저에게 더 좋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의 꾀를 저에게서 돌려 주지 않으시면, 저는 그들에게 기울어 무지한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그의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어 그들의 꾀를 그에게서 돌려 주셨다.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30–34)

그런 다음 그들은 징표들을 보고 난 뒤에도, 한동안 그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 좋겠다고 여겼다. 두 젊은이가 그와 함께 감옥에 들어갔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나는 내가 포도주를 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하나가 말했다. "나는 내가 머리에 빵을 이고 있는데 새들이 그것을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 풀이를 우리에게 알려 주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선을 행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35–36)

그가 말했다. "너희에게 양식으로 주어지는 음식이 너희에게 오기 전에, 내가 반드시 그 풀이를 너희에게 일러 줄 것이다. 그것은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의 일부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세를 부정하는 백성의 종교를 버렸고, 나의 조상 이브라힘과 이스하끄와 야꿉의 종교를 따른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 동반자로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와 인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 감옥의 두 벗이여, 여러 갈래의 주인들이 더 나은가, 아니면 유일하시고 모든 것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이 더 나으신가? 너희가 그분 말고 섬기는 것은,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붙인 이름들일 뿐이다. 하나님은 그것들에 대해 아무 권위도 내리지 않으셨다. 판결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 그분은 너희가 그분 말고는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고 명하셨다. 그것이 올바른 종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감옥의 두 벗이여,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 주인에게 포도주를 따르게 될 것이다. 다른 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고, 새들이 그의 머리에서 쪼아 먹을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은 그 일은 이미 정해졌다." 그리고 그는 두 사람 가운데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한 이에게 말했다. "너의 주인 앞에서 나를 언급해 다오." 그러나 사탄이 그로 하여금 자기 주인에게 그를 언급하는 것을 잊게 하였고, 그래서 유수프는 여러 해 동안 감옥에 머물렀다. (37–42)

왕이 말했다. “나는 살진 암소 일곱 마리를 여윈 암소 일곱 마리가 잡아먹는 것을 보았고, 푸른 이삭 일곱과 마른 이삭들을 보았다. 우두머리들이여, 너희가 꿈을 풀이할 수 있다면 내 꿈에 대해 판단을 내려 다오.” 그들이 말했다. “뒤죽박죽인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꿈풀이에 능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 가운데 풀려났던 이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기억해 내고 말했다. “내가 그 풀이를 당신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 주십시오.” (43–45)

“진실한 사람 유수프여! 살진 암소 일곱 마리를 여윈 암소 일곱 마리가 잡아먹는 것과, 푸른 이삭 일곱과 마른 이삭들에 대해 우리에게 판단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가 말했다. “너희는 일곱 해 동안 늘 하던 대로 씨를 뿌릴 것이다. 너희가 거두는 것은, 너희가 먹을 조금만 빼고 이삭째 그대로 두라. 그런 다음 그 뒤에 힘든 일곱 해가 와서, 너희가 그 해들을 위해 쌓아 둔 것을 먹어 치울 것이다. 다만 너희가 간직해 둘 조금은 예외이다. 그런 다음 그 뒤에 한 해가 올 것인데, 그해에 사람들은 비로 구제를 받고, 포도와 올리브를 짤 것이다.” (46–49)

왕이 말했다.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러나 심부름꾼이 그에게 오자 유수프가 말했다. “너의 주인에게 돌아가, 자기 손을 벤 여인들에 대해 물어보라. 참으로 나의 주님은 그들의 꾀를 다 아신다.” 왕이 여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유수프를 유혹하려 하였을 때 너희의 일은 어찌 된 것이었느냐?”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우리는 그에게서 아무 악도 알지 못합니다.” 대신의 아내가 말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를 유혹하려 한 것은 저였고, 그는 틀림없이 진실한 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수프가 말했다. “이것은, 그가 없는 곳에서 내가 그를 배신하지 않았음을 그가 알게 하려는 것이며, 하나님은 배신하는 자들의 꾀를 인도하지 않으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이 결백하다고 내세우지 않는다. 참으로 영혼은 늘 악을 명하기 쉽다. 다만 나의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경우는 예외이다. 참으로 나의 주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50–53)

왕이 말했다.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내가 그를 나의 측근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와 이야기를 나눈 뒤 말했다. “오늘 그대는 우리 앞에서 자리가 굳고 신임받는 사람이다.” 그가 말했다. “나를 이 땅의 곳간들을 맡는 자리에 세워 주십시오. 나는 잘 지키는 사람이며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유수프를 그 땅에 자리 잡게 하여, 그가 그 안에서 원하는 곳 어디에나 머물게 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이에게 우리의 자비를 베풀며, 선을 행하는 이들의 보상을 헛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내세의 보상이 틀림없이 더 좋다. (54–57)

유수프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들어왔다. 그는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양식을 마련해 주고 나서 말했다. "너희 아버지에게서 난 너희의 형제 하나를 나에게 데려오라. 내가 되를 가득 채워 주고, 내가 가장 훌륭하게 손님을 맞는 사람임을 너희는 보지 않느냐? 너희가 그를 나에게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나에게서 아무 되도 받지 못할 것이며, 내 곁에 가까이 오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그의 아버지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그들의 물건을 그들의 안장 자루에 도로 넣어 두라. 그들이 가족에게 돌아갔을 때 그것을 알아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 (58–62)

그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말했다. "아버지, 저희에게 되가 막혔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아우를 저희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저희가 반드시 그를 잘 돌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전에 그의 형을 너희에게 믿고 맡겼던 것처럼, 그를 너희에게 믿고 맡기라는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잘 지켜 주시는 분이며, 자비로운 이들 가운데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들이 짐을 풀어 보니, 그들의 물건이 그들에게 되돌려져 있었다. 그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여기 저희 물건이 저희에게 되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가족을 위해 양식을 구해 오고, 저희 아우를 돌보며, 낙타 한 마리 짐만큼을 더 얻겠습니다. 그것은 쉽게 얻는 되입니다." 그가 말했다. "너희가 완전히 에워싸이는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그를 나에게 데려오겠다고 하나님을 두고 굳게 맹세하기 전에는, 나는 결코 그를 너희와 함께 보내지 않겠다." 그들이 그에게 맹세하자 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의 수호자이시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내 아들들아, 한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서로 다른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에 맞서 너희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 판결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 나는 그분께 의탁하였다. 의탁하는 이들은 모두 그분께 의탁하게 하라." 그들이 아버지가 일러 준 대로 들어갔을 때,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에 맞서 그들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다만 야꿉이 그렇게 하여 채운, 그의 마음속에 있던 바람일 뿐이었다. 참으로 그는 우리가 가르쳐 주었기에 지식을 지닌 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63–68)

그들이 유수프의 앞에 들어왔을 때, 그는 자기 아우를 곁으로 데려가 말했다. "나는 너의 형이다. 그러니 그들이 해 온 일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그런 다음 그들에게 양식을 마련해 주면서, 그는 물 마시는 잔을 자기 아우의 안장 자루에 넣었다. 그러자 외치는 이가 소리쳤다. "대상의 사람들이여, 너희는 도둑이다!" 그들이 그들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당신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왕의 잔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가져오는 이에게는 낙타 한 마리 짐이 주어질 것이며, 내가 그것을 보증한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 맹세코, 우리가 이 땅에 부패를 퍼뜨리러 온 것이 아님을 당신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둑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했다. "너희가 거짓말쟁이라면 그 벌은 무엇이겠느냐?" 그들이 말했다. "그 벌은 이렇습니다. 자기 안장 자루에서 그것이 나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벌이 됩니다.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벌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아우의 자루보다 그들의 자루부터 뒤지기 시작하였고, 그런 다음 그것을 자기 아우의 자루에서 꺼냈다. 이처럼 우리는 유수프를 위해 일을 꾸며 주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왕의 법 아래에서 그는 자기 아우를 붙들어 둘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이의 지위를 높인다. 그리고 지식을 지닌 모든 이 위에는 더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신다. (69–76)

그들이 말했다. "그가 훔쳤다면, 그의 형도 전에 훔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수프는 그것을 마음속에 감추고 그들에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너희의 처지가 더 나쁘다. 너희가 내세우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 그들이 말했다. "대신이시여, 그에게는 매우 늙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니 그 대신에 우리 가운데 하나를 붙드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선을 행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가 말했다. "우리의 물건이 나온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붙드는 일은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기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 가망이 없음을 알고, 따로 물러나 은밀히 의논하였다. 그들 가운데 맏이가 말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두고 너희에게서 굳은 맹세를 받으셨다는 것과, 이전에 너희가 유수프의 일에서 도리를 저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판결하실 때까지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 그분은 판결하는 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너희는 아버지께 돌아가 이렇게 말하라.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이 훔쳤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아는 것만을 증언하며, 보이지 않는 것까지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있던 고을과 저희가 함께 온 대상에게 물어보십시오. 저희는 틀림없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77–82)

그가 말했다. "아니다. 너희의 영혼이 너희를 꾀어 어떤 일을 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 아름다운 인내가 가장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나에게 데려다주실지도 모른다.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며 말했다. "아, 유수프를 향한 나의 슬픔이여!" 그가 속으로 삭이던 슬픔으로 그의 두 눈이 하얗게 되었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 맹세코, 아버지께서는 몸이 쇠하거나 죽은 이들 가운데 하나가 되실 때까지 유수프를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나의 괴로움과 슬픔을 오직 하나님께 하소연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알고 있다. 내 아들들아, 가서 유수프와 그의 아우를 찾아보고, 하나님의 위로에 절망하지 말라.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위로에 절망하지 않는다." (83–87)

그들이 그의 앞에 들어와 말했다. "대신이시여, 어려움이 저희와 저희 가족에게 닥쳤고, 저희는 보잘것없는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되를 가득 채워 주시고 저희에게 자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은 자선을 베푸는 이들에게 보상하십니다." 그가 말했다. "너희가 무지하던 때에 유수프와 그의 아우에게 무슨 짓을 하였는지 너희는 아느냐?" 그들이 말했다. "혹시 당신이 유수프입니까?" 그가 말했다. "내가 유수프이고, 이 사람이 나의 아우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내하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이들의 보상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 맹세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당신을 우리보다 높이셨고, 우리는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말했다. "오늘 너희에게는 아무 꾸짖음도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분은 자비로운 이들 가운데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다. 나의 이 옷을 가지고 가서 내 아버지의 얼굴 위에 덮어 드려라. 그러면 그분께서 시력을 되찾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 너희의 온 가족을 나에게 데려오라." (88–93)

대상이 길을 떠날 때, 그들의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가 나를 노망이 들었다고 여길지 모르나, 나는 분명히 유수프의 냄새를 느낀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 맹세코, 당신께서는 아직도 예전의 그 잘못 속에 계십니다!" 그런 다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가 와서 그것을 그의 얼굴 위에 덮자, 그의 시력이 돌아왔다. 그가 말했다.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알고 있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희의 죄를 위해 용서를 구해 주십시오. 저희는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말했다. "내가 나의 주님께 너희를 용서해 주시기를 청하겠다. 참으로 그분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94–98)

그들이 유수프의 앞에 들어왔을 때, 그는 자기 부모를 곁으로 모시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안전하게 이집트에 들어오십시오." 그는 자기 부모를 높은 자리에 올려 앉혔고, 그들은 모두 그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가 말했다. "아버지, 이것이 오래전 제 꿈의 풀이입니다. 나의 주님께서 그것을 참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감옥에서 꺼내 주시고, 사탄이 나와 내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킨 뒤에 여러분을 사막에서 이곳으로 데려오셨으니, 나에게 참으로 잘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나의 주님은 원하시는 일에 헤아릴 수 없이 섬세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저에게 통치권의 얼마를 주시고, 일들의 풀이의 얼마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처음 지으신 분이시여, 당신은 현세와 내세에서 저의 보호자이십니다. 저를 당신께 귀의한 이로 죽게 하시고, 저를 의로운 이들과 함께 있게 하소서." (99–101)

(예언자여) 이것은 우리가 너에게 계시하는 보이지 않는 소식의 일부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에 뜻을 모으고 계략을 꾸밀 때, 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네가 아무리 간절히 바란다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에 대해 그들에게 아무 보수도 청하지 않는다. 이것은 온 세상을 위한 일깨움일 뿐이다. 하늘과 땅에는 얼마나 많은 징표가 있는가!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외면하며 그 곁을 지나간다.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것을 뒤덮는 징벌이 자기들에게 닥치지 않으리라고, 또는 자기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그 시각이 갑자기 자기들에게 오지 않으리라고 안심하는가? 말하라, "이것이 나의 길이다. 나와 나를 따르는 이들은 분명한 통찰 위에서 하나님께로 부른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나는 그분께 동반자를 두는 자들 가운데 있지 않다." (102–108)

우리는 너 이전에도, 고을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계시를 내린 남자들만을 보냈다. 그들은 땅을 다니며 그들 이전 사람들의 끝이 어떠하였는지 보지 않았는가? 참으로 내세의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더 좋다. 그런데도 너희는 이성을 쓰지 않는가? 마침내 사도들이 희망을 잃고 자기들이 거짓말쟁이로 여겨졌다고 생각하였을 때, 우리의 도움이 그들에게 왔고, 우리가 원하는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위력은 죄지은 백성에게서 결코 물리쳐지지 않는다. 참으로 그들의 이야기에는 분별 있는 이들을 위한 교훈이 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있던 것을 확증하는 것이요, 모든 것을 자세히 밝히는 것이며, 믿는 백성을 위한 인도요 자비이다. (109–111)

# 13. 천둥 (Al-Raʿd)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리프 람 밈 라. 이것은 성서의 구절이며 징표이다. 너의 주님에게서 너에게 내려진 것은 진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볼 수 있는 기둥 없이 하늘을 들어 올리시고, 그런 다음 권좌 위에 좌정하신 분이다. 그분은 해와 달을 복종하게 하셨고, 저마다 정해진 기한까지 제 길을 달린다. 그분은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징표들을 자세히 밝히신다. 너희가 너희 주님을 만나게 됨을 확신하게 하시려는 것이다.[14] 그분은 땅을 펼치시고 그 안에 굳건한 산들과 강들을 두신 분이다. 또 온갖 열매를 그 안에 둘씩 한 쌍으로 만드셨다. 그분은 밤을 낮 위에 장막처럼 드리우신다. 참으로 그 안에는 깊이 생각하는 백성을 위한 징표들이 있다. 땅에는 서로 이웃한 땅뙈기들이 있고, 포도밭과 곡식밭이 있으며, 한 뿌리에서 여럿이 자라거나 홀로 자라는 대추야자나무들이 있다. 모두 같은 물을 받지만, 우리는 맛에서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뛰어나게 한다. 참으로 그 안에는 이성을 쓰는 백성을 위한 징표들이 있다. (1–4)

네가 놀라워한다면,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들의 이 말이다. "뭐라고? 우리가 흙이 된 뒤에, 정말로 새로운 창조 속에 있게 된단 말인가?" 그들이 자기 주님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목에 쇠고랑을 차게 될 자들이다. 그들이 불지옥의 주민이며, 그곳에서 영원히 머문다. 그들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먼저 서둘러 달라고 너에게 청한다. 그들 이전에 본보기가 되는 징벌들이 이미 지나갔는데도 그러하다. 참으로 너의 주님은 사람들이 불의를 저지르는데도 그들에게 용서로 가득하신 분이며, 참으로 너의 주님은 징벌에 엄하시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말한다. "어찌하여 그의 주님에게서 그에게 징표가 내려오지 않는가?" 너는 다만 경고하는 이일 뿐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는 인도하는 이가 있었다. (5–7)

하나님은 모든 암컷이 무엇을 배고 있는지, 태가 얼마나 줄어들고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신다. 그분 곁에서는 모든 것에 정해진 분량이 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아시는 분, 크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말을 숨기든 소리 내어 말하든, 밤에 몸을 숨기든 낮에 나다니든 마찬가지이다. 사람마다 그의 앞과 뒤에 번갈아

[14] 이 구절과 루끄만 장의 한 구절(31:10)에서, 하나님은 우리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중력을, 당신의 창조하시는 능력의 징표이자 창조하시는 분(알 칼리끄), 처음 지으시는 분(알 바리), 모습을 빚으시는 분(알 무사위르)이라는 당신의 속성의 드러남으로 제시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내세를 위한 징표라고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야 신 장의 끝부분에서처럼 여러 곳에서, 우리 우주의 첫 창조를 내세에 올 일의 본보기이자 증거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르는 이들이 있어,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를 지킨다. 참으로 하나님은 어떤 백성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바꾸기 전에는 그 백성의 처지를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에게 해를 원하시면, 그것을 물리칠 길이 없으며, 그들에게는 그분 말고 아무 보호자도 없다. (8–11)

그분은 두려움과 희망을 일으키며 너희에게 번개를 보여 주시고, 무거운 구름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천둥은 찬미로 그분을 찬양하고, 천사들도 그분을 경외하여 찬양한다. 그분은 벼락을 보내시어 원하시는 이를 그것으로 치신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논쟁한다. 그분은 권능이 막강하신 분이다. 참된 부름은 그분께 속한다. 그들이 그분 말고 부르는 것들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응답하지 못한다. 물이 입에 닿도록 물을 향해 두 손을 뻗는 사람과 같을 뿐이니, 물은 결코 그 입에 닿지 않는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부름은 미혹 속의 헤맴일 뿐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가 기꺼이든 마지못해서든 하나님께 엎드리며, 그들의 그림자도 아침과 저녁에 그러하다. (12–15)

말하라, "하늘과 땅의 주님은 누구이신가?" 말하라, "하나님이시다." 말하라, "그런데도 너희는 그분 말고, 자기 자신에게조차 이로움도 해도 줄 힘이 없는 것들을 보호자로 삼았는가?" 말하라, "눈먼 이와 보는 이가 같은가? 또는 깊은 어둠과 빛이 같은가?" 아니면 그들은 그분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한 동반자들을 하나님께 두어, 그 창조가 그들에게 서로 비슷해 보이는 것인가? 말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유일하시고 모든 것을 제압하시는 분이다." (16)

그분께서 하늘에서 물을 내리시면, 골짜기들이 저마다 제 분량만큼 흐르고, 급류는 부풀어 오른 거품을 싣고 간다. 또 사람들이 장신구나 기구를 얻으려고 불에 달구는 것에서도 그와 같은 거품이 나온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리와 거짓을 빗대어 보이신다. 거품은 찌꺼기로 사라지지만, 사람들에게 이로운 것은 땅에 남는다.[15] (17)

이처럼 하나님은 비유들을 드신다. 자기 주님께 응답하는 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보상이 있다. 그러나 그분께 응답하지 않는 자들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그만큼을 더 가졌다 해도 자기 몸값으로 그것을 내놓으려 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나쁜 셈이 있을 것이며, 그들의 거처는 지옥이다. 참으로 나쁜 쉴 곳이다! (18)

너의 주님에게서 너에게 내려진 것이 진리임을 아는 이가 눈먼 자와 같겠는가? 오직 분별 있는 이들만이 마음에 새긴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고 맹세를 깨지 않는

[15] 무신론은 추측(잔) 위에 세워져 있다: 과학적·철학적·신학적 주석

이들이며, 하나님께서 이으라고 명하신 것을 잇고, 자기 주님을 경외하며 나쁜 셈을 두려워하는 이들이다. 또 자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인내하고, 예배를 지키며, 우리가 베푼 것 가운데서 남몰래 또 드러나게 쓰고, 악을 선으로 물리치는 이들이다. 그들에게는 마지막 집이 있다. 그것은 영원한 지복의 낙원으로, 그들은 자기 조상들과 배우자들과 자손들 가운데 의로운 이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모든 문에서 그들에게 들어올 것이다. "너희가 인내하며 견딘 것 때문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마지막 집은 얼마나 훌륭한가!" 그러나 하나님과의 계약을 굳게 맺은 뒤에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이으라고 명하신 것을 끊으며, 땅에서 부패를 퍼뜨리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고, 그들에게는 나쁜 집이 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이에게 양식을 넉넉히 주시기도 하고, 헤아려 주시기도 한다. 그들은 현세의 삶을 기뻐한다. 그러나 현세의 삶은 내세에 견주면 스쳐 가는 즐거움일 뿐이다. (19–26)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말한다. "어찌하여 그의 주님에게서 그에게 징표가 내려오지 않는가?" 말하라,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길 잃게 두시고, 그분께 돌아오는 이를 당신께로 인도하신다. 그들은 믿는 이들이며,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마음이 평안을 얻는 이들이다. 참으로 마음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평안을 얻는다.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복됨이 있고, 아름다운 돌아갈 곳이 있다." 이처럼 우리는 너를, 이전에 다른 공동체들이 지나간 한 공동체에 보냈다. 우리가 너에게 계시한 것을 네가 그들에게 낭송해 주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비로우신 분을 부정한다. 말하라,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 말고는 신이 없다. 나는 그분께 의탁하였고, 나의 돌아감은 그분께 있다." 산들을 움직이게 하거나, 땅을 쪼개거나, 죽은 이들을 말하게 하는 꾸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일 것이다. 아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한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온 인류를 인도하셨으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한 일 때문에 재앙이 그치지 않고 닥치거나, 그들의 집 가까이에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올 때까지 그러하다. 참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 (27–31)

너 이전의 사도들도 조롱을 받았다. 나는 진리를 부정한 자들에게 말미를 주었다가, 그런 다음 그들을 붙잡았다. 나의 징벌이 어떠하였는가! 모든 영혼 위에 서서 그것이 얻은 것을 아시는 분이 다른 어떤 것과 같겠는가?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동반자들을 둔다. 말하라, "그들의 이름을 대 보라! 아니면 너희는 그분께서 땅에서 알지 못하시는 것을 그분께 알려 드리려는가? 아니면 그것은 겉으로만 하는 말인가?" 아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계략이 좋아 보이게 꾸며졌고, 그들은 길에서 가로막혔다. 하나님께서 길 잃게 두시는 자에게는 인도하는 이가 없다. 그들에게는 현세의 삶에서

징벌이 있으며, 내세의 징벌은 더욱 가혹하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게서 지켜 줄 이가 아무도 없다. (32–34)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약속된 낙원의 비유는 이러하다. 그 아래로 강이 흐르고, 그 열매는 끊이지 않으며, 그 그늘도 그러하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마지막 결말이며,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마지막 결말은 불지옥이다. 우리가 성서를 준 이들은 너에게 내려진 것을 기뻐한다. 그러나 여러 무리 가운데에는 그 일부를 부정하는 자들도 있다. 말하라, "나는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아무것도 동반자로 두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이다. 나는 그분께로 부르며, 나의 돌아감은 그분께 있다." 이처럼 우리는 그것을 아랍어로 된 결정적인 판결로 내렸다. 너에게 온 지식 뒤에 네가 그들의 욕망을 따른다면, 너에게는 하나님에게서 지켜 줄 보호자도 막아 줄 이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너 이전에도 사도들을 보냈고, 그들에게 아내와 자손을 주었다. 어떤 사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징표를 가져올 수 없었다. 모든 기한에는 정해진 기록이 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지우시고 원하시는 것을 굳히신다. 그분 곁에 성서의 어머니가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의 일부를 너에게 보여 주든, 그보다 앞서 너를 우리에게로 거두든, 너의 의무는 오직 전하는 것이고, 셈은 우리의 몫이다. 그들은 우리가 그 땅에 이르러 그 가장자리에서부터 그것을 줄여 가는 것을 보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며, 그분의 판결을 뒤집을 이는 없다. 그분은 셈에 빠르시다. 그들 이전의 사람들도 계략을 꾸몄다. 그러나 모든 계략은 하나님께 속한다. 그분은 모든 영혼이 무엇을 얻는지 아신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마지막 집이 누구의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말한다.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말하라, "나와 너희 사이의 증인으로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며, 성서의 지식을 가진 이도 그러하다." (35–43)

# 14. 이브라힘 (Ibrāhīm)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리프 람 라. 이것은 우리가 너에게 내린 성서이다. 네가 사람들을 그들 주님의 허락으로 깊은 어둠에서 빛으로, 전능하시고 모든 찬미를 받으실 분의 길로 이끌어 내게 하려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하나님께 속한다. 혹독한 징벌 때문에,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 그들은 내세보다 현세의 삶을 더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막으며, 그 길을 굽게 만들려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멀리 길을 잃었다. 우리는 어떤 사도든 그 백성의 말로만 보냈다. 그가 그들에게 분명히 밝혀 주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길 잃게 두시고 원하시는 이를 인도하신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1–4)

우리는 무사를 우리의 징표와 함께 보냈다. "너의 백성을 깊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날들을 일깨워 주라." 참으로 그 안에는 인내하고 감사하는 모든 이를 위한 징표들이 있다. 무사가 자기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분께서 너희를 파라오의 백성에게서 구해 주셨다. 그들은 너희에게 끔찍한 징벌을 가하여, 너희의 아들들을 죽이고 너희의 여자들은 살려 두었다. 그 안에는 너희 주님에게서 온 엄청난 시험이 있었다. 또 너희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다. '너희가 감사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은혜를 저버린다면, 나의 징벌은 참으로 엄하다.'" 무사가 말했다. "너희와 땅에 있는 모든 이가 다 함께 은혜를 저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모든 찬미를 받으실 분이다." (5–8)

너희 이전 사람들의 소식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았는가? 누흐의 백성과 아드와 사무드, 그리고 그들 뒤에 온 자들,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소식이다. 그들의 사도들이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왔으나, 그들은 자기 손을 입에 밀어 넣고 말했다. "우리는 당신들이 가지고 보냄받은 것을 부정한다.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를 부르는 그것에 대해 심한 의심 속에 있다." 그들의 사도들이 말했다. "하늘과 땅을 처음 지으신 분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있을 수 있는가? 그분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해진 기한까지 너희에게 말미를 주시려고 너희를 부르신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이다. 당신들은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것에서 우리를 돌려세우려 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분명한 권위를 가져와 보라." 그들의 사도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참으로 너희와 같은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 가운데 원하시는 이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권위를 가져올 수 없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라. 그분께서 우리를 우리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겠는가? 너희가 우리에게 끼치는 어떤 해도 우리는 반드시 인내하며 견딜 것이다. 의탁하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라." (9–12)

진리를 부정한 자들이 자기들의 사도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우리의 종교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당신들을 우리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러자 그들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멸하고, 그들 뒤에 반드시 너희를 그 땅에 살게 할 것이다. 그것은 내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나의 경고를 두려워하는 이를 위한 것이다." 그들은 판가름을 구하였고, 고집스러운 모든 폭군은 허사로 돌아갔다. 그의 앞에는 지옥이 있고, 그는 고름 섞인 물을 마시게 된다. 그는 그것을 꿀꺽꿀꺽 들이켜지만 좀처럼 삼키지 못한다. 죽음이 사방에서 그에게 닥쳐오지만 그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가혹한 징벌이 있다. 자기 주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비유는 이러하다. 그들의 행위는 폭풍 치는 날 바람이 세차게 날려 버리는 재와 같다. 그들은 자기들이 얻은 것 가운데 어느 것에도 힘을 미치지 못한다. 그것이 가장 멀리 길을 잃는 것이다. (13–18)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리로 창조하셨음을 너는 보지 않는가? 그분께서 원하시면, 너희를 없애고 새로운 창조를 데려오실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될 것이다. 그때 약한 자들이 교만하던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을 따르던 자들이었다. 이제 당신들은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무엇이라도 우리에게서 막아 줄 수 있는가?" 그들이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더라면, 우리가 너희를 인도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애통해하든 견디든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이다.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없다." 일이 판가름 나면 사탄이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참된 약속을 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약속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저버렸다. 나는 너희에게 아무 권한도 없었다. 다만 내가 너희를 불렀고 너희가 나에게 응답하였을 뿐이다. 그러니 나를 탓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탓하라. 나는 너희를 도우러 갈 수 없고, 너희도 나를 도우러 올 수 없다. 나는 너희가 전에 나를 하나님의 동반자로 두었던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참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징벌이 있다. 그러나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은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낙원에 들어가, 자기 주님의 허락으로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의 인사는 "평화!"일 것이다. (19–23)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유를 드시는지 너는 보지 않는가? 좋은 말은 좋은 나무와 같다. 그 뿌리는 굳건하고 그 가지는 하늘에 닿아 있으며, 자기 주님의 허락으로 철마다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도록 그들에게 비유들을 드신다. 나쁜 말의 비유는 나쁜 나무와 같다. 그것은 땅 위에서 뿌리째 뽑혀, 조금도 버티고 서지 못한다. 하나님은 믿는 이들을 현세의 삶에서도 내세에서도 굳건한 말씀으로 굳게 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길 잃게 두신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 행하신다. (24–27)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바꾸고, 자기 백성을 파멸의 집으로 끌어내린 자들을 너는 보지 않는가? 그것은 지옥이며,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가 불탈 것이다. 참으로 나쁜 머물 곳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그분의 길에서 미혹하려고 하나님께 맞서는 것들을 세웠다. 말하라, "즐기라. 너희 여정의 끝은 불지옥이다." 믿는 나의 종들에게 일러, 흥정도 우정도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예배를 지키고, 우리가 그들에게 베푼 것 가운데서 남몰래 또 드러나게 쓰게 하라. (28–31)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물을 내리시어 그것으로 너희를 위한 양식으로 열매들을 내신 분이다. 그분은 배들을 너희에게 복종하게 하시어 당신의 명령으로 바다를 달리게 하셨고, 강들도 너희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그분은 쉬지 않고 제 길을 가는 해와 달을 너희에게 복종하게 하셨고, 밤과 낮도 너희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그분은 너희가 그분께 청한 모든 것 가운데서 너희에게 주셨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려 해도, 결코 다 셀 수 없을 것이다. 참으로 인간은 몹시 불의하고 몹시 은혜를 모른다. (32–34)

이브라힘이 말했다. "주님이시여, 이 고을을 안전하게 해 주시고, 저와 제 자손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멀리해 주소서. 주님이시여, 그것들은 많은 사람을 길 잃게 하였습니다. 저를 따르는 이는 저에게 속합니다. 저에게 거역하는 자라면, 참으로 당신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저는 제 자손 가운데 일부를 경작할 것 없는 골짜기에, 당신의 성스러운 집 곁에 살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그들이 예배를 지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가운데 얼마의 마음이 그들에게 기울게 하시고, 그들에게 열매들을 베푸시어 그들이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당신은 저희가 감추는 것과 드러내는 것을 아십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늙은 나이에 저에게 이스마일과 이스하끄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미가 있습니다. 참으로 나의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시여, 저를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제 자손도 그리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제 기도를 받아 주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셈이 이루어지는 날에 저와 제 부모와 믿는 자들을 용서해 주소서."[16] (35–41)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무심하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분은 다만 눈들이 공포에 질려 치뜨게 될 날까지 그들에게 말미를 주실 뿐이다. 그날 그들은 머리를 치켜든 채 허둥지둥 내달릴 것이며, 그들의 시선은 그들에게 되돌아오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텅 비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징벌이 그들에게 닥칠 날을 사람들에게 경고하라. 그때 불의를 행한 자들이 말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에게 잠시만 말미를 주소서. 저희가 당신의 부름에 응답하고 사도들을 따르겠습니다." "너희는 전에, 너희에게는 결코 사라짐이 없으리라고 맹세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스스로에게 불의를 행한 자들의 거처에서 살았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에게 분명해졌으며, 우리는 너희에게 비유들도 들어 주었다." 그들은 계략을 꾸몄다. 그러나 그들의 계략은 하나님 곁에 있었다. 그들의 계략이 산들을 옮길 만한 것이었다 해도 그러하다. (42–46)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도들에게 하신 약속을 어기시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참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응징하시는 주님이시다. 땅이 다른 땅으로 바뀌고 하늘도 그렇게 되며, 그들이 유일하시고 모든 것을 제압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서는 날, 그날 너는 죄지은 자들이 사슬에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들의 옷은 역청으로 되어 있고, 불이 그들의 얼굴을 덮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에게 그것이 얻은 대로 갚으시려는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은 셈에 빠르시다. (47–51)

이것은 인류를 위한 전언이다. 그들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분께서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알며, 분별 있는 이들이 마음에 새기게 하려는 것이다. (52)

[16] **"주님이시여, 이 고을을 안전하게 해 주소서": 꾸란 14:35–41 에 대한 역사적·신학적 주석 – 이브라힘에서 2026 년 메카 방위 동맹에 이르기까지, 세기별로 살펴본 메카의 안전의 역사와 함께**
**1517 년 제다 포위전: 포르투갈, 홍해, 그리고 성스러운 두 도시의 방어**

# 15. 히즈르 (Al-Ḥijr)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리프 람 라. 이것은 성서의 구절이며 징표요, 모든 것을 분명히 밝히는 꾸란의 구절이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언젠가 자기들이 하나님께 귀의하였더라면 하고 바랄지도 모른다. 그들이 먹고 즐기도록, 그리고 헛된 희망이 그들을 홀리도록 내버려 두라.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고을이든, 그것에 알려진 정함이 있지 않고서는 멸하지 않았다. 어떤 공동체도 자기 기한을 앞당길 수 없고, 늦출 수도 없다. 그들은 말한다. "일깨움이 내려졌다는 자여, 당신은 틀림없이 미쳤다! 당신이 진실한 이들 가운데 하나라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천사들을 데려오지 않는가?" 우리는 진리와 함께가 아니면 천사들을 내려보내지 않으며, 그때에는 그들에게 말미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우리가 이 일깨움을 내렸고,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너 이전에도 옛 무리들 가운데 사도들을 보냈다. 그들에게 사도가 올 때마다 그들은 그를 조롱하였다. 이처럼 우리는 그것이 죄지은 자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게 한다. 옛사람들의 본보기가 이미 지나갔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어 그들이 그리로 계속 올라간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말할 것이다. "우리의 눈이 홀렸을 뿐이다. 아니, 우리는 마술에 걸린 백성이다." (1–15)

우리는 하늘에 별자리들을 두고, 바라보는 이들을 위해 그것을 아름답게 꾸몄으며, 쫓겨난 모든 사탄에게서 그것을 지켰다. 다만 몰래 엿듣는 자는 예외이니, 밝은 불꽃이 그를 뒤쫓는다. 그리고 땅은, 우리가 그것을 펼치고 그 위에 굳건한 산들을 놓았으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알맞은 균형으로 자라게 하였다. 또 우리는 그 안에 너희를 위한 살림의 수단을 마련하였고, 너희가 먹여 살리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도 마련하였다. 그 곳간이 우리 곁에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그것을 알려진 분량으로만 내려보낸다. 우리는 열매 맺게 하는 바람을 보내고, 그런 다음 하늘에서 물을 내려 너희에게 마시게 한다. 그것을 쌓아 두는 것은 너희가 아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리고 죽게 하며, 우리가 상속하는 이이다. 우리는 너희 가운데 앞서 간 이들을 분명히 알고, 뒤에 오는 이들도 분명히 안다. 참으로 너의 주님께서 그들을 모으실 것이다.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17] (16–25)

[17] **꾸란 15:16–25 에 대한 과학적·철학적·신학적 주석**
**꾸란은 왜 한 장에 별자리의 이름을 붙였는가?**

우리는 소리 나는 진흙, 곧 빚어 놓은 검은 진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였다. 그리고 진은 그보다 앞서, 타는 듯한 바람의 불로 창조하였다. 너의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소리 나는 진흙, 곧 빚어 놓은 검은 진흙으로 사람을 창조하려 한다. 내가 그를 빚어 다듬고 그 안에 나의 영을 불어넣거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라." 그러자 천사들은 모두 다 함께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이블리스는 예외였다. 그는 엎드려 절하는 이들 가운데 있기를 거부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블리스야, 네가 엎드려 절하는 이들 가운데 있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이냐?" 그가 말했다. "저는 당신께서 소리 나는 진흙, 곧 빚어 놓은 검은 진흙으로 창조하신 사람 앞에 엎드려 절할 자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라. 너는 쫓겨난 자이다. 심판의 날까지 반드시 저주가 네 위에 있을 것이다." 그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그들이 다시 일으켜지는 날까지 저에게 말미를 주소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정해진 때의 날까지 말미를 받은 자들 가운데 있다." 그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저를 길 잃게 하셨으니, 저는 반드시 땅에서 그들에게 악을 좋아 보이게 꾸미고, 반드시 그들을 모두 길 잃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들 가운데 당신의 진실한 종들은 예외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에게로 곧게 이르는 길이다. 참으로 나의 종들에 대해서는 너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다만 길 잃은 자들 가운데 너를 따르는 자들은 예외이다. 참으로 지옥은 그들 모두에게 약속된 곳이다. 그것에는 일곱 문이 있고, 문마다 그들 가운데 정해진 몫이 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낙원과 샘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평화와 안전 속에 그곳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그들의 가슴속에 있는 원한을 모두 걷어 낼 것이다. 그들은 형제가 되어 서로 마주 보며 침상에 앉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어떤 고단함도 그들에게 닿지 않으며, 그들은 결코 그곳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나의 종들에게 알려 주라. 나는 참으로 너그러이 용서하고 자애로운 이이며, 나의 징벌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징벌이다. (26–50)

그리고 그들에게 이브라힘의 손님들에 대해 알려 주라. 그들이 그에게 들어와 "평화." 하고 말하자, 그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들이 두렵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에게 지식을 지닌 아들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말했다. "늙음이 나에게 닥쳤는데도 당신들은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전하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진리로 당신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 절망하는 이들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그가 말했다. "길 잃은 자들 말고 누가 자기 주님의 자비에 절망하겠습니까?" 그가 말했다. "사자들이여, 그러면 당신들의 용무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죄지은 백성에게 보냄받았습니다. 다만 루뜨의 집안은 예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모두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예외입니다. 그 여자는 뒤에 남는 자들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정하였습니다." (51–60)

사자들이 루뜨의 집안에 왔을 때, 그가 말했다. “당신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의심하던 것을 가지고 당신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당신에게 왔으며, 우리는 틀림없이 진실합니다. 그러니 밤의 한때에 당신의 가족과 함께 떠나고, 당신은 그들의 뒤를 따르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아무도 뒤돌아보지 말고, 명령받은 곳으로 가십시오.” 우리는 그에게 이 결정을 전하였다. 아침이 되면 그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자까지 끊어지리라는 것이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기뻐하며 왔다. 그가 말했다. “이들은 내 손님들이다. 그러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당신에게 누구든 맞아들이지 말라고 금하지 않았는가?” 그가 말했다. “너희가 꼭 무언가를 해야겠다면, 여기 내 딸들이 있다.”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취한 듯 눈먼 채 헤매고 있었다. 그리하여 해 뜰 무렵 굉음이 그들을 붙잡았다. 우리는 그 도시를 위아래로 뒤집고, 그들 위에 구운 진흙 돌을 비처럼 쏟아부었다. 참으로 그 안에는 자취를 읽어 내는 이들을 위한 징표들이 있다. 그것은 지금도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있다. 참으로 그 안에는 믿는 자들을 위한 징표가 있다. (61–77)

숲의 주민들도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응징하였다. 그 둘은 모두 훤히 드러난 큰길가에 있다. 또 히즈르의 주민들은 사도들을 거짓말쟁이라 하였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징표를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외면하였다. 그들은 안전하다고 여기며 산을 깎아 집을 만들곤 하였다. 그러나 아침에 굉음이 그들을 붙잡았고, 그들이 얻은 모든 것은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78–84)

우리는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오직 진리로 창조하였다. 그 시각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 너그러운 용서로 용서하라. 참으로 너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너에게 거듭 낭송되는 일곱 구절과 징표를, 그리고 위대한 꾸란을 주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어떤 무리에게 누리게 한 것을 향해 네 눈을 뻗지 말고, 그들 때문에 슬퍼하지도 말라. 믿는 자들 위에 네 날개를 낮추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참으로 분명한 경고자이다.” 이는 우리가 경전을 갈라놓은 자들, 꾸란을 조각조각 낸 자들 위에 내려보낸 것과 같다. 그러니 너의 주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우리는 반드시 그들 모두에게 그들이 하던 일에 대해 물을 것이다. 그러니 네가 명령받은 것을 드러내어 선포하고,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조롱하는 자들에 맞서서는 우리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들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신을 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 때문에 네 가슴이 답답해짐을 잘 안다. 그러니 찬미로 너의 주님을 찬양하고, 엎드려 절하는 이들 가운데 있으라. 그리고 확실한 것이 너에게 올 때까지 너의 주님을 섬기라. (85–99)

# 16. 꿀벌 (Al-Naḥl)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왔다. 그러니 그것을 서둘러 달라고 하지 말라.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그분은 그들이 동반자로 두는 것보다 훨씬 높이 계신다. 그분은 당신의 종들 가운데 원하시는 이에게, 당신 명령의 영과 함께 천사들을 내려보내신다. "나 말고는 신이 없음을 경고하라. 그러니 나를 경외하라."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진리로 창조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동반자로 두는 것보다 훨씬 높이 계신다. 그분은 한 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보라, 그는 드러내 놓고 맞서는 자가 되었다! 또 그분은 너희를 위해 가축을 창조하셨다. 그것들에게서 너희는 따뜻함과 여러 이로움을 얻고, 그것들에게서 먹기도 한다. 너희가 저녁에 그것들을 집으로 몰고 올 때와 아침에 풀밭으로 몰고 나갈 때, 그것들 안에는 너희를 위한 아름다움이 있다. 그것들은 너희가 몹시 고생하지 않고서는 닿을 수 없는 땅으로 너희의 짐을 실어 나른다. 참으로 너희의 주님은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또 말과 노새와 나귀를 창조하시어, 너희가 타게 하시고 꾸밈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창조하신다. 바른 길을 가리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나 길 가운데에는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있다. 그분께서 원하셨다면, 너희 모두를 인도하셨을 것이다. (1–9)

그분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물을 내리시는 분이다. 거기에서 마실 것이 나오고, 거기에서 너희가 가축을 먹이는 나무들이 나온다. 그분은 그것으로 너희를 위해 곡식과 올리브와 대추야자와 포도와 온갖 열매를 자라게 하신다. 참으로 그 안에는 깊이 생각하는 백성을 위한 징표가 있다. 그분은 밤과 낮을, 해와 달을 너희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별들도 그분의 명령으로 복종하고 있다. 참으로 그 안에는 이성을 쓰는 백성을 위한 징표들이 있다. 또 그분께서 땅에서 너희를 위해 갖가지 빛깔로 번성하게 하신 것들이 있다. 참으로 그 안에는 마음에 새기는 백성을 위한 징표가 있다. 그분은 바다를 복종하게 하신 분이다. 너희가 거기에서 신선한 살을 먹고, 거기에서 너희가 몸에 걸칠 장신구를 꺼내게 하시려는 것이다. 또 너는 배들이 그것을 가르며 나아가는 것을 본다. 너희가 그분의 은총을 구하고, 감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은 땅이 너희와 함께 흔들리지 않도록 그 위에 굳건한 산들을 놓으셨고, 너희가 길을 찾도록 강들과 길들을 두셨으며, 길잡이 표지들도 두셨다. 그리고 그들은 별들로 길을 찾는다. 그러면 창조하시는 분이 창조하지 못하는 자와 같겠는가? 그런데도 너희는 마음에 새기지 않는가? (10–17)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려 해도, 결코 다 셀 수 없을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감추는 것과 드러내는 것을 아신다. 그들이 하나님 말고 부르는 것들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하며, 그들 자신이 창조된 것이다. 그것들은 죽은 것이지 살아 있는 것이 아니며, 자기들이 언제 다시 일으켜질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의 신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이 그것을 부정하고, 교만하다. 그들이 감추는 것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분은 교만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18–23)

그들에게 "너희 주님께서 무엇을 내리셨는가?" 하고 물으면, 그들은 "옛사람들의 이야기이다." 하고 말한다. 그리하여 부활의 날에 그들은 자기 짐을 온전히 지고, 또 지식도 없이 자기들이 길 잃게 한 자들의 짐 가운데 일부도 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지게 될 것은 얼마나 나쁜가! 그들 이전의 사람들도 계략을 꾸몄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운 것의 기초에 이르시니, 지붕이 위에서 그들 위로 무너져 내렸고,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곳에서 징벌이 그들에게 닥쳤다. 그런 다음 부활의 날에 그분은 그들을 욕되게 하시며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가 그들 때문에 다투곤 하던 나의 동반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지식을 받은 이들이 말할 것이다. "오늘 치욕과 불행은 진리를 부정한 자들 위에 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불의를 행하는 동안에 천사들이 그 영혼을 거두는 자들이다. 그때 그들은 굴복하며 말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 나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던 일을 잘 아신다. 그러니 지옥의 문들로 들어가 그곳에 머물라. 교만한 자들의 거처는 얼마나 나쁜가! (24–29)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너희 주님께서 무엇을 내리셨는가?" 하고 물으면, 그들은 "좋은 것이다." 하고 말한다.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것이 있고, 내세의 집은 더욱 좋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집은 얼마나 훌륭한가! 그것은 그들이 들어갈 영원한 지복의 낙원으로, 그 아래로 강이 흐르며, 그곳에서 그들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는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보상하신다. 그들은 깨끗한 상태에 있는 동안에 천사들이 그 영혼을 거두는 이들이며, 천사들은 말한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가 하던 일 때문에 낙원에 들어가라." 그들은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오거나 너의 주님의 명령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들 이전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의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에게 불의를 행하였다. 그리하여 그들 행위의 악이 그들을 쳤고, 그들이 조롱하던 것이 그들을 에워쌌다. (30–34)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는 자들은 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우리도 우리 조상들도 그분 말고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았을 것이며, 그분 없이 아무것도 금지된 것으로 삼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 이전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였다. 사도들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것 말고 다른 책임이 있는가? 우리는 모든 공동체에 사도를 일으켜, "하나님을 섬기고 거짓 신들을 멀리하라."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들도 있었고, 미혹이 마땅히 굳어진 자들도 있었다. 그러니 땅을 다니며, 거짓이라 한 자들의 끝이 어떠하였는지 보라. 네가 그들의 인도를 아무리 간절히 바란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길 잃게 두시는 자를 인도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는 돕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고 가장 굳은 맹세로, 하나님께서 죽은 이를 다시 일으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맹세한다. 아니다, 그분은 일으키신다! 그것은 그분께서 참으로 지키실 약속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분께서 그들이 서로 달리하던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밝히시고, 진리를 부정한 자들이 자기들이 거짓말쟁이였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할 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말은 오직 "있으라." 하는 것이며, 그러면 그것은 있게 된다. 불의를 당한 뒤에 하나님을 위해 이주한 이들은,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좋은 곳에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세의 보상은 더 크다. 그들이 알기만 한다면! 그들은 인내하고 자기 주님께 의탁하는 이들이다. (35–42)

(예언자여) 우리는 너 이전에도 우리가 계시를 내린 남자들만을 보냈다.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일깨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우리는 그들을 분명한 증거들과 경전들과 함께 보냈다. 그리고 우리는 너에게 이 일깨움을 내렸다. 사람들에게 내려진 것을 네가 그들에게 분명히 밝혀 주고, 그들이 깊이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다. (43–44)

악한 계략을 꾸미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땅이 그들을 삼키게 하지 않으시리라고, 또는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곳에서 징벌이 그들에게 닥치지 않으리라고 안심하는가? 또는 그들이 오가는 사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붙잡으시어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게 되지 않으리라고, 또는 그분께서 그들을 조금씩 서서히 붙잡지 않으시리라고 안심하는가? 참으로 너희의 주님은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그 그림자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돌며 더없이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 위의 모든 생물이 하나님께 엎드리며, 천사들도 그러하다. 그들은 교만하지 않다. 그들은 자기들 위에 계신 주님을 두려워하며, 명령받은 것을 행한다. (45–50)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두 신을 두지 말라. 그분은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를, 오직 나만을 두려워하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하며, 순종은

언제까지나 그분께 마땅하다. 그런데도 너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경외하려는가? 너희가 누리는 은혜는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그런 다음 해가 너희에게 닿으면, 너희는 그분께 도움을 부르짖는다. 그러나 그분께서 너희에게서 그 해를 거두어 주시면, 너희 가운데 한 무리는 곧바로 자기 주님께 동반자를 두며, 우리가 그들에게 준 것에 대해 은혜를 저버린다. 그러면 즐기라. 너희는 곧 알게 될 것이다. (51–55)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베푼 것 가운데 한 몫을,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위해 떼어 놓는다. 하나님께 맹세코, 너희는 너희가 지어내던 것에 대해 반드시 물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딸들을 돌린다.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그러면서 자기들에게는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돌린다. 그들 가운데 누가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의 얼굴은 어두워지고 그는 슬픔을 삼킨다. 그는 자기가 들은 나쁜 소식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몸을 숨긴다. 치욕을 무릅쓰고 그 아이를 데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흙 속에 묻어 버릴 것인가? 그들의 판단은 얼마나 나쁜가!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쁜 비유가 어울리고, 하나님께는 가장 높은 비유가 속한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불의 때문에 그들을 문책하신다면, 땅 위에 생물 하나도 남겨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정해진 기한까지 그들에게 말미를 주신다. 그들의 기한이 오면, 그들은 한 시각도 그것을 늦출 수 없고 앞당길 수도 없다. 그들은 자기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들의 혀는 가장 좋은 것이 자기들의 것이 되리라는 거짓을 말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불지옥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은 그 안으로 재촉받아 들어갈 것이다. (56–62)

하나님께 맹세코, 우리는 너 이전의 공동체들에게 사도들을 보냈다. 그러나 사탄이 그들의 행위를 그들에게 좋아 보이게 꾸몄다. 그래서 오늘 그가 그들의 보호자이며, 고통스러운 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너에게 이 성서를 내린 것은, 그들이 서로 달리하는 것을 네가 그들에게 분명히 밝혀 주게 하려는 것이며, 믿는 백성을 위한 인도와 자비가 되게 하려는 것일 뿐이다. (63–64)

하나님은 하늘에서 물을 내리시어, 죽은 뒤의 땅을 그것으로 살리신다. 참으로 그 안에는 귀 기울이는 백성을 위한 징표가 있다. 가축에게도 참으로 너희를 위한 교훈이 있다. 우리는 그 배 속에 있는 것에서, 곧 배설물과 피 사이에서, 마시는 이들에게 맛좋은 순수한 젖을 너희에게 마시게 한다. 또 대추야자와 포도의 열매에서 너희는 취하게 하는 것과 좋은 양식을 얻는다. 참으로 그 안에는 이성을 쓰는 백성을 위한 징표가 있다. 너의 주님께서 꿀벌에게 영감을 주셨다. “산과 나무와 사람들이 짓는 것에 네 집을 지으라. 그런 다음 온갖 열매를 먹고, 너를 위해 쉽게 해 주신 네 주님의 길들을 따르라.” 그 배에서

갖가지 빛깔의 마실 것이 나오는데, 그 안에는 사람들을 위한 치유가 있다. 참으로 그 안에는 깊이 생각하는 백성을 위한 징표가 있다. (65–69)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셨고, 그런 다음 너희를 죽게 하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이는 삶의 가장 쇠약한 때로 되돌려져, 알던 뒤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양식에서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다른 이들보다 낫게 해 주셨다. 그러나 더 받은 이들은 자기 양식을 자기 종들에게 넘겨주어 그 안에서 서로 같아지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가? 하나님은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너희의 배우자들을 통해 자녀와 손자들을 주셨으며, 좋은 것들을 너희에게 베푸셨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짓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고, 하늘이나 땅에서 그들에게 아무 양식도 줄 힘이 없고 결코 그럴 수도 없는 것들을 섬기는가? 그러니 하나님께 빗댈 것을 지어내지 말라. 하나님은 아시고, 너희는 알지 못한다. (70–74)

하나님께서 비유를 드신다. 남의 소유가 되어 아무것에도 힘이 없는 종과, 우리가 우리에게서 오는 좋은 양식을 주어 그것에서 남몰래 또 드러나게 쓰는 사람이 있다. 그 둘이 같겠는가? 모든 찬미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알지 못한다. 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비유를 드신다. 그 가운데 하나는 말을 못 하고 아무것에도 힘이 없으며, 자기 주인에게 짐이 된다. 주인이 그를 어디로 보내든, 그는 좋은 것을 가져오지 못한다. 그가, 정의를 명하고 스스로 곧은 길 위에 있는 이와 같겠는가? 하늘과 땅의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 그 시각의 일은 눈 깜짝할 사이와 같거나, 그보다 더 가깝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채로 너희를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게 하시고, 너희에게 청각과 시각과 마음을 주셨다. 너희가 감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들은 하늘의 공중에 떠 있는 새들을 보지 않는가?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그것들을 붙들고 있지 않다. 참으로 그 안에는 믿는 백성을 위한 징표들이 있다. 하나님은 너희의 집을 너희를 위한 쉼터로 만드셨고, 가축의 가죽으로 너희를 위한 천막을 만드시어, 너희가 길을 떠나는 날에도 머무는 날에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하셨다. 또 그 양털과 털과 머리털로, 한동안 쓸 세간과 물건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너희를 위해 그늘을 만드셨고, 산에 너희를 위한 피난처를 만드셨으며, 너희를 더위에서 지켜 줄 옷과, 싸움에서 너희를 지켜 줄 갑옷을 만들어 주셨다. 이처럼 그분은 너희에게 당신의 은혜를 온전히 베푸신다. 너희가 그분께 귀의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언자여) 그러나 그들이 등을 돌린다 해도, 너의 의무는 오직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도 그것을 부정한다. 그들 대부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다. (75–83)

우리가 모든 공동체에서 증인을 일으키는 날, 진리를 부정한 자들은 변명하도록 허락받지 못하고, 잘못을 바로잡도록 허락받지도 못할 것이다. 불의를 행한 자들이 징벌을 볼 때, 그것은 그들에게서 가벼워지지 않으며, 그들에게 말미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동반자를 둔 자들이 자기들의 동반자들을 볼 때, 그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시여, 이들이 저희가 당신 말고 부르던 저희의 동반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들에게 이 말을 되던질 것이다. "너희는 틀림없이 거짓말쟁이다!" 그날 그들은 하나님께 굴복할 것이며, 그들이 지어내던 것은 그들을 저버릴 것이다. 진리를 부정하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막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퍼뜨리던 부패 때문에 우리가 징벌 위에 징벌을 더할 것이다. (84–88)

(예언자여) 우리가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들 자신 가운데 그들에 대한 증인을 일으키는 날, 우리는 너를 이들에 대한 증인으로 데려올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밝혀 주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귀의하는 이들을 위한 인도와 자비와 기쁜 소식으로 이 성서를 너에게 내렸다. (89)

하나님은 정의와 선을 행하는 것과 친척에게 너그럽게 베푸는 것을 명하시고, 추한 짓과 그릇된 일과 횡포를 금하신다. 그분은 너희가 마음에 새기도록 너희를 훈계하신다. 너희가 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고, 맹세를 굳게 하고 하나님을 너희의 보증으로 삼은 뒤에는 그 맹세를 깨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일을 아신다.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보다 수가 많다고 해서 너희의 맹세를 너희 사이에서 속이는 수단으로 삼아, 실을 단단히 자은 뒤에 그것을 가닥가닥 풀어 버리는 여인처럼 되지 말라. 하나님은 다만 이것으로 너희를 시험하실 뿐이다. 그리고 부활의 날에 그분은 너희가 서로 달리하던 것을 반드시 너희에게 분명히 밝히실 것이다. (90–92)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너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원하시는 자를 길 잃게 두시고 원하시는 이를 인도하신다. 너희는 너희가 하던 일에 대해 반드시 물음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맹세를 너희 사이에서 속이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 그러면 굳게 디뎠던 발이 미끄러지고, 너희는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막은 탓에 나쁜 것을 맛보게 되며, 엄청난 징벌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헐값에 팔지 말라. 너희가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 너희가 가진 것은 다하지만,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은 남는다. 우리는 인내한 이들에게, 그들이 하던 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에 따라 반드시 그들의 보상을 줄 것이다. 남자든 여자든 믿는 이로서 선을 행하는 이에게는, 우리가 반드시 좋은 삶을 살게 하고, 그들이 하던 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에 따라 반드시 그들의 보상을 줄 것이다. (93–97)

그러니 네가 꾸란을 낭송할 때에는, 저주받은 사탄에게서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라. 믿고 자기 주님께 의탁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그에게 아무 권한이 없다. 그의 권한은 오직 그를 보호자로 삼는 자들과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는 자들에게만 미친다. 우리가 한 구절을 다른 구절의 자리에 바꾸어 놓을 때, 하나님은 당신께서 내리시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데도, 그들은 "당신은 지어내는 자일 뿐이다!" 하고 말한다. 아니다. 그들 대부분은 알지 못한다. 말하라, "믿는 이들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귀의하는 이들을 위한 인도와 기쁜 소식이 되도록, 성령이 너의 주님에게서 진리로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다." 우리는 그들이 "그를 가르치는 것은 한 사람일 뿐이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잘 안다. 그들이 넌지시 가리키는 이의 말은 외국어인데, 이것은 분명한 아랍어이다. 하나님의 징표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며, 고통스러운 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거짓을 지어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징표를 믿지 않는 자들이며, 그들이야말로 거짓말쟁이이다. 믿은 뒤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있다면, 마음이 믿음 안에서 평안한데도 강요를 당한 이는 예외이나, 부정에 가슴을 여는 자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엄청난 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내세보다 현세의 삶을 더 좋아하였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진리를 부정하는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청각과 시각을 봉하신 자들이며, 그들이야말로 무심한 자들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내세에서 잃는 자들이다. 그러나 박해를 받은 뒤에 이주하고, 그런 다음 분투하며 인내한 이들에게는, 참으로 너의 주님께서 그 모든 일 뒤에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시다. 모든 영혼이 자기 자신을 위해 변론하며 오는 날, 모든 영혼은 자기가 한 일의 값을 온전히 받으며, 그들은 불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유를 드신다. 안전하고 평온하던 한 고을이 있었고, 그 양식은 사방에서 넉넉히 그곳으로 왔다. 그러나 그 고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던 짓 때문에 그 고을이 굶주림과 두려움의 옷을 맛보게 하셨다. 그들 자신 가운데서 한 사도가 그들에게 왔으나, 그들은 그를 거짓말쟁이라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불의를 행하는 동안에 징벌이 그들을 붙잡았다. (98–113)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허용되고 좋은 것들을 먹고, 너희가 섬기는 분이 그분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금하신 것은 오직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게 바쳐진 것뿐이다. 그러나 탐하지도 않고 한계를 넘지도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내몰린 이라면,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너희의 혀가 내뱉는 거짓말 때문에, "이것은 허용되고 이것은 금지된다." 하고 말하여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지어내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지어내는 자들은 번영하지 못한다. 잠깐의 즐거움이 있을 뿐, 그런 다음

고통스러운 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유대인이 된 이들에게는, 우리가 전에 너에게 일러 준 것들을 금하였다. 우리가 그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에게 불의를 행하였다. 그런 다음, 무지하여 악을 행하였다가 그 뒤에 뉘우치고 바로잡는 이들에게는, 참으로 너의 주님께서 그 모든 일 뒤에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시다. (114–119)

이브라힘은 홀로 하나의 공동체였고, 하나님께 경건히 순종하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는 자들 가운데 있지 않았으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였다.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어 곧은 길로 인도하셨다. 우리는 그에게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주었고, 내세에서 그는 틀림없이 의로운 이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언자여) 그런 다음 우리는 너에게 계시하였다. "순수한 믿음의 사람 이브라힘의 종교를 따르라. 그는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는 자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 안식일은 오직 그것을 두고 서로 달리한 자들에게만 정해졌다. 너의 주님께서는 부활의 날에, 그들이 서로 달리하던 것에 대해 반드시 그들 사이를 판결하실 것이다. (120–124)

지혜와 좋은 권고로 너의 주님의 길로 부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들과 논하라. 너의 주님은 누가 당신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가장 잘 아시며, 누가 인도받은 이들인지도 가장 잘 아신다. 너희가 되갚는다면, 너희가 해를 입은 그만큼만 되갚으라. 그러나 너희가 인내하며 견딘다면, 그것이 인내하는 이들에게 참으로 가장 좋다. 인내하라. 너의 인내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그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그들이 꾸미는 계략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과 선을 행하는 이들과 함께 계신다. (125–128)

# 17. 밤의 여행 (Al-Isrāʾ)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종을 밤에 성스러운 모스크에서, 우리가 그 둘레를 축복한 가장 먼 모스크로 데려가신 분께 영광이 있기를! 그에게 우리의 징표 가운데 얼마를 보여 주려는 것이었다.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다. 우리는 무사에게 성서를 주어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인도로 삼았다. "우리가 누흐와 함께 태워 준 이들의 후손이여, 나 말고는 아무도 수호자로 삼지 말라! 그는 참으로 감사하는 종이었다." (1–3)

우리는 성서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정하였다. "너희는 그 땅에서 두 번 부패를 퍼뜨리고, 크게 교만해질 것이다." 두 약속 가운데 첫째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큰 힘을 지닌 우리의 종들을 너희에게 보냈고, 그들은 너희의 집들을 휩쓸었다. 그것은 이루어진 약속이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너희에게 그들을 이길 차례를 돌려주고, 재산과 아들들로 너희를 도우며, 너희의 수를 더 많게 하였다. 우리가 말했다. "너희가 선을 행하면 너희 자신의 영혼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고, 너희가 악을 행하면 그것은 너희 영혼에 해가 된다." 그런 다음 둘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보내어 너희의 얼굴을 일그러뜨리게 하고, 그들이 처음에 들어갔던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게 하며, 손에 닿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부수게 하였다. 너희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실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가 되돌아간다면, 우리도 되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지옥을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위한 감옥으로 삼았다. (4–8)

참으로 이 꾸란은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선을 행하는 믿는 자들에게 큰 보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고통스러운 징벌을 마련해 두었음을 알린다. 사람은 좋은 것을 비는 것처럼 나쁜 것을 빈다. 사람은 늘 성급하다. 우리는 밤과 낮을 두 징표로 삼았다. 우리는 밤의 징표를 어둡게 하고 낮의 징표를 밝게 하였다. 너희가 너희 주님에게서 은총을 구하고, 햇수와 시간의 셈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세히 밝혀 놓았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그 자신의 목에 매어 놓았다. 부활의 날에 우리는 그를 위해 책 한 권을 꺼낼 것이며, 그는 그것이 활짝 펼쳐져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네 책을 읽어라. 오늘은 네 자신의 영혼이 너를 셈하는 이로 충분하다." (9–14)

인도받는 이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인도받는 것이고, 길을 잃는 자는 오직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길을 잃는 것이다. 어떤 영혼도 다른 영혼의 짐을 지지 않는다. 우리는 사도를 보내기 전에는 결코 징벌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고을을 멸하려 할 때에는, 그 안에서

호사를 누리는 자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서 못된 짓을 한다. 그러면 그 고을에 대한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남김없이 멸한다. 누흐 이후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대를 멸하였는가! 당신 종들의 죄에 밝으시고 그것을 보시는 분으로는 너의 주님으로 충분하다. 덧없이 지나가는 이 삶을 원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뜻하는 자에게 그 안에서 서둘러 준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를 위해 지옥을 정해 두며, 그는 멸시받고 버림받은 채 그 안에서 불탈 것이다. 그러나 내세를 원하고, 믿는 이로서 그것을 위해 마땅히 애써야 할 만큼 애쓰는 이, 그들의 애씀은 제대로 보답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들에게도 저들에게도, 모두에게 너의 주님의 선물을 아낌없이 준다. 너의 주님의 선물은 누구에게도 막혀 있지 않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을 다른 이들보다 어떻게 낫게 하였는지 보라. 그러나 내세는 지위에서도 더 크고, 은총에서도 더 크다. (15–21)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신을 세우지 말라. 그러면 너는 멸시받고 버림받은 채 주저앉게 될 것이다. 너의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분 말고는 아무것도 섬기지 말고, 부모에게 잘하라고 정하셨다. 그들 가운데 한 분이나 두 분이 모두 네 곁에서 늙은 나이에 이르거든, 그들에게 "쳇!" 하는 말조차 하지 말고, 그들을 물리치지도 말며, 그들에게 공경하는 말로 말하라.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겸손의 날개를 낮추고, 이렇게 말하라. "주님이시여, 제가 어렸을 때 그들이 저를 돌보아 주었듯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너희의 주님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장 잘 아신다. 너희가 의롭다면, 그분은 거듭거듭 당신께 돌아오는 이들을 참으로 너그러이 용서하신다. 친척에게 그의 몫을 주고, 가난한 이와 나그네에게도 주며, 함부로 낭비하지 말라. 낭비하는 자들은 사탄들의 형제이며, 사탄은 자기 주님께 늘 은혜를 모르는 자였다. 그러나 네가 바라는 너의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동안 그들에게서 돌아서야 한다면, 그들에게 부드럽게 말하라. 네 손을 네 목에 묶어 두지도 말고, 그것을 한껏 다 펴지도 말라. 그러면 너는 비난받고 빈털터리가 되어 주저앉게 될 것이다. 너의 주님은 원하시는 이에게 양식을 넉넉히 주시기도 하고, 헤아려 주시기도 한다. 참으로 그분은 당신의 종들에 밝으시고 그들을 보신다. (22–30)

가난이 두려워 너희의 자녀를 죽이지 말라. 우리가 그들에게도 너희에게도 양식을 준다. 그들을 죽이는 것은 참으로 큰 죄이다. 간음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것은 추한 짓이며, 나쁜 길이다.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하신 생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빼앗지 말라. 누가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였다면, 우리는 그의 상속자에게 권한을 주었다. 그러나 그가 죽이는 일에서 지나치지 않게 하라. 그는 이미 도움을 받고 있다. 고아가 장성할 때까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면 그의 재산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리고 계약을 지키라. 계약에 대해서는 물음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될 때에는 되를 가득 채우고, 바른 저울로 달라. 그것이 더 좋으며,

끝에 가서도 가장 훌륭하다.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좇지 말라. 청각과 시각과 마음, 이 모든 것에 대해 물음이 있을 것이다. 땅 위를 거만하게 걷지 말라. 너는 땅을 가를 수도 없고, 높이에서 산에 닿을 수도 없다. 이 모든 것의 악함은 너의 주님 앞에서 미움받는 것이다. (31–38)

(예언자여) 이것은 너의 주님께서 너에게 계시하신 지혜의 일부이다.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신을 세우지 말라. 그러면 너는 비난받고 버림받은 채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너희의 주님께서 너희에게는 아들들을 골라 주시고, 당신 자신은 천사들 가운데서 딸들을 취하셨다는 것인가? 너희는 참으로 엄청난 말을 하고 있다! (39–40)

우리는 그들이 마음에 새기도록 이 꾸란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밝혀 놓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꺼림만 더할 뿐이다. (예언자여) 말하라,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분 말고 다른 신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권좌의 주님께 맞설 길을 찾았을 것이다."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그분은 그들이 하는 말보다 훨씬 높이, 헤아릴 수 없이 높이 계신다. 일곱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을 찬양한다. 그분을 찬미하며 찬양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의 찬양을 알아듣지 못한다. 참으로 그분은 관대하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분이다.[18] (41–44)

네가 꾸란을 낭송할 때, 우리는 너와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둔다. 또 우리는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 위에 덮개를 씌우고, 그들의 귀에 귀먹음을 둔다. 네가 꾸란에서 오직 너의 주님만을 언급하면, 그들은 싫어하며 등을 돌린다. 그들이 너에게 귀를 기울일 때 무엇을 들으려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은밀히 의논할 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너희는 마술에 걸린 사람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 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그들이 너를 두고 어떤 비유들을 드는지 보라! 그들은 길을 잃었고, 길을 찾지 못한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가 뼈와 티끌이 된 뒤에, 정말로 새로운 창조로 다시 일으켜진단 말인가?" 말하라, "돌이 되든 쇠가 되든, 아니면 너희 생각에 다시 일으키기가 더욱 어려운 어떤 피조물이 되든 그리해 보라." 그러면 그들은 "누가 우리를 되돌려 놓겠는가?" 하고 말할 것이다. 말하라, "너희를 처음에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그들은 너를 향해 머리를 흔들며 "그것이 언제인가?" 하고 말할 것이다. 말하라,

[18] 우리 우주의 질서는 유일신 신앙, 곧 오직 하나의 신적 의지가 있음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의 구조: 꾸란의 유일신 신앙에 대한 과학적·철학적·신학적 주석 – 영광스러운 꾸란과 과학
하나님의 유일성, 우주의 질서, 그리고 창조의 문법: 꾸란 21:22, 23:91, 17:41–44 에 대한 과학적·철학적·신학적 주석 – 영광스러운 꾸란과 과학

"아마도 가까울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를 부르시는 날, 너희는 그분을 찬미하며 응답할 것이고, 너희가 잠깐만 머물렀다고 생각할 것이다." (45–52)

나의 종들에게 일러 가장 좋은 말을 하게 하라. 사탄은 그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킨다. 사탄은 인간에게 분명한 적이다. 너희의 주님은 너희를 가장 잘 아신다. 그분께서 원하시면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원하시면 너희를 징벌하신다. (예언자여) 우리는 너를 그들의 수호자로 보내지 않았다. 너의 주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를 가장 잘 아신다. 우리는 어떤 예언자들을 다른 예언자들보다 낫게 하였고, 다우드에게 시편을 주었다. 말하라, "너희가 그분 말고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불러 보라. 그것들은 너희에게서 해를 거두어 줄 힘도, 그것을 바꿀 힘도 없다." 그들이 부르는 것들 자신도, 누가 가장 가까운지 다투며 자기 주님께 다가갈 길을 구하고, 그분의 자비를 바라며 그분의 징벌을 두려워한다. 참으로 너의 주님의 징벌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부활의 날 이전에 우리가 멸하지 않거나 혹독한 징벌로 벌하지 않을 고을은 하나도 없다. 그것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53–58)

우리가 징표들을 보내지 못하게 막는 것은, 옛사람들이 그것을 거짓이라 하였다는 것뿐이다. 우리는 사무드에게 눈에 보이는 징표로 암낙타를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에 불의를 행하였다. 우리는 오직 두려움을 일으키려고 징표들을 보낸다. (예언자여) 우리는 너의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에워싸고 계신다고 너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너에게 보여 준 환시는 사람들을 위한 시험으로 삼았을 뿐이며, 꾸란에서 저주받은 나무도 그러하다. 우리는 그들에게 경고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엄청난 횡포만 더할 뿐이다. (59–60)

우리가 천사들에게 "아담 앞에 엎드려 절하라." 하고 말하였을 때, 그들은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이블리스는 예외였다. 그가 말했다. "당신께서 진흙으로 창조하신 자 앞에 제가 엎드려 절해야 합니까?" 그가 말했다. "당신께서 저보다 높이신 이 자를 보십니까? 당신께서 부활의 날까지 저에게 말미를 주신다면, 저는 조금만 빼고 그의 후손을 반드시 제 손아귀에 넣겠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가라! 그들 가운데 너를 따르는 자가 있다면, 지옥이 너희의 응보, 넉넉한 응보가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 네가 할 수 있는 자를 네 목소리로 부추기고, 네 기병과 보병으로 그들을 몰아치며, 재산과 자녀에서 그들과 몫을 나누고, 그들에게 약속하라." 그러나 사탄이 그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속임수일 뿐이다. "나의 종들에 대해서는 너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수호자로는 너의 주님으로 충분하다." (61–65)

너희의 주님은 너희가 그분의 은총을 구하도록 너희를 위해 바다에서 배들을 몰아 주시는 분이다. 참으로 그분은 너희에게 자애로우시다. 바다에서 해가 너희에게 닿으면,

너희가 부르던 것들은 그분 말고는 모두 너희를 떠난다. 그러나 그분께서 너희를 무사히 뭍으로 데려다주시면, 너희는 등을 돌린다. 사람은 늘 은혜를 모른다. 너희는 그분께서 뭍의 한쪽이 너희를 삼키게 하시거나, 너희 위에 돌 폭풍을 보내지 않으시리라고 안심하는가? 그러면 너희는 자신을 위한 수호자를 찾지 못할 것이다. 아니면 너희는 그분께서 너희를 다시 한번 바다로 돌려보내시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부수는 거센 바람을 보내시어 너희의 배은망덕 때문에 너희를 물에 빠뜨리지 않으시리라고 안심하는가? 그러면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우리에게 따져 물을 이를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을 존귀하게 하였다. 우리는 그들을 뭍과 바다에서 실어 나르고,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었으며, 우리가 창조한 많은 것들보다 그들을 크게 낫게 하였다. (66–70)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지도자와 함께 부르는 날, 자기 책을 오른손에 받는 이들은 자기 책을 읽을 것이며, 대추야자 씨의 실오라기만큼도 불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삶에서 눈먼 자는 내세에서도 눈멀고, 길에서 더욱 멀리 벗어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너에게 계시한 것에서 너를 거의 꾀어내어, 네가 우리에 대해 다른 것을 지어내게 할 뻔하였다. 그랬다면 그들은 너를 벗으로 삼았을 것이다. 우리가 너를 굳게 세워 주지 않았다면, 너는 그들에게 조금 기울었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우리는 너에게 삶에서 두 배의 징벌을, 죽음에서 두 배의 징벌을 맛보게 하였을 것이고, 너는 우리에 맞서 너를 도울 이를 찾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너를 그 땅에서 몰아내려고 너를 거의 겁주어 쫓을 뻔하였다. 그러나 그랬다면 그들도 네가 떠난 뒤에 잠깐밖에 머물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너 이전에 보낸 사도들에게 적용한 우리의 길이다. 너는 우리의 길에서 아무 변화도 찾지 못할 것이다. (71–77)

해가 기울 때부터 밤의 어둠이 깔릴 때까지 예배를 지키고, 새벽의 낭송도 지키라. 참으로 새벽의 낭송은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리고 밤의 한때에 잠에서 일어나 그것으로 너만의 덧붙이는 예배를 드리라. 너의 주님께서 너를 찬양받는 자리로 일으켜 세우실지도 모른다. 말하라, "주님이시여, 저를 진실하게 들어가게 하시고 진실하게 나가게 하시며, 당신에게서 저를 돕는 권위를 주소서." 그리고 말하라, "진리가 왔고 거짓은 사라졌다. 참으로 거짓은 사라지게 마련이다." (78–81)

우리는 꾸란에서 믿는 자들을 위한 치유와 자비가 되는 것을 내린다. 그러나 그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손실만 더할 뿐이다.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는 등을 돌리고 멀찍이 물러난다. 그러나 나쁜 일이 그에게 닿으면, 그는 절망한다. 말하라,

"누구나 자기 기질에 따라 행한다. 너희의 주님은 누가 길에서 가장 잘 인도받았는지 가장 잘 아신다." (82–84)

(예언자여) 그들이 너에게 영에 대해 묻는다. 말하라, "영은 나의 주님의 명령에 속한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조금의 지식만 주어졌다."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너에게 계시한 것을 틀림없이 거두어 갈 수 있다. 그러면 너는 우리에 맞서 너를 위해 변호해 줄 이를 찾지 못할 것이다. 다만 너의 주님에게서 오는 자비만이 예외이다. 참으로 너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총은 크다. 말하라, "온 인류와 진이 이 꾸란과 같은 것을 내놓으려고 함께 모인다 해도,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 해도 그와 같은 것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꾸란에서 사람들을 위해 온갖 비유를 밝혀 놓았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하는 것 말고는 모두 거부한다. 그들은 말한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땅에서 샘이 솟게 하기 전에는, 우리는 당신을 믿지 않겠다. 또는 당신에게 대추야자와 포도의 동산이 있어, 그 사이로 강들이 넘치도록 솟아 흐르게 하기 전에는. 또는 당신이 주장하듯이 하늘을 조각조각 우리 위에 떨어뜨리거나, 하나님과 천사들을 우리 앞에 마주 데려오기 전에는. 또는 당신에게 황금의 집이 있거나,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는. 그리고 당신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을 우리에게 내려 주기 전에는, 우리는 당신이 올라갔다는 것도 믿지 않겠다." 말하라, "나의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나는 사람인 사도 말고 무엇이겠는가?" 인도가 사람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믿지 못하게 막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도로 보내셨단 말인가?" 하고 말한 것뿐이었다. 말하라, "땅 위에 천사들이 편안히 걸어 다니고 있었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천사를 사도로 내려보냈을 것이다." 말하라, "나와 너희 사이의 증인으로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참으로 그분은 당신의 종들에 밝으시고 그들을 보신다." (85–96)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가 참으로 인도받은 이이다. 그분께서 길 잃게 두시는 자들을 위해서는, 너는 그분 말고 아무 보호자도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부활의 날에 그들을 얼굴을 땅에 댄 채, 눈멀고 말 못 하고 귀먹은 채로 모을 것이다. 그들의 거처는 지옥이다. 그것이 사그라질 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타오르는 불을 더한다. 그것이 그들의 응보이다. 그들이 우리의 징표를 거짓이라 하고, "우리가 뼈와 티끌이 된 뒤에, 정말로 새로운 창조로 다시 일으켜진단 말인가?"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은 것을 창조하실 수 있음을 보지 않는가? 그분은 그들을 위해 의심할 여지 없는 기한을 정해 두셨다. 그런데도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부정하는 것 말고는 모두 거부한다. 말하라, "너희가 나의 주님의 자비의 보고를 가지고 있다 해도, 너희는 쓰는 것이 두려워 그것을 움켜쥐고 있을 것이다. 사람은 늘 인색하다." (97–100)

우리는 무사에게 아홉 가지 분명한 징표를 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어보라. 그가 그들에게 왔을 때 파라오가 그에게 말했다. "무사여, 나는 당신이 마술에 걸렸다고 생각한다!" 그가 말했다. "하늘과 땅의 주님 말고는 아무도 이것들을 눈을 뜨게 하는 증거로 내리지 않았음을 당신은 잘 알고 있다. 파라오여, 나는 당신이 파멸할 자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을 모두 물에 빠뜨렸다. 그의 뒤에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이 땅에 살라. 내세의 약속이 올 때, 우리는 너희를 모두 한데 섞인 무리로 데려올 것이다." (101–104)

우리는 진리로 그것을 내렸고, 그것은 진리로 내려왔다. 우리는 너를 오직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요 경고하는 이로 보냈다. 그것은 네가 사이를 두고 사람들에게 낭송해 주도록 우리가 여러 부분으로 나눈 꾸란이며, 우리는 그것을 차례차례 내려보냈다. 말하라, "그것을 믿든지 믿지 말든지 하라." 그것 이전에 지식을 받은 이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낭송되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말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울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것은 그들의 겸손을 더해 준다. 말하라, "하나님이라 부르든지, 자비로우신 분이라 부르든지 하라. 너희가 어느 이름으로 부르든,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은 그분의 것이다." 예배에서 네 목소리를 높이지도 말고 너무 낮추지도 말며, 그 사이의 길을 찾으라. 그리고 말하라, "모든 찬미는 하나님께 있다. 그분은 아들을 두지 않으셨고, 통치권에 동반자가 없으시며, 약함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하지도 않으신 분이다." 그리고 거듭거듭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라. (105–111)

# 18. 동굴 (Al-Kahf)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찬미는 하나님께 있다. 그분은 당신의 종에게 이 성서를 내리시고, 그 안에 아무 굽음도 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어긋남 없이 곧은 것으로, 그분에게서 오는 혹독한 징벌을 경고하고, 선을 행하는 믿는 자들에게 좋은 보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그 안에서 영원히 머물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두셨다." 하고 말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것에 대한 아무 지식도 없고, 그들의 조상들에게도 없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엄청난 것이다. 그들은 거짓만을 말할 뿐이다. (예언자여) 그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그들의 뒤를 좇다가 슬픔으로 네 자신을 죽게 할지도 모른다. (1–6)

우리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그것의 꾸밈으로 삼았다. 그들 가운데 누가 행실에서 가장 훌륭한지 시험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메마른 맨땅으로 만들 것이다. 아니면 너는 동굴과 새긴 글의 사람들이 우리의 징표 가운데 놀라운 것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젊은이들이 동굴로 피신하였을 때 그들이 말했다. "우리 주님이시여, 당신에게서 오는 자비를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의 일에서 저희를 위해 바른 인도를 마련해 주소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 해 동안 동굴 안에서 그들의 귀를 막아 두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들을 깨웠다. 두 무리 가운데 어느 쪽이 그들이 머문 기간을 더 잘 헤아리는지 알려는 것이었다. (7–12)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진리로 너에게 들려준다. 그들은 자기 주님을 믿은 젊은이들이었고, 우리는 그들에게 인도를 더해 주었다. 그들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을 때,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였다. "우리의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다. 우리는 결코 그분 말고 다른 신을 부르지 않겠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터무니없는 말을 한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이 백성은 그분 말고 다른 신들을 두었다. 어찌하여 그들은 그것들에 대한 분명한 권위를 가져오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지어내는 자보다 더 불의한 자가 누구인가? 이제 너희가 그들에게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고 섬기는 것들에게서 물러났으니, 동굴로 피신하라. 너희의 주님께서 너희 위에 당신의 자비를 펼치시고, 너희의 일에서 너희를 위해 편안함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13–16)

너는 해가 떠오를 때에는 그들의 동굴에서 오른쪽으로 비껴가고, 질 때에는 그들을 왼쪽으로 지나쳐 가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동안 그들은 그 안의 널찍한 곳에 누워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표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가 참으로 인도받은 이이다. 그분께서 길 잃게 두시는 자를 위해서는, 너는 그를 인도해 줄 보호자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잠들어 있었는데도, 너는 그들이 깨어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려 눕혔고, 그들의 개는 입구에 앞다리를 뻗고 있었다. 네가 그들을 마주쳤다면, 너는 그들에 대한 공포에 가득 차서 돌아서 달아났을 것이다. (17–18)

이처럼 우리는 그들이 서로 묻게 하려고 그들을 깨웠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너희는 얼마나 머물렀는가?"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하루나 하루의 한때를 머물렀다." 다른 이들이 말했다. "너희가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너희의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 너희 가운데 하나를 너희의 이 은전을 들려 도시로 보내라. 그가 어느 음식이 가장 깨끗한지 살펴보고, 거기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얼마 가져오게 하라. 그는 조심해야 하며, 아무도 너희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들이 너희를 알게 되면, 너희를 돌로 치거나 너희를 억지로 그들의 종교로 되돌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결코 번영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그들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였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며 그 시각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들의 일을 두고 다투고 있을 때, 어떤 이들이 말했다. "그들 위에 건물을 지으라. 그들의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 가장 잘 아신다." 그들의 일에서 이긴 이들이 말했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 위에 예배 장소를 지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셋이고, 넷째는 그들의 개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다섯이고, 여섯째는 그들의 개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 어림짐작하는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일곱이고, 여덟째는 그들의 개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말하라, "그들의 수는 나의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 조금의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그들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분명한 것 말고는 그들에 대해 논쟁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의견을 묻지 말라. 어떤 일에 대해서도 "내가 내일 그것을 하겠다."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고 덧붙이지 않고서는 그리하지 말라. 네가 잊었을 때에는 너의 주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하라. "나의 주님께서 이것보다 바른 행실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그들은 자기들의 동굴에서 삼백 년을 머물렀고, 거기에 아홉 해를 더한다. 말하라, "그들이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 하늘과 땅의 보이지 않는 것은 그분께 속한다. 그분은 얼마나 밝게 보시며, 얼마나 잘 들으시는가! 그들에게는 그분 말고 아무 보호자도 없으며, 그분은 당신의 다스림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신다." (19–26)

너의 주님의 성서에서 너에게 계시된 것을 낭송하라. 아무도 그분의 말씀을 바꿀 수 없으며, 너는 그분 말고 아무 피난처도 찾지 못할 것이다. 아침저녁으로 자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을 부르는 이들과 함께 인내하며 머물라. 현세의 삶의 화려함을 바라며 네 눈이 그들을 지나쳐 가게 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에 대한 기억에 무심하게 만든 자, 자기 욕망을 따르는 자, 그 일이 모든 한계를 넘어 버린 자에게 순종하지 말라. 말하라, "진리는 너희 주님에게서 온다. 그러니 원하는 이는 믿고, 원하는 자는 부정하게 하라."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위해 불지옥을 마련해 두었으며, 그 장막이 그들을 에워쌀 것이다. 그들이 구해 달라고 부르짖으면, 얼굴을 데게 하는 녹은 쇳물 같은 물로 구함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나쁜 마실 것이며, 얼마나 나쁜 쉴 곳인가!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이라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이의 보상을 헛되게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영원한 지복의 낙원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금팔찌로 꾸며지고, 고운 비단과 두꺼운 비단으로 된 푸른 옷을 입으며, 높은 침상에 기대어 있을 것이다. 얼마나 훌륭한 보상이며, 얼마나 좋은 쉴 곳인가! (27–31)

그들에게 두 사람의 비유를 들어 주라. 우리는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포도밭 둘을 만들어 주고, 그것을 대추야자로 둘러싸며, 그 둘 사이에 곡식밭을 두었다. 두 동산은 저마다 소출을 내었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으며, 우리는 그 둘 사이로 강이 솟아 흐르게 하였다. 그에게는 열매가 넘쳤고, 그는 자기 벗과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말했다. "나는 너보다 재산이 많고, 따르는 사람들도 더 강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불의를 행하며 자기 동산에 들어가 말했다. "나는 이것이 언제까지나 없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그 시각이 오리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주님께 되돌려진다 해도, 나는 틀림없이 이것 대신에 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그의 벗이 그와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말했다. "너는 너를 흙으로, 그런 다음 한 방울의 정액으로 창조하시고, 그런 다음 너를 사람으로 빚으신 분을 부정하는가? 그러나 나로서는, 그분이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며, 나는 나의 주님께 아무도 동반자로 두지 않는다. 네가 네 동산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 힘도 없다.' 하고 말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네가 보기에 내가 너보다 재산과 자녀가 적다 해도,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네 동산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네 동산에는 하늘에서 재앙을 보내시어 그것이 미끄러운 맨땅 비탈이 되게 하실지도 모른다. 또는 그 물이 땅속 깊이 스며들어, 네가 결코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그의 열매는 파멸에 휩싸였고, 그는 덩굴 시렁 위로 무너져 내린 그것에 자기가 들인 모든 것 때문에 두 손을 비틀며 말했다. "내가 나의 주님께 아무도 동반자로 두지 않았더라면!" 그에게는 하나님 말고 그를 도울 무리가 없었고, 그는 자기 자신도 도울 수 없었다. 거기에서 보호는 오직 참되신 하나님께 속한다. 그분은 보상에서 가장 좋으시고, 마지막 결과에서도 가장 좋으시다. (32–44)

그들에게 현세의 삶의 비유를 들어 주라.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물과 같다. 땅의 초목이 그것과 섞이지만, 그런 다음 그것은 바람에 흩날리는 마른 지푸라기가 된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재산과 자녀는 현세의 삶의 꾸밈이다. 그러나 오래 남는 선한 행위가 너의 주님 곁에서 보상으로도 더 좋고, 희망으로도 더 좋다. 우리가 산들을 움직이고 네가 땅이 훤히 드러난 것을 보게 되는 날, 우리는 그들을 모두 모으고 그들 가운데 하나도 남겨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줄지어 너의 주님 앞에 세워질 것이다. "이제 너희는 우리가 너희를 처음에 창조한 그대로 우리에게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너희를 위해 만날 때를 정하지 않으리라고 주장하였다." 책이 펼쳐져 놓일 것이며, 너는 죄지은 자들이 그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을 볼 것이다. 그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이것은 어떤 책이기에, 작은 것도 큰 것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헤아려 놓았는가?" 그들은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의 주님은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45–49)

우리가 천사들에게 "아담 앞에 엎드려 절하라." 하고 말하였을 때, 그들은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이블리스는 예외였다. 그는 진 가운데 하나였고, 자기 주님의 명령에 거역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 대신에 그와 그의 자손을 보호자로 삼으려는가? 그들은 너희의 적인데도 그러한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나쁜 바꿈인가! 나는 그들을 하늘과 땅의 창조의 증인으로 삼지 않았고, 그들 자신의 창조의 증인으로 삼지도 않았다. 또 나는 길 잃게 하는 자들을 돕는 이로 삼지도 않는다. 그분께서 "너희가 나의 동반자라고 주장하던 것들을 불러 보라." 하고 말씀하시는 날, 그들은 그것들을 부르겠지만 그것들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사이에 파멸의 자리를 둘 것이다. 죄지은 자들은 불지옥을 보고 자기들이 곧 그 안에 떨어지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거기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50–53)

우리는 이 꾸란에서 사람들을 위해 온갖 비유를 밝혀 놓았다. 그러나 사람은 무엇보다도 다투기를 좋아한다. 인도가 사람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믿고 자기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옛사람들의 전례가 자기들에게 닥치거나 징벌이 자기들 눈앞에 닥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우리는 사도들을 오직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요 경고하는 이로 보낸다. 그러나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진리를 꺾으려고 거짓으로 논쟁하며, 나의 징표와 자기들이 받은 경고를 조롱거리로 삼는다. 자기 주님의 징표로 일깨움을 받고도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 두 손이 앞서 보낸 것을 잊는 자보다 더 불의한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 위에 덮개를 씌우고, 그들의 귀에 귀먹음을 두었다. 네가 그들을 인도로 부른다 해도, 그들은 결코 인도받지 못할 것이다. 너의 주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분, 자비를 지니신 분이다. 그분께서 그들이 얻은 것

때문에 그들을 문책하신다면, 그들에게 징벌을 서둘러 내리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해진 때가 있고, 그들은 그것에서 벗어날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저 고을들은, 그들이 불의를 행하였을 때 우리가 멸하였고, 우리는 그들의 멸망에 정해진 때를 두었다. (54–59)

무사가 자기 시종에게 말했다. "나는 오랜 세월을 가야 한다 해도, 두 바다가 만나는 곳에 이를 때까지 그만두지 않겠다." 그들이 두 바다가 만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물고기를 잊었고, 그것은 바다로 길을 잡아 빠져나갔다. 그들이 지나쳐 갔을 때, 그가 자기 시종에게 말했다. "우리의 아침 식사를 가져오라. 우리는 이번 여행에서 참으로 고단함을 겪었다." 그가 말했다. "보셨습니까? 우리가 바위에서 쉬었을 때, 제가 그 물고기를 잊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잊게 한 것은 사탄뿐입니다. 그것은 신기하게도 바다로 길을 잡아 갔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발자국을 되짚어 돌아갔고, 우리의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났다. 우리는 그에게 우리에게서 오는 자비를 베풀었고, 우리 곁에서 오는 지식을 그에게 가르쳤다. 무사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께서 배우신 바른 인도 가운데 얼마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도록, 제가 당신을 따라도 되겠습니까?" 그가 말했다. "그대는 결코 나와 함께 인내하지 못할 것이다. 그대가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는가?" 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당신은 제가 인내하는 것을 보실 것이며, 저는 어떤 일에서도 당신께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러면 그대가 나를 따른다면, 내가 먼저 그것에 대해 그대에게 말할 때까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나에게 묻지 말라." (60–70)

그리하여 그들은 길을 떠났다. 마침내 그들이 배에 올랐을 때, 그가 배에 구멍을 내었다. 무사가 말했다. "당신은 배에 탄 사람들을 물에 빠뜨리려고 구멍을 내었습니까? 당신은 참으로 끔찍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대는 결코 나와 함께 인내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무사가 말했다. "제가 잊은 것을 탓하지 마시고, 제 일에서 저를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은 계속 갔다. 마침내 그들이 한 소년을 만났을 때, 그가 그를 죽였다. 무사가 말했다. "당신은 아무도 죽이지 않은 죄 없는 사람을 죽였습니까? 당신은 참으로 몹쓸 일을 하였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대는 결코 나와 함께 인내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가 그대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무사가 말했다. "이 뒤에 제가 당신께 무엇이든 묻는다면, 저를 곁에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저에게서 충분한 구실을 얻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계속 갔다. 마침내 그들이 어느 고을의 사람들에게 이르러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청하였으나, 그들은 두 사람을 손님으로 맞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 막 무너지려는 담을 발견하였고, 그가 그것을 바로

세웠다. 무사가 말했다. "당신께서 원하셨다면, 그 일에 대한 삯을 받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이것이 나와 그대의 헤어짐이다. 그대가 인내하지 못한 일들의 뜻을 내가 그대에게 일러 주겠다. 그 배는 바다에서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었다. 나는 그것에 흠을 내고 싶었다. 그들 뒤에는 모든 배를 힘으로 빼앗는 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소년은, 그의 부모가 믿는 이들이었는데, 우리는 그가 거역과 불신으로 그들을 괴롭힐까 두려웠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주님께서 그 대신에 그보다 더 깨끗하고 정이 더 깊은 아이를 그들에게 주시기를 바랐다. 그 담은 그 도시에 사는 두 고아 소년의 것이었고, 그 밑에는 그들의 보물이 있었다. 그들의 아버지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너의 주님께서는 그들이 장성하여 자기들의 보물을 꺼내기를 원하셨으니, 너의 주님에게서 오는 자비였다. 나는 그것을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그대가 인내하지 못한 일들의 뜻이다." (71–82)

(예언자여) 그들이 너에게 줄까르나인에 대해 묻는다. 말하라, "내가 너희에게 그의 이야기 가운데 얼마를 낭송해 주겠다." 우리는 그를 그 땅에 자리 잡게 하고, 모든 것에 이르는 길을 그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한 길을 따라갔다. 마침내 해 지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해가 흐린 샘 속으로 지는 것을 보았고, 그 가까이에서 한 백성을 발견하였다. 우리가 말했다. "줄까르나인이여, 그들을 벌하든지 그들을 좋게 대하든지 하라." 그가 말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우리가 벌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자기 주님께 되돌려지고, 그분께서 끔찍한 징벌로 그를 벌하실 것이다. 그러나 믿고 선을 행하는 이에게는 가장 좋은 보상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명령에서 그에게 부드럽게 말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한 길을 따라갔다. 마침내 해 뜨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해가 한 백성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해를 가릴 것을 아무것도 마련해 주지 않았다. 그러하였다. 우리는 그에게 있던 모든 것을 지식으로 온전히 에워싸고 있었다. (83–91)

그런 다음 그는 한 길을 따라갔다. 마침내 두 산 장벽 사이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 곁에서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한 백성을 발견하였다. 그들이 말했다. "줄까르나인이여, 야주즈와 마주즈가 이 땅에서 부패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장벽을 세워 주신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당신께 공납을 바쳐도 되겠습니까?" 그가 말했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세워 주신 것이 더 좋다. 그러니 힘으로 나를 도우라. 내가 너희와 그들 사이에 방벽을 세우겠다. 나에게 쇳덩이들을 가져오라." 그런 다음 두 벼랑 사이의 틈을 메워 고르게 하였을 때, 그가 말했다. "불라!" 그런 다음 그것을 불처럼 달구었을 때, 그가 말했다. "그 위에 부을 녹인 구리를 나에게 가져오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것을 넘을 수도 없었고, 뚫을 수도 없었다. 그가 말했다. "이것은 나의 주님에게서 오는 자비이다.

그러나 나의 주님의 약속이 오면, 그분께서 그것을 땅과 같이 평평하게 하실 것이다. 나의 주님의 약속은 언제나 참되다." 그날 우리는 그들이 물결처럼 서로에게 밀려들게 내버려 둘 것이다. 나팔이 불리고, 우리는 그들을 모두 한데 모을 것이다. 그날 우리는 진리를 부정한 자들 앞에 지옥을 훤히 내보일 것이다. 그들은 눈이 나에 대한 기억에서 가려져 있었고,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하던 자들이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나 대신에 나의 종들을 보호자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위한 숙소로 지옥을 마련해 두었다. (92–102)

말하라, "행위에서 가장 크게 잃는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 줄까? 현세의 삶에서 기울인 노력이 길을 잃었는데도, 자기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자기 주님의 징표와 그분과의 만남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헛것이 되고, 부활의 날에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 무게도 두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응보, 지옥이다. 그들이 진리를 부정하고, 나의 징표와 나의 사도들을 조롱거리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피르다우스의 낙원이 숙소로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며, 그곳에서 옮겨 가기를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103–108)

말하라, "바다가 나의 주님의 말씀을 적을 먹물이라 해도, 나의 주님의 말씀이 다하기 전에 바다가 먼저 다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채우려고 그와 같은 바다를 더 가져온다 해도 그러하다."[19] (109)

말하라,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일 뿐이다. 너희의 신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나에게 계시되었다. 그러니 자기 주님과의 만남을 바라는 이는 선한 일을 하고, 자기 주님을 섬기는 데 아무도 동반자로 두지 말라." (110)

[19] 이 중요한 구절은, 포괄적인 과학적·철학적 주석을 보여 드리기 위해 제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주석으로 덧붙여 나갈 모든 링크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인샤알라. 그동안에는 제 블로그의 주요 글들을 모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글 – 영광스러운 꾸란과 과학.

# 19. 마르얌 (Maryam)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카프 하 야 아인 사드. (1)

이것은 너의 주님께서 당신의 종 자카리야에게 베푸신 자비의 이야기이다. 그가 은밀한 부르짖음으로 자기 주님을 불렀을 때의 일이다. 그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제 안의 뼈는 약해졌고, 제 머리는 흰머리로 타오르듯 빛납니다. 그리고 주님이시여, 저는 당신께 드리는 기도에서 복을 받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뒤에 올 친족들이 할 일이 두렵고, 제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신에게서 저에게 상속자를 주시어, 그가 저를 상속하고 야꿉의 집안을 상속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이시여, 그를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이가 되게 하소서." "자카리야야, 우리는 너에게 야흐야라는 이름의 아들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 우리는 그 이전에 아무에게도 그 이름을 주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제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저는 아주 늙은 나이에 이르렀는데, 제가 어떻게 아들을 얻겠습니까?" 그가 말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너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것은 나에게 쉬운 일이다. 네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내가 전에 너를 창조하였다." (2–9)

그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저에게 징표를 주소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징표는, 네가 성한 몸인데도 사흘 밤 동안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성소에서 자기 백성에게 나와, 아침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들에게 몸짓으로 알렸다. (10–11)

"야흐야야, 성서를 굳게 붙잡으라." 우리는 그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그에게 지혜를 주었고, 우리에게서 오는 다정함과 깨끗함도 주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자기 부모에게 효성스러웠으며, 거만하지도 거역하지도 않았다. 그가 태어난 날과 그가 죽는 날과 그가 살아서 다시 일으켜지는 날에 그에게 평화가 있기를. (12–15)

그리고 성서에서 마르얌을 언급하라. 그 여자가 자기 가족에게서 물러나 동쪽의 한 곳으로 갔을 때의 일이다. 그 여자는 그들에게서 몸을 가리는 가림막을 쳤다. 그러자 우리는 그 여자에게 우리의 영을 보냈고, 그는 그 여자 앞에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여자가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서 자비로우신 분께 보호를 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가 말했다. "나는 다만 당신 주님의 사자로서, 당신에게 깨끗한 아들을 주려고 보냄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다. "어떤 남자도 나에게 닿지 않았고 나는 부정한 여자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얻겠습니까?" 그가 말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너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것은 나에게 쉬운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를 사람들을 위한 징표요 우리에게서 오는 자비로 삼으려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다." 그리하여 그 여자는 그를 잉태하였고, 그를 품은 채 먼 곳으로 물러났다. 해산의 진통이 그 여자를 대추야자나무 줄기로 몰아갔다. 그 여자가 말했다. "내가 이 일 이전에 죽어, 까맣게 잊힌 것이 되었더라면!" 그러자 그 여자의 아래에서 한 목소리가 그 여자를 불렀다. "슬퍼하지 말라. 너의 주님께서 네 아래에 시내를 두셨다. 그리고 대추야자나무 줄기를 네 쪽으로 흔들라. 그것이 네 위에 갓 익은 신선한 대추야자를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니 먹고 마시고 위로를 얻으라. 그리고 네가 어떤 사람을 보거든, 나는 자비로우신 분께 단식을 서원하였으니 오늘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라." (16–26)

그런 다음 그 여자는 그를 안고 자기 백성에게 데려왔다. 그들이 말했다. "마르얌아, 너는 참으로 들어 보지도 못한 일을 하였구나! 하룬의 누이여, 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네 어머니도 부정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 여자는 그를 가리켰다. 그들이 말했다. "요람에 있는 젖먹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겠는가?" 그가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성서를 주시고 나를 예언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어디에 있든 나를 복되게 하셨고,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예배와 정해진 희사를 나에게 명하셨으며, 나를 내 어머니에게 효성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거만하거나 불행한 자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과 내가 죽는 날과 내가 살아서 다시 일으켜지는 날에 나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것이 마르얌의 아들 이사이다. 이것은 그들이 의심하는 일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다. 아들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그분께서 어떤 일을 정하시면, 그것에 다만 "있으라." 하고 말씀하실 뿐이며, 그러면 그것은 있게 된다. 이사가 말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너희의 주님이시다. 그러니 그분을 섬기라. 이것이 곧은 길이다." 그러나 여러 무리가 자기들끼리 서로 달리하였다. 그러니 엄청난 날을 목격하게 될 때,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 그들이 우리에게 오는 날, 그들은 얼마나 잘 듣고 얼마나 잘 볼 것인가! 그러나 오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분명한 미혹 속에 있다. 그들에게 후회의 날을 경고하라. 그때 일이 판가름 날 것인데, 그들은 무심하고 믿지 않는다. 참으로 우리가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이를 상속할 것이며, 그들은 우리에게로 되돌려질 것이다. (27–40)

그리고 성서에서 이브라힘을 언급하라. 그는 진실한 사람이요 예언자였다.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어찌하여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며 아버지께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을 섬기십니까? 아버지, 아버지께 오지 않은 지식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러니 저를 따르십시오. 제가 아버지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탄을 섬기지 마십시오. 사탄은 자비로우신 분께 거역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저는

자비로우신 분에게서 오는 징벌이 아버지께 닿아, 아버지께서 사탄의 벗이 되실까 두렵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브라힘아, 너는 나의 신들에게서 돌아서느냐? 네가 그만두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너를 돌로 칠 것이다. 이제 오랫동안 나를 떠나 있으라!" 그가 말했다. "아버지께 평화가 있기를. 제가 나의 주님께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늘 은혜로우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부르는 것들에게서 물러나, 나의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주님을 부름에서 제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고 섬기던 것들에게서 물러났을 때, 우리는 그에게 이스하끄와 야꿉을 주었고, 그들 각자를 예언자로 삼았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자비를 베풀었고, 그들에게 높고 참된 명성을 주었다. (41–50)

그리고 성서에서 무사를 언급하라. 그는 택함을 받은 이였고, 사도요 예언자였다. 우리는 산의 오른쪽에서 그를 불렀고, 은밀한 대화를 위해 그를 가까이 오게 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자비로 그의 형제 하룬을 예언자로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성서에서 이스마일을 언급하라. 그는 자기 약속에 진실한 이였고, 사도요 예언자였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 예배와 정해진 희사를 명하였고, 자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였다. 그리고 성서에서 이드리스를 언급하라. 그는 진실한 사람이요 예언자였으며, 우리는 그를 높은 자리로 올렸다. (51–57)

이들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들이다. 그들은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우리가 누흐와 함께 태워 준 이들 가운데서, 이브라힘과 이스라엘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인도하고 택한 이들 가운데서 나왔다. 자비로우신 분의 징표가 그들에게 낭송되면, 그들은 울면서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그들 뒤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욕망을 따르는 후계자들이 왔다. 그래서 그들은 파멸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다만 뉘우치고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은 예외이다. 이들은 낙원에 들어갈 것이며, 조금도 불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자비로우신 분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당신의 종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지복의 낙원이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곳에서 그들은 헛된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평화"라는 말만 들을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침저녁으로 자기들의 양식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들에게 우리가 상속으로 줄 낙원이다. (58–63)

천사들이 말한다. "우리는 오직 당신 주님의 명령으로만 내려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과 우리 뒤에 있는 것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합니다. 당신의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인내하십시오. 당신은 그분의 이름을 지닌 이를 누구라도 알고 있습니까?" (64–65)

사람은 말한다. "내가 죽은 뒤에, 정말로 살아서 꺼내어진단 말인가?" 사람은 그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우리가 전에 그를 창조하였음을 기억하지 않는가? 너의 주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사탄들과 함께 모을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들을 무릎 꿇은 채 지옥 둘레로 데려올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모든 무리에서, 자비로우신 분께 가장 심하게 거역하던 자들을 끌어낼 것이다. 그런 다음 그 안에서 불타기에 가장 마땅한 자들을 우리가 틀림없이 가장 잘 안다. 너희 가운데 그것을 지나가지 않을 이는 아무도 없다. 그것은 너의 주님께서 확정하신 결정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들을 구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무릎 꿇은 채 그곳에 내버려 둘 것이다. (66–72)

우리의 분명한 징표가 그들에게 낭송되면,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믿는 이들에게 말한다. "두 무리 가운데 어느 쪽이 지위가 더 낫고 모임이 더 훌륭한가?" 그들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대를 멸하였는가! 그들은 재물과 겉모습에서 더 훌륭하였다. 말하라, "미혹 속에 있는 자는 자비로우신 분께서 그의 기한을 늘려 주시기를. 마침내 그들이 약속받은 것, 곧 징벌이나 그 시각을 볼 때, 누가 지위가 더 나쁘고 군대가 더 약한지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인도받은 이들에게 인도를 더해 주신다. 오래 남는 선한 행위가 너의 주님 곁에서 보상으로도 더 좋고, 그 결과로도 더 좋다. 우리의 징표를 부정하면서 "나는 틀림없이 재산과 자녀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자를 너는 보았는가? 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들여다보았는가, 아니면 자비로우신 분에게서 약속을 받아 냈는가? 결코 아니다! 우리는 그가 하는 말을 적어 두고, 그에게 징벌을 길게 늘일 것이다. 우리는 그가 말하는 것을 그에게서 상속할 것이며, 그는 홀로 우리에게 올 것이다. (73–80)

그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두어, 그것들이 자기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게 하려 하였다. 결코 아니다! 그것들은 그들의 섬김을 부정하고, 그들의 적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사탄들을 보내어 그들을 세차게 부추기게 한 것을 너는 보지 않는가? 그러니 그들을 두고 서두르지 말라. 우리는 그들의 날수를 헤아리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귀한 손님 무리로 자비로우신 분 앞에 모으고, 죄지은 자들을 목마른 짐승 떼처럼 지옥으로 모는 날, 자비로우신 분과 계약을 맺은 이 말고는 아무도 중재할 힘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자비로우신 분께서 아들을 두셨다." 너희는 참으로 엄청난 말을 하였다. 그것 때문에 하늘이 거의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며, 산들이 무너져 내릴 지경이다. 그들이 자비로우신 분께 아들이 있다고 한 때문이다. 아들을 두는

것은 자비로우신 분께 어울리지 않는다. 하늘과 땅에 있는 이들 가운데 자비로우신 분 앞에 종으로 오지 않을 이는 아무도 없다. 그분은 그들을 헤아리시고 그 수를 정확히 세어 두셨다. 그들은 모두 부활의 날에 홀로 그분께 올 것이다. (81–95)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자비로우신 분께서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예언자여) 우리가 이것을 네 말로 쉽게 한 것은, 네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다투기 좋아하는 백성에게 이것으로 경고하게 하려는 것일 뿐이다. 그들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대를 멸하였는가! 너는 그들 가운데 하나라도 느끼거나, 그들에게서 속삭임 하나라도 듣는가? (96–98)

# 20. 따 하 (Ṭā Hā)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따 하. (1)

(예언자여) 우리가 너에게 꾸란을 내린 것은 너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위한 일깨움이 되게 하려는 것일 뿐이다. 그것은 땅과 높은 하늘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내려온 계시이다. 자비로우신 분께서 권좌 위에 좌정하셨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그 사이에 있는 것과 흙 아래에 있는 것이 모두 그분께 속한다. 네가 소리 내어 말하든 그러지 않든, 그분은 비밀과 그보다 더 숨겨진 것을 아신다. 하나님, 그분 말고는 신이 없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은 그분의 것이다. (2–8)

무사의 이야기가 너에게 이르렀는가? 그가 불을 보았을 때, 자기 가족에게 말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불을 보았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에게 불씨를 가져오거나, 그 불가에서 인도를 찾을지도 모른다." 그가 그곳에 이르자 부르는 소리가 있었다. "무사야! 나는 너의 주님이다. 네 신발을 벗어라. 너는 성스러운 골짜기 뚜와에 있다.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계시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말고는 신이 없다. 그러니 나를 섬기고, 나를 기억하기 위해 예배를 지키라. 그 시각은 반드시 온다. 나는 그것을 거의 숨겨 두고 있다. 모든 영혼이 자기가 애쓴 대로 보답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르는 자가 너를 그것에서 돌려세우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너는 멸망할 것이다. (9–16)

무사야, 네 오른손에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가 말했다. "그것은 저의 지팡이입니다. 저는 그것에 몸을 기대고, 그것으로 제 양들을 위해 나뭇잎을 쳐서 떨어뜨리며, 그 밖에도 쓸 데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무사야, 그것을 던져라." 그가 그것을 던지자, 보라, 그것은 꿈틀거리며 기어가는 뱀이 되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그것을 처음 모습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그리고 네 손을 네 옆구리에 끼워 넣어라. 그것이 아무 해도 없이 하얗게 되어 나올 것이다. 이것은 또 하나의 징표이다. 우리가 너에게 우리의 가장 큰 징표 가운데 얼마를 보여 주려는 것이다. 파라오에게 가라. 그는 모든 한계를 넘었다." 그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저를 위해 제 가슴을 열어 주시고, 제 일을 저에게 쉽게 해 주시며, 제 혀의 매듭을 풀어 주시어 그들이 제 말을 알아듣게 하소서. 그리고 제 가족 가운데서 저를 위해 돕는 이를 세워 주소서. 제 형제 하룬입니다. 그를 통해 저를 굳세게 하시고, 그가 제 일을 함께 나누게 하소서. 저희가

당신을 많이 찬양하고 당신을 많이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늘 저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17–35)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무사야, 네가 청한 것이 주어졌다. 우리는 이미 또 한 번 너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다. 우리가 네 어머니에게 영감으로 일러 줄 것을 일러 주었을 때이다. '그를 궤에 넣고, 그것을 강에 띄워 보내라. 강이 그것을 기슭에 올려놓을 것이고, 나의 적이요 그의 적인 자가 그를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가 내 눈앞에서 길러지도록 나에게서 오는 사랑을 네 위에 드리웠다. 네 누이가 가서 '그를 돌보아 줄 이를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 드릴까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너를 네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어, 그 여자의 눈이 위로를 얻고 슬퍼하지 않게 하였다. 또 너는 한 사람을 죽였고, 우리는 너를 괴로움에서 구하였으며, 여러 시련으로 너를 시험하였다. 그런 다음 너는 마드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해를 머물렀다. 그런 다음 무사야, 너는 정해진 대로 여기에 왔다. 나는 나를 위해 너를 택하였다. 너와 네 형제는 나의 징표를 가지고 가고, 나를 기억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말라. 너희 둘은 파라오에게 가라. 그는 모든 한계를 넘었다. 그에게 부드럽게 말하라. 그가 마음에 새기거나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36–44)

그들이 말했다.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는 그가 저희에게 성급하게 굴거나 모든 한계를 넘을까 두렵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둘과 함께 있다. 나는 듣고 본다.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우리는 당신 주님의 두 사도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을 우리와 함께 보내고, 그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 주님에게서 온 징표를 가지고 당신에게 왔습니다. 인도를 따르는 이에게 평화가 있기를. 거짓이라 하고 등을 돌리는 자에게 징벌이 내릴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45–48)

그가 말했다. "무사여, 그러면 너희 둘의 주님은 누구인가?" 그가 말했다. "우리의 주님은 모든 것에 그 모습을 주시고, 그런 다음 인도하신 분이다." 그가 말했다. "그러면 이전 세대들은 어찌 되는가?" 그가 말했다. "그들에 대한 지식은 나의 주님 곁에, 한 책 안에 있다. 나의 주님은 그르치지도 않으시고 잊지도 않으신다. 그분은 너희를 위해 땅을 요람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너희를 위한 길들을 내시며, 하늘에서 물을 내리신 분이다." 우리는 그것으로 온갖 종류의 식물을 쌍쌍이 낸다. 먹고, 너희의 가축을 먹이라. 참으로 그 안에는 이성을 지닌 이들을 위한 징표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에서 너희를 창조하였고, 그 안으로 너희를 되돌릴 것이며, 그것에서 너희를 다시 한번 꺼낼 것이다. (49–55)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모든 징표를 보여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거짓이라 하고 거부하였다. 그가 말했다. "무사여, 당신은 당신의 마술로 우리를 우리 땅에서 몰아내려고

왔는가? 우리도 반드시 그에 맞먹는 마술을 당신에게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와 당신 사이에, 우리도 당신도 어기지 않을 만날 때를 정하라. 한가운데 되는 곳에서 하자." 그가 말했다. "너희와 만날 때는 축제의 날이다. 사람들이 해가 높이 뜬 아침에 모이게 하라." (56–59)

그리하여 파라오는 물러나 자기의 계략을 모은 다음 왔다. 무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에게 화가 있으라!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지어내지 말라. 그러면 그분께서 징벌로 너희를 쓸어버리실 것이다. 거짓을 지어내는 자는 이미 실패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두고 서로 다투고, 은밀히 의논하였다. 그들이 말했다. "이 두 사람은 틀림없이 마술사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술로 너희를 너희 땅에서 몰아내고, 너희의 본보기가 되는 삶의 방식을 없애려 한다. 그러니 너희의 계략을 한데 모으고, 그런 다음 줄지어 나오라. 오늘 우세한 자가 틀림없이 번영할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무사여, 당신이 던지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던지겠다." 그가 말했다. "아니다, 너희가 던지라." 그러자 곧 그들의 밧줄과 지팡이들이 그들의 마술 때문에 그에게 꿈틀거리며 기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무사는 속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우리가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기는 이는 바로 너이다. 네 오른손에 있는 것을 던져라. 그것이 그들이 꾸며 낸 것을 삼킬 것이다. 그들이 꾸며 낸 것은 마술사의 속임수일 뿐이며, 마술사는 어디로 가든 번영하지 못한다." (60–69)

그러자 마술사들은 엎드려 절하게 되었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하룬과 무사의 주님을 믿습니다." 파라오가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기도 전에 너희가 그를 믿느냐? 그는 틀림없이 너희에게 마술을 가르친 너희의 우두머리이다. 나는 반드시 너희의 손과 발을 엇갈리게 자르고, 너희를 대추야자나무 줄기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구의 징벌이 더 혹독하고 더 오래가는지 너희는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온 분명한 징표들보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보다 당신을 결코 더 낫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정하려는 것을 무엇이든 정하십시오. 당신은 오직 현세의 삶에서만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와, 당신이 우리에게 억지로 시킨 마술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좋으시고, 더 오래 계십니다." (70–73)

죄지은 자로 자기 주님께 오는 자에게는 지옥이 있으며, 그는 그곳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한다. 그러나 선을 행한 믿는 이로 그분께 오는 이들에게는 가장 높은 지위들이 있다. 그것은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영원한 지복의 낙원이며,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머문다. 그것이 스스로를 깨끗이 하는 이들의 보상이다. (74–76)

우리는 무사에게 계시하였다. “나의 종들과 함께 밤에 떠나고, 그들을 위해 바다에 마른 길을 내어라. 따라잡힐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라.” 파라오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뒤쫓았으나, 바다가 그들을 완전히 덮어 버렸다. 파라오는 자기 백성을 길 잃게 하였고,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다. (77–79)

이스라엘 자손이여, 우리는 너희를 너희의 적에게서 구하였고, 산의 오른쪽에서 너희와 계약을 맺었으며,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었다. “우리가 너희에게 베푼 좋은 것들을 먹되, 그 안에서 한계를 넘지 말라. 그러면 나의 진노가 너희 위에 내릴 것이다. 나의 진노가 내리는 자는 틀림없이 멸망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뉘우치고 믿고 선을 행하며, 그런 다음 바른 길에 머무는 이들을 참으로 너그러이 용서한다.” (80–82)

“무사야, 무엇이 너를 네 백성보다 앞서 서둘러 오게 하였느냐?” 그가 말했다. “그들은 제 발자국을 바짝 따라오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는 당신께서 기뻐하시도록 당신께 서둘러 왔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네가 없는 사이에 네 백성을 시험하였고, 사미리가 그들을 길 잃게 하였다.” 그리하여 무사는 화가 나고 슬픔에 잠겨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 그가 말했다. “나의 백성이여, 너희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약속을 하지 않으셨는가? 그 기약이 너희에게 너무 길게 여겨졌는가, 아니면 너희 주님의 진노가 너희 위에 내리기를 바랐는가? 그래서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어겼는가?”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당신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 백성의 장신구 짐을 지게 되었고, 그것을 불에 던져 넣었으며, 사미리도 그렇게 던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을 위해 송아지를, 울음소리를 내는 형상을 만들어 내놓았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이것이 너희의 신이며 무사의 신이다. 그런데 그가 잊어버렸다.”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해도 이로움도 줄 힘이 없음을 보지 못하였는가? 하룬은 이미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백성이여, 너희는 이것으로 시험받고 있을 뿐이다. 너희의 주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고 내 명령에 순종하라.” 그들이 말했다. “무사가 우리에게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것에 매달려 있겠다.” (83–91)

무사가 말했다. “하룬이여, 그들이 길을 잃는 것을 보았을 때 무엇이 그대를 막아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는가? 그대는 내 명령을 어겼는가?” 그가 말했다. “내 어머니의 아들이여, 내 수염도 내 머리도 붙잡지 마시오! 나는 그대가 ‘그대는 이스라엘 자손을 갈라놓았고, 내 말을 지키지 않았다.’ 하고 말할까 두려웠소.” 무사가 말했다. “사미리여, 그러면 너의 일은 어찌 된 것이냐?” 그가 말했다. “나는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사자의 발자국에서 흙 한 줌을 쥐어 그것을 던져 넣었습니다. 내 영혼이 나를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무사가 말했다. "가라! 너는 평생토록 '나를 건드리지 말라.' 하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어겨지지 않을 약속이 있다. 이제 네가 줄곧 매달려 있던 너의 신을 보라.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불태우고, 그런 다음 가루로 만들어 바다에 흩어 버릴 것이다. 너희의 신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분 말고는 신이 없다. 그분은 지식으로 모든 것을 에워싸고 계신다." (92–98)

(예언자여) 이처럼 우리는 지나간 일들의 소식 가운데 얼마를 너에게 들려준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곁에서 오는 일깨움을 너에게 주었다. 그것을 외면하는 자는 부활의 날에 짐을 지게 될 것이며, 그 아래에 영원히 머물 것이다. 부활의 날에 그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나쁜 짐인가! 그날은 나팔이 불리는 날이며, 그때 우리는 죄지은 자들을 눈이 흐려진 채로 모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 소곤거릴 것이다. "너희는 열흘밖에 머물지 않았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우리가 가장 잘 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행실이 가장 본보기가 되는 자가 말할 것이다. "너희는 하루밖에 머물지 않았다." (99–104)

그들이 너에게 산들에 대해 묻는다. 말하라, "나의 주님께서 그것들을 날려 흩어지는 티끌로 만드시고, 평평한 벌판으로 남겨 두실 것이다. 너는 그 안에서 굽은 데도 솟은 데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날 그들은 부르는 이를 따를 것이며, 그에게서 비켜 갈 길은 없다. 자비로우신 분 앞에서 목소리들이 낮아지고, 너는 나직한 웅얼거림 말고는 아무것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자비로우신 분께서 허락하시고 그 말을 기뻐하시는 이 말고는 중재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분은 그들 앞에 있는 것과 그들 뒤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으로 그분을 에워싸지 못한다. 얼굴들이 영원히 살아 계시고 스스로 계시며 만물을 붙드시는 분 앞에 낮추어질 것이다. 불의의 짐을 진 자는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믿는 이로서 선을 행하는 이는 불의도 깎임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그것을 아랍어 꾸란으로 내렸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고를 밝혀 놓았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거나, 그것이 그들 안에 기억을 일깨우게 하려는 것이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높으시다! 꾸란이 너에게 온전히 계시되기 전에 그것을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 "주님이시여, 저에게 지식을 더해 주소서." 우리는 전에 아담과 계약을 맺었으나, 그는 잊었다. 우리는 그에게서 굳은 결심을 찾지 못하였다. 우리가 천사들에게 "아담 앞에 엎드려 절하라." 하고 말하였을 때, 그들은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이블리스는 예외였으니, 그는 거부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말했다. "아담아, 이 자는 너와 네 아내의 적이다. 그가 너희 둘을 낙원에서 몰아내어 네가 고생에 빠지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는 굶주리지도 않고 헐벗지도 않으며, 그곳에서 목마르지도 않고 햇볕의 더위에 시달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사탄이 그에게 속삭이며 말했다. "아담아, 내가 너에게 영생의 나무와 결코 쇠하지 않는 왕국을 알려 줄까?"

그리하여 그 둘은 그것을 먹었고, 그들의 벗은 몸이 그들에게 드러났으며, 그들은 몸을 가리려고 낙원의 잎들을 엮어 붙이기 시작하였다. 아담은 자기 주님께 거역하였고, 그래서 길을 잃었다. 그런 다음 그의 주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자비로 그에게 돌아오시어 그를 인도하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둘은 다 함께 이곳에서 내려가라. 너희는 서로에게 적이다. 나에게서 인도가 너희에게 올 때, 나의 인도를 따르는 이는 길을 잃지도 않고 불행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 대한 기억을 외면하는 자에게는 옹색한 삶이 있을 것이며, 부활의 날에 우리는 그를 눈먼 채로 일으킬 것이다." 그는 말할 것이다. "주님이시여, 저는 볼 수 있었는데 어찌하여 저를 눈먼 채로 일으키셨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하다. 우리의 징표가 너에게 왔으나 너는 그것을 잊었다. 그와 같이 오늘 네가 잊힌다." 지나치게 굴고 자기 주님의 징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처럼 갚는다. 내세의 징벌은 참으로 더 혹독하고 더 오래간다. 그들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대를 멸하였는지가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였는가? 그들은 지금 그들의 거처 사이를 걸어 다니고 있다. 참으로 그 안에는 이성을 지닌 이들을 위한 징표들이 있다. (105–128)

너의 주님에게서 이미 나온 말씀과 정해진 기한이 없었다면, 징벌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말을 인내하고, 해가 뜨기 전과 지기 전에 너의 주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라. 또 밤의 시간들과 낮의 두 끝에도 그분을 찬양하라. 그러면 네가 흡족해질 것이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어떤 무리에게 누리게 한 것, 곧 현세의 삶의 화려함을 향해 네 눈을 뻗지 말라. 우리는 그것으로 그들을 시험한다. 너의 주님의 양식이 더 좋고 더 오래간다. 네 가족에게 예배를 명하고, 너 자신도 그것에 꾸준하라. 우리는 너에게 양식을 청하지 않는다. 우리가 너에게 양식을 준다. 가장 좋은 결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속한다. (129–132)

그들은 말한다. "어찌하여 그는 자기 주님에게서 우리에게 징표를 가져오지 않는가?" 이전 경전들에 있던 것의 분명한 증거가 그들에게 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것 이전에 징벌로 그들을 멸하였다면, 그들은 말하였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저희에게 사도를 보내 주셨더라면, 저희가 낮아지고 욕을 당하기 전에 당신의 징표를 따랐을 것입니다." 말하라, "누구나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기다리라. 누가 평탄한 길의 사람들이며 누가 인도받은 이들인지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133–135)

# 21. 예언자들 (Al-Anbiyā')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셈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심한 가운데 외면하고 있다. 그들 주님에게서 새로운 일깨움이 그들에게 올 때마다, 그들은 장난치면서 그것을 듣고, 그들의 마음은 딴 데 팔려 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서로 은밀히 속삭인다. "이 사람은 너희와 같은 사람일 뿐이지 않은가? 그런데도 너희는 눈을 뜬 채 마술에 다가가려는가?" 그가 말했다. "나의 주님은 하늘과 땅에서 하는 모든 말을 아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아니, 그들은 말한다. "뒤죽박죽인 꿈이다!" 아니, "그가 그것을 지어냈다!" 아니, "그는 시인이다! 이전의 사도들이 징표와 함께 보냄받았듯이, 그도 우리에게 징표를 가져오게 하라." 그들 이전에 우리가 멸한 고을 가운데 믿은 고을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이들이 믿겠는가? (예언자여) 우리는 너 이전에도 우리가 계시를 내린 남자들만을 보냈다.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일깨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우리는 그들에게 음식이 필요 없는 몸을 주지 않았고, 그들은 죽지 않는 이들도 아니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들에게 한 약속을 이루었다. 우리는 그들과 우리가 원하는 이들을 구하였고, 모든 한계를 넘은 자들을 멸하였다. (1–9)

이제 우리는 너희에게 한 성서를 내렸고, 그 안에 너희를 위한 일깨움이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이성을 쓰지 않는가? 불의를 일삼던 고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수고, 그 뒤에 다른 백성을 일으켰는가! 그들은 우리의 위력을 느끼자, 그곳에서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달아나지 말라! 너희가 누리던 호사와 너희의 거처로 돌아가라. 너희가 물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우리는 참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의 그 부르짖음은, 우리가 그들을 베어 낸 그루터기처럼 생기 없고 잠잠하게 만들 때까지 그치지 않았다. (10–15)

우리는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장난으로 창조하지 않았다. 우리가 놀잇거리를 두고자 하였다면, 우리 곁에 있는 것에서 그것을 취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면 말이다. 아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짓에 내던지고, 진리는 그 머리를 부순다. 그러면 거짓은 곧 사라진다. 너희가 하나님께 갖다 붙이는 것 때문에 너희에게 화가 있으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가 그분께 속한다. 그분 곁에 있는 이들은 그분을 섬기는 데 교만하지 않으며, 지치지도 않는다. 그들은 밤낮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결코 느슨해지지 않는다. (16–20)

아니면 그들은 죽은 이를 일으킬 수 있는 신들을 땅에서 얻었는가? 하늘이나 땅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있었다면, 그 둘은 틀림없이 어지러워졌을 것이다. 그러니 권좌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그분은 그들이 내세우는 것보다 훨씬 높이 계신다.[20] 그분은 당신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물음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은 물음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그들은 그분 말고 다른 신들을 두었는가? 말하라, "너희의 증거를 가져오라. 이것은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의 일깨움이며, 나 이전 사람들의 일깨움이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외면한다. 우리는 너 이전에 어떤 사도를 보내든, 그에게 "나 말고는 신이 없다. 그러니 나를 섬기라." 하고 계시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들은 말한다. "자비로우신 분께서 아들을 두셨다."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아니다. 그들은 존귀한 종들이다. 그들은 그분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말하지 않으며, 그분의 명령에 따라 행한다. 그분은 그들 앞에 있는 것과 그들 뒤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이를 위해서만 중재하며, 그분을 경외하여 떤다. 그들 가운데 누가 "나는 그분 말고 또 하나의 신이다." 하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자에게 지옥으로 갚을 것이다.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이처럼 갚는다. (21–29)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하늘과 땅이 한때 하나로 붙은 덩어리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갈라놓았고, 우리가 물로 살아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음을 보지 않는가?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는가?[21] 우리는 땅이 그들과 함께 흔들리지 않도록 그 위에 굳건한 산들을 놓았고, 그들이 길을 찾도록 그 안에 넓은 고갯길을 길로 내었다. 또 우리는 하늘을 잘 지켜지는 지붕으로 만들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징표들을 외면한다.[22] 그분은 밤과 낮을, 해와 달을 창조하신 분이다. 저마다 제 궤도를 따라 헤엄쳐 간다.[23] (30–33)

(예언자여) 우리는 너 이전의 어떤 사람에게도 영원한 삶을 주지 않았다. 네가 죽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살겠는가? 모든 영혼은 죽음을 맛본다. 우리는 시험으로 나쁜 것과 좋은 것으로 너희를 시험하며, 너희는 우리에게로 되돌려질 것이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

[20] 우리 우주의 질서는 유일신 신앙, 곧 오직 하나의 신적 의지가 있음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의 구조: 꾸란의 유일신 신앙에 대한 과학적·철학적·신학적 주석 – 영광스러운 꾸란과 과학
하나님의 유일성, 우주의 질서, 그리고 창조의 문법: 꾸란 21:22, 23:91, 17:41–44 에 대한 과학적·철학적·신학적 주석 – 영광스러운 꾸란과 과학

[21]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 심오한 과학적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을 수는 없습니다. 이 구절은 다른 많은 구절과 마찬가지로 전지하신 근원이 있음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24:45 와 25:54 에서도 언급됩니다.

[22] **영광스러운 꾸란: '우리는 하늘을 잘 지켜지는 지붕으로 만들었다'**

[23] **영광스러운 꾸란 21:30–33 – 과학적·신학적 통찰 – 5 분 만에 읽기**
**꾸란에 나타난 하늘의 징표들: 영적·과학적 성찰**

너를 볼 때 너를 조롱거리로 삼을 뿐이다. "이 자가 너희의 신들을 들먹이는 그 사람인가?" 그러나 자비로우신 분에 대한 언급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다. (34–36)

인간은 성급함으로 창조되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징표들을 보여 줄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그것을 서둘러 달라고 하지 말라. 그들은 말한다. "너희가 진실하다면,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자기 얼굴에서도 자기 등에서도 불지옥을 막아 내지 못하고 아무 도움도 얻지 못할 그때를 알기만 한다면! 아니다. 그것은 갑자기 그들에게 닥쳐 그들을 얼빠지게 할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물리칠 수 없고, 말미도 받지 못할 것이다. (37–40)

너 이전의 사도들도 조롱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을 비웃던 자들은 자기들이 조롱하던 바로 그것에 에워싸였다. 말하라, "누가 밤에도 낮에도 너희를 자비로우신 분에게서 지켜 줄 수 있는가?"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주님에 대한 기억을 외면한다. 아니면 그들에게는 우리에 맞서 그들을 지켜 줄 신들이 있는가? 그것들은 자기 자신조차 도울 수 없고, 우리에게서 보호받지도 못한다. 아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삶을 누리게 하였고, 마침내 그것이 그들에게 길어졌다. 그들은 우리가 그 땅에 이르러 그 바깥 가장자리에서부터 그것을 줄여 가는 것을 보지 않는가? 그런데도 그들이 이기는 자들인가? 말하라, "나는 오직 계시로 너희에게 경고할 뿐이다." 그러나 귀먹은 자들은 경고를 받아도 그 부름을 듣지 못한다. 그러나 너의 주님의 징벌이 숨결만큼이라도 그들에게 닿으면, 그들은 틀림없이 부르짖을 것이다.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우리는 참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었다." 우리는 부활의 날을 위해 정의의 저울들을 세울 것이며, 어떤 영혼도 조금도 불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겨자씨 한 알의 무게라 해도, 우리는 그것을 가져올 것이다. 셈하는 이로는 우리로 충분하다. (41–47)

우리는 무사와 하룬에게 분별의 기준을 주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위한 빛과 일깨움을 주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자기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시각을 생각하며 떠는 이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내린 복된 일깨움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이것을 부정하려는가? 오래전에 우리는 이브라힘에게 그의 바른 인도를 주었고, 우리는 그를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백성에게 "너희가 그토록 매달리는 이 형상들은 무엇인가?" 하고 말하자,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그것들을 섬기는 것을 보았다." 그가 말했다. "그러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은 분명한 미혹 속에 있었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져왔는가, 아니면 장난을 치고 있는가?" 그가 말했다. "아니다. 너희의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며, 그것들을 처음 지으신 분이다. 나는 그것을 증언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께 맹세코, 너희가

등을 돌려 떠난 뒤에 나는 반드시 너희의 우상들에게 계책을 쓸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고, 그 가운데 가장 큰 것만 남겨 두었다. 그들이 그것에게 돌아가 묻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말했다. "누가 우리의 신들에게 이런 짓을 하였는가? 그는 틀림없이 불의를 행하는 자이다." 어떤 이들이 말했다. "우리는 한 젊은이가 그것들을 들먹이는 것을 들었다. 그는 이브라힘이라고 불린다." 그들이 말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증언하도록 그를 사람들의 눈앞에 데려오라." 그들이 말했다. "이브라힘이여, 우리의 신들에게 이런 짓을 한 것이 당신인가?" 그가 말했다. "아니다. 그것들 가운데 가장 큰 이것이 그렇게 하였다. 그것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들에게 물어보라!" 그러자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말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바로 너희이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다시 예전으로 뒤집혀 돌아갔다. "당신은 이것들이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가 말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하나님 대신에, 너희에게 조금도 이로움을 주지 못하고 해도 주지 못하는 것을 섬기는가? 너희와, 너희가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것에 부끄러움이 있으라! 너희는 이성을 쓰지 않는가?" 그들이 말했다. "너희가 무엇인가 하려거든, 그를 불태우고 너희의 신들을 도우라!" 우리가 말했다. "불아, 이브라힘에게 서늘함과 안전함이 되어라." 그들은 그를 해치려 하였으나, 우리는 그들을 가장 크게 잃는 자들로 만들었다. 우리는 그와 루뜨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축복한 땅으로 구해 내었다. 우리는 그에게 이스하끄를 주었고, 덧붙이는 선물로 야꿉을 주었으며, 그들 각자를 의로운 이로 만들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명령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았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예배를 지키며 정해진 희사를 바치도록 영감을 주었다. 그들은 우리를 섬겼다. 루뜨에게는 우리가 판단력과 지식을 주었고, 더러운 짓을 일삼던 고을에서 그를 구해 내었다. 그들은 거역을 일삼는 악한 백성이었다. 우리는 그를 우리의 자비 안으로 들였다. 그는 의로운 이들 가운데 하나였다. (48–75)

그리고 누흐를 기억하라. 오래전에 그가 부르짖자, 우리는 그에게 응답하여 그와 그의 집안을 큰 괴로움에서 구해 내었다. 우리는 우리의 징표를 거짓이라 한 백성에 맞서 그를 도왔다. 그들은 악한 백성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모두 물에 빠뜨렸다. (76–77)

그리고 다우드와 술라이만을 기억하라. 어떤 사람들의 양 떼가 밤에 들어가 헤집은 밭에 대해 그 둘이 판결을 내렸을 때, 우리는 그들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는 술라이만에게 그 일을 깨닫게 해 주었고, 그들 각자에게 판단력과 지식을 주었다. 또 우리는 산들과 새들이 다우드와 함께 우리를 찬양하게 하였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였다. 우리는 싸움에서 너희를 지켜 주도록, 너희를 위해 갑옷 만드는 법을 그에게 가르쳤다. 그런데도 너희는 감사하지 않는가? 술라이만에게는 우리가 거센 바람을 복종하게 하였고, 그것은 그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축복한 땅으로 내달렸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또 사탄들 가운데 얼마도 복종하게 하였으니, 그들은 그를 위해 물속으로 들어갔고 그 밖의 다른 일도 하였다. 그들을 지켜본 것은 우리였다. (78–82)

그리고 아이윱을 기억하라. 그가 자기 주님께 부르짖었다. "고난이 저에게 닿았습니다. 당신은 자비로운 이들 가운데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에게 응답하여 그에게 있던 고난을 거두어 주었고, 우리에게서 오는 자비로, 그리고 섬기는 이들을 위한 일깨움으로, 그의 가족과 그들과 함께 그만큼을 더 그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이스마일과 이드리스와 줄키플을 기억하라. 그들은 모두 인내하는 이들 가운데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자비 안으로 들였다. 그들은 의로운 이들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물고기의 사람을 기억하라. 그는 화가 나서 떠나가며, 우리가 그를 옥죄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깊은 어둠 속에서 부르짖었다. "당신 말고는 신이 없습니다. 당신께 영광이 있기를! 저는 참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응답하여 그를 괴로움에서 구해 내었다. 우리는 이처럼 믿는 자들을 구한다. 그리고 자카리야를 기억하라. 그가 자기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이시여, 저를 상속자 없이 홀로 두지 마소서. 당신은 상속하는 이들 가운데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에게 응답하여 그에게 야흐야를 주었고, 그의 아내가 그를 위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들은 모두 선한 일에 서둘렀고, 희망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불렀으며, 우리 앞에서 겸손하였다. 그리고 자기 정결을 지킨 여인을 기억하라. 우리는 그 여자 안에 우리의 영을 불어넣었고,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아들을 온 세상을 위한 징표로 삼았다. (83–91)

참으로 너희의 이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이며, 나는 너희의 주님이다. 그러니 나를 섬기라.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사이에서 자기들의 일을 조각조각 갈라놓았다.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믿는 이로서 선을 행하는 이의 노력은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를 위해 그것을 적어 두고 있다. 우리가 멸한 고을에는 금함이 있다.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한다. 마침내 야주즈와 마주즈가 풀려나 모든 높은 곳에서 쏟아져 내려오고, 참된 약속이 가까이 다가오면, 그때 진리를 부정한 자들의 눈은 꼼짝없이 치뜨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우리는 이것에 무심하였다. 아니,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었다." 너희와, 너희가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것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너희는 그곳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들이 신이었다면, 그곳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그 안에서 영원히 머물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신음할 것이며, 그곳에서 아무것도 듣지 못할 것이다. (92–100)

그러나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보상이 이미 정해져 나온 이들은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것의 가장 희미한 소리도 듣지 않으며, 자기 영혼이 바라는 것

안에서 영원히 머물 것이다. 가장 큰 공포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못하며, 천사들이 그들을 맞이할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약속받은 너희의 날이다." 그날 우리는 글을 적은 두루마리를 말듯이 하늘을 말아 올릴 것이다. 우리가 첫 창조를 시작하였듯이, 우리는 그것을 되풀이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지키기로 한 약속이다. 참으로 우리는 그것을 행할 것이다. (101–104)

우리는 일깨움 뒤에 시편에, 나의 의로운 종들이 땅을 상속하리라고 적었다. 참으로 이 안에는 섬기는 백성을 위한 전언이 있다. (예언자여) 우리는 너를 오직 온 세상을 위한 자비로 보냈다. 말하라, "너희의 신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만이 나에게 계시된다. 그러니 너희는 그분께 귀의하겠는가?" 그들이 등을 돌린다면 이렇게 말하라. "나는 너희 모두에게 똑같이 알렸다. 너희에게 약속된 것이 가까운지 먼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분은 소리 내어 하는 말을 아시고, 너희가 감추는 것도 아신다. 나는 알지 못한다. 어쩌면 그것은 너희를 위한 시험이며, 한동안의 즐거움일지도 모른다." 그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진리로 판결하소서. 우리의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너희가 그분께 갖다 붙이는 것에 맞서 도움을 구할 분이시다." (105–112)

# 22. 순례 (Al-Ḥajj)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아, 너희 주님을 경외하라. 그 시각의 진동은 엄청난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보는 날, 젖 먹이는 여인은 모두 자기 젖먹이를 잊고, 아이 밴 여인은 모두 자기 짐을 내려놓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사람들이 취하지 않았는데도 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징벌이 그토록 혹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람들 가운데에는 지식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 논쟁하고, 거역하는 모든 사탄을 따르는 자가 있다. 그 사탄에 대해서는, 그를 벗으로 삼는 자는 그가 길 잃게 하고 타오르는 불의 징벌로 이끌 것이라고 정해져 있다. (1–4)

사람들아, 너희가 부활에 대해 의심한다면 생각해 보라. 우리는 너희를 흙으로, 그런 다음 한 방울로, 그런 다음 매달린 것으로, 그런 다음 꼴을 갖추기도 하고 갖추지 않기도 한 살덩이로 창조하였다. 너희에게 분명히 밝혀 주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해진 기한까지 태 안에 머물게 하고, 그런 다음 너희를 갓난아이로 나오게 하며, 그런 다음 너희가 장성하도록 자라게 한다. 너희 가운데 어떤 이는 죽음으로 거두어지고, 어떤 이는 삶의 가장 쇠약한 때까지 남겨져, 알던 뒤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된다. 또 너는 땅이 생기 없는 것을 본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위에 물을 내리면, 그것은 꿈틀거리고 부풀어 오르며, 온갖 아름다운 것을 자라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죽은 이를 살리시며,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또 그 시각은 오고 있고 그것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무덤에 있는 이들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람들 가운데에는 지식도 없고 인도도 없고 밝혀 주는 성서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 논쟁하는 자가 있다. 그는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교만하게 몸을 돌린다. 이 세상에서 그에게는 치욕이 있고, 부활의 날에 우리는 그에게 불타는 징벌을 맛보게 할 것이다. “그것은 네 두 손이 앞서 보낸 것 때문이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종들에게 불의하지 않으시다.” (5–10)

또 사람들 가운데에는 가장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다. 좋은 일이 그에게 오면 그는 그것에 흡족해하지만, 시련이 그에게 닥치면 예전으로 돌아선다. 그는 이 세상도 내세도 잃는다. 그것이 분명한 손실이다. 그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에게 해도 이로움도 주지 못하는 것을 부른다. 그것이 참으로 멀리 길을 잃는 것이다. 그는 이로움보다 해가 더 가까운 자를 부른다. 참으로 나쁜 보호자이며, 참으로 나쁜 벗이다! 하나님은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을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낙원에 들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뜻하시는 것을 무엇이든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내세에서 예언자를

돕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하는 자는, 하늘까지 밧줄을 뻗고 그런 다음 스스로를 끊어 보라. 그리고 자기의 계략이 자기를 분하게 하는 것을 없애는지 보라. 이처럼 우리는 그것을 분명한 징표로 내렸다. 하나님은 뜻하시는 이를 인도하신다. (11–16)

믿는 이들과 유대인들과 사비아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조로아스터교도들, 그리고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날에 그들 사이를 판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증인이시다. 하늘에 있는 모든 이와 땅에 있는 모든 이가, 해와 달과 별들과 산들과 나무들과 생물들과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너는 보지 않는가? 그러나 다른 많은 자들은 징벌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욕되게 하시는 자는 아무도 존귀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 행하신다. 이들은 자기 주님을 두고 다투는 두 적수이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불로 된 옷이 재단될 것이다. 그들의 머리 위에 끓는 물이 부어져, 그들의 배 속에 있는 것과 살갗이 그것으로 녹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는 쇠로 된 갈고리 몽둥이도 있다. 그들이 괴로움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려 할 때마다, 그들은 그 안으로 도로 몰릴 것이다. "불타는 징벌을 맛보라!" 그러나 하나님은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을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낙원에 들이실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금팔찌와 진주로 꾸며지고, 그곳에서 그들의 옷은 비단일 것이다. 그들은 좋은 말로 인도되었고, 모든 찬미를 받으실 분의 길로 인도되었다. (17–24)

진리를 부정하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길과 성스러운 모스크에서 막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그곳을 그곳에 사는 이들에게나 멀리서 오는 이들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정해 두었다. 불의를 행하여 그곳을 더럽히려는 자에게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징벌을 맛보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브라힘을 그 집의 터에 자리 잡게 하였을 때를 기억하라. "나에게 아무것도 동반자로 두지 말고, 그 둘레를 도는 이들과 서 있는 이들과 허리 굽혀 엎드려 절하는 이들을 위해 나의 집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순례를 선포하라. 그들은 걸어서, 또 온갖 여윈 낙타를 타고, 온갖 먼 고갯길에서 너에게 올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한 이로움을 목격하고, 정해진 날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가축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게 하려는 것이다.[24] 그러니 그것들을 먹고, 가난한 이를 먹이라. 그런 다음 그들이 몸을 깨끗이 하는 의식을 마치고, 자기들의 서원을 지키며, 오래된 집의 둘레를 돌게 하라." 그러하다. 하나님의 성스러운 규정들을 존중하는 이에게는, 그것이 그의 주님 곁에서 그에게 더 좋다. 너희에게 금지된 것으로 낭송되는 것을 빼고는 가축이 너희에게 허용되었다. 그러니 우상의 더러움을 멀리하고, 거짓된 말을 멀리하라.

[24] 해마다 이루어지는 핫즈, 곧 메카 순례의 성공은 이사의 시대보다 1800 년 앞서 이브라힘에게 미리 알려졌습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동반자로 두지 말고, 오직 순수하게 그분께 헌신하라. 하나님께 무엇이든 동반자로 두는 자는, 하늘에서 떨어져 새들에게 채여 가거나 바람에 휩쓸려 먼 곳으로 날려 간 것과 같다. 그러하다. 하나님의 의식들을 존중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속의 하나님 경외에서 나오는 것이다. 너희는 정해진 때까지 제물로 바칠 짐승들에게서 이로움을 얻는다. 그런 다음 그것들을 바치는 곳은 오래된 집 가까이이다. 우리는 모든 공동체에 의식을 정해 주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가축 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신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분께 귀의하라. 그리고 겸손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들은 하나님이 언급되면 마음이 떨리고, 자기들에게 닥치는 것을 인내하며 견디고, 예배를 지키며, 우리가 그들에게 베푼 것 가운데서 쓰는 이들이다. (25–35)

우리는 제물로 바칠 낙타들을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의식들 가운데 두었다. 그것들 안에는 너희를 위한 좋은 것이 있다. 그러니 그것들이 줄지어 서 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그것들이 옆으로 쓰러지면, 그것들을 먹고, 만족하며 지내는 이와 청하는 이를 먹이라. 이처럼 우리는 그것들을 너희에게 복종하게 하였다. 너희가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들의 살도 피도 하나님께 닿지 않는다. 그분께 닿는 것은 너희의 경외심이다. 이처럼 그분은 그것들을 너희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그분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 너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리게 하시려는 것이다.[25]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하나님은 믿는 이들을 지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배신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를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신다. 싸움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싸움이 허락되었다. 그들이 불의를 당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들을 도우실 능력이 있으시다. 그들은 오직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권리도 없이 자기 집에서 쫓겨난 이들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로 물리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기억되는 수도원과 교회와 회당과 모스크들이 틀림없이 허물어졌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돕는 이들을 반드시 도우신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땅에 자리 잡게 하면, 예배를 지키고, 정해진 희사를 바치며, 옳은 것을 명하고 그릇된 것을 금하는 이들이다. 모든 일의 결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36–41)

(예언자여) 그들이 너를 거짓말쟁이라 한다면, 그들 이전에 누흐의 백성과 아드와 사무드도 그렇게 하였고, 이브라힘의 백성과 루뜨의 백성과 마드얀의 주민들도 그렇게 하였다. 무사도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부정하는 자들에게 말미를 주었다가,

[25] 짧은 장인 '작은 도움'(알 마운)의 몇몇 구절과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붙잡았다. 내가 그들을 물리친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가! 불의를 일삼던 고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멸하였는가! 그것은 지붕째 무너져 내려앉아 있다. 버려진 우물이 얼마나 많으며, 높이 솟은 궁전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땅을 다녀 보지 않았는가? 그랬다면 깨달을 마음이나 들을 귀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눈이 먼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 있는 마음이 먼 것이다. (42–46)

그들은 징벌을 서둘러 달라고 너에게 청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실 것이다. 너의 주님 곁의 하루는 너희가 헤아리는 천 년과 같다.[26] 불의를 일삼던 고을에 내가 얼마나 많이 말미를 주었다가, 그런 다음 그것을 붙잡았는가! 마지막 귀착지는 나에게 있다. (47–48)

말하라, "사람들아, 나는 너희에게 분명한 경고자일 뿐이다."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용서와 넉넉한 양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징표를 꺾으려고 그것에 맞서 애쓰는 자들은 타오르는 불의 주민이 될 것이다. 우리가 너 이전에 보낸 사도나 예언자 가운데, 그가 낭송할 때 사탄이 그의 낭송에 무언가를 끼워 넣지 않은 이는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이 끼워 넣는 것을 없애시고, 그런 다음 당신의 징표를 굳게 세우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것은 사탄이 끼워 넣는 것을, 마음에 병이 있는 자들과 마음이 굳어진 자들을 위한 시험으로 삼으시려는 것이다. 참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뿌리 깊은 반목 속에 있다. 또 지식을 받은 이들이 그것이 너의 주님에게서 온 진리임을 알고 그것을 믿어, 그들의 마음이 그분 앞에 낮아지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믿는 이들을 반드시 곧은 길로 인도하신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그 시각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거나 아무 희망도 없는 날의 징벌이 그들에게 닥칠 때까지, 그것에 대한 의심 속에 있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날 통치권은 하나님께 속하며, 그분께서 그들 사이를 판결하실 것이다. 믿고 선을 행한 이들은 지복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부정하고 우리의 징표를 거짓이라 한 자들에게는 굴욕의 징벌이 있을 것이다. (49–57)

하나님의 길에서 이주하였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죽은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양식을 베푸실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은 양식을 주는 이들 가운데 가장 좋으신 분이다. 그분은 반드시 그들이 흡족해할 들어갈 곳으로 그들을 들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관대하신 분이다. 그러하다. 자기가 당한 해와 같은 만큼 되갚았는데 그 뒤에 다시 불의를 당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26] 이 구절과 이와 비슷한 구절들은 우리에게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을 보여 줍니다. 그것은 과학의 용어로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제시됩니다.

봐주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밤을 낮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낮을 밤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고, 그들이 그분 말고 부르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58–62)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을 내리시면 땅이 푸르게 되는 것을 너는 보지 않는가?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섬세하시고 모든 것에 밝으신 분이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한다. 참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모든 찬미를 받으실 분이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당신의 명령으로 바다를 다니는 배들도 그렇게 하셨음을 너는 보지 않는가? 그분은 당신의 허락 없이는 하늘이 땅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다.[27]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지극히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시다. 그분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런 다음 너희를 죽게 하시며, 그런 다음 너희를 다시 살리실 분이다. 참으로 인간은 은혜를 모른다. (63–66)

우리는 모든 공동체에 그들이 지키는 의식을 정해 주었다. 그러니 그들이 이 일을 두고 너와 다투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을 너의 주님께로 부르라. 너는 틀림없이 곧은 인도 위에 있다. 그들이 너와 논쟁한다면 이렇게 말하라. "너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날에, 너희가 서로 달리하던 것들에 대해 너희 사이를 판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가? 그 모든 것이 한 책 안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쉬운 일이다. (67–70)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그분께서 아무 권위도 내리지 않으신 것들, 그들 자신도 아무 지식이 없는 것들을 섬긴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돕는 이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분명한 징표가 그들에게 낭송되면, 너는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얼굴에서 거부하는 빛을 알아볼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징표를 자기들에게 낭송해 주는 이들에게 거의 달려들 듯하다. 말하라,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 줄까? 불지옥이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약속하셨다. 참으로 나쁜 종착지이다!" 사람들아, 비유가 하나 있으니 그것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하나님 대신에 부르는 것들은, 그 일을 위해 모두 힘을 모은다 해도 결코 파리 한 마리도 창조하지 못한다. 또 파리가 그것들에게서 무언가를 채 간다 해도, 그것들은 그것을 파리에게서 되찾지 못한다. 구하는 자도, 구함을 받는 것도 약하기 짝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헤아려야 할 만큼 헤아리지 않았다. 참으로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시다. (71–74)

[27] 하나님은 우리 행성에 떨어지는 유성의 충돌을 가장 적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가운데서,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들을 택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다. 그분은 그들 앞에 있는 것과 그들 뒤에 있는 것을 아신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 되돌려진다. 믿는 자들이여, 허리를 굽히고 엎드려 절하며, 너희 주님을 섬기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번영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마땅히 분투해야 할 만큼 분투하라. 그분은 너희를 택하셨고, 종교에서 너희에게 아무 어려움도 지우지 않으셨다. 그것은 너희의 조상 이브라힘의 신앙이다. 그분은 이전에도, 그리고 이 계시에서도 너희를 '하나님께 귀의한 이들'이라 이름하셨다. 사도가 너희에 대한 증인이 되고, 너희가 인류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예배를 지키고 정해진 희사를 바치며,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라. 그분은 너희의 보호자이시다. 얼마나 훌륭한 보호자이시며, 얼마나 훌륭한 돕는 이이신가! (75–78)

# 23. 믿는 자들 (Al-Mu’minūn)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믿는 자들은 번영하였다. 그들은 예배에서 겸손한 이들이며, 헛된 말에서 돌아서는 이들이고, 정해진 희사를 힘써 바치는 이들이며, 자기 정결을 지키는 이들이다. 다만 자기 배우자나 자기 여종에게는 예외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비난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너머를 찾는 자들은 한계를 넘는 자들이다. 또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과 자기 약속을 충실히 지키는 이들이며, 자기 예배를 잘 지키는 이들이다. 이들이 상속자들이며, 피르다우스의 낙원을 상속하여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 것이다. (1–11)

우리는 진흙에서 뽑아낸 것으로 인간을 창조하였다. 그런 다음 그를 한 방울의 정액으로 든든한 곳에 두었다. 그런 다음 그 방울을 매달린 것으로 만들고, 그 매달린 것을 살덩이로 만들며, 그 살덩이를 뼈로 만들고, 그 뼈에 살을 입혔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를 또 다른 피조물로 생겨나게 하였다. 그러니 창조하는 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께 축복이 있기를! 그런 다음 그 뒤에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런 다음 부활의 날에 너희는 반드시 다시 일으켜질 것이다. (12–16)

우리는 너희 위에 일곱 길을 창조하였고, 우리는 결코 창조에 무심하지 않다. 우리는 하늘에서 알맞은 분량으로 물을 내려 그것을 땅에 머물게 한다. 우리는 그것을 거두어 갈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것으로 너희를 위해 대추야자와 포도의 동산을 일으킨다. 그 안에는 너희를 위한 많은 열매가 있고, 너희는 그것에서 먹는다. 또 시나이 산에서 자라는 나무도 일으키니, 그것은 기름을 내고 먹는 이들을 위한 양념을 낸다. 가축에게도 참으로 너희를 위한 교훈이 있다. 우리는 그 젖샘에서 나는 것을 너희에게 마시게 하고, 너희는 그것들에게서 다른 많은 이로움을 얻으며, 그것들을 먹기도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 위에, 또 배 위에 실려 다닌다. (17–22)

우리는 누흐를 그의 백성에게 보냈다. 그가 말했다. “나의 백성이여,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에게는 그분 말고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의 백성 가운데 진리를 부정하는 우두머리들이 말했다. “이 사람은 너희와 같은 사람일 뿐인데, 너희보다 높아지려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천사들을 내려보내셨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 가운데서 이런 일을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는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 한동안 그를 두고 지켜보라.” 그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그들이 저를 거짓말쟁이라 하니 저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계시하였다.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계시에 따라 방주를 만들라. 그런 다음 우리의 명령이 오고 화덕에서

물이 끓어 넘치거든, 온갖 것을 한 쌍씩 그 안에 싣고, 네 집안도 실으라. 다만 그들 가운데 이미 말씀이 내려진 자들은 예외이다. 그리고 불의를 행한 자들을 위해 나에게 간청하지 말라. 그들은 물에 빠질 것이다. 너와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이 방주에 자리를 잡거든, '불의를 행하는 백성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미가 있다.' 하고 말하라. 그리고 '주님이시여, 저를 복된 곳에 내리게 하소서. 당신은 내려 주는 이들 가운데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고 말하라." 참으로 그 안에는 징표들이 있다. 우리는 늘 사람들을 시험한다. (23–30)

그런 다음 우리는 그들 뒤에 다른 세대를 일으켰고, 그들 가운데서 한 사도를 그들에게 보냈다.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에게는 그분 말고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의 백성 가운데 진리를 부정하고 내세의 만남을 거짓이라 하며, 우리가 현세의 삶에서 넉넉하게 해 준 우두머리들이 말했다. "이 사람은 너희와 같은 사람일 뿐이다. 그는 너희가 먹는 것을 먹고, 너희가 마시는 것을 마신다. 너희가 너희와 같은 사람에게 순종한다면, 너희는 틀림없이 잃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는 너희가 죽어 흙과 뼈가 된 뒤에 다시 꺼내어지리라고 너희에게 약속하는가? 너희에게 약속된 것은 얼토당토않고 얼토당토않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죽고 살 뿐이며, 다시 일으켜지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지어낸 사람일 뿐이며, 우리는 그를 믿지 않겠다." 그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그들이 저를 거짓말쟁이라 하니 저를 도와주소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그들은 틀림없이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굉음이 정당하게 그들을 붙잡았고, 우리는 그들을 휩쓸려 가는 찌꺼기처럼 만들었다. 그러니 불의를 행하는 백성은 멀리 사라지라! 그런 다음 우리는 그들 뒤에 다른 세대들을 일으켰다. 어떤 공동체도 자기의 정해진 기한을 앞당길 수 없고, 늦출 수도 없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의 사도들을 잇달아 보냈다. 사도가 자기 공동체에 올 때마다 그들은 그를 거짓말쟁이라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잇달아 멸망하게 하였고, 그들을 이야깃거리로 만들었다. 그러니 믿지 않는 백성은 멀리 사라지라! (31–44)

그런 다음 우리는 무사와 그의 형제 하룬을 우리의 징표와 분명한 권위와 함께 파라오와 그의 우두머리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게 굴었다. 그들은 오만한 백성이었다. 그들이 말했다. "그들의 백성이 우리의 종인데, 우리가 우리와 같은 두 사람을 믿겠는가?" 그리하여 그들은 그 둘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멸망한 자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이 인도받도록 무사에게 성서를 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마르얌의 아들과 그의 어머니를 징표로 삼았고, 그 둘에게 높은 땅, 흐르는 샘이 있는 쉴 곳에서 피난처를 주었다. (45–50)

"사도들이여, 좋은 것들을 먹고 선을 행하라. 나는 너희가 하는 일을 잘 안다. 참으로 너희의 이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이며, 나는 너희의 주님이다. 그러니 나를 경외하라."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사이에서 자기들의 일을 여러 갈래로 갈라놓았고, 무리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 한동안 그들을 그 혼란의 물결 속에 내버려 두라.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넉넉히 주는 재산과 아들들로,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서둘러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자기 주님을 경외하여 떠는 이들, 자기 주님의 징표를 믿는 이들, 자기 주님께 아무것도 동반자로 두지 않는 이들, 그리고 자기 주님께 돌아가게 된다는 생각에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주는 것을 주는 이들, 이들이 선한 일에 서두르는 이들이며, 그것에 가장 먼저 이르는 이들이다. 우리는 어떤 영혼에게도 그 능력에 넘치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우리 곁에는 진실을 말하는 책이 있으며, 그들은 불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것에 대해 혼란의 물결 속에 있고, 그 밖에도 그들이 계속하고 있는 다른 행위들이 있다. 마침내 우리가 그들 가운데 호사에 젖은 자들을 징벌로 붙잡으면, 그들은 도와 달라고 부르짖는다. "오늘은 부르짖지 말라! 너희는 우리에게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다. 나의 징표가 너희에게 낭송되었으나, 너희는 발꿈치를 돌려 물러서곤 하였다. 교만하게 굴며, 밤새 이야기를 늘어놓고 그것을 헐뜯었다." (51–67)

그들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아니면 그들의 조상들에게 온 적이 없는 것이 그들에게 왔는가? 아니면 그들은 자기들의 사도를 알아보지 못하여 그를 부정하는가? 아니면 그들은 "그는 미쳤다." 하고 말하는가? 아니다. 그는 그들에게 진리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진리를 싫어한다. 진리가 그들의 욕망을 따랐다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이가 무너졌을 것이다. 아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의 일깨움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일깨움을 외면한다. 아니면 네가 그들에게 어떤 삯을 청하는가? 너의 주님의 삯이 더 좋다. 그분은 양식을 주는 이들 가운데 가장 좋으신 분이다. 너는 틀림없이 그들을 곧은 길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들을 괴롭히는 어려움을 거두어 준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눈먼 채 헤매며 자기들의 횡포를 고집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징벌로 그들을 붙잡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주님께 굴복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낮추지도 않는다. 마침내 우리가 그들 위에 혹독한 징벌의 문을 열면, 그들은 그 안에서 절망에 빠진다. (68–77)

그분은 너희를 위해 청각과 시각과 마음을 생겨나게 하신 분이다. 너희는 조금밖에 감사하지 않는다! 그분은 너희를 땅에 널리 퍼지게 하신 분이며, 너희는 그분께로 모이게 될 것이다. 그분은 살리시고 죽게 하시는 분이며, 밤과 낮의 번갈아듦도 그분의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이성을 쓰지 않는가? 그러나 그들은 옛사람들이 하던 말과 같은 말을 한다. 그들은 말한다. "뭐라고? 우리가 죽어 흙과 뼈가 된 뒤에, 정말로 다시 일으켜진단 말인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은 전에도 이것을 약속받았다. 이것은 옛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말하라, "너희가 안다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는 누구의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말하라, "그런데도 너희는 마음에 새기지 않는가?" 말하라, "일곱 하늘의 주님이시며 장엄한 권좌의 주님은 누구이신가?" 그들은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말하라, "그런데도 너희는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가?" 말하라, "너희가 안다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그분은 보호해 주시지만, 그분에 맞서서는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다." 그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말하라,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토록 홀려 있는가?" 아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가져왔고, 그들은 틀림없이 거짓말쟁이이다. 하나님은 결코 자식을 두신 적이 없으며, 그분과 함께 다른 신도 없다. 그렇지 않았다면 신마다 자기가 창조한 것을 가지고 가 버렸을 것이고, 그들은 서로를 누르려 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내세우는 것보다 높으시니,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28] (78–91)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분은 그들이 동반자로 두는 것보다 높이 계신다. 말하라, "주님이시여, 그들에게 약속된 것을 저에게 보여 주신다면, 주님이시여, 저를 불의를 행하는 백성 가운데 두지 마소서." 우리는 우리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여 줄 능력이 틀림없이 있다. 더 좋은 것으로 악을 물리치라. 그들이 우리에게 갖다 붙이는 것을 우리가 가장 잘 안다. 그리고 말하라, "주님이시여, 사탄들의 부추김에서 당신께 보호를 구합니다. 주님이시여, 그들이 저에게 가까이 오지 않도록 당신께 보호를 구합니다." (92–98)

그들은 그렇게 지내다가, 마침내 그들 가운데 하나에게 죽음이 오면 그는 말한다. "주님이시여, 저를 돌려보내 주소서. 제가 남겨 두고 온 것에서 선을 행하게 해 주소서." 결코 아니다! 그것은 그가 내뱉는 말일 뿐이다. 그들 뒤에는 그들이 다시 일으켜지는 날까지 장벽이 있다. 나팔이 불리면, 그날 그들 사이에는 아무 혈연의 끈도 없고, 서로의 안부를 묻지도 않을 것이다. 저울이 무거운 이들, 그들이 번영하는 이들이다. 그러나 저울이 가벼운 자들, 그들은 자기 영혼을 잃은 자들이며, 지옥에서 오래도록 머물 것이다. 불이 그들의 얼굴을 그을리고, 그들은 그 안에서 얼굴을 일그러뜨릴 것이다. "나의 징표가

[28] 우리 우주의 질서는 유일신 신앙, 곧 오직 하나의 신적 의지가 있음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의 구조: 꾸란의 유일신 신앙에 대한 과학적·철학적·신학적 주석 – 영광스러운 꾸란과 과학
하나님의 유일성, 우주의 질서, 그리고 창조의 문법: 꾸란 21:22, 23:91, 17:41–44 에 대한 과학적·철학적·신학적 주석 – 영광스러운 꾸란과 과학

너희에게 낭송되지 않았으며, 너희는 그것을 거짓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의 불행이 저희를 이겼고, 저희는 길 잃은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를 이곳에서 꺼내 주소서. 저희가 악으로 되돌아간다면, 그때 저희는 참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 안으로 물러가라! 나에게 말하지 말라. 나의 종들 가운데 한 무리가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은 자비로운 이들 가운데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고 말하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웃음거리로 삼았고, 마침내 그들 때문에 나를 기억하는 것조차 잊었으며, 그들을 비웃곤 하였다. 오늘 나는 그들의 인내에 대해 그들에게 보상하였다. 그들이야말로 승리한 이들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는 땅에서 몇 해를 머물렀느냐?" 그들은 말할 것이다. "저희는 하루나 하루의 한때를 머물렀습니다. 헤아리는 이들에게 물어보소서."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는 조금밖에 머물지 않았다. 너희가 알기만 하였더라면! 너희는 우리가 너희를 장난으로 창조하였고, 너희가 우리에게로 되돌려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느냐?" (99–115)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높으시다! 그분 말고는 신이 없으며, 그분은 고귀한 권좌의 주님이시다. 아무 증거도 없이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신을 부르는 자는, 그의 셈이 오직 그의 주님께 있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번영하지 못한다. 그리고 말하라, "주님이시여,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은 자비로운 이들 가운데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116–118)

# 24. 빛 (Al-Nūr)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우리가 내리고 의무로 정한 장이다. 우리는 너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그 안에 징표들을, 분명한 징표들을 내렸다. (1)

간음한 여자와 간음한 남자는 각각 백 대씩 매질하라. 너희가 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법에 관한 일에서 그들에 대한 동정심이 너희를 움직이게 하지 말라. 그리고 믿는 자들 가운데 한 무리가 그들의 징벌을 지켜보게 하라. 간음한 남자는 간음한 여자나 다신교도 여자 말고는 혼인하지 않으며, 간음한 여자는 간음한 남자나 다신교도 남자 말고는 혼인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믿는 자들에게 금지되었다. 정숙한 여인들을 고발하고서 네 명의 증인을 데려오지 못하는 자들은 여든 대씩 매질하고, 다시는 그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들이다. 다만 그 뒤에 뉘우치고 행실을 바로잡는 이들은 예외이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2–5)

자기 아내를 고발하면서 자기 말고는 증인이 없는 자들은, 그 사람의 증언으로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두고 네 번 맹세하고, 다섯 번째에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자기 위에 있기를 맹세한다. 그 여자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두고 네 번 맹세하고, 다섯 번째에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위에 있기를 맹세하면, 그 여자에게서 징벌이 거두어진다. (6–9)

너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자비가 없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뉘우침을 잘 받아 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 아니셨다면, 너희는 이 일로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그 중상을 퍼뜨린 자들은 너희 가운데 한 무리이다. 그것을 너희에게 나쁜 일로 여기지 말라. 아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좋은 일이다. 그들 각자는 자기가 얻은 죄의 몫을 지며, 그 가운데 가장 큰 몫을 맡은 자에게는 엄청난 징벌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들었을 때, 믿는 남자들과 믿는 여자들은 어찌하여 자기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고 “이것은 분명한 중상이다.” 하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어찌하여 그것에 대해 네 명의 증인을 데려오지 않았는가? 그들이 증인을 데려오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는 바로 그들이다. 이 세상과 내세에서 너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자비가 없었다면, 너희가 빠져든 그 일 때문에 엄청난 징벌이 너희에게 닿았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그것을 혀로 옮기고, 너희가 아무 지식도 없는 것을 입으로 말하며, 그것을 가벼운 일로 여겼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무거운 일이었다. 너희가 그것을 들었을 때,

어찌하여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당신께 영광이 있기를! 이것은 엄청난 중상이다." 하고 말하지 않았는가? 너희가 믿는 자들이라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훈계하신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징표들을 분명히 밝히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믿는 이들 사이에 추한 짓이 퍼지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과 내세에서 고통스러운 징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시고,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자비가 없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 아니셨다면, 너희는 파멸하였을 것이다. 믿는 자들이여, 사탄의 발자국을 따르지 말라. 사탄의 발자국을 따르는 자는, 그가 추한 짓과 그릇된 일을 명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자비가 없었다면, 너희 가운데 아무도 결코 깨끗해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10–21)

너희 가운데 은총과 넉넉함을 지닌 이들은, 친척과 가난한 이들과 하나님의 길에서 이주한 이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말라. 그들은 너그러이 봐주고 눈감아 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시기를 너희는 바라지 않는가?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22)

정숙하고 아무 의심도 모르는 믿는 여인들을 고발하는 자들은 이 세상과 내세에서 저주를 받으며, 그들에게는 엄청난 징벌이 있을 것이다. 그날 그들 자신의 혀와 손과 발이 그들이 하던 일에 대해 그들에게 불리하게 증언할 것이다. 그날 하나님은 그들의 마땅한 몫을 그들에게 온전히 치러 주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진리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더러운 여자들은 더러운 남자들에게, 더러운 남자들은 더러운 여자들에게 어울린다. 좋은 여자들은 좋은 남자들에게, 좋은 남자들은 좋은 여자들에게 어울린다. 이들은 중상하는 자들이 하는 말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들에게는 용서와 넉넉한 양식이 있다. (23–26)

믿는 자들이여, 너희 집이 아닌 집에는 허락을 구하고 그 집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 너희가 마음에 새기게 하려는 것이다. 그 안에서 아무도 찾지 못하거든, 너희에게 허락이 주어질 때까지 들어가지 말라. "돌아가라."는 말을 듣거든 돌아가라. 그것이 너희에게 더 깨끗하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일을 잘 아신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으로서 그 안에 너희에게 쓸모 있는 것이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에게 허물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드러내는 것과 너희가 감추는 것을 아신다. 믿는 남자들에게 일러, 시선을 낮추고 자기 정결을 지키게 하라. 그것이 그들에게

더 깨끗하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일에 밝으시다. 또 믿는 여자들에게 일러, 시선을 낮추고 자기 정결을 지키게 하며, 평소에 드러나는 것 말고는 자기 꾸밈을 드러내지 않게 하라. 머릿수건을 가슴과 목둘레 위로 드리우게 하고,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 남편의 아버지, 자기 아들, 남편의 아들, 자기 형제, 형제의 아들, 자매의 아들, 자기 여인들, 자기 종들, 욕정이 없는 남자 시중꾼들, 또는 여인의 벗은 몸을 아직 알지 못하는 아이들 말고는 자기 꾸밈을 드러내지 않게 하라. 또 자기가 감춘 꾸밈에 눈길을 끌려고 발을 구르지 않게 하라. 믿는 자들이여, 너희 모두 뉘우치며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번영할 것이다. (27–31)

너희 가운데 홀로인 이들을 혼인시키고, 너희의 남종과 여종 가운데 의로운 이들도 혼인시키라. 그들이 가난하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으로 그들을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혼인할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으로 그들을 넉넉하게 하실 때까지 정결을 지키게 하라. 종들 가운데 자유를 얻기 위한 계약을 구하는 이가 있거든, 그들에게 좋은 점이 있음을 너희가 안다면 그들을 위해 그것을 써 주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재산 가운데 얼마를 그들에게 주라. 너희의 여종들이 정결을 지키기를 바라는데도, 이 삶의 덧없는 재물을 얻으려고 그들을 억지로 매춘에 내몰지 말라. 누가 그들에게 억지로 시킨다면, 억지로 당한 뒤의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시다. (32–33)

우리는 너희에게 분명히 밝혀 주는 징표들과, 너희 이전에 지나간 이들의 본보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위한 훈계를 내렸다. (34)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빛이시다. 그분의 빛의 비유는 등불이 놓인 벽감과 같다. 그 등불은 유리 안에 있고, 그 유리는 빛나는 별과 같다. 그것은 복된 나무, 곧 동쪽의 것도 서쪽의 것도 아닌 올리브나무에서 불이 붙는데, 그 기름은 불이 닿지 않아도 거의 빛을 낼 듯하다. 빛 위에 빛이로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이를 당신의 빛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 비유들을 드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한 빛은,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지도록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당신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신 집들에서 빛난다. 그 안에서 아침저녁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장사도 매매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과 예배를 지키는 일과 정해진 희사를 바치는 일에서 딴 데로 돌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마음과 눈이 뒤집힐 날을 두려워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에 따라 그들에게 보상하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그들에게 더해 주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이에게 셈 없이 양식을 주신다. (35–38)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행위는 벌판의 신기루와 같다. 목마른 이는 그것을 물로 여긴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 이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다. 오히려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은 그의 셈을 그에게 온전히 치러 주신다. 하나님은 셈에 빠르시다. 또는 깊은 바다 속의 겹겹의 어둠과 같다. 물결 위에 물결이 그것을 덮고, 그 위에는 구름이 있다. 어둠 위에 어둠이다. 그가 손을 내밀어도, 그는 그것을 거의 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지 않으시는 자에게는 아무 빛도 없다. (39–40)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가, 그리고 날개를 펼친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는 보지 않는가? 저마다 자기의 기도와 자기의 찬양을 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일을 잘 아신다. 하늘과 땅의 통치권은 하나님께 속하며, 마지막 귀착지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몰아가시고, 그런 다음 그것들을 한데 모으시며, 그런 다음 그것을 겹겹이 쌓으시는 것을 너는 보지 않는가? 그러면 너는 그 한가운데에서 비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본다. 그분은 하늘에서 우박을 품은 산더미 같은 구름을 내려보내시어, 원하시는 자를 그것으로 치시고 원하시는 이에게서는 그것을 비켜 가게 하신다. 그 번개의 번쩍임은 거의 시력을 앗아 갈 듯하다. 하나님은 밤과 낮을 번갈아 들게 하신다. 참으로 그 안에는 볼 눈이 있는 이들을 위한 교훈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물로 창조하셨다.[29] 그 가운데 어떤 것은 배로 기어 다니고, 어떤 것은 두 다리로 걸으며, 어떤 것은 네 다리로 걷는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41–45)

우리는 분명히 밝혀 주는 징표들을 내렸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이를 곧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사도를 믿으며, 순종합니다." 하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 뒤에 그들 가운데 한 무리가 등을 돌린다. 그런 자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다. 사도가 그들 사이를 판결하도록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로 부름을 받으면, 그들 가운데 한 무리가 외면한다. 그러나 옳음이 자기들 쪽에 있으면, 그들은 고분고분하게 그에게 온다. 그들의 마음에 병이 있는가? 아니면 그들은 의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가 자기들을 부당하게 대할까 두려워하는가? 아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바로 그들이다. 사도가 그들 사이를 판결하도록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로 부름을 받을 때, 믿는 자들이 하는 말은 오직 "우리는 듣고 순종합니다." 하는 것뿐이다. 이들이 번영하는 이들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이들이 승리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네가 명하기만 하면 반드시 나서겠다고 하나님을 두고 가장 굳은 맹세로 맹세한다. 말하라, "맹세하지 말라. 필요한

[29]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 심오한 과학적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을 수는 없습니다. 이 구절은 다른 많은 구절과 마찬가지로 전지하신 근원이 있음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21:30 와 25:54 에서도 언급됩니다.

것은 마땅하다고 알려진 순종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일에 밝으시다." 말하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도에게 순종하라." 너희가 등을 돌린다 해도, 그는 자기에게 지워진 것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고, 너희는 너희에게 지워진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 너희가 그에게 순종한다면, 너희는 인도받을 것이다. 사도의 의무는 오직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다. (46–54)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셨다. 그분은 그들 이전의 사람들을 후계자로 삼으셨듯이, 반드시 그들을 이 땅에서 후계자로 삼으실 것이다. 또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기뻐하신 그들의 종교를 그들을 위해 반드시 굳게 세우시고, 그들의 두려움을 반드시 안전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들은 나를 섬기며, 나에게 아무것도 동반자로 두지 않는다." 그 뒤에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 그들이 거역하는 자들이다. 예배를 지키고 정해진 희사를 바치며 사도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땅에서 하나님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들의 거처는 불지옥이다. 참으로 나쁜 종착지이다! (55–57)

믿는 자들이여, 종들과 너희 가운데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이들은 세 때에 들어오기 전에 너희의 허락을 구하게 하라. 새벽 예배 이전과, 너희가 한낮에 옷을 벗어 놓을 때와, 밤 예배 이후이다. 이 세 때는 너희가 몸을 가리지 않는 때이다. 이 때들 밖에는 너희에게도 그들에게도 허물이 없다. 그들은 너희 사이를 오가며, 너희는 서로 어울려 지낸다. 이처럼 하나님은 너희에게 징표들을 분명히 밝히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너희 가운데 아이들이 성년에 이르면, 그들보다 앞선 이들이 허락을 구하였듯이 그들도 허락을 구하게 하라. 이처럼 하나님은 너희에게 당신의 징표들을 분명히 밝히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아이 낳을 때가 지나 혼인을 바라지 않는 여인들은, 자기 꾸밈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면 겉옷을 벗어 놓아도 그들에게 허물이 없다. 그러나 삼가는 것이 그들에게 더 좋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58–60)

눈먼 이에게도, 다리를 저는 이에게도, 병든 이에게도, 그리고 너희 자신에게도, 너희 자신의 집에서 먹는 것에는 아무 제약이 없다. 또 너희 아버지의 집, 어머니의 집, 형제의 집, 자매의 집, 아버지 쪽 삼촌의 집, 아버지 쪽 고모의 집, 어머니 쪽 외삼촌의 집, 어머니 쪽 이모의 집, 너희가 그 열쇠를 맡고 있는 집, 또는 너희 벗의 집에서 먹는 것에도 그러하다. 너희가 함께 먹든 따로 먹든 너희에게 허물이 없다. 너희가 집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되고 좋은 인사로 서로 인사하라. 이처럼 하나님은 너희가 이성을 쓰도록 너희에게 징표들을 분명히 밝히신다. (61)

참된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믿는 이들이며, 모두에게 관계되는 일로 사도와 함께 있을 때 그의 허락을 구하기 전에는 떠나지 않는 이들이다. 너에게 허락을 구하는 이들,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믿는 이들이다. 그러니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일 때문에 너에게 허락을 구하거든, 그들 가운데 네가 원하는 이에게 허락해 주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너희 사이에서 사도의 부름을, 너희가 서로를 부르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남의 뒤에 숨어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자들을 아신다. 그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들은 시련이 자기들에게 닥치거나 고통스러운 징벌이 자기들에게 닥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라. (62–63)

참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다. 그분은 너희가 처한 상태를 잘 아신다. 그들이 그분께로 되돌려지는 날, 그분은 그들이 한 일을 그들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64)

# 25. 분별의 기준 (Al-Furqān)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종에게 분별의 기준을 내리시어 그가 온 세상을 위한 경고자가 되게 하신 분은 복되시다. 하늘과 땅의 통치권이 그분께 속하며, 그분은 아들을 두지 않으셨고 통치권에 동반자도 없으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정확한 분량으로 정하셨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분 말고 다른 신들을 두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하고 그 자신이 창조된 것이며, 자기 자신에게조차 해도 이로움도 줄 힘이 없고, 죽음도 삶도 부활도 다스리지 못한다. (1–3)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말한다. "이것은 그가 지어낸 거짓일 뿐이며, 다른 사람들이 그것으로 그를 도왔다." 그들이 내놓은 것은 불의와 거짓뿐이다. 또 그들은 말한다. "옛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그가 그것을 받아 적게 하였고, 그것이 아침저녁으로 그에게 불러 주어진다." 말하라, "하늘과 땅의 비밀을 아시는 분께서 그것을 내리셨다. 그분은 늘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30] (4-6)

그들은 말한다. "음식을 먹고 시장을 돌아다니는 이 사람이 무슨 사도인가? 어찌하여 천사가 그에게 내려와 그와 함께 경고자가 되지 않는가? 또는 어찌하여 보물이 그에게 떨어지지 않으며, 어찌하여 그에게 먹을 것을 얻을 동산이 없는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말한다. "너희는 마술에 걸린 사람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너를 두고 어떤 비유들을 드는지 보라! 그들은 길을 잃었고, 길을 찾지 못한다. 원하시면 너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곧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낙원과 궁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복되시다. (7–10)

그들이 부정하는 것은 사실 그 시각이 온다는 것이다.[31] 그 시각을 부정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는 타오르는 불을 마련해 두었다. 그것이 멀리서 그들을 보면, 그들은 그것이 날뛰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이 사슬에 함께 묶인 채 그 안의 좁은 곳에 던져지면, 그들은 거기에서 파멸을 부르짖을 것이다. "오늘은 한 번의 파멸을 부르짖지 말고, 여러 번의 파멸을 부르짖어라!" 말하라, "그것이 더 좋은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약속된 영원의 낙원이 더 좋은가? 그것이 그들의 보상이요 마지막

[30] 이것들은 꾸란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과거의 그리스도교 호교론자들과 오늘날의 무신론 비평가들은 꾸란에 대해 근거 없는 비판을 내놓지만, 하나님은 매우 조리 있는 변호를 제시하십니다. 이 꾸란이 무함마드가 알 수 없었던 하늘과 땅의 비밀을 드러낸다면, 꾸란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의 말씀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주석가들이 보여 주는 현대 과학과의 정합성은 그러한 추론의 한 갈래입니다. 이 번역의 여러 주석은 꾸란과 현대 과학의 공명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21:30–33 과 51:47–49 입니다.
[31]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곧 무신론은 내세나 책임을 지는 일을 부정하는 것과 손을 맞잡고 갑니다. 이것은 꾸란에서 여러 번 언급됩니다. 제 41 장(하 밈 사즈다)의 마지막 구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종착지가 될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으며 영원히 머문다. 그것은 너의 주님께서 이루시기로 스스로 다짐하신 약속이다." 그분께서 그들을,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섬기던 것들과 함께 모으시는 날,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나의 이 종들을 길 잃게 한 것이 너희였느냐, 아니면 그들 스스로 길에서 벗어났느냐?" 그들은 말할 것이다. "당신께 영광이 있기를! 당신 말고 다른 보호자를 두는 것은 저희에게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삶을 누리게 하시자, 마침내 그들은 일깨움을 잊고 파멸에 떨어진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이제 그들은 너희가 하는 말을 거짓이라 하였다. 너희는 징벌을 물리칠 수도 없고 도움을 얻을 수도 없다." 너희 가운데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큰 징벌을 맛보게 할 것이다. (11–19)

(예언자여) 우리가 너 이전에 보낸 사도들도 모두 음식을 먹고 시장을 돌아다녔다. 우리는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다른 이들을 위한 시험으로 삼았다. 너희는 인내하겠는가? 너의 주님은 늘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를 만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자들은 말한다. "어찌하여 천사들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는가? 어찌하여 우리는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는가?" 그들은 속으로 교만에 가득 차 있고, 엄청난 무례로 거역하였다. 그들이 천사들을 보는 날, 그날 죄지은 자들에게는 아무 기쁜 소식도 없을 것이며, 천사들은 말할 것이다. "너희와 기쁨 사이에는 넘지 못할 장벽이 서 있다!" 우리는 그들이 한 모든 행위에 나아가, 그것을 흩날리는 먼지처럼 만들 것이다. 그날 낙원의 주민들은 더 좋은 거처와 더 아름다운 쉴 곳을 얻을 것이다. 하늘이 구름과 함께 갈라지고 천사들이 장엄하게 내려보내지는 날, 그날 참된 통치권은 자비로우신 분께 속한다. 그날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힘든 날이 될 것이다. 그날 불의를 행한 자는 자기 손을 깨물며 말할 것이다. "내가 사도와 함께 길을 택하였더라면! 아, 나에게 화가 있도다! 내가 아무개를 벗으로 삼지 않았더라면! 일깨움이 나에게 온 뒤에 그가 나를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사탄은 끝에 가서는 언제나 인간을 저버린다. (20–29)

사도가 말한다. "주님이시여, 제 백성은 이 꾸란을 버려둘 것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예언자에게 죄지은 자들 가운데서 적을 두었다. 그러나 인도하는 이와 돕는 이로는 너의 주님으로 충분하다. (30–31)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말한다. "어찌하여 꾸란이 그에게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네 마음을 굳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차근차근 또렷하게 너에게 낭송해 주었다. 그들이 너에게 어떤 논거를 가져오든, 우리는 너에게 진리와 더 좋은 풀이를 가져다준다.[32] (32–33)

얼굴을 땅에 댄 채 지옥으로 모이게 될 자들, 그들은 가장 나쁜 자리에 있으며 길에서 가장 멀리 벗어나 있다. (33–34)

우리는 무사에게 성서를 주었고, 그의 형제 하룬을 그를 돕는 이로 세웠다. 우리가 말했다. "너희 둘은 우리의 징표를 거짓이라 한 백성에게 가라." 그런 다음 우리는 그들을 남김없이 멸하였다. 그리고 누흐의 백성은, 그들이 사도들을 거짓말쟁이라 하였을 때 우리가 그들을 물에 빠뜨리고 인류를 위한 징표로 삼았다.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위해 고통스러운 징벌을 마련해 두었다. 또 아드와 사무드와 랏스의 주민들, 그리고 그 사이의 많은 세대들도 그러하였다. 우리는 그들 각자에게 경고로 본보기들을 들어 주었고, 그들 각자를 완전히 멸하였다. 이 사람들은 나쁜 비가 쏟아졌던 그 고을 곁을 분명히 지나갔다.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였는가? 아니다.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너를 볼 때 너를 조롱거리로 삼을 뿐이다. "이 자가 하나님께서 사도로 보내신 사람인가? 우리가 우리의 신들을 굳게 붙들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를 그 신들에게서 거의 벗어나게 할 뻔하였다." 그들은 징벌을 볼 때, 누가 길에서 더 멀리 벗어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자기 욕망을 자기 신으로 삼은 자를 너는 보았는가? 네가 그의 수호자가 되겠는가? 아니면 너는 그들 대부분이 듣거나 이성을 쓴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가축과 같을 뿐이다. 아니, 그들은 길에서 더 멀리 벗어나 있다. (35–44)

너의 주님께서 어떻게 그림자를 길게 늘이시는지 너는 보지 않는가? 그분께서 원하셨다면, 그것을 멈추어 서 있게 하셨을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해를 그것의 길잡이로 삼았고, 그런 다음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우리 쪽으로 거두어들인다. 그분은 너희를 위해 밤을 옷으로, 잠을 쉼으로 삼으시고, 낮을 다시 일어나는 때로 삼으신 분이다. 그분은 당신의 자비에 앞서 기쁜 소식으로 바람을 보내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서 깨끗한 물을 내린다. 그것으로 죽은 땅을 살리고, 우리가 창조한 많은 가축과 사람들에게 그것을 마시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도록 이것을 그들 사이에서 여러 번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은망덕 말고는 모두 거부한다. 우리가 원하였다면, 모든 고을에 경고자를 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니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굽히지 말고, 이 꾸란으로 그들에 맞서 힘껏 분투하라. (45–52)

[32] 역사의 무대에 선 계시: 꾸란 25:32–33 에 대한 역사적·철학적·신학적 주석 – 영광스러운 꾸란과 과학

그분은 두 바다를 풀어놓으신 분이다. 하나는 달고 시원하며, 다른 하나는 짜고 쓰다. 그분은 그 둘 사이에 장벽을, 넘지 못할 칸막이를 두셨다. 그분은 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핏줄로 맺어진 친족과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을 주신 분이다.[33] 너의 주님은 늘 전능하시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에게 이로움도 해도 주지 못하는 것을 섬긴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는 늘 자기 주님께 맞서는 편에 선다. 우리는 너를 오직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요 경고하는 이로 보냈다. 말하라, "나는 이것에 대해 너희에게 아무 보수도 청하지 않는다. 다만 원하는 이가 자기 주님께로 가는 길을 택하기를 바랄 뿐이다." 결코 죽지 않으시는 살아 계신 분께 의탁하고, 그분을 찬미하며 찬양하라. 당신 종들의 죄에 밝으신 분으로는 그분으로 충분하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여섯 시대에 창조하시고, 그런 다음 권좌 위에 좌정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러니 그분에 대해 잘 아는 이에게 물어보라. 그들에게 "자비로우신 분께 엎드려 절하라." 하고 말하면, 그들은 말한다. "자비로우신 분이 무엇인가?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면 무엇에든 우리가 엎드려 절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들의 꺼림만 더할 뿐이다. 하늘에 별자리들을 두시고, 그 안에 등불과 빛을 내는 달을 두신 분은 복되시다. 그분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거나 감사하기를 원하는 이를 위해 밤과 낮이 서로 뒤를 잇게 하신 분이다.[34] (53–62)

자비로우신 분의 종들은 땅 위를 겸손하게 걷는 이들이며, 무지한 자들이 그들에게 말을 걸면 "평화" 하고 말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자기 주님 앞에서 엎드리고 서서 밤을 보내는 이들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다. "우리 주님이시여, 지옥의 징벌을 저희에게서 돌려 주소서. 참으로 그 징벌은 끊이지 않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나쁜 거처이며 나쁜 쉴 곳입니다." 그들은 쓸 때에 낭비하지도 않고 인색하지도 않으며, 그 둘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지키는 이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신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하신 생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빼앗지 않으며, 간음하지 않는 이들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죄의 값을 만나게 될 것이다. 부활의 날에 그의 징벌은 두 배가 되고, 그는 욕을 당하며 그 안에서 영원히 머물 것이다. 다만 뉘우치고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은 예외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행위를 선한 행위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늘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뉘우치고 선을 행하는 이는 참으로 뉘우치며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다. 또 그들은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이들이며, 헛된 말 곁을 지날 때에는 품위 있게 지나가는 이들이다. 그들은 자기 주님의 징표로 일깨움을 받으면,

[33]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 심오한 과학적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을 수는 없습니다. 이 구절은 다른 많은 구절과 마찬가지로 전지하신 근원이 있음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21:30 와 24:45 에서도 언급됩니다.
[34] **꾸란은 왜 한 장에 별자리의 이름을 붙였는가?**

귀먹고 눈먼 자처럼 그 앞에 쓰러지지 않는 이들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다.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의 배우자와 자손 가운데서 저희 눈의 기쁨을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본보기로 삼아 주소서.” 이들은 그 인내로 말미암아 낙원의 가장 높은 방으로 보상받을 것이며, 그곳에서 인사와 평화로 맞이받을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머문다. 얼마나 좋은 거처이며 얼마나 좋은 쉴 곳인가! 말하라, “너희의 기도가 아니라면, 나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마음을 쓰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진리를 거짓이라 하였고, 그래서 징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63–77)

# 26. 시인들 (Al-Shuʿarāʾ)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따 신 밈. 이것은 분명한 성서의 징표들이다. (1–2)

(예언자여)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슬픔으로 네 자신을 지치게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원한다면, 하늘에서 그들에게 징표를 내려보내어 그들의 목이 그 앞에 복종하여 숙여 있게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자비로우신 분에게서 새로운 일깨움이 그들에게 올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외면한다. 그들은 그것을 거짓이라 하였다. 그러니 그들이 조롱하던 것의 소식이 반드시 그들에게 올 것이다. 그들은 땅을 보지 않는가? 우리가 그 안에 온갖 고귀한 것을 얼마나 많이 자라게 하였는지를.[35] 참으로 그 안에는 징표가 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참으로 너의 주님은 전능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36] (3–9)

너의 주님께서 무사를 부르셨다. "불의를 행하는 백성, 곧 파라오의 백성에게 가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그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저는 그들이 저를 거짓말쟁이라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제 가슴은 답답해지고 제 혀는 잘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룬을 불러 주소서. 또 그들은 저에게 죄를 물을 일이 있어, 저는 그들이 저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 둘은 우리의 징표를 가지고 가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듣고 있다. 파라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우리는 만유의 주님의 사도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우리와 함께 보내십시오.'" (10–17)

파라오가 말했다. "우리가 너를 어린아이 때 우리 가운데서 길렀고, 너는 네 생애의 여러 해를 우리 가운데서 머물지 않았느냐? 그러고도 너는 네가 저지른 그 짓을 저질렀다. 너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가 말했다. "내가 그 일을 한 것은, 내가 길 잃은 이들 가운데 있었을 때였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두려워 너희에게서 달아났다. 그런 다음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나를 사도들 가운데 하나로 삼으셨다.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종으로 삼은 것, 이것이 네가 나에게 내세우는 은혜인가?" (18–22)

---

[35] **"그들은 땅을 보지 않는가?" — 꾸란 26:7 에 대한 주석**

[36] **식물계: 꾸란에 따른 하나님의 신성의 증거**
**창조하시는 분, 처음 지으시는 분, 모습을 빚으시는 분 하나님: 식물의 왕국**

파라오가 말했다. “만유의 주님이란 무엇인가?” 그가 말했다. “너희가 확신하려 한다면,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의 주님이시다.” 그는 자기 둘레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듣지 않느냐?” 그가 말했다. “너희의 주님이시며, 너희 옛 조상들의 주님이시다.” 파라오가 말했다. “너희에게 보냄받았다는 너희의 이 사도는 틀림없이 미쳤다.” 그가 말했다. “너희가 깨닫기만 한다면, 동쪽과 서쪽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의 주님이시다.” 파라오가 말했다. “네가 나 말고 다른 신을 둔다면, 나는 반드시 너를 감옥에 갇힌 자들 가운데 하나로 만들 것이다.” 그가 말했다. “내가 너에게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것을 가져온다 해도 그러하겠는가?” 파라오가 말했다. “네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져와 보라.” 그러자 그가 자기 지팡이를 던졌고, 그것은 곧 눈에 분명히 보이는 뱀이 되었다. 또 그가 자기 손을 꺼내자, 그것은 곧 보는 이들에게 하얗게 보였다. 파라오는 자기 둘레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했다. “이 자는 틀림없이 솜씨 좋은 마술사이다. 그는 자기 마술로 너희를 너희 땅에서 몰아내려 한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권하느냐?” 그들이 말했다. “그와 그의 형제를 잠시 미루어 두시고, 모으는 이들을 여러 도시로 보내시어 솜씨 좋은 마술사를 모두 당신께 데려오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마술사들은 알려진 날의 정해진 때에 모였고,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전해졌다. “너희도 모이겠느냐? 마술사들이 이기는 쪽이 된다면, 우리가 그들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23–40)

마술사들이 와서 파라오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기는 쪽이 된다면, 우리에게 상이 있겠습니까?” 그가 말했다. “그렇다. 그때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있는 이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무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던질 것을 던지라.”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의 밧줄과 지팡이를 던지며 말했다. “파라오의 위세를 두고 맹세하건대, 이기는 쪽은 바로 우리이다.” 그런 다음 무사가 자기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은 곧 그들이 거짓으로 꾸며 낸 것을 삼켜 버렸다. 그러자 마술사들은 엎드려 절하며 쓰러졌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만유의 주님, 곧 무사와 하룬의 주님을 믿습니다.” 파라오가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기도 전에 너희가 그를 믿었구나! 그는 틀림없이 너희에게 마술을 가르친 너희의 우두머리이다. 그러나 너희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손과 발을 엇갈리게 자르고, 너희를 모두 못 박아 매달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해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들 가운데 처음이 되었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41–51)

그런 다음 우리는 무사에게 계시하였다. “나의 종들과 함께 밤에 떠나라. 너희는 뒤쫓길 것이다.” 파라오는 모으는 이들을 여러 도시로 보냈다. “이들은 작은 무리일 뿐인데, 우리를 분노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경계를 늦추지 않는 큰 무리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들을 동산과 샘에서, 보물과 고귀한 거처에서 나오게 하였다. 그러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속으로 주었다. 그들은 해 뜰 무렵 그들을 뒤쫓았고, 두 무리가 서로를 보게 되었을 때 무사의 벗들이 말했다. "우리는 틀림없이 따라잡혔습니다!" 그가 말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무사에게 계시하였다. "네 지팡이로 바다를 쳐라." 그러자 바다가 갈라졌고, 갈라진 쪽마다 거대한 산과 같았다. 우리는 다른 자들을 그곳으로 가까이 오게 하였고, 무사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이를 구하였다. 그런 다음 다른 자들을 물에 빠뜨렸다. 참으로 그 안에는 징표가 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참으로 너의 주님은 전능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52–68)

그들에게 이브라힘의 이야기를 낭송해 주라. 그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무엇을 섬기는가?"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우상들을 섬기며, 계속 그것들에 매달려 있다." 그가 말했다. "너희가 부를 때 그것들이 너희의 말을 듣는가? 또는 너희에게 이로움을 주거나 해를 주는가?" 그들이 말했다.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말했다. "너희와 너희 옛 조상들이 섬겨 온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그것들은 나에게 적이다. 다만 만유의 주님은 예외이시다.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분이며, 내가 병들면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나를 죽게 하시고, 그런 다음 나를 살리실 분이며, 심판의 날에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내가 바라는 분이다. 주님이시여, 저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저를 의로운 이들과 함께 있게 하소서. 뒤에 오는 세대들 가운데서 저에게 좋은 이름을 주시고, 저를 지복의 낙원을 상속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소서.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소서. 그는 길 잃은 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으켜지는 날에 저를 욕되게 하지 마소서. 그날은 재산도 아들들도 아무 소용이 없으며, 다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는 이만은 예외입니다." (69–89)

낙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타오르는 불은 길 잃은 자들에게 훤히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말고 섬기던 것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들이 너희를 도울 수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있느냐?" 그런 다음 그들은 그 안으로 거꾸로 던져질 것이다. 그들과 길 잃은 자들과 이블리스의 군대가 모두 함께 그러할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서로 다투며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 맹세코, 우리가 너희를 만유의 주님과 같게 여겼을 때, 우리는 분명한 미혹 속에 있었다. 우리를 길 잃게 한 것은 죄지은 자들뿐이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중재해 줄 이도 없고, 다정한 벗도 없다.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믿는 자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참으로 그 안에는 징표가 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참으로 너의 주님은 전능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90–104)

누흐의 백성은 사도들을 거짓말쟁이라 하였다. 그들의 형제 누흐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나는 너희에게 믿을 만한 사도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에게 순종하라. 나는 이것에 대해 너희에게 아무 보수도 청하지 않는다. 나의 보수는 오직 만유의 주님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에게 순종하라." 그들이 말했다. "가장 비천한 자들이 당신을 따르는데, 우리가 당신을 믿겠는가?" 그가 말했다. "그들이 해 온 일에 대해 내가 무엇을 알겠는가? 너희가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그들의 셈은 오직 나의 주님께 있다. 나는 믿는 이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나는 분명한 경고자일 뿐이다." 그들이 말했다. "누흐여, 당신이 그만두지 않으면, 당신은 틀림없이 돌에 맞을 것이다." 그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제 백성이 저를 거짓말쟁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저와 그들 사이를 확실하게 판결해 주시고, 저와 저와 함께 있는 믿는 이들을 구해 주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와 그와 함께 가득 실린 배에 있던 이들을 구하였고, 그 뒤에 나머지를 물에 빠뜨렸다. 참으로 그 안에는 징표가 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참으로 너의 주님은 전능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105–122)

아드의 백성은 사도들을 거짓말쟁이라 하였다. 그들의 형제 후드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나는 너희에게 믿을 만한 사도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에게 순종하라. 나는 이것에 대해 너희에게 아무 보수도 청하지 않는다. 나의 보수는 오직 만유의 주님께 있다. 너희는 재미 삼아 높은 곳마다 기념물을 짓고, 영원히 살 것처럼 요새들을 세우는가? 그리고 너희는 붙잡을 때에 폭군처럼 붙잡는가?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에게 순종하라. 너희가 아는 모든 것으로 너희를 도우신 분을 경외하라. 그분은 가축과 아들들로, 동산과 샘들로 너희를 도우셨다. 나는 너희에게 엄청난 날의 징벌이 닥칠까 두렵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이 훈계하든 훈계하는 자들 가운데 있지 않든,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옛사람들의 방식일 뿐이며, 우리는 징벌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를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우리는 그들을 멸하였다. 참으로 그 안에는 징표가 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참으로 너의 주님은 전능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123–140)

사무드의 백성은 사도들을 거짓말쟁이라 하였다. 그들의 형제 살리흐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나는 너희에게 믿을 만한 사도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에게 순종하라. 나는 이것에 대해 너희에게 아무 보수도 청하지 않는다. 나의 보수는 오직 만유의 주님께 있다. 너희는 여기에 있는 것들 속에서, 동산과 샘들과 곡식밭과 꽃대가 여린 대추야자나무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내버려질 것 같은가? 또 너희는 큰 솜씨로 산을 깎아 집을 만든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모든 한계를 넘는 자들의 명령에 순종하지 말라. 그들은 땅에서 부패를 퍼뜨리고

바로잡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은 마술에 걸린 자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당신은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징표를 가져와 보라." 그가 말했다. "여기 암낙타가 있다. 정해진 날에 따라 이 암낙타에게 물 마실 차례가 있고, 너희에게도 물 마실 차례가 있다. 그것에 해를 끼치지 말라. 그러면 엄청난 날의 징벌이 너희를 붙잡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다리 힘줄을 끊었고, 그런 다음 후회하게 되었다. 징벌이 그들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 안에는 징표가 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참으로 너의 주님은 전능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141–159)

루뜨의 백성은 사도들을 거짓말쟁이라 하였다. 그들의 형제 루뜨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나는 너희에게 믿을 만한 사도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에게 순종하라. 나는 이것에 대해 너희에게 아무 보수도 청하지 않는다. 나의 보수는 오직 만유의 주님께 있다. 너희는 세상의 모든 존재 가운데 남자들에게 다가가고, 너희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창조하신 너희의 아내들은 버려두는가? 아니다. 너희는 한계를 넘는 백성이다." 그들이 말했다. "루뜨여, 당신이 그만두지 않으면, 당신은 틀림없이 쫓겨날 것이다." 그가 말했다. "나는 너희가 하는 짓을 몹시 싫어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이다. 주님이시여, 저와 제 가족을 그들이 하는 짓에서 구해 주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와 그의 가족을 모두 구하였다. 다만 뒤에 남은 한 늙은 여자는 예외였다. 그런 다음 우리는 나머지를 멸하였고, 그들 위에 비를 쏟아부었다. 경고를 받았던 자들에게 내린 그 비는 얼마나 나빴는가! 참으로 그 안에는 징표가 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참으로 너의 주님은 전능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160–175)

숲의 주민들은 사도들을 거짓말쟁이라 하였다. 슈아이브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나는 너희에게 믿을 만한 사도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에게 순종하라. 나는 이것에 대해 너희에게 아무 보수도 청하지 않는다. 나의 보수는 오직 만유의 주님께 있다. 되를 가득 채워 주고, 손해를 끼치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 정직한 저울로 달고, 사람들의 것을 깎지 말며, 땅을 돌아다니며 부패를 퍼뜨리지 말라. 너희와 옛 세대들을 창조하신 분을 경외하라." 그들이 말했다. "당신은 마술에 걸린 자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당신은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이며, 우리는 당신이 거짓말쟁이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하늘의 한 조각을 우리 위에 떨어뜨려 보라." 그가 말했다. "너희가 하는 일은 나의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를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그늘의 날의 징벌이 그들을 붙잡았다. 그것은 엄청난 날의 징벌이었다. 참으로 그 안에는 징표가 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참으로 너의 주님은 전능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176–191)

참으로 이것은 만유의 주님에게서 내려온 것이다. (예언자여) 믿음직한 영이 그것을 네 마음 위에 가지고 내려왔다. 네가 경고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분명한 아랍어로 내려왔다. 참으로 그것은 이전 사람들의 경전들 안에도 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학식 있는 이들이 그것을 안다는 것이 그들에게 징표가 되지 않는가? 우리가 그것을 아랍인이 아닌 어떤 이에게 내려, 그가 그것을 그들에게 낭송해 주었다 해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그것이 죄지은 자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게 하였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징벌을 볼 때까지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고, 그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미가 주어지겠는가?"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의 징벌을 서둘러 달라고 하는가? 너는 생각해 보았는가?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 해 동안 삶을 누리게 하였다가, 그런 다음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 그들에게 닥친다면, 그들이 누리도록 받았던 모든 것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는 어떤 고을이든, 일깨움으로 경고자들이 있지 않고서는 멸하지 않았다. 우리는 결코 불의하지 않다. (192–209)

그것을 가지고 내려온 것은 사탄들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으며, 그들은 그럴 수도 없다. 그들은 그것을 듣는 일에서 멀리 쫓겨나 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신을 부르지 말라. 그러면 너는 징벌받는 자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너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경고하고, 너를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네 날개를 낮추라. 그들이 너에게 거역한다면 이렇게 말하라. "나는 너희가 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전능하시고 자애로우신 분께 의탁하라. 그분은 네가 예배하러 설 때에도 너를 보시고, 엎드려 절하는 이들 가운데서 네가 움직이는 것도 보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사탄들이 누구에게 내려오는지 내가 너희에게 알려 줄까? 그들은 거짓말하는 모든 죄인에게 내려온다. 그들은 자기들이 들은 것을 전해 주는데, 그들 대부분은 거짓말쟁이이다. 그리고 시인들은, 길 잃은 자들이 그들을 따른다. 그들이 온갖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며, 자기들이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너는 보지 않는가? 다만 믿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많이 기억하고, 불의를 당한 뒤에 스스로를 지키는 이들은 예외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어떤 뒤집힘으로 뒤집히게 될지 곧 알게 될 것이다. (210–227)

# 27. 개미 (Al-Naml)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따 신. 이것은 꾸란, 곧 분명한 성서의 징표들이며, 믿는 자들을 위한 인도요 기쁜 소식이다. 그들은 예배를 지키고 정해진 희사를 바치며, 내세를 확신하는 이들이다.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의 행위를 좋아 보이게 꾸며 주었고, 그래서 그들은 눈먼 채 헤맨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나쁜 징벌을 받을 자들이며, 내세에서 가장 크게 잃는 자들이다. (예언자여) 참으로 너는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에게서 꾸란을 받는다. (1–6)

무사가 자기 가족에게 말했다. "내가 불을 보았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에게 소식을 가져오거나, 너희가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타는 불씨를 가져오겠다." 그가 그곳에 이르자 부르는 소리가 있었다. "불 속에 있는 이와 그 둘레에 있는 이는 복되다!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무사야, 참으로 나는 전능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이다. 네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나 그는 그것이 뱀처럼 꿈틀거리는 것을 보자, 돌아서서 달아나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무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들은 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불의를 행하였다가 그런 다음 악을 선으로 바꾼 이는 예외이니, 나는 너그러이 용서하고 자애로운 이이다. 네 손을 네 옷깃 안에 넣어라. 그것이 아무 해도 없이 하얗게 되어 나올 것이다. 이것은 파라오와 그의 백성에게 보내는 아홉 징표 가운데 하나이다. 그들은 거역을 일삼는 백성이다." (7–12)

그러나 우리의 징표가 눈을 뜨게 할 만큼 분명하게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이것은 분명한 마술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의 영혼은 그것을 확신하였는데도, 그들은 불의와 교만으로 그것을 부정하였다. 그러니 부패를 퍼뜨리던 자들의 끝이 어떠하였는지 보라. (13–14)

우리는 다우드와 술라이만에게 지식을 주었다. 그들은 말했다. "당신의 믿는 종들 가운데 많은 이들보다 우리를 낫게 하신 하나님께 찬미가 있다." 술라이만이 다우드의 뒤를 이었다. 그가 말했다. "사람들아, 우리는 새들의 말을 배웠고, 모든 것 가운데서 받았다. 이것은 참으로 분명한 은총이다." 진과 사람과 새들로 이루어진 술라이만의 군대가 그 앞에 모였고, 질서 있게 줄지어 섰다. 마침내 그들이 개미들의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한 개미가 말했다. "개미들아, 너희 집으로 들어가라. 술라이만과 그의 군대가 알지도 못한 채 너희를 밟아 뭉개지 않도록 하라." 그는 그 말에 웃으며 미소 짓고 말했다.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저와 제 부모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저를 일깨워 주소서. 그리고 당신의 자비로 저를 당신의 의로운 종들 가운데 들게 하소서." (15–19)

술라이만이 새들을 살펴보고 말했다. "어찌하여 후투티가 보이지 않는가? 아니면 그가 자리에 없는 자들 가운데 있는가? 그가 나에게 분명한 까닭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나는 반드시 그를 혹독하게 벌하거나 그를 잡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후투티는 오래 지체하지 않았다. 그가 와서 말했다. "저는 당신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사바에서 확실한 소식을 가지고 당신께 왔습니다. 저는 한 여인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모든 것 가운데서 받았고, 장엄한 왕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여인과 그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해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탄이 그들의 행위를 그들에게 좋아 보이게 꾸며 그들을 길에서 막았고, 그래서 그들은 인도받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고, 너희가 감추는 것과 드러내는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분 말고는 신이 없으며, 그분은 장엄한 권좌의 주님이십니다." 술라이만이 말했다. "네가 진실을 말하였는지, 아니면 거짓말쟁이들 가운데 하나인지 우리가 보겠다. 나의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하고, 그런 다음 그들에게서 물러나 그들이 무슨 답을 돌려보내는지 보라." (20–28)

여왕이 말했다. "우두머리들이여, 고귀한 편지가 나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술라이만에게서 온 것이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맞서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 귀의한 이로서 나에게 오라.'" 그 여자가 말했다. "우두머리들이여, 나의 이 일에 대해 나에게 조언해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내 곁에 있기 전에는 어떤 일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힘이 있고 싸움에서 큰 용맹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명령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명하실지 살펴보십시오." 그 여자가 말했다. "왕들이 어떤 고을에 들어가면 그곳을 망치고, 그 주민들 가운데 가장 강한 이들을 가장 비천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사절들이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는지 보겠습니다." (29–35)

그 여자의 사절이 술라이만에게 오자 그가 말했다. "너희가 나에게 재산을 보태 주려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보다 더 좋다. 아니다. 너희의 선물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너희이다. 그들에게 돌아가라. 우리는 그들이 맞설 수 없는 군대를 이끌고 반드시 그들에게 갈 것이며, 그들을 비천하고 낮아진 채로 그곳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가 말했다. "우두머리들이여, 그들이 하나님께 귀의한 이로서 나에게

오기 전에, 너희 가운데 누가 그 여인의 왕좌를 나에게 가져오겠는가?" 진 가운데 힘센 자가 말했다. "당신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제가 그것을 당신께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할 힘이 있고, 믿을 만합니다." 성서의 지식을 가진 이가 말했다. "당신의 눈길이 당신께 되돌아오기 전에 제가 그것을 당신께 가져오겠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기 앞에 놓인 것을 보고 말했다. "이것은 나의 주님의 은총이다. 내가 감사하는지 은혜를 모르는지 나를 시험하시려는 것이다. 감사하는 이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감사하는 것이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다 해도, 나의 주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지극히 너그러우신 분이다." 그가 말했다. "그 여인을 위해 그 왕좌를 알아보지 못하게 바꾸어 놓으라. 그 여인이 인도받는지, 아니면 인도받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인지 우리가 보겠다." 그 여자가 오자 이런 물음을 받았다. "당신의 왕좌가 이와 같습니까?" 그 여자가 말했다. "마치 바로 그것인 듯합니다." 술라이만이 말했다. "우리는 그 여인보다 앞서 지식을 받았고, 하나님께 귀의하였다." 그러나 그 여자가 하나님 말고 섬기던 것이 그 여자를 막고 있었다. 그 여자는 진리를 부정하는 백성에게서 왔기 때문이다. 그 여자에게 이런 말이 전해졌다. "궁전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여자는 그것을 보고 물웅덩이로 여겨 다리를 걷어 올렸다. 그가 말했다. "이것은 유리로 매끄럽게 깔아 놓은 궁전입니다." 그 여자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저는 저 자신에게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저는 술라이만과 함께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귀의합니다." (36–44)

사무드에게는 우리가 그들의 형제 살리흐를 보냈다.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자 곧 그들은 서로 다투는 두 무리가 되었다. 그가 말했다. "나의 백성이여, 어찌하여 너희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먼저 서둘러 달라고 하는가? 어찌하여 너희는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가?"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당신과 당신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서 불길한 조짐을 본다." 그가 말했다. "너희의 조짐은 하나님 곁에 있다. 아니다. 너희는 시험받고 있는 백성이다." 그 도시에는 땅에서 부패를 퍼뜨리고 바로잡지 않는 아홉 사람이 있었다. 그들이 말했다. "서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자. 우리가 밤에 그와 그의 가족을 덮치고, 그런 다음 그의 가까운 친족에게 '우리는 그의 가족이 멸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하고 말하자." 그들은 계략을 꾸몄고, 우리도 계략을 꾸몄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그러니 그들의 계략의 끝이 어떠하였는지 보라.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백성을 모두 함께 멸하였다. 저기 그들의 집들이, 그들이 저지른 불의 때문에 폐허가 되어 무너져 있다. 참으로 그 안에는 아는 백성을 위한 징표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들을 구하였다. (45–53)

그리고 루뜨를 기억하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눈을 뜬 채 그 추한 짓을 저지르는가? 너희는 여자들을 두고 욕정으로 남자들에게 다가가는가? 아니다. 너희는 무지하게 구는 백성이다.” 그의 백성의 대답은 오직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었다. “루뜨의 집안을 너희 고을에서 쫓아내라. 그들은 깨끗한 체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그의 가족을 구하였다. 다만 그의 아내는 예외였으니, 우리는 그 여자가 뒤에 남는 자들 가운데 있도록 정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위에 비를 쏟아부었다. 경고를 받았던 자들에게 내린 그 비는 얼마나 나빴는가! (54–58)

(예언자여) 말하라, “하나님께 찬미가 있고, 그분께서 택하신 당신의 종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나님이 더 나으신가, 아니면 그들이 동반자로 두는 것들이 더 나은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물을 내리신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는 그것으로 아름다움이 가득한 동산들을 자라게 한다. 너희는 그 나무들을 결코 자라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신이 있는가? 아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벗어나는 백성이다. 땅을 든든한 거처로 만드시고, 그 안에 강들을 두시며, 그 위에 굳건한 산들을 놓으시고, 두 바다 사이에 장벽을 두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신이 있는가? 아니다. 그들 대부분은 알지 못한다. 곤경에 빠진 이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해를 거두어 주시며, 너희를 땅의 후계자로 삼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신이 있는가? 너희는 참으로 조금밖에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 뭍과 바다의 어둠 속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자비에 앞서 기쁜 소식으로 바람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신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들이 동반자로 두는 것보다 훨씬 높이 계신다. 창조를 처음 시작하시고 그런 다음 그것을 되풀이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신이 있는가? 말하라, “너희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너희의 증거를 가져오라.” (59–64)

말하라, “하늘과 땅에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언제 다시 일으켜질지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아니다. 그들의 지식은 내세에 미치지 못한다. 아니, 그들은 그것에 대해 의심 속에 있다. 아니, 그들은 그것에 눈멀어 있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말한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흙이 된 뒤에, 정말로 다시 꺼내어진단 말인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은 전에도 이것을 약속받았다. 이것은 옛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말하라, “땅을 다니며 죄지은 자들의 끝이 어떠하였는지 보라.” 그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그들이 꾸미는 계략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말한다. “너희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말하라, “너희가 서둘러 달라고 하는 것의 일부가 너희 바로 뒤에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른다.” 참으로 너의 주님은 사람들에게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감사하지 않는다. 참으로 너의 주님은 그들의 가슴이 감추는 것과 그들이 드러내는 것을 아신다. 하늘과 땅에 숨겨진 것 가운데 분명한 책 안에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65–75)

참으로 이 꾸란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서로 달리하는 것의 대부분을 들려준다. 참으로 그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인도요 자비이다. 참으로 너의 주님께서는 당신의 판결로 그들 사이를 판가름하실 것이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의탁하라. 너는 분명한 진리 위에 서 있다. 너는 죽은 이들을 듣게 할 수 없고, 귀먹은 자들이 등을 돌려 가 버릴 때 그들이 부름을 듣게 할 수도 없다. 너는 눈먼 자들을 그들의 미혹에서 인도해 낼 수도 없다. 너는 우리의 징표를 믿고 그리하여 귀의한 이들 말고는 아무도 듣게 할 수 없다. 그들에게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땅에서 한 짐승을 꺼낼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의 징표를 확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의 징표를 거짓이라 한 자들의 무리를 모으는 날, 그들은 줄지어 세워질 것이다. 마침내 그들이 오면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는 나의 징표를 지식으로 다 헤아리지도 못한 채 그것을 거짓이라 하였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저지른 불의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들은 말하지 못할 것이다. (76–85)

우리가 밤을 그들이 그 안에서 쉬도록 만들고, 낮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만들었음을 그들은 보지 않았는가? 참으로 그 안에는 믿는 백성을 위한 징표들이 있다. 나팔이 불리는 날, 하늘에 있는 모든 이와 땅에 있는 모든 이가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들은 예외이다. 그리고 모두가 스스로를 낮추고 그분께 올 것이다. 너는 산들을 보고 그것이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구름이 지나가듯이 지나갈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솜씨이다. 그분은 너희가 하는 일에 밝으시다. 선한 행위를 가지고 오는 이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그들은 그날의 공포에서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행위를 가지고 오는 자들은 얼굴을 아래로 한 채 불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던 일 말고 다른 것으로 보답받느냐?" "나는 다만 이 도시의 주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이다. 그분은 이곳을 신성하게 하셨고,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귀의하는 이들 가운데 있으라는 명령과, 꾸란을 낭송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 인도받는 이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인도받는 것이다. 길을 잃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하라. "나는 경고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말하라, "하나님께 찬미가 있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당신의 징표들을 보여 주실 것이며, 너희는 그것들을 알아볼 것이다. 너의 주님은 너희가 하는 일에 무심하지 않으시다." (86–93)

# 28. 이야기 (Al-Qaṣaṣ)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따 신 밈. 이것은 분명한 성서의 징표들이다. (예언자여) 우리는 믿는 백성을 위해, 무사와 파라오의 이야기 가운데 얼마를 진리로 너에게 낭송해 준다. 파라오는 그 땅에서 스스로를 높이고 그 백성을 여러 무리로 갈라놓았으며, 그 가운데 한 무리를 억눌러 그들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들의 여자들은 살려 두었다. 그는 부패를 퍼뜨리는 자들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는 그 땅에서 억눌린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지도자로 삼으며, 그들을 상속자로 삼고, 그들을 그 땅에 자리 잡게 하기를 원하였다. 또 파라오와 하만과 그들의 군대에게, 그들이 두려워하던 바로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보게 하기를 원하였다. (1–6)

우리는 무사의 어머니에게 영감으로 일러 주었다. "그에게 젖을 먹이라. 그런 다음 그가 걱정되거든 그를 강에 띄워 보내고, 두려워하지도 슬퍼하지도 말라. 우리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고, 그를 사도들 가운데 하나로 삼을 것이다." 그러자 파라오의 집안이 그를 주워 올렸다. 그가 그들에게 적이 되고 슬픔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참으로 파라오와 하만과 그들의 군대는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이었다. 파라오의 아내가 말했다.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눈의 기쁨입니다! 그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이로움을 줄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를 아들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무사의 어머니의 마음은 다른 모든 것이 비어 버렸다. 우리가 그 여자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믿는 이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지 않았다면, 그 여자는 그의 일을 거의 드러낼 뻔하였다. 그 여자가 그의 누이에게 말했다. "그를 따라가 보아라." 그래서 그 누이는 멀찍이서 그를 지켜보았고,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가 젖어미들을 거부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 누이가 말했다. "여러분을 위해 그를 길러 주고 그를 잘 돌보아 줄 집안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 드릴까요?" 그리하여 우리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어, 그 여자의 눈이 위로를 얻고 슬퍼하지 않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참됨을 그 여자가 알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알지 못한다. (7–13)

그가 장성하여 한창때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에게 판단력과 지식을 주었다. 이처럼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보상한다. 그는 그 도시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때에 그곳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았다. 한 사람은 그의 무리에 속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적들에 속하였다. 그의 무리에 속한 이가 그의 적에 속한 자에 맞서 그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무사는 주먹으로 그를 쳐서 그의 숨을 끊어 놓았다. 그가 말했다. "이것은 사탄의 짓이다. 그는 분명히 길 잃게 하는 적이다." 그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저는 저 자신에게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소서." 그러자 그분께서 그를 용서하셨다. 그분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그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저는 결코 죄지은 자들을 돕는 이가 되지 않겠습니다." (14–17)

이튿날 아침 그는 두려워하며 살피면서 그 도시에 있었다. 그런데 전날 그에게 도움을 청하였던 그 사람이 다시 그에게 소리쳐 도움을 청하였다. 무사가 그에게 말했다. "너는 분명히 말썽꾼이로구나." 그러나 그가 두 사람 모두의 적인 자를 붙잡으려 하자, 그 사람이 말했다. "무사여, 당신은 어제 한 사람을 죽였듯이 나를 죽이려 합니까? 당신은 이 땅에서 폭군이 되려 할 뿐, 바로잡는 이들 가운데 하나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도시의 먼 끝에서 달려와 말했다. "무사여, 우두머리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떠나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조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두려워하며 살피면서 그곳을 떠났고, 이렇게 말했다. "주님이시여, 불의를 행하는 백성에게서 저를 구해 주소서." (18–21)

그가 마드얀 쪽으로 얼굴을 돌렸을 때 말했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지도 모른다." 그가 마드얀의 물가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에게서 떨어져 자기들의 가축을 붙들어 두고 있는 두 여인을 보았다. 그가 말했다. "두 분은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목자들이 가축을 몰고 떠날 때까지 우리는 물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매우 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위해 가축에게 물을 먹여 주고, 그런 다음 그늘로 물러나 말했다.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저에게 내려 주시는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저에게는 절실합니다." 그런 다음 두 여인 가운데 하나가 수줍게 걸어 그에게 와서 말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물을 먹여 주신 것에 대해 보답하려고,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가 그에게 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가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는 불의를 행하는 백성에게서 벗어났소." 두 여인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아버지, 그를 품꾼으로 쓰십시오. 아버지께서 쓰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은 힘세고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그대가 여덟 해 동안 나를 위해 일한다는 조건으로, 나의 이 두 딸 가운데 하나를 그대와 혼인시키고 싶소. 그대가 열 해를 채운다면, 그것은 그대의 뜻에 달린 일이오. 나는 그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대는 내가 의로운 이들 가운데 하나임을 보게 될 것이오." 그가 말했다. "그것은 저와 당신 사이에 정해진 일입니다. 두 기한 가운데 어느 것을 채우든, 저에게 부당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의 증인이십니다." (22–28)

무사가 그 기한을 채우고 자기 가족과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는 산 쪽에서 불을 보았다. 그가 자기 가족에게 말했다.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불을 보았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에게 소식을 가져오거나, 너희가 몸을 녹일 수 있도록 그 불에서 불씨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그가 그곳에 이르자, 골짜기의 오른쪽, 복된 자리에 있는 나무에서 부르는 소리가 있었다. "무사야, 참으로 나는 만유의 주님 하나님이다. 네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나 그는 그것이 뱀처럼 꿈틀거리는 것을 보자, 돌아서서 달아나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무사야, 앞으로 나오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안전하다. 네 손을 네 옷깃 안에 넣어라. 그것이 아무 해도 없이 하얗게 되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을 가라앉히도록 네 팔을 네 몸에 바짝 붙여라. 이것들은 파라오와 그의 우두머리들에게 보내는 네 주님의 두 증거이다. 그들은 거역을 일삼는 백성이다." 그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저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저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제 형제 하룬은 저보다 말솜씨가 좋습니다. 그러니 그를 저를 뒷받침해 줄 돕는 이로 저와 함께 보내 주소서. 저는 그들이 저를 거짓말쟁이라 할까 두렵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네 형제로 네 팔을 굳세게 하고, 너희 둘에게 권위를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에게 닿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징표로, 너희 둘과 너희를 따르는 이들이 이기는 이들이 될 것이다." (29–35)

그러나 무사가 우리의 분명한 징표를 가지고 그들에게 오자, 그들이 말했다. "이것은 지어낸 마술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 옛 조상들 가운데서 이런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 무사가 말했다. "누가 그분에게서 인도를 가지고 왔는지, 마지막 집이 누구의 것이 될지는 나의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 참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번영하지 못한다." 파라오가 말했다. "우두머리들이여, 나는 너희에게 나 말고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하만이여, 나를 위해 진흙에 불을 지펴 구우고, 나에게 높은 탑을 지어 다오. 내가 무사의 신에게로 올라가 볼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가 거짓말쟁이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36–38)

그와 그의 군대는 그 땅에서 아무 권리도 없이 교만하게 굴었고, 자기들이 우리에게로 되돌려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그의 군대를 붙잡아 바다에 던져 넣었다. 그러니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끝이 어떠하였는지 보라. 우리는 그들을 불지옥으로 부르는 지도자로 만들었고, 부활의 날에 그들은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주가 그들을 뒤따르게 하였고, 부활의 날에 그들은 멸시받는 자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전 세대들을 멸한 뒤에 무사에게 성서를 주었다. 그것은 사람들을 위한 분명한 통찰이요, 인도요 자비였다. 그들이 마음에 새기게 하려는 것이었다. (39–43)

(무함마드여) 우리가 무사에게 그 일을 정해 주었을 때 너는 서쪽 기슭에 있지 않았고, 지켜본 이들 가운데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세대를 일으켰고, 그들의 세월은 길었다. 또 너는 마드얀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징표를 낭송해 주지도 않았다. 그러나 사도들을 보낸 것은 우리이다. 또 우리가 불렀을 때 너는 산기슭에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너의 주님에게서 오는 자비이다. 너 이전에 경고자가 온 적이 없는 백성에게 네가 경고하여 그들이 마음에 새기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두 손이 앞서 보낸 것 때문에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 때, 그들이 "우리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저희에게 사도를 보내 주셨더라면, 저희가 당신의 징표를 따르고 믿는 자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에게서 진리가 그들에게 오자, 그들은 말한다. "어찌하여 그는 무사가 받은 것과 같은 것을 받지 못하였는가?" 그들은 전에 무사가 받은 것도 부정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말한다. "서로를 떠받치는 두 가지 마술이다." 또 말한다. "우리는 그 둘을 모두 부정한다." 말하라, "그러면 너희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이 둘보다 더 잘 인도하는 성서를 하나님에게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 그들이 너에게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오직 자기 욕망을 따를 뿐임을 알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인도 없이 자기 욕망을 따르는 자보다 더 길을 잃은 자가 누구인가? 참으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44–50)

우리는 그들이 마음에 새기도록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게 하였다. 우리가 그것 이전에 성서를 준 이들은 그것을 믿는다. 그것이 그들에게 낭송되면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그것은 우리 주님에게서 온 진리이다. 그것 이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귀의하였다." 이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두 번 받을 것이다. 그들이 인내하며 견뎠고, 악을 선으로 물리치며, 우리가 그들에게 베푼 것 가운데서 쓰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헛된 말을 들으면 그것에서 돌아서며 말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행위가 있고, 너희에게는 너희의 행위가 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우리는 무지한 자들을 찾지 않는다." (51–55)

(예언자여) 너는 네가 사랑하는 이를 누구나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이를 인도하시며, 인도받는 이들을 가장 잘 아신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인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 땅에서 채여 갈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안전한 성역을 세워 주지 않았는가? 온갖 열매가 우리에게서 오는 양식으로 그곳으로 실려 온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알지 못한다. 자기 살림을 뽐내던 고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멸하였는가! 저기 그들의 거처가 있는데, 그들 뒤에는 조금밖에 사람이 살지 않았다. 상속한 것은 우리였다. 너의 주님은 고을들의 어머니가 되는 곳에 사도를 일으켜 그들에게 우리의 징표를 낭송해 주게 하기 전에는, 결코 고을들을 멸하지

않으신다. 또 우리는 그 주민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면 고을들을 멸하지 않는다. 너희가 받은 것은 무엇이든 현세의 삶의 즐거움과 그 꾸밈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더 좋고 더 오래간다. 그런데도 너희는 깨닫지 않는가? (56–60)

우리가 좋은 약속을 해 주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이가, 우리가 현세의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었으나 부활의 날에 심판을 받으러 끌려 나오는 자들 가운데 있게 될 자와 같겠는가? 그분께서 그들을 불러 "너희가 주장하던 나의 동반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날, 말씀이 이루어질 자들이 말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시여, 이들이 저희가 길 잃게 한 자들입니다. 저희 자신이 길을 잃었듯이 저희가 그들을 길 잃게 하였습니다. 저희는 당신 앞에서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그들이 섬긴 것은 저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을 것이다. "너희의 동반자들을 불러 보라!" 그들은 그것들을 부르겠지만, 그것들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징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인도받았더라면! 그분께서 그들을 불러 "너희는 사도들에게 무슨 대답을 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날, 그날 모든 소식이 그들에게 캄캄해질 것이며, 그들은 서로 묻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뉘우치고 믿고 선을 행하는 이는 번영하는 이들 가운데 있게 될지도 모른다. 너의 주님은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 창조하시고 택하신다. 택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그분은 그들이 동반자로 두는 것보다 훨씬 높이 계신다. 너의 주님은 그들의 가슴이 감추는 것과 그들이 드러내는 것을 아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 말고는 신이 없다. 이 세상에서도 내세에서도 찬미는 그분께 있다. 판결은 그분의 것이며, 너희는 그분께로 되돌려질 것이다. (61–70)

(예언자여) 말하라, "너희는 생각해 보았는가? 하나님께서 부활의 날까지 너희 위에 밤을 끝없이 이어지게 하신다면, 하나님 말고 어떤 신이 너희에게 빛을 가져다줄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너희는 듣지 않는가?" 말하라, "너희는 생각해 보았는가? 하나님께서 부활의 날까지 너희 위에 낮을 끝없이 이어지게 하신다면, 하나님 말고 어떤 신이 너희가 그 안에서 쉴 밤을 가져다줄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너희는 보지 않는가?"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밤과 낮을 만드신 것은 그분의 자비에서 나온 것이다. 너희가 밤에는 쉬고 낮에는 그분의 은총을 구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너희가 감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께서 그들을 불러 "너희가 주장하던 나의 동반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날, 우리는 모든 공동체에서 증인을 한 사람씩 끌어내어 말할 것이다. "너희의 증거를 가져오라." 그때 그들은 진리가 하나님께 속함을 알게 될 것이며, 그들이 지어내던 모든 것은 그들을 저버릴 것이다. (71–75)

까룬은 무사의 백성 가운데 하나였으나, 그들을 억눌렀다. 우리는 그에게 보물을 주었는데, 그 열쇠들만으로도 힘센 사람들의 무리가 짓눌릴 만큼이었다. 그의 백성이 그에게 말했다. "우쭐대지 말라. 하나님은 우쭐대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으로 내세의 집을 구하라. 그러나 이 세상에서 네 몫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잘해 주셨듯이 너도 선을 행하고, 이 땅에서 부패를 구하지 말라. 하나님은 부패를 퍼뜨리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가 말했다. "나는 오직 내가 지닌 지식 때문에 이것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그보다 더 강하고 모은 것이 더 많았던 세대들을 멸하셨음을 그는 알지 못하였는가? 죄지은 자들은 자기 죄에 대해 물음을 받지도 않는다. 그리하여 그는 화려하게 꾸미고 자기 백성 앞에 나왔다. 현세의 삶을 원하는 자들이 말했다. "까룬이 받은 것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그는 참으로 큰 복을 지닌 사람이다." 그러나 지식을 받은 이들이 말했다. "너희에게 화가 있으라! 믿고 선을 행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더 좋다. 그리고 인내하는 이들 말고는 아무도 그것을 얻지 못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땅이 그와 그의 집을 삼키게 하였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맞서 그를 도울 무리가 없었고, 그는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자들 가운데 있지도 않았다. 바로 전날까지 그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던 자들이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 가운데 원하시는 이에게 양식을 넉넉히 주시기도 하고, 헤아려 주시기도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땅이 우리도 삼키게 하셨을 것이다. 아!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번영하지 못하는구나." (76–82)

저 내세의 집은, 이 땅에서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않고 부패를 퍼뜨리려 하지도 않는 이들에게 우리가 준다.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것이다. 선한 행위를 가지고 오는 이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악한 행위를 가지고 오는 자가 있다면, 악한 행위를 한 자들은 오직 자기들이 한 대로만 보답받을 것이다. 너에게 꾸란을 의무로 지우신 분께서 반드시 너를 돌아갈 곳으로 되돌려 놓으실 것이다. 말하라, "누가 인도를 가지고 왔는지, 누가 분명한 미혹 속에 있는지는 나의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 너는 이 성서가 너에게 전해지리라고 기대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오직 너의 주님에게서 오는 자비였다. 그러니 결코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돕는 이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징표가 너에게 내려진 뒤에, 그들이 결코 너를 그것에서 돌려세우지 못하게 하라. 너의 주님께로 부르고, 그분께 동반자를 두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신을 부르지 말라. 그분 말고는 신이 없다. 그분의 얼굴 말고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 판결은 그분의 것이며, 너희는 그분께로 되돌려질 것이다. (83–88)

# 29. 거미 (Al-ʿAnkabūt)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리프 람 밈. 사람들은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지고 시험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그들 이전의 사람들을 시험하였다. 하나님은 진실한 이들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거짓말쟁이들도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다. 아니면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우리를 앞질러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의 판단은 얼마나 나쁜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은 반드시 온다.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분투하는 이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분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다.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은, 우리가 반드시 그들의 악한 행위를 그들에게서 지워 주고, 그들이 한 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에 따라 그들에게 보상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에게 자기 부모에게 잘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네가 아무 지식도 없는 것을 나의 동반자로 두게 하려고 애쓴다면, 그들에게 순종하지 말라. 너희의 귀착지는 나에게 있으며, 나는 너희가 하던 일을 너희에게 알려 줄 것이다.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은, 우리가 반드시 그들을 의로운 이들 가운데 들게 할 것이다. (1–9)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해를 입으면, 사람들의 박해를 하나님의 징벌처럼 여긴다. 그런데도 너의 주님에게서 도움이 오면, 그들은 틀림없이 말한다. "우리는 줄곧 너희와 함께 있었다." 모든 존재의 가슴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믿는 이들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위선자들도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믿는 이들에게 말한다. "우리의 길을 따르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의 죄를 지겠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아무것도 지지 못한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이다. 그들은 반드시 자기들의 짐을 지고, 자기들의 짐과 함께 다른 짐들도 질 것이다. 그리고 부활의 날에 그들은 자기들이 지어내던 것에 대해 반드시 물음을 받을 것이다. (10–13)

우리는 누흐를 그의 백성에게 보냈고, 그는 그들 가운데서 쉰 해가 모자라는 천 년을 머물렀다. 그런 다음 그들이 불의를 고집하는 동안에 홍수가 그들을 덮쳤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배에 있던 이들을 구하였고, 그것을 온 세상을 위한 징표로 삼았다. (14–15)

그리고 이브라힘을 기억하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말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라. 너희가 알기만 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 너희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들을 섬길 뿐이며, 거짓을 지어내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것들은

너희에게 양식을 줄 힘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양식을 구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감사하라. 너희는 그분께로 되돌려질 것이다. 너희가 이 전언을 거짓이라 한다 해도, 너희 이전의 공동체들도 그것을 거짓이라 하였다. 사도의 의무는 오직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다." (16–18)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처음 시작하시고, 그런 다음 그것을 되풀이하시는지 보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참으로 쉬운 일이다. 말하라, "땅을 다니며 그분께서 어떻게 창조를 처음 시작하셨는지 보라.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나중의 생겨남을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그분은 원하시는 자를 징벌하시고 원하시는 이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너희는 그분께로 되돌려질 것이다. 너희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분에게서 벗어날 수 없으며, 너희에게는 하나님 말고 보호자도 돕는 이도 없다." 하나님의 징표와 그분과의 만남을 부정하는 자들, 그들은 나의 자비에 절망한 자들이며,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징벌이 있을 것이다. (19–23)

그의 백성의 대답은 오직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었다. "그를 죽이거나 불태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에서 구하셨다. 참으로 그 안에는 믿는 백성을 위한 징표들이 있다. 그가 말했다. "너희는 현세의 삶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들을 두었을 뿐이다. 그러나 부활의 날에 너희는 서로를 부정하고 서로를 저주할 것이다. 너희의 거처는 불지옥이 될 것이며, 너희에게는 돕는 이가 없을 것이다." 루뜨가 그를 믿었다. 그가 말했다. "나는 나의 주님께로 이주한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우리는 그에게 이스하끄와 야꿉을 주었고, 그의 후손 가운데 예언자의 직분과 성서를 두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에게 그의 보상을 주었고, 내세에서 그는 의로운 이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24–27)

그리고 루뜨를 기억하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온 세상 가운데 너희 이전에 아무도 저지른 적이 없는 추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 너희는 남자들에게 다가가고, 큰길을 끊으며, 너희의 모임에서 가증스러운 짓을 저지르는가?" 그의 백성의 대답은 오직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징벌을 우리에게 가져와 보라." 그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부패를 퍼뜨리는 백성에 맞서 저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사자들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브라힘에게 왔을 때,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저 고을의 사람들을 멸하려 합니다. 그 주민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러나 그 안에 루뜨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 안에 누가 있는지는 우리가 가장 잘 압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와 그의 가족을 구할 것입니다. 다만 그의 아내는 예외이니, 그 여자는 뒤에 남는 자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자들이 루뜨에게 왔을 때,

그는 그들 때문에 근심하였고 그들을 지켜 줄 힘이 없음을 느꼈다. 그들이 말했다. "두려워하지도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구할 것입니다. 다만 당신의 아내는 예외이니, 그 여자는 뒤에 남는 자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거역 때문에 하늘에서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는 백성을 위해 그 고을에서 분명한 징표를 남겨 두었다. (28–35)

마드얀에게는 우리가 그들의 형제 슈아이브를 보냈다. 그가 말했다. "나의 백성이여, 하나님을 섬기고,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땅을 돌아다니며 부패를 퍼뜨리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거짓말쟁이라 하였다. 그래서 지진이 그들을 붙잡았고, 아침에 그들은 자기 집에서 엎어져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아드와 사무드도 그러하였다. 그것은 그들의 거처에서 너희에게 분명히 드러난다. 사탄이 그들의 행위를 그들에게 좋아 보이게 꾸며 그들을 길에서 막았다. 그들은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는데도 그러하였다. 또 까룬과 파라오와 하만도 그러하였다. 무사가 분명한 징표를 가지고 그들에게 왔으나, 그들은 그 땅에서 교만하게 굴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앞질러 벗어나지 못하였다. 우리는 그들 각자를 그의 죄 때문에 붙잡았다. 어떤 자들에게는 돌 폭풍을 보냈고, 어떤 자들은 굉음이 붙잡았으며, 어떤 자들은 땅이 삼키게 하였고, 어떤 자들은 물에 빠뜨렸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의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에게 불의를 행하였다. 하나님 말고 다른 보호자를 두는 자들의 비유는 스스로 집을 짓는 거미와 같다. 그들이 알기만 한다면, 집 가운데 가장 약한 것이 거미의 집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분 말고 부르는 것이 무엇이든 아신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이런 비유들을 든다. 그러나 지식이 있는 이들만이 그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진리로 창조하셨다. 참으로 그 안에는 믿는 자들을 위한 징표가 있다. (36–44)

(예언자여) 성서에서 너에게 계시된 것을 낭송하고, 예배를 지키라. 참으로 예배는 추한 짓과 그릇된 일을 막아 준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더욱 크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일을 아신다. 성서의 백성과는, 그들 가운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빼고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만 논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우리는 우리에게 내려진 것과 너희에게 내려진 것을 믿는다. 우리의 신과 너희의 신은 한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께 귀의한다." 이처럼 우리는 너에게 이 성서를 내렸다. 우리가 성서를 준 이들은 그것을 믿으며, 이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것을 믿는 이들이 있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 말고는 아무도 우리의 징표를 부정하지 않는다. (45–47)

너는 그것 이전에 어떤 책도 낭송한 적이 없고, 네 오른손으로 책을 쓴 적도 없다. 그랬다면 거짓을 따르는 자들이 의심할 까닭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다. 그것은 지식을 받은 이들의

가슴속에 있는 분명한 징표들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말고는 아무도 우리의 징표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말한다. "어찌하여 그의 주님에게서 그에게 징표들이 내려오지 않는가?" 말하라, "징표들은 오직 하나님 곁에 있으며, 나는 분명한 경고자일 뿐이다." 우리가 너에게 이 성서를 내려 그것이 그들에게 낭송된다는 것이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은가? 참으로 그 안에는 믿는 백성을 위한 자비와 일깨움이 있다. 말하라, "나와 너희 사이의 증인으로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 거짓을 믿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잃는 자들이다." (48–52)

그들은 징벌을 서둘러 달라고 너에게 대든다. 정해진 기한이 없었다면, 징벌은 이미 그들에게 왔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반드시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들은 징벌을 서둘러 달라고 너에게 대든다. 그러나 지옥은 반드시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에워쌀 것이다. 그날 징벌이 그들의 위에서, 그리고 그들의 발아래에서 그들을 덮칠 것이며,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던 일을 맛보라!" (53–55)

믿는 나의 종들이여, 나의 땅은 넓다. 그러니 오직 나만을 섬기라. 모든 영혼은 죽음을 맛본다. 그런 다음 너희는 우리에게로 되돌려질 것이다.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은, 우리가 반드시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낙원의 높은 거처에 살게 할 것이며,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머문다. 힘써 일하는 이들의 보상은 얼마나 훌륭한가! 그들은 인내하고 자기 주님께 의탁하는 이들이다. 자기 양식을 지고 다니지 않는 생물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께서 그것에게도 너희에게도 양식을 주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네가 그들에게 누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해와 달을 복종하게 하였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어찌하여 돌아서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 가운데 원하시는 이에게 양식을 넉넉히 주시기도 하고, 그에게 헤아려 주시기도 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네가 그들에게 누가 하늘에서 물을 내려 죽은 뒤의 땅을 그것으로 살리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할 것이다. 말하라, "하나님께 찬미가 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깨닫지 못한다. (56–63)

이 현세의 삶은 놀이와 장난일 뿐이다. 내세의 집, 그것이야말로 참된 삶이다. 그들이 알기만 한다면! 그들은 배에 오르면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을 바치며 그분을 부른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무사히 뭍으로 데려다주시면, 그들은 곧바로 그분께 동반자를 둔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준 것에 대해 은혜를 저버리고, 한동안 즐긴다. 그러나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들 둘레에서는 사람들이 채여 가는데, 우리가 안전한 성역을

만들어 주었음을 그들은 보지 않는가? 그런데도 그들은 거짓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가?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지어내거나, 진리가 자기에게 왔을 때 그것을 부정하는 자보다 더 불의한 자가 누구인가? 지옥에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위한 거처가 있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를 위해 분투하는 이들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길들로 인도할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이들과 함께 계신다. (64–69)

# 30. 로마인들 (Al-Rūm)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리프 람 밈. 로마인들이 가장 가까운 땅에서 패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패한 뒤에 몇 해 안에 이길 것이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결정은 하나님께 속한다. 그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뻐할 것이다. 그분은 원하시는 이를 도우신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들은 현세의 삶의 겉만 알 뿐이며, 내세에 대해서는 무심하다. 그들은 자기 안에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오직 진리로, 그리고 정해진 기한을 두고 창조하셨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주님을 만나게 됨을 부정한다. (1–8)

그들은 땅을 다니며 그들 이전 사람들의 끝이 어떠하였는지 보지 않았는가? 그들은 이들보다 더 강하였고, 땅을 갈았으며, 이들이 그것을 일군 것보다 더 많이 그것을 일구었다. 그들의 사도들이 분명한 징표를 가지고 그들에게 왔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의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에게 불의를 행하였다. 그런 다음 악을 행한 자들의 끝은 나쁜 것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징표를 거짓이라 하고 그것을 조롱하곤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창조를 처음 시작하시고, 그런 다음 그것을 되풀이하신다. 그런 다음 너희는 그분께로 되돌려질 것이다. (9–11)

그 시각이 이르는 날, 죄지은 자들은 절망으로 말문이 막힐 것이다. 그들의 동반자들 가운데 그들을 위해 중재해 줄 이는 없을 것이며, 그들은 자기들의 동반자들을 부정할 것이다. 그 시각이 이르는 날, 그날 그들은 서로 갈릴 것이다. 믿고 선을 행한 이들은 동산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부정하고 우리의 징표와 내세의 만남을 거짓이라 한 자들은 징벌 속으로 끌려갈 것이다. (12–16)

그러니 너희가 저녁을 맞을 때와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과 땅에서 찬미는 그분께 있다. 또 늦은 오후와 너희가 한낮을 맞을 때에도 그리하라. 그분은 죽은 것에서 산 것을 꺼내시고 산 것에서 죽은 것을 꺼내시며, 죽은 뒤의 땅을 살리신다. 너희도 그와 같이 꺼내어질 것이다. 그분의 징표 가운데 하나는 그분께서 너희를 흙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 다음 보라, 너희는 널리 퍼져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또 그분의 징표 가운데 하나는 그분께서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배우자를 창조하시어 너희가 그들에게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 너희 사이에 사랑과 자비를 두신 것이다. 참으로 그 안에는 깊이 생각하는 백성을 위한 징표들이 있다. 또 그분의 징표 가운데 하나는

하늘과 땅의 창조와, 너희의 말과 빛깔이 서로 다른 것이다. 참으로 그 안에는 아는 이들을 위한 징표들이 있다. 또 그분의 징표 가운데 하나는 밤과 낮의 너희의 잠과, 너희가 그분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다. 참으로 그 안에는 귀 기울이는 백성을 위한 징표들이 있다. 또 그분의 징표 가운데 하나는 그분께서 두려움과 희망을 일으키며 너희에게 번개를 보여 주시고, 하늘에서 물을 내리시어 죽은 뒤의 땅을 그것으로 살리시는 것이다. 참으로 그 안에는 이성을 쓰는 백성을 위한 징표들이 있다. (17–24)

또 그분의 징표 가운데 하나는 하늘과 땅이 그분의 명령으로 굳게 서 있는 것이다.[37] (25)

그런 다음 그분께서 땅에서 단 한 번의 부름으로 너희를 부르시면, 보라, 너희는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이는 모두 그분께 속한다. 모두가 그분께 순종한다. 그분은 창조를 처음 시작하시고 그런 다음 그것을 되풀이하시는 분이다. 그것은 그분께 더욱 쉬운 일이다. 하늘과 땅에서 가장 높은 비유는 그분의 것이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26–27)

그분은 너희 자신에게서 너희를 위해 비유를 드신다. 우리가 너희에게 베푼 것에서, 너희의 종들 가운데 너희와 몫을 나누는 이들이 있어, 너희가 그 안에서 서로 같고, 너희가 서로를 두려워하듯이 그들을 두려워하는가? 이처럼 우리는 이성을 쓰는 백성을 위해 징표들을 자세히 밝힌다. 아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지식도 없이 자기 욕망을 따른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길 잃게 두신 자를 누가 인도할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는 돕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네 얼굴을 이 종교로 향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심어 놓으신 타고난 본성이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바뀜이 없다. 그것이 올바른 종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뉘우치며 그분께 돌아가고, 그분을 경외하며, 예배를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갈라놓고 여러 분파가 된 자들이며, 무리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뽐낸다. 해가 사람들에게 닿으면, 그들은 자기 주님께 돌아가며 그분을 부른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 그들에게 당신에게서 오는 자비를 맛보게 하시면, 그들 가운데 한 무리는 곧바로 자기 주님께 동반자를 두며, 우리가 그들에게 준 것에 대해 은혜를 저버린다. 그러면 즐기라. 너희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이 그분께 동반자로 두는 것을 말해 주는 어떤 권위를 내렸는가? (28–35)

---

[37] 기회원인론 – 영광스러운 꾸란과 과학
끊임없는 창조의 형이상학: 꾸란 30:25 와 35:41 에 대한 과학적·철학적·신학적 주석
동영상: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사라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다
꾸란 35:41 과 6:59 의 '붙드심'과 '기록하심' – 물리적 정보 이론 및 시뮬레이션 가설과의 대화
존재 안에 붙들려 있는 우주: 꾸란 30:25 와 35:41 에 대한 주석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비를 맛보게 하면, 그들은 그것을 기뻐한다. 그러나 자기 두 손이 앞서 보낸 것 때문에 나쁜 일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들은 곧바로 절망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에게 양식을 넉넉히 주시기도 하고 원하시는 이에게 아껴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그들은 보지 않는가? 참으로 그 안에는 믿는 백성을 위한 징표들이 있다. 그러니 가까운 친척에게 그의 몫을 주고, 가난한 이와 나그네에게도 주라.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으며, 그들이야말로 번영하는 이들이다. 사람들의 재산에 붙어 불어나게 하려고 너희가 고리로 주는 것은 하나님 곁에서 불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정해진 희사로 주는 것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여러 곱절로 받는 이들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창조하시고, 그런 다음 너희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런 다음 너희를 죽게 하시고, 그런 다음 너희를 살리실 분이다. 너희의 동반자들 가운데 그 어느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가?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그분은 그들이 동반자로 두는 것보다 훨씬 높이 계신다. 사람들의 손이 얻은 것 때문에 뭍과 바다에 부패가 나타났다. 그분께서 그들이 한 일의 얼마를 그들에게 맛보게 하시어,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다. 말하라, "땅을 다니며 너희 이전 사람들의 끝이 어떠하였는지 보라.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는 자들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물리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네 얼굴을 올바른 종교로 향하라. 그날 그들은 갈라질 것이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는 그의 부정이 그 자신에게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이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께서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은총으로 보상하시려는 것이다. 참으로 그분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36–45)

또 그분의 징표 가운데 하나는 그분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바람을 보내시는 것이다. 너희에게 당신의 자비를 얼마쯤 맛보게 하시고, 배들이 그분의 명령으로 다니게 하시며, 너희가 그분의 은총을 구하고 감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너 이전에도 사도들을 그들 자신의 백성에게 보냈고, 그들은 분명한 징표를 가지고 그들에게 갔다. 그런 다음 우리는 죄지은 자들을 응징하였다. 믿는 자들을 돕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지는 의무였다.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시는 분이며, 바람은 구름을 일으킨다. 그런 다음 그분은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하늘에 펼치시고, 그것을 조각조각 나누신다. 그러면 너는 그 한가운데에서 비가 나오는 것을 본다. 그분께서 당신의 종들 가운데 원하시는 이들에게 그것을 내리시면, 그들은 곧바로 기뻐한다.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내려지기 전에는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도 그러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의 자취들을 보라. 그분께서 죽은 뒤의 땅을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참으로 바로 그분께서 죽은 이들을 살리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그러나 우리가 바람을 보내어 그들이 자기들의 곡식이 누렇게 된

것을 본다 해도, 그들은 그 뒤에도 계속 부정할 것이다. (예언자여) 너는 죽은 이들을 듣게 할 수 없고, 귀먹은 자들이 등을 돌려 가 버릴 때 그들이 부름을 듣게 할 수도 없다. 너는 눈먼 자들을 그들의 미혹에서 인도해 낼 수도 없다. 너는 우리의 징표를 믿고 그리하여 귀의한 이들 말고는 아무도 듣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너희를 약함에서 창조하시고, 그런 다음 약함 뒤에 힘을 주시며, 그런 다음 힘 뒤에 약함과 흰머리를 정하신 분이다. 그분은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 창조하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46–54)

그 시각이 이르는 날, 죄지은 자들은 자기들이 한 시각밖에 머물지 않았다고 맹세할 것이다. 그들은 이처럼 속아 왔다. 그러나 지식과 믿음을 받은 이들은 말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부활의 날까지 머물렀다. 이것이 부활의 날이다. 그러나 너희는 알지 못하였다." 그날 불의를 행한 자들의 변명은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으며, 그들은 잘못을 바로잡도록 허락받지도 못할 것이다. (55–57)

우리는 이 꾸란에서 사람들을 위해 온갖 비유를 밝혀 놓았다. 그러나 네가 그들에게 징표를 가져온다 해도,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틀림없이 말할 것이다. "너희는 거짓을 따르는 자들일 뿐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봉하신다. 그러니 인내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다. 그리고 확신이 없는 자들이 너를 흔들지 못하게 하라. (58–60)

# 31. 루끄만 (Luqmān)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리프 람 밈. 이것은 지혜로운 성서의 구절이며 징표이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이들을 위한 인도요 자비이다. 그들은 예배를 지키고 정해진 희사를 바치며, 내세를 확신하는 이들이다. 이들이 자기 주님에게서 온 인도 위에 서 있는 이들이며, 이들이 번영하는 이들이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지식도 없이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으려고, 헛된 이야기를 사들이는 자가 있다. 그런 자들에게는 굴욕의 징벌이 있다. 우리의 징표가 그에게 낭송되면, 그는 그것을 듣지 못한 것처럼, 그의 귀에 귀먹음이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등을 돌린다. 그러니 그에게 고통스러운 징벌의 소식을 전하라.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지복의 낙원이 있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머문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며, 그분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분은 너희가 볼 수 있는 기둥 없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이 너희와 함께 흔들리지 않도록 그 위에 굳건한 산들을 놓으셨으며, 그 안에 온갖 생물을 퍼뜨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서 물을 내려 그 안에 온갖 고귀한 것을 자라게 하였다.[38]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이다. 그러면 그분 말고 다른 것들이 무엇을 창조하였는지 나에게 보여 보라. 아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분명한 미혹 속에 있다. (1–11)

우리는 루끄만에게 지혜를 주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이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감사하는 것이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다 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모든 찬미를 받으실 분이다. 루끄만이 자기 아들을 타이르며 말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 말고 어떤 것에도 신의 권능을 돌리지 말라. 보라, 그렇게 거짓되이 신성을 돌리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불의이다." (12–13)

우리는 사람에게 자기 부모를 잘 돌보라고 명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힘겨움 위에 힘겨움을 견디며 그를 배었고, 그의 젖떼기는 두 해가 걸린다. 나에게, 그리고 네 부모에게 감사하라. 마지막 귀착지는 나에게 있다. 그러나 그들이 네가 아무 지식도 없는 것을 나의 동반자로 두게 하려고 애쓴다면, 그들에게 순종하지 말라.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그들과 좋게 지내고, 나에게 돌아오는 이의 길을 따르라. 그런 다음 너희의 귀착지는 나에게 있으며, 나는 너희가 하던 일을 너희에게 알려 줄 것이다. (14–15)

---

[38] 이 구절과 천둥 장(아르 라드)의 한 구절(13:2)에서, 하나님은 우리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중력을, 당신의 창조하시는 능력의 징표이자 창조하시는 분(알 칼리끄), 처음 지으시는 분(알 바리), 모습을 빚으시는 분(알 무사위르)이라는 당신의 속성의 드러남으로 제시하십니다.

루끄만이 말했다. "내 아들아, 그것이 겨자씨 한 알의 무게라 해도, 그리고 그것이 바위 속에 있든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섬세하시고 모든 것에 밝으신 분이다.[39] (16)

내 아들아, 예배를 지키고, 옳은 것을 명하고 그릇된 것을 금하며, 너에게 닥치는 것을 인내하며 견디어라. 그것은 굳은 결심이 필요한 일이다. 또 교만이나 업신여김으로 사람들에게서 네 얼굴을 돌리지 말고, 땅 위를 뽐내며 걷지 말라. 보라, 하나님은 교만하고 뽐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네 걸음을 알맞게 하고, 네 목소리를 낮추어라. 참으로 소리 가운데 가장 듣기 싫은 것은 나귀의 울음소리이다." (17–19)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드러난 것이든 숨은 것이든 당신의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음을 너희는 보지 않는가? 그런데도 사람들 가운데에는 지식도 없고 인도도 없고 밝혀 주는 성서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 논쟁하는 자가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을 따르라." 하고 말하면, 그들은 말한다. "아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하던 것을 따르겠다." 사탄이 그들을 타오르는 불의 징벌로 부르고 있는데도 그러하겠는가? 선을 행하면서 자기 얼굴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는 가장 든든한 손잡이를 붙잡은 것이다. 모든 일의 결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가 있다 해도, 그의 부정이 너를 슬프게 하지 않게 하라. 그들의 귀착지는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한 일을 그들에게 알려 줄 것이다. 하나님은 가슴속에 있는 것을 잘 아신다. 우리는 그들이 잠시 즐기게 하다가, 그런 다음 그들을 혹독한 징벌로 몰아넣을 것이다. 네가 그들에게 누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할 것이다. 말하라, "하나님께 찬미가 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알지 못한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다. 참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모든 찬미를 받으실 분이다. (20–26)

땅에 있는 모든 나무가 붓이 되고, 바다가 먹물이 되며, 일곱 바다가 더 그것을 채워 준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40] (27)

---

[39] 기회원인론 – 영광스러운 꾸란과 과학

[40] 이 중요한 구절은, 포괄적인 과학적·철학적 주석을 보여 드리기 위해 제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주석으로 덧붙여 나갈 모든 링크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인샤알라. 그동안에는 제 블로그의 주요 글들을 모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글 – 영광스러운 꾸란과 과학.

너희의 창조와 너희의 부활은 한 영혼의 그것과 같을 뿐이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다. (28)

(예언자여) 하나님께서 밤을 낮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낮을 밤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해와 달을 복종하게 하시어 저마다 정해진 기한까지 제 길을 달리게 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일에 밝으심을 너는 보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고, 그들이 그분 말고 부르는 것은 무엇이든 거짓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를 다니는 것을 너는 보지 않는가? 그분께서 너희에게 당신의 징표 가운데 얼마를 보여 주시려는 것이다. 참으로 그 안에는 인내하고 감사하는 모든 이를 위한 징표들이 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죽음의 그늘처럼 그들을 덮으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을 바치며 그분을 부른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무사히 뭍으로 데려다주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리저리 흔들린다. 배신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 말고는 아무도 우리의 징표를 부정하지 않는다. 사람들아, 너희 주님을 경외하고, 어떤 아버지도 자기 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어떤 아들도 자기 아버지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날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다. 그러니 현세의 삶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속이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참으로 그 시각에 대한 지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분은 비를 내리시고, 태 안에 있는 것을 아신다. 어떤 영혼도 자기가 내일 무엇을 얻을지 알지 못하며, 어떤 영혼도 자기가 어느 땅에서 죽을지 알지 못한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밝으신 분이다. (29–34)

# 32. 엎드려 절함 (Al-Sajda)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리프 람 밈. 의심할 여지 없는 이 성서가 내려온 것은 만유의 주님에게서이다. 아니면 그들은 "그가 그것을 지어냈다." 하고 말하는가? 아니다. 그것은 너의 주님에게서 온 진리이다. 너 이전에 경고자가 온 적이 없는 백성에게 네가 경고하여, 그들이 인도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여섯 시대에 창조하시고, 그런 다음 권좌 위에 좌정하신 분이다. 너희에게는 그분 말고 보호자도 중재자도 없다. 그런데도 너희는 마음에 새기지 않는가? 그분은 하늘에서 땅까지 일을 다스리신다. 그런 다음 그것은 너희가 헤아리는 천 년에 해당하는 하루 동안에 그분께로 올라간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아시는 분, 전능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며,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신 분이다. 그분은 인간의 창조를 진흙에서 시작하셨다. 그런 다음 하찮은 액체에서 뽑아낸 것으로 그의 후손을 만드셨다. 그런 다음 그를 빚어 다듬으시고 그 안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너희에게 청각과 시각과 마음을 주셨다. 너희는 조금밖에 감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가 땅속으로 사라진 뒤에, 정말로 새로 만들어진단 말인가?" 아니다. 그들은 자기 주님과의 만남을 부정한다. 말하라, "너희를 맡은 죽음의 천사가 너희를 거둘 것이다. 그런 다음 너희는 너희 주님께로 되돌려질 것이다." (1–11)

(예언자여) 죄지은 자들이 자기 주님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것을 네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는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돌려보내 주소서. 저희가 선을 행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원하였다면, 모든 영혼에게 그 인도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말이 참되게 이루어졌다. 나는 반드시 진과 인간으로 함께 지옥을 채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의 이날의 만남을 잊었던 까닭에 징벌을 맛보라. 우리도 너희를 잊었다. 너희가 하던 일 때문에 영원한 징벌을 맛보라." (12–14)

우리의 징표를 믿는 이들은 오직, 그것으로 일깨움을 받으면 엎드려 절하고 자기 주님을 찬미하며 찬양하고, 교만하지 않은 이들이다. 그들은 두려움과 희망으로 자기 주님을 부르느라 옆구리가 잠자리를 떠나며, 우리가 그들에게 베푼 것 가운데서 쓴다. 그들이 하던 일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을 위해 어떤 눈의 기쁨이 숨겨져 있는지, 어떤 영혼도 알지 못한다. 믿는 이가 거역하는 자와 같겠는가? 그들은 같지 않다.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하던 일 때문에 안식의 낙원이 숙소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불지옥이다.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려 할 때마다 그들은 그 안으로 도로

몰리고, 이런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거짓이라 하던 불지옥의 징벌을 맛보라." 우리는 더 큰 징벌에 앞서 반드시 더 가까운 징벌을 그들에게 맛보게 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자기 주님의 징표로 일깨움을 받고도 그것을 외면하는 자보다 더 불의한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반드시 죄지은 자들을 응징할 것이다. (15–22)

우리는 무사에게 성서를 주었다. 그러니 그를 만나게 됨에 대해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인도로 삼았다. 그들이 인내하고 우리의 징표를 확신하였을 때,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명령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세웠다. 너의 주님께서는 부활의 날에, 그들이 서로 달리하던 것에 대해 그들 사이를 판결하실 것이다. (23–25)

그들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대를 멸하였는지가 그들에게 인도가 되지 않는가? 그들은 그들의 거처 사이를 걸어 다니고 있다. 참으로 그 안에는 징표들이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는가? 그들은 우리가 메마른 땅으로 물을 몰아가 그것으로 곡식을 내고, 그들의 가축과 그들 자신이 그것을 먹는 것을 보지 않는가? 그런데도 그들은 보지 않는가? 그들은 말한다. "너희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이 판가름은 언제인가?" 말하라, "판가름의 날에는, 진리를 부정한 자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으며, 그들에게 말미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기다리라. 그들도 기다리고 있다. (26–30)

# 33. 연합군 (Al-Aḥzāb)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자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과 위선자들에게 굽히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너의 주님에게서 너에게 계시되는 것을 따르라.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일에 밝으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라. 수호자로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가슴속에도 두 마음을 두지 않으셨다. 또 너희가 어머니의 등과 같다고 선언하는 너희의 아내들을 실제로 너희의 어머니로 만들지 않으셨고, 너희의 양자들을 실제로 너희의 아들로 만들지도 않으셨다. 그것은 너희 입으로 하는 너희의 말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며, 그분께서 길로 인도하신다. (1–4)

그들을 그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공정하다. 너희가 그들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믿음 안에서 너희의 형제요 너희가 돌보는 이들이다. 너희가 실수로 한 일에는 너희에게 허물이 없으나, 너희 마음이 일부러 뜻한 일에는 허물이 있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예언자는 믿는 자들에게 그들 자신보다 더 가까우며, 그의 아내들은 그들의 어머니이다. 하나님의 성서에서는 혈육이 다른 믿는 자들과 이주자들보다 서로에게 더 앞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너희가 너희 벗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예외이다. 그것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5–6)

우리가 예언자들에게서 그들의 서약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라. 너에게서, 그리고 누흐와 이브라힘과 무사와 마르얌의 아들 이사에게서 받았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굳은 서약을 받았다. 그분께서 진실한 이들에게 그들의 진실함에 대해 물으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그분께서 고통스러운 징벌을 마련해 두셨다. (7–8)

믿는 자들이여, 군대들이 너희에게 쳐들어왔을 때 너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바람과 너희가 볼 수 없는 군대를 보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보신다. 그들이 너희 위에서도 너희 아래에서도 너희에게 닥쳐왔을 때, 눈들이 돌아가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으며,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 온갖 생각을 품었다. 거기에서 믿는 자들은 시험을 받았고, 세찬 흔들림으로 흔들렸다. 그때 위선자들과 마음에 병이 있는 자들이 말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속임수일 뿐이다.” 또 그들 가운데 한 무리가 말했다. “야스리브 사람들이여, 여기에는 너희가 버틸 자리가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또 그들 가운데 다른 한 무리는

"우리 집들이 무방비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고 말하며 예언자에게 허락을 구하였다. 그러나 그 집들은 드러나 있지 않았다. 그들은 다만 달아나고 싶었을 뿐이다. 그 도시가 사방에서 뚫려 적이 그들에게 들어오고, 그런 다음 그들이 돌아서서 믿는 이들과 싸우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였을 것이며, 그 일에 조금밖에 머뭇거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등을 돌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 하나님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물음이 있을 것이다. 말하라, "너희가 죽음이나 죽임을 당하는 것에서 달아난다 해도, 달아남은 너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 해도 너희는 잠깐밖에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해를 뜻하시거나 너희에게 자비를 뜻하신다면, 누가 너희를 하나님에게서 막아 줄 수 있겠는가?" 그들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 말고 보호자도 돕는 이도 찾지 못할 것이다. (9–17)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남을 붙들어 말리는 자들과,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에게로 오라." 하고 말하는 자들을 잘 아신다. 그들은 싸움에 좀처럼 나오지 않으며, 너희에게 인색하다. 두려움이 오면, 너는 그들이 죽음에 이르러 까무러치는 사람처럼 눈을 굴리며 너를 바라보는 것을 본다. 그러나 두려움이 지나가면, 그들은 전리품을 탐내며 날카로운 혀로 너희를 후려친다. 이들은 결코 믿은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헛것으로 만드셨다. 그것은 하나님께 쉬운 일이다. 그들은 연합군이 떠나지 않았다고 여긴다. 연합군이 다시 온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사막에서 사막의 아랍인들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의 소식이나 묻고 있기를 바랄 것이다. 그들이 너희 가운데 있었다 해도, 그들은 조금밖에 싸우지 않았을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도에게는 너희를 위한 아름다운 본보기가 있다. 하나님과 마지막 날에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많이 기억하는 이를 위한 것이다. (18–21)

믿는 자들이 연합군을 보았을 때 그들이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는 진실을 말하였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과 귀의만 더해 주었다. 믿는 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진실하였던 사람들이 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죽음으로 자기 서원을 이루었고, 어떤 이는 아직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조금도 바꾸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진실한 이들에게 그들의 진실함에 대해 보상하시고, 원하시면 위선자들을 징벌하시거나 자비로 그들에게 돌아오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진리를 부정한 자들을 분노에 찬 그대로 돌려보내셨고, 그들은 아무 좋은 것도 얻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싸움을 면하게 해 주셨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성서의 백성 가운데 그들을 도운 자들을 그들의 요새에서 끌어내리시고, 그들의 마음에 공포를 던져 넣으셨다. 너희는 어떤 이들을 죽이고, 어떤

이들을 포로로 잡았다. 그분은 그들의 땅과 그들의 집과 그들의 재산을, 그리고 너희가 아직 발을 디딘 적이 없는 땅을 너희에게 상속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22–27)

예언자여, 네 아내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현세의 삶과 그 꾸밈을 원한다면, 오라. 내가 너희에게 살 것을 마련해 주고 너희를 아름답게 놓아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와 내세의 집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선을 행하는 이들을 위해 큰 보상을 마련해 두셨다." 예언자의 아내들이여, 너희 가운데 누가 분명한 추한 짓을 저지른다면, 그 여자에게는 징벌이 두 배가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쉬운 일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누가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경건히 순종하고 선을 행한다면, 우리는 그 여자에게 보상을 두 번 주고, 그 여자를 위해 넉넉한 양식을 마련해 둘 것이다. 예언자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다른 어떤 여인들과도 같지 않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말을 나긋하게 하지 말라. 마음에 병이 있는 자가 욕심을 품지 않도록 하라. 다만 알맞은 방식으로 말하라. 너희의 집에 머물고, 예전 무지의 시대처럼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지 말라. 예배를 지키고 정해진 희사를 바치며,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순종하라. 이 집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은 다만 너희에게서 모든 더러움을 없애시고 너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너희의 집에서 낭송되는 하나님의 징표와 지혜를 마음에 간직하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섬세하시고 모든 것에 밝으신 분이다. (28–34)

하나님께 귀의한 남자들과 귀의한 여자들, 믿는 남자들과 믿는 여자들, 경건히 순종하는 남자들과 경건히 순종하는 여자들, 진실한 남자들과 진실한 여자들, 인내하는 남자들과 인내하는 여자들, 겸손한 남자들과 겸손한 여자들, 자선을 베푸는 남자들과 자선을 베푸는 여자들, 단식하는 남자들과 단식하는 여자들, 자기 정결을 지키는 남자들과 지키는 여자들, 하나님을 많이 기억하는 남자들과 기억하는 여자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용서와 큰 보상을 마련해 두셨다. (35)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가 어떤 일을 정하였을 때, 믿는 남자나 믿는 여자가 그 일에서 스스로 택할 여지를 가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거역하는 자는 분명한 미혹에 빠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너도 은혜를 베푼 이에게 네가 "네 아내를 네 곁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고 말하였을 때를 기억하라. 너는 하나님께서 드러내려 하시는 것을 네 안에 숨겼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네가 두려워해야 할 더 마땅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자이드가 그 여자와의 관계를 끝냈을 때, 우리는 그 여자를 너와 혼인시켰다. 양자들이 자기 아내와의 관계를 끝냈을 때,

그 아내들에 관하여 믿는 자들에게 아무 허물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의무로 정하신 일에는 그에게 아무 허물이 없다. 이전에 지나간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길은 그러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은 정해진 결정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언을 전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들이다. 셈하는 이로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무함마드는 너희 남자들 가운데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도이며 예언자들의 봉인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많이 기억하고, 아침저녁으로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은 너희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며, 그분의 천사들도 그리한다. 너희를 깊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내시려는 것이다. 그분은 믿는 자들에게 자애로우시다. 그들이 그분을 만나는 날 그들의 인사는 "평화"일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위해 넉넉한 보상을 마련해 두셨다. (36–44)

예언자여, 우리는 너를 증인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요 경고하는 이로, 하나님의 허락으로 그분께로 부르는 이로, 그리고 빛을 주는 등불로 보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큰 은총이 그들에게 있으리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라.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과 위선자들에게 굽히지 말고, 그들이 끼치는 해는 내버려 두며, 하나님께 의탁하라. 수호자로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45–48)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믿는 여자들과 혼인하였다가 그들에게 닿기 전에 이혼한다면, 너희가 그들에게 헤아려야 할 기다리는 기간은 없다. 그러니 그들에게 살 것을 마련해 주고 그들을 아름답게 놓아주라. 예언자여, 우리는 네가 혼인 예물을 준 너의 아내들을 너에게 허용하였고,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너에게 주신 것 가운데 여종들도 허용하였다. 또 너와 함께 이주한, 네 아버지 쪽 삼촌의 딸들과 고모의 딸들, 네 어머니 쪽 외삼촌의 딸들과 이모의 딸들도 허용하였다. 또 믿는 여자가 혼인 예물을 바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예언자에게 내어 주고, 예언자가 그 여자와 혼인하기를 원한다면 그 여자도 허용하였다. 이것은 오직 너만을 위한 것이며, 다른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내와 여종에 관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정해 준 것을 잘 안다. 너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너는 그들 가운데 네가 원하는 이를 미루어 두어도 되고, 네가 원하는 이를 맞아들여도 된다. 네가 따로 두었던 이를 다시 찾는다 해도 너에게 허물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위로를 얻고 슬퍼하지 않으며, 네가 그들에게 주는 것에 그들 모두가 흡족해하기에 더 알맞다. 하나님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관대하신 분이다. 이 뒤로는 다른 여자들이 너에게 허용되지 않으며, 그들의 아름다움이 네 마음에 든다

해도 그들을 다른 아내들로 바꿀 수도 없다. 다만 네 오른손이 소유한 이들은 예외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 (49–52)

믿는 자들이여, 너희에게 허락이 주어지지 않으면 식사를 하러 예언자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음식이 마련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도 말라. 그러나 초대를 받거든 들어가고, 먹고 나거든 흩어지며, 이야기를 나누려고 머물러 있지 말라. 그런 일은 예언자를 괴롭게 하는데, 그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그의 아내들에게 무엇을 청할 때에는 휘장 뒤에서 그들에게 청하라. 그것이 너희의 마음에도 그들의 마음에도 더 깨끗하다. 하나님의 사도를 괴롭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마땅하지 않으며, 그의 뒤에 그의 아내들과 혼인하는 것도 결코 마땅하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일이다. 너희가 어떤 것을 드러내든 감추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 여인들에게는 자기 아버지, 자기 아들, 자기 형제, 형제의 아들, 자매의 아들, 자기 여인들, 자기 종들에 관하여 아무 허물이 없다. 예언자의 아내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증인이시다.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은 예언자에게 축복을 내린다. 믿는 자들이여, 그를 위해 축복을 빌고, 평화의 인사로 그에게 인사하라.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내세에서 그들을 저주하셨고, 그들을 위해 굴욕의 징벌을 마련해 두셨다. 믿는 남자들과 믿는 여자들을, 그들이 하지 않은 일 때문에 괴롭게 하는 자들은 중상과 분명한 죄를 짊어진 것이다. (53–58)

예언자여, 네 아내들과 네 딸들과 믿는 이들의 여인들에게 일러, 겉옷을 몸에 바짝 여미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알아보이고 해를 입지 않기에 더 알맞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위선자들과 마음에 병이 있는 자들과 그 도시에서 불안을 퍼뜨리는 자들이 그만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너를 일으켜 그들에게 맞서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곳에서 잠깐밖에 너의 이웃으로 머물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니, 어디에서 발견되든 붙잡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전에 지나간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길은 그러하였다. 너는 하나님의 길에서 아무 변화도 찾지 못할 것이다. (59–62)

사람들이 너에게 그 시각에 대해 묻는다. 말하라, "그것에 대한 지식은 오직 하나님 곁에 있다." 무엇이 너에게 알려 주겠는가? 그 시각은 아마도 가까울 것이다. 하나님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을 위해 타오르는 불을 마련해 두셨다. 그들은 그 안에서 영원히 머물며, 보호자도 돕는 이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얼굴이 불 속에서 뒤집히는 날, 그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도에게 순종하였더라면!"

또 말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는 저희의 우두머리들과 큰 사람들에게 순종하였고, 그들이 저희를 길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그들에게 두 배의 징벌을 주시고, 큰 저주로 그들을 저주하소서.” (63–68)

믿는 자들이여, 무사를 괴롭게 한 자들처럼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말에서 그를 깨끗이 밝혀 주셨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이였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고 곧은 말을 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의 행위를 바로잡아 주시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순종하는 이는 크나큰 승리를 얻은 것이다. 우리는 그 맡김을 하늘과 땅과 산들에게 내놓았으나, 그것들은 그것을 지기를 거절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짊어졌다. 참으로 그는 불의하고 무지하였다. 하나님께서 위선자 남자들과 여자들, 다신교도 남자들과 여자들을 징벌하시고, 믿는 남자들과 여자들에게는 자비로 돌아오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69–73)

# 34. 사바 (Saba’)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찬미는 하나님께 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모두 그분께 속하며, 내세에서도 모든 찬미는 그분께 있다.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에 밝으신 분이다. 그분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거기에서 나오는 것,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 그리로 올라가는 것을 아신다. 그분은 자애로우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분이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말한다. “그 시각은 결코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말하라, “아니다. 나의 주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것은 반드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아시는 분이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티끌 한 점의 무게조차 그분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며, 그보다 더 작은 것이든 더 큰 것이든 분명한 책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없다. 그분께서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보상하시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용서와 넉넉한 양식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징표를 꺾으려고 그것에 맞서 애쓰는 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괴로움의 징벌이 있다. (1–5)

지식을 받은 이들은, 너의 주님에게서 너에게 내려진 것이 진리이며, 그것이 전능하시고 모든 찬미를 받으실 분의 길로 인도함을 안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말한다. “너희가 산산이 찢어진 뒤에 새로운 창조로 다시 일으켜진다고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너희에게 보여 줄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지어냈는가, 아니면 그에게 광기가 있는가?” 아니다.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징벌 속에, 그리고 멀리 벗어난 미혹 속에 있다. 그들은 자기들 앞과 뒤에 있는 하늘과 땅을 보지 않는가? 우리가 원한다면, 땅이 그들을 삼키게 하거나 하늘의 조각들을 그들 위에 떨어뜨릴 수 있다. 참으로 그 안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종을 위한 징표가 있다. (6–9)

우리는 다우드에게 우리에게서 오는 은총을 베풀었다. “산들아,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를 되울리라. 새들아, 너희도 그리하라!” 또 우리는 그를 위해 쇠를 부드럽게 하였다. “갑옷을 만들고, 고리를 잘 헤아려 엮어라.” 그리고 너희 모두 선을 행하라. 나는 너희가 하는 일을 잘 본다. 술라이만에게는 우리가 바람을 복종하게 하였다. 그 아침 길은 한 달의 길이었고, 그 저녁 길도 한 달의 길이었다. 우리는 그를 위해 녹은 구리의 샘이 흐르게 하였다. 또 진 가운데 얼마는 그의 주님의 허락으로 그 앞에서 일하였다. 그들 가운데 우리의 명령에서 벗어나는 자에게는, 우리가 타오르는 불의 징벌을 맛보게 하였다. 그들은 그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그를 위해 만들었다. 성소들과 조각상들, 못과 같은 대야들, 그리고 붙박아 놓은 가마솥들이었다. “다우드의 집안이여, 감사하며 일하라!” 그러나 나의 종들 가운데 참으로 감사하는 이는 적다. 그런 다음

우리가 그에게 죽음을 정하였을 때, 그의 지팡이를 갉아 먹는 땅의 벌레 말고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그의 죽음을 알려 주지 않았다. 그가 쓰러지자, 진들은 자기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았더라면 굴욕스러운 고역 속에 머물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10–14)

사바에게는 그들이 사는 곳에 징표가 있었다. 오른쪽과 왼쪽의 두 동산이었다. "너희 주님의 양식을 먹고 그분께 감사하라. 좋은 땅이요, 용서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나 그들은 등을 돌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둑의 홍수를 보냈고, 그들의 두 동산을 쓴 열매와 위성류와 얼마 안 되는 대추나무가 나는 두 동산으로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그들의 배은망덕 때문에 그들에게 이처럼 갚았다.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자 말고 누구에게 그렇게 갚겠는가? 또 우리는 그들과 우리가 축복한 고을들 사이에, 서로 바라다보이는 다른 고을들을 두었고, 그 사이의 여정을 쉽게 해 주었다. "밤에도 낮에도 안전하게 그 사이를 다니라." 그러나 그들은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 여정의 길목들을 더 멀게 해 주소서." 하고 말하였고, 스스로에게 불의를 행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지나간 이야깃거리로 만들었고, 그들을 남김없이 흩어 버렸다. 참으로 그 안에는 인내하고 감사하는 모든 이를 위한 징표들이 있다. 이블리스는 그들에 대한 자기 생각이 맞았음을 확인하였다. 믿는 이들 한 무리 말고는 모두 그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들에 대한 아무 권한도 없었다. 다만 우리가 내세를 믿는 이를 그것에 대해 의심하는 자와 가려내려는 것이었다. 너의 주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 (15–21)

말하라, "너희가 하나님 말고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불러 보라. 그것들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티끌 한 점의 무게도 가지지 못한다. 그것들에게는 그 둘 어디에도 아무 몫이 없으며, 그분께는 그것들 가운데 돕는 이가 없다."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이를 위한 것 말고는, 그분 곁에서 중재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다음 그들의 마음에서 공포가 걷히면, 그들은 말할 것이다. "너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들은 말할 것이다. "진리를 말씀하셨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크신 분이다." 말하라, "누가 하늘과 땅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주는가?" 말하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든 너희든, 어느 한쪽은 인도 위에 있거나 분명한 미혹 속에 있다." 말하라, "너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물음을 받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너희가 하는 일에 대해 물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말하라,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한데 모으시고, 그런 다음 우리 사이를 진리로 판결하실 것이다. 그분은 판결하시는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말하라, "너희가 동반자로 그분께 갖다 붙인 것들을 나에게 보여 보라. 결코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우리는 너를 오직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요 경고하는 이로 보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말한다. "너희가

진실하다면,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말하라, "너희에게는 한 날의 기약이 있다. 너희는 그것을 한 시각도 늦출 수 없고 앞당길 수도 없다." (22–30)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말한다. "우리는 이 꾸란도, 그 이전에 온 것도 결코 믿지 않겠다." 불의를 행한 자들이 자기 주님 앞에 세워져 서로 말을 되던지는 것을 네가 볼 수만 있다면! 업신여김을 받던 자들이 교만하던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믿는 자들이 되었을 것이다." 교만하던 자들이 업신여김을 받던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인도가 너희에게 온 뒤에 우리가 너희를 그것에서 막았는가? 아니다. 너희 자신이 죄지은 자들이었다." 업신여김을 받던 자들이 교만하던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아니다. 그것은 밤낮으로 꾸민 너희의 계략이었다. 그때 너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께 맞서는 것들을 세우라고 명하였다." 그들은 징벌을 볼 때 후회를 감출 것이다. 우리는 진리를 부정한 자들의 목에 쇠고랑을 채울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이 하던 일 말고 다른 것으로 보답받겠는가? 우리가 어떤 고을에 경고자를 보낼 때마다, 그곳에서 호사를 누리던 자들은 "우리는 당신들이 가지고 보냄받은 것을 부정한다." 하고 말하였다. 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재산도 더 많고 자녀도 더 많다. 우리는 징벌받지 않을 것이다." 말하라, "나의 주님은 원하시는 이에게 양식을 넉넉히 주시기도 하고, 헤아려 주시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너희를 우리에게 가까이 데려오는 것은 너희의 재산도 너희의 자녀도 아니다. 다만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해 두 배의 보상을 받고, 높은 방들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징표를 꺾으려고 그것에 맞서 애쓰는 자들은 징벌 속으로 끌려갈 것이다. 말하라, "나의 주님은 당신의 종들 가운데 원하시는 이에게 양식을 넉넉히 주시기도 하고, 그에게 헤아려 주시기도 한다. 너희가 무엇을 쓰든, 그분께서 그것을 채워 주신다. 그분은 양식을 주는 이들 가운데 가장 좋으신 분이다." (31–39)

그분께서 그들을 모두 모으시는 날, 천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 사람들이 섬기던 것이 너희였느냐?" 그들은 말할 것이다. "당신께 영광이 있기를! 저희의 보호자는 그들이 아니라 당신이십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진을 섬겼고, 그들 대부분은 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너희 가운데 누구도 다른 이에게 이로움도 해도 줄 힘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가 거짓이라 하던 불지옥의 징벌을 맛보라." 우리의 분명한 징표가 그들에게 낭송되면, 그들은 말한다. "이 사람은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것에서 너희를 돌려세우려는 사람일 뿐이다." 또 말한다. "이것은 지어낸 거짓일 뿐이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진리가 그들에게 왔을 때 그것을 두고 말한다. "이것은 분명한 마술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배울 어떤 책도 주지 않았고, 너 이전에 그들에게 어떤 경고자도 보내지 않았다. 그들 이전의 사람들도

진리를 부정하였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준 것의 십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의 사도들을 거짓말쟁이라 하였다. 나의 꾸짖음이 얼마나 무서웠는가! (40–45)

말하라, "나는 너희에게 한 가지만을 권한다. 너희가 둘씩 또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고, 그런 다음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너희의 벗에게는 아무 광기도 없다. 그는 혹독한 징벌에 앞서 너희에게 온 경고자일 뿐이다." 말하라, "내가 너희에게 청한 보수가 있다면, 그것은 너희의 것이다. 나의 보수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증인이시다." 말하라, "나의 주님은 진리를 내던지신다. 그분은 숨겨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말하라, "진리가 왔다. 거짓은 아무것도 처음 시작하지 못하고, 되돌려 놓지도 못한다." 말하라, "내가 길을 잃는다면, 나는 오직 나 자신에게 해가 되도록 길을 잃는 것이다. 내가 인도받는다면, 그것은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시는 것 때문이다.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늘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46–50)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달아날 곳이 없고, 가까운 곳에서 붙잡히는 것을 네가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은 말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먼 곳에서 어떻게 그것에 닿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전에 그것을 부정하였고, 먼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어림짐작을 내던졌다. 그들 이전에 그들과 같은 자들에게 그랬듯이, 그들과 그들이 바라는 것 사이에 장벽이 놓였다. 그들은 의심과 불안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51–54)

# 35. 처음 지으시는 분 (Fāṭir)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찬미는 하늘과 땅을 처음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 그분은 천사들을 둘씩, 셋씩, 넷씩 날개를 지닌 사자로 삼으신다. 그분은 원하시는 것을 창조에 더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열어 주시는 자비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그분께서 막으시는 것은 그분 뒤에 아무도 풀어 줄 수 없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사람들아, 너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늘과 땅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주는, 하나님 말고 다른 창조주가 있는가? 그분 말고는 신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서는가? (1–3)

(예언자여) 그들이 너를 거짓말쟁이라 한다면, 너 이전의 사도들도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들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 되돌려진다. 사람들아,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다. 그러니 현세의 삶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속이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사탄은 너희의 적이다. 그러니 그를 적으로 대하라. 그는 자기 무리를 불러 타오르는 불의 주민이 되게 할 뿐이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혹독한 징벌이 있고,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용서와 큰 보상이 있다. 자기의 악한 행위가 자기에게 좋아 보이게 꾸며져 그것을 좋은 것으로 보는 자는 어떠한가?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길 잃게 두시고 원하시는 이를 인도하신다. 그러니 그들 때문에 탄식하다가 네 영혼이 사그라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일을 잘 아신다. (4–8)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시는 분이며, 바람은 구름을 일으킨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것을 죽은 땅으로 몰아가, 죽은 뒤의 땅을 그것으로 되살린다.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다. 영예를 원하는 이가 있다면, 모든 영예는 하나님께 속한다. 좋은 말은 그분께로 올라가고, 의로운 행위는 그분께서 높이신다. 그러나 악한 일을 꾀하는 자들에게는 혹독한 징벌이 있으며, 그들의 계략은 허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흙으로, 그런 다음 한 방울로 창조하시고, 그런 다음 너희를 짝으로 만드셨다. 어떤 암컷도 그분께서 아시지 않고서는 배지도 낳지도 않는다. 누구도 책에 있는 대로가 아니고서는 오래 살지도 않고 수명이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 쉬운 일이다. (9–11)

두 바다는 같지 않다. 하나는 달고 시원하여 마시기에 좋고, 다른 하나는 짜고 쓰다. 그러나 너희는 그 둘 모두에서 신선한 살을 먹고, 너희가 몸에 걸칠 장신구를 꺼낸다. 또 너는 배들이 그것을 가르며 나아가는 것을 본다. 너희가 그분의 은총을 구하고, 감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은 밤을 낮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낮을 밤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해와 달을 복종하게 하시어 저마다 정해진 기한까지 달리게 하셨다. 그분이 하나님, 너희의 주님이시다. 통치권은 그분의 것이다. 너희가 그분 말고 부르는 것들은 대추야자 씨의 껍질만큼도 가지지 못한다. 너희가 그것들을 불러도 그것들은 너희의 부름을 듣지 못하고, 듣는다 해도 너희에게 응답하지 못한다. 부활의 날에 그것들은 너희가 자기들을 하나님의 동반자로 둔 것을 부정할 것이다. 모든 것에 밝으신 분처럼 너에게 알려 줄 이는 아무도 없다. (12–14)

사람들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너희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모든 찬미를 받으실 분이다. 그분께서 원하시면, 너희를 없애고 새로운 창조를 데려오실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짐을 진 어떤 영혼도 다른 영혼의 짐을 지지 않는다. 무거운 짐을 진 영혼이 자기 짐을 져 달라고 부른다 해도, 가까운 친족이라 해도 그 가운데 아무것도 져 주지 못한다. 너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기 주님을 두려워하고 예배를 지키는 이들에게만 경고할 수 있다. 스스로를 깨끗이 하는 이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귀착지는 하나님께 있다. 눈먼 이와 보는 이는 같지 않고, 깊은 어둠과 빛도 같지 않으며, 그늘과 뜨거운 열기도 같지 않다. 산 이들과 죽은 이들도 같지 않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이를 듣게 하신다. 그러나 너는 무덤에 있는 이들을 듣게 할 수 없다. 너는 경고하는 이일 뿐이다. 우리는 너를 진리와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요 경고하는 이로 보냈다. 경고자가 그 가운데 지나가지 않은 공동체는 하나도 없다. 그들이 너를 거짓말쟁이라 한다면, 그들 이전의 사람들도 자기들의 사도들을 거짓말쟁이라 하였다. 그들의 사도들은 분명한 증거들과 경전들과 밝혀 주는 성서를 가지고 그들에게 왔다. 그런 다음 나는 진리를 부정한 자들을 붙잡았다. 나의 꾸짖음이 얼마나 무서웠는가! (15–26)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을 내리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갖가지 빛깔의 열매를 내는 것을 너는 보지 않는가? 산들에도 희고 붉은 갖가지 빛깔의 줄무늬가 있고, 까마귀처럼 새까만 것도 있다. 사람들과 짐승들과 가축들도 그와 같이 빛깔이 갖가지이다. 그분의 종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지식이 있는 이들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성서를 낭송하고, 예배를 지키며, 우리가 그들에게 베푼 것 가운데서 남몰래 또 드러나게 쓰는 이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래를 바라는 것이다. 그분께서 그들의 보상을 그들에게 온전히 치러 주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그들에게 더해 주시려는 것이다. 그분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잘 보답하시는 분이다. (27–30)

우리가 성서에서 너에게 계시한 것은 진리이며, 그 이전에 있던 것을 확증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 밝으시고 그들을 보시는 분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의 종들 가운데

우리가 택한 이들에게 그 성서를 상속으로 주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스스로에게 불의를 행하고, 어떤 이는 가운데 길을 가며, 어떤 이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선한 일에서 앞서 나간다. 그것이 큰 은총이다. 그것은 그들이 들어갈 영원한 지복의 낙원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금팔찌와 진주로 꾸며지고, 그곳에서 그들의 옷은 비단일 것이다. 그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서 모든 슬픔을 없애 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미가 있다. 참으로 우리의 주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잘 보답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영원히 머무는 집에 살게 하셨다. 그곳에서는 어떤 수고도 우리에게 닿지 않고, 어떤 고단함도 우리에게 닿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불이 있다. 그들에게는 죽을 수 있도록 끝이 정해지지도 않고, 그 징벌이 그들에게서 가벼워지지도 않는다.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모든 자에게 이처럼 갚는다. 그들은 그곳에서 부르짖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를 꺼내 주소서. 저희가 하던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려는 이라면 마음에 새길 만큼 넉넉한 삶을 우리가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경고자가 너희에게 왔다. 그러니 맛보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돕는 이가 없다." (31–37)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보이지 않는 것을 아신다. 그분은 가슴속에 있는 것을 잘 아신다. 그분은 너희를 땅의 후계자로 삼으신 분이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는 그의 부정이 그 자신에게 해가 된다. 부정하는 자들의 부정은 그들 주님 앞에서 미움만 더할 뿐이며, 그들의 부정은 그들에게 손실만 더할 뿐이다. 말하라, "너희가 하나님 말고 부르는 너희의 동반자들을 생각해 보았는가? 그것들이 땅에서 무엇을 창조하였는지 나에게 보여 보라. 아니면 그것들에게 하늘에 어떤 몫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성서를 주어, 그들이 거기에서 나온 분명한 증거 위에 서 있는가?" 아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서로에게 속임수만을 약속할 뿐이다. (38–40)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사라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다. 그것들이 사라진다면, 그분 뒤에 아무도 그것들을 붙들 수 없다. 그분은 관대하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분이다.[41] (41)

그들은 자기들에게 경고자가 온다면 어느 공동체보다도 더 잘 인도받겠다고 하나님을 두고 가장 굳은 맹세로 맹세하였다. 그러나 경고자가 그들에게 오자, 그것은 그들의 꺼림만 더하였고, 그 땅에서의 교만과 악한 계략만 더하였다. 그러나 악한 계략은 그것을

[41] 기회원인론 – 영광스러운 꾸란과 과학
끊임없는 창조의 형이상학: 꾸란 30:25 와 35:41 에 대한 과학적·철학적·신학적 주석
동영상: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사라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다
꾸란 35:41 과 6:59 의 '붙드심'과 '기록하심' – 물리적 정보 이론 및 시뮬레이션 가설과의 대화
존재 안에 붙들려 있는 우주: 꾸란 30:25 와 35:41 에 대한 주석

꾸민 자들만을 에워쌀 뿐이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옛사람들을 다루신 방식 말고 무엇을 기다리는가? 너는 하나님의 길에서 아무 변화도 찾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길에서 아무 비켜남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땅을 다니며 그들 이전 사람들의 끝이 어떠하였는지 보지 않았는가? 그들은 이들보다 힘이 더 강하였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아무것도 하나님을 좌절시킬 수 없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얻은 것 때문에 그들을 문책하신다면, 땅 위에 생물 하나도 남겨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정해진 기한까지 그들에게 말미를 주신다. 그들의 기한이 오면,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늘 지켜보고 계신다. (42–45)

# 36. 야 신 (Yā Sīn)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 신. (1)

지혜로 가득한 꾸란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는 참으로 사도들 가운데 하나이며, 곧은 길 위에 있다. 이것은 전능하시고 자애로우신 분께서 내리신 계시이다. 조상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무심하게 지내는 백성에게 네가 경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 대부분에게는 이미 말씀이 참되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의 목에 턱까지 닿는 쇠고랑을 채웠고, 그래서 그들의 머리는 치켜들려 있다. 또 우리는 그들 앞에 장벽을 두고 그들 뒤에도 장벽을 두어 그들을 덮어 버렸고, 그래서 그들은 보지 못한다. 네가 그들에게 경고하든 경고하지 않든 그들에게는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일깨움을 따르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비로우신 분을 두려워하는 이에게만 경고할 수 있다. 그런 이에게 용서와 고귀한 보상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 참으로 우리가 죽은 이들을 살리며, 그들이 앞서 보낸 것과 그들이 뒤에 남긴 자취를 적어 둔다. 우리는 모든 것을 분명한 장부에 헤아려 두었다. (2–12)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주라. 사도들이 왔던 그 고을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두 사람을 보냈을 때, 그들은 그 둘을 거짓말쟁이라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셋째로 그들을 굳세게 하였고,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너희에게 보냄받았다.” 그들이 말했다. “너희는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이다. 자비로우신 분은 아무것도 내리지 않으셨다. 너희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너희에게 보냄받았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 우리의 의무는 오직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너희에게서 불길한 조짐을 본다. 너희가 그만두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너희를 돌로 칠 것이며, 우리에게서 오는 고통스러운 징벌이 너희에게 닿을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너희의 불길한 조짐은 너희 자신에게 있다. 너희가 일깨움을 받았기 때문인가? 아니다. 너희는 모든 한계를 넘는 백성이다.” 그때 도시의 가장 먼 끝에서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가 말했다. “나의 백성이여, 사도들을 따르라! 너희에게 아무 보수도 청하지 않고 바르게 인도받은 이들을 따르라. 나를 처음 지으신 분, 너희가 그분께로 되돌려질 그분을 내가 어찌 섬기지 않겠는가? 내가 그분 말고 다른 신들을 두겠는가? 자비로우신 분께서 나에게 해를 뜻하신다면, 그것들의 중재는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것들은 나를 구하지도 못한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참으로 분명한 미혹 속에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주님을 믿는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13–25)

이런 말씀이 있었다. “낙원에 들어가라.” 그가 말했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나를 존귀한 이들 가운데 하나로 삼으셨는지 내 백성이 알기만 한다면!” 그의 뒤에 우리는 그의 백성에게 하늘에서 어떤 군대도 내려보내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굉음뿐이었고, 그들은 곧 잠잠히 꺼져 버렸다. (26–29)

아, 종들이 안타깝구나! 그들에게 사도가 올 때마다 그들은 그를 조롱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 이전에 얼마나 많은 세대를 멸하였는지, 그들이 자기들에게 돌아오지 않음을 보지 않는가?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한데 모여 우리 앞에 끌려올 것이다. 죽은 땅은 그들을 위한 징표이다. 우리는 그것을 살리고 거기에서 곡식을 내며, 그들은 그것을 먹는다. 또 우리는 그 안에 대추야자와 포도의 동산을 두고, 그 안에 샘들이 솟게 하였다. 그들이 그 열매를 먹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손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는가? 땅이 자라게 하는 것에서도, 그들 자신에게서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서도 모든 짝을 창조하신 분께 영광이 있기를! 밤도 그들을 위한 징표이다. 우리가 거기에서 낮을 벗겨 내면, 그들은 어둠 속에 잠긴다. 해는 자기를 위해 정해진 머물 곳으로 제 길을 달린다. 그것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정하신 것이다. 달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 머무는 자리들을 정해 주었고, 마침내 그것은 오래되어 마른 대추야자 가지처럼 되어 돌아온다. 해가 달을 따라잡을 수 없고, 밤이 낮을 앞지르지도 않는다. 저마다 제 궤도를 따라 헤엄쳐 간다. (30–40)

또 그들을 위한 징표는, 우리가 그들의 자손을 가득 실린 배에 태워 준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타는 그와 같은 것들을 그들을 위해 창조하였다. 우리가 원한다면 그들을 물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이가 아무도 없고, 그들은 구조되지도 못한다. 다만 우리에게서 오는 자비와 한동안의 즐거움만이 예외이다. 그들에게 “너희가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너희 앞에 있는 것과 너희 뒤에 있는 것을 조심하라.” 하고 말하면, 그들은 외면한다. 그들 주님의 징표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그들에게 올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외면한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것 가운데서 쓰라.” 하고 말하면,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믿는 이들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먹이셨을 사람을 우리가 먹여야 하는가? 너희는 분명한 미혹 속에 있을 뿐이다.” (41–47)

그들은 말한다. “너희가 진실하다면,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들은 단 한 번의 굉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 다투고 있는 동안에 그들을 붙잡을 것이다. 그들은 유언을 남기지도 못하고, 자기 사람들에게 돌아가지도 못할 것이다. (48–50)

나팔이 불리면, 그들은 곧 무덤에서 나와 자기 주님께로 서둘러 갈 것이다. 그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누가 우리를 우리의 잠자리에서 일으켰는가?" "이것은 자비로우신 분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사도들은 진실을 말하였다." 그것은 단 한 번의 굉음뿐이며, 그들은 곧 모두 함께 우리 앞에 끌려올 것이다. "오늘 어떤 영혼도 조금도 불의를 당하지 않으며, 너희는 오직 너희가 하던 일로만 보답받는다. 오늘 낙원의 주민들은 즐거움에 잠겨 있다. 그들과 그들의 배우자들은 그늘 속에서 침상에 기대어 있다. 그곳에서 그들에게는 열매가 있고, 그들이 청하는 모든 것이 있다. 자애로우신 주님에게서 오는 말씀은 '평화!'이다. 그러나 죄지은 자들아, 오늘 따로 떨어져 서라! 아담의 자손아, 사탄을 섬기지 말라고, 그는 너희에게 분명한 적이라고, 그리고 나를 섬기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곧은 길이다. 그런데도 그는 너희 가운데 많은 무리를 길 잃게 하였다. 너희는 이성을 쓰지 않았느냐? 이것이 너희가 약속받던 지옥이다. 너희가 진리를 부정하였으니 오늘 그 안에서 불타라." (51–64)

오늘 우리는 그들의 입에 봉인을 찍을 것이다. 그들의 손이 우리에게 말하고, 그들의 발이 그들이 얻던 것을 증언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였다면 그들의 눈을 지워 버렸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길로 앞다투어 달려가겠지만,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또 우리가 원하였다면 그들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꾸어 버렸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오래 살게 하는 이는, 우리가 그의 몸을 거꾸로 되돌려 놓는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않는가? (65–68)

우리는 그에게 시를 가르치지 않았고, 그것은 그에게 어울리지도 않는다. 이것은 일깨움이요 분명한 꾸란일 뿐이다. 살아 있는 이에게 경고하고,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참되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69–70)

우리의 손이 만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가축을 창조하여 그들이 그 주인이 되었음을 그들은 보지 않는가? 우리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길들여 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것은 타고, 어떤 것은 먹는다. 또 그들은 그것들에게서 다른 이로움과 마실 것을 얻는다.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그들은 도움을 받으리라 바라며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두었다. 그것들은 그들을 도울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이 그것들을 위해 늘어선 군대이다. 그러니 그들의 말이 너를 슬프게 하지 않게 하라. 우리는 그들이 감추는 것과 드러내는 것을 안다. (71–76)

인간은 우리가 그를 한 방울로 창조하였음을 보지 않는가? 그런데 보라, 그는 드러내 놓고 맞서는 자가 되었다! 그는 우리를 두고 비유를 지어내면서 자기 자신의 창조는 잊는다. 그는 말한다. "뼈가 삭아 티끌이 되었는데, 누가 그것을 살리겠는가?" 말하라, "그것을

처음에 생겨나게 하신 분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창조를 다 아신다. 그분은 너희를 위해 푸른 나무에서 불을 내시는 분이며, 너희는 거기에서 불을 붙인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께서 그와 같은 것을 창조하실 수 없겠는가? 참으로 그러하시다! 그분은 으뜸가는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분께서 어떤 것을 뜻하실 때, 그분의 명령은 다만 그것에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러면 그것은 있게 된다. 그러니 모든 것의 주권이 그 손에 있는 분께 영광이 있기를! 너희는 그분께로 되돌려질 것이다. (77–83)

# 37. 줄지어 늘어선 이들 (Al-Ṣāffāt)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줄지어 늘어선 이들을 두고, 세차게 몰아내는 이들을 두고, 일깨움을 낭송하는 이들을 두고 맹세하건대, 참으로 너희의 신은 한 분이시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의 주님이시며, 해 돋는 모든 곳의 주님이시다. 우리는 가장 낮은 하늘을 별들의 꾸밈으로 꾸몄고, 거역하는 모든 사탄에 맞선 지킴으로 삼았다. 그들은 높은 모임에 귀를 기울일 수 없고, 사방에서 내던져져 쫓겨난다. 그들에게는 끊이지 않는 징벌이 있다. 다만 한 조각을 채 가는 자는 예외이나, 꿰뚫는 불꽃이 그를 뒤쫓는다. (1–10)

그러니 그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창조하기에 더 어려운가, 아니면 우리가 창조한 다른 것들이 더 어려운가? 우리는 그들을 끈끈한 진흙으로 창조하였다. 너는 놀라워하는데, 그들은 조롱한다. 그들은 일깨움을 받아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징표를 보면 그것을 비웃으며 말한다. "이것은 분명한 마술일 뿐이다. 뭐라고? 우리가 죽어 흙과 뼈가 된 뒤에, 정말로 다시 일으켜진단 말인가? 우리의 옛 조상들도 그러한가?" 말하라, "그렇다. 그리고 너희는 낮아질 것이다." 그것은 단 한 번의 외침뿐이며, 그들은 곧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이것이 심판의 날이다." "이것이 너희가 거짓이라 하던 판가름의 날이다." "불의를 행한 자들을, 그들의 짝들과 그들이 하나님 말고 섬기던 것들과 함께 모아, 타오르는 불의 길로 이끌라. 그리고 그들을 세워 두라. 그들은 물음을 받아야 한다. '너희가 서로 돕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이냐?'" 아니다. 그날 그들은 굴복할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돌아서서 따져 물을 것이다. 그들은 말할 것이다. "오른쪽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곤 하던 것은 바로 너희였다." 그들은 말할 것이다. "아니다. 너희 자신이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너희에 대한 아무 권한도 없었다. 아니, 너희는 모든 한계를 넘는 백성이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되게 이루어졌다. 우리는 반드시 징벌을 맛볼 것이다. 우리가 너희를 길 잃게 하였다. 우리 자신이 길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날 그들은 징벌을 함께 나눌 것이다. 우리는 죄지은 자들을 이처럼 다룬다. 그들은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교만하게 굴며 말하였다. "우리가 미친 시인 때문에 우리의 신들을 버려야 하는가?" 아니다. 그는 진리를 가져왔고, 사도들을 확증하였다. 너희는 반드시 고통스러운 징벌을 맛볼 것이며, 너희는 오직 너희가 하던 일로만 보답받을 것이다. (11–39)

다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들은 예외이다. 그들에게는 잘 알려진 양식이 있으니, 곧 열매들이다. 그들은 지복의 낙원에서 존귀하게 대접받으며, 침상 위에서 서로 마주 볼 것이다. 흐르는 샘에서 떠 온 잔이 그들 사이에 돌려질 것이다. 그것은 희고, 마시는

이들에게 맛좋으며, 그 안에는 아무 해도 없고, 그들은 그것으로 취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눈길을 낮춘, 눈이 아름다운 벗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마치 감추어 둔 알과 같다. (40–49)

그들은 서로에게 돌아서서 물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말할 것이다. "나에게는 가까운 벗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너는 정말로, 우리가 죽어 흙과 뼈가 된 뒤에 심판을 받으러 끌려간다고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인가?'" 그가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려다보겠는가?" 그러고는 내려다보고, 그가 타오르는 불 한가운데에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가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 맹세코, 너는 나를 거의 파멸시킬 뻔하였다! 나의 주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나도 지옥으로 끌려온 자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첫 죽음 말고는 죽지 않으며, 징벌받지도 않는 것인가? 참으로 이것이 크나큰 승리이다!" 이와 같은 것을 위해, 힘써 일하는 이들은 모두 힘써 일하라. 그것이 더 좋은 대접인가, 아니면 자꿈 나무가 더 좋은가? 우리는 그것을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위한 시험으로 삼았다. 그것은 타오르는 불의 밑바닥에서 자라는 나무이며, 그 열매 송이는 사탄들의 머리와 같다. 그들은 그것을 먹고 그것으로 배를 채울 것이다. 그런 다음 그 위에 끓는 물을 섞은 것을 마시게 되고, 그런 다음 그들의 귀착지는 타오르는 불이 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길을 잃은 것을 보았고,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 내달린다. 그들 이전에 옛사람들 대부분이 길을 잃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경고자들을 보냈는데도 그러하였다. 그러니 경고를 받았던 자들의 끝이 어떠하였는지 보라. 다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들은 예외이다. (50–74)

누흐가 우리를 불렀고, 우리는 얼마나 훌륭하게 응답하는 이였는가! 우리는 그와 그의 가족을 큰 괴로움에서 구하였고, 그의 자손을 살아남은 이들로 삼았으며, 뒤에 오는 세대들 가운데 그를 위해 좋은 이름을 남겨 두었다. "온 세상 가운데 누흐에게 평화가 있기를!"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이처럼 보상한다. 그는 우리의 믿는 종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 다음 우리는 다른 자들을 물에 빠뜨렸다. (75–82)

이브라힘도 그의 무리에 속하였다.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자기 주님께 왔다. 그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가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라는 거짓인가? 그러면 너희는 만유의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다음 그는 별들을 한 번 바라보고 말했다. "나는 몸이 아프다."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의 신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너희는 먹지 않는가? 너희가 말하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인가?" 그런 다음 그는 오른손으로 그것들을 내리쳤다. 그들이 서둘러 그에게 몰려왔다. 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가 만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너희는 너희 스스로 깎아 만든 것을 섬기는가?" 그들이 말했다. "그를 위해 건물을 짓고, 그를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 넣으라." 그들은 그를 거슬러 계략을 꾸몄으나, 우리는 그들을 가장 낮은 자들로 만들었다. (83–98)

그가 말했다. "나는 나의 주님께로 간다.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이시여, 의로운 이들 가운데 하나인 아들을 저에게 주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관대한 아들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 아들이 그와 함께 뛰어다닐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그가 말했다. "내 아들아, 나는 꿈에서 내가 너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았다. 네 생각이 어떠한지 살펴보아라." 그가 말했다. "아버지, 명령받으신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버지께서는 제가 인내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임을 보실 것입니다." 그 둘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가 아들을 이마를 땅에 대어 눕혔을 때, 우리는 그를 불렀다. "이브라힘아! 너는 그 꿈을 이루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이처럼 보상한다. 참으로 이것은 분명한 시험이었다. 우리는 큰 제물로 그의 몸값을 치렀고, 뒤에 오는 세대들 가운데 그를 위해 좋은 이름을 남겨 두었다. "이브라힘에게 평화가 있기를!"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이처럼 보상한다. 그는 우리의 믿는 종들 가운데 하나였다. (99–111)

우리는 그에게 의로운 이들 가운데 하나요 예언자인 이스하끄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우리는 그와 이스하끄를 축복하였다. 그들의 후손 가운데에는 선을 행하는 이도 있고, 분명히 스스로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도 있다. 우리는 무사와 하룬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들과 그들의 백성을 큰 괴로움에서 구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 그들이 이기는 이들이 되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히 밝혀 주는 성서를 주었고, 그들을 곧은 길로 인도하였으며, 뒤에 오는 세대들 가운데 그들을 위해 좋은 이름을 남겨 두었다. "무사와 하룬에게 평화가 있기를!"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이처럼 보상한다. 그들은 우리의 믿는 종들 가운데 있었다. (112–122)

일리야스도 사도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너희는 바알을 부르고, 창조하는 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을 버리는가? 그분은 하나님, 너희의 주님이시며 너희 옛 조상들의 주님이시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거짓말쟁이라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징벌 속으로 끌려갈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들은 예외이다. 우리는 뒤에 오는 세대들 가운데 그를 위해 좋은 이름을 남겨 두었다. "일리야스에게 평화가 있기를!"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이처럼 보상한다. 그는 우리의 믿는 종들 가운데 하나였다. (123–132)

루뜨도 사도들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는 그와 그의 가족을 모두 구하였다. 다만 뒤에 남은 자들 가운데 있던 한 늙은 여자는 예외였다. 그런 다음 우리는 다른 자들을 멸하였다. 너희는 아침에도 밤에도 그들 곁을 지나간다. 그런데도 너희는 깨닫지 않는가? 유누스도 사도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가득 실린 배로 달아났고, 제비를 뽑았다가 지는 쪽이 되었다. 그런 다음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 그는 탓을 들을 만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다면, 그는 사람들이 다시 일으켜지는 날까지 그 배 속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메마른 바닷가에 던져 놓았고, 그는 병들어 있었다. 우리는 그 위에 박 넝쿨이 자라게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십만 명,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보냈다. 그들이 믿었으므로, 우리는 그들이 한동안 삶을 누리게 하였다. (133–148)

그러니 그들에게 물어보라. 너의 주님께는 딸들이 있고, 그들에게는 아들들이 있는가? 아니면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가 천사들을 여성으로 창조하였는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으셨다." 하고 말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지어낸 거짓이 아닌가? 그들은 틀림없이 거짓말쟁이이다. 그분께서 아들들을 두고 딸들을 택하셨는가?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너희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런데도 너희는 마음에 새기지 않는가? 아니면 너희에게 분명한 권위가 있는가? 그러면 너희가 진실하다면 너희의 경전을 가져오라. 그들은 그분과 진 사이에 혈연을 지어냈다. 그러나 진은 자기들이 심판을 받으러 끌려가리라는 것을 잘 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그분은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높이 계신다. 다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들은 예외이다. 너희와 너희가 섬기는 것들은 아무도 그분에게서 꾀어낼 수 없다. 다만 타오르는 불에서 불탈 자만은 예외이다. "우리 가운데 정해진 자리가 없는 이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줄지어 늘어선 이들이며,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이들이다." (149–166)

그들은 말하곤 하였다. "우리에게 옛사람들에게서 온 일깨움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들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제 그들은 그것을 부정한다.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말은 이미 우리의 종인 사도들에게 나갔다. 도움을 받는 이는 바로 그들이며, 우리의 군대, 그들이 이기는 이들이다. 그러니 한동안 그들에게서 돌아서고, 그들을 지켜보라. 그들은 곧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징벌을 서둘러 달라고 하는가? 그것이 그들의 마당에 내리면, 경고를 받았던 자들의 아침은 나쁠 것이다. 그러니 한동안 그들에게서 돌아서고, 지켜보라. 그들은 곧 보게 될 것이다. 권능의 주님이신 너의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그분은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높이 계신다. 사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모든 찬미는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있다. (167–182)

# 38. 사드 (Ṣād)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드. 일깨움으로 가득한 꾸란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나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교만과 반목에 빠져 있다. 그들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대를 멸하였는가! 그들은 부르짖었으나, 이미 달아날 때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경고자가 자기들에게 온 것을 놀라워하며,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말한다. "이 자는 마술사요 거짓말쟁이이다. 그가 신들을 한 분의 신으로 만들었는가?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렇게 말하며 떠나간다. "가서 너희의 신들을 굳게 붙들라. 이것은 틀림없이 꾀하는 바가 있는 일이다. 우리는 가장 나중의 종교에서도 이런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이것은 지어낸 것일 뿐이다. 우리 모두 가운데 하필 그에게 일깨움이 내려졌단 말인가?" 아니다. 그들은 나의 일깨움에 대해 의심 속에 있다. 아니, 그들은 아직 나의 징벌을 맛보지 못하였다. (1–8)

아니면 전능하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인 너의 주님의 자비의 보고가 그들에게 있는가? 아니면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의 통치권이 그들의 것인가? 그러면 그들이 밧줄을 타고 올라가 보게 하라! 그들은 너에게 맞서 뭉친 무리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에서 패하여 달아날 군대이다. 그들 이전에 누흐의 백성과 아드와 말뚝의 주인 파라오가 진리를 부정하였고, 사무드와 루뜨의 백성과 숲의 주민들도 그러하였다. 그들이 그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사도들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그래서 나의 징벌이 마땅히 내렸다. 이들은 단 한 번의 굉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며, 그것에는 아무 말미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 주님이시여, 셈의 날 이전에 저희의 몫을 저희에게 서둘러 주소서!" 그들이 하는 말을 인내하고, 힘을 지닌 우리의 종 다우드를 기억하라. 그는 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였다. (9–17)

우리는 산들이 저녁과 해 뜰 무렵에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고, 한데 모인 새들도 그렇게 하였다. 모두가 그분께 돌아갔다. 우리는 그의 왕국을 굳세게 하였고, 그에게 지혜와 판가름하는 말솜씨를 주었다. 다투는 자들의 이야기가 너에게 이르렀는가? 그들은 담을 넘어 그의 사사로운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이 다우드에게 들어오자, 그는 그들 때문에 놀랐다. 그들이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투는 두 사람이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이를 진리로 판결해 주시고, 부당하게 하지 마시며,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저의 형제입니다. 그에게는 암양이 아흔아홉 마리 있고, 저에게는 암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나에게 맡겨라.' 하고 말하며, 말다툼에서 저를 눌렀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네 암양을 자기 암양들에 보태려고 달라고 함으로써 너에게 부당하게 하였다. 참으로 함께 일하는 많은 이들이 서로에게 부당하게 한다. 다만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은 예외인데, 그런 이들은 적다.” 다우드는 우리가 그를 시험하였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엎드려 절하며 뉘우치고 그분께 돌아갔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일을 그에게 용서해 주었다. 그에게는 우리 곁의 가까운 자리와 아름다운 돌아갈 곳이 있다. “다우드야, 우리는 너를 땅의 대리자로 삼았다. 그러니 사람들 사이를 진리로 판결하고, 욕망을 따르지 말라. 그것이 너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셈의 날을 잊었던 까닭에 혹독한 징벌이 있다.” (18–26)

우리는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 그것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생각이다. 그러니 불지옥 때문에,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 우리가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을 땅에서 부패를 퍼뜨리는 자들처럼 대하겠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악한 자들처럼 대하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너에게 내린 복된 성서이다. 그들이 그 구절들을 깊이 생각하고, 분별 있는 이들이 마음에 새기게 하려는 것이다. (27–29)

우리는 다우드에게 술라이만을 주었다. 얼마나 훌륭한 종인가! 그는 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였다. 저녁 무렵 세 발로 서는 날랜 말들이 그 앞에 줄지어 선보였을 때, 그가 말했다. “나는 나의 주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좋은 것들을 사랑하기를 더 좋아하였구나.” 마침내 해가 장막 뒤로 숨었다. “그것들을 나에게 도로 데려오라!” 그러고는 그것들의 다리와 목을 쓰다듬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분명히 술라이만을 시험하였고, 그의 왕좌 위에 한낱 몸뚱이를 던져 놓았다. 그런 다음 그는 하나님께 돌아갔다. 그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저를 용서하시고, 제 뒤에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을 왕국을 저에게 주소서. 참으로 당신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고, 그것은 그가 가리키는 곳 어디로든 그의 명령에 따라 부드럽게 달렸다. 또 사탄들도 복종하게 하였으니, 온갖 짓는 자와 물속으로 들어가는 자였고, 족쇄에 함께 묶인 다른 자들도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선물이다. 그러니 셈 없이 아낌없이 주든지 쥐고 있든지 하라.” 그에게는 우리 곁의 가까운 자리와 아름다운 돌아갈 곳이 있다. (30–40)

그리고 우리의 종 아이윱을 기억하라. 그가 자기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탄이 고단함과 괴로움으로 저에게 닿았습니다.” “네 발로 땅을 굴러라! 여기 몸을 씻을 시원한 물과 마실 것이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오는 자비로, 그리고 분별 있는 이들을 위한 일깨움으로, 그의 가족과 그들과 함께 그만큼을 더 그에게 돌려주었다. “네 손에 잔가지 한 묶음을

쥐고 그것으로 치되, 네 맹세를 어기지 말라." 우리는 그가 인내하는 이임을 보았다. 얼마나 훌륭한 종인가! 그는 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였다. (41–44)

그리고 우리의 종 이브라힘과 이스하끄와 야꿉을 기억하라. 그들은 힘과 통찰을 지닌 이들이었다. 우리는 순수한 한 가지 바탕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곧 다가올 집을 기억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우리 곁에서 택함 받은 이들, 좋은 이들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스마일과 알야사와 줄키플을 기억하라. 그들은 모두 좋은 이들 가운데 있었다. 이것은 일깨움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돌아갈 곳이 있다. (45–49)

그것은 영원한 지복의 낙원으로, 그 문들이 그들을 위해 열려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기대어 넉넉한 열매와 마실 것을 청할 것이며, 그들 곁에는 눈길을 낮춘, 나이가 같은 벗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셈의 날을 위해 너희에게 약속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며, 그것은 결코 다하지 않는다." (50–54)

그러하다. 그러나 모든 한계를 넘는 자들에게는 나쁜 돌아갈 곳이 있다. 그것은 지옥이며, 그들은 그 안에서 불탈 것이다. 참으로 나쁜 쉴 곳이다. 그러하다. 그들이 그것을 맛보게 하라. 끓는 물과 곪은 고름이며, 그와 같은 종류의 다른 괴로움들이 짝지어 있다. "이것은 너희와 함께 몰려 들어오는 무리이다. 그들에게는 환영이 없다! 그들은 불지옥에서 불탈 것이다." 그들은 말할 것이다. "아니다. 환영이 없는 것은 바로 너희이다! 너희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왔다. 참으로 나쁜 머물 곳이다!" 그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시여, 이것을 저희에게 가져온 자에게는 불지옥에서 두 배의 징벌을 주소서." 또 그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가 악한 자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인가? 우리가 그들을 조롱거리로 삼았던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눈이 그들을 놓친 것인가?" 참으로 이것은 진실이다. 불지옥의 주민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다. (55–64)

말하라, "나는 경고하는 이일 뿐이다. 유일하시고 모든 것을 제압하시는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의 주님이시며, 전능하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분이다." 말하라, "이것은 중대한 소식인데, 너희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 높은 모임이 서로 논할 때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 지식도 없었다. 다만 내가 분명한 경고자라는 것만이 나에게 계시된다." (65–70)

너의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진흙으로 사람을 창조하려 한다. 내가 그를 빚어 다듬고 그 안에 나의 영을 불어넣거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라." 그러자 천사들은 모두 다 함께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이블리스는 예외였다. 그는 교만하게 굴었고,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블리스야, 내가

나의 두 손으로 창조한 것 앞에 엎드려 절하지 못하게 너를 막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교만한 것이냐, 아니면 네가 높은 자들 가운데 하나이냐?" 그가 말했다. "저는 그보다 낫습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불로 창조하시고, 그를 진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라. 너는 저주받은 자이다. 심판의 날까지 나의 저주가 네 위에 있을 것이다." 그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그들이 다시 일으켜지는 날까지 저에게 말미를 주소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정해진 때의 날까지 말미를 받은 자들 가운데 있다." 그가 말했다. "그러면 당신의 권능을 두고 맹세하건대, 저는 반드시 그들을 모두 길 잃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들 가운데 당신의 택함 받은 종들은 예외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진리이며, 내가 말하는 것은 진리이다. 나는 반드시 너와, 그들 가운데 너를 따르는 모든 자로 지옥을 채울 것이다." (71–85)

말하라, "나는 이것에 대해 너희에게 아무 보수도 청하지 않으며, 나는 꾸며 대는 자들 가운데 있지도 않다. 이것은 온 세상을 위한 일깨움일 뿐이다. 너희는 얼마 뒤에 틀림없이 그 소식을 알게 될 것이다." (86–88)

# 39. 무리들 (Al-Zumar)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성서가 내려온 것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에게서이다. 우리는 진리로 이 성서를 너에게 내렸다. 그러니 믿음을 오직 그분께만 순수하게 바치며 하나님을 섬기라. 참으로 순수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마땅하다. 그분 말고 다른 보호자를 두면서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다주도록 그것들을 섬길 뿐이다." 하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로 달리하는 것에 대해 그들 사이를 판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요 은혜를 모르는 자를 인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두기를 원하셨다면, 당신께서 창조하시는 것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을 택하셨을 것이다.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그분은 유일하시고 모든 것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진리로 창조하셨다. 그분은 밤을 낮 위에 감으시고 낮을 밤 위에 감으신다. 그분은 해와 달을 복종하게 하셨고, 저마다 정해진 기한까지 달린다. 그분이야말로 전능하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1–5)

그분은 너희를 한 영혼에서 창조하시고, 그런 다음 그것에서 그 짝을 만드셨다. 또 너희를 위해 가축 여덟 마리를 짝지어 내려 주셨다. 그분은 너희를 너희 어머니의 배 속에서, 세 겹의 어둠 속에서 창조에 창조를 이어 창조하신다. 그분이 하나님, 너희의 주님이시다. 통치권은 그분의 것이다. 그분 말고는 신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서는가? 너희가 진리를 부정한다 해도, 하나님은 너희가 필요하지 않으시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종들에게서 배은망덕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감사한다면, 그분은 너희에게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짐을 진 어떤 영혼도 다른 영혼의 짐을 지지 않는다. 그런 다음 너희의 귀착지는 너희 주님께 있으며, 그분께서 너희가 하던 일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그분은 가슴속에 있는 것을 잘 아신다. (6–7)

고난이 사람에게 닿으면, 그는 자기 주님께 돌아가며 그분을 부른다. 그러나 그분께서 당신에게서 오는 은혜를 그에게 주시면, 그는 전에 자기가 청하던 것을 잊고, 사람들을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맞서는 것들을 세운다. 말하라, "너의 부정을 잠시 즐기라. 너는 불지옥의 주민 가운데 하나이다." 내세를 조심하고 자기 주님의 자비를 바라며, 밤의 시간들에 엎드리고 서서 경건히 섬기는 이가 그렇지 않은 자와 같겠는가? 말하라, "아는 이들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같겠는가?" 오직 분별 있는 이들만이 마음에 새긴다. (8–9)

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믿는 나의 종들이여, 너희 주님을 경외하라.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것이 있다. 하나님의 땅은 넓다. 참으로 인내하는 이들은 셈 없이 자기 보상을 온전히 받을 것이다." 말하라, "나는 믿음을 오직 그분께만 순수하게 바치며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께 귀의하는 이들 가운데 첫째가 되라는 명령을 받았다." 말하라, "나는 내가 나의 주님께 거역한다면 엄청난 날의 징벌이 두렵다." 말하라, "나는 나의 믿음을 오직 그분께만 순수하게 바치며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 너희는 그분 말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섬기라." 말하라, "참으로 잃는 자들은 부활의 날에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잃는 자들이다. 그것이 분명한 손실이 아닌가? 그들 위에는 불의 덮개가 있고, 그들 아래에도 덮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신다. "나의 종들이여, 나를 경외하라." (10–16)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다. 그러니 나의 종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들은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따르는 이들이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들이며, 이들이 분별 있는 이들이다. 징벌의 말씀이 참되게 이루어진 자는 어떠한가? 네가 불지옥에 있는 자를 건져 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자기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높은 거처들이 있다. 그 위에 또 거처들이 지어져 있고, 그 아래로 강이 흐른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 (17–20)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을 내리시어 그것을 샘으로 땅속에 스며들게 하시는 것을 너는 보지 않는가? 그런 다음 그분은 그것으로 갖가지 빛깔의 곡식을 내신다. 그런 다음 그것이 시들면 너는 그것이 누렇게 되는 것을 본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것을 부서진 지푸라기로 만드신다. 참으로 그 안에는 분별 있는 이들을 위한 일깨움이 있다. (21)

하나님께서 그분께 귀의하도록 가슴을 열어 주시어 자기 주님에게서 오는 빛 속을 걷는 이가, 마음이 굳어진 자와 같겠는가?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마음이 굳어진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 그들은 분명한 미혹 속에 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말씀을 내리셨다. 그것은 스스로 한결같고, 그 가르침이 짝을 이루어 되풀이되는 성서이다. 자기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살갗이 그것 때문에 떨리고, 그런 다음 그들의 살갗과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부드러워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이다. 그분은 원하시는 이를 그것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길 잃게 두시는 자에게는 인도하는 이가 없다. (22–23)

부활의 날에 가장 나쁜 징벌을 자기 얼굴로 막아야 하는 자가 안전한 이와 같겠는가?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이런 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얻던 것을 맛보라." 그들 이전의

사람들도 진리를 부정하였고,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징벌이 그들에게 닥쳤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세의 삶에서 그들에게 치욕을 맛보게 하셨다. 내세의 징벌은 참으로 더 크다. 그들이 알기만 한다면! (24–26)

우리는 이 꾸란에서 사람들을 위해 온갖 비유를 밝혀 놓았다. 그들이 마음에 새기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 굽음도 없는 아랍어 꾸란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유를 드신다. 서로 다투는 여러 주인에게 속한 사람과, 온전히 한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 있다. 그 둘의 처지가 같겠는가? 모든 찬미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알지 못한다. (27–29)

너도 죽고, 그들도 죽을 것이다. 그런 다음 부활의 날에 너희는 너희 주님 앞에서 서로 다툴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지어내고, 진리가 자기에게 왔을 때 그것을 거짓이라 하는 자보다 더 불의한 자가 누구인가? 지옥에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위한 숙소가 있지 않은가? 그러나 진리를 가져온 이와 그것을 참되다고 한 이,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자기 주님 곁에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을 것이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이들의 보상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일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을 그들에게서 지워 주시고, 그들이 하던 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에 따라 그들의 보상을 치러 주시려는 것이다. (30–35)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충분하지 않으신가? 그런데도 그들은 그분 말고 다른 것들로 너를 겁주려 한다. 하나님께서 길 잃게 두시는 자에게는 인도하는 이가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는 아무도 길 잃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응징하시는 주님이 아니신가? 네가 그들에게 누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할 것이다. 말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말고 부르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를 뜻하신다면, 그것들이 그분의 해를 거두어 줄 수 있는가? 또는 그분께서 나에게 자비를 뜻하신다면, 그것들이 그분의 자비를 막을 수 있는가?" 말하라, "나에게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의탁하는 이들은 그분께 의탁한다." 말하라, "나의 백성이여, 너희는 너희 자리에서 행하라. 나도 행하고 있다. 치욕을 주는 징벌이 누구에게 닥치고, 끝없이 이어지는 징벌이 누구에게 내릴지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36–40)

우리는 인류를 위해 진리로 이 성서를 너에게 내렸다. 인도받는 이는 자기 자신을 위해 인도받는 것이고, 길을 잃는 자는 오직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길을 잃는 것이다. 너는 그들의 수호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혼들이 죽을 때 그것들을 거두시고, 죽지 않은 영혼들은 잠자는 동안에 거두신다. 그분은 죽음을 정하신 영혼들은 붙들어 두시고, 다른

영혼들은 정해진 기한까지 돌려보내신다. 참으로 그 안에는 깊이 생각하는 백성을 위한 징표들이 있다. 아니면 그들은 하나님 말고 중재자들을 두었는가? 말하라, "그것들이 아무것에도 힘이 없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데도 그러한가?" 말하라, "모든 중재는 하나님께 속한다. 하늘과 땅의 통치권은 그분의 것이다. 그런 다음 너희는 그분께로 되돌려질 것이다." (41–44)

오직 하나님만이 언급되면,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싫어하며 움츠러든다. 그러나 그분 말고 다른 것들이 언급되면, 그들은 곧바로 기뻐한다. 말하라, "하나님이시여, 하늘과 땅을 처음 지으신 분,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서로 달리하던 것에 대해 그들 사이를 판결하실 것입니다." 불의를 행한 자들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 그만큼을 더 가졌다 해도, 그들은 부활의 날의 가장 나쁜 징벌에서 벗어나려고 그것을 자기 몸값으로 내놓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헤아려 본 적도 없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얻은 것의 악함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조롱하던 것이 그들을 에워쌀 것이다. (45–48)

고난이 사람에게 닿으면, 그는 우리를 부른다. 그런 다음 우리가 우리에게서 오는 은혜를 그에게 주면, 그는 말한다. "나는 오직 지식 때문에 이것을 받았다." 아니다. 그것은 시험이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알지 못한다. 그들 이전의 사람들도 같은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것은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것의 악함이 그들을 쳤다. 이 사람들 가운데 불의를 행하는 자들도, 그들이 얻은 것의 악함이 그들을 칠 것이며, 그들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에게 양식을 넉넉히 주시기도 하고 헤아려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가? 참으로 그 안에는 믿는 백성을 위한 징표들이 있다. (49–52)

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자기 자신에게 지나친 짓을 한 나의 종들이여, 하나님의 자비에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그분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징벌이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너희 주님께 돌아가고, 그분께 귀의하라. 그 뒤에는 너희가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징벌이 갑자기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너희 주님에게서 너희에게 내려진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따르라. 어떤 영혼이 '아, 내가 하나님께 소홀히 한 것이 한스럽구나! 나는 참으로 조롱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였다.' 하고 말하지 않도록 하라.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더라면, 나는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하고 말하지 않도록 하라. 또는 징벌을 볼 때 '나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나는 선을 행하는 이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하지 않도록 하라." 결코 아니다! 나의 징표가 너에게 왔으나,

너는 그것을 거짓이라 하고 교만하게 굴었으며,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였다. (53–59)

부활의 날에 너는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말한 자들의 얼굴이 검게 된 것을 볼 것이다. 지옥에 교만한 자들을 위한 숙소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던 이들을 그들의 안전한 곳으로 구해 내실 것이다. 어떤 나쁜 것도 그들에게 닿지 않으며, 그들은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수호자이시다. 하늘과 땅의 열쇠는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징표를 부정하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잃는 자들이다. (60–63)

말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는 나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라고 하는가?" 너에게도, 너 이전의 이들에게도 이렇게 계시되었다. "네가 하나님께 무엇이든 동반자로 둔다면, 너의 행위는 반드시 헛것이 되고, 너는 반드시 잃는 자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감사하는 이들 가운데 있으라. 그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헤아려야 할 만큼 헤아리지 않았다. 부활의 날에 온 땅이 그분의 손아귀에 있고, 하늘은 그분의 오른손에 말려 있을 것이다.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그분은 그들이 동반자로 두는 것보다 훨씬 높이 계신다. 나팔이 불리면, 하늘에 있는 모든 이와 땅에 있는 모든 이가 정신을 잃고 쓰러질 것이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들은 예외이다. 그런 다음 그것이 다시 불리면, 그들은 곧 일어서서 바라볼 것이다. 땅은 그 주님의 빛으로 빛나고, 책이 놓이며, 예언자들과 증인들이 불려 나올 것이다. 그들 사이에 진리로 판결이 내려지고, 그들은 불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영혼은 자기가 한 일의 값을 온전히 받을 것이다. 그분은 그들이 하는 일을 가장 잘 아신다. (64–70)

진리를 부정한 자들은 떼를 지어 지옥으로 몰려갈 것이다. 그들이 그곳에 이르면 그 문들이 열리고, 그곳을 지키는 이들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사도들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 주님의 징표를 너희에게 낭송해 주고 너희의 이날의 만남을 너희에게 경고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말할 것이다. "참으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징벌의 말씀이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참되게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 있을 것이다. "지옥의 문들로 들어가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라." 교만한 자들의 거처는 얼마나 나쁜가! (71–72)

자기 주님을 경외하던 이들은 떼를 지어 낙원으로 인도될 것이다. 그들이 그곳에 이르면 그 문들은 이미 열려 있고, 그곳을 지키는 이들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는 잘하였다. 그러니 그곳에 들어가 영원히 머물라." 그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상속으로 주시어 우리가

낙원에서 원하는 곳 어디에나 머물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미가 있다." 힘써 일하는 이들의 보상은 얼마나 훌륭한가! 너는 천사들이 권좌 둘레를 돌며 찬미로 자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들 사이에 진리로 판결이 내려지고, 이런 말이 있을 것이다. "모든 찬미는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있다." (73–75)

# 40. 용서하시는 분 (Ghāfir)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 밈. (1)

이 성서가 내려온 것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게서이다.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고 뉘우침을 받아 주시며, 징벌에 엄하시고 은총이 넘치시는 분이다. 그분 말고는 신이 없으며, 마지막 귀착지는 그분께 있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징표를 두고 논쟁하지 않는다. (예언자여) 그러니 그들이 이 땅에서 오가는 것이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들 이전에 누흐의 백성이 부정하였고, 그들 뒤에 온 무리들도 그러하였다. 모든 공동체가 자기들의 사도를 붙잡으려고 계략을 꾸몄고, 거짓으로 논쟁하여 그것으로 진리를 꺾으려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붙잡았다. 나의 징벌이 어떠하였는가! 이처럼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너의 주님의 말씀이 참되게 이루어졌다. 그들이 불지옥의 주민이라는 것이다. (2–6)

권좌를 떠받치는 이들과 그 둘레에 있는 이들은 찬미로 자기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믿으며, 믿는 이들을 위해 용서를 구한다. "우리 주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자비와 지식으로 모든 것을 품으십니다. 그러니 뉘우치고 당신의 길을 따르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지옥의 징벌에서 지켜 주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지복의 낙원에 그들을 들게 하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배우자들과 자손들 가운데 의로운 이들도 함께 들게 하소서. 참으로 당신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악한 행위에서 지켜 주소서. 그날 당신께서 악한 행위에서 지켜 주시는 이는, 당신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것이 크나큰 승리입니다." 진리를 부정한 자들에게는 이런 부름이 있을 것이다. "오늘 너희가 너희 자신을 미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미워하시는 것이 더 크다. 너희가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너희는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저희를 두 번 죽게 하시고 두 번 살리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갈 길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불리실 때 너희가 부정하였고, 그분께 동반자가 붙여질 때에는 너희가 믿었기 때문이다. 판결은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 속한다." (7–12)

그분은 너희에게 당신의 징표들을 보여 주시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는 분이다. 그러나 그분께 돌아오는 이들 말고는 아무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 그러니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싫어한다 해도, 종교를 오직 그분께만 순수하게 바치며

하나님을 부르라. 그분은 모든 지위 위에 높이 계시는 분, 권좌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당신의 종들 가운데 원하시는 이에게 당신 명령의 영을 내리시어, 만남의 날을 경고하게 하신다. 그날 그들은 나서게 될 것이며, 그들에 대한 아무것도 하나님께 숨겨지지 않는다. "오늘 왕권은 누구의 것인가?" "유일하시고 모든 것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모든 영혼은 자기가 얻은 대로 보답받는다. 오늘은 아무 불의도 없다. 하나님은 셈에 빠르시다." (13–17)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그날을 그들에게 경고하라. 그때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밀어 숨이 막힐 것이며,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는 가까운 벗도 없고 말이 받아들여질 중재자도 없을 것이다. 그분은 눈의 속임과 가슴이 감추는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진리로 판결하신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 말고 부르는 것들은 아무것도 판결하지 못한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다. (18–20)

그들은 땅을 다니며 그들 이전 사람들의 끝이 어떠하였는지 보지 않았는가? 그들은 이들보다 힘이 더 강하였고, 땅에 남긴 자취도 더 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붙잡으셨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에게서 지켜 줄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도들이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거듭 왔는데도 그들이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셨다. 참으로 그분은 강하시고 징벌에 엄하시다. (21–22)

우리는 무사를 우리의 징표와 분명한 권위와 함께 파라오와 하만과 까룬에게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하는 마술사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서 온 진리를 그들에게 가져오자, 그들이 말했다. "그와 함께 믿는 자들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들의 여자들은 살려 두라." 그러나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계략은 헛되이 길을 잃을 뿐이다. 파라오가 말했다. "내가 무사를 죽이게 내버려 두라. 그가 자기 주님을 불러 보게 하라! 나는 그가 너희의 종교를 바꾸거나, 이 땅에 부패를 퍼뜨릴까 두렵다." 무사가 말했다. "나는 셈의 날을 믿지 않는 모든 교만한 자에게서, 나의 주님이시며 너희의 주님이신 분께 보호를 구한다." (23–27)

파라오의 집안 사람으로서 자기 믿음을 숨기고 있던 한 믿는 사람이 말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 너희가 그를 죽이려는가? 그는 너희 주님에게서 온 분명한 증거들을 너희에게 가져왔다. 그가 거짓말쟁이라면, 그의 거짓은 그 자신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그가 진실하다면, 그가 너희를 위협하는 것의 얼마가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하나님은 한계를 넘고 거짓말하는 자를 인도하지 않으신다. 나의 백성이여, 오늘 왕권은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이 땅에서 우세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력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누가 그것에 맞서 우리를 도와주겠는가?" 파라오가 말했다. "나는 내가 보는 것만을 너희에게 보여 줄 뿐이며, 바른 행실의 길로만 너희를 인도할 뿐이다." (28–29)

믿는 그 사람이 말했다. "나의 백성이여, 나는 너희에게 그 무리들의 날과 같은 것이 닥칠까 두렵다. 누흐의 백성과 아드와 사무드, 그리고 그들 뒤에 온 자들의 끝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아무 불의도 원하지 않으신다. 나의 백성이여, 나는 너희에게 서로 부르짖는 날이 닥칠까 두렵다. 그날 너희는 돌아서서 달아나겠지만, 하나님에게서 너희를 지켜 줄 이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길 잃게 두시는 자에게는 인도하는 이가 없다. 전에 유수프가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가져온 것에 대해 의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죽자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의 뒤에 결코 사도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계를 넘고 의심하는 자를 길 잃게 두신다. (30–34)

그들은 자기들에게 온 아무 권위도 없이 하나님의 징표를 두고 논쟁하는 자들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믿는 이들 앞에서도 몹시 미움받는 일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하고 횡포한 모든 마음을 봉하신다." 파라오가 말했다. "하만이여, 나에게 탑을 지어 다오. 내가 그 길들에, 곧 하늘의 길들에 이르러 무사의 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이다. 나는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파라오에게는 그의 악한 행위가 좋아 보이게 꾸며졌고, 그는 길에서 가로막혔다. 파라오의 계략은 파멸로 끝났을 뿐이다. (35–37)

믿는 그 사람이 말했다. "나의 백성이여,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바른 행실의 길로 인도하겠다. 나의 백성이여, 이 현세의 삶은 스쳐 가는 즐거움일 뿐이다. 내세야말로 길이 머무는 집이다. 악한 행위를 하는 자는 오직 그와 같은 것으로만 보답받는다. 그러나 남자든 여자든 믿는 이로서 선을 행하는 이들은 낙원에 들어가, 그곳에서 셈 없이 양식을 받을 것이다. 나의 백성이여, 나는 너희를 구원으로 부르는데, 너희는 나를 불지옥으로 부르니 어찌 된 일인가? 너희는 나를 불러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아무 지식도 없는 것을 그분의 동반자로 두게 하려 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전능하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분께로 부른다. 의심할 여지 없이, 너희가 나를 부르는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내세에서도 불릴 자격이 없다. 우리의 귀착지는 하나님께 있으며, 한계를 넘는 자들은 불지옥의 주민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보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꾸민 악한 계략에서 그를 지켜 주셨고, 나쁜 징벌이 파라오의 사람들을 에워쌌다. (38–45)

그것은 불이며, 그들은 아침저녁으로 그 앞에 내세워진다. 그리고 그 시각이 오는 날에는 이런 말이 있을 것이다. "파라오의 사람들을 가장 혹독한 징벌 속으로 들여보내라." 그들이 불지옥에서 서로 다툴 때, 약한 자들이 교만하던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을 따르던 자들이었다. 이제 당신들은 불의 한 몫이라도 우리에게서 덜어 주겠는가?" 교만하던 자들이 말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 사이를 판결하셨다." 불지옥에 있는 자들이 지옥을 지키는 이들에게 말할 것이다. "당신들의 주님을 불러, 하루만이라도 우리에게서 징벌을 가볍게 해 주시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말할 것이다. "너희의 사도들이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너희에게 거듭 오지 않았느냐?" 그들은 말할 것이다.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부르라. 그러나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부름은 헛될 뿐이다." (46–50)

우리는 현세의 삶에서도, 증인들이 일어서는 날에도 우리의 사도들과 믿는 이들을 반드시 도울 것이다. 그날 불의를 행한 자들의 변명은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저주가 그들의 것이며, 나쁜 집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는 무사에게 인도를 주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성서를 상속하게 하였다. 그것은 분별 있는 이들을 위한 인도요 일깨움이었다. 그러니 인내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다. 너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저녁과 이른 아침에 찬미로 너의 주님을 찬양하라. 자기들에게 온 아무 권위도 없이 하나님의 징표를 두고 논쟁하는 자들의 가슴속에는, 그들이 결코 이르지 못할 교만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라.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다. (51–56)

참으로 하늘과 땅의 창조는 사람의 창조보다 더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눈먼 이와 보는 이는 같지 않고,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과 악을 행하는 자도 같지 않다. 너희는 참으로 조금밖에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 그 시각은 반드시 온다. 그것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너희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교만하여 나를 섬기지 않는 자들은 낮아진 채로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57–60)

하나님은 너희가 그 안에서 쉬도록 밤을 만드시고, 볼 수 있도록 낮을 만드신 분이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 그분이 하나님, 너희의 주님,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다. 그분 말고는 신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서는가? 하나님의 징표를 부정하던 자들은 이처럼 돌아섰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땅을 든든한 거처로, 하늘을 덮개로 만드시고, 너희의 모습을 빚으시되 그 모습을 아름답게 하시며, 너희에게 좋은 것들을 베푸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 너희의 주님이시다. 그러니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복되시다. 그분은 살아 계신 분이시다. 그분 말고는 신이 없다. 그러니 종교를 오직 그분께만 순수하게 바치며 그분을 부르라. 모든 찬미는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있다. (61–65)

말하라, "나의 주님에게서 분명한 증거들이 나에게 왔으니, 너희가 하나님 말고 부르는 것들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금지되었다. 그리고 나는 만유의 주님께 귀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분은 너희를 흙으로, 그런 다음 한 방울로, 그런 다음 매달린 것으로 창조하신 분이다. 그런 다음 그분은 너희를 갓난아이로 나오게 하시고, 그런 다음 너희가 장성하도록 살게 하시며, 그런 다음 늙은이가 되게 하신다. 너희 가운데 어떤 이는 그보다 앞서 거두어진다. 그리고 너희가 정해진 기한에 이르게 하시니, 너희가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은 살리시고 죽게 하시는 분이다. 그분께서 어떤 일을 정하시면, 그것에 다만 "있으라." 하고 말씀하실 뿐이며, 그러면 그것은 있게 된다. (66–68)

하나님의 징표를 두고 논쟁하는 자들이 어떻게 돌아서는지 너는 보지 않는가? 이 성서와 우리가 우리의 사도들에게 들려 보낸 것을 거짓이라 하는 자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의 목에는 쇠고랑과 사슬이 채워지고, 그들은 끓는 물속으로 끌려가며, 그런 다음 불속에 땔감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런 물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말고 동반자로 두던 것들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말할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를 떠나 버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전에 부르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길 잃게 두신다. "그것은 너희가 땅에서 아무 권리도 없이 우쭐대었기 때문이며, 너희가 거만하게 굴었기 때문이다. 지옥의 문들로 들어가 그곳에 머물라. 교만한 자들의 거처는 얼마나 나쁜가!" (69–76)

그러니 인내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다. 우리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의 일부를 너에게 보여 주든, 그보다 앞서 너를 우리에게로 거두든, 그들은 우리에게로 되돌려질 것이다. 우리는 너 이전에도 사도들을 보냈다.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우리가 너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어떤 이들은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어떤 사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징표를 가져올 수 없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명령이 오면, 진리로 판결이 내려지고, 거기에서 거짓을 따르던 자들은 잃게 된다. (77–78)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가축을 만드신 분이다. 너희가 그 가운데 어떤 것은 타고, 어떤 것은 먹게 하시려는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에게서 다른 이로움도 얻으며, 그것들을 타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필요에 이른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 위에, 또 배 위에 실려 다닌다. 그분은 너희에게 당신의 징표들을 보여 주신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징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79–81)

그들은 땅을 다니며 그들 이전 사람들의 끝이 어떠하였는지 보지 않았는가? 그들은 이들보다 수가 더 많았고, 힘이 더 강하였으며, 땅에 남긴 자취도 더 컸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것은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그들의 사도들이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지식을 뽐내었다. 그리고 그들이 조롱하던 것이 그들을 에워쌌다. 그런 다음 그들은 우리의 위력을 보자 말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우리가 그분께 동반자로 두던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력을 보고 난 뒤의 그들의 믿음은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것은 당신의 종들 가운데서 늘 이어져 온 하나님의 길이다. 거기에서 진리를 부정하던 자들은 잃게 되었다. (82–85)

# 41. 자세히 밝혀짐 (Fuṣṣilat)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 밈. (1)

이것은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분에게서 내려온 것이다. 그 구절들이 자세히 밝혀진 성서로서, 아는 백성을 위한 아랍어 꾸란이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경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외면하고, 그래서 듣지 못한다. 그들은 말한다. "당신이 우리를 부르는 그것에 대해 우리의 마음은 덮여 있고, 우리의 귀에는 귀먹음이 있으며, 우리와 당신 사이에는 가림막이 있다. 그러니 당신 뜻대로 하라. 우리도 우리대로 하고 있다." 말하라,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일 뿐이다. 너희의 신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나에게 계시되었다. 그러니 곧게 그분께로 나아가고, 그분께 용서를 구하라." 그분께 동반자를 두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 그들은 정해진 희사를 바치지 않고, 내세를 부정하는 자들이다.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보상이 있다. (2–8)

말하라, "너희는 정말로 두 시대에 땅을 창조하신 분을 부정하고, 그분께 맞서는 것들을 세우는가? 그분은 만유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땅 위에 높이 솟은 굳건한 산들을 놓으시고, 그것을 축복하시며, 구하는 모든 이를 위해 알맞은 분량으로 그 안에 살아갈 양식을 네 시대에 정해 두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아직 연기였던 하늘로 향하시어, 그것과 땅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둘은 기꺼이든 마지못해서든 오라." 그 둘이 말했다. "우리는 기꺼이 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두 시대에 그것들을 일곱 하늘로 정하시고, 하늘마다 그 맡은 일을 일러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낮은 하늘을 등불들로 꾸미고, 그것을 굳게 지켰다. 그것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정하신 것이다. (9–12)

그들이 외면한다면 이렇게 말하라. "나는 아드와 사무드의 벼락과 같은 벼락을 너희에게 경고한다." 사도들이 그들의 앞에서도 뒤에서도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 하고 말하였을 때, 그들이 말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다면 천사들을 내려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들이 가지고 보냄받은 것을 부정한다." 아드는 그 땅에서 아무 권리도 없이 교만하게 굴며 말하였다. "누가 우리보다 힘이 더 강한가?" 그들은 자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보다 힘이 더 강하심을 보지 못하였는가? 그들은 우리의 징표를 계속 부정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의 날들 동안 그들에게 울부짖는 바람을 보냈다. 현세의 삶에서 그들에게 치욕의 징벌을 맛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세의 징벌은 더욱 치욕스러우며, 그들은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사무드는,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였으나 그들은 인도보다 눈멂을 더 좋아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것 때문에 굴욕의 징벌인 벼락이 그들을 붙잡았다. 그리고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들을 구하였다. (13–18)

하나님의 적들이 불지옥으로 모이는 날, 그들은 줄지어 몰려갈 것이다. 마침내 그들이 그곳에 이르면, 그들의 청각과 시각과 살갗이 그들이 하던 일에 대해 그들에게 불리하게 증언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살갗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불리하게 증언하였느냐?" 그것들이 말할 것이다. "모든 것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하게 하셨다. 그분께서 너희를 처음에 창조하셨고, 너희는 그분께로 되돌려진다. 너희는 너희의 청각과 시각과 살갗이 너희에게 불리하게 증언할까 하여 몸을 숨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희는 너희가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신다고 생각하였다. 너희 주님에 대해 너희가 품었던 그 생각이 너희를 파멸시켰고, 너희는 잃는 자들이 되었다." 그들이 견딘다 해도 불지옥이 그들의 거처이며, 그들이 잘못을 바로잡게 해 달라고 청한다 해도 그들은 그것이 허락되는 이들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19–24)

우리는 그들에게 짝들을 붙여 주었고, 그 짝들은 그들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좋아 보이게 꾸몄다. 그리하여 그들 이전에 지나간 진과 인간의 공동체들 가운데서, 그들에게도 말씀이 참되게 이루어졌다. 참으로 그들은 잃는 자들이었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말한다. "이 꾸란을 듣지 말고, 시끄러운 소리로 그것을 덮어 버리라. 그러면 너희가 이길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혹독한 징벌을 맛보게 하고, 그들이 하던 일 가운데 가장 나쁜 것에 따라 반드시 그들에게 갚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적들의 응보인 불지옥이다. 그 안에 그들을 위한 영원의 집이 있다. 그들이 우리의 징표를 부정하던 것에 대한 응보이다. 진리를 부정한 자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시여, 진과 인간 가운데 저희를 길 잃게 한 자들을 저희에게 보여 주소서. 저희가 그들을 발아래 두어, 그들이 가장 낮은 자들 가운데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하고 그런 다음 굳게 서는 이들에게는 천사들이 내려온다. "두려워하지도 슬퍼하지도 말고, 너희가 약속받은 낙원을 기뻐하라. 우리는 현세의 삶에서도 내세에서도 너희의 벗이다. 그곳에서 너희는 너희 영혼이 바라는 것을 무엇이든 얻고, 그곳에서 너희가 청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을 것이다. 그것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에게서 오는 대접이다." (25–32)

하나님께로 부르고 선을 행하며 "나는 하나님께 귀의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이다." 하고 말하는 이보다 더 좋은 말을 하는 이가 누구인가? 선과 악은 같지 않다. 더 좋은 것으로 악을 물리치라. 그러면 너와 원수 사이였던 자가 마치 가까운 벗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인내하는 이들 말고는 아무도 이것을 받지 못하며, 큰 복을 지닌 이 말고는 아무도 이것을

받지 못한다. 사탄에게서 오는 부추김이 너를 부추기거든,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라.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33–36)

그분의 징표 가운데에는 밤과 낮, 해와 달이 있다. 해에게도 달에게도 엎드려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라. 너희가 섬기는 분이 그분이라면 그리하라. 그들이 교만하게 군다 해도, 너의 주님 곁에 있는 이들은 밤낮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결코 지치지 않는다. 또 그분의 징표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다. 너는 땅이 낮아져 잠잠한 것을 본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위에 물을 내리면, 그것은 꿈틀거리고 부풀어 오른다. 참으로 그것을 살리시는 분께서 죽은 이들을 살리시는 분이다. 참으로 그분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37–39)

우리의 징표를 비트는 자들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지 않다. 불지옥에 던져지는 자가 더 나은가, 아니면 부활의 날에 안전하게 오는 이가 더 나은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라. 참으로 그분은 너희가 하는 일을 보신다. 일깨움이 자기들에게 왔을 때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범할 수 없는 위엄을 지닌 성서이다. 거짓은 앞에서도 뒤에서도 그것에 다가가지 못한다. 그것은 지혜로우시고 모든 찬미를 받으실 분에게서 내려온 것이다. (예언자여) 너에게 하는 말은, 너 이전의 사도들에게 하던 말과 다르지 않다. 참으로 너의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시며, 고통스러운 응징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외국어로 된 꾸란으로 만들었다면, 그들은 말하였을 것이다. “어찌하여 그 구절들이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는가? 뭐라고? 외국어 책에 아랍인 사도란 말인가?” 말하라, “그것은 믿는 이들에게는 인도요 치유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귀에 귀먹음이 있고, 그것은 그들에게 눈멂이 된다. 그들은 마치 먼 곳에서 불리는 것과 같다.” 우리는 무사에게 성서를 주었으나, 그것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너의 주님에게서 이미 나온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 사이에 판결이 내려졌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에 대해 깊은 의혹과 의심 속에 있다. (40–45)

선을 행하는 이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게 하는 것이다. 너의 주님은 결코 당신의 종들에게 불의하지 않으시다. 그 시각에 대한 지식은 모두 그분께 돌려진다. 어떤 열매도 그 껍질에서 나오지 않고, 어떤 암컷도 배거나 낳지 않는다. 그분께서 아시지 않고서는 그러하다. 그분께서 그들을 불러 “나의 동반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날, 그들은 말할 것이다. “저희는 당신께 아룁니다. 저희 가운데 증언할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전에 부르던 것들은 그들을 저버리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피할 곳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46–48)

인간은 좋은 것을 비는 데 지치지 않는다. 그러나 나쁜 일이 그에게 닿으면, 그는 절망하고 희망을 잃는다. 그에게 닿았던 고난 뒤에 우리가 우리에게서 오는 자비를 그에게 맛보게 하면, 그는 틀림없이 말한다. "이것은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이다. 나는 그 시각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주님께 되돌려진다 해도, 그분 곁에서 나에게는 틀림없이 가장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부정한 자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반드시 알려 주고, 그들에게 반드시 가혹한 징벌을 맛보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는 등을 돌리고 멀찍이 물러난다. 그러나 나쁜 일이 그에게 닿으면, 그는 긴 기도를 늘어놓는다. 말하라, "너희는 생각해 보았는가?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부정한다면, 깊은 반목 속에 있는 자보다 더 길을 잃은 자가 누구이겠는가?" 우리는 지평선들에서, 그리고 그들 자신 안에서 그들에게 우리의 징표들을 보여 줄 것이다. 마침내 그것이 진리임이 그들에게 분명해질 것이다. 너의 주님께서 모든 것의 증인이시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참으로 그들은 자기 주님과의 만남에 대해 의심 속에 있다.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을 에워싸고 계신다. (49–54)

# 42. 협의 (Al-Shūrā)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 밈. 아인 신 까프. (1–2)

(예언자여)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너 이전의 이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이처럼 너에게 계시하신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모두 그분께 속한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다. 하늘은 그 위에서부터 거의 갈라질 듯하고, 천사들은 찬미로 자기 주님을 찬양하며 땅에 있는 이들을 위해 용서를 구한다. 참으로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그분 말고 다른 보호자를 두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너는 그들의 수호자가 아니다. (3–6)

이처럼 우리는 너에게 아랍어 꾸란을 계시하였다. 네가 고을들의 어머니와 그 둘레에 있는 모든 이에게 경고하고, 의심할 여지 없는 모임의 날을 경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한 무리는 낙원에 있고, 한 무리는 타오르는 불 속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원하시는 이를 당신의 자비 안으로 들이신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보호자도 돕는 이도 없다. 아니면 그들은 그분 말고 다른 보호자들을 두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자이시다. 그분은 죽은 이들을 살리시며,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너희가 무엇을 두고 서로 달리하든, 그 판결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분이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그분께 의탁하였고, 그분께로 돌아간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처음 지으신 분이다. 그분은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짝을 만드시고, 가축들 가운데에도 짝을 만드시어, 그것으로 너희를 번성하게 하신다. 그분과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다. 하늘과 땅의 열쇠는 그분의 것이다. 그분은 원하시는 이에게 양식을 넉넉히 주시기도 하고, 헤아려 주시기도 한다.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신다." (7–12)

그분은 누흐에게 명하신 것, 우리가 너에게 계시한 것, 그리고 우리가 이브라힘과 무사와 이사에게 명한 것을 너희를 위한 종교로 정하셨다. "이 종교를 굳게 세우고, 그 안에서 갈라지지 말라." 네가 그들을 부르는 그것이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는 자들에게는 견디기 어렵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이를 당신을 위해 택하시고, 그분께 돌아오는 이를 당신께로 인도하신다. 그들은 지식이 그들에게 온 뒤에야, 서로에 대한 시샘 때문에 갈라졌다. 정해진 기한까지 미루어 두신다는, 너의 주님에게서 이미 나온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 사이에 판결이 내려졌을 것이다. 그들 뒤에 성서를 상속받은 자들은 그것에 대해 깊은

의혹과 의심 속에 있다. 그러니 사람들을 이것으로 부르고, 네가 명령받은 대로 굳게 서라. 그들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성서는 무엇이든 믿으며, 너희 사이를 공정하게 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너희의 주님이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행위가 있고, 너희에게는 너희의 행위가 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논쟁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데 모으실 것이며, 마지막 귀착지는 그분께 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신 뒤에도 그분에 대해 논쟁하는 자들은, 그들의 논거가 그들 주님 앞에서 아무 힘이 없다. 그들 위에는 진노가 있고, 그들에게는 혹독한 징벌이 있다.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이 성서를 내리시고, 저울도 내리신 분이다. 무엇이 너에게 알려 주겠는가? 그 시각은 아마도 가까울 것이다.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서둘러 달라고 한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이 진리임을 안다. 참으로 그 시각을 두고 논쟁하는 자들은 멀리 길을 잃었다. (13–18)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자상하시다. 그분은 원하시는 이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분은 강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내세의 수확을 원하는 이에게는 우리가 그의 수확을 더해 준다. 이 세상의 수확을 원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그 가운데 얼마를 주지만, 그에게는 내세에 아무 몫이 없다. 아니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그들을 위한 종교로 정해 준 동반자들이 있는가? 판가름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 사이에 판결이 내려졌을 것이다. 참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징벌이 있다. 너는 불의를 행한 자들이 자기들이 얻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그들에게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은 낙원의 꽃밭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주님 곁에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을 것이다. 그것이 큰 은총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고 선을 행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하시는 것이다. 말하라, "나는 이것에 대해 너희에게 아무 보수도 청하지 않는다. 다만 친족에 대한 사랑만을 바란다." 선한 행위를 얻는 이에게는 우리가 그 안의 좋은 것을 더해 준다. 참으로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잘 보답하시는 분이다. (19–23)

아니면 그들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지어냈다." 하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네 마음을 봉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거짓을 지우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진리를 굳게 세우신다. 참으로 그분은 가슴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분은 당신의 종들에게서 뉘우침을 받아 주시고 악한 행위를 너그러이 봐주시는 분이며, 너희가 하는 일을 아신다. 그분은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그들에게 더해 주신다. 그러나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혹독한 징벌이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종에게 양식을 넉넉히 주셨다면, 그들은 땅에서 횡포를 부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원하시는 것을 분량에 맞추어 내려 주신다. 참으로 그분은 당신의 종들에 밝으시고

그들을 보신다. 그분은 그들이 절망한 뒤에 비를 내리시고, 당신의 자비를 펼치시는 분이다. 그분은 보호자이시며 모든 찬미를 받으실 분이다. (24–28)

그분의 징표 가운데에는 하늘과 땅의 창조와, 그분께서 그 둘에 퍼뜨리신 생물들이 있다. 그분은 원하실 때 그들을 모으실 능력이 있으시다. 너희에게 닥치는 불행은 무엇이든 너희의 손이 얻은 것 때문이다. 그분은 많은 것을 너그러이 봐주신다. 너희는 땅에서 그분에게서 벗어날 수 없으며, 너희에게는 하나님 말고 보호자도 돕는 이도 없다. 또 그분의 징표 가운데에는 산과 같은, 바다 위의 배들이 있다. 그분께서 원하시면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것들은 바다 위에서 꼼짝없이 멈추어 있게 된다. 참으로 그 안에는 인내하고 감사하는 모든 이를 위한 징표들이 있다. 또는 그분은 그들이 얻은 것 때문에 그것들을 부수실 수도 있다. 그러나 그분은 많은 것을 너그러이 봐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징표를 두고 논쟁하는 자들이 자기들에게 피할 곳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29–35)

너희가 받은 것은 무엇이든 현세의 삶의 즐거움이다. 그러나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더 좋고 더 오래간다. 그것은 믿고 자기 주님께 의탁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은 큰 죄와 추한 짓을 피하고, 화가 날 때에는 용서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자기 주님께 응답하고 예배를 지키며, 자기들의 일을 서로 의논하여 정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베푼 것 가운데서 쓰는 이들이다. 또 그들은 횡포가 자기들에게 닥치면 스스로를 지키는 이들이다. 해에 대한 갚음은 그와 같은 해이다. 그러나 너그러이 봐주고 바로잡는 이는, 그의 보상이 하나님께 있다. 참으로 그분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불의를 당한 뒤에 스스로를 지키는 이들에게는 탓할 길이 없다. 탓할 길은 오직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땅에서 아무 권리도 없이 횡포를 부리는 자들에게 있다.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징벌이 있다. 그러나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굳은 결심이 필요한 일이다. (36–43)

하나님께서 길 잃게 두시는 자에게는 그분 뒤에 아무 보호자도 없다. 너는 불의를 행한 자들이 징벌을 볼 때 "돌아갈 길이 있는가?" 하고 말하는 것을 볼 것이다. 또 너는 그들이 치욕으로 낮아진 채 그 앞에 내세워져, 곁눈으로 힐끗 바라보는 것을 볼 것이다. 믿는 이들은 말할 것이다. "참으로 잃는 자들은 부활의 날에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잃은 자들이다." 참으로 불의를 행한 자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징벌 속에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고 그들을 도울 보호자들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길 잃게 두시는 자에게는 아무 길도 없다. (44–46)

하나님에게서, 되돌릴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너희 주님께 응답하라. 그날 너희에게는 피할 곳이 없고, 부인할 길도 없다. 그들이 외면한다 해도, 우리는 너를 그들을 지키는 이로 보내지 않았다. 너의 임무는 오직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에게 우리에게서 오는 자비를 맛보게 하면, 그는 그것을 기뻐한다. 그러나 자기 손이 앞서 보낸 것 때문에 나쁜 일이 그들에게 닥치면, 인간은 은혜를 모른다. 하늘과 땅의 왕권은 하나님께 속한다. 그분은 원하시는 것을 창조하신다. 그분은 원하시는 이에게 딸들을 주시고, 원하시는 이에게 아들들을 주신다. 또는 그들에게 아들과 딸을 함께 주시고, 원하시는 이는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신다.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47–50)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이거나, 장막 뒤에서이거나, 사자를 보내어 그분의 허락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계시하게 하시는 것 말고는 있을 수 없다. 참으로 그분은 지극히 높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이처럼 우리는 너에게 우리의 명령에서 나온 영을 계시하였다. 너는 성서가 무엇인지도,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빛으로 삼아, 우리의 종들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이를 그것으로 인도한다. 참으로 너는 곧은 길로 인도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며,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모두 그분께 속한다. 참으로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51–53)

# 43. 금 장식 (Al-Zukhruf)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 밈. (1)

분명히 밝혀 주는 성서를 두고 맹세하건대, 우리는 너희가 깨닫도록 그것을 아랍어 꾸란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우리 곁에 있는 성서의 어머니 안에 있으며, 참으로 높고 지혜로 가득하다. (2–4)

너희가 한계를 넘는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희에게서 일깨움을 아주 거두어 버리겠는가? 우리가 옛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예언자를 보냈는가! 그러나 그들에게 예언자가 올 때마다 그들은 그를 조롱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보다 힘이 더 강한 자들을 멸하였고, 옛사람들의 본보기는 이미 지나갔다. 네가 그들에게 "누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는가?" 하고 묻는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위해 땅을 요람으로 만드시고, 너희가 길을 찾도록 그 안에 너희를 위한 길들을 내신 분이다. 그분은 하늘에서 분량에 맞추어 물을 내리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것으로 죽은 땅을 되살린다. 너희도 그와 같이 꺼내어질 것이다. 그분은 모든 짝을 창조하시고, 너희가 탈 배와 가축을 너희를 위해 만드신 분이다. 너희가 그 등 위에 자리를 잡고, 그 위에 앉았을 때 너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렇게 말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께 영광이 있기를!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것을 다룰 수 없었을 것이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간다." (5–14)

그런데도 그들은 그분의 종들 가운데 일부를 그분의 몫으로 돌린다. 참으로 인간은 드러내 놓고 은혜를 모른다. 아니면 그분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시는 것 가운데서 딸들을 취하시고, 너희에게는 아들들을 골라 주셨는가? 그들 가운데 누가, 자기가 자비로우신 분께 돌리는 것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의 얼굴은 어두워지고 그는 슬픔에 목이 멘다. "장신구 속에서 길러지고, 다툼에서는 자기 뜻을 분명히 밝히지도 못하는 이란 말인가?" 그들은 자비로우신 분의 종들인 천사들을 여성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천사들의 창조를 지켜보았는가? 그들의 증언은 적혀질 것이며, 그들은 물음을 받을 것이다. (15–19)

그들은 말한다. "자비로우신 분께서 원하셨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섬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것에 대한 아무 지식도 없다. 그들은 어림짐작할 뿐이다. 아니면 우리가 이것 이전에 그들에게 성서를 주어, 그들이 그것을 굳게 붙들고 있는가? 아니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한 길을 따르는 것을 보았고, 우리는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 인도받고 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너 이전에 어떤 고을에 경고자를 보낼 때마다, 그곳에서 호사를 누리던 자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한 길을 따르는 것을 보았고, 우리는 그들의 발자국을 따르고 있다." 그가 말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따르는 것을 본 그것보다 더 나은 인도를 내가 너희에게 가져온다 해도 그러하겠는가?"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당신들이 가지고 보냄받은 것을 부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응징하였다. 그러니 거짓이라 한 자들의 끝이 어떠하였는지 보라. 이브라힘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백성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가 섬기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나를 창조하신 분은 예외이시다.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자기 후손 가운데 오래 남는 말로 삼았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다. (20–28)

오히려 나는 이 사람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삶을 누리게 하였고, 마침내 진리와 분명히 밝혀 주는 사도가 그들에게 왔다. 그러나 진리가 그들에게 오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것은 마술이며, 우리는 그것을 부정한다." 또 그들은 말한다. "어찌하여 이 꾸란이 두 도시의 어떤 큰 인물에게 내려오지 않았는가?" 너의 주님의 자비를 나누어 주는 것이 그들인가? 현세의 삶에서 그들 사이에 그들의 살림을 나누어 준 것은 우리이며, 우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을 다른 이들보다 지위에서 높였다. 어떤 이들이 다른 이들을 부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너의 주님의 자비는 그들이 모으는 것보다 더 좋다. 모든 사람이 부정하는 한 공동체가 될 염려가 없었다면, 우리는 자비로우신 분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집을 위한 은 지붕과, 그들이 타고 오르는 계단을 주었을 것이다. 또 그들의 집을 위한 문들과, 그들이 기대는 침상들과, 금 장식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현세의 삶의 즐거움일 뿐이다. 내세는 너의 주님 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29–35)

자비로우신 분을 기억하는 일에서 눈을 감고 돌아서는 자에게는, 우리가 사탄 하나를 붙여 주고, 그것이 그의 짝이 된다. 그 사탄들은 틀림없이 그들을 길에서 막는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바르게 인도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침내 그가 우리에게 오면 그는 말한다. "나와 너 사이에 두 동쪽만큼의 거리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나쁜 짝인가!" 너희가 불의를 행하였으니, 너희가 징벌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6–39)

네가 귀먹은 자들을 듣게 하거나, 눈먼 자들과 분명한 미혹 속에 있는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너를 데려간다 해도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응징할 것이다. 또는 우리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여 줄 수도 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온전한 힘이 있다. 그러니 너에게 계시된 것을 굳게 붙잡으라. 참으로 너는 곧은 길 위에 있다. 참으로 그것은

너와 너의 백성을 위한 일깨움이며, 너희는 모두 물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너 이전에 보낸 우리의 사도들에게 물어보라. 우리가 자비로우신 분 말고 섬김받을 신들을 정한 적이 있는가? (40–45)

우리는 무사를 우리의 징표와 함께 파라오와 그의 우두머리들에게 보냈다. 그가 말했다. "나는 만유의 주님의 사도이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징표를 가지고 그들에게 오자, 그들은 그것을 비웃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 준 징표는 저마다 그 앞의 것보다 더 컸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도록 징벌로 그들을 붙잡았다. 그들이 말했다. "마술사여, 당신의 주님께서 당신과 맺으신 계약에 따라 우리를 위해 그분을 불러 주시오. 우리는 반드시 인도받을 것이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서 징벌을 거두어 주자, 그들은 곧 약속을 깨뜨렸다. 파라오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선포하였다. "나의 백성이여, 이집트의 왕권이 나의 것이 아니며, 내 아래로 흐르는 이 강들도 그렇지 않은가? 너희는 보지 않는가? 내가, 하찮고 말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이 자보다 낫지 않은가? 그러면 어찌하여 그에게 금팔찌가 내려지지 않았으며, 천사들이 줄지어 그와 함께 오지 않았는가?" 이처럼 그는 자기 백성을 가볍게 여겼고, 그들은 그에게 순종하였다. 참으로 그들은 거역하는 백성이었다. 그들이 우리를 노엽게 하였을 때, 우리는 그들을 응징하여 그들을 모두 물에 빠뜨렸다. 그리고 그들을 지나간 것으로, 뒤에 오는 이들을 위한 본보기로 삼았다. (46–56)

마르얌의 아들이 본보기로 들어지자, 너의 백성은 그것을 두고 소리를 지르며 말한다. "우리의 신들이 더 나은가, 아니면 그가 더 나은가?" 그들은 오직 논쟁하려고 너에게 이것을 내놓는다. 참으로 그들은 다투기 좋아하는 백성이다. 그는 우리가 은혜를 베푼 종일 뿐이며, 우리는 그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본보기로 삼았다. 우리가 원하였다면, 너희 가운데서 천사들을 만들어 땅에서 너희의 뒤를 잇게 하였을 것이다. (57–60)

참으로 그는 그 시각의 징표이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곧은 길이다. 사탄이 너희를 막지 못하게 하라. 참으로 그는 너희에게 분명한 적이다. 이사가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가 말했다. "나는 지혜를 가지고 너희에게 왔고, 너희가 서로 달리하는 것 가운데 얼마를 너희에게 분명히 밝혀 주려고 왔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너희의 주님이시다. 그러니 그분을 섬기라. 이것이 곧은 길이다." 그러나 여러 무리가 자기들끼리 서로 달리하였다. 그러니 고통스러운 날의 징벌 때문에,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 그들은 자기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그 시각이 갑자기 자기들에게 닥치는 것 말고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날 가까운 벗들은 서로에게 적이 될 것이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예외이다. "나의 종들이여, 오늘 너희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너희는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는 우리의 징표를 믿고 하나님께 귀의한 이들이다. 너희와 너희의 배우자들은 낙원에 들어가 기쁨을 누리라." 금 쟁반과 잔들이 그들 사이에 돌려질 것이다. 그 안에는 영혼이 바라고 눈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이 있으며, 너희는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하던 일 때문에 너희가 상속받게 된 낙원이다. 그 안에는 너희를 위한 넉넉한 열매가 있고, 너희는 그것을 먹는다. 그러나 죄지은 자들은 지옥의 징벌 속에서 영원히 머물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서 가벼워지지 않으며, 그들은 그 안에서 절망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부르짖을 것이다. "말리크여, 당신의 주님께서 우리를 끝내 주시게 해 주시오!" 그가 말할 것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 것이다." 우리는 너희에게 진리를 가져왔다. 그러나 너희 대부분은 진리를 싫어한다. (61–78)

아니면 그들이 어떤 일을 꾀하여 정하였는가? 그러면 우리도 일을 정한다. 아니면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비밀과 은밀한 의논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우리는 듣는다. 그리고 우리의 사자들이 그들 곁에서 적고 있다. (79–80)

말하라, "자비로우신 분께 아들이 있다면, 내가 그를 섬기는 첫째가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의 주님, 권좌의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그분은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높이 계신다. 그러니 그들이 약속받은 그들의 날을 만날 때까지, 그들이 헛된 말에 빠져 놀도록 내버려 두라. 그분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분이다.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의 왕권이 속하는 분은 복되시다. 그 시각에 대한 지식은 그분께 있으며, 너희는 그분께로 되돌려질 것이다. 그들이 그분 말고 부르는 것들에게는 중재할 힘이 없다. 다만 알면서 진리를 증언하는 이들만은 예외이다. 네가 그들에게 누가 그들을 창조하였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어찌하여 돌아서는가? 하나님은 그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주님이시여, 이들은 믿지 않는 백성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평화" 하고 말하라.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81–89)

# 44. 연기 (Al-Dukhān)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 밈. (1)

분명히 밝혀 주는 성서를 두고 맹세하건대, 우리는 복된 밤에 그것을 내렸다. 참으로 우리는 늘 경고해 왔다. 그 밤에 지혜로운 모든 일이 가려져 정해진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명령이다. 참으로 우리는 늘 사도들을 보내 왔다. 그것은 너의 주님에게서 오는 자비이다.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며,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의 주님이시다. 너희가 확신하기만 한다면! 그분 말고는 신이 없다. 그분은 살리시고 죽게 하신다. 그분은 너희의 주님이시며 너희 옛 조상들의 주님이시다. 그런데도 그들은 의심 속에서 놀고 있다. (2–9)

그러니 하늘이 눈에 보이는 연기를 가져오는 날을 지켜보라. 그것이 사람들을 뒤덮을 것이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징벌이다.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에게서 징벌을 거두어 주소서. 저희는 믿습니다." 일깨움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분명히 밝혀 주는 사도가 이미 그들에게 왔는데도, 그들은 그에게서 돌아서며 말하였다. "남에게 배운 자요, 미친 사람이다." 우리는 잠시 동안 징벌을 거두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틀림없이 예전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가장 큰 붙잡음으로 붙잡는 날, 우리는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10–16)

그들 이전에 우리는 파라오의 백성을 시험하였다. 한 고귀한 사도가 그들에게 와서 말했다. "하나님의 종들을 나에게 넘겨주라. 나는 너희에게 믿을 만한 사도이다. 하나님께 맞서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분명한 권위를 가져온다. 나는 너희가 나를 돌로 치지 못하도록, 나의 주님이시며 너희의 주님이신 분께 보호를 구한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면, 나를 내버려 두라." (17–21)

그런 다음 그는 자기 주님을 불렀다. "이들은 죄에 빠진 백성입니다." "나의 종들과 함께 밤에 떠나라. 너희는 뒤쫓길 것이다. 바다를 갈라진 채 잠잠하게 내버려 두라. 그들은 물에 빠질 군대이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동산과 샘을 남겨 두고 떠났는가! 또 곡식밭과 고귀한 거처와, 그들이 즐기던 안락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남겨 두었는가! 그러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백성이 그것들을 상속하게 하였다. 하늘도 땅도 그들을 위해 울지 않았고, 그들에게 말미도 주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을 굴욕의 징벌에서, 곧 파라오에게서 구하였다. 참으로 그는 오만한 자였고, 모든 한계를 넘는 자들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는 알면서 그들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였고, 그들에게 분명한 시험이 담긴 징표들을 주었다. (22–33)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의 첫 죽음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는 다시 일으켜지지 않는다. 너희가 진실하다면, 우리의 조상들을 데려와 보라!” 그들이 더 나은가, 아니면 툽바의 백성과 그들 이전의 사람들이 더 나은가? 우리는 그들을 멸하였다. 그들은 죄짓는 자들이었다. 우리는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장난으로 창조하지 않았다. 우리는 오직 진리로 그것들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알지 못한다. (34–39)

참으로 판가름의 날은 그들 모두에게 정해진 때이다. 그날 어떤 벗도 벗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들은 도움을 받지도 못한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이들은 예외이다. 참으로 그분은 전능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참으로 자꿈 나무는 죄지은 자의 음식이다. 그것은 녹은 쇳물처럼 배 속에서 끓으니, 끓는 물이 끓는 것과 같다. “그를 붙잡아 타오르는 불 한가운데로 끌고 가라. 그런 다음 그의 머리 위에 끓는 물의 징벌을 부어라. 맛보라! 너는 힘 있고 고귀한 자였다! 이것이 너희가 의심하던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안전한 곳에, 낙원과 샘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들은 고운 비단과 두꺼운 비단을 입고 서로 마주 볼 것이다.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눈이 크고 아름다운 벗들과 그들을 짝지어 줄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안전한 가운데 온갖 열매를 청할 것이다. 그들은 첫 죽음 말고는 그곳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며, 그분은 타오르는 불의 징벌에서 그들을 지켜 주실 것이다. 그것은 너의 주님에게서 오는 은총이다. 그것이 크나큰 승리이다. (40–57)

우리는 그들이 마음에 새기도록 이것을 네 말로 쉽게 하였다. 그러니 지켜보라. 그들도 지켜보고 있다. (58–59)

# 45. 무릎 꿇음 (Al-Jāthiya)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 밈. (1)

이 성서가 내려온 것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에게서이다. 참으로 하늘과 땅에는 믿는 자들을 위한 징표들이 있다. 너희 자신의 창조와 그분께서 널리 퍼뜨리시는 생물들에게는 확신하는 백성을 위한 징표들이 있다. 또 밤과 낮의 번갈아듦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어 죽은 뒤의 땅을 그것으로 살리시는 양식과, 바람의 바뀜에는 이성을 쓰는 백성을 위한 징표들이 있다. 이것들은 우리가 진리로 너에게 낭송해 주는 하나님의 징표들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분의 징표 다음에, 그들은 어떤 말을 믿겠는가? (2–6)

죄짓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에게 화가 있으라! 그는 하나님의 징표가 자기에게 낭송되는 것을 듣고도, 그것을 듣지 못한 것처럼 교만하게 고집을 부린다. 그에게 고통스러운 징벌의 소식을 전하라. 그는 우리의 징표 가운데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는다. 그런 자들에게는 굴욕의 징벌이 있다. 그들 뒤에는 지옥이 있다. 그들이 얻은 것은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고 보호자로 둔 것들도 그러하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징벌이 있다. 이것은 인도이다. 자기 주님의 징표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괴로움의 징벌이 있을 것이다. (7–11)

하나님은 바다를 너희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이다. 배들이 그분의 명령으로 그 위를 다니게 하시고, 너희가 그분의 은총을 구하며, 감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또 그분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모두 너희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 모두 그분에게서 온 것이다. 참으로 그 안에는 깊이 생각하는 백성을 위한 징표들이 있다. (12–13)

믿는 이들에게 일러, 하나님의 날들을 기대하지 않는 자들을 용서하게 하라.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얻던 것에 따라 갚으시려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이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너희는 너희 주님께로 되돌려질 것이다. (14–15)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서와 판단의 권위와 예언자의 직분을 주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었고, 그들을 모든 사람들보다 낫게 하였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 일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을 주었다. 그들은 지식이 그들에게 온 뒤에야, 서로에 대한 시샘 때문에 서로 달리하였다. 너의 주님께서는 부활의 날에, 그들이 서로 달리하던 것에

대해 그들 사이를 판결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너를 그 일의 분명한 길 위에 두었다. 그러니 그것을 따르고, 알지 못하는 자들의 욕망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에 맞서 너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서로의 보호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의 보호자이시다. 이것은 사람들을 위한 분명한 통찰이며, 확신하는 백성을 위한 인도요 자비이다. (16–20)

아니면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은, 우리가 그들을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과 같게 하여 그들의 삶과 죽음이 같아지리라고 여기는가? 그들의 판단은 얼마나 나쁜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진리로 창조하셨다. 모든 영혼이 자기가 얻은 대로 보답받게 하시려는 것이며, 그들은 불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욕망을 자기 신으로 삼은 자를 너는 보았는가? 하나님은 알면서도 그를 길 잃게 두시고, 그의 청각과 마음을 봉하시며, 그의 시각 위에 덮개를 씌우셨다. 그러면 하나님 다음에 누가 그를 인도하겠는가? 그런데도 너희는 마음에 새기지 않는가? (21–23)

그들은 말한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죽고 살 뿐이며, 세월 말고는 아무것도 우리를 멸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그것에 대한 아무 지식도 없다. 그들은 어림짐작할 뿐이다. 우리의 징표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낭송되면, 그들의 논거는 오직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다. "너희가 진실하다면, 우리의 조상들을 데려와 보라." 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시고, 그런 다음 너희를 죽게 하시며, 그런 다음 의심할 여지 없는 부활의 날로 너희를 모으신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42] (24–26)

하늘과 땅의 왕권은 하나님께 속한다. 그 시각이 이르는 날, 그날 거짓을 따르던 자들은 잃게 될 것이다. 너는 모든 공동체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모든 공동체가 자기의 책으로 불려 갈 것이다. "오늘 너희는 너희가 하던 일로 보답받는다. 이것은 진리로 너희에 대해 말하는 우리의 책이다. 우리는 너희가 하던 일을 모두 적어 두고 있었다." 믿고 선을 행한 이들은, 그들의 주님께서 당신의 자비 안으로 들이실 것이다. 그것이 분명한 승리이다. 그러나 진리를 부정한 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을 것이다. "나의 징표가 너희에게 낭송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교만하게 굴었고, 죄짓는 백성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며, 그 시각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는

[42] 무신론은 추측(잔) 위에 세워져 있다: 과학적·철학적·신학적 주석
무신론, 추측, 그리고 지식을 요구하는 꾸란
무신론, 내세, 그리고 추측: 꾸란에 바탕을 둔 탐구

말을 들으면, 너희는 '우리는 그 시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것을 어림짐작으로 여길 뿐이며, 확신하지 않는다.' 하고 말하였다." (27–32)

그들이 한 일의 악함이 그들에게 드러나고, 그들이 조롱하던 것이 그들을 에워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이날의 만남을 잊었듯이, 오늘 우리가 너희를 잊는다. 너희의 거처는 불지옥이며, 너희에게는 돕는 이가 없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징표를 조롱거리로 삼았고, 현세의 삶이 너희를 속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 그들은 그곳에서 꺼내어지지 않으며, 잘못을 바로잡도록 허락받지도 못할 것이다. (33–35)

그러니 찬미는 하늘의 주님이시며 땅의 주님이신, 만유의 주님 하나님께 있다. 하늘과 땅에서 위엄은 그분의 것이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36–37)

# 46. 모래 언덕 (Al-Aḥqāf)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 밈. (1)

이 성서가 내려온 것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에게서이다. 우리는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오직 진리로, 그리고 정해진 기한을 두고 창조하였다. 그러나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경고받은 것을 외면한다. 말하라, "너희가 하나님 말고 부르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는가? 그것들이 땅의 어느 부분을 창조하였는지 나에게 보여 보라. 아니면 그것들에게 하늘에 어떤 몫이 있는가? 너희가 진실하다면, 이것 이전의 성서나 지식의 어떤 자취를 나에게 가져오라." 하나님 말고, 부활의 날까지 자기에게 응답하지 못할 것들을 부르는 자보다 더 길을 잃은 자가 누구인가? 그것들은 그들의 부름에 무심하다.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것들은 그들의 적이 되고, 그들의 섬김을 부정할 것이다. (2–6)

우리의 징표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낭송되면,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진리가 그들에게 왔을 때 그것을 두고 말한다. "이것은 분명한 마술이다." 아니면 그들은 "그가 그것을 지어냈다." 하고 말하는가? 말하라, "내가 그것을 지어냈다면, 너희는 하나님에 맞서 나를 도울 아무 힘도 없다. 너희가 그것에 대해 떠들어 대는 말을 그분께서 가장 잘 아신다. 나와 너희 사이의 증인으로는 그분으로 충분하다. 그분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말하라, "나는 사도들 가운데 처음 나타난 이가 아니다. 나는 나에게나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나는 다만 나에게 계시되는 것을 따를 뿐이며, 나는 분명한 경고자일 뿐이다." 말하라, "너희는 생각해 보았는가?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부정하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증인이 그와 같은 것을 증언하고 믿었는데도 너희가 교만하게 군다면 어떠하겠는가?" 참으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7–10)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믿는 이들을 두고 말한다. "그것이 좋은 것이었다면,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그것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그것으로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말할 것이다. "이것은 오래된 거짓이다." 그것 이전에 무사의 성서가 인도와 자비로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을 확증하는 아랍어 성서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하고 그런 다음 굳게 서는 이들은 두려움도 없고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낙원의 주민이며 그곳에서 영원히 머문다. 그것은 그들이 하던 일에 대한 보상이다. (11–14)

우리는 사람에게 자기 부모에게 잘하라고 명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힘겹게 그를 배었고 힘겹게 그를 낳았다. 그를 배고 젖을 떼기까지 서른 달이 걸린다. 그런 다음 그가 장성하여 마흔 해에 이르면 이렇게 말한다.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저와 제 부모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저를 일깨워 주소서. 그리고 저를 위해 제 자손을 의롭게 해 주소서. 저는 뉘우치며 당신께 돌아가며, 저는 당신께 귀의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그들이 한 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받아 주고, 그들의 악한 행위는 지나쳐 주는 이들이며, 낙원의 주민들 가운데 있다. 그것은 그들이 약속받던 참된 약속이다. (15–16)

그러나 자기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 "두 분은 지긋지긋합니다! 나 이전에 여러 세대가 지나갔는데도, 내가 다시 꺼내어진다고 두 분은 나에게 약속합니까?" 두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으며 말한다.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믿어라!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이것은 옛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들은, 그들 이전에 지나간 진과 인간의 공동체들 가운데서 말씀이 참되게 이루어진 자들이다. 참으로 그들은 잃는 자들이었다. 모두에게는 그들이 한 일에 따른 지위들이 있다. 그분께서 그들의 행위의 값을 그들에게 온전히 치러 주시려는 것이며, 그들은 불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진리를 부정한 자들이 불지옥 앞에 내세워지는 날 이런 말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현세의 삶에서 너희의 좋은 것들을 다 써 버리고 그것들을 즐겼다. 그러니 오늘 너희는 굴욕의 징벌로 보답받는다. 너희가 땅에서 아무 권리도 없이 교만하게 굴었고, 너희가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17–20)

아드의 형제를 언급하라. 그가 모래 언덕들 가운데서 자기 백성에게 경고하였다. 그의 앞에도 뒤에도 경고자들이 오고 갔다. 그가 말했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엄청난 날의 징벌이 닥칠까 두렵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우리의 신들에게서 돌려세우려고 왔는가? 그러면 당신이 진실하다면, 당신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보라." 그가 말했다. "지식은 오직 하나님 곁에 있다. 나는 내가 가지고 보냄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너희는 무지하게 구는 백성이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것이 구름이 되어 자기들의 골짜기로 다가오는 것을 보자 말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비를 가져다줄 구름이다."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서둘러 달라고 하던 것이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징벌을 실은 바람이며, 자기 주님의 명령으로

모든 것을 부순다. 아침이 되자 그들의 거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죄짓는 백성에게 이처럼 갚는다. (21–25)

우리는 너희에게 해 주지 않은 방식으로 그들을 자리 잡게 하였고, 그들에게 청각과 시각과 마음을 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청각과 시각과 마음은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징표를 계속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조롱하던 것이 그들을 에워쌌다. 우리는 너희 둘레의 고을들을 멸하였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징표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여 주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분 말고 신으로 두었던 것들이 어찌하여 그들을 돕지 않았는가? 아니다. 그것들은 그들에게서 사라져 버렸다. 그것이 그들의 거짓이었고, 그들이 지어내던 것이었다. (26–28)

우리가 진의 한 무리를 너에게로 돌려, 꾸란을 듣게 하였을 때를 기억하라. 그들은 그 앞에 이르자 말했다. "조용히 하라!" 그것이 끝나자, 그들은 경고하는 이가 되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 백성이여, 우리는 무사 다음에 내려진 성서를 들었다. 그것은 그 이전에 있던 것을 확증하며, 진리와 곧은 길로 인도한다. 우리 백성이여, 하나님께로 부르는 이에게 응답하고 그분을 믿으라. 그분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고통스러운 징벌에서 지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부르는 이에게 응답하지 않는 자는 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에게는 그분 말고 아무 보호자도 없다. 그런 자들은 분명한 미혹 속에 있다." (29–32)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도 그 창조로 지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죽은 이들을 살리실 능력이 있으심을 그들은 보지 않는가? 참으로 그러하시다. 그분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진리를 부정한 자들이 불지옥 앞에 내세워지는 날 이런 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진리가 아니냐?" 그들은 말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부정하던 까닭에 징벌을 맛보라." (33–34)

그러니 굳은 결심을 지닌 사도들이 인내하였듯이 인내하고, 그들을 위해 그것을 서둘러 달라고 하지 말라. 그들이 약속받은 것을 보는 날, 그들은 마치 낮의 한 시각밖에 머물지 않은 것 같을 것이다. 이것은 전해져야 할 전언이다. 거역하는 백성 말고 누가 멸망하겠는가? (35)

# 47. 무함마드 (Muḥammad)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부정하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막는 자들은, 그분께서 그들의 행위를 헛것으로 만드셨다. 그러나 믿고 선을 행하며, 무함마드에게 내려진 것을 믿는 이들은, 그것이 그들 주님에게서 온 진리이니, 그분께서 그들의 악한 행위를 지워 주시고 그들의 처지를 바로잡아 주셨다. 그것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거짓을 따르고, 믿는 이들은 자기 주님에게서 온 진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비유를 들어 보이신다. (1–3)

그러니 너희가 싸움에서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과 마주치거든, 그들의 목을 쳐라. 그런 다음 너희가 그들을 완전히 누르거든, 포로들을 단단히 묶어라. 그 뒤에는 은혜로 놓아주든지 몸값을 받고 놓아주든지 하라. 전쟁이 그 짐을 내려놓을 때까지 그리하라.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몸소 그들을 응징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다른 이들로 시험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길에서 죽임을 당한 이들은, 그분께서 결코 그들의 행위를 헛것으로 만들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처지를 바로잡아 주시며, 그들에게 알려 주신 낙원에 그들을 들이실 것이다.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하나님을 돕는다면, 그분께서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의 발을 굳게 세워 주실 것이다. (4–7)

그러나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파멸이 있으며, 그분께서 그들의 행위를 헛것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의 행위를 쓸모없게 하셨다. 그들은 땅을 다니며 그들 이전 사람들의 끝이 어떠하였는지 보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김없이 멸하셨고,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의 보호자이시고,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보호자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을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낙원에 들이실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즐기며 가축이 먹듯이 먹고, 불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너를 쫓아낸 너의 고을보다 힘이 더 강하였던 고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멸하였는가! 그들을 도울 이는 아무도 없었다. (8–13)

자기 주님에게서 온 분명한 증거 위에 서 있는 이가, 자기의 악한 행위가 좋아 보이게 꾸며져 자기 욕망을 따르는 자들과 같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약속된 낙원의 모습은 이러하다. 그 안에는 썩지 않는 물의 강들과, 맛이 변하지 않는 젖의 강들과,

마시는 이들에게 맛좋은 술의 강들과, 맑게 거른 꿀의 강들이 있다. 그 안에서 그들에게는 온갖 열매가 있고, 그들 주님에게서 오는 용서가 있다. 그들이, 불지옥에서 영원히 머물며 끓는 물을 마시게 되어 그것이 창자를 찢어 놓는 자들과 같겠는가? (14–15)

(예언자여) 그들 가운데에는 너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네 곁에서 나가면, 지식을 받은 이들에게 말한다. "그가 방금 무슨 말을 하였는가?"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봉하신 자들이며, 자기 욕망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러나 인도를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그분께서 인도를 더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들은 그 시각이 갑자기 자기들에게 닥치는 것 말고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 조짐들은 이미 왔다. 그것이 그들에게 닥쳤을 때, 그들의 일깨움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음을 알고, 너의 죄에 대해, 그리고 믿는 남자들과 믿는 여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은 너희가 오가는 곳과 너희가 머무는 곳을 아신다. (16–19)

믿는 이들은 말한다. "한 장이 내려온다면 좋을 텐데!" 그러나 뜻이 분명한 한 장이 내려오고 그 안에서 싸움이 언급되면, 너는 마음에 병이 있는 자들이 죽음이 다가와 까무러치는 사람의 눈길로 너를 바라보는 것을 본다. 그들에게는 순종과 알맞은 말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 다음 일이 굳게 정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진실하였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너희가 등을 돌린다면, 너희는 땅에서 부패를 퍼뜨리고 혈연의 끈을 끊으려 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어 귀먹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신 자들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꾸란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가? 아니면 그들의 마음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가? 인도가 자기들에게 분명해진 뒤에 등을 돌리는 자들은, 사탄이 그들을 꾀고 그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일에서는 너희에게 순종하겠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비밀을 아신다. (20–26)

천사들이 그들의 얼굴과 등을 치며 그들의 영혼을 거둘 때에는 어떠하겠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을 따르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의 행위를 헛것으로 만드셨다. (27–28)

아니면 마음에 병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결코 드러내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원하였다면 그들을 너에게 보여 주었을 것이고, 너는 그들의 표시로 그들을 알아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들의 말투로 틀림없이 그들을 알아볼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아신다. 우리는 너희 가운데 분투하는 이들과 인내하는 이들을 알 때까지, 그리고 너희에 대한 소식을 시험할 때까지 반드시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진리를 부정하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막으며, 인도가 자기들에게 분명해진 뒤에 사도에게 맞서는 자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해치지 못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행위를 헛것으로 만드실 것이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도에게 순종하며, 너희의 행위를 헛되게 하지 말라. 진리를 부정하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막다가 부정하는 자로 죽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29–34)

그러니 너희가 우세할 때 약해져서 화평을 청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며, 그분은 결코 너희 행위의 보상을 너희에게서 깎지 않으실 것이다. 현세의 삶은 놀이와 장난일 뿐이다. 그러나 너희가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보상을 주시고, 너희의 재산을 너희에게 청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청하시고 너희를 다그치신다면, 너희는 인색하게 굴 것이고, 그분은 너희의 원한을 드러내실 것이다. 보라, 너희는 하나님의 길에서 쓰라고 부름받는 이들이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어떤 이는 인색하게 군다. 그러나 인색하게 구는 자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 인색한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며, 너희는 궁핍한 이들이다. 너희가 등을 돌린다면, 그분께서 너희 대신에 다른 백성을 세우실 것이며, 그들은 너희와 같지 않을 것이다. (35–38)

# 48. 승리 (Al-Fat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자여) 참으로 우리는 너에게 분명한 승리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너의 지난 죄와 앞으로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에게 당신의 은혜를 온전히 베푸시며, 너를 곧은 길로 인도하시고, 강력한 도움으로 너를 도우시려는 것이다. 그분은 믿는 자들의 마음에 평온을 내리신 분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늘과 땅의 군대는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이것은 그분께서 믿는 남자들과 믿는 여자들을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낙원에 들이시어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게 하시고, 그들의 악한 행위를 그들에게서 지워 주시려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승리이다. 또 그분께서 위선자 남자들과 여자들,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는 남자들과 여자들, 곧 하나님에 대해 나쁜 생각을 품는 자들을 징벌하시려는 것이다. 나쁜 운수가 그들 위에 돌아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셨으며, 그들을 위해 지옥을 마련해 두셨다. 참으로 나쁜 종착지이다. 하늘과 땅의 군대는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예언자여) 우리는 너를 증인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요 경고하는 이로 보냈다.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믿고, 그를 돕고 그를 공경하며, 아침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다. (1–9)

너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서약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손 위에 있다. 자기 서약을 깨는 자는 오직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깨는 것이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키는 이에게는, 그분께서 엄청난 보상을 주실 것이다. 뒤에 남았던 사막의 아랍인들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붙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용서를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마음에 없는 것을 혀로 말한다. 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해를 뜻하시거나 너희에게 이로움을 뜻하신다면, 누가 하나님에 맞서 너희를 위해 조금이라도 힘을 쓸 수 있겠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밝으시다.” 아니다. 너희는 사도와 믿는 자들이 결코 자기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였고, 그것이 너희 마음에 좋아 보였다. 너희는 나쁜 생각을 품었고, 파멸할 백성이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위해 타오르는 불을 마련해 두었다. 하늘과 땅의 통치권은 하나님께 속한다. 그분은 원하시는 이를 용서하시고 원하시는 자를 징벌하신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10–14)

너희가 전리품을 차지하러 떠날 때, 뒤에 남았던 자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가 너희를 따라가게 해 다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 하는 것이다. 말하라, "너희는 우리를 따라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들은 말할 것이다. "아니다. 너희가 우리를 시샘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조금밖에 깨닫지 못한다. (15)

뒤에 남았던 사막의 아랍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큰 힘을 지닌 백성과 맞서도록 부름받을 것이다. 그들이 귀의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들과 싸우게 된다. 너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보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전에 등을 돌렸듯이 등을 돌린다면, 그분께서 고통스러운 징벌로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눈먼 이에게는 허물이 없고, 다리를 저는 이에게도 허물이 없으며, 병든 이에게도 허물이 없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순종하는 이는, 그분께서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낙원에 들이실 것이다. 그러나 등을 돌리는 자는, 그분께서 고통스러운 징벌로 벌하실 것이다. (16–17)

믿는 자들이 그 나무 아래에서 너에게 충성을 서약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그들 위에 평온을 내리시고, 가까운 승리로 그들에게 보상하셨으며, 그들이 차지할 많은 전리품으로도 보상하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차지할 많은 전리품을 너희에게 약속하셨고, 이것을 너희에게 서둘러 주셨으며, 사람들의 손을 너희에게서 막아 주셨다. 그것이 믿는 자들을 위한 징표가 되고, 그분께서 너희를 곧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이다. 또 너희가 아직 차지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에워싸고 계신 다른 것들도 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18–21)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너희와 싸웠다면, 그들은 등을 돌려 달아났을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은 보호자도 돕는 이도 찾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예전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길이다. 너는 하나님의 길에서 아무 변화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너희에게 그들을 이기게 하신 뒤에, 메카의 골짜기에서 그들의 손을 너희에게서, 너희의 손을 그들에게서 막아 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보신다. 그들은 진리를 부정하고, 너희를 성스러운 모스크에서 막았으며, 제물이 그 바쳐질 곳에 이르지 못하게 붙들어 둔 자들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믿는 남자들과 믿는 여자들이 있어, 너희가 그들을 짓밟고 그들 때문에 알지도 못한 채 허물을 입을 염려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싸우게 하셨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를 당신의 자비 안으로 들이시려는 것이다. 그들이 뚜렷이 갈라져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 가운데 진리를 부정한 자들을 고통스러운 징벌로 벌하였을 것이다. 진리를 부정한 자들이 자기 마음에 오만함, 곧 무지의 시대의 오만함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도와 믿는 자들 위에 당신의

평온을 내리시고, 그들을 하나님 경외의 말씀에 굳게 매어 두셨다. 그들은 그것에 더 마땅하였고 그것을 받을 만하였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22–26)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도에게 보여 주신 꿈을 진리로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너희는 반드시 안전하게, 머리를 밀거나 머리카락을 짧게 깎고, 아무 두려움 없이 성스러운 모스크에 들어갈 것이다. 그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셨고, 그 이전에 가까운 승리를 주셨다. 그분은 인도와 진리의 종교와 함께 당신의 사도를 보내신 분이다. 그것을 모든 종교 위에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증인으로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이다. 그와 함께 있는 이들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단호하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자애롭다. 너는 그들이 허리를 굽히고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총과 그분의 기뻐하심을 구하는 것을 본다. 엎드려 절한 자취로 그들의 표시가 그들의 얼굴에 있다. 그것이 토라에 있는 그들의 비유이다. 복음서에 있는 그들의 비유는 싹을 내는 씨앗과 같다. 그것이 싹을 튼튼하게 하여 굵어지고 제 줄기 위에 곧게 서서, 씨 뿌린 이들을 기쁘게 한다. 그분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용서와 엄청난 보상을 약속하셨다. (27–29)

# 49. 방들 (Al-Ḥujurāt)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 앞에서 앞서 나서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믿는 자들이여, 너희의 목소리를 예언자의 목소리 위로 높이지 말고, 너희가 서로에게 큰 소리로 말하듯이 그에게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 너희가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너희의 행위가 헛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사도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외하도록 그 마음을 시험하신 이들이다. 그들에게는 용서와 큰 보상이 있다. 방들 뒤에서 너를 큰 소리로 부르는 자들은 대부분 분별이 없다. 네가 그들에게 나올 때까지 그들이 참고 기다렸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1–5)

믿는 자들이여, 거역하는 자가 너희에게 소식을 가져오거든 그것을 확인하라. 너희가 알지도 못한 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런 다음 너희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사도가 너희 가운데 있음을 알라. 그가 많은 일에서 너희의 말을 따른다면, 너희는 틀림없이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믿음을 사랑스럽게 하시고 그것을 너희 마음속에서 아름답게 하셨으며, 부정과 못된 짓과 거역을 너희에게 미운 것으로 만드셨다. 그런 이들이 바르게 인도받은 이들이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총과 은혜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6–8)

믿는 자들의 두 무리가 서로 싸우거든, 그들 사이를 화해시키라. 그러나 그 가운데 한쪽이 다른 쪽에게 횡포를 부리거든, 횡포를 부리는 쪽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그런 다음 그들이 돌아오거든, 그들 사이를 정의롭게 화해시키고 공정하게 행하라. 하나님은 공정하게 행하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믿는 자들은 형제일 뿐이다. 그러니 너희의 두 형제 사이를 화해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너희가 자비를 받을 것이다. (9–10)

믿는 자들이여,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웃지 않게 하라. 그들이 자기들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또 어떤 여자들이 다른 여자들을 비웃지 않게 하라. 그들이 자기들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서로 헐뜯지 말고, 듣기 싫은 별명으로 서로 부르지 말라. 믿음 뒤에 못된 이름을 얻는 것은 얼마나 나쁜가! 뉘우치지 않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믿는 자들이여, 많은 의심을 피하라. 어떤 의심은 죄이다. 서로 엿보지 말고, 서로 뒤에서 험담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누가 죽은 자기 형제의 살을 먹고 싶어 하겠는가?

너희는 그것을 싫어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뉘우침을 잘 받아 주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사람들아,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서 너희를 창조하였고, 너희가 서로 알도록 너희를 여러 민족과 부족으로 만들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가운데 가장 고귀한 이는 그분을 가장 경외하는 이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밝으신 분이다. (11–13)

사막의 아랍인들은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말한다. 말하라, "너희는 믿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귀의하였습니다.' 하고 말하라. 믿음은 아직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순종한다면, 그분은 너희의 행위 가운데 아무것도 깎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믿고 그런 다음 의심하지 않으며, 자기 재산과 자기 목숨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분투하는 이들이다. 그들이야말로 진실한 이들이다. 말하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데, 너희가 너희의 종교를 하나님께 알려 드리려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들은 자기들이 귀의한 것을 너에게 베푼 은혜로 여긴다. 말하라, "너희의 귀의를 나에게 베푼 은혜로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진실하다면, 너희를 믿음으로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보이지 않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보신다. (14–18)

# 50. 까프 (Qāf)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까프. 영광스러운 꾸란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경고자가 자기들에게 온 것을 놀라워하며,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말한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우리가 죽어 흙이 된 뒤에란 말인가? 그것은 얼토당토않은 돌아옴이다." 우리는 땅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줄여 가는지 잘 알며, 우리 곁에는 모든 것을 간직하는 책이 있다. 아니다. 그들은 진리가 그들에게 왔을 때 그것을 거짓이라 하였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처지에 있다. 그들은 자기들 위의 하늘을 보지 않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짓고 꾸몄는지, 그것에 아무 틈도 없음을 보지 않았는가? 그리고 땅은, 우리가 그것을 펼치고 그 위에 굳건한 산들을 놓았으며, 그 안에 온갖 아름다운 것을 짝지어 자라게 하였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종을 위한 통찰이요 일깨움이다. 또 우리는 하늘에서 복된 물을 내리고, 그것으로 동산과 거둘 곡식을 자라게 하며, 열매가 겹겹이 달린 키 큰 대추야자나무를 자라게 한다. 그것은 종들을 위한 양식이다. 또 우리는 그것으로 죽은 땅을 살린다. 나옴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들 이전에 누흐의 백성이 진리를 부정하였고, 랏스의 주민들과 사무드도 그러하였으며, 아드와 파라오와 루뜨의 형제들, 숲의 주민들과 툽바의 백성도 그러하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사도들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그래서 나의 경고가 이루어졌다. (1–14)

그러면 우리가 첫 창조로 지쳤는가? 아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새로운 창조에 대해 의심 속에 있다.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였고, 그의 영혼이 그에게 무엇을 속삭이는지 안다. 우리는 그의 목 핏줄보다 그에게 더 가깝다. 받아 적는 두 이가 오른쪽과 왼쪽에 앉아 받아 적을 때, 그가 어떤 말을 하든 그의 곁에는 준비된 감시자가 있다. 죽음의 혼미가 진리와 함께 올 것이다. "이것이 네가 피하려 하던 것이다." (15–19)

그리고 나팔이 불릴 것이다. "이것이 경고하던 그날이다." 모든 영혼이 몰이꾼과 증인과 함께 올 것이다. "너는 이것에 무심하였다. 이제 우리가 너에게서 너의 덮개를 걷어 내었으니, 오늘 너의 시각은 날카롭다." 그의 짝이 말할 것이다. "이것이 내 곁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 둘은 고집스럽게 부정하는 모든 자를 지옥에 던져 넣어라. 그는 좋은 것을 막고, 한계를 넘으며, 의심하는 자이고,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신을 세운 자이다. 그를 혹독한 징벌 속에 던져 넣어라." 그의 짝이 말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시여, 제가 그를 한계를 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멀리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내 앞에서 다투지 말라. 나는 이미 너희에게 경고를 보냈다. 내 곁에서는 말씀이 바뀌지 않으며, 나는 결코 종들에게 불의하지 않다." 그날 우리는

지옥에게 “너는 가득 찼느냐?” 하고 말할 것이고, 그것은 “더 있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낙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멀지 않게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약속받던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분의 한계를 지킨 모든 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비로우신 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돌아오는 마음으로 온 이를 위한 것이다. 평화 속에 그곳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영원의 날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으며, 우리 곁에는 그보다 더한 것이 있다. (20–35)

그들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대를 멸하였는가! 그들은 이들보다 힘이 더 강하였다. 그들은 여러 땅을 헤매고 다녔으나, 피할 곳이 있었는가? 참으로 그 안에는, 마음이 있는 이나 지켜보며 귀를 기울이는 이를 위한 일깨움이 있다. 우리는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여섯 시대에 창조하였고, 어떤 고단함도 우리에게 닿지 않았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말을 인내하고, 해가 뜨기 전과 지기 전에 찬미로 너의 주님을 찬양하라. 또 밤의 한때에도 그분을 찬양하고, 엎드려 절한 뒤에도 그리하라. 그리고 부르는 이가 가까운 곳에서 부르는 날에 귀를 기울이라. 그날 그들은 진리와 함께 굉음을 들을 것이다. 그것이 나오는 날이다. 참으로 우리가 살리고 죽게 하며, 마지막 귀착지는 우리에게 있다. 그날 땅이 그들에게서 갈라지고, 그들은 서둘러 나올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쉬운 모음이다. 그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가장 잘 안다. 너는 그들을 억지로 누르는 이가 아니다. 그러니 나의 경고를 두려워하는 이를 꾸란으로 일깨우라. (36–45)

# 51. 흩뿌리는 바람 (Al-Dhāriyāt)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널리 흩뿌리는 바람들을 두고, 무거운 짐을 실은 구름들을 두고, 가볍게 미끄러져 가는 배들을 두고, 명령에 따라 나누어 주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희에게 약속된 것은 참으로 진실이며, 심판은 반드시 온다. 길들이 짜여 있는 하늘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희는 그것에 대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그것에서 돌려세워진 자는 스스로 돌려세워진 것이다. 어림짐작으로 사는 자들은 망하라! 그들은 무심함의 물결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자들이다.[43] 그들은 묻는다. "심판의 날은 언제인가?" 그날은 그들이 불 위에서 시련을 겪는 날이다. "너희의 시련을 맛보라! 이것이 너희가 서둘러 달라고 하던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들은 낙원과 샘들 가운데 있으며, 자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이전에 선을 행하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밤에 조금밖에 자지 않았고, 새벽이 되기 전에 용서를 구하였으며, 그들의 재산에는 청하는 이와 얻지 못한 이를 위한 마땅한 몫이 있었다. 땅에는 확신을 구하는 이들을 위한 징표들이 있고, 너희 자신 안에도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보지 않는가? 하늘에는 너희의 양식이 있고, 너희에게 약속된 것이 있다. 그러니 하늘과 땅의 주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것은 너희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만큼이나 틀림없는 진리이다. (1–23)

이브라힘의 존귀한 손님들의 이야기가 너에게 이르렀는가? 그들이 그에게 들어와 "평화" 하고 말하자, 그도 "평화" 하고 말하며 "낯선 사람들이로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슬그머니 자기 집안사람들에게 가서 살진 송아지를 가져와 그들 앞에 놓았다. 그가 말했다.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이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지식을 지닌 아들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나와, 자기 얼굴을 치며 말했다. "아이 못 낳는 늙은 여자인데!" 그들이 말했다. "당신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가 말했다. "사자들이여, 그러면 당신들의 용무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죄에 빠진 백성에게 보냄받았습니다. 그들 위에 구운 진흙 돌을 쏟아부으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한계를 넘는 자들을 위해 당신의 주님에게서 표시된 돌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곳에 있던 믿는 이들을 꺼내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귀의한 이들의 집을 하나밖에 찾지

[43] 무신론은 추측(잔) 위에 세워져 있다: 과학적·철학적·신학적 주석

못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스러운 징벌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그곳에 징표를 남겨 두었다. (24–37)

무사에게도 징표가 있다. 우리는 분명한 권위와 함께 그를 파라오에게 보냈다. 그러나 파라오는 자기 힘을 믿고 돌아서며 말했다. "마술사이거나 미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그의 군대를 붙잡아 바다에 던져 넣었다. 탓을 들을 자는 바로 그였다. 아드에게도 징표가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마른 바람을 보냈다.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것은 무엇이든 삭은 뼈처럼 만들지 않고는 남겨 두지 않았다. 사무드에게도 징표가 있다. 그들에게 "한동안 즐기라." 하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주님의 명령에 맞섰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벼락이 그들을 붙잡았다. 그들은 일어설 수도 없었고, 스스로를 도울 수도 없었다. 그들 이전의 누흐의 백성도 그러하였다. 그들은 거역을 일삼는 백성이었다. 그리고 하늘은, 우리가 힘으로 그것을 지었으며, 참으로 우리는 그것을 넓혀 가고 있다. 그리고 땅은, 우리가 그것을 펼쳤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게 그것을 고르게 폈는가! 또 우리는 모든 것을 짝으로 창조하였다. 너희가 마음에 새기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달아나라. 나는 그분에게서 너희에게 온 분명한 경고자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신을 세우지 말라. 나는 그분에게서 너희에게 온 분명한 경고자이다. (38–51)

그와 같이, 그들 이전의 사람들에게 사도가 올 때마다 그들은 "마술사이거나 미친 사람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이것을 서로에게 물려주었는가? 아니다. 그들은 모든 한계를 넘는 백성이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너는 탓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일깨우라. 일깨움은 믿는 자들에게 이로움이 된다. (52–55)

나는 진과 인간을 오직 나를 섬기도록 창조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 양식도 청하지 않으며, 그들이 나를 먹이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분이며, 힘을 지니신 분, 굳건하신 분이다. 그러니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동료들이 받은 몫과 같은 몫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나에게 그것을 서둘러 달라고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 그들이 약속받은 그들의 그날에,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 (56–60)

# 52. 산 (Al-Ṭūr)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산을 두고, 펼쳐진 양피지에 적힌 책을 두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집을 두고, 높이 들린 지붕을 두고, 가득 차오른 바다를 두고 맹세하건대, 너의 주님의 징벌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것을 물리칠 이는 아무도 없다. 그날 하늘은 크게 흔들리며 요동치고, 산들은 크게 움직이며 옮겨 갈 것이다. 그날 진리를 부정하던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 그들은 헛된 말에 빠져 장난치던 자들이다. 그날 그들은 지옥의 불 속으로 세차게 밀쳐질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거짓이라 하던 그 불이다. 그러면 이것이 마술이냐? 아니면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그 안에서 불타라! 너희가 인내하며 견디든 견디지 못하든 너희에게는 마찬가지이다. 너희는 오직 너희가 하던 일로 보답받을 뿐이다." (1–16)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낙원과 지복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주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며, 그들의 주님께서 타오르는 불의 징벌에서 그들을 지켜 주셨다. "너희가 하던 일 때문에 즐겁게 먹고 마시라." 그들은 줄지어 놓인 침상에 기대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눈이 아름다운 벗들과 그들을 짝지어 줄 것이다. 믿는 이들과, 믿음으로 그들을 따른 그들의 자손은, 우리가 그들의 자손을 그들과 함께 있게 할 것이며, 그들의 행위 가운데 아무것도 그들에게서 깎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얻은 것에 매여 있다. 우리는 그들이 바라는 열매와 고기를 그들에게 넉넉히 줄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 잔을 건넬 것인데, 그것은 헛된 말도 죄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을 시중드는 젊은이들이 그들 사이를 돌 것이며, 그들은 잘 간직된 진주와 같다. 그들은 서로에게 돌아서서 물을 것이다. 그들은 말할 것이다. "이전에 우리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타는 듯한 바람의 징벌에서 우리를 지켜 주셨다. 우리는 이전에 그분을 부르곤 하였다. 참으로 그분은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예언자여) 그러니 일깨우라. 너의 주님의 은혜로 너는 점쟁이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다. 아니면 그들은 "시인이다. 우리는 그에게 운수의 뒤바뀜이 닥치기를 기다린다." 하고 말하는가? 말하라, "그러면 기다리라. 나도 너희와 함께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생각이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하는가, 아니면 그들은 모든 한계를 넘는 백성인가? 아니면 그들은 "그가 그것을 지어냈다." 하고 말하는가? 아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다. 그들이 진실하다면, 그와 같은 말씀을 가져와 보게 하라. (17–34)

아니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되었는가? 아니면 그들이 창조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그들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는가? 아니다. 그들은 확신하지 않는다.[44] (35–36)

아니면 너의 주님의 보고가 그들에게 있는가? 아니면 그들이 다스리는 자들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사다리가 있어 그것으로 엿듣는가? 그러면 그들 가운데 엿듣는 자가 분명한 권위를 가져오게 하라. 아니면 그분께는 딸들이 있고 너희에게는 아들들이 있는가? 아니면 네가 그들에게 보수를 청하여, 그들이 빚에 짓눌려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 그들이 그것을 적는가? 아니면 그들이 계략을 뜻하는가? 그러나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계략에 걸리는 자들이다. 아니면 그들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그분은 그들이 동반자로 두는 것보다 높이 계신다. (37–43)

그들은 하늘의 한 조각이 떨어지는 것을 본다 해도 "겹겹이 쌓인 구름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질 그들의 날을 만날 때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라. 그날 그들의 계략은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들은 도움을 받지도 못할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이전에도 징벌이 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의 주님의 판결을 인내하며 기다리라. 너는 우리의 눈앞에 있다. 네가 일어날 때 찬미로 너의 주님을 찬양하고, 밤의 한때에도, 별들이 스러질 때에도 그분을 찬양하라. (44–49)

[44] 성 꾸란: 하나님은 처음이시며 모든 것을 처음 지으신 분이시다! – 영광스러운 꾸란과 과학
**동영상: 왜 무(無)가 아니라 하나님인가?**
동영상: 무(無)의 아홉 단계란 무엇인가? | 로버트 로런스 쿤 – 영광스러운 꾸란과 과학
**궁극의 물음을 제대로 묻는 것이 무신론을 논박한다**
**동영상: 절대적인 무를 상상함으로써 하나님을 발견하기**

# 53. 별 (Al-Najm)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는 별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의 벗은 길을 잃지도 않았고 그릇되지도 않았으며, 자기 욕망으로 말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계시된 계시일 뿐이다. 권능이 막강한 이가 그것을 그에게 가르쳤다. 그는 힘을 지닌 이로서, 가장 높은 지평선에 있으면서 반듯이 섰다. 그런 다음 그는 가까이 다가와 내려왔고, 마침내 활 두 개의 거리이거나 그보다 더 가까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분의 종에게 계시할 것을 계시하였다. 마음은 그것이 본 것을 거짓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가 보는 것을 두고 그와 다투려는가? 참으로 그는 또 한 번, 가장 먼 끝의 대추나무 곁에서 그를 보았다. 그 가까이에 안식의 낙원이 있다. 그때 덮는 것이 그 대추나무를 덮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비켜 가지도 않았고 넘어서지도 않았다. 참으로 그는 자기 주님의 가장 큰 징표 가운데 얼마를 보았다. (1–18)

너희는 라트와 웃자를, 그리고 셋째인 또 다른 것 마나트를 생각해 보았는가? 너희에게는 아들들이 있고, 그분께는 딸들이 있다는 것인가? 그것은 참으로 불공평한 나눔이다! 그것들은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붙인 이름들일 뿐이며, 하나님은 그것들에 대해 아무 권위도 내리지 않으셨다. 그들은 어림짐작과 자기 영혼이 바라는 것만을 따를 뿐이다. 그들의 주님에게서 인도가 이미 그들에게 왔는데도 그러하다. 아니면 인간이 자기가 바라는 것을 무엇이든 얻는가? 나중 것도 처음 것도 하나님께 속한다. 하늘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있는가! 그러나 그들의 중재는 아무 소용이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에게 허락하신 뒤에만 예외이다. (19–27)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은 천사들에게 여성의 이름을 붙인다. 그들에게는 그것에 대한 아무 지식도 없다. 그들은 어림짐작만을 따를 뿐이며, 어림짐작은 진리를 조금도 대신하지 못한다.[45] (28)

그러니 우리에 대한 기억에서 돌아서고 현세의 삶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자에게서 돌아서라.[46] 그것이 그들 지식의 전부이다. 너의 주님은 누가 당신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가장 잘 아시며, 누가 인도받았는지도 가장 잘 아신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다. 그분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한 대로 갚으시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하시려는 것이다. 그들은 작은

[45] 무신론은 추측(잔) 위에 세워져 있다: 과학적·철학적·신학적 주석
[46]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내세를 부정하는 것은 손을 맞잡고 가며, 이것은 꾸란의 여러 구절에서 지적됩니다.

허물 말고는 큰 죄와 추한 짓을 피하는 이들이다. 참으로 너의 주님은 용서가 넓으신 분이다. 그분은 너희를 땅에서 생겨나게 하셨을 때에도, 너희가 어머니의 배 속에서 태아였을 때에도 너희를 잘 아셨다. 그러니 스스로 깨끗하다고 내세우지 말라. 누가 그분을 경외하는지는 그분께서 가장 잘 아신다. (29–32)

돌아서 버린 자를 너는 보았는가? 그는 조금 주고는 그만 거두어 버렸다. 그에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 그가 보는 것인가? 아니면 그는 무사의 두루마리들에 있는 것과, 자기 의무를 다한 이브라힘의 두루마리들에 있는 것을 듣지 못하였는가? 짐을 진 어떤 이도 다른 이의 짐을 지지 않는다는 것, 사람에게는 자기가 애쓴 것밖에 없다는 것, 그의 애씀은 보이게 될 것이며 그런 다음 그는 그것에 대해 온전히 보답받는다는 것, 마지막 끝은 너의 주님께 있다는 것, 웃게 하시고 울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 죽게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 그분께서 쏟아지는 한 방울에서 남성과 여성의 두 짝을 창조하셨다는 것, 두 번째 창조를 일으키는 것이 그분의 몫이라는 것, 넉넉하게 하시고 재물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 그분께서 시리우스 별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분께서 옛 아드를 멸하셨다는 것, 그리고 사무드를 멸하시어 아무도 남기지 않으셨고, 그들 이전에 누흐의 백성을 멸하셨다는 것이다. 참으로 그들은 가장 불의하고 가장 거역하는 자들이었다. 또 그분은 뒤집힌 고을들을 엎어 버리셨고, 덮는 것이 그것들을 덮었다. 그러면 너는 너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두고 다투겠는가? (33–55)

이 사람은 옛 경고자들과 같은 경고자이다. 다가오는 그 시각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그것을 드러낼 수 없다. 그런데도 너희는 이 말씀을 놀라워하며, 웃기만 하고 울지 않으며, 무심하게 장난치고 있는가?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고 그분을 섬기라! (56–62)

# 54. 달 (Al-Qamar)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시각이 가까이 왔고, 달이 갈라졌다. (1)

그런데도 그들은 징표를 보면 돌아서며 말한다. "늘 있는 마술이다." 그들은 거짓이라 하고 자기 욕망을 따랐다. 그러나 모든 일은 제자리에 정해지게 되어 있다. 그들을 막기에 넉넉한 소식이 그들에게 왔다. 그것은 깊이 미치는 지혜이다. 그러나 경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부르는 이가 끔찍한 것으로 부르는 날, 그들은 눈을 내리깐 채, 흩어진 메뚜기 떼처럼 무덤에서 나와 부르는 이에게로 서둘러 갈 것이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말할 것이다. "이것은 힘든 날이다." (2–8)

그들 이전에 누흐의 백성이 거짓이라 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종을 거짓말쟁이라 하고 "미친 사람이다!" 하고 말하였으며, 그는 내쫓겼다. 그래서 그가 자기 주님을 불렀다. "저는 눌렸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소서!" 그러자 우리는 쏟아지는 물로 하늘의 문들을 열고, 땅에서 샘들이 터져 나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미 정해진 일을 위해 물이 서로 만났다. 우리는 널빤지와 못으로 된 것에 그를 태웠고, 그것은 우리의 눈앞에서 나아갔다. 그것은 배척당한 이를 위한 보상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징표로 남겨 두었다. 그런데 마음에 새기는 이가 있는가? 그러니 나의 징벌과 나의 경고가 얼마나 무서웠는가! 우리는 꾸란을 기억하기 쉽게 하였다. 그런데 마음에 새기는 이가 있는가? (9–17)

아드가 거짓이라 하였다. 그러니 나의 징벌과 나의 경고가 얼마나 무서웠는가! 우리는 끊이지 않는 불운의 날에 그들에게 사나운 바람을 보냈다. 그것은 사람들을 뿌리 뽑힌 대추야자나무 줄기처럼 뽑아 던졌다. 그러니 나의 징벌과 나의 경고가 얼마나 무서웠는가! 우리는 꾸란을 기억하기 쉽게 하였다. 그런데 마음에 새기는 이가 있는가? (18–22)

사무드가 경고를 거짓이라 하였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따라야 하는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미혹과 광기 속에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가운데 하필 그에게 일깨움이 내려졌단 말인가? 아니다. 그는 건방진 거짓말쟁이이다." 내일이면 그들은 누가 건방진 거짓말쟁이인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위한 시험으로 암낙타를 보낸다. 그러니 그들을 지켜보고 인내하라. 그리고 물은 그들 사이에 나누어져야 하며, 마실 차례마다 제 차례에 나와야 한다고 그들에게 알려 주라.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벗을 불렀고, 그는 손을 대어 그 다리 힘줄을 끊었다. 그러니 나의 징벌과 나의 경고가 얼마나 무서웠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단 한 번의 굉음을 보냈고, 그들은 우리

짓는 이의 마른 나뭇가지처럼 되었다. 우리는 꾸란을 기억하기 쉽게 하였다. 그런데 마음에 새기는 이가 있는가? (23–32)

루뜨의 백성이 경고를 거짓이라 하였다. 우리는 그들에게 돌 폭풍을 보냈다. 다만 루뜨의 집안은 예외였으니, 우리는 새벽에 그들을 구하였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오는 은혜였다. 우리는 감사하는 이에게 이처럼 보상한다. 그는 우리의 붙잡음을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그들은 경고를 두고 다투었다. 그들은 그의 손님들까지 내놓으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눈을 지워 버렸다. "나의 징벌과 나의 경고를 맛보라!" 그리고 이른 아침에 끝없이 이어지는 징벌이 그들을 덮쳤다. "나의 징벌과 나의 경고를 맛보라!" 우리는 꾸란을 기억하기 쉽게 하였다. 그런데 마음에 새기는 이가 있는가? (33–40)

파라오의 사람들에게도 경고가 왔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징표를 거짓이라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고 모든 힘을 지닌 이의 붙잡음으로 그들을 붙잡았다. (41–42)

너희 가운데 부정하는 자들이 저들보다 더 나은가? 아니면 경전들 안에 너희를 위한 면제가 있는가? 아니면 그들은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뭉친 무리이다." 하고 말하는가? 그 무리는 패하여 등을 돌려 달아날 것이다. 아니다. 그 시각이 그들에게 정해진 때이며, 그 시각은 더욱 끔찍하고 더욱 쓰다. 참으로 죄지은 자들은 미혹과 광기 속에 있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댄 채 불 속으로 끌려가는 날 이런 말이 있을 것이다. "지옥이 닿는 맛을 보라!" 참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알맞은 분량으로 창조하였다. 우리의 명령은 눈 깜짝할 사이와 같은 단 한 마디뿐이다. 우리는 너희와 같은 자들을 멸하였다. 그런데 마음에 새기는 이가 있는가? (43–51)

그들이 한 모든 일은 책들 안에 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두 적혀 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낙원과 강들 가운데, 진리의 자리에, 모든 힘을 지니신 왕 곁에 있을 것이다. (52–55)

# 55. 자비로우신 분 (Al-Raḥmān)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비로우신 분, 그분께서 꾸란을 가르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그에게 또렷이 말하는 법을 가르치셨다. 해와 달은 정확한 셈에 따라 움직이고, 별들과 나무들은 엎드려 절한다. 그리고 하늘은, 그분께서 그것을 높이 들어 올리시고 저울을 세우셨다. 너희가 저울에서 한계를 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공정하게 달고, 저울을 모자라게 하지 말라. 그리고 땅은, 그분께서 모든 생물을 위해 그것을 펼쳐 놓으셨다. 그 안에는 열매와, 꽃턱잎에 싸인 송이가 달린 대추야자나무와, 껍질에 싸인 곡식과, 향기로운 풀이 있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1–13)

그분은 질그릇 같은 마른 진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연기 없는 불꽃으로 진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그분은 두 동쪽의 주님이시며 두 서쪽의 주님이시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그분은 두 바다를 풀어놓으시어 서로 만나게 하셨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장벽이 있어 서로 넘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그 둘에서 진주와 산호가 나온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바다에서 산처럼 높이 솟은 배들도 그분의 것이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14–25)

땅 위에 있는 모든 이는 사라진다. 그러나 위엄과 영예로 가득한 너의 주님의 얼굴은 남는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가 그분께 청한다. 그분은 날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두 무거운 무리여, 우리가 곧 너희를 다룰 것이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진과 인간의 무리여, 너희가 하늘과 땅의 끝을 뚫고 나갈 수 있거든 뚫고 나가 보라! 너희는 권위 없이는 뚫고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불꽃과 녹은 구리가 너희 둘에게 보내질 것이며, 너희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하늘이 갈라져 무두질한 가죽처럼 붉게 될 때,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그날에는 사람도 진도 자기 죄에 대해 물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죄지은 자들은 그들의 표시로 알아보이고, 앞머리와 발이 붙잡힐 것이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이것이 죄지은 자들이 거짓이라 하던 지옥이다.

그들은 그것과 펄펄 끓는 물 사이를 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26–45)

그러나 자기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에게는 두 낙원이 있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그 둘에는 가지가 무성하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그 둘 안에는 흐르는 두 샘이 있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그 둘 안에는 온갖 열매가 두 가지씩 있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그들은 두꺼운 비단으로 안을 댄 침상에 기대어 있고, 두 낙원의 열매는 가까이 드리워져 있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그 안에는 눈길을 낮춘 이들이 있으며, 그들 이전에 사람도 진도 그들에게 닿은 적이 없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그들은 마치 홍옥과 산호와 같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선에 대한 보상이 선 말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46–61)

그리고 그 둘 말고도 또 다른 두 낙원이 있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그 둘은 짙푸르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그 둘 안에는 솟구치는 두 샘이 있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그 둘 안에는 열매와 대추야자나무와 석류가 있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그 안에는 착하고 아름다운 이들이 있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그들은 눈이 아름다운 벗들로, 천막 안에 머문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그들 이전에 사람도 진도 그들에게 닿은 적이 없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그들은 푸른 방석과 곱고 아름다운 깔개에 기대어 있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부정하겠는가? 위엄과 영예로 가득한 너의 주님의 이름은 복되시다.[47] (62–78)

[47] **그림 한 장과 단 한 단락으로 보는 자비로우신 분 장(아르 라흐만)의 주석**
자비로우신 분 장(아르 라흐만): 자비와 인자하심의 주님
아브라함 계통 종교들의 돌보시는 하나님: 맹물이 그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데이비드 애튼버러는 아브라함 계통 종교들의 하나님에 대한 훌륭한 교사가 된다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을 10 의 500 제곱 가지 이유

# 56. 피할 수 없는 일 (Al-Wāqiʿa)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피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일어남을 거짓이라 할 이는 아무도 없다. 그것은 어떤 이들은 낮추고 어떤 이들은 높인다. 땅이 세차게 흔들리고, 산들이 산산이 부서져 흩날리는 티끌이 될 때, 너희는 세 무리가 될 것이다. 오른쪽의 사람들이 있으니, 오른쪽의 사람들이 어떠한가! 왼쪽의 사람들이 있으니, 왼쪽의 사람들이 어떠한가! 그리고 앞선 이들, 앞선 이들이 있다. 그들이 가까이 있게 되는 이들이며, 지복의 낙원에 있다. 이전 세대들 가운데서는 많은 무리이고, 나중 세대들 가운데서는 적다. 그들은 금으로 수놓은 침상 위에서 서로 마주 보며 기대어 있을 것이다. 늘 젊은 소년들이 흐르는 샘에서 떠 온 잔과 주전자와 술잔을 들고 그들 사이를 돌 것이다. 그들은 그것으로 머리가 아프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는다. 또 그들이 고르는 열매와, 그들이 바라는 새고기가 있다. 그리고 눈이 아름다운 벗들이 있으니, 잘 간직된 진주와 같다. 그것은 그들이 하던 일에 대한 보상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헛된 말도, 죄 되는 말도 듣지 않고, 오직 "평화, 평화"라는 말만 들을 것이다. (1–26)

오른쪽의 사람들이 있으니, 오른쪽의 사람들이 어떠한가! 그들은 가시 없는 대추나무와 열매가 겹겹이 달린 바나나나무 사이에, 길게 드리운 그늘과 늘 흐르는 물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 끊어지지도 않고 금지되지도 않는 넉넉한 열매와, 높이 올려진 침상이 있다. 참으로 우리는 그들의 벗들을 새로운 창조로 창조하여, 그들을 처녀로, 사랑스럽고 나이가 같은 이들로 만들었다. 그것은 오른쪽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전 세대들 가운데서도 많은 무리이고, 나중 세대들 가운데서도 많은 무리이다. (27–40)

왼쪽의 사람들이 있으니, 왼쪽의 사람들이 어떠한가! 그들은 타는 듯한 바람과 끓는 물 가운데, 검은 연기의 그늘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시원하지도 않고 상쾌하지도 않다. 그들은 이전에 호사를 누렸고, 큰 죄를 고집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뭐라고? 우리가 죽어 흙과 뼈가 된 뒤에, 정말로 다시 일으켜진단 말인가? 우리의 옛 조상들도 그러한가?" 말하라, "이전 세대들도 나중 세대들도, 알려진 날의 정해진 때로 반드시 모일 것이다. 그런 다음 길을 잃고 거짓이라 하던 너희는 자꿈 나무를 먹고, 그것으로 배를 채우며, 그 위에 끓는 물을 마시되, 목마른 낙타가 마시듯이 마실 것이다." 이것이 심판의 날에 그들이 받을 대접이다. (41–56)

우리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가? 너희가 쏟아 내는 정액을 생각해 보았는가?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 너희인가, 아니면 우리가 창조하는 이인가?

우리는 너희 사이에 죽음을 정해 두었다. 너희의 모습을 바꾸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너희를 다시 생겨나게 하는 일에서 우리를 앞지를 이는 없다. 너희는 첫 창조를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마음에 새기지 않는가? 너희가 씨 뿌리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가?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이 너희인가, 아니면 우리가 자라게 하는 이인가? 우리가 원한다면 그것을 지푸라기로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너희는 탄식만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빚만 졌다.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너희가 마시는 물을 생각해 보았는가? 그것을 구름에서 내리는 것이 너희인가, 아니면 우리가 내리는 이인가? 우리가 원한다면 그것을 쓰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감사하지 않는가? 너희가 지피는 불을 생각해 보았는가? 그 나무를 생겨나게 한 것이 너희인가, 아니면 우리가 생겨나게 하는 이인가? 우리는 그것을 일깨움으로, 그리고 사막을 다니는 이들을 위한 쓸모로 삼았다. 그러니 지극히 위대하신 너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57–74)

나는 별들이 자리하는 곳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알기만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엄청난 맹세이다. 참으로 이것은 고귀한 꾸란이며, 잘 간직된 책 안에 있다. 깨끗해진 이들 말고는 아무도 그것에 닿지 못한다. 그것은 만유의 주님에게서 내려온 계시이다. 너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이 말씀인가? 너희는 그것을 거짓이라 하는 것을 너희의 살림으로 삼는가? (75–82)

그러면 영혼이 목구멍에 이르고, 그때 너희가 바라보고만 있을 때에는 어찌하겠는가? 우리는 너희보다 그에게 더 가까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보지 못한다. 너희가 심판에 매여 있지 않다면, 그리고 너희가 진실하다면, 어찌하여 그것을 되돌려 놓지 못하는가?[48] (83–87)

그가 가까이 있게 되는 이들 가운데 하나라면, 안식과 향기와 지복의 낙원이 있다. 그가 오른쪽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면, 오른쪽의 사람들에게서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는 인사가 있다. 그러나 그가 길을 잃고 거짓이라 하던 자들 가운데 하나라면, 끓는 물의 대접과 지옥에서 불타는 것이 있다. 참으로 이것은 확실한 진리이다. 그러니 지극히 위대하신 너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88–96)

---

[48] 이 중요한 구절들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저는 수면장애에만 더 전념하기 전에 십 년 넘게 중환자 의학 전문의로 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에 대한 포괄적인 주석은 다음 링크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임종의 자리에서의 도전: 꾸란 56:83–87 에 대한 포괄적 주석**
**영혼이 목구멍에 이를 때: 꾸란 56:75–89(알 와끼아 장)에 대한 구절별 과학적·철학적·신학적 주석**
**임종의 생리학과 이슬람의 영혼**
**알 와끼아 장: 죽음의 목구멍에서**

# 57. 쇠 (Al-Ḥadīd)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하늘과 땅의 통치권은 그분의 것이다. 그분은 살리시고 죽게 하시며,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그분은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시고, 드러나신 분이시며 숨어 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여섯 시대에 창조하시고, 그런 다음 권좌 위에 좌정하신 분이다. 그분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거기에서 나오는 것,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 그리로 올라가는 것을 아신다. 그분은 너희가 어디에 있든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보신다. 하늘과 땅의 통치권은 그분의 것이며,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 되돌려진다. 그분은 밤을 낮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낮을 밤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가슴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49] (1–6)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믿고, 그분께서 너희를 그 후계자로 삼으신 것 가운데서 쓰라. 너희 가운데 믿고 쓰는 이들에게는 큰 보상이 있다. 사도가 너희 주님을 믿으라고 너희를 부르고 있고, 그분께서 이미 너희의 서약을 받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인가? 너희가 믿는 자들이라면 말이다. 그분은 너희를 깊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내시려고 당신의 종에게 분명한 징표들을 내리시는 분이다. 참으로 하나님은 너희에게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시다. 하늘과 땅의 상속이 하나님께 속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길에서 쓰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인가? 너희 가운데 승리 이전에 쓰고 싸운 이들은 다른 이들과 같지 않다. 그들은 그 뒤에 쓰고 싸운 이들보다 지위가 더 높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에게 가장 좋은 보상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밝으시다. (7–10)

누가 하나님께 좋은 빚을 드리겠는가?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여러 곱절로 늘려 주시고, 그에게는 넉넉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날 너는 믿는 남자들과 믿는 여자들을 볼 것이며, 그들의 빛이 그들의 앞과 오른쪽에서 달려갈 것이다. "오늘 너희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낙원이며, 너희는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 것이다. 그것이 크나큰 승리이다." 그날 위선자 남자들과 여자들은 믿는 이들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를 기다려 다오. 우리가 너희의 빛을 조금 얻게 해 다오." 이런 말이 있을 것이다. "뒤로 돌아가서 빛을 찾아보라." 그런 다음 그들 사이에 문이 하나 있는 담이 세워질 것이다. 그 안쪽에는 자비가 있고, 그 바깥쪽 맞은편에는 징벌이 있다. 그들은 그들을 부르며 말할

[49] 기회원인론 – 영광스러운 꾸란과 과학

것이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들은 말할 것이다. “그렇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를 시험에 빠뜨렸고, 기다리며 엿보았고, 의심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이 올 때까지 헛된 희망이 너희를 속였고, 속이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 너희를 속였다. 그러니 오늘 너희에게서도, 진리를 부정한 자들에게서도 아무 몸값을 받지 않는다. 너희의 거처는 불지옥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마땅한 주인이다. 참으로 나쁜 종착지이다.” (11–15)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함과 내려온 진리 앞에 그들의 마음이 낮아질 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이전에 성서를 받은 자들처럼 되지 않을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들에게는 세월이 길어졌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으며, 그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거역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죽은 뒤의 땅을 살리심을 알라. 우리는 너희가 깨닫도록 너희에게 징표들을 분명히 밝혀 놓았다. 자선을 베푸는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빚을 드리는 이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여러 곱절로 늘어나고, 그들에게는 넉넉한 보상이 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들을 믿는 이들, 그들이 진실한 이들이며 자기 주님 곁의 증인들이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보상과 그들의 빛이 있다. 그러나 진리를 부정하고 우리의 징표를 거짓이라 하는 자들은 타오르는 불의 주민이다. 현세의 삶은 놀이와 장난이요, 꾸밈이요, 너희끼리의 뽐냄이요, 재산과 자녀를 두고 벌이는 다툼일 뿐임을 알라. 그것은 비와 같다. 그 비로 자란 것이 농부들을 기쁘게 한다. 그런 다음 그것은 시들고, 너는 그것이 누렇게 되는 것을 본다. 그런 다음 그것은 부서진 지푸라기가 된다. 내세에는 혹독한 징벌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용서와 기뻐하심도 있다. 현세의 삶은 속임수의 즐거움일 뿐이다. 너희 주님에게서 오는 용서를 향해, 그리고 그 넓이가 하늘과 땅의 넓이와 같은 낙원을 향해 서로 앞다투어 달려가라.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들을 믿는 이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며, 그분은 원하시는 이에게 그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크나큰 은총의 주님이시다. (16–21)

땅에서든 너희 자신에게서든 어떤 불행이 닥치든, 우리가 그것을 생겨나게 하기 전에 그것은 이미 책 안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쉬운 일이다.[50] (22)

그것은 너희가 너희를 지나쳐 간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때문에 우쭐대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뽐내는 자를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인색하게 굴고 사람들에게도 인색하라고 시키는 자들이다. 등을 돌리는 자가 있다 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모든 찬미를 받으실 분이다. 우리는 분명한 징표와 함께 우리의 사도들을 보냈고, 그들과 함께 성서와 저울을 내렸다.

[50] 기회원인론 – 영광스러운 꾸란과 과학

사람들이 정의를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또 우리는 쇠를 내렸다. 그 안에는 큰 힘이 있고, 사람들을 위한 이로움이 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누가 그분과 그분의 사도들을 돕는지 아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시다. (23–25)

우리는 누흐와 이브라힘을 보냈고, 그들의 후손 가운데 예언자의 직분과 성서를 두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인도받았으나, 그들 가운데 많은 자들은 거역하는 자들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 우리의 사도들을 잇달아 보냈고, 마르얌의 아들 이사를 그 뒤에 보내어 그에게 복음서를 주었다. 우리는 그를 따른 이들의 마음에 인자함과 자비를 두었다. 그러나 수도 생활은 그들이 스스로 지어낸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그들에게 정해 주지 않았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구하려고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마땅히 지켜야 할 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가운데 믿는 이들에게 그들의 보상을 주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많은 자들은 거역하는 자들이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사도를 믿으라. 그분께서 당신의 자비를 두 몫으로 너희에게 주시고, 너희가 그것으로 걸어갈 빛을 너희에게 주시며,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이것은 성서의 백성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어느 것에도 힘이 없으며, 은총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은 원하시는 이에게 그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크나큰 은총의 주님이시다. (26–29)

# 58. 하소연하는 여인 (Al-Mujādila)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자여) 자기 남편의 일로 너에게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호소한 여인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은 너희 둘이 주고받는 말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다. 너희 가운데 자기 아내를 자기 어머니와 같다고 선언하여 멀리하는 자들이 있으나, 그 아내들은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오직 그들을 낳은 여인들뿐이다. 참으로 그들이 하는 말은 못마땅하고 거짓된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그러이 봐주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자기 아내를 멀리하였다가 자기가 한 말을 되돌리는 자들은, 두 사람이 서로 닿기 전에 종 한 사람을 풀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훈계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밝으시다. 풀어 줄 종을 찾지 못하는 이는, 두 사람이 서로 닿기 전에 두 달을 잇달아 단식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는 가난한 이 예순 명을 먹여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이며,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징벌이 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맞서는 자들은, 그들 이전의 사람들이 낮추어졌듯이 낮추어질 것이다. 우리는 분명한 징표들을 내렸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굴욕의 징벌이 있다.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함께 일으키시고, 그들이 한 일을 그들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헤아려 두셨으나, 그들은 그것을 잊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증인이시다. (1–6)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너는 보지 않는가? 세 사람이 은밀히 의논하면 그분께서 그들의 넷째가 아니신 적이 없고, 다섯 사람이면 그분께서 그들의 여섯째가 아니신 적이 없다. 그보다 적든 많든,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분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51] (7)

그런 다음 부활의 날에 그분은 그들이 한 일을 그들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은밀한 의논을 금지당하고도, 금지당한 그것으로 되돌아가 죄와 적대와 사도에 대한 거역을 두고 은밀히 의논하는 자들을 너는 보지 않았는가? 그들은 너에게 올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인사하신 적이 없는 말로 너에게 인사하고, 속으로 말한다.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징벌하지 않으시는가?"

[51] **하나님의 편재하심의 차원적 구조: 꾸란 58:7 에 대한 과학적·철학적·신학적 주석**
기회원인론 – 영광스러운 꾸란과 과학

그들에게는 지옥으로 충분하다. 그들은 그 안에서 불탈 것이다. 참으로 나쁜 종착지이다! (8)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은밀히 의논할 때에는 죄와 적대와 사도에 대한 거역을 두고 의논하지 말고, 선과 하나님 경외를 두고 의논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는 그분 앞에 모이게 될 것이다. 은밀한 의논은 믿는 이들을 슬프게 하려는 사탄의 짓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들에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못한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라. (9–10)

믿는 자들이여, 모임에서 자리를 넓히라는 말을 듣거든 자리를 넓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넓혀 주실 것이다. 일어나라는 말을 듣거든 일어나라.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믿는 이들과 지식을 받은 이들의 지위를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밝으시다.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사도와 은밀히 이야기하려 할 때에는, 그 이야기에 앞서 자선을 내놓으라. 그것이 너희에게 더 좋고 더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가 그럴 길을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11–12)

너희는 은밀한 이야기에 앞서 자선을 내놓는 것을 꺼리는가?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비로 너희에게 돌아오셨으니, 예배를 지키고 정해진 희사를 바치며,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밝으시다. (13)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백성을 동맹으로 삼는 자들을 너는 보지 않았는가? 그들은 너희에게 속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속하지도 않으며, 알면서도 거짓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혹독한 징벌을 마련해 두셨다. 그들이 해 온 짓은 참으로 나쁘다. 그들은 자기들의 맹세를 가림막으로 삼아,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막았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굴욕의 징벌이 있다. 그들의 재산도 그들의 자녀도 하나님에 맞서 그들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들은 불지옥의 주민이며, 그곳에서 영원히 머문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함께 일으키시는 날, 그들은 지금 너희에게 맹세하듯이 그분께 맹세할 것이며, 자기들에게 딛고 설 것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참으로 그들이야말로 거짓말쟁이이다. 사탄이 그들을 차지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잊게 하였다. 그들은 사탄의 편이다. 참으로 사탄의 편, 그들이 잃는 자들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맞서는 자들은 가장 낮추어진 자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 "나와 나의 사도들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시다. (14–21)

너는 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맞서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이거나 아들이거나 형제이거나

친족이라 해도 그러하다. 그분은 이들의 마음에 믿음을 새겨 넣으시고, 당신에게서 오는 영으로 그들을 굳세게 하셨다. 그분은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낙원에 그들을 들이실 것이며,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도 그분을 기뻐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편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편, 그들이 번영하는 이들이다. (22)

# 59. 모음 (Al-Ḥashr)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분은 성서의 백성 가운데 진리를 부정한 자들을, 첫 번째 모음 때 그들의 집에서 몰아내신 분이다. 너희는 그들이 나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요새가 하나님에게서 자기들을 지켜 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그들에게 임하시어, 그들의 마음에 공포를 던져 넣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손과 믿는 자들의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물었다. 그러니 볼 눈이 있는 이들이여, 교훈을 얻으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추방을 정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서 그들을 징벌하셨을 것이다. 내세에서 그들에게는 불지옥의 징벌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맞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맞서는 자가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은 징벌에 엄하시다. (1–4)

너희가 대추야자나무를 베었든 그 뿌리 위에 서 있게 두었든,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된 일이며, 그분께서 거역하는 자들을 욕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당신의 사도에게 돌려주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위해 말도 낙타도 몰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누를 힘을 당신의 사도들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 고을 사람들에게서 당신의 사도에게 돌려주신 것은 하나님과 사도의 것이며, 가까운 친족과 고아와 가난한 이와 나그네의 것이다. 그것이 너희 가운데 부유한 이들 사이에서만 돌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받고, 그가 너희에게 금하는 것은 삼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참으로 하나님은 징벌에 엄하시다. (5–7)

그것은 가난한 이주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기뻐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돕다가, 자기 집과 자기 재산에서 쫓겨난 이들이다. 그들이야말로 진실한 이들이다. 그리고 그들 이전에 이 도시와 믿음 안에 자리를 잡은 이들은, 자기들에게 이주해 온 이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그 이주자들이 받은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아무 욕심도 품지 않으며, 자기들이 궁핍할 때에도 자기 자신보다 그들을 앞세운다. 자기 영혼의 탐욕에서 지켜지는 이들, 그들이 번영하는 이들이다. 그리고 그들 뒤에 온 이들은 말한다.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와, 믿음에서 저희보다 앞선 저희 형제들을 용서하시고, 믿는 이들에 대한 원한을 저희 마음에 남겨 두지 마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당신은 지극히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십니다.” (8–10)

성서의 백성 가운데 진리를 부정하는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위선자들을 너는 보지 않았는가? “너희가 쫓겨난다면 우리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갈 것이며, 너희에 관해서는 결코 누구에게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싸움을 당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너희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증언하신다. 그들이 쫓겨난다 해도, 위선자들은 그들과 함께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싸움을 당한다 해도, 위선자들은 그들을 돕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돕는다 해도, 등을 돌려 달아날 것이고, 그런 다음 그들은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믿는 자들이여, 그들의 가슴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너희가 더 큰 두려움이다. 그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요새로 둘러싸인 고을 안에서나 담 뒤에서가 아니면, 다 함께 너희와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들끼리의 적대는 심하다. 너는 그들이 하나로 뭉쳐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갈라져 있다. 그것은 그들이 이성을 쓰지 않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그들보다 앞서 간 자들과 같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의 나쁜 결과를 맛보았고,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징벌이 있다. 그들은 사탄과 같다. 그는 사람에게 “부정하라.” 하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이 부정하면,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두렵다.” 하고 말한다. 그리하여 그 둘의 끝은, 둘 다 불지옥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이다. 그것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응보이다. (11–17)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모든 영혼은 자기가 내일을 위해 무엇을 앞서 보냈는지 살펴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밝으시다. 하나님을 잊어, 그분께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잊게 하신 자들처럼 되지 말라. 그들이 거역하는 자들이다. 불지옥의 주민과 낙원의 주민은 같지 않다. 낙원의 주민, 그들이 승리하는 이들이다. 우리가 이 꾸란을 산 위에 내렸다면, 너는 그 산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낮아지고 갈라지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도록 그들에게 이런 비유들을 든다. (18–21)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 말고는 신이 없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아시는 분이며,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 말고는 신이 없다. 그분은 왕이시며, 거룩하신 분, 평화의 근원이신 분, 안전을 주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제압하시는 분,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그분은 그들이 동반자로 두는 것보다 훨씬 높이 계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창조하시는 분, 처음 지으시는 분, 모습을 빚으시는 분이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은 그분의 것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을 찬양한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22–24)

# 60. 시험받는 여인 (Al-Mumtaḥana)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이여, 나의 적이며 너희의 적인 자들을 동맹으로 삼아 그들에게 애정을 내보이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온 진리를 부정하였고, 너희가 너희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도와 너희를 쫓아냈다. 너희가 나의 길에서 분투하고 나의 기뻐함을 구하려고 나섰다면, 어떻게 남몰래 그들에게 애정을 보일 수 있겠는가? 나는 너희가 감추는 것과 너희가 드러내는 것을 잘 안다. 너희 가운데 그렇게 하는 자는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들이 너희보다 우세해지면, 그들은 너희의 적이 되어 나쁜 뜻으로 너희에게 손과 혀를 뻗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진리를 부정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1–2)

부활의 날에는 너희의 친족도 너희의 자녀도 너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분께서 너희 사이를 판가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보신다. 너희에게는 이브라힘과 그와 함께 있던 이들에게서 좋은 본보기가 있었다. 그들이 자기 백성에게 말했다. “우리는 너희와, 너희가 하나님 말고 섬기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너희를 부정한다.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을 때까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적대와 미움이 영원히 드러났다.” 다만 이브라힘이 자기 아버지에게 “제가 아버지를 위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에게서 아무것도 얻어 낼 힘이 없습니다.” 하고 말한 것은 예외이다.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는 당신께 의탁하였고, 당신께로 돌아갔으며, 마지막 귀착지는 당신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를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시험거리로 삼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를 용서해 주소서. 참으로 당신만이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그들에게서 너희를 위한 좋은 본보기가 있었다. 하나님과 마지막 날에 희망을 두는 이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등을 돌리는 자가 있다 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모든 찬미를 받으실 분이다. (3–6)

하나님께서 너희와, 그들 가운데 너희가 지금 적으로 여기는 자들 사이에 애정을 두실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종교 때문에 너희와 싸우지도 않았고 너희를 너희 집에서 쫓아내지도 않은 이들에게 너희가 잘 대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지 않으신다. 참으로 하나님은 공정한 이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다만, 종교 때문에 너희와 싸우고, 너희를 너희 집에서 쫓아내며, 너희를 쫓아내는 일을 도운 자들을 너희가 동맹으로 삼는 것을 금하실 뿐이다. 그들을 동맹으로 삼는 자들, 그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7–9)

믿는 자들이여, 믿는 여자들이 이주자로 너희에게 오거든 그들을 시험해 보라.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 너희가 그들이 믿는 이들임을 알게 되거든, 그들을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돌려보내지 말라. 그 여자들은 그 남자들에게 허용되지 않고, 그 남자들도 그 여자들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그 남자들이 혼인 예물로 쓴 것은 그들에게 주라. 너희가 그 여자들에게 그들의 혼인 예물을 주고 나면, 너희가 그들과 혼인하는 것은 너희에게 허물이 아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여자들과의 혼인의 끈을 붙들고 있지 말라. 너희가 쓴 것을 청하고, 그들도 그들이 쓴 것을 청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판결이다. 그분께서 너희 사이를 판결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너희의 아내들 가운데 누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로 넘어가고, 그런 다음 너희에게 얻을 차례가 오거든, 아내가 떠나간 이들에게 그들이 쓴 것만큼을 주라. 그리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10–11)

예언자여, 믿는 여자들이 너에게 와서 충성을 서약하거든, 곧 하나님께 아무것도 동반자로 두지 않고, 훔치지 않으며, 간음하지 않고, 자기 자녀를 죽이지 않으며, 자기 손과 발 사이에서 지어낸 중상을 내놓지 않고, 옳은 일에서 너에게 거역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거든, 그들의 서약을 받아 주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12)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백성을 동맹으로 삼지 말라.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무덤에 있는 이들에 대해 절망하였듯이, 그들은 내세에 대해 절망하였다. (13)

# 61. 줄지어 섬 (Al-Ṣaff)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믿는 자들이여,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가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가? 너희가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몹시 미움받는 일이다. 참으로 하나님은 견고한 건물처럼 줄지어 그분의 길에서 싸우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1–4)

무사가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을 때를 기억하라. "나의 백성이여, 내가 너희에게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도임을 너희가 알면서,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는가?" 그들이 빗나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빗나가게 하셨다. 하나님은 거역하는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또 마르얌의 아들 이사가 말하였을 때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자손이여, 나는 너희에게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도이다. 나는 나 이전에 있던 토라를 확증하고, 내 뒤에 올 사도, 그 이름이 아흐마드인 사도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러나 그가 분명한 징표를 가지고 그들에게 오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것은 분명한 마술이다." (5–6)

하나님께 귀의하도록 부름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지어내는 자보다 더 불의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빛을 끄려 한다. 그러나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싫어한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빛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그분은 인도와 진리의 종교와 함께 당신의 사도를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는 자들이 싫어한다 해도, 그것을 모든 종교 위에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7–9)

믿는 자들이여, 고통스러운 징벌에서 너희를 구해 줄 거래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 줄까?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믿고, 너희의 재산과 너희의 목숨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분투하라. 너희가 알기만 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 그분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낙원에, 그리고 영원한 지복의 낙원에 있는 좋은 거처에 너희를 들이실 것이다. 그것이 크나큰 승리이다. 또 너희가 좋아할 다른 것도 있으니, 하나님에게서 오는 도움과 가까운 승리이다. 그러니 믿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돕는 이들이 되라. 마르얌의 아들 이사가 제자들에게 "누가 하나님을 향한 길에서 나를 돕는 이가 되겠는가?" 하고 말하였을 때와 같다. 제자들이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이들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무리는 믿었고, 한 무리는 부정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이들을 그들의 적에 맞서 굳세게 하였고, 그들이 우세해졌다. (10–14)

# 62. 모임의 날 (Al-Jumuʿa)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분은 왕이시며,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분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 자신 가운데서 한 사도를 일으키신 분이다. 그가 그들에게 그분의 징표를 낭송해 주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며, 그들에게 성서와 지혜를 가르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들은 이전에 분명한 미혹 속에 있었다. 또 아직 그들과 합쳐지지 않은, 그들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도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며, 그분은 원하시는 이에게 그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크나큰 은총의 주님이시다. 토라를 짊어지게 되었으나 그것을 지지 못한 자들의 비유는, 책들을 지고 가는 나귀와 같다. 하나님의 징표를 거짓이라 한 백성의 비유는 얼마나 나쁜가!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1–5)

(예언자여) 말하라, "유대교를 따르는 이들이여, 모든 사람 가운데 오직 너희만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너희가 주장한다면, 너희가 진실하다면 죽음을 바라 보라." 그러나 그들은 자기 손이 앞서 보낸 것 때문에 결코 그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잘 아신다. 말하라, "너희가 달아나는 그 죽음이 반드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런 다음 너희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아시는 분께 되돌려질 것이고, 그분께서 너희가 하던 일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6–8)

믿는 자들이여, 모임의 날에 예배로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로 서둘러 가고 장사를 그만두라. 너희가 알기만 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 그런 다음 예배가 끝나거든, 땅에 흩어져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을 많이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가 번영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장사나 놀잇거리를 보면, 그리로 흩어져 가며 너를 서 있는 채로 내버려 둔다. 말하라,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놀잇거리나 장사보다 더 좋다. 하나님은 양식을 주는 이들 가운데 가장 좋으신 분이다." (9–11)

# 63. 위선자들 (Al-Munāfiqūn)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자여) 위선자들이 너에게 오면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도이심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참으로 그분의 사도임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선자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증언하신다. 그들은 자기들의 맹세를 가림막으로 삼아,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막았다. 그들이 해 온 짓은 참으로 나쁘다. 그것은 그들이 믿었다가 그런 다음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봉해졌고,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네가 그들을 보면 그들의 겉모습이 네 마음에 들고, 그들이 말하면 너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그들은 벽에 기대어 세워 놓은 나무토막과 같다. 그들은 외치는 소리마다 자기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여긴다. 그들이 바로 적이다. 그러니 그들을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기를! 그들은 어찌 그리 진리에서 돌아서는가! (1–4)

그들에게 "오라. 하나님의 사도가 너희를 위해 용서를 구해 줄 것이다." 하고 말하면, 그들은 고개를 돌려 버리고, 너는 그들이 교만하게 외면하는 것을 본다. 네가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그들에게는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거역하는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도 곁에 있는 자들에게 쓰지 말라. 그러면 그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보고는 하나님께 속한다. 그런데도 위선자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가 그 도시로 돌아가면, 더 강한 자들이 더 비천한 자들을 반드시 거기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러나 영예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와 믿는 자들에게 속한다. 그런데도 위선자들은 알지 못한다. (5–8)

믿는 자들이여, 너희의 재산과 너희의 자녀가 너희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서 딴 데로 돌려놓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는 자들, 그들이 잃는 자들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죽음이 와서 그가 "주님이시여, 저를 잠시만 미루어 주신다면, 제가 자선을 베풀고 의로운 이들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너희에게 베푼 것 가운데서 쓰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영혼이든 그 정해진 때가 오면 결코 미루어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밝으시다. (9–11)

# 64. 서로 잃고 얻음 (Al-Taghābun)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통치권은 그분의 것이며 찬미도 그분의 것이다. 그분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그분은 너희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어떤 자는 진리를 부정하고, 어떤 이는 믿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보신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진리로 창조하시고, 너희의 모습을 빚으시되 그 모습을 아름답게 하셨다. 마지막 귀착지는 그분께 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고, 너희가 감추는 것과 너희가 드러내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가슴속에 있는 것을 잘 아신다. (1–4)

이전에 진리를 부정하고 자기들이 한 일의 나쁜 결과를 맛본 자들의 소식이 너희에게 오지 않았는가?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징벌이 있다. 그것은 그들의 사도들이 분명한 징표를 가지고 그들에게 거듭 왔는데도, 그들이 "한낱 사람이 우리를 인도한단 말인가?"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부정하고 등을 돌렸다.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모든 찬미를 받으실 분이다. (5–6)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결코 다시 일으켜지지 않으리라고 주장한다. 말하라, "아니다. 나의 주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희는 반드시 다시 일으켜질 것이고, 그런 다음 너희가 한 일을 반드시 듣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쉬운 일이다." (7)

그러니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와 우리가 내린 빛을 믿으라.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밝으시다. 그분께서 모임의 날을 위해 너희를 모으시는 날, 그날은 서로 잃고 얻음이 드러나는 날이다.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이는, 그분께서 그의 악한 행위를 지워 주시고,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낙원에 들이시어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크나큰 승리이다. 그러나 진리를 부정하고 우리의 징표를 거짓이라 한 자들은 불지옥의 주민이며, 그곳에서 영원히 머문다. 참으로 나쁜 종착지이다! (8–10)

어떤 불행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닥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이는, 그분께서 그의 마음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도에게 순종하라. 너희가 등을 돌린다 해도, 우리 사도의 의무는 오직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분 말고는 신이 없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라. 믿는 자들이여, 너희의 배우자와 너희의 자녀 가운데에는 너희의 적이 있다. 그러니 그들을 조심하라. 그러나 너희가 너그러이 봐주고 눈감아 주며 용서한다면,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11–14)

너희의 재산과 너희의 자녀는 시험일 뿐이며, 하나님 곁에는 크나큰 보상이 있다. 그러니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듣고 순종하며, 자선으로 쓰라. 그것이 너희 자신을 위해 더 좋다. 자기 영혼의 탐욕에서 지켜지는 이들, 그들이 번영하는 이들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좋은 빚을 드린다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여러 곱절로 늘려 주시고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잘 보답하시고 관대하신 분이며,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아시는 분,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15–18)

# 65. 이혼 (Al-Ṭalāq)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자여, 너희가 여자들과 이혼할 때에는 그들의 기다리는 기간에 맞추어 이혼하고, 그 기간을 잘 헤아리라. 그리고 너희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들이 분명한 추한 짓을 저지르지 않는 한, 그들을 그들의 집에서 내보내지 말고, 그들도 나가지 않게 하라.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이다. 하나님의 한계를 넘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다. 너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어떤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지도 모른다. (1)

그런 다음 그들이 자기들의 기한 끝에 이르거든, 좋은 방식으로 그들을 붙들어 두든지 좋은 방식으로 그들과 헤어지든지 하라. 너희 가운데 공정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 증언을 바로 세우라. 이것은 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는 이가 훈계받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그분께서 나갈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그에게 양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에게는 그분으로 충분하다.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분량을 정해 두셨다. (2–3)

너희의 여인들 가운데 달거리를 더 기대하지 않게 된 이들은, 너희가 의심한다면 그들의 기다리는 기간은 석 달이며, 아직 달거리가 없는 이들도 그러하다. 아이를 밴 이들은, 그들의 기한이 그들이 짐을 내려놓을 때까지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그분께서 그의 일을 쉽게 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리신 명령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그분께서 그의 악한 행위를 지워 주시고 그의 보상을 크게 해 주신다. (4–5)

너희의 형편에 따라, 너희가 사는 곳에 그들을 살게 하고, 그들을 옹색하게 하려고 괴롭히지 말라. 그들이 아이를 배었다면, 그들이 짐을 내려놓을 때까지 그들에게 쓸 것을 대어 주라. 그들이 너희를 위해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면, 그들에게 그 삯을 주고, 좋은 방식으로 서로 의논하라. 그러나 너희가 서로 어렵게 군다면, 다른 여자가 아버지를 위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다. 넉넉한 이는 자기의 넉넉함에 따라 쓰게 하고, 양식이 빠듯한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쓰게 하라. 하나님은 어떤 영혼에게도 당신께서 그에게 주신 것 이상을 지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려움 뒤에 쉬움을 주실 것이다. (6–7)

자기 주님과 그분의 사도들의 명령에 거만하게 맞선 고을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고을에 엄하게 셈을 물었고, 끔찍한 징벌로 그곳을 벌하였다. 그리하여 그 고을은 자기가 한 일의 나쁜 결과를 맛보았고, 그 일의 끝은 손실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혹독한 징벌을 마련해 두셨다. 그러니 분별 있는 이들이여, 믿는 이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일깨움을 내리셨다. 곧 너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징표를 낭송해 주는 사도이다.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을 깊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내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이는, 그분께서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낙원에 들이시어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참으로 좋은 양식을 마련해 주셨다. (8–11)

하나님은 일곱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도 그와 같이 창조하신 분이다. 명령이 그 사이로 내려온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전능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식으로 모든 것을 에워싸고 계심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12)

# 66. 금함 (Al-Taḥrīm)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자여, 어찌하여 너는 네 아내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용하신 것을 금하는가?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의 맹세에서 풀려나는 길을 이미 너희에게 정해 주셨다. 하나님은 너희의 보호자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1–2)

예언자가 자기 아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은밀히 털어놓았을 때의 일이다. 그 여자가 그것을 남에게 알렸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에게 드러내 주시자, 그는 그 가운데 일부는 알려 주고 일부는 지나쳐 버렸다. 그가 그 일을 그 여자에게 말하자, 그 여자가 말했다. "누가 이것을 당신께 알려 주었습니까?" 그가 말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밝으신 분께서 나에게 알려 주셨다." 너희 두 사람이 뉘우치며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좋을 것이다. 너희 둘의 마음이 이미 기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둘이 그에게 맞서 서로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이시며, 지브릴과 믿는 자들 가운데 의로운 이들도 그러하다. 그리고 그 밖에 천사들도 그를 돕는 이들이다. 그가 너희와 이혼한다면, 그의 주님께서 너희 대신에 너희보다 더 나은 아내들을 그에게 주실지도 모른다. 그들은 하나님께 귀의하고, 믿으며, 경건히 순종하고, 뉘우치며, 섬기고, 단식하는 여인들이며, 혼인한 적이 있는 이들도 있고 처녀들도 있다. (3–5)

믿는 자들이여, 너희 자신과 너희 가족을 불에서 지키라. 그 땔감은 사람과 돌이며, 그 위에는 거칠고 엄한 천사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시는 것에 거역하지 않고, 명령받은 것을 행한다. "진리를 부정한 자들아, 오늘은 변명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너희가 하던 일로 보답받을 뿐이다." (6–7)

믿는 자들이여, 진실한 뉘우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 너희의 주님께서 너희의 악한 행위를 지워 주시고,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낙원에 너희를 들이실지도 모른다. 그날 하나님은 예언자와 그와 함께 믿은 이들을 욕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빛이 그들의 앞과 오른쪽에서 달려가고, 그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를 위해 저희의 빛을 온전하게 해 주시고, 저희를 용서해 주소서. 참으로 당신은 모든 일에 전능하십니다." (8)

예언자여,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과 위선자들에 맞서 힘껏 분투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하라. 그들의 거처는 지옥이다. 참으로 나쁜 종착지이다! 하나님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위해 비유를 드셨다. 누흐의 아내와 루뜨의 아내이다. 그 둘은 우리의 의로운 종들

가운데 두 사람의 아내였으나, 그들을 배신하였다. 그래서 그 남편들은 하나님에 맞서 그 둘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런 말이 있었다. "들어가는 자들과 함께 불지옥에 들어가라." 또 하나님은 믿는 이들을 위해 비유를 드셨다. 파라오의 아내이다. 그 여자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저를 위해 당신 곁, 낙원에 집을 지어 주시고, 저를 파라오와 그의 행위에서 구해 주시며, 저를 불의를 행하는 백성에게서 구해 주소서." 또 이므란의 딸 마르얌이다. 그 여자는 자기 정결을 지켰고, 우리는 그 안에 우리의 영을 불어넣었다. 그 여자는 자기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서들을 참되다고 받아들였고, 경건히 순종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였다. (9–12)

# 67. 통치권 (Al-Mulk)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통치권이 그 손에 있는 분은 복되시다. 그분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 그분은 너희 가운데 누가 행위에서 가장 훌륭한지 시험하시려고 죽음과 삶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일곱 하늘을 층층이 창조하신 분이다. 너는 자비로우신 분의 창조에서 아무 어긋남도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 살펴보라. 어떤 틈이 보이는가? 그런 다음 다시, 또다시 살펴보라. 네 시선은 눈부시고 지친 채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1–4)

우리는 가장 낮은 하늘을 등불들로 꾸미고, 그것들을 사탄들을 쫓는 돌팔매로 삼았으며, 그들을 위해 타오르는 불의 징벌을 마련해 두었다. 자기 주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징벌이 있다. 참으로 나쁜 종착지이다! 그들이 그 안에 던져지면, 그것이 끓어오르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것은 분노로 거의 터질 듯하다. 한 무리가 그 안에 던져질 때마다, 그곳을 지키는 이들이 그들에게 물을 것이다. “너희에게 경고자가 오지 않았느냐?” 그들은 말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경고자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거짓말쟁이라 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내리지 않으셨다. 너희는 큰 미혹 속에 있을 뿐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거나 이성을 썼더라면, 우리는 타오르는 불의 주민 가운데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그들은 자기 죄를 고백할 것이다. 그러니 타오르는 불의 주민은 멀리 사라지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기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용서와 큰 보상이 있다. (5–12)

너희가 말을 숨기든 소리 내어 말하든, 그분은 가슴속에 있는 것을 잘 아신다. 창조하신 분께서 알지 못하시겠는가? 그분은 헤아릴 수 없이 섬세하시고 모든 것에 밝으신 분이다. 그분은 너희를 위해 땅을 다루기 쉽게 만드신 분이다. 그러니 그 넓은 길들을 걸어 다니고 그분의 양식을 먹으라. 다시 일으켜져 돌아갈 곳은 그분께 있다. 하늘에 계신 분께서 땅이 뒤흔들릴 때 그것이 너희를 삼키게 하지 않으시리라고 너희는 안심하는가? 아니면 하늘에 계신 분께서 너희에게 돌 폭풍을 보내지 않으시리라고 너희는 안심하는가? 그때 너희는 나의 경고가 어떠한지 알게 될 것이다. 그들 이전의 사람들도 거짓이라 하였다. 나의 꾸짖음이 얼마나 무서웠는가! 그들은 자기들 위에서 날개를 펴고 접는 새들을 보지 않는가? 자비로우신 분 말고는 아무도 그것들을 붙들고 있지 않다.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신다. 자비로우신 분에 맞서 너희를 도울, 너희의 군대라는 이 자가 누구인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속임수 속에 있을 뿐이다. 그분께서 당신의 양식을 거두신다면,

너희에게 양식을 줄 이 자가 누구인가? 그런데도 그들은 거만함과 꺼림을 고집한다. 얼굴을 땅에 박고 걷는 자가 더 잘 인도받았는가, 아니면 곧은 길 위를 똑바로 걷는 이가 더 잘 인도받았는가? (13–22)

말하라, "그분은 너희를 생겨나게 하시고, 너희에게 청각과 시각과 마음을 주신 분이다. 너희는 조금밖에 감사하지 않는다!" 말하라, "그분은 너희를 땅에 널리 퍼지게 하신 분이며, 너희는 그분께로 모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너희가 진실하다면,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말하라, "그것에 대한 지식은 오직 하나님 곁에 있다. 나는 분명한 경고자일 뿐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이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보면, 진리를 부정한 자들의 얼굴은 일그러질 것이고, 이런 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청하던 것이다." 말하라,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나와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을 멸하시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든, 누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고통스러운 징벌에서 지켜 주겠는가?" 말하라,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께 의탁하였다. 누가 분명한 미혹 속에 있는지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23–29)

말하라, "생각해 보라. 너희의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버린다면, 누가 너희에게 흐르는 물을 가져다주겠는가?"[52] (30)

[52] **땅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질 수 있는 물: 꾸란 67:30 에 대한 철학적·신학적 주석**

# 68. 붓 (Al-Qalam)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눈. 붓과 그들이 적는 것을 두고 맹세하건대, (예언자여) 너의 주님의 은혜로 너는 미친 사람이 아니다. 참으로 너에게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보상이 있다. 참으로 너는 위대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 머지않아 너는 보게 될 것이고, 그들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홀린 자인지를. 참으로 너의 주님은 누가 당신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가장 잘 아시며, 누가 바르게 인도받았는지도 가장 잘 아신다. 그러니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굽히지 말라. 그들은 네가 물러서 주기를 바라며, 그러면 자기들도 물러서려 한다. 또 걸핏하면 맹세하는 하찮은 자에게 굽히지 말라. 그는 헐뜯는 자, 말을 옮기고 다니는 자, 좋은 것을 막는 자, 한계를 넘는 자, 죄짓는 자, 거칠고 게다가 태생마저 의심스러운 자이다. 그에게 재산과 아들들이 있다고 해서 그리하지 말라. 우리의 징표가 그에게 낭송되면, 그는 말한다. "옛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그의 코에 낙인을 찍을 것이다. (1–16)

우리는 동산의 주인들을 시험하였듯이 그들을 시험하였다. 그들은 아침이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따겠다고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잠든 사이에 너의 주님에게서 온 재앙이 그 위를 휩쓸고 지나갔고, 아침에 그것은 이미 거두어 낸 밭처럼 되어 있었다. 동이 트자 그들은 서로를 불렀다. "열매를 따려거든 너희의 밭으로 일찍 가라."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속삭이며 떠났다. "오늘은 어떤 가난한 이도 너희 곁에서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자기들에게 힘이 있다고 여기며, 마음을 굳게 먹고 일찍 나섰다. 그러나 그것을 보자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든 것이 틀림없다! 아니다. 우리는 다 빼앗겼다!" 그들 가운데 가장 온당한 이가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가?' 하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말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우리는 참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서로를 향해 돌아서서 서로를 탓하였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우리는 거만하게 굴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대신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 희망을 둔다." 징벌은 이러하다. 그리고 내세의 징벌은 훨씬 더 크다. 그들이 알기만 한다면! (17–33)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그들 주님 곁에 지복의 낙원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의하는 이들을 죄지은 자들처럼 대하겠는가?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너희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아니면 너희에게 책이 있어, 너희가 고르는 것을 무엇이든 그 안에서 얻으리라고 거기에서 읽는가? 아니면 너희가 정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으리라는, 부활의 날까지 우리를 묶는 맹세가 너희에게 있는가? 그들 가운데 누가 그것을 보증하겠는지

그들에게 물어보라! 아니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동반자들이 있는가? 그러면 그들이 진실하다면, 자기들의 동반자들을 데려와 보게 하라. 정강이가 드러나고 그들이 엎드려 절하도록 부름받는 날, 그들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눈은 내리깔리고, 굴욕이 그들을 덮을 것이다. 그들은 성한 몸이었을 때 엎드려 절하도록 부름받았다. (34–43)

그러니 이 말씀을 거짓이라 하는 자들은 나에게 맡겨 두라.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들을 한 걸음씩 이끌어 갈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말미를 준다. 참으로 나의 계획은 굳건하다. 아니면 네가 그들에게 보수를 청하여, 그들이 빚에 짓눌려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 그들이 그것을 적는가? 그러니 너의 주님의 판결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물고기의 사람처럼 되지 말라. 그는 괴로움에 목이 메어 부르짖었다. 그의 주님에게서 오는 은혜가 그에게 닿지 않았다면, 그는 탓을 들으며 메마른 바닷가에 던져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님께서 그를 택하시어, 의로운 이들 가운데 하나로 삼으셨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일깨움을 들을 때, 눈으로 너를 거의 넘어뜨릴 듯이 쏘아보며 말한다. "그는 틀림없이 미쳤다!" 그러나 그것은 온 세상을 위한 일깨움일 뿐이다. (44–52)

# 69. 피할 수 없는 시각 (Al-Ḥāqqa)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피할 수 없는 그 시각! 피할 수 없는 그 시각이 무엇인가? 피할 수 없는 그 시각이 무엇인지, 무엇이 너에게 알려 주겠는가? (1–3)

사무드와 아드는 그 내리치는 재앙을 거짓이라 하였다. 사무드는 모든 것을 뒤덮는 굉음으로 멸망하였다. 아드는 사납게 울부짖는 바람으로 멸망하였다. 그분은 일곱 밤과 여드레 낮 동안 쉬지 않고 그것을 그들에게 풀어놓으셨다. 그래서 너는 그 사람들이 속이 빈 대추야자나무 줄기가 쓰러진 것처럼 엎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너는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하나라도 보는가? 파라오와 그 이전의 자들과 뒤집힌 고을들도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자기 주님의 사도에게 거역하였고, 그래서 그분은 갈수록 조여드는 붙잡음으로 그들을 붙잡으셨다. 물이 넘쳐 올랐을 때, 우리는 너희를 떠다니는 배에 태웠다. 그것을 너희를 위한 일깨움으로 삼고, 귀 기울이는 귀가 그것을 간직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4–12)

그런 다음 나팔이 단 한 번 불리고, 땅과 산들이 들어 올려져 단 한 번에 부서지면, 그날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은 갈라지니, 그날 그것은 허약할 것이다. 천사들은 그 가장자리에 있고, 그날 여덟이 그들 위에서 너의 주님의 권좌를 떠받칠 것이다. 그날 너희는 앞에 내세워지고, 너희의 어떤 비밀도 숨겨져 있지 않을 것이다. 자기 책을 오른손에 받는 이는 말할 것이다. “자, 나의 책을 읽어 보라! 나는 내가 나의 셈을 만나리라는 것을 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흡족한 삶을 누리며, 높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열매 송이들은 가까이 드리워져 있다. “지나간 날들에 너희가 앞서 보낸 것 때문에, 마음껏 먹고 마시라.” 그러나 자기 책을 왼손에 받는 자는 말할 것이다. “내가 나의 책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나의 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더라면! 죽음이 끝이었더라면! 나의 재산은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나의 권세는 나에게서 사라져 버렸다.” “그를 붙잡아 묶어라. 그런 다음 그를 지옥에 던져 넣어라. 그런 다음 길이가 일흔 자 되는 사슬에 그를 꿰어라!” 참으로 그는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가난한 이를 먹이는 일을 권하지도 않았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는 그에게 가까운 벗도 없고, 상처에서 흐르는 더러운 고름 말고는 먹을 것도 없다. 그것은 죄지은 자들만이 먹는다. (13–37)

그러니 나는 너희가 보는 것과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두고 맹세한다. 참으로 이것은 고귀한 사도의 말이다. 그것은 시인의 말이 아니다. 너희는 조금밖에 믿지 않는다! 또

점쟁이의 말도 아니다. 너희는 조금밖에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 그것은 만유의 주님에게서 내려온 것이다. 그가 우리의 이름으로 어떤 말을 지어냈다면, 우리는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런 다음 그의 생명줄을 끊었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무도 그를 막아 주지 못하였을 것이다. 참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위한 일깨움이다. 우리는 너희 가운데 그것을 거짓이라 하는 자들이 있음을 안다. 참으로 그것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후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그것은 확실한 진리이다. 그러니 지극히 위대하신 너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38–52)

# 70. 오르는 길들 (Al-Maʿārij)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묻는 이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떨어질 징벌에 대해 물었다. 그것을 물리칠 이는 아무도 없다. 그것은 오르는 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천사들과 영이, 그 길이가 오만 년인 하루 동안에 그분께로 올라간다. 그러니 아름다운 인내로 인내하라. 그들은 그것을 멀다고 보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깝다고 본다. 그날 하늘은 녹은 쇳물과 같고, 산들은 양털 뭉치와 같을 것이다. 어떤 벗도 벗의 안부를 묻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서로를 보게 되는데도 그러하다. 죄지은 자는 그날의 징벌에서 벗어나려고 자기 자녀와 자기 배우자와 자기 형제와, 자기를 품어 주던 친족과, 땅에 있는 모든 이를 몸값으로 내놓고, 그리하여 자기가 구원받기를 바랄 것이다. 결코 아니다! 그것은 사납게 타오르는 불꽃이며, 머리 가죽을 벗겨 낸다. 그것은 등을 돌리고 가 버린 자, 재물을 모아 쌓아 둔 자를 모두 자기에게로 부른다. (1–18)

참으로 인간은 조바심하게 창조되었다. 나쁜 일이 그에게 닿으면 그는 낙담하고, 좋은 일이 그에게 닿으면 그는 인색해진다. 다만 예배하는 이들은 예외이다. 그들은 자기 예배에 한결같은 이들이며, 자기 재산에 청하는 이와 얻지 못한 이를 위한 정해진 몫을 두는 이들이다. 또 심판의 날을 참되다고 하는 이들이며, 자기 주님의 징벌을 두려워하는 이들이다. 참으로 그들 주님의 징벌은 아무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또 그들은 자기 정결을 지키는 이들이다. 다만 자기 배우자나 자기 여종에게는 예외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비난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너머를 찾는 자들은 한계를 넘는 자들이다. 또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과 자기 약속을 충실히 지키는 이들이며, 자기 증언에 굳게 서는 이들이고, 자기 예배를 잘 지키는 이들이다. 이들은 낙원에서 존귀하게 대접받을 것이다. (19–35)

(예언자여)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오른쪽에서도 왼쪽에서도 떼를 지어 너에게로 내달려 오니 어찌 된 일인가? 그들은 저마다 지복의 낙원에 들어가기를 바라는가? 결코 아니다! 우리는 그들이 아는 것으로 그들을 창조하였다. 그러니 나는 해 뜨는 곳들과 해 지는 곳들의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참으로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이들로 그들을 바꿀 수 있으며, 아무도 우리를 앞지르지 못한다. 그러니 그들이 약속받은 그들의 날을 만날 때까지, 그들이 헛된 말에 빠져 놀도록 내버려 두라. 그날 그들은 마치 푯대를 향해 달려가듯이 서둘러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그들의 눈은 내리깔리고, 굴욕이 그들을 덮을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약속받던 그날이다. (36–44)

# 71. 누흐 (Nū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누흐를 그의 백성에게 보냈다. "고통스러운 징벌이 그들에게 닥치기 전에 너의 백성에게 경고하라." 그가 말했다. "나의 백성이여, 나는 너희에게 분명한 경고자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며, 나에게 순종하라. 그분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해진 기한까지 너희를 미루어 주실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오면 그것은 미루어지지 않는다. 너희가 알기만 한다면!" (1–4)

그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저는 밤낮으로 제 백성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제 부름은 그들의 달아남만 더하였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도록 제가 그들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옷으로 몸을 감싸며, 고집을 부리고 몹시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큰 소리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드러내어 알리기도 하고, 남몰래 은밀히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주님께 용서를 구하라. 참으로 그분은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분께서 너희 위에 하늘에서 비를 넉넉히 내리시고, 재산과 아들들로 너희를 도우시며, 너희에게 동산을 주시고 강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인가? 그분은 너희를 여러 단계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곱 하늘을 층층이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달을 빛으로 두시며 해를 등불로 삼으셨는지 너희는 보지 않는가? 하나님은 너희를 땅에서 식물처럼 자라게 하셨다. 그런 다음 너희를 그 안으로 되돌리시고, 다시 너희를 꺼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땅을 넓게 펼쳐 놓으셨다. 너희가 그 넓은 길들을 다니게 하시려는 것이다.'" (5–20)

누흐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그들은 저에게 거역하고, 재산과 자녀가 손실만 더해 주는 자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계략을 꾸몄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의 신들을 버리지 말라. 왓드도, 수와도, 야구스와 야우끄와 나스르도 버리지 말라.' 그들은 많은 사람을 길 잃게 하였습니다. 주님이시여,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미혹만을 더하소서." (21–24)

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물에 빠졌고,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 말고 자기들을 도울 이를 아무도 찾지 못하였다. 누흐가 말했다. "주님이시여,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 가운데 땅 위에 사는 이를 하나도 남겨 두지 마소서. 당신께서 그들을 남겨 두시면, 그들은 당신의 종들을 길 잃게 하고, 못되고 부정하는 자만을 낳을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저와 제 부모를 용서하시고, 믿는 이로 제 집에 들어오는 이와, 믿는 남자들과 믿는 여자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파멸만을 더하소서." (25–28)

# 72. 진 (Al-Jinn)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자여) 말하라, "진의 한 무리가 귀를 기울여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이 나에게 계시되었다. '우리는 놀라운 꾸란을 들었다. 그것은 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었고, 우리는 결코 우리 주님께 아무도 동반자로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의 위엄은 높으시다. 그분은 배우자도 아들도 두지 않으셨다. 우리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에 대해 터무니없는 말을 하곤 하였다. 우리는 사람도 진도 결코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말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어떤 남자들이 진 가운데 어떤 남자들에게 보호를 구하곤 하였고, 그래서 그들의 거만함만 더해 주었다. 그들은 너희가 생각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아무도 다시 일으키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하늘에 닿아 보았으나, 그것이 엄한 지킴이들과 불꽃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았다. 우리는 엿들으려고 그곳의 자리들에 앉아 있곤 하였다. 그러나 이제 엿듣는 자는 자기를 노리고 기다리는 불꽃을 만난다. 우리는 땅에 있는 이들에게 해가 뜻해졌는지, 아니면 그들의 주님께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기를 뜻하셨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 가운데에는 의로운 이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우리는 땅에서 결코 하나님을 좌절시킬 수 없고, 달아남으로도 그분을 좌절시킬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인도를 듣자 그것을 믿었다. 자기 주님을 믿는 이는 깎임도 부당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귀의하는 이들도 있고, 빗나가는 자들도 있다. 귀의한 이들은 바른 길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빗나가는 자들은 지옥의 땔감이 될 것이다.'" (1–15)

그들이 곧은 길에 굳게 섰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넉넉한 물을 마시게 하였을 것이다. 그것으로 그들을 시험하려는 것이다. 자기 주님을 기억하는 일을 외면하는 자는, 그분께서 갈수록 더해 가는 징벌 속으로 몰아넣으실 것이다. 예배하는 곳들은 하나님께 속한다. 그러니 하나님과 나란히 아무도 부르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일어서서 그분을 부르자, 그들은 그에게 몰려들어 그를 거의 덮칠 뻔하였다. 말하라, "나는 오직 나의 주님만을 부르며, 그분께 아무도 동반자로 두지 않는다." 말하라, "나에게는 너희에게 해를 줄 힘도, 바른 인도를 가져다줄 힘도 없다." 말하라, "아무도 나를 하나님에게서 지켜 줄 수 없고, 나는 그분 말고 아무 피난처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나의 임무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것, 곧 그분의 전언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거역하는 자에게는 지옥의 불이 있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자기들이 약속받은 것을 볼 때, 누가 돕는 이에서 더 약하고 수에서 더

적은지 알게 될 것이다. 말하라, “나는 너희에게 약속된 것이 가까운지, 아니면 나의 주님께서 그것에 먼 기한을 두셨는지 알지 못한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아시는 분이며, 당신의 보이지 않는 것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으신다. 다만 그분께서 택하신 사도는 예외이다. 그때 그분은 그의 앞과 뒤에 지키는 이들을 보내신다. 그들이 자기 주님의 전언을 전하였음을 그분께서 아시려는 것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에워싸고 계시며, 모든 것을 수로 헤아려 두셨다.” (16–28)

# 73. 옷으로 몸을 감싼 이 (Al-Muzzammil)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옷으로 몸을 감싼 이여, 조금만 빼고 밤에 일어나 예배하라. 밤의 절반이거나, 그보다 조금 덜하거나, 그보다 조금 더하여도 좋다. 그리고 꾸란을 천천히 또렷하게 낭송하라. 참으로 우리는 곧 너에게 무거운 말씀을 내릴 것이다. 참으로 밤에 일어나는 것은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고, 말을 더 바르게 한다. 참으로 낮에는 너에게 오래 이어지는 일들이 있다. 너의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온전히 그분께 헌신하라. 그분은 동쪽과 서쪽의 주님이시다. 그분 말고는 신이 없다. 그러니 그분을 수호자로 삼으라. 그들이 하는 말을 인내하고, 아름답게 그들에게서 물러나라. 진리를 거짓이라 하며 안락을 누리는 자들은 나에게 맡겨 두고, 그들에게 잠시 말미를 주라. 참으로 우리 곁에는 족쇄와 타오르는 불이 있고, 목에 걸리는 음식과 고통스러운 징벌이 있다. 그날 땅과 산들이 흔들리고, 산들은 흘러내리는 모래 더미가 될 것이다. (1–14)

참으로 우리는 파라오에게 사도를 보냈듯이, 너희에 대한 증인으로 너희에게 사도를 보냈다. 그러나 파라오는 그 사도에게 거역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혹독한 붙잡음으로 그를 붙잡았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부정한다면, 아이들의 머리를 희게 만들 그날에 어떻게 너희 자신을 지키겠는가? 그날 하늘은 갈라질 것이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참으로 이것은 일깨움이다. 그러니 원하는 이는 자기 주님께로 가는 길을 택하라. (15–19)

(예언자여) 참으로 너의 주님은 네가 밤의 거의 삼분의 이를, 또는 그 절반이나 삼분의 일을 서서 예배하고, 너와 함께 있는 이들 가운데 한 무리도 그리함을 아신다. 하나님은 밤과 낮을 헤아려 정하신다. 그분은 너희가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함을 아시고, 자비로 너희에게 돌아오셨다. 그러니 꾸란 가운데 너희에게 쉬운 만큼을 낭송하라. 그분은 너희 가운데 병든 이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땅을 다니는 이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길에서 싸우는 이들이 있을 것임을 아신다. 그러니 그 가운데 쉬운 만큼을 낭송하고, 예배를 지키며, 정해진 희사를 바치고, 하나님께 좋은 빚을 드리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앞서 보내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 너희는 하나님 곁에서 그것을 더 좋고 더 큰 보상으로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참으로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20)

# 74. 겉옷으로 몸을 감싼 이 (Al-Muddaththir)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겉옷으로 몸을 감싼 이여, 일어나 경고하라! 너의 주님의 위대하심을 기리고, 네 옷을 깨끗이 하며, 더러움을 멀리하라. 더 많이 얻으려고 베풀지 말고, 너의 주님을 위해 인내하라. (1–7)

나팔이 울리면, 그날은 힘든 날이며,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날이다. 내가 홀로 창조한 자를 나에게 맡겨 두라. 나는 그에게 넉넉한 재산과 그의 곁에 있는 아들들을 주었고, 그를 위해 길을 평탄하게 닦아 주었다. 그런데도 그는 내가 더 주기를 탐낸다. 결코 아니다! 그는 우리의 징표에 고집스럽게 맞섰다. 나는 그를 가파른 오르막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는 궁리하고 셈하였다. 그는 망하라! 그가 어떻게 셈하였는가! 다시, 그는 망하라! 그가 어떻게 셈하였는가! 그런 다음 그는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얼굴을 찌푸리고 찡그렸다. 그런 다음 등을 돌리고 교만하게 굴며 말했다. “이것은 전해 내려온 마술일 뿐이다. 이것은 사람의 말일 뿐이다.” (8–25)

나는 그를 사까르에 던져 넣을 것이다. 사까르가 무엇인지, 무엇이 너에게 알려 주겠는가? 그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무것도 내버려 두지 않으며, 사람의 살갗을 태운다. 그 위에는 열아홉이 있다. 우리는 불지옥을 지키는 이들을 오직 천사들로만 삼았고, 그들의 수를 오직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위한 시험으로 삼았다. 성서를 받은 이들이 확신하고, 믿는 이들은 믿음이 더해지며, 성서를 받은 이들과 믿는 자들이 의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또 마음에 병이 있는 자들과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무엇을 뜻하셨는가?” 하고 말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길 잃게 두시고 원하시는 이를 인도하신다. 너의 주님의 군대는 그분 말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사람들을 위한 일깨움일 뿐이다. 결코 아니다! 달을 두고, 물러가는 밤을 두고, 밝아 오는 새벽을 두고 맹세하건대, 참으로 그것은 가장 큰 것들 가운데 하나이며,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이다. 너희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려 하거나 뒤에 처지려 하는 이를 위한 것이다. (26–37)

모든 영혼은 자기가 얻은 것에 매여 있다. 다만 오른쪽의 사람들은 예외이다. 그들은 낙원에서 죄지은 자들에 대해 서로 물을 것이다. “무엇이 너희를 사까르에 들게 하였는가?” 그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는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있지 않았고, 가난한 이를 먹이지도 않았다. 우리는 헛된 말에 빠지는 자들과 함께 빠져들곤 하였고, 심판의 날을

거짓이라 하곤 하였다. 마침내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왔다." 그리하여 중재하는 이들의 중재는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38–48)

그들이 일깨움을 외면하니 어찌 된 일인가? 그들은 마치 사자에게서 달아나는, 놀란 나귀들과 같다. 아니, 그들은 저마다 펼쳐진 두루마리를 받기를 바란다.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내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코 아니다! 참으로 이것은 일깨움이다. 그러니 원하는 이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마음에 새기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경외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며, 용서하시기에 마땅한 분이다. (49–56)

# 75. 부활 (Al-Qiyāma)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부활의 날을 두고 맹세한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를 꾸짖는 영혼을 두고 맹세한다! 인간은 우리가 그의 뼈를 모으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손가락 끝까지도 되돌려 놓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 앞에 놓인 날들에도 계속 죄를 지으려 한다. 그는 묻는다. "부활의 날은 언제인가?" (1–6)

시선이 아찔해지고, 달이 어두워지며, 해와 달이 한데 모이면, 그날 인간은 말할 것이다. "어디로 달아나야 하는가?" 결코 아니다! 피난처는 없다. 그날 머물 곳은 오직 너의 주님께 있다. 그날 인간은 자기가 앞서 보낸 것과 뒤에 남겨 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아니,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 될 것이다. 그가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다 해도 그러하다. (7–15)

(예언자여) 그것을 서둘러 익히려고 네 혀를 움직이지 말라. 그것을 모으고 낭송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낭송하거든, 그 낭송을 따르라. 그런 다음 그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16–19)

결코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덧없이 지나가는 삶을 사랑하고, 내세는 내버려 둔다. 그날 어떤 얼굴들은 환히 빛나며 자기 주님을 바라볼 것이다. 그날 어떤 얼굴들은 일그러져, 등뼈를 부수는 재앙이 자기에게 닥치리라고 여길 것이다. (20–25)

결코 아니다! 영혼이 빗장뼈에 이르고, "누가 고칠 수 있는가?" 하는 말이 나오며, 그가 그것이 헤어짐임을 깨닫고, 다리가 다리에 휘감기면, 그날 몰려가는 곳은 너의 주님께이다. 그는 참되다고 하지도 않았고 예배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거짓이라 하고 등을 돌렸으며, 그런 다음 으스대며 자기 가족에게 갔다. (26–33)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다시,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인간은 자기가 아무 까닭 없이 내버려지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쏟아진 한 방울의 정액이 아니었는가? 그런 다음 그는 매달린 것이 되었고, 그분께서 그를 창조하시고 다듬으셨으며, 그에게서 남성과 여성의 두 짝을 만드셨다. 그런 분께서 죽은 이들을 살리실 수 없겠는가? (34–40)

# 76. 인간 (Al-Insān)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에게는, 그가 언급될 만한 것조차 아니었던 한때가 있지 않았는가? 참으로 우리는 섞인 한 방울로 인간을 창조하였다. 그를 시험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듣고 보는 이로 만들었다. 참으로 우리는 그에게 길을 보여 주었다. 그가 감사하는 이가 되든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든 그러하다. (1–3)

참으로 우리는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위해 사슬과 쇠고랑과 타오르는 불을 마련해 두었다. 의로운 이들은 장뇌를 섞은 잔으로 마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마시는 샘이며, 그들은 그것을 뜻대로 솟아 흐르게 한다. 그들은 서원을 지키고, 그 악이 널리 퍼질 날을 두려워한다. 또 그들은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가난한 이와 고아와 포로에게 음식을 준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위해 너희를 먹인다. 우리는 너희에게서 보답도 감사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주님에게서 오는, 찌푸리고 괴로운 날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의 악에서 그들을 지켜 주시고, 그들에게 환한 빛과 기쁨을 주실 것이다. 또 그들이 인내한 것에 대해 낙원과 비단으로 보상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침상에 기대어 있으며, 그곳에서 뜨거운 해도 매서운 추위도 보지 않을 것이다. 그 그늘은 그들 위에 가까이 드리워지고, 그 열매 송이들은 손이 쉽게 닿도록 낮게 내려올 것이다. 은그릇과 수정 잔들이 그들 사이에 돌려질 것이다. 그것은 은으로 된 수정이며, 그들은 그것을 뜻대로 헤아려 따른다. 그곳에서 그들은 생강을 섞은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곳에 있는, 살사빌이라 불리는 샘에서 온다. 늘 젊은 소년들이 그들 사이를 돌 것이며, 네가 그들을 보면 흩어 놓은 진주라고 여길 것이다. 네가 그곳을 보면, 지복과 큰 왕국을 볼 것이다. 그들은 고운 푸른 비단과 두꺼운 비단으로 된 옷을 입고, 은팔찌로 꾸며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깨끗한 마실 것을 주실 것이다. "참으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보상이며, 너희의 애씀은 제대로 보답받았다." (4–22)

(예언자여) 참으로 우리가 너에게 꾸란을 조금씩 차례로 내렸다. 그러니 너의 주님의 판결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그들 가운데 죄짓는 자나 부정하는 자에게 굽히지 말라. 아침저녁으로 너의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밤의 한때에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긴 밤 동안 그분을 찬양하라. (23–26)

참으로 이 사람들은 덧없이 지나가는 삶을 사랑하고, 무거운 날을 뒤로 내버려 둔다. 우리가 그들을 창조하였고 그들의 마디를 굳세게 하였다. 우리가 원하면, 그들과 같은 다른 이들로 그들을 모두 바꿀 수 있다. (27–28)

참으로 이것은 일깨움이다. 그러니 원하는 이는 자기 주님께로 가는 길을 택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너희는 원하지 못한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분은 원하시는 이를 당신의 자비 안으로 들이신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징벌을 마련해 두셨다. (29–31)

# 77. 보내지는 것들 (Al-Mursalāt)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잇달아 보내지는 것들을 두고, 세차게 휘몰아치는 것들을 두고, 널리 흩뿌리는 것들을 두고, 갈라 나누는 것들을 두고, 변명을 끊거나 경고하려고 일깨움을 전하는 것들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희에게 약속된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별들이 꺼지고, 하늘이 갈라지며, 산들이 흩날려 사라지고, 사도들이 정해진 때에 모이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어느 날로 미루어졌는가? 판가름의 날로 미루어졌다. 판가름의 날이 무엇인지, 무엇이 너에게 알려 주겠는가? 그날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 우리가 이전 사람들을 멸하지 않았는가? 그런 다음 우리는 나중 사람들이 그들의 뒤를 따르게 한다. 우리는 죄지은 자들을 이처럼 다룬다. 그날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 (1–19)

우리가 하찮은 액체로 너희를 창조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려진 기한까지 든든한 곳에 두었다. 그리고 우리가 헤아려 정하였다. 우리는 얼마나 훌륭하게 헤아려 정하는 이인가! 그날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 우리가 땅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을 품는 곳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위에 높이 솟은 굳건한 산들을 놓고, 너희에게 단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는가? 그날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 (20–28)

"너희가 거짓이라 하던 것으로 가라! 세 갈래로 솟는 그림자로 가라. 그것은 그늘도 되지 못하고, 불꽃에서 지켜 주지도 못한다." 참으로 그것은 성채처럼 큰 불티들을 내던지니, 마치 누런 낙타들과 같다. 그날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 이날은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날이며, 그들에게는 변명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그날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 "이것이 판가름의 날이다. 우리는 너희와 이전 사람들을 한데 모았다. 너희에게 계략이 있거든, 나에게 계략을 써 보라!" 그날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늘과 샘들 가운데 있고, 그들이 바라는 열매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던 일 때문에 마음껏 먹고 마시라."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이처럼 보상한다. 그날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 (29–45)

"잠시 먹고 즐기라. 참으로 너희는 죄지은 자들이다." 그날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 그들에게 "허리를 굽혀 절하라." 하고 말하면, 그들은 절하지 않는다. 그날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 그러면 이것 다음에 그들은 어떤 말을 믿겠는가? (46–50)

# 78. 큰 소식 (Al-Naba’)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무엇을 두고 서로 묻는가? 그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그 엄청난 소식에 대해서이다. 결코 아니다!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다시, 결코 아니다!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1–5)

우리가 땅을 요람으로 만들고, 산들을 말뚝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우리는 너희를 짝으로 창조하였고, 너희의 잠을 쉼으로 삼았으며, 밤을 덮개로 삼고, 낮을 살림을 꾸리는 때로 삼았다. 또 너희 위에 굳센 일곱 하늘을 지었고, 거기에 타오르는 등불을 두었다. 그리고 비구름에서 쏟아지는 물을 내렸다. 그것으로 곡식과 식물과 우거진 동산을 내려는 것이다. (6–16)

참으로 판가름의 날은 정해진 때이다. 그날 나팔이 불리고 너희는 떼를 지어 올 것이다. 하늘은 열려 문들이 되고, 산들은 움직여져 신기루가 될 것이다. 참으로 지옥은 숨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모든 한계를 넘는 자들이 돌아갈 곳이며, 그들은 그 안에서 오랜 세월을 머물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시원함도 마실 것도 맛보지 못하고, 다만 끓는 물과 곪은 고름만을 맛볼 것이다. 그것은 꼭 맞는 응보이다. 참으로 그들은 셈을 기대하지 않았고, 우리의 징표를 완전히 거짓이라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책에 헤아려 적어 두었다. “그러니 맛보라! 우리는 너희에게 징벌 말고는 아무것도 더해 주지 않을 것이다.” (17–30)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승리가 있다. 동산과 포도밭이 있고, 나이가 같은 꽃다운 벗들이 있으며, 가득 찬 잔이 있다. 그곳에서 그들은 헛된 말도 거짓말도 듣지 않는다. 그것은 너의 주님에게서 오는 보상이며, 넉넉히 헤아려 주시는 선물이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의 주님, 자비로우신 분이며, 아무도 그분께 말을 건넬 힘이 없다. 그날 영과 천사들이 줄지어 설 것이다. 자비로우신 분께서 허락하시고 옳은 말을 하는 이 말고는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 그날은 참된 날이다. 그러니 원하는 이는 자기 주님께로 돌아갈 길을 택하라. 참으로 우리는 가까운 징벌을 너희에게 경고하였다. 그날 사람은 자기 두 손이 앞서 보낸 것을 볼 것이고, 진리를 부정한 자는 말할 것이다. “내가 흙이었더라면!”[53] (31–40)

---

[53] 안 나바 장: 큰 소식
안 나바 장: 창조, 하나님의 장부,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

# 79. 뽑아내는 이들 (Al-Nāziʿāt)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칠게 뽑아내는 이들을 두고, 부드럽게 끌어내는 이들을 두고, 헤엄치듯 미끄러져 가는 이들을 두고, 앞다투어 앞서 가는 이들을 두고, 일을 다스리는 이들을 두고 맹세한다. 그날 첫 번째 진동이 모든 것을 뒤흔들고, 두 번째 진동이 그 뒤를 따를 것이다. 그날 심장들은 두근거리고, 눈들은 내리깔릴 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가 정말로 처음 상태로 되돌려진단 말인가? 우리가 삭은 뼈가 된 뒤에도 그러한가?" 그들은 말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손해 보는 돌아옴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 한 번의 외침뿐이며, 그들은 곧 훤히 트인 땅 위에 있게 될 것이다. (1–14)

무사의 이야기가 너에게 이르렀는가? 그의 주님께서 성스러운 골짜기 뚜와에서 그를 부르셨다. "파라오에게 가라. 그는 모든 한계를 넘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너는 스스로를 깨끗이 하기를 바라는가? 그리고 내가 너를 너의 주님께로 인도하여, 네가 그분을 경외하게 되기를 바라는가?'" 그런 다음 그는 그에게 큰 징표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그는 거짓이라 하고 거역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등을 돌려 서둘러 떠났고, 사람들을 모아 놓고 선포하였다. 그가 말했다. "내가 너희의 가장 높은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세와 현세의 본보기가 되는 징벌로 그를 붙잡으셨다. 참으로 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를 위한 교훈이 있다. (15–26)

너희가 창조하기에 더 어려운가, 아니면 그분께서 지으신 하늘이 더 어려운가? 그분은 그 지붕을 높이 올리시고 그것을 가지런히 하셨다. 그분은 그 밤을 어둡게 하시고 그 낮의 빛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그 뒤에 땅을 펼치시고, 거기에서 그 물과 그 풀밭을 내셨으며, 산들을 굳게 세우셨다. 그것은 너희와 너희의 가축을 위한 양식이다. 그런 다음 큰 재앙이 올 때, 그날 사람은 자기가 애쓴 모든 것을 기억할 것이며, 타오르는 불은 보는 모든 이에게 드러날 것이다. 그때 모든 한계를 넘고 현세의 삶을 더 좋아한 자에게는, 타오르는 불이 그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 영혼을 욕망에서 막은 이에게는, 낙원이 그의 거처가 될 것이다. (27–41)

(예언자여) 그들이 너에게 그 시각에 대해 묻는다. "그것은 언제 닻을 내리는가?" 그러나 네가 그것을 말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마지막 끝은 너의 주님께 있다. 너는 다만 그것을 두려워하는 이를 위한 경고자일 뿐이다. 그들이 그것을 보는 날, 그들은 마치 저녁 한때나 그 아침 한때밖에 머물지 않은 것 같을 것이다. (42–46)

# 80. 얼굴을 찌푸렸다 (‘Abasa)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얼굴을 찌푸리고 돌아섰다. 눈먼 이가 그에게 왔기 때문이다. 무엇이 너에게 알려 주겠는가? 그가 깨끗해졌을지도 모르고, 마음에 새겨 그 일깨움이 그에게 이로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스스로 넉넉하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네가 온 마음을 기울인다. 그가 깨끗해지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네 탓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애써 너에게 달려온 이는, 네가 그를 소홀히 한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참으로 이것은 일깨움이다. 그러니 원하는 이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 그것은 존귀한 책장들에 적혀 있고, 높이 들려 깨끗이 간직되며, 고귀하고 의로운 서기들의 손에 있다. (1–16)

인간은 망하라! 그는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가! 그분께서 무엇으로 그를 창조하셨는가? 한 방울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의 분량을 정하셨다. 그런 다음 그에게 길을 쉽게 해 주셨다. 그런 다음 그를 죽게 하시고 무덤에 두셨다. 그런 다음 원하실 때 그를 다시 일으키신다. 결코 아니다! 그는 그분께서 명하신 것을 아직 다하지 않았다. 인간은 자기의 먹을거리를 살펴보라. 우리가 물을 넉넉히 쏟아붓고, 그런 다음 땅을 갈라 터뜨려, 그 안에서 곡식을 자라게 하였다. 또 포도와 푸른 풀과, 올리브와 대추야자와, 나무가 빽빽한 동산과, 열매와 목초를 자라게 하였다. 그것은 너희와 너희의 가축을 위한 양식이다. (17–32)

그런 다음 귀를 찢는 굉음이 올 때, 그날 사람은 자기 형제에게서 달아나고,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날 그들은 저마다 자기 일만으로도 벅찰 것이다. 그날 어떤 얼굴들은 환히 빛나며, 웃고 기뻐할 것이다. 그날 어떤 얼굴들은 먼지를 뒤집어쓰고, 어둠이 그것을 덮을 것이다. 그들이 진리를 부정하고 못된 짓을 하던 자들이다. (33–42)

# 81. 감겨 어두워짐 (Al-Takwīr)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가 감겨 어두워질 때, 별들이 떨어져 빛을 잃을 때, 산들이 움직여질 때, 새끼 밴 암낙타들이 버려질 때, 들짐승들이 한데 모일 때, 바다들이 끓어오를 때, 영혼들이 짝지어질 때, 산 채로 묻힌 여자아이가 무슨 죄로 죽임을 당하였는지 물음을 받을 때, 책장들이 펼쳐질 때, 하늘이 벗겨질 때, 지옥이 타오르게 될 때, 낙원이 가까이 다가올 때, 그때 모든 영혼은 자기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알게 될 것이다. (1–14)

그러니 나는 물러가는 별들을 두고, 제 길을 달리다가 숨는 별들을 두고, 다가오는 밤을 두고, 숨 쉬기 시작하는 새벽을 두고 맹세한다. 참으로 이것은 고귀한 사자의 말이다. 그는 힘을 지녔고, 권좌의 주님 곁에서 지위가 굳건하며, 그곳에서 따름을 받고 믿음직하다. 너희의 벗은 미친 사람이 아니다. 참으로 그는 분명한 지평선에서 그를 보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인색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쫓겨난 사탄의 말이 아니다. (15–25)

그러면 너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온 세상을 위한 일깨움일 뿐이다. 너희 가운데 곧게 걷기를 원하는 이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너희는 원하지 못한다. (26–29)

# 82. 쪼개짐 (Al-Infiṭār)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이 갈라질 때, 별들이 흩어질 때, 바다들이 터져 넘칠 때, 무덤들이 뒤집힐 때, 영혼은 저마다 자기가 앞서 보낸 것과 뒤에 남겨 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아, 너그러우신 너의 주님에 대해 무엇이 너를 속였는가? 그분은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다듬으시며, 너를 고르게 맞추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너를 짜 맞추신 분이다. 결코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심판을 거짓이라 한다. 그러나 참으로 너희 위에는 지키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고귀한 기록자들이며, 너희가 하는 것을 무엇이든 안다. 참으로 선한 이들은 지복 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못된 짓을 하던 자들은 타오르는 불 속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심판의 날에 그 안에 들어가 불탈 것이며, 그곳을 떠나 있지 못할 것이다. 심판의 날이 무엇인지, 무엇이 너에게 알려 주겠는가? 다시, 심판의 날이 무엇인지, 무엇이 너에게 알려 주겠는가? 그날 어떤 영혼도 다른 영혼을 위해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 그날 모든 명령은 하나님께 속한다. (1–19)

# 83. 되를 속이는 자들 (Al-Muṭaffifīn)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를 속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되어 받을 때에는 가득 채워 받으려 하고, 사람들에게 되어 주거나 달아 줄 때에는 모자라게 준다. 그런 자들은 자기들이 엄청난 날을 위해 다시 일으켜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날 사람들은 만유의 주님 앞에 설 것이다. (1–6)

결코 아니다! 참으로 못된 짓을 하던 자들의 책은 싯진 안에 있다. 싯진이 무엇인지, 무엇이 너에게 알려 주겠는가? 그것은 새겨 적은 책이다. 그날 거짓이라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 그들은 심판의 날을 거짓이라 하는 자들이다. 한계를 넘고 죄짓는 자 말고는 아무도 그것을 거짓이라 하지 않는다. 우리의 징표가 그에게 낭송되면, 그는 말한다. "옛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얻어 온 것이 그들의 마음에 녹처럼 슬었다. 결코 아니다! 참으로 그날 그들은 자기 주님에게서 가려질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은 타오르는 불 속에서 불탈 것이다. 그런 다음 이런 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거짓이라 하던 것이다." (7–17)

결코 아니다! 참으로 선한 이들의 책은 일리윤 안에 있다. 일리윤이 무엇인지, 무엇이 너에게 알려 주겠는가? 그것은 새겨 적은 책이며, 하나님 가까이 있는 이들이 그것을 지켜본다. 참으로 선한 이들은 지복 속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침상 위에서 둘러볼 것이다. 너는 그들의 얼굴에서 지복의 빛을 알아볼 것이다. 그들은 봉해 둔 맑은 술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 봉인은 사향이다. 그러니 앞다투는 이들은 그것을 위해 앞다투라. 그것에는 타스님이 섞여 있다. 그것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이들이 마시는 샘이다. (18–28)

참으로 죄지은 자들은 믿는 이들을 비웃곤 하였다. 그들 곁을 지날 때면 서로 눈짓을 하였고, 자기 사람들에게 돌아갈 때면 우스갯소리를 하며 돌아갔다. 또 그들을 보면 "참으로 이 사람들은 길을 잃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지키는 이로 보냄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 오늘은 믿는 이들이 진리를 부정한 자들을 비웃는다. 그들은 침상 위에서 둘러볼 것이다. 진리를 부정한 자들이 자기들이 하던 일로 보답받았는가? (29–36)

# 84. 갈라짐 (Al-Inshiqāq)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이 갈라지고,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자기 주님께 귀를 기울일 때, 땅이 평평하게 펼쳐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내던져 비워지며,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자기 주님께 귀를 기울일 때, 인간아, 참으로 너는 힘써 애쓰며 너의 주님께로 가고 있고, 너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기 책을 오른손에 받는 이는 쉬운 셈으로 셈을 받고, 기뻐하며 자기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자기 책을 등 뒤로 받는 자는 파멸을 부르짖고, 타오르는 불 속에서 불탈 것이다. 참으로 그는 자기 사람들 가운데서 기뻐하며 지냈고, 자기가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아니다. 참으로 그의 주님께서 늘 그를 보고 계셨다. 그러니 나는 저녁노을을 두고, 밤과 그것이 감싸 모으는 것을 두고, 가득 차오른 달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는 반드시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옮겨 갈 것이다. (1–19)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인가? 꾸란이 그들에게 낭송되어도 그들은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거짓이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속에 쌓아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 그러니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징벌의 소식을 전하라. 다만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은 예외이다. 그들에게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보상이 있다. (20–25)

# 85. 별자리들 (Al-Burūj)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별자리들이 솟아 있는 하늘을 두고, 약속된 그날을 두고, 지켜보는 이와 지켜보이는 것을 두고 맹세한다. 구덩이의 사람들은 망하라! 그것은 땔감으로 가득한 불이었다. 그들은 그 곁에 앉아, 자기들이 믿는 자들에게 하는 짓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그들에게 품은 원한은 오직, 그들이 전능하시고 모든 찬미를 받으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뿐이었다. 하늘과 땅의 통치권이 그분께 속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증인이시다. (1–9)

참으로 믿는 남자들과 믿는 여자들을 박해하고도 뉘우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징벌이 있고, 불타는 징벌이 있다. 참으로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낙원이 있다. 그것이 큰 승리이다. 참으로 너의 주님의 붙잡으심은 혹독하다. 참으로 그분은 처음 시작하시고 되돌리시는 분이다. 그분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며, 권좌의 주님, 영광스러우신 분, 뜻하시는 것을 무엇이든 행하시는 분이다. 군대들의 이야기가 너에게 이르렀는가? 파라오와 사무드의 이야기이다. 그런데도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거짓이라 하기를 고집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뒤에서 그들을 에워싸고 계신다. (10–20)

아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꾸란이며, 잘 간직된 판 안에 있다.[54] (21–22)

[54] 꾸란은 왜 한 장에 별자리의 이름을 붙였는가?

# 86. 밤에 찾아오는 것 (Al-Ṭāriq)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과 밤에 찾아오는 것을 두고 맹세한다. 밤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너에게 알려 주겠는가? 그것은 꿰뚫는 빛을 내는 별이다. 자기를 지키는 이가 없는 영혼은 하나도 없다. (1–4)

그러니 인간은 자기가 무엇으로 창조되었는지 살펴보라. 그는 솟구치는 액체로 창조되었다. 그것은 등뼈와 갈비뼈 사이에서 나온다. 참으로 그분은 그를 되돌려 놓으실 수 있다. 그날 비밀들이 드러나고, 그에게는 아무 힘도 없고 돕는 이도 없을 것이다. (5–10)

비를 되돌려 주는 하늘을 두고, 싹이 터 갈라지는 땅을 두고 맹세한다. 참으로 이것은 판가름하는 말씀이며, 농담이 아니다. 참으로 그들은 계략을 꾸미고 있고, 나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니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말미를 주라. 잠시 그들을 내버려 두라. (11–17)

# 87. 가장 높으신 분 (Al-Aʿlā)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높으신 너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은 창조하시고 고르게 다듬으신 분이며, 헤아려 정하시고 인도하신 분이다. 그분은 풀밭을 내시고, 그런 다음 그것을 검게 시든 지푸라기로 만드신 분이다. 우리가 너에게 낭송하게 할 것이니, 너는 잊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외이다. 참으로 그분은 드러난 것과 숨겨진 것을 아신다. 우리는 너를 쉬운 길로 쉽게 이끌 것이다. 그러니 일깨움이 이로움이 된다면 일깨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는 마음에 새길 것이다. 그러나 가장 불행한 자는 그것을 멀리할 것이다. 그는 가장 큰 불에서 불탈 자이며, 그 안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할 것이다. 스스로를 깨끗이 하고, 자기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이는 번영한다. 그러나 너희는 현세의 삶을 더 좋아한다. 내세가 더 좋고 더 오래가는데도 그러하다. 참으로 이것은 이전의 경전들, 곧 이브라힘과 무사의 경전들 안에 있다. (1–19)

# 88. 뒤덮는 일 (Al-Ghāshiya)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뒤덮는 그 일의 이야기가 너에게 이르렀는가? 그날 어떤 얼굴들은 낮아져 있고, 힘겹게 일하며 지쳐 있을 것이다. 그들은 뜨거운 불 속에서 불타고, 펄펄 끓는 샘에서 마시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쓰고 가시 돋친 풀 말고는 먹을 것이 없으니, 그것은 살찌우지도 못하고 굶주림을 채워 주지도 못한다. 그날 어떤 얼굴들은 환히 빛나고, 자기들의 애씀에 흡족해하며, 높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헛된 말을 듣지 않는다. 그 안에는 흐르는 샘이 있다. 그 안에는 높이 올려진 침상이 있고, 놓여 있는 잔들이 있으며, 줄지어 놓인 방석과 펼쳐 놓은 깔개가 있다. 그들은 낙타를 보지 않는가? 그것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하늘을 보지 않는가? 그것이 어떻게 높이 들렸는지를. 산들을 보지 않는가? 그것이 어떻게 굳게 세워졌는지를. 땅을 보지 않는가? 그것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1–20)

그러니 일깨우라. 너는 다만 일깨우는 이일 뿐이다. 너는 그들을 다스리는 이가 아니다. 그러나 등을 돌리고 진리를 부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징벌로 벌하실 것이다. 참으로 그들의 귀착지는 우리에게 있다. 그런 다음 그들의 셈도 참으로 우리에게 있다. (21–26)

# 89. 새벽 (Al-Fajr)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두고, 열 밤을 두고, 짝수와 홀수를 두고, 지나가는 밤을 두고 맹세한다. 분별 있는 이에게 이 안에 맹세가 있지 않은가? (1–5)

너의 주님께서 아드를 어떻게 하셨는지 너는 보지 않았는가? 높은 기둥을 지닌 이람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온 땅에서 그와 같은 것은 창조된 적이 없었다. 또 골짜기에서 바위를 깎아 낸 사무드를, 그리고 말뚝의 주인 파라오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들은 모두 그 땅에서 한계를 넘었고, 그 안에 부패를 많이 퍼뜨렸다. 그래서 너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징벌의 채찍을 쏟아부으셨다. 참으로 너의 주님은 늘 지켜보고 계신다. (6–14)

인간은, 그의 주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그를 시험하실 때마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하셨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의 양식을 빠듯하게 하시어 그를 시험하실 때마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업신여기셨다." 하고 말한다. 결코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고아를 귀하게 대하지 않고, 가난한 이를 먹이도록 서로 권하지도 않는다. 너희는 유산을 탐욕스럽게 삼키고, 재산을 몹시 사랑한다. 결코 아니다! 땅이 부서지고 또 부서져 가루가 되고, 너의 주님께서 오시며, 천사들이 줄지어 겹겹이 서고, 그날 지옥이 가까이 끌려올 때, 그날 인간은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는 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는 말할 것이다. "내가 나의 삶을 위해 좋은 것을 앞서 보냈더라면!" 그날 그분께서 징벌하시듯이 징벌할 이는 아무도 없고, 그분께서 묶으시듯이 묶을 이도 아무도 없다. "평안한 영혼아, 기뻐하고 기쁨을 받으며 너의 주님께 돌아오라. 나의 종들 가운데 들어오고, 나의 낙원에 들어오라." (15–30)

# 90. 도시 (Al-Balad)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 도시를 두고 맹세한다. (예언자여) 너는 이 도시에서 매임 없이 머무는 이이다. 그리고 낳은 이와 그가 낳은 것을 두고 맹세한다. 참으로 우리는 인간을 고생 속에 창조하였다. 그는 아무도 자기를 누를 힘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말한다. "나는 많은 재산을 써 버렸다." 그는 아무도 자기를 보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그에게 두 눈과, 혀 하나와 두 입술을 만들어 주고, 두 큰길을 그에게 보여 주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그는 가파른 길에 들어서려 하지 않았다. 가파른 길이 무엇인지, 무엇이 너에게 알려 주겠는가? 그것은 종을 풀어 주는 것이다. 또는 굶주린 날에 가까운 친척인 고아나 흙바닥에 누운 가난한 이를 먹이는 것이다. 그런 다음 믿고, 서로 인내를 권하며, 서로 자비를 권하는 이들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들이 오른쪽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징표를 거짓이라 하는 자들은 왼쪽의 사람들이다. 그들 위에는 닫아 건 불이 있다. (1–20)

# 91. 해 (Al-Shams)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와 그 아침 햇살을 두고, 그 뒤를 따르는 달을 두고, 해를 드러내는 낮을 두고, 해를 덮는 밤을 두고, 하늘과 그것을 지으신 분을 두고, 땅과 그것을 펼치신 분을 두고, 영혼과 그것을 다듬으신 분을 두고 맹세한다. 그분은 그것에 그 못됨과 그 하나님 경외를 일러 주셨다. 그것을 깨끗이 하는 이는 참으로 번영하였고, 그것을 더럽혀 묻어 버리는 자는 참으로 실패하였다. 사무드는 자기들의 횡포로 거짓이라 하였다. 그때 그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자가 나섰다. 하나님의 사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암낙타이다. 그 물 마실 차례를 지키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거짓말쟁이라 하고, 그 다리 힘줄을 끊었다. 그래서 그들의 주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뭉개 버리시고 그들을 고르게 쓸어버리셨다. 그분은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으신다. (1–15)

# 92. 밤 (Al-Layl)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덮어 가리는 밤을 두고, 환히 드러나는 낮을 두고,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한다. 참으로 너희의 애씀은 갖가지이다. 베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장 좋은 보상을 참되다고 하는 이는, 우리가 그를 쉬운 길로 쉽게 이끌 것이다. 그러나 인색하게 굴고 스스로 넉넉하다고 여기며 가장 좋은 보상을 거짓이라 하는 자는, 우리가 그를 어려운 길로 쉽게 이끌 것이다. 그가 굴러떨어질 때, 그의 재산은 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1–11)

참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리고 참으로 나중 것도 처음 것도 우리에게 속한다. 그러니 나는 타오르는 불을 너희에게 경고하였다. 가장 불행한 자 말고는 아무도 그 안에서 불타지 않을 것이다. 그는 거짓이라 하고 등을 돌린 자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이는 그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될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깨끗이 하려고 자기 재산을 주는 이이다. 그것은 누가 그에게 베푼 은혜를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가장 높으신 자기 주님의 얼굴을 구하려는 것이다. 그는 반드시 흡족해할 것이다. (12–21)

# 93. 아침 햇살 (Al-Ḍuḥā)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침 햇살을 두고, 고요해진 밤을 두고 맹세한다. 너의 주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셨고, 미워하지도 않으신다. 참으로 나중이 너에게 처음보다 더 좋다. 너의 주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주실 것이고, 너는 흡족해할 것이다. 그분께서 네가 고아임을 보시고 너에게 쉴 곳을 주지 않으셨는가? 네가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을 보시고 너를 인도하지 않으셨는가? 네가 궁핍함을 보시고 너를 넉넉하게 하지 않으셨는가? (1–8)

그러니 고아를 억누르지 말고, 청하는 이를 내쫓지 말며, 너의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라. (9–11)

# 94. 가슴을 열어 줌 (Al-Shar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를 위해 네 가슴을 열어 주지 않았는가? 그리고 네 등을 무겁게 짓누르던 너의 짐을 너에게서 내려 주고, 너의 이름을 높여 주지 않았는가? 참으로 어려움과 함께 쉬움이 있다. 참으로 어려움과 함께 쉬움이 있다. 그러니 네가 일을 마치거든 다시 힘써 일하고, 간절히 너의 주님께로 향하라. (1–8)

# 95. 무화과 (Al-Tīn)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화과와 올리브를 두고, 시나이 산을 두고, 이 안전한 도시를 두고 맹세한다. 참으로 우리는 인간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였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를 낮은 것들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되돌렸다. 다만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은 예외이다. 그들에게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보상이 있다. 그러면 이 뒤에 무엇이 너로 하여금 심판을 거짓이라 하게 하는가? 하나님이야말로 판결하는 이들 가운데 가장 공정하신 분이 아니신가? (1–8)

# 96. 매달린 것 (Al-ʿAlaq)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읽어라! 창조하신 너의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은 매달린 것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읽어라! 너의 주님은 지극히 너그러우신 분이다. 그분은 붓으로 가르치셨고, 인간에게 그가 알지 못하던 것을 가르치셨다. (1–5)

결코 아니다! 참으로 인간은 스스로 넉넉하다고 여기면 한계를 넘는다. 참으로 돌아갈 곳은 너의 주님께 있다. 한 종이 예배할 때 그를 막는 자를 너는 보았는가? 너는 생각해 보았는가? 그가 인도 위에 있는지, 또는 하나님 경외를 명하는지를. 너는 생각해 보았는가? 그가 거짓이라 하고 등을 돌리는지를. 그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지 못하는가? 결코 아니다! 그가 그만두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의 앞머리를 붙잡아 끌 것이다. 그것은 거짓말하고 죄짓는 앞머리이다. 그러면 그가 자기 패거리를 불러 보게 하라. 우리는 지옥을 지키는 이들을 부를 것이다. 결코 아니다! 그에게 순종하지 말고, 엎드려 절하며 가까이 다가가라. (6–19)

# 97. 영광의 밤 (Al-Qadr)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우리는 영광의 밤에 그것을 내렸다. 영광의 밤이 무엇인지, 무엇이 너에게 알려 주겠는가? 영광의 밤은 천 달보다 더 좋다. 그 밤에 천사들과 영이 그들 주님의 허락으로 모든 명령을 가지고 내려온다. 그 밤은 새벽이 밝을 때까지 평화이다. (1–5)

# 98. 분명한 증거 (Al-Bayyina)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서의 백성과 다신교도 가운데 진리를 부정한 자들은, 분명한 증거가 그들에게 올 때까지 떠나지 않으려 하였다. 그 증거는 깨끗이 간직된 책장들을 낭송하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도이다. 그 안에는 올바른 기록들이 있다. 성서를 받은 자들은 분명한 증거가 그들에게 온 뒤에야 갈라졌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종교를 오직 그분께만 바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지키며 정해진 희사를 바치라는 명령만을 받았다. 그것이 올바른 종교이다. 참으로 성서의 백성과 다신교도 가운데 진리를 부정한 자들은 지옥의 불 속에 있으며, 그곳에서 영원히 머문다. 그들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나쁜 자들이다. (1–6)

참으로 믿고 선을 행하는 이들, 그들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좋은 이들이다. 그들 주님 곁에 있는 그들의 보상은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 영원한 지복의 낙원이며,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머문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도 그분을 기뻐한다. 그것은 자기 주님을 경외하는 이를 위한 것이다. (7–8)

# 99. 진동 (Al-Zalzala)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땅이 그 마지막 진동으로 흔들리고, 땅이 그 짐들을 내던지며, 인간이 “땅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말할 때, 그날 땅은 그 소식을 이야기할 것이다. 너의 주님께서 그것에 일러 주셨기 때문이다. 그날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보려고 흩어진 무리로 나올 것이다. 티끌 한 점의 무게만큼 선을 행한 이는 그것을 보게 되고, 티끌 한 점의 무게만큼 악을 행한 자도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1–8)

# 100. 내달리는 말들 (Al-ʿĀdiyāt)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숨을 헐떡이며 내달리는 말들을 두고, 불꽃을 튀기는 말들을 두고, 동틀 녘에 덮치는 말들을 두고 맹세한다. 그들은 먼지를 일으키며 적의 무리 한가운데로 뛰어든다. 참으로 인간은 자기 주님께 은혜를 모른다. 참으로 그 자신이 그것의 증인이다. 그리고 참으로 그는 재물에 대한 사랑이 지독하다. (1–8)

그는 알지 못하는가? 무덤에 있는 것이 뒤집혀 나오고, 가슴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 그날 그들의 주님께서 그들을 다 알고 계심을. (9–11)

# 101. 내리치는 재앙 (Al-Qāriʿa)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리치는 재앙! 내리치는 재앙이 무엇인가? 내리치는 재앙이 무엇인지, 무엇이 너에게 알려 주겠는가? 그날 사람들은 흩어진 나방과 같고, 산들은 타 놓은 양털과 같을 것이다. 저울이 무거운 이는 흡족한 삶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저울이 가벼운 자는 그의 돌아갈 품이 구렁이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너에게 알려 주겠는가? 그것은 뜨겁게 타는 불이다. (1–11)

# 102. 더 많이 가지려는 다툼 (Al-Takāthur)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이 가지려는 다툼이 너희를 딴 데로 돌려놓았다. 마침내 너희는 무덤을 찾게 된다. 결코 아니다! 너희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다시, 결코 아니다! 너희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결코 아니다! 너희가 확실한 지식으로 알기만 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지옥을 볼 것이다. 그런 다음 너희는 반드시 확실한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런 다음 그날 너희는 누리던 복에 대해 반드시 물음을 받을 것이다. (1–8)

# 103. 기우는 시간 (Al-ʿAṣr)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우는 시간을 두고 맹세한다. 참으로 인간은 손실 속에 있다. 다만 믿고 선을 행하며, 서로 진리를 권하고 서로 인내를 권하는 이들은 예외이다. (1–3)

# 104. 헐뜯는 자 (Al-Humaza)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헐뜯고 험담하는 모든 자에게 화가 있으라! 그는 재물을 모으고 그것을 세고 또 세며, 자기 재물이 자기를 영원히 살게 하리라고 생각한다. 결코 아니다! 그는 반드시 부수는 것 속에 던져질 것이다. 부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너에게 알려 주겠는가? 그것은 지펴 놓은 하나님의 불이며, 마음 위로 치솟는다. 참으로 그것은 길게 뻗은 기둥들 안에서 그들 위에 닫아 걸릴 것이다. (1–9)

# 105. 코끼리 (Al-Fīl)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의 주님께서 코끼리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너는 보지 않았는가? 그분께서 그들의 계략을 허사로 만들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새 떼를 보내시어, 구운 진흙 돌을 그들에게 던지게 하시고, 그들을 먹어 치운 짚처럼 만드셨다.[55] (1–5)

[55] **1517 년 제다 포위전: 포르투갈, 홍해, 그리고 성스러운 두 도시의 방어**
**"주님이시여, 이 고을을 안전하게 해 주소서": 꾸란 14:35–41 에 대한 역사적·신학적 주석 –**
**이브라힘에서 2026 년 메카 방위 동맹에 이르기까지, 세기별로 살펴본 메카의 안전의 역사와 함께**

# 106. 꾸라이시 (Quraysh)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꾸라이시의 안전을 위하여, 겨울과 여름의 여정에서 그들이 누리는 안전을 위하여, 그들은 이 집의 주님을 섬기게 하라. 그분은 굶주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두려움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하신 분이다. (1–4)

# 107. 작은 도움 (Al-Māʿūn)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거짓이라 하는 자를 너는 보았는가? 그는 고아를 밀쳐 내고, 가난한 이를 먹이는 일을 권하지 않는 자이다. 그러니 예배하면서도 자기 예배에 무심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작은 도움조차 거절하는 자들이다.[56] (1–7)

[56] 알 마운 장 – 작은 도움

# 108. 넘치는 은혜 (Al-Kawthar)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우리는 너에게 넘치도록 주었다. 그러니 너의 주님께 예배하고 제물을 바치라. 참으로 너를 미워하는 자, 그가 끊어진 자이다. (1–3)

# 109.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 (Al-Kāfirūn)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라,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여, 나는 너희가 섬기는 것을 섬기지 않는다. 너희도 내가 섬기는 분을 섬기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섬겨 온 것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내가 섬기는 분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너희의 종교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종교가 있다.”[57] (1–6)

[57] 꾸란의 스물세 해에 걸친 흠 없는 증언: “말하라”와 하나님의 음성

# 110. 도우심 (Al-Naṣr)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가 오고, 사람들이 떼를 지어 하나님의 종교에 들어오는 것을 네가 보거든, 찬미로 너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용서를 구하라. 참으로 그분은 뉘우침을 잘 받아 주시는 분이다. (1–3)

# 111. 대추야자 섬유 (Al-Masad)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부 라합의 두 손은 망하라. 그도 망하라! 그의 재산과 그가 얻은 것은 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불꽃이 이는 불 속에서 불탈 것이다. 땔나무를 나르는 그의 아내도 그러할 것이며, 그 여자의 목에는 대추야자 섬유로 꼰 밧줄이 있을 것이다. (1–5)

# 112. 순수한 믿음 (Al-Ikhlāṣ)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라,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의지하는 영원하신 분이다. 그분은 낳지도 않으셨고 태어나지도 않으셨다. 그분과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58] (1–4)

[58] 꾸란의 스물세 해에 걸친 흠 없는 증언: “말하라”와 하나님의 음성

# 113. 밝아 오는 새벽 (Al-Falaq)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라, “나는 새벽의 주님께 보호를 구한다. 그분께서 창조하신 것의 악에서, 깊어 가는 어둠의 악에서, 매듭에 입김을 부는 자들의 악에서, 그리고 시샘하는 자가 시샘할 때의 악에서 구한다.”[59] (1–5)

[59] 꾸란의 스물세 해에 걸친 흠 없는 증언: “말하라”와 하나님의 음성

# 114. 사람들 (Al-Nās)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라, “나는 사람들의 주님, 사람들의 왕, 사람들의 신께 보호를 구한다. 슬며시 물러났다가 속삭이는 자의 악에서 구한다. 그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속삭이는 자이며, 진 가운데에도 있고 사람들 가운데에도 있다.”[60] (1–6)

[60] 꾸란의 스물세 해에 걸친 흠 없는 증언: “말하라”와 하나님의 음성